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이정원·이재희·김자연·우석진·김태우



연구보고 2022-20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저 자

이정원, 이재희, 김자연, 우석진, 김태우

연 구 진

연구책임자 이 정 원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이 재 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 자 연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우 석 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김 태 우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2-20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발행일 2022년 12월
발행인 박상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육아정책연구소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사)아름다운사람들복지회 02)6948-9650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6865-037-4 [9333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이 연구는 5개년 연속과제인 ‘KICCE 소비실태조사’의 5차년도 연구로,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활용 실태를 파악하여,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본 연속과제는 주요 연구 내용이자 연구 방법인 ‘KICCE 소비실태조사’를 매해 실시하여 매년 육아 가구의 소득 및 생활비, 양육비 지출, 육아서비스 이용 경향을 파악하여 육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 지원 정책의 개선 방안 도출에 노력해 왔다.

2022년 연구인 5차년도 연구에서는 특히 본 연속과제의 3차년도(2020년) 연구 수행중 발생한 ‘코로나19’가 육아가구의 돌봄 공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반일제 이상 기관 미등원 경험, 개별돌봄서비스 이용의 변화 등에 대한 설문을 추가해 살펴보았으며, 영아기 집중투자의 경향으로 영아 양육 가구에 확대된 현금 지원이 생활비 지출 비목과 양육비용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5차년도 연구에서는 그간의 연속과제 수행을 통해 축적된 1~4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육아가구의 특성별 소득 및 지출 시계열 분석’과 ‘코로나의 확산이 양육비용 지출에 미친 효과’를 주제로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매년도 횡단 분석 결과를 연도별 비교를 통해 파악해 온 육아가구의 소득 및 소비 지출의 경향과 코로나19가 육아가구에 미친 영향을 직접적인 종단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KICCE 소비실태조사는 표본 설계에 있어 연동패널 방식을 준용하여 2018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동일 표본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코로나19, 물가 변동 등 사회적 변화에 의한 육아가구의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변화를 고찰하기에 매우 적합한 조사로 본 조사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와 보고서에 제시되는 결과는 정책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연구와 본 연구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의 가치가 인정받아 추후 5년간 후속연구를 통해 유사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음은 매우 큰 성과로 귀중한 데이터 축적이 지속될 수 있게 되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조사 수행과 질 높은 데이터의 구축은 아낌없이 애정 어린 조언을 해주신 전문가를 비롯해 조사업체, 패널 응답자, 연구진의 중

합적인 수고에 의한 것임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지만, 특히 까다롭고 민감한 설문 조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주신 패널 응답자들에게 더욱 감사드린다. 조사 전반에 걸쳐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까다로운 연구를 열성을 다하여 수행해주신 연구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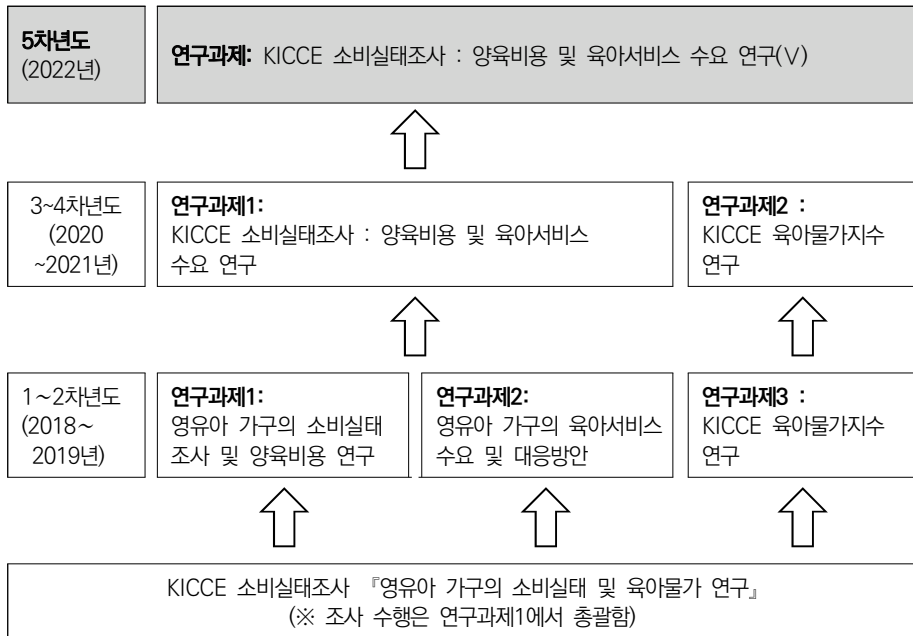
2022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 상 희



일러두기

- 본 연구는 5년 연속 연구로 보고서의 구성과 연구 수행 체계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의 내용을 제시함.
- 본 연구가 포함된 총괄과제의 제목은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 및 육아물가 연구』로 1,2차년도까지는 3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고, 3,4차년도는 세부과제 2개를 한 개의 과제로 통합축소하여 본 연구인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와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의 2개 세부과제로 수행되었음. 5차년도에는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가 종료되어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의 1개 세부과제로 수행함.
- 1차년도에 총 3개의 세부과제로 시작된 연구이나 3차년도부터 세부과제의 통합을 통해 2개로 정비된 후, 5차년도에 1개 세부과제가 종료되어 최종 1개과제로 5차년도 과제를 종료함.
- KICCE 소비실태조사는 패널 조사 성격의 조사로, 1차년도 원표본을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하며, 추적 실패되는 사례수만큼 대체표본을 표집하여 원표본의 숫자를 유지하는 한편, 매해 신생아 표본을 신규 표집함으로써 해마다 조사표본의 수가 크게 확대되는 형태로 지속적인 조사예산의 확대가 필요하였으나 연구 예산상의 이유로 축소조정됨.
- 1차년도 표집된 영유아 가구를 2차년도에는 초등1학년까지, 3차년도에는 초등2학년까지 추적 조사하였으나, 신규 표집되어야 하는 신생아 표본을 포함한 사례수의 급격한 확대를 감당할 조사비 확보의 부족으로 4차년도에는 초등1학년까지 추적조사로 축소하였으며, 5차년도에는 1차년도와 동일한 포맷으로 영유아 가구에 한정하여 조사를 실시함.

[연도별 연구의 구성 및 수행 체계 변화]



요약	1
----	---

I. 서론	1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2. 연구 내용	21
3. 연구 방법	25
4. 주요 용어 정의	28

II. 육아정책 동향	29
1. 2018~2022 분야별 육아지원 정책 동향	31
2. 영아기 집중 투자 관점의 육아지원 강화 배경과 동향	57

Part I 2022년 KICCE 소비실태조사 기초분석	67
--------------------------------	----

III. KICCE 소비실태조사 개요	69
1. 5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설계	71
2. 설문 구성 및 변화	77
3. 응답자 특성	87
4. 소결 및 시사점	107

IV. 영유아가구의 소비실태 및 양육비용	109
1. 생활비 지출 총액 및 주요 지수	111
2. 육아 가구 양육비용 실태	116
3. 공적 지원금 및 세제 혜택 수혜 실태	133
4. 양육비용 부담 및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146
5. 소결 및 시사점	156

V. 육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및 지원 요구 161

- 1. 영유아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163
- 2. 가정내 돌봄 및 부모지원서비스 이용 행태 199
- 3. 육아서비스 지원에 대한 요구 221
- 4. 소결 및 시사점 246

PartⅡ 심층분석 251

VI. 육아가구 특성별 소득 및 지출 시계열 분석 253

- 1. 분석 배경: 육아가구 특성별 소득 및 지출 변화 고찰 255
- 2. 분석 자료 및 방법 256
- 3. 분석 결과 264
- 4. 소결 및 시사점 303

VII. 코로나의 확산이 양육비용 지출에 미친 효과 307

- 1. 서론 309
- 2. 선행연구 310
- 3. 식별전략 및 계량모형 311
- 4.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추정결과 315
- 5. 미시수준의 추정결과 322
- 6. 소결 및 시사점 326

PartⅢ 결론 및 정책 제언 329

VIII. 결론 및 정책 제언 331

- 1. 정책 방향 333
 - 2. 육아지원의 생애주기적 접근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335
 - 3. 양육형태별 균형적 육아지원의 발전 모색 340
 - 4. 가구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육아지원 설계 346
-

참고문헌	351
Abstract	361



표 목차

〈표 I-2-1〉 5차년도(2022년) 주요 연구 내용	24
〈표 I-3-1〉 심층 면담 사례	27
〈표 I-3-2〉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현황	27
〈표 I-4-1〉 양육비용 산출기준	28
〈표 II-1-1〉 2018~2022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대상 변화	32
〈표 II-1-2〉 보육료 지원단가 변화(2018~2022)	34
〈표 II-1-3〉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 변화(2018~2022)	35
〈표 II-1-4〉 시간제 보육 기관 현황	36
〈표 II-1-5〉 시간제 보육 이용 및 지원 기준	37
〈표 II-1-6〉 2021~2022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시간당)	38
〈표 II-1-7〉 2018~2022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유형별 소득기준 및 정부지원금 변화 추이(시간제 일반형 기준)	39
〈표 II-1-8〉 2018~2022 아이돌봄서비스 유형별 지원시간 변화	40
〈표 II-1-9〉 양육수당 지원금액	41
〈표 II-1-10〉 아동수당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42
〈표 II-1-11〉 유연근로제도	43
〈표 II-1-12〉 유연근로제도 별 상세 내용	44
〈표 II-1-13〉 재택근무 인프라(설비) 구축비 지원 대상 시설	45
〈표 II-1-14〉 탄력적근로시간제 관련 근로기준법 법조문	46
〈표 II-1-15〉 선택적 근로시간제 관련 근로기준법 법조문	47
〈표 II-1-16〉 출산 및 육아 관련 휴가 휴직제도	50
〈표 II-1-17〉 출산 및 육아 관련 휴가 휴직제도 변경 내용	53
〈표 II-1-18〉 2018~2022 출산 및 육아관련 휴가 휴직제도 지원 내용 변화 추이	54
〈표 II-2-1〉 출생시점과 양육 방법에 따른 정책 및 지원 금액	62
〈표 II-2-2〉 2022년 중앙정부의 출산·양육가정 신규·확대 지원 정책	65
〈표 III-1-1〉 연차별 조사 대상 연령(막내 자녀 연령 기준, 만나이)	74
〈표 III-1-2〉 KICCE 소비실태조사 표본 수(2018~2022년)	75
〈표 III-1-3〉 KICCE 소비실태조사 표본 추적률 (2018~2022년)	75
〈표 III-1-4〉 KICCE 소비실태조사 조사 개요: 5차	76
〈표 III-2-1〉 KICCE 소비실태조사 주요 설문 변경 내용 및 사유 (2~5차년도) ..	78

〈표 Ⅲ-2-2〉 본조사 설문지의 개요 (1~5차년도)	80
〈표 Ⅲ-2-3〉 가구용 설문 비교 (1~5차년도) : 가구 특성 및 가계경제양육비	82
〈표 Ⅲ-2-4〉 가구용 설문 비교 (1~5차년도) : 육아서비스 이용 및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84
〈표 Ⅲ-2-5〉 아동용 설문 비교 (1~5차년도) : 영유아	85
〈표 Ⅲ-3-1〉 KICCE 소비실태조사 가구 표본(2022년) : 막내자녀 연령별 가구표본 비율	87
〈표 Ⅲ-3-2〉 KICCE 소비실태조사 가구 표본(2022년) : 지역규모별	88
〈표 Ⅲ-3-3〉 KICCE 소비실태조사 가구 표본(2022년) : 자녀수 및 맞벌이 비중	89
〈표 Ⅲ-3-4〉 KICCE 소비실태조사 가구 표본(2022년) : 자녀수 및 자녀구성별	90
〈표 Ⅲ-3-5〉 KICCE 소비실태조사 표본 특성 (2018~2022년)	92
〈표 Ⅲ-3-6〉 KICCE 소비실태조사 가구의 자녀 구성 (2018~2022년)	93
〈표 Ⅲ-3-7〉 지역규모별 KICCE 소비실태조사 가구 표본 (2018~2022년) ...	94
〈표 Ⅲ-3-8〉 가구특성별 세목별 월평균 가구소득(2022년: 실질비용)	97
〈표 Ⅲ-3-9〉 가구특성별 KICCE 소비실태조사 월평균 총 가구소득 변화 (2018~2022년, 실질비용)	99
〈표 Ⅲ-3-10〉 세목별 가구소득 변화 (2018~2022년, 월평균, 실질비용)	100
〈표 Ⅲ-3-11〉 양육관련 공적 지원금 수혜 비중 변화(2018~2022년)	101
〈표 Ⅲ-3-12〉 양육관련 공적 지원금 수혜 금액 변화 (2018~2022년, 월평균, 실질비용)	102
〈표 Ⅲ-3-13〉 코로나19 관련 공적 지원금 수혜 금액 (2022년, 월평균, 실질비용)	102
〈표 Ⅲ-3-14〉 아동 자료 특성 변화 : 연령 (2018~2022년)	103
〈표 Ⅲ-3-15〉 부모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 경험 (2021~2022년)	104
〈표 Ⅲ-3-1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최종 근로한 시간 (2022년: 주당)	105
〈표 Ⅲ-3-17〉 부모의 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휴가 이용 경험 (2021~2022년)	105
〈표 Ⅲ-3-18〉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최종 근로한 시간 (2022년: 주당)	106
〈표 Ⅲ-3-19〉 부모의 유연근무제도 이용 경험 (2021~2022년)	106
〈표 Ⅳ-1-1〉 월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 및 비목별 비중 변화 : 양육비용과	

비목 일치 시(2018~2022년, 실질비용, 영유아 가구 표본)	112
〈표 IV-1-2〉 가구 특성별 월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 변화 (2018~2022년, 실질비용, 영유아 가구 표본)	113
〈표 IV-1-3〉 월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 및 비목별 비중/가구지출 총액 (2022년, 실질비용, 영유아 가구 표본)	114
〈표 IV-1-4〉 생활비 관련 주요 지수 현황 (2018~2022년, 영유아 가구표본)	115
〈표 IV-1-5〉 가구특성별 생활비 관련 주요 지수 현황 (2022년, 영유아 가구표본)	116
〈표 IV-2-1〉 비목별 월평균 총 양육비용 변화 (2018~2022년, 실질비용) : 영유아 가구	117
〈표 IV-2-2〉 가구 특성별 총 양육비용 변화 (2018~2022년, 실질비용, 영유아 가구)	118
〈표 IV-2-3〉 가구소득 대비 총 양육비용 비중 변화 (2018~2022년, 실질비용, 영유아 가구)	119
〈표 IV-2-4〉 비목별 가구 생활비 대비 총 양육비용 비중 (2018~2022년, 실질비용, 영유아 가구)	120
〈표 IV-2-5〉 비목별 영유아 양육비용 변화 (2018~2022년, 실질비용)	121
〈표 IV-2-6〉 가구 특성별 영유아 양육비용 변화 (2018~2022년, 실질비용)	123
〈표 IV-2-7〉 가구소득 대비 영유아 양육비용 비중 변화 (2018~2022년, 실질비용)	124
〈표 IV-2-8〉 비목별 가구 생활비 대비 영유아 양육비용 비중 (2018~2022년, 실질비용, 영유아 가구)	125
〈표 IV-2-9〉 자녀 연령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변화 (2018~2022년, 월평균, 실질비용)	126
〈표 IV-2-10〉 생활비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비중 변화 (2018~2022년, 실질비용)	127
〈표 IV-2-11〉 비목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변화 (2018~2022년, 실질비용)	128
〈표 IV-2-12〉 가구특성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변화 (2018~2022년, 실질비용)	130
〈표 IV-2-13〉 가구특성별 가구생활비 및 가구소득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비중 변화(2019~2022년, 실질비용)	132

〈표 IV-3-1〉 아동 수당의 활용처 : 1+2순위 (2019~2022년, 영유아 가구)	133
〈표 IV-3-2〉 가구특성별 아동수당 활용처 : 1+2순위, 주요 비목 (2019~2022년, 영유아 가구)	135
〈표 IV-3-3〉 아동수당 지원이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을 준 정도 (2019~2022년, 영유아 가구)	136
〈표 IV-3-4〉 가정양육수당(영아수당)의 활용처: 자녀수별	137
〈표 IV-3-5〉 가정양육수당(영아수당)의 활용처: 가구소득별	137
〈표 IV-3-6〉 가정양육수당(영아수당) 지원이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을 준 정도: 가구소득별	138
〈표 IV-3-7〉 가정양육수당(영아수당) 지원이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을 준 정도: 가구 생활비 지출별	139
〈표 IV-3-8〉 첫만남 이용권 활용계획: 자녀수별	140
〈표 IV-3-9〉 첫만남 이용권의 활용계획: 가구소득별	141
〈표 IV-3-10〉 첫만남 이용권 지원이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정도: 가구소득별	141
〈표 IV-3-11〉 첫만남 이용권 지원이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정도: 가구 생활비 지출별	142
〈표 IV-3-12〉 코로나19 관련 공적 지원금의 활용처(2022년, 영유아 가구)	142
〈표 IV-3-13〉 코로나19 관련 공적지원금의 활용처 : 1+2순위 (2021~2022년, 영유아 가구)	143
〈표 IV-3-14〉 코로나19 관련 공적 지원금이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을 준 정도 (2019~2022년, 영유아 가구)	144
〈표 IV-3-15〉 코로나19 관련 공적지원금이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된 정도: 가구소득별(2022년, 영유아 가구)	145
〈표 IV-3-16〉 세제혜택 수혜여부 (2019~2022년)	145
〈표 IV-3-17〉 세제혜택 구체적 지원금액 인지 비율 (2019~2022년)	146
〈표 IV-4-1〉 가구 특성별 양육비용 충분성에 대한 태도 변화 (2018~2022년)	147
〈표 IV-4-2〉 자녀 양육 시 부담되는 비목 변화 (2018~2022년)	148
〈표 IV-4-3〉 가구특성별 자녀 양육 시 부담되는 비목(2022년)	149
〈표 IV-4-4〉 추가(여유)소득 발생 시 우선 지출 양육비 비목 (2022년) (1순위)	150
〈표 IV-4-5〉 양육비용 부담 증가 시 우선적 지출 축소 비목(2022년)	150

〈표 IV-4-6〉 추가소득 발생 시 우선 지출 비목(2018~2022년)	151
〈표 IV-4-7〉 가구특성별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경제 부담 증가 여부 (2020~2022년)	152
〈표 IV-4-8〉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경제 부담 증가 시 부족한 생활비 충당 방법 (2020~2022년)	153
〈표 IV-4-9〉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경제 부담 증가 시 부족한 생활비 충당 방법 (2022년)	153
〈표 IV-4-10〉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비 지출 축소/증가 비목 (2022년)	154
〈표 IV-4-11〉 영유아 가구 거주 주택 종류 및 거주 형태(2022년)	154
〈표 IV-4-12〉 주택의 주거비 부담 정도 (2022년): 전체가구	155
〈표 IV-4-13〉 거주 주택의 면적 및 방 개수(2022년)	156
〈표 V-1-1〉 연령별 및 연도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2018~2022년)	163
〈표 V-1-2〉 가구특성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2022년)	165
〈표 V-1-3〉 가구특성별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 설립 유형 (2022년) ..	166
〈표 V-1-4〉 가구특성별 유아가 이용하는 유치원 설립 유형 (2022년)	167
〈표 V-1-5〉 가구특성별 영유아가 이용하는 반일제 이상 학원 유형 (2022년)	168
〈표 V-1-6〉 이용 기관별 영유아의 특별활동 이용비중 (2018~2022년)	169
〈표 V-1-7〉 이용 기관별 영유아의 특별활동 이용 과목 수 (2018~2022년) ..	169
〈표 V-1-8〉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특별활동 및 특성화프로그램 이용 변화(2022년)	170
〈표 V-1-9〉 연도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주당 평균 이용 시간 (2018~2022년)	170
〈표 V-1-10〉 가구특성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하루 평균 이용시간 (2022년)	172
〈표 V-1-11〉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을 줄이고 싶은 주당 평균 시간 (2022년)	173
〈표 V-1-12〉 연도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월평균 이용 비용 (실질비용, 2018~2022년)	174
〈표 V-1-13〉 가구특성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월평균 이용비용 (2022년)	175
〈표 V-1-14〉 기관유형별 및 연도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월평균	

세부비용 (실질비용, 2018~2022년)	176
〈표 V-1-15〉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만족도 (2018~2022년) ..	177
〈표 V-1-16〉 해당 자녀의 연령에서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 여부 및 희망하는 양육 형태(2022년)	179
〈표 V-1-17〉 아동연령별 가장 희망하는 형태의 양육을 하지 않는 이유 (2022년)	179
〈표 V-1-18〉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온라인 수업 경험 및 횟수 (2018~2022년)	180
〈표 V-1-19〉 반일제 이상 기관의 온라인 수업 만족도 (2021~2022년)	181
〈표 V-1-20〉 제특성별 코로나19로 인한 사유별 기관 미등원 경험	182
〈표 V-1-21〉 연도별 시간제 사교육 이용 (2018~2022년)	183
〈표 V-1-22〉 영유아의 문화센터 이용기관(2022년)	184
〈표 V-1-23〉 가구특성별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 비중 (2022년)	184
〈표 V-1-24〉 연도별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주당 이용 시간	
(2018~2022년)	185
〈표 V-1-25〉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유형별 주당 이용시간 (2022년)	186
〈표 V-1-26〉 연도별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월평균 이용비용 (실질비용, 2018~2022년)	187
〈표 V-1-27〉 가구특성별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월평균 이용비용 (2022년)	188
〈표 V-1-28〉 단시간 학원 비용 만족도 (2022년)	189
〈표 V-1-29〉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만족도 (2018~2022년)	189
〈표 V-1-30〉 사교육 비용 부담정도 (2022년)	190
〈표 V-1-31〉 사교육 부담에도 이용하는 이유 (2020~2022년)	191
〈표 V-1-32〉 단시간 학원 유형별 온라인 수업 이용 경험 (2021~2022년) ..	192
〈표 V-1-33〉 단시간 학원 온라인 수업 비용 수준 만족도 (2022년)	192
〈표 V-1-34〉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이 감소한 단시간 학원 유형 (2022년) ..	193
〈표 V-1-35〉 코로나19로 인해 단시간 학원을 대체하여 이용한 서비스 (2022년)	193
〈표 V-1-36〉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센터 이용 감소 경험 및 이용하지 못한 기관 유형(2021~2022년)	194
〈표 V-1-37〉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센터를 대체하여 이용한 서비스 (2021~2022년)	194

〈표 V-1-38〉 가구특성별 유아의 기타서비스 이용 현황 (2018~2022년) ···	195
〈표 V-1-39〉 기타서비스 유형별 만족도 (2018~2022년) ·········	196
〈표 V-1-40〉 시간제 일시보육 범주별 만족도 (2022년) ·········	197
〈표 V-1-41〉 키즈카페 이용 이유 (2022년) ·········	198
〈표 V-1-42〉 키즈카페 이용하지 않는 이유 (2022년) ·········	198
〈표 V-1-43〉 비정기 체험활동 이용 이유 (2022년) ·········	199
〈표 V-1-44〉 비정기 체험활동 이용하지 않는 이유 (2022년) ·········	199
〈표 V-2-1〉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 (2019~2022년, 중복응답) ·········	200
〈표 V-2-2〉 개별돌봄서비스 동시 돌봄 자녀수, 이용시간, 이용비용 (2019~2022년) ·········	201
〈표 V-2-3〉 민간도우미 구인 경로 : 민간육아도우미 이용 가정 (2022년) ·	201
〈표 V-2-4〉 코로나19로 인한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 변화 여부 (2022년) ·	202
〈표 V-2-5〉 코로나19로 인한 개별돌봄서비스 동시 돌봄 자녀 수 변화 (2022년) ·········	203
〈표 V-2-6〉 코로나19로 인한 개별돌봄서비스 이용시간 변화 (2022년) ·····	203
〈표 V-2-7〉 코로나19로 인한 개별돌봄서비스 이용비용 변화 (2022년) ·····	203
〈표 V-2-8〉 가구특성별 가정 내 양육 및 부모직접돌봄 시간 (2022년) ·····	206
〈표 V-2-9〉 가구특성별 자녀 미디어 이용시간 (2022년) ·········	208
〈표 V-2-10〉 가구특성별 가정 내 부모직접돌봄 시간의 부담 정도 (2022년) ·········	209
〈표 V-2-11〉 가구특성별 가정 내 부모직접돌봄 시간의 부담이유 (2022년, 순위별) ·········	211
〈표 V-2-12〉 가구특성별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자기기 사용 (TV, PC, 전자기기 등) 허용 여부 (2022년) ·········	212
〈표 V-2-13〉 가구특성별 장난감 및 도서 대여 이용여부 (2022년) ·········	213
〈표 V-2-14〉 장난감/도서 대여 이용 빈도 (2022년) ·········	213
〈표 V-2-15〉 장난감 대여 제공기관, 이용비용 및 만족도 (2022년) ·········	214
〈표 V-2-16〉 가구특성별 육아 물품 지원 서비스 이용여부 및 횟수 (2022년) ·	215
〈표 V-2-17〉 육아 물품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비용 및 만족도 (2022년) ·	216
〈표 V-2-18〉 장난감, 도서 대여 및 육아 물품 지원 서비스 정책 방향 (2022년, 1+2순위) ·········	217
〈표 V-2-19〉 부모 지원 서비스별 이용 여부 및 이용횟수 (2022년) ·········	217
〈표 V-2-20〉 부모 지원 서비스별 제공기관 (2022년) ·········	218

〈표 V-2-21〉 부모 지원 서비스별 내용 분야 (2022년, 1+2순위)	219
〈표 V-2-22〉 부모 지원 서비스의 비대면 서비스 여부, 유료여부 및 만족도 (2022년)	220
〈표 V-2-23〉 부모 지원 서비스 개선 필요사항(2022년, 1+2순위)	221
〈표 V-3-1〉 어린이집 이용이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가 아닌 어린이집 이용자녀에 대한 실제 원하는 양육형태 (2018~2022년)	222
〈표 V-3-2〉 어린이집이용이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가 아닌 어린이집 이용자녀를 실제 원하는 양육형태로 양육하지 않는 이유 (2018~2022년) ·	223
〈표 V-3-3〉 유치원 이용이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가 아닌 유치원 이용자녀에 대한 실제 원하는 양육형태 (2018~2022년)	224
〈표 V-3-4〉 유치원 이용이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가 아닌 유치원 이용자녀를 원하는 양육형태로 양육하지 않는 이유 (2018~2022년)	224
〈표 V-3-5〉 가구특성별 정부 지원 부족 부분 (2022년)	226
〈표 V-3-6〉 기관보육·교육서비스 개선 필요 부분 (2018~2022년)	227
〈표 V-3-7〉 개별돌봄서비스 개선 필요 부분 (2018~2022년)	228
〈표 V-3-8〉 시간제 이용·기타 서비스 개선 필요 부분 (2018~2022년)	229
〈표 V-3-9〉 부모의 돌봄 시간 지원 개선 필요 부분 (2018~2022년)	230
〈표 V-3-10〉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 개선 필요 부분 (2018~2022년)	231
〈표 V-3-11〉 가구특성별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 개선 필요 부분 (2022년): 전체 자녀	232
〈표 V-3-12〉 양육물품 지원 개선 필요 부분 (2018~2022년)	233
〈표 V-3-13〉 가구특성별 육아지원 부족한 시기 (2022년)	235
〈표 V-3-14〉 시기별 부족한 육아지원 범주 (2022년)	236
〈표 V-3-15〉 가구특성별 유아기 부족한 육아지원 범주 (2022년)	239
〈표 V-3-16〉 비용 지원 정책 수혜여부 및 만족도 (2022년)	240
〈표 V-3-17〉 가구특성별 돌봄 공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경우 (2022년) ...	241
〈표 V-3-18〉 가구특성별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상황 (중복응답) (2022년)	242
〈표 V-3-19〉 가구특성별 긴급한 돌봄공백 발생시 희망하는 자녀 돌봄 형태 (1+2순위) (2021~2022년)	242
〈표 V-3-20〉 긴급한 돌봄 공백 발생 시 맞벌이 가구가 희망하는 부모직접돌봄 방식 (2022년)	243
〈표 V-3-21〉 사회적 긴급상황 대비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육아지원 정책	

(중복응답) (2022년)	244
〈표 V-3-22〉 정책별 사회적 긴급상황에서 개선이 필요한 정책별 육아지원 정책의 개선 방향 (2022년, 1+2순위)	245
〈표 V-3-23〉 가구특성별 코로나19 상황과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자녀돌봄에 대한 수요와 요구에 대한 인식차이 (2022년)	246
〈표 VI-2-1〉 KICCE 소비실태조사 표본 특성 (2018~2021년)	258
〈표 VI-2-2〉 가구특성별 KICCE 소비실태조사 월평균 총 가구소득 변화 (2018~2021년, 실질비용)	259
〈표 VI-2-3〉 월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 및 비목별 비중 변화 : 양육비용과 비목 일치 시(2018~2021년, 실질비용, 영유아 가구 표본)	260
〈표 VI-2-4〉 KICCE 소비실태조사 차수별 조사 대상 가구 수	262
〈표 VI-3-1〉 양육비용 산출 기준	265
〈표 VI-3-2〉 KICCE 소비실태조사 월평균 가구소득과 생활비 지출 비용 변화 (2018~2021년, 명목비용)	269
〈표 VI-3-3〉 가구특성별 KICCE 소비실태조사 월평균 생활비 지출 비용 변화 (2018~2021년, 명목비용)	273
〈표 VI-3-4〉 가구특성별 KICCE 소비실태조사 월평균 생활비 지출 비중 변화 (2018~2021년, 명목비용 기준으로 산출)	279
〈표 VI-3-5〉 가구특성과 월평균 식비 지출 비용과의 연관성 (2018~2021년, 명목비용)	284
〈표 VI-3-6〉 가구특성과 월평균 식비 지출 비중과의 연관성 (2018~2021년, 명목비용)	286
〈표 VI-3-7〉 가구특성과 월평균 주거비 지출 비용과의 연관성 (2018~2021년, 명목비용)	288
〈표 VI-3-8〉 가구특성과 월평균 주거비 지출 비중과의 연관성 (2018~2021년, 명목비용)	290
〈표 VI-3-9〉 가구특성과 월평균 교육·보육비 지출 비용과의 연관성 (2018~2021년, 명목비용)	292
〈표 VI-3-10〉 가구특성과 월평균 교육·보육비 지출 비중과의 연관성 (2018~2021년, 명목비용)	294
〈표 VI-3-11〉 가구특성과 월평균 보건·의료비 지출 비용과의 연관성 (2018~2021년, 명목비용)	296
〈표 VI-3-12〉 가구특성과 월평균 보건·의료비 지출 비중과의 연관성	

(2018~2021년, 명목비용)	298
〈표 VI-3-13〉 가구특성과 월평균 완구 및 도서관권 지출 비용과의 연관성 (2018~2021년, 명목비용)	300
〈표 VI-3-14〉 가구특성과 월평균 완구 및 도서관권 지출 비중과의 연관성 (2018~2021년, 명목비용)	302
〈표 VI-4-1〉 가구특성과 월평균 지출 항목에 따른 시계열 분석결과(요약) ..	303
〈표 VII-3-1〉 연도별 코로나 확진자, 사망자, 십만명당 발생률(지역별)	312
〈표 VII-3-2〉 변수의 정의	315
〈표 VII-3-3〉 연도별 요약통계량	315
〈표 VII-4-1〉 코로나 확산이 자녀 양육비용에 미치는 효과	319
〈표 VII-4-2〉 코로나 확산이 영유아 자녀양육비용에 미치는 효과	320
〈표 VII-4-3〉 코로나 확산이 가구소득 대비 자녀양육비용 비중에 미치는 효과 ...	321
〈표 VII-4-4〉 코로나 확산이 가구소득 대비 영유아 자녀양육비용 비중에 미치는 효과	322
〈표 VII-5-1〉 코로나 확산이 자녀 양육비용에 미친 효과 추정결과	323
〈표 VII-5-2〉 코로나 확산이 영유아 자녀 양육비용에 미친 효과 추정결과	324
〈표 VII-5-3〉 코로나 확산이 자녀양육비용 비중에 미친 효과 추정결과	325
〈표 VII-5-4〉 코로나 확산이 영유아 양육비용 비중에 미친 효과 추정결과	326
〈표 VIII-2-1〉 0세 부모급여 차등 지급안(가구소득별)	340
〈표 VIII-4-1〉 아동수당 출생순위별 차등지급안	347
〈표 VIII-4-2〉 식비 부담 경감 방안	349
〈표 VIII-4-3〉 정책 방향 및 정책제언(요약)	350



그림 목차

[그림 I-2-1] 연차별 연구 주제	23
[그림 II-1-1] 보육지원체계의 변화(2018~2022)	33
[그림 II-1-2] 연도별 유연근무제 도입률	49
[그림 II-1-3] 연도별 출산육아휴직제도 활용가능현황-필요한 사람은 모두 자유롭게 활용 가능	56
[그림 III-1-1] KICCE 소비실태조사 표본 추적 및 추가 방식(1~5차)	73
[그림 III-3-1] KICCE 소비실태조사 가구 표본(2022년) : 지역규모별	88
[그림 III-3-2] KICCE 소비실태조사 가구 표본(2022년) : 맞벌이 여부별 자녀수 ..	89
[그림 III-3-3] KICCE 소비실태조사 가구 표본(2022년) : 자녀수별 맞벌이 여부 ..	89
[그림 V-1-1] 연도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2018~2022년)	164
[그림 V-1-2] 연도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주당 평균 이용 시간 (2018~2022년)	171
[그림 V-1-3] 연도별 영유아의 반일제 이상 기관 만족도 (2018~2022년)	178
[그림 V-1-4] 코로나19로 인한 사유별 기관 미등원 경험	182
[그림 V-2-1] 민간육아도우미 구인 경로	202
[그림 V-2-2] 부모 지원 서비스별 이용 경험	218
[그림 V-2-3] 부모 지원 서비스 개선 필요사항	221
[그림 V-3-1] 시기별 부족한(개선이 필요한) 육아지원 범주	237
[그림 VII-3-1] 월별 코로나 십만명당 발생률(지역별)	312
[그림 VII-4-1] 코로나의 확산과 양육비용 지출(지역별)	317
[그림 VII-4-2] 코로나의 확산과 양육비용 지출 비중(지역별)	317
[그림 VII-4-3] 소득분위별 코로나 확산과 양육비용과의 관계	318
[그림 VII-4-4] 코로나 확산과 양육비용 5분위 배율의 추이	318



부표 목차

〈부표 Ⅲ-3-1〉 가구특성 및 자녀수별 세목별 가구소득 (2022년, 실질비용) …	400
〈부표 Ⅲ-3-2〉 영유아 가구의 가구특성 및 자녀수별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관련 공적이전 지원금 변화 (2018~2022년, 실질비용) …	401
〈부표 Ⅲ-3-3〉 가구특성, 자녀수 및 지역규모별 아동 표본 특성 (2018~2022년) : 영유아 …	402
〈부표 Ⅲ-3-4〉 가구특성, 자녀수 및 지역규모별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 경험 (부, 2022년) …	403
〈부표 Ⅲ-3-5〉 가구특성, 자녀수 및 지역규모별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 경험 (모, 2022년) …	404
〈부표 Ⅲ-3-6〉 가구특성, 자녀수 및 지역규모별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이용 경험 (부, 2022년) …	405
〈부표 Ⅲ-3-7〉 가구특성, 자녀수 및 지역규모별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이용 경험 (모, 2022년) …	406
〈부표 Ⅲ-3-8〉 가구특성, 자녀수 및 지역규모별 유연근무제도 이용 경험 (부, 2022년) …	407
〈부표 Ⅲ-3-9〉 가구특성, 자녀수 및 지역규모별 유연근무제도 이용 경험 (모, 2022년) …	408
〈부표 Ⅳ-1-1〉 월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 및 비목별 비중 변화 : 양육비용과 비목 일치 시(2018~2022년, 실질비용, 전체 표본) …	409
〈부표 Ⅳ-1-2〉 가구 특성별 월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 변화 (2018~2022년, 실질비용, 전체 가구표본) …	410
〈부표 Ⅳ-1-3〉 가구특성별 생활비 관련 주요 지수 현황 (2018~2022년) …	410
〈부표 Ⅳ-1-4〉 가구특성별 생활비 관련 주요 지수 현황 (2022년, 전체 가구) …	411
〈부표 Ⅳ-1-5〉 가구 소득 구간별 생활비 관련 주요 지수 현황 (2022년, 전체 가구) …	411
〈부표 Ⅳ-2-1〉 비목별 총 양육비용 변화 (2018~2022년, 실질비용) : 전체 가구 …	412
〈부표 Ⅳ-2-2〉 가구 특성별 총 양육비용 변화 (2018~2022년, 실질비용, 전체 가구) …	413
〈부표 Ⅳ-2-3〉 가구 소득 대비 총 양육비용 비중 변화 (2018~2022년, 실질비용, 전체 가구) …	414
〈부표 Ⅳ-2-4〉 비목별 가구 생활비 대비 총 양육비용 비중 (2018~2022년, 실질비용) : 전체 가구 …	415

〈부표 IV-2-5〉 비목별 가구 생활비 및 가구소득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비중 (2018~2022년, 실질비용)	416
〈부표 IV-4-1〉 가구 특성별 추가소득 발생 시 우선 지출 비목 (2022년)	417
〈부표 V-1-1〉 연령별 및 연도별 영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비중 (2018~2022년) ...	418
〈부표 V-1-2〉 연령별 및 연도별 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비중 (2018~2022년) ...	419
〈부표 V-1-3〉 연령별 및 연도별 영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시간 ¹ (2018~2022년) ...	420
〈부표 V-1-4〉 연령별 및 연도별 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시간 ² (2018~2021년) ...	421
〈부표 V-1-5〉 연령별 및 연도별 영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비용 ¹ (2018~2022년) ...	422
〈부표 V-1-6〉 연령별 및 연도별 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비용 ² (2018~2022년) ...	423
〈부표 V-1-7〉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시간의 충분성 정도 (2022년)	424
〈부표 V-1-8〉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시간의 충분성 정도 (2022년)	425
〈부표 V-1-9〉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을 늘리고 싶은 주당 평균 시간 (2022년) ...	426
〈부표 V-1-10〉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시간을 늘리고 싶음에도 현재만큼만 이용하는 이유 (2022년)	427
〈부표 V-1-11〉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을 줄이고 싶은 주당 평균 시간 (2022년)	428
〈부표 V-1-12〉 가구특성별 코로나19 전후 특별활동 이용 변화 및 이용 계획 개수 (2022년)	429
〈부표 V-1-13〉 영유아의 이용 서비스 (2022년)	430
〈부표 V-1-14〉 연령별 및 연도별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 비중 (2018~2022년) ...	431
〈부표 V-1-15〉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유형별 이용 과목 (2022년)	432
〈부표 V-1-16〉 영유아의 문화센터 유형별 이용 과목 (2022년)	432
〈부표 V-1-17〉 연령별 및 연도별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주당 이용 시간 (2018~2021년) ...	433
〈부표 V-1-18〉 가구특성별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주당 이용시간 (2022년) ...	434
〈부표 V-1-19〉 가구특성별 시간제 사교육 이용시간 (2022년)	435
〈부표 V-1-20〉 가구특성별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한 단시간 학원 유형 (2022년) ...	436
〈부표 V-1-21〉 연령별 및 연도별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월평균 이용비용 (2018~2022년) ...	437
〈부표 V-1-22〉 가구특성별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 (2022년)	438
〈부표 V-1-23〉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만족도 (2022년)	439
〈부표 V-1-24〉 시간제 사교육 비용 부담 (2022년)	439
〈부표 V-1-25〉 가구특성별 사교육 부담에도 이용하는 이유 (2022년)	440
〈부표 V-1-26〉 가구특성별 단시간 학원 온라인 수업 비용 수준 만족도 (2022년) ...	441
〈부표 V-1-27〉 가구특성별 비대면 기타 사교육서비스 불편한 점 (2022년) ...	442
〈부표 V-1-28〉 과목별 코로나19로 인해 이용하지 못한 기관 (2022년, 중복응답) ...	443

〈부표 V-1-29〉 비대면 기타 사교육 서비스 이용시 개선 필요 사항 (2022년) ..	443
〈부표 V-1-30〉 가구특성별 코로나19로 인한 단시간 학원 이용 감소 (2022년) ...	444
〈부표 V-1-31〉 가구특성별 키즈카페 이용 이유 (2022년)	445
〈부표 V-1-32〉 가구특성별 키즈카페 이용하지 않는 이유 (2022년)	446
〈부표 V-1-33〉 가구특성별 비정기 체험활동 이용 이유 (2022년)	447
〈부표 V-1-34〉 가구특성별 비정기 체험활동 이용하지 않는 이유 (2022년) ...	448
〈부표 V-2-1〉 가구특성별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 (2022년)	449
〈부표 V-2-2〉 코로나19로 인한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 변화 여부 (2022년) ...	450
〈부표 V-2-3〉 코로나19로 인한 개별돌봄서비스 동시 돌봄 자녀수 변화 (2022년) ...	451
〈부표 V-2-4〉 코로나19로 인한 개별돌봄서비스 이용시간 변화 (2022년) ...	452
〈부표 V-2-5〉 코로나19로 인한 개별돌봄서비스 이용비용 변화 (2022년) ...	453
〈부표 V-2-6〉 가구특성별 가정 내 양육 및 부모직접돌봄 하루평균 시간 (2022년) : 영유아가구	454
〈부표 V-2-7〉 가구특성별 자녀 미디어 이용시간 (2022년) : 영유아 가구 ..	455
〈부표 V-2-8〉 가구특성별 가정 내 양육 부담 이유 (2022년, 1순위)	456
〈부표 V-2-9〉 가구특성별 장난감 대여 이용 빈도 (2022년)	457
〈부표 V-2-10〉 가구특성별 장난감 대여 제공기관, 이용비용 및 만족도 (2022년) ...	458
〈부표 V-2-11〉 가구특성별 도서 대여 이용 빈도 (2022년)	459
〈부표 V-2-12〉 가구특성별 도서 대여 제공기관, 이용비용 및 만족도 (2022년) ...	460
〈부표 V-2-13〉 가구특성별 육아 물품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비용 및 만족도 (2022년)	461
〈부표 V-2-14〉 가구특성별 부모교육 이용여부, 이용횟수 및 제공기관 (2022년) : 부모교육	462
〈부표 V-2-15〉 가구특성별 부모상담 이용여부, 이용횟수 및 제공기관 (2022년) : 부모상담	463
〈부표 V-2-16〉 가구특성별 육아멘토 이용여부, 이용횟수 및 제공기관 (2022년) : 육아멘토	464
〈부표 V-2-17〉 부모 지원 서비스 개선 필요사항 (2022년, 1+2순위) : 전체가구 ...	465
〈부표 V-2-1〉 해당 자녀의 연령에서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 여부 및 희망하는 양육 형태(2022년)	466
〈부표 V-2-2〉 가구특성별 어린이집 이용자의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 (2022년) ...	467
〈부표 V-2-3〉 가구특성별 유치원 이용자의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 (2022년) ...	468
〈부표 V-2-4〉 가장 희망하는 형태의 양육을 하지 않는 이유(2022년)	469

〈부표 V-2-5〉 가구특성별 어린이집 이용자의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로 양육하지 않는 이유 (2022년)	470
〈부표 V-2-6〉 가구특성별 유치원 이용자의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로 양육하지 않는 이유 (2022년)	471
〈부표 V-2-7〉 가구특성별 기관보육·교육서비스 개선 필요 부분 (2022년) : 전체 자녀	472
〈부표 V-2-8〉 가구특성별 개별돌봄서비스 개선 필요 부분 (2022년) : 전체 자녀	473
〈부표 V-2-9〉 가구특성별 시간제 이용·기타 서비스 개선 필요 부분 (2022년) : 전체 자녀	474
〈부표 V-2-10〉 부모의 돌봄 시간 지원 개선 필요 부분 (2022년) : 전체 자녀	475
〈부표 V-2-11〉 가구특성별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 개선 필요 부분 (2022년) : 전체 자녀 ..	476
〈부표 V-2-12〉 가구특성별 양육물품 지원 개선 필요 부분 (2022년) : 전체 자녀	477
〈부표 V-2-13〉 가구특성별 임신·출산시기 부족한 육아지원 범주 (2022년)	478
〈부표 V-2-14〉 가구특성별 영아기 부족한 육아지원 범주 (2022년)	479
〈부표 V-2-15〉 가구특성별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상황 (2022년)(중복응답) ..	480
〈부표 V-2-16〉 가구특성별 긴급한 돌봄공백 발생시 희망하는 자녀 돌봄 형태 (1+2순위) (2022년)	481
〈부표 V-2-17〉 긴급한 돌봄 공백 발생시 맞벌이 가구가 희망하는 부모직접돌봄 방식 (2022년)	482
〈부표 V-2-18〉 가구특성별 사회적 긴급상황에서 개선이 필요한 육아지원 정책 (중복응답) (2022년)	483
〈부표 V-2-19〉 가구특성별 사회적 긴급상황 대비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육아지원 정책의 개선 방향 (2022년, 1+2순위)	484

1. 서론

가.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본 연구는 5개년(2018~2022) 연속과제인 ‘KICCE 소비실태조사’의 5차년도 연구로, 육아가구의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활용에 관한 데이터 구축을 통해 육아가구의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주요 연구 내용이자 연구 방법인 ‘KICCE 소비실태조사’를 매해 실시하고 있으며, 육아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지원 정책의 개선 방안을 도출함.
- 연속과제의 최종 수행연도인 본 5차년도 연구에서는 1~4차년도(2018~2021년)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소비실태 추이 분석 등 심층분석 주제 2가지를 발굴해 수행함.

나. 연구 내용

- 5차년도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요약표 1〉 5차년도(2022년) 주요 연구 내용

구분		연구 내용
연속성 주제	조사개요	5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 패널 추적 조사, 대체 표본, 신생아 신규 표본 구축
	양육비용	육아 가구 양육비용 - 가구 단위: 총 양육비용, 영유아 양육비용 - 아동 단위: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 양육부담 및 공적 지원금 수혜 현황
	육아서비스 이용	영유아기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 반일 이상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학원)이용 - 시간제 사교육서비스(학원, 기타 사교육) 이용 - 시간제 일시보육서비스 이용 - 문화센터, 키즈카페, 비정기체험활동 이용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행태
		육아 지원에 대한 요구 - 희망하는 육아서비스 유형 및 개선사항

구분		연구 내용
		- 긴급돌봄, 시간지원 정책 활용 의향 - 육아지원이 부족한 시기 및 부족한 육아지원 범주
시의성 주제	사회적 상황 및 정책 변화 반영	코로나 19로 인한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영향 -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이유로 반일 이상 기관 미등원 경험 영아기 집중 투자 관련 사업 확대 관련 행태 - 영아 수당 수혜 및 활용 비목, 양육비 경감 정도 - 첫만남 이용권 인지 및 양육비 경감에 대한 기대, 이용 계획(지출 계획 비목)
심층 분석		1) 육아가구 특성별 소득 및 지출 시계열 분석 2) 코로나의 확산이 양육비용 지출에 미친 효과

주: 심층 분석은 5차년도 자료가 아닌 기 구축 자료(1~4차)를 활용한 분석이므로 주의를 요함.

다.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 본 조사가 시작된 2018년부터 종료되는 2022년까지의 기간 동안 양육비용 지원, 서비스 지원, 시간 지원과 관련된 육아정책 변화를 전반적으로 고찰할 수 있도록 관련 문헌 및 통계자료를 정리함.

□ KICCE 소비실태조사(5차년도)

- 4차년도(2021년) 원표본 가구에 대한 추적 조사 실시(패널조사).
- 4차년도(2021년) 원표본 가구 중 조사에 실패한 가구에 대한 대체 표본 가구 추가 구축.
- 5차년도(2022년) 신생아 표본 가구(2021년 하반기 출생아 및 2022년 상반기 출생아)신규 구축.
- 5차년도 설문에는 연속성 문항 외에 시의성 문항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변화’ 문항 및 ‘영아기 집중 투자 관련 사업 확대 관련 실태(영아 수당, 첫만남 이용권 수혜 및 활용 비목 등)문항을 추가함.

□ 심층 분석 : 종단 자료 분석

- 1차년도(2018년)~4차년도(2021년)까지 구축된 자료를 활용하여, 2가지 주제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함.
- ‘육아가구 특성별 소득 및 지출 시계열 분석’ 및 ‘코로나의 확산이 양육비용 지출에 미친 효과’를 주제로 선정함.

□ 심층 면담 (FGI)

-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가구의 육아물품 및 육아서비스 수요의 변화와 요구, 영아수당 등 현금급여의 확대에 따른 육아서비스 수요 변화 파악, 영아 및 유아가구의 정책지원 요구의 차별성을 파악하기 위한 영유아 부모 면담(영아 부모 7사례, 유아 부모 9사례)을 실시함.

2. KICCE 소비실태조사 개요

가. 5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설계

□ 표본 추적 및 구축

- 전년도 조사 표본 전체에 대한 추적 조사 실시, 추적 조사 실패 가구에 대한 대체 표본 구축, 신생아 표본(2021년 하반기 및 2022년 상반기 출생아) 가구 신규 구축 실시.
- 5차년도 조사는 추적 조사의 대상을 막내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로 한정함.
- 5차년도 가구 표본 추적률은 89.8%이며, 전체 표본 가구 수는 1,730가구임.
 - 추적 대상 표본 1,476가구 중 추적성공 가구 표본 수는 1,325가구이며, 151가구가 대체 가구로 신규 구축됨.
 - 신생아 표본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254가구를 신규 구축함.

□ 조사 도구 및 조사 시기

- 2차년도(2019년) 조사까지는 TAPI조사가 시행되었으나, 3차년도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종이설문(PAPI)로 실시.
- 조사 시기는 매년 5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로, 코로나19와 상관없이 동일 시점에 조사를 실시함.

나. 설문 구성 및 변화

- 육아가구의 일반 특성 및 소득, 소비 지출, 양육비용, 육아서비스 이용 형태 등은 지속적으로 조사되는 설문 항목임.
- 5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양육비용지출

및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관련 문항, 신규 도입 정책에 관한 문항을 추가함.

- 반면, 전년도(4차, 2021년)까지 실시되었던 초등학생용 설문 문항은 삭제되었음.

다. 응답자 특성

- 5차년도 가구표본은 1,730가구이며, 해당 가구에 포함된 아동 설문 응답표본 수(영유아)는 총 2,395명임.
- 5차년도 영유아 가구인 1,730가구의 소득은 5차년도(2022년) 영유아 가구 기준 월평균 500만5천원(실질비용)으로, 4차년도(2021년) 511만2천원(실질비용)에 비해서는 낮아졌으며 3차년도까지 증가하였던 가구소득이 4차년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5차년도 영유아 가구의 소득 중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비중은 87.3%이며, 공적이전소득이 5.8%로 영유아 가구는 두 유형의 소득에 의존도가 큼.
 - 맞벌이 가구의 총 가구소득은 585만5천원(실질비용), 외벌이 가구의 총 소득은 432만8천원(실질비용)으로 맞벌이 가구가 35% 정도 소득이 높으며, 이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격차에서 비롯됨.
 -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가구에서 ‘공적 소득(공적 이전소득 및 코로나19로 인한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1.7%로 가장 높게 나타남.

3.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 및 양육비용

- 2022년 공표된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를 감안하여 실질비용으로 환산된 값임.

가. 생활비 지출 총액 및 주요 지수

-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양육비용과 비목 일치시)는 5차년도(2022년)에 303만2천원으로, 4차년도(304만원)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1~3차년도(2018~2020년)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임.
 - 소비실태조사 첫 실시(2018년) 이후 5차년도에 21만1천원(7.5%)가 상승하였고, 동기간 영유아 가구의 소득은 31만8천원(6.8%) 증가함.
 - 생활비 지출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며(31.2%), 식비 지출은 코

로나 초기인 3차년도(2020년)에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한 후 지속적으로 영유아 가구의 생활비 중(양육비용과 비목 일치시)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엔젤지수 : 5차년도(2022년)에 28.0로 3차년도(30.0), 4차년도(28.4) 보다는 낮지만, 1, 2차년도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보임.
- 슈바베지수 : 5차년도 기준 8.3으로 4차년도(8.1)까지 하락하다가 5차년도에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임.
- 엔젤지수 : 5차년도(2022년) 기준 26.9로, 4차년도(27.2)보다는 하락하였고 3차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보임.

나. 육아 가구 양육비용 실태

□ 가구당 양육비용 실태 개관

- 영유아 가구의 총 양육비용¹⁾은 5차년도(2022년) 기준 월평균 127만3천원으로, 4차년도(127만6천원) 보다는 낮지만 소비실태조사가 시작된 이래 거의 가장 높은 수준임.
 - 비목별로는 교육/보육비가 5차년도(2022년) 기준 월평균 33만4천원으로 가장 높으나 3차년도를 제외하면 5년 중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하였음.
 - 5차년도에는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여가문화생활비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남.
 - 주요 비목의 양육비 지출 경향은 코로나19로 인해 예외적으로 교육/보육비 지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식비가 증가하여 지출 비목 순위가 변경되었던 3차년도(2020년)를 제외하면 동일한 경향이 지속됨.
- 영유아 양육비용은 5차년도(2022년)에 월평균 90만2천원으로, 4차년도(92만2천원) 대비 다소 감소함.
 - 5차년도에는 4차년도 대비 교육/보육비 지출이 눈에 띄게 감소하였고, 여가 및 문화생활비 중 ‘가족여행’, ‘체험학습’ 등 바깥활동에 지출된 세부비목 지출은 증가하고, ‘완구’, ‘도서구매’ 등 실내활동 관련 세부비목 지출은 다소 감소함.

1) 본 조사의 표본인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모든 자녀(초등학생 이상 자녀까지 포함)를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을 의미함.

- 영유아 양육비용 지출은 3차년도(2020년)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교육/보육비의 지출이 대폭 감소하면서 총 지출액이 크게 감소한 바 있고,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초기를 지나 점차 적응되어 가는 4차년도(2021년)부터는 교육/보육비 지출의 회복으로 인해 영유아 양육비용 지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5차년도(2022년)에는 다시 다소 감소함.

□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실태 개관

-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은 5차년도(2022년) 기준 월평균 65만2천원으로, 4차년도(65만5천원)와 유사한 수준이었음.
- 생활비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비중은 5차년도(2022년) 기준 19.4%로, 3,4차년도 보다는 높고, 1,2차년도 조사에 비해서는 낮음.
- 자녀 연령별로는 1세~5세까지는 영아기보다는 유아기의 양육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 다만, 영아기 내에서는 0세 1인당 양육비용이 1~2세 보다는 생활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공적 지원금 및 세제 혜택 수혜 실태

- 아동수당의 주된 활용처는 1+2순위 기준(5차년도) 식비(62.7%), 개인유지비(40.0%), 교육/보육비(30.8%), 저축 등 금융상품(28.1%) 등임.
- 가정양육수당(영아수당)의 활용처는 1순위 기준(5차년도) 식비(47.5%), 개인유지비(21.7%), 저축 등 금융상품(17.6%) 순임. 이러한 경향은 자녀수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음.
- 첫만남 이용권 활용계획은 1순위 기준 식비(40.1%), 개인유지비(15.1%), 기기/집기(12.5%) 순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관련 공적 지원금의 활용처는 1+2순위 기준 주로 식비(85.5%), 개인유지비 (49.1%), 피복비(14.0%), 보건/의료비(13.6%), 교육/보육비(13.2%), 여가 및 문화생활비(12.3%)로 활용됨.
- 세제 지원 혜택은 5차년도 수혜 수준이 1~5차년도 중 가장 낮게 나타남.

□ 양육비용 부담 및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 양육비용이 충분한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5점 만점에 2.9점으로 보통 수준을 보임.
- 자녀 양육 시 부담되는 비목으로는 1~5차년도에 걸쳐 동일하게 교육/보육비의 응답률이 가장 높고(5차년도 35.3%), 그 다음으로 식비(5차년도 28.7%)

가 부담된다고 응답됨. 식비가 가장 부담된다는 비중은 매년 증가함.

- 추가 소득이 발생할 경우 어디에 우선 지출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해 교육/보육비에 지출하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5차년도 42.0%).
- 양육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1+2순위 기준으로 식비를 줄이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47.5%).
- 코로나19로 인해 가계 경제 부담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5차년도(2022년) 기준 28.0%로 3차년도(31.6%), 4차년도(34.1%) 대비 감소함.

4. 육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및 지원 요구

가. 영유아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 반일제 이상 기관

- 이용 비중 : 5차년도(2022년) 조사 기준, 영유아중 49.2%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고, 유치원 27.1%, 반일제이상 학원 등 1.1%로,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률이 77.4%임.
 - 반일제이상 기관 미이용자는 22.6%로, 3차년도(2020년) 27.6%에 비해서는 매우 낮으며,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1차년도(18.0%), 2차년도(19.0%) 보다는 높게 나타남.
 - 5차년도(2022년)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 비중은 71.7%, 유치원 특성화프로그램 이용 비중은 84.2%, 반일제이상 학원 특성화프로그램 이용 비중은 54.5%였음.
- 이용 시간 : 5차년도 조사 기준 어린이집은 34.9시간, 유치원은 34.8시간, 반일제이상 학원 등은 35.1시간으로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시간이 4차년도(29.5시간) 대비 크게 증가함.
- 이용 비용 : 5차년도 조사 기준 어린이집 이용시 월평균 이용비용은 7만1천원, 유치원은 12만원, 반일제이상 학원 등 이용 시 98만4천원임.
 -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비용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차(2019년)에 비해 낮고,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비용은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
- 서비스 만족도 : 5차 조사 결과, 반일제이상 기관 서비스 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 어린이집, 유치원은 각 4.1점, 반일제이상 학원은 4점으로 나타남.

- 온라인 수업 : 5차년도(2022년) 조사에서 어린이집에서는 1.5%가 온라인 수업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고, 유치원에서는 3.8%, 반일제 이상 학원의 경우 3.9%가 온라인 수업 경험이 있었음.
- 5차년도 기준 온라인 수업 이용시 만족도는 어린이집은 3.7점, 유치원 이용의 경우가 3.4점, 기타 반일제이상 학원의 경우 4.0점으로, 기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4차년도 온라인 수업에 대한 만족도보다는 모두 상승함.

□ 코로나19로 인한 반일제이상 기관 미등원 경험

-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이유로 반일제이상 기관에 등원하지 않은 미등원 일수는 평균 21.2일이었으며, 유형별로는 ‘기관의 휴원으로 인한 미등원’(42.3%)이 가장 많고, ‘동거가족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미등원’(41.5%), ‘자녀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미등원’(40.2%) 순으로 나타남.

□ 시간제 사교육

- 이용 기관 : 5차년도 조사에서는 단시간 학원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21.9%로 가장 높았으며, 방문형학습지는 12.0%, 문화센터 7.6%,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3.3%,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2.2%, 개인 및 그룹지도 1.9% 순으로 나타남.
- 5차년도 방문형 학습지 이용률은 12.0%로 4차 조사(15.0%) 대비 감소하여 3차년도 수준(12.1%)으로 하락함.
- 비대면형 시간제 사교육인 비방문형 학습지, 온라인 통신교육,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이용률은 4차년도(2021년)와 유사한 수준을 보임.
- 문화센터와 개인 및 그룹지도 이용률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은 회복하지 못한 모습을 보임.
- 이용 시간 : 단시간 학원은 주당 평균 3.9시간을 이용해, 영유아의 이용률이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이용시간도 가장 긴 사교육 서비스였음.
- 방문형 학습지 0.6시간,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0.7시간,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3.6시간, 개인 및 그룹지도 2.2시간, 문화센터 1.3시간,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는 1.9시간을 이용함. 비방문형 교구활동 교육은 4차년도 (1.7시간) 대비 이용시간이 2배 이상 증가함.

- 이용 비용 : 월평균 이용비용이 가장 높은 시간제 사교육의 유형은 ‘개인 및 그룹지도’로 월평균 21만5천원을 지출함.
- 다음으로는 단시간 학원 월평균 이용비용이 16만6천원,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과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이 각 9만9천원, 교육용온라인콘텐츠 9만 2천원, 방문형학습지 8만9천원, 문화센터 5만2천원 순임.
- 만족도 : 5차년도 조사에서 서비스 만족도가 가장 높은 시간제 사교육의 유형은 ‘개인 및 그룹지도’로 5점 만점에 평균 4.0점임. 반면 ‘비방문형 학습지, 통신교육, 비방문형 교구활동’은 3.5점, ‘교육용온라인콘텐츠’ 3.7점으로 ‘비대면’ 사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단시간 학원 온라인 수업 : 비대면 수업(온라인 수업)을 받아 본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2.8%로 4차년도(3.0%) 조사 결과와 유사함, 주로 학습 관련 교과목(영어 외 언어(한글 포함), 수학 및 과학)에서 실시됨.

□ 기타서비스

- 시간제 일시보육 : 영유아 중 5차년도에는 0.6%가 시간제 일시보육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고,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월평균 6.2회 이용했으며, 1회당 2시간 18분 이용하며, 월평균 6만1천원의 비용을 지출함.
- 키즈카페 : 조사시점 기준 지난 3개월 동안 42.9%가 이용 경험이 있어 4차년도(24.9%) 대비 크게 증가함.

나. 가정내 돌봄 및 부모지원서비스 이용 행태

□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행태

-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는 조부모인 경우가 68.3%로 가장 많음. 1~4차년도 대비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 중 조부모, 친인척, 아이돌보미의 비중은 감소하고 민간 육아도우미의 비중은 증가함.
- 5차년도(2022년) 조사 기준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별 주당 평균 이용 시간과 월평균 이용 비용은 다음과 같음.
- 개별돌봄서비스 이용시간 대비 비용은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비용이 가장 높고, 조부모 돌봄 비용,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 비용,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이용비용 순으로 나타남. 주당평균이용시간 및 월평균 이용비용은 다음과 같음.

-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 15.2시간, 18만원.
- 민간 육아도우미 : 21.5시간, 68만6천원.
- 조부모 돌봄 : 20.5시간, 35만3천원.
-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 : 19.3시간, 29만1천원.
- 민간 육아도우미 구인은 '지인소개'가 가장 많고(58.8%) 인터넷기반 돌봄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구인한 경우도 29.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코로나19로 인해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가 변경된 경우는 6.8%이며, 이용시간이 증가한 경우가 13.1%, 비용이 증가한 경우가 5.8%에 해당함.

□ 가정 내 부모 직접 돌봄

- 가정 내 양육 시간은 평일 하루 중 8시간22분, 주말에는 13시간 3분이었음.
 - 부모 중 한명이라도 함께하였던 부모 직접 돌봄시간은 평일 평균 8시간 16분, 주말 평균 13시간 2분인 것으로 나타남.
- 가정 내 양육 시간 중 전자기기(TV, PC, 전자기기 등)를 이용한 시간은 평일 평균 1시간20분, 주말 평균 2시간임.
- 가정의 가정 내 양육 부담은 '다소 부담됨'이라는 응답이 36.1%로 가장 많았고, '적당함' 31.7%, '별로 부담 안됨' 19.4%, '매우 부담됨' 8.2%, '전혀 부담안됨' 4.7% 순으로 응답됨.
 - 가정 내 양육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1+2순위 기준 '가사와 육아를 동시에 병행하기 힘들어서'가 60.2%로 가장 많고, '육아가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51.2%, '양육과정에서(아이가 울거나 떼를 씌) 생기는 스트레스 때문' 43.2%, '나만의 시간이 없어서' 32.6% 등으로 4차년도 조사와 동일한 경향임.
 - 가정 내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TV, PC, 미디어 기기 등 각종 전자기기 사용을 허용해 본 적이 있다는 경우는 76.0%였음.
- 장난감 대여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 비중은 6.8%, 도서대여를 이용한 비중은 16.5%로 4차년도 대비 소폭 증가함.
- 육아 물품 지원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8.7%였으며, 최근 3개월간 이용 횟수는 평균 3.6회임.
- 육아 지원 서비스 제도 개선 요구 : 대여 기관이나 서비스 제공 기관의 접근

성 개선(55.6%), 물품/프로그램의 다양화로 선택의 폭 확대(36.1%), 물품 품질이나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36.0%), 부모가 아이의 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교육이나 지도서 제공(23.6%), 물품/프로그램 활용법을 쌍방향 소통 가능한 형태로 제공(21.2%), 물품의 소독 및 위생 관리 철저(18.6%), 더 저렴한 비용에 제공(6.8%) 순임.

- 부모 지원 서비스 이용률 : 부모교육 10.2%, 부모 상담 15.0%, 육아멘토 1.0%.
 - 이용한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이용 횟수는 부모교육 평균 1.6회, 부모상담 1.4회, 육아멘토 2.4회.
 - 부모교육은 양육방법(62.1%), 영유아 성장 발달 관련 정보(49.2%), 보호자의 역할(38.4%) 등이 주요 내용이었으며, 부모 상담의 경우는 영유아 성장 발달 관련 정보(80.4%), 양육방법(55.8%), 보호자의 역할(20.4%)이 주요 내용으로 조사됨.
- 부모 지원 서비스 제도 개선 요구 : 프로그램 확대(31.1%), 일대일 (맞춤)서비스의 확대(29.8%), 이용시간대 확대 혹은 변경(29.7%), 서비스 홍보 강화(25.8%), 서비스 제공 기관의 접근성 개선(24.8%),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21.6%) 순으로 응답됨.

다. 육아서비스 지원에 대한 요구

□ 희망하는 육아서비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들은 유치원 이용(47.9%)과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돌봄(27.5%)을 선호.
-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이용(41.2%)과 가정에서 부모가 주로 돌보며 시간제로 양육지원 이용(32.1%)에 높은 선호를 보여 학원 등 기타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을 희망했던 4차년도에 비해 차이가 있었음.

□ 자녀 양육에 대한 의견 및 요구

- 정부 지원 부족 부분으로 매해 양육수당 등 현금 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남(5차년도 42.4%).
 - 다음으로 5차년도 응답 기준 기관보육·교육서비스 개선(18.8%), 개별돌봄 서비스(13.9%), 육아휴직 등 돌봄 시간 지원(11.6%)에 요구가 높은 편임.
 - 정부 지원이 부족한 서비스별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은 매해 비중은 차이를

보이지만, 항목 간 순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양상을 보임.

- 단 ‘부모의 돌봄 시간 지원’ 분야에서 4차년도 이후 ‘제도 이용의 일부 자동화강제화’에 대한 요구가 크게 높아졌음.
- 육아지원이 부족한 시기에 대해 ‘임산·출산기’, ‘영아양육기(출생~24개월 이하)’, ‘유아양육기(24개월~초등학교 입학 전)’중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한 시기에 대해 61.0%는 ‘유아기’에 대한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응답하였고, ‘영아기’(26.2%), ‘임산·출산 시기’(12.8%) 순으로 나타남.
- 해당 시기가 가장 육아지원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경우 부족한 육아지원 범주에 대해서는 모두 ‘비용지원’이 가장 부족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영유아 가구 대상 비용 지원 정책 수혜율은 ‘아동수당’(99.9%),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85.8%), ‘유치원 교육비 지원’(47.5%), ‘첫만남 이용권’ (8.0%) 순으로 나타남.
- 수혜경험이 있는 경우 ‘첫만남 이용권’에 대한 만족도가 5점 만점 중 평균 4.4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4.1점, 유치원 교육비 지원 3.9점, 양육수당과 영아수당 동일하게 3.7점 순으로 모두 ‘대체로 만족’ 수준에 가까운 만족도를 보임.

□ 긴급 돌봄 대응

- 긴급 돌봄 공백 상황에서 희망하는 자녀 돌봄 방식은 1+2순위 기준(5차년도) 부모가 직접 돌봄(86.5%), 조부모 등 친인척의 개별 돌봄(55.3%), 긴급 돌봄 센터 등 국가가 지정한 돌봄 기관(30.6%) 순임.
- 맞벌이 가구가 희망하는 부모 직접 돌봄 방식은 부모 중 누구든 연월차 휴가를 사용(34.6%), 가족돌봄휴가 혹은 가족돌봄휴직을 사용(34.5%), 재택근무를 사용(14.2%) 순임.
- 사회적 긴급상황에서 개선이 필요한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으로는 가족돌봄 휴가제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39.9%로 가장 높음.
- 필요한 정책별 제도 개선 최우선 사항으로는 가족돌봄휴가제도는 휴가 사용일수의 연장, 유연근무제도에 대해서는 제도 사용의 의무화, 육아휴직제도와 아이돌봄지원제도, 지역공동체 및 기타 아동 지원은 비용 지원의 확대가 꼽힘. 기관돌봄은 ‘어떤 제도이든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이 꼽힘

Part II

5. 육아가구 특성별 소득 및 지출 시계열 분석

가. 심층 분석 개요

□ 1차(2018년)~4차년도(2021년) 자료를 패널 자료로 연결하여 분석함.

□ 분석 방법

- 2018~2021년 자료를 활용한 기술적 분석
- 2018~2021년 자료를 활용한 횡단적 회귀분석
- 2018~2021년 자료를 활용한 시계열적 회귀분석

나. 가구 특성에 따른 소득 및 지출 추세

□ 가구소득

- 소득규모별 분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함. 단, 가구소득 중 근로 및 사업 소득의 소득규모별 분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뚜렷한 추세가 발견되지 않음.

□ 생활비 지출 규모

- 식비 지출 규모는 3차년도(2020년)에 2차년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
- 교육·보육비 지출 규모는 가구소득 규모에 따라 확대되었음.
- 보건·의료비는 대체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생활비 중 비목별 비중

- 생활비 대비 식비 비중은 1~4차년도에 걸쳐 증가하였으며, 저소득 가구에서의 식비 비중이 높음을 확인함.
- 생활비 대비 주거비 비중은 저소득 가구가 고소득 가구에 비해 주거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교육·보육비 비중은 3차년도(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지출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4차년도(2021년)에 다시 증가함.
- 보건·의료비 비중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폭 증가함.

□ 자녀수에 따른 생활비 지출 및 비목별 비중의 변화

- 식비, 주거비, 교육·보육비, 보건·의료비, 완구 및 도서 관련 지출 규모 및 비중은 자녀수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6. 코로나의 확산이 양육비용 지출에 미친 효과

가. 개요

□ 코로나19의 확산이 자녀를 둔 가구의 양육비용 지출에 미친 효과를 추정함.

- 지역별 코로나 확산의 정도와 관련한 코로나 확산 이전(2018-2019년)과 코로나 확산 이후(2020-2021년)의 가구 양육비용의 변화를 분석함.

나. 식별 전략 및 계량 모형

□ 1차(2018년)~4차년도(2021년) 자료 및 보건복지부 제공 ‘코로나19 확산의 지역별 강도 지표’를 활용함.

□ 코로나 확산이 양육비용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이중차분모형(difference-in-differences)을 설정

□ 계량 모형

$$(1) y_{ict} = \alpha_i + \gamma_t + Z_{ict}'\beta + \delta Covid_{ct} + \epsilon_{ict}$$

i : 가구

c : 지역(광역)

t : 시점(연도)

y : 양육비용에 대한 측도

$Covid$: 코로나 확산 강도(intensity)

α_i : 가구고정효과

γ_t : 시점 고정효과

ϵ : 미관측이질성

□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추정 결과

-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지역별 집계변수를 이용하여 코로나 확산의 강도와 양육비용의 추이를 분석함.
- 예비적 분석으로 가구소득 1분위 대비 가구소득 5분위의 자녀 양육비용 지출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코로나 확산세가 강했던 지역에서 5분위 배율이 낮은 경향, 즉 코로나 확산세가 강했던 지역에서 양육비용의 불평등이 완화되는 경향이 있었음이 확인됨.
- 단,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의 회귀분석 결과 코로나 확산이 더 강한 지역의 자녀 양육비용이 감소하지만 감소폭이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미시수준의 추정 결과

- 코로나 확산이 자녀 양육비용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낮추고 있음. 코로나 확산이 10% 증가시, 자녀 양육비는 0.4% 낮아짐.
- 코로나 확산이 전체 자녀 양육비용 보다는 ‘영유아’ 자녀 양육비용에 좀 더 큰 영향을 주었음.
- 가구의 특성을 통제했을 경우 자녀 양육비용이 가구소득 중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감소함. 소득이 감소했을 경우 그보다 더 큰 폭으로 자녀 양육비용이 감소했음을 의미함.

Part III

7. 결론 및 정책 제언

-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종합한 결과, 영유아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제언의 방향성은 1) 육아지원의 생애주기적 접근 강화, 2) 양육형태별 육아지원의 균형적 발전 모색, 3) 가구특성별 맞춤형 육아지원 강화로 도출함.
- 이러한 정책 방향성에 따른 다음의 구체적 정책방안을 제시함.

〈요약표 2〉 정책 방향 및 정책제언

정책방향	정책제언
육아지원의 생애주기적 접근 강화	- 유아기 양육 지원 강화 ▶ (배경) 유아기 자녀양육 지원 부족 평가/ 유아기 양육비용이 영아기 보다 높음. ▶ 유아기 지원은 사교육 팽창 자극 우려로 현금지원보다 유아기 발달에 적합한 서비스 이용 부담 경감과 서비스 인프라 개선 방향 지향 ▶ 유아기 이용 서비스 이용 부담 경감: 기관 보육교육서비스 이용시 부대비용 추가 지원, 유아기 체험활동 등 여가문화생활비 지원 확대(‘문화누리카드’ 대상 연령 하향), 완구 및 도서 대여 서비스 접근성 제고 ▶ 보육교육서비스 인프라 질 제고: 누리과정 비용 지원 상향으로 선진적 서비스 제공 및 기관유형별 서비스 질 격차 해소 - 영아 가구의 부모 소득 지원 ▶ (배경) 부모의 소득 구성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를 통한 소득(근로 및 사업소득) 획득이 자녀 출산 전후인 ‘영아(임신 및 출생 전후)시기’에 가장 취약한 시기로 나타남. ▶ 부모급여 지급으로 영아 부모의 소득 보완 가능하나, ‘소득’ 지원의 측면에서는 ‘소득수준별’ 차등지원이 더욱 합리적.
양육형태별 육아지원의 균형적 발전 모색	- 기관 보육교육서비스를 이용한 대리양육 지원 ▶ 공공인프라의 확대 지속 및 지역 공급 격차 해소 ▶ 보육교육서비스 기관 이용 비용 추가 지원: 부대비용(차량, 급간식비, 입학금 등) 저소득층 (또는 소득계층별 차등에 의한) 추가 지원 - 가정 내 대리양육 지원 ▶ 공공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접근성 제고: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 - 부모 직접 돌봄 지원 ▶ 시간 지원 제도의 실효성 제고: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시 감축 근로시간에 연동한 적절한 급여 및 복지혜택 유지를 위한 개선,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도의 일부 자동화, 강제화 도입,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조성 ▶ 지역사회 육아지원 인프라 접근성 제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별 분소 설립을 통한 접근성 제고,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온라인 서비스 확대 - 긴급 돌봄 지원 체계 활성화 ▶ 부모 직접 돌봄 지원을 위한 ‘가족돌봄 휴가’이용 정착을 위한 개선: 휴가 사용 일수 확대, 비용 지원 확대 추진 ▶ 긴급상황에 대비한 상시적 ‘긴급 돌봄 지원 체계’ 마련
가구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육아지원 설계	-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용 경감 대책 강화: 아동수당의 다자녀 우대 설계, 아동수당 지급 연령의 상향 ▶ 자녀수가 고려된 전방위적 다자녀 가구 지원 설계: 주거비 세제혜택, 보건·의료비 세제혜택, 교육·보육비 다자녀 추가 지원, 문화누리카드의 다자녀 우대 도입(출생순위별 우대) -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 ▶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용 중 ‘식비’ 부담 경감을 위한 목적성 지원 추가: 식료품 구입처 사용 가능한 할인권(총 지출액의 20~25% 할인, 할인액 상한 20만원), 혹은 바우처 제공

I

서론

-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02 연구 내용
- 03 연구 방법
- 04 주요 용어 정의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5개년 연속과제의 5년차 연구로서, 기존 ‘영유아 가구 소비실태 및 육아물가연구(V)’를 정비하여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모든 아동의 생애 초기 동등한 출발선 보장 및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될 귀중한 데이터를 구축하며, 기초분석 및 심층분석을 통해 육아가구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1년 합계출산률이 0.81명으로(통계청 보도자료, 2022. 2. 23.)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모든 아동의 생애 초기 동등한 출발선 보장 및 육아가구의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러한 노력이 보육·교육서비스 인프라, 현금 지원, 시간지원 등의 형태로 지속 확대되고 있다. 즉, 무상 보육·교육의 도입 뿐 아니라, 최근 5년 동안에도 2018년도 아동수당 도입(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7. 8. 16.), 2019년, 2022년 아동수당 연령 대상 확대(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 7. 22; 2022. 2. 8.), 2020년 보육지원체계 개편(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 7. 3.),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 지원(보건복지부 보도설명자료, 2020. 2. 27.) 등 육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 지원 정책에 있어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육아지원인프라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되는 데이터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간 오로지 육아 가구의 양육비 지출과 육아서비스의 이용과 요구에 집중한 데이터를 찾기는 어려웠으며, 연도별 비교 가능한 자료의 구축은 부재하였다. 자녀 출산양육비의 부담이 자녀를 낳고 키우는데 있어 3대 장애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으나(대한민국정부, 2019: 18) 실제 영유아 가구가 자녀양육에 지출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비목에 가장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 시간이 갈수록 양육비 부담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

미흡하였다.

이에 본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육아가구의 소득과 생활비 지출, 육아서비스 이용과 육아물품의 소비지출에 집중한 설문을 구성하고 아동의 세부 연령별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표본을 구축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정책데이터를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이에 1~4차년도에 걸쳐 본 조사 결과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 새로 도입된 현금성 지원이 육아 가구에 도움이 된 용도, 표본 가구의 영유아 자녀가 초등학교로 전환하여 발생하는 양육비와 육아서비스 수요의 변화(최효미·이정원·박은정·김태우, 2020),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충격 속에서 육아 가구의 경제 상황의 변화와 다양한 지원들의 양육비 보조의 효과(최효미·이정원·김자연·이재화·김태우, 2021) 등 실제 궁금한 주제들에 대한 파악도 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즉, 2018년에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 및 양육비 지출 현황 파악을 위한 본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조사 설계 및 표본 가구를 구축해 기초데이터를 생산하기 시작한 이래, 2차년도에는 동일 표본 가구에 대해 실태조사를 반복하여 추적함을 통해 초등 1학년 자녀까지의 실태조사 자료를 구축하여 초등학교가 육아서비스 활용 실태를 추가 파악하였다. 또한 심층분석을 통해서도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양육비용 격차를 파악하였다(최효미·장혜원·김태우·고영우, 2019). 3차년도(2020) 연구에서는 초등2학년까지 확장된 패널에 대한 기초분석을 실시해 초등 저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분석, 보육지원체계 개편 등에 대응한 육아서비스 수요의 변동,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가구 경제 상황 변화 및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를 파악하고, 기구축 자료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초등전환기 아동의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변화’를 파악할 수 있었다(최효미 외, 2020). 4차년도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비대면서비스 활용 실태와 서비스 이용 변화를 파악하고, 기구축 자료를 이용해서는 코로나19 전후의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활용의 양극화 현황을 확인하였다(최효미 외, 2021).

KICCE 소비실태조사를 통한 지금까지의 성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새롭게 변화된 정책의 시행 전후 혹은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충격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육아 가구의 양육 과정에서의 소비행태 및 육아서비스 이용의 변화에 대해 고찰하는데 있어 정교한 시계열 자료의 존재는 정책적 가치가 무한하다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이에 근거 기반의 정책 개발과 정책의 효과성 검증, 육아 지원 정책의 방향성 설정을 위해 KICCE 소비실태조사와 같은 정교한 시계열 데이터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2018년부터 육아 가구를 대상으로 연동 패널조사 방식을 접목하여, 지속적인 표본 추적 및 대체표본의 구축, 매년 신생아 가구의 신규 표본 추가를 통해 영유아 연령별로 일정한 가구 표본 수를 유지하며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를 조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조사를 통해 연도별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생산할 뿐 아니라 해당 연도의 대표성 있는 표본을 유지함으로써 시계열 조사와 횡단면 조사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정책 변화의 효과를 보다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검증할 수 있어 정책적 활용도가 기대된다.

이에 5차년도 조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구의 양육 관련 소비 지출의 구체적 품목과 비용에 대한 정제된 데이터를 구축하고, 기초자료 분석과 심층 분석을 통해 육아가구의 양육비 부담 요인을 파악하여 결과적으로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육아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는 육아정책과 서비스 개발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가. 연차별 연구 내용²⁾

본 연구는 5개년 연속과제의 마지막 5차년도 연구로, 연차별 연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I-2-1]과 같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5년 동안 조사할 ‘KICCE 소비실태조사’에 대한 조사 설계와 연구범위를 확정하였고, 양육비용연구에서 시의성 연구로 공유경제와 주거 관련 분석을 수행하였다(최효미·강은진·조미라·조숙인·김태우, 2018: 23).

2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년도(2018년)에 구축한 패널에 대한 추적 및 대체와 신규표본 조사 원칙을 확정하였으며, 조사대상이 초등1학년까지 확대됨에 따라 초등 아동설문을 개발하였다. 양육비용연구에서 시의성 연구로 아동수당 도입 및 세제

2) 연속과제 성격상 최효미 외(2021 : 28~29)의 내용과 유사 중복되는 부분이 많음에 주의.

개편에 따른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심층분석으로 1차년도(2018년) 자료를 활용한 가구소득 계층별 양육비용 지출 행태와 초등학령기 진입에 따른 양육비용 변화를 분석하였다(최효미 외, 2019: 18). 육아서비스연구에서는 초등입학기 가구의 육아서비스 현황 및 요구를 분석하였다(이정림 외, 2019: 27).

3차년도 연구에서는 기존 1차년도(2018년)와 2차년도(2019년)에 분리하여 연구한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와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방안’ 연구를 하나의 연구로 통합해 진행하였고, 조사대상을 초등2학년까지 확대하였다. 시의성 연구로는 2020년에 새롭게 도입된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변화에 대한 육아가구들의 인지 및 선호를 보았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가계경제의 변화와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의 변화를 분석하였다(최효미 외, 2020: 26). 심층분석으로는 1~2차년도(2018~2019년) 자료를 활용하여 초등 전환기 자녀의 양육비용과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변화를 살펴보았다(최효미 외, 2020: 26).

4차년도 연구는 3차년도(2020년)와 마찬가지로 양육비용 연구와 육아서비스 연구를 통합하여 진행하였으며, 조사대상을 예산제약으로 인해 초등1학년(2014년생) 이하인 가구로 한정하여 조사하였다(최효미 외, 2021: 29~30). 시의성 조사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육아서비스 활용 실태와 가정 내 돌봄 지원 및 부모지원서비스를 보았으며, 심층분석으로 2~3차년도(2019~2020년) 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19 확산 초기 양육비용 변화와 공적 지원금 효과를 분석하였다(최효미 외, 2021: 28~30).

5차년도 본 연구는 연속과제의 마지막임을 고려해 연도별 결과를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관련 심층 분석으로 1~4차년도(2018~2021년)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 추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시의성 조사로는 2022년에 도입된 영아수당, 첫만남이용권 활용 등 2022년 변화하는 육아정책 관련 문항, 코로나19로 인한 육아서비스 이용 변화 경험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I-2-1] 연차별 연구 주제

연차	1차	2차	3차	4차	5차
공동 항목	○ 양육비용 연구 : 가구 및 아동 특성, 육아 가구 생활비 등 지출 실태, 비목별 양육비용 지출 현황,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관련 소비문화, 육아지원 정책 변화 및 인지, 정책 변화에 따른 소비행태 변화, 제도 개선 방안 모색 등 ○ 육아서비스 연구 : 영유아기 육아서비스 이용(반일제 이상 기관, 사교육서비스) 실태, 초 등 육아서비스 이용(공공 기관 돌봄, 사교육서비스) 실태,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행태, 육아 지원에 대한 요구 * 3차년도부터 양육비용 연구와 육아서비스 연구 과제를 통합함				
심층 분석		- 소득 계층별 양육비용 격차 -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변화	- 초등 전환기 자녀 양육비용 및 돌봄서비스 이용	- 코로나19 확산 초기 양육비용 변화와 공적 지원금 효과	- 육아가구 특성별 소득 및 지출 시계열 분석 - 코로나의 확산이 양육비용 지출에 미친 효과
시의성 조사	- 육아용품 및 공유 경제, - 주거 현황	- 아동수당 도입 및 세제 개편 - 초등 아동 설문 추가	- 코로나19 영향 및 긴급돌봄 -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한 인지 및 의견	- 비대면 육아 서비스 활용 - 가정내 돌봄 지원 및 부모 지원 서비스	- 영아수당/첫만남 이용권 - 코로나19로 인한 육아서비스 이용 변화
KICCE 소비 실태 조사 표본의 특징	- 1차년도 표본 구축 (2012년생~2018년상반기 출생아)	- 패널 조사 및 대체표본 구축 (초등1학년 까지 조사) - 신규표본 추가 (2018하반기, 2019상반기 출생아)	- 패널 조사 및 대체표본 구축 (초등2학년 까지 조사) - 신규표본 추가 (2019하반기, 2020상반기 출생아)	- 패널 조사 및 대체표본 구축 (초등1학년 까지 조사) - 신규표본 추가 (2020하반기, 2021상반기 출생아)	- 패널 조사 및 대체표본 구축(영유아만 조사) - 신규표본 추가 (2021하반기, 2022상반기 출생아)

주: 1) 5차년도 조사 기준 추적 대상 표본은 막내자녀의 연령이 영유아(2016년생) 이하인 가구로 제한되며, 이는 조사 예산의 한계로 인한 조치임.

2) 매해 출생아 신규 표본은 지속적으로 추가 표집하여 조사함.

자료: 최효미 외(2021).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IV). p.29. [그림 I-2-1]을 수정 보완함.

나. 5차년도(2022년도) 연구 내용

‘KICCE 소비실태조사’는 2018년부터 육아 가구를 대상으로 연동 패널조사 방식을 접목하여, 지속적인 표본 추적(패널 조사) 및 신규표본 추가를 통해,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를 조사해왔다(최효미 외, 2018: 77). 이에 매해 새롭게 변화된 정책 현황을 고려하여 설문을 시의 적절하게 수정, 추가함으로써 정책적 변화에 대응하는 육아 가구의 행동 양태 및 수요 변화를 고찰할 수 있었다.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에서는 4차년도

까지 구축된 표본과 신규 추가될 신생아 표본에 대한 5차년도(2022년) 조사를 실시하여 5차년도 육아가구의 양육비용, 육아서비스 수요 및 정책 요구에 대한 기초 분석을 수행함과 더불어 1~4차년도에 축적된 자료를 활용한 심층 분석에 더욱 비중을 두어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5차년도 조사에는 5년간에 걸친 패널조사의 최종 차수인 만큼 기존 설문 문항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새로 도입되는 양육비용과 육아서비스 수요 관련 정책 등 시의성 주제를 설문 조사에 새롭게 포함하여 수행하기 위해, 2022년에 도입되는 영아수당, 첫만남 이용권 등과 관련된 설문을 추가하고, 표본에서 제외되는 초등학교 이상의 아동에 대한 설문은 삭제하였다.

심층분석은 1~4차년도까지 자료를 활용하여, 크게 2가지 주제로 분석하였다.

첫째, 육아 가구의 가구소득과 소비에서 가구 특성을 고려한 양육비용의 크기와 비중에 대한 시계열적 흐름을 파악하였다.

둘째, 본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조사가 실시된 2020년 이후 이른바 ‘코로나 시대’가 지속되면서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의 지출과 관련된 크고 작은 영향이 가해졌을 것으로 예상되었는 바, 코로나19 확산 시점인 2020년 이전과(1, 2차 조사) 이후의(3, 4차 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해 코로나19의 확산이 자녀 양육 가구의 양육비용 지출에 미친 효과를 심층 분석하고자 하였다.

〈표 1-2-1〉 5차년도(2022년) 주요 연구 내용

구분		연구 내용
연속성 주제	조사개요	5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 패널 추적 조사, 대체 표본, 신생아 신규 표본 구축
	양육비용	육아 가구 양육비용 - 가구 단위: 총 양육비용, 영유아 양육비용 - 아동 단위: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 양육부담 및 공적 지원금 수혜 현황
	육아서비스 이용	영유아기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 반일 이상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학원) 이용 - 시간제 사교육서비스(학원, 기타 사교육) 이용 - 시간제 일시보육서비스 이용 - 문화센터, 키즈카페, 비정기체험활동 이용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행태
		육아 지원에 대한 요구 - 희망하는 육아서비스 유형 및 개선사항 - 긴급돌봄, 시간지원 정책 활용 의향 - 육아지원이 부족한 시기 및 부족한 육아지원 범주

구분		연구 내용
시의성 주제	사회적 상황 및 정책 변화 반영	코로나 19로 인한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영향 -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이유로 반일 이상 기관 미등원 경험 영아기 집중 투자 관련 사업 확대 관련 행태 - 영아 수당 수혜 및 활용 비목, 양육비 경감 정도 - 첫만남 이용권 인지 및 양육비 경감에 대한 기대, 이용 계획(지출 계획 비목)
	심층 분석	1) 육아가구 특성별 소득 및 지출 시계열 분석 2) 코로나의 확산이 양육비용 지출에 미친 효과

주: 심층 분석은 5차년도 자료가 아닌 기 구축 자료(1~4차)를 활용한 분석이므로 주의를 요함.

자료: 최효미 외(2021).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IV), p.31, 〈표 1-2-1〉과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설문지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

3. 연구 방법

가. 문헌연구

본 연구에서는 육아가구의 양육비용과 육아서비스 소비 경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아 가구를 위한 각종 정부 지원 정책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5차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 문항에 반영하기 위해 관련 선행 연구 및 문헌 자료를 검토하였다. 이번 5차년도 보고서에서는 본 조사가 시작된 2018년부터 종료되는 2022년까지의 기간 동안 양육비용 지원, 서비스 지원, 시간 지원과 관련된 육아정책 변화를 전반적으로 고찰할 수 있도록 정리하도록 하였으나, 특히 4차년도 조사 시점인 2021년과 2022년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였다.

나.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구축이 완료된 표본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2021년 하반기 및 2022년 상반기에 출생한 아동에 대한 신규 표본을 추가 구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만 2018년도에 1차년도 조사표본 구축으로 시작된 본 소비실태조사는 3차년도 2020년 1차년도에 구축된 표본이 초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추적 조사하였으나, 확대되는 표본에 비해 제약된 연구 예산으로 4차년도 조사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생까지로 축소하여 조사하였고, 5차년도에는 초등학생이 된 표본은 제외하고 영유아 표본만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하여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과 소비실태 분석에 집중하였다. 대신 영유아 각 연령별 적정 수준의 표본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표본 추적에 실패한 원표본에 대해서는 가구소득, 자녀연령 등

주요한 특성이 동질적인 특성을 갖는 육아가구로 대체표본을 구축하였다(최효미 외, 2021: 32). 5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설계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III장에 제시하였다.

한편 5차년도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로부터 연구의 생명윤리준수 및 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받았으며, 2022년 5월 2일 최종 승인을 받았다³⁾.

다. 기 구축 자료를 활용한 심층 분석

KICCE 소비실태조사는 기본 구조가 패널 조사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연내에 조사를 실시하여 완료한 후 이에 대한 심층 분석까지를 마무리하는데 연구 기간의 제한이 존재한다. 따라서 당해연도 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는 당해연도의 양육비용 산출 및 이용 현황 분석 등 기초적 분석에 제한되고 있다(최효미 외, 2020: 28). 이에, 차년도 연구에서 전년도까지 구축된 조사 자료를 활용한 심층 분석 주제를 2차년도 보고서 이후 매년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5차년도 연구에서는 1~4차년도까지 구축된 KICCE 소비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육아가구 특성별 소득 및 지출 시계열 분석’과 ‘코로나의 확산이 양육비용 지출에 미친 효과’를 주제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라. FGI(포커스 그룹 인터뷰)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 속에서 코로나19가 영유아 가구의 육아물품 및 육아서비스 이용에 미친 전반적인 영향, 양육비 부담에의 영향을 파악하는 한편, 2022년 영아수당 도입 등 육아정책 변화로 인한 육아서비스 수요 변화를 파악하고 육아가구의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영유아 부모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영아와 유아에 대한 지원 요구를 각각 파악하기 위해 현재 첫째자녀가 영아인 가구 7사례, 첫째자녀가 유아인 가구 9사례 등 총 16사례에 대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 면담은 영아 부모 2회, 유아 부모 2회로 총 4회 실시하였다.

3) 연구승인번호: KICCE-IRB-2022-제03호(연구승인 기간: 2022. 5. 2 ~ 2022. 12. 31). 5차년도 소비실태조사 추진에 대한 승인임.

심층 면담 사례는 다음과 같다.

〈표 I-3-1〉 심층 면담 사례

사례번호	자녀 연령	총자녀수	아동 기관 이용 여부	맞벌이 여부
1	만 1세	1	미이용	×
2	만 2세	1	미이용	×
3	만 2세(첫째)/ 만 1세(둘째)	2	이용(어린이집: 첫째) 미이용(둘째)	×
4	만 2세	1	이용(어린이집)	○
5	만 1세	1	이용(어린이집)	○
6	만 2세	1	이용(어린이집)	○
7	만 2세(첫째)/ 만 1세(둘째)	2	이용(어린이집: 첫째) 미이용(둘째)	○
8	만 3세(첫째)/ 만 1세(둘째)	2	이용(어린이집: 첫째) 미이용(둘째)	○
9	만 6세	1	이용(유치원)	○
10	만 6세	1	이용(어린이집)	○
11	만 4세	1	이용(유치원)	○
12	만 4세(첫째)/ 만 1세(둘째)	2	이용(유치원: 첫째) 이용(어린이집: 둘째)	○
13	만 4세	1	이용(유치원)	×
14	만 5세	1	이용(기타 반일제이상 기관)	×
15	만 5세(첫째)/ 만 1세(둘째)	2	이용(유치원: 첫째) 미이용(둘째)	×
16	만 5세(첫째)/ 만 3세(둘째)	2	이용(유치원: 첫째) 이용(어린이집: 둘째)	×

마. 전문가 자문회의

5차년도 심층분석 주제 발굴, 육아 가구의 양육비 부담 경감과 합리적인 육아물품과 육아서비스 소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방안 검토 등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표 I-3-2〉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현황

회차	일시	참석자	주요 자문 내용
1회	3. 10	조사 분야 실무전문가 3인	5차년도 조사 설계 관련
2회	3. 23	유아교육/보육 전문가 2인	착수보고
3회	4. 19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위원	연구 설계 및 설문의 과학적 타당성, 생명윤리적합성 검토
4회	6. 23	관련학계 전문가 2인/ 행정 전문가 1인	중간보고(연구추진 및 내용 점검)
5회	10. 25	관련학계 전문가 2인/행정 전문가 1인	최종보고(연구 결과 및 추진 결과에 대한 자문)

4. 주요 용어 정의

본 절에서는 본 보고서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 중 혼동의 가능성이 있는 용어들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본 보고서에서 산출되는 ‘양육비용’은 자녀를 키우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의미하며(최효미 외, 2018: 28~30; 최효미 외, 2021: 36에서 재인용) 본 보고서에서는 크게 3가지의 양육비용이 산출된다.

먼저 ‘총 양육비용’은 가구 내 모든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최효미 외, 2021: 36). 본 연구에서 ‘영유아 가구’라 정의하는 막내 자녀가 영유아인 가구에서 영유아 외 초등학교령기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 그 자녀에 대해 소요된 비용까지 모두 합한 금액이 ‘총 양육비용’이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 ‘영유아 양육비용’으로 표기되는 것은 ‘가구 내 모든 영유아 자녀의 양육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최효미 외, 2021: 36). 이는 즉 가구 내 초등학교령기 이상 자녀가 있더라도 이 자녀에 대해 소요된 양육비용은 ‘영유아 양육비용’ 산출에서는 제외된다는 것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양육비용을 가구 단위 지출이 아닌 아동별 일인당 양육비용으로 산출한 비용을 ‘일인당 양육비용’이라 한다. 일인당 양육비용은 소비실태조사 1~5차년도에 걸쳐 매년 표본 가구의 자녀 연령별로 산출이 되고 있어, 5차년도 조사에서는 가구 내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을 산출하였다.

〈표 I-4-1〉 양육비용 산출기준

산출단위	양육비용 구분	표본 대상 기준	산출 대상 범주
가구	총 양육비용	막내 자녀 연령이 영유아(만 0~6세)인 가구(=영유아 가구) ^{주)}	가구 내 모든 자녀 (초등학교령기 이상 아동 포함)
	영유아 양육비용		가구 내 모든 영유아 자녀 (만 0~6세, 미취학)
아동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영유아 가구	각 연령별 아동

주: 영유아 가구 내에는 영유아 외에도 손윗자녀로 초등학교 이상 자녀가 있을 수 있음.
출처: 최효미 외(2021). p.37. 〈표 I-4-1〉 양육비용 산출기준.

II

육아정책 동향

01 2018~2022 분야별 육아지원 정책 동향

02 영아기 집중 투자 관점의 육아지원 강화 배경과 동향

II. 육아정책 동향

이 장에서는 2022년 도입된 많은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영유아기 집중 투자 관점’의 강화 배경을 살펴보고, 본 조사가 시작된 2018년부터 현재까지의 육아지원 정책의 변화와 동향을 정리해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1. 2018~2022 분야별 육아지원 정책 동향

이 절에서는 KICCE 소비실태조사 연구가 수행되었던 2018~2022년 간 영유아 돌봄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 정책에서의 변화와 동향을 기술하고자 한다.

가. 영유아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지원 정책

1) 영유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육아서비스 수요자의 입장에서 어린이집·유치원 등 ‘기관’ 서비스 지원은 크게 ‘인프라 구축’과 ‘이용 비용 지원’을 통해 육아서비스 기관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이정원·이정람·김태우, 2018: 62), 본 고에서는 ‘이용 비용 지원’의 측면에 집중하여 2018~2022년간에 걸쳐 이루어진 어린이집 보육료·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의 변화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육료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만 0~5세 아동,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거주불명등록가구의 아동에 대해 지원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2a: 333~334). 예외적으로 난민은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2018년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가 보육료 지원 대상에 신규로 포함되었으며⁴⁾(보건복지부, 2018: 310), 2022년에는 예외지원대상에 ‘아프간특별기여자’⁵⁾

4) 재외국민은 2018년에는 양육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19년부터 보육료와 양육수당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됨(보건복지부, 2018: 310; 보건복지부, 2019: 315).

5) 아프간특별기여자의 자격책정은 3가지 조건(① 대상 아동의 외국인등록증상 번호가 F-2비자로 확인된 자,

도 추가되었다(보건복지부, 2022a: 333).

〈표 II-1-1〉 2018~2022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대상 변화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대한민국 국적 보유, 주민등록번호 정상 부여받은 만 0~5세 아동	원칙	○	○	○	○	○
	예외					
	난민	○	○	○	○	○
	아프간 특별기여자	-	-	-	-	○
	재외국민	○ ^{주)}	○	○	○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 아동		○	○	○	○	○
거주불명등록가구 아동		○	○	○	○	○

주: 2018년에는 보육료 지원 대상에만 포함. 2019년부터 양육수당 지원대상에도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2018). 2018년도 보육사업안내. p.310; 보건복지부(2019).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p.316; 보건복지부(2020).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p.323; 보건복지부(2021).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p. 329; 보건복지부(2022a).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p.333.

한편 보육료 지원대상자에게 지원되는 보육료는 ‘지원체계’의 변화와 함께 지원 유형과 수준이 변화되어 왔다.

2018년 본 ‘KICCE 소비실태조사’가 시작되는 시기는 2016년 7월 도입된 ‘맞춤형 보육 체계’가 시행중인 시기로 보육료 지원 대상 중 만0~2세반 이용 영아에 대해서는 보육 수요에 따른 ‘자격 기준’을 정하여 어린이집 운영시간(07:30~19:30)을 종일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과 6시간(09:00~15:00)을 이용할 수 있는 ‘맞춤반’을 구분하여 이용 시간에 따라 ‘종일반 보육료’, ‘맞춤반 보육료’를 차등하여 지원(보건복지부, 2017: 309)하고 있었다.

그러나, 2020년 3월부터 보육지원체계는 새로이 개편되었다⁶⁾. 이는 기존의 어린이집 12시간 운영시간 원칙은 유지하면서, 0~2세반에 대해서는 모든 영아에게 적용되는 ‘기본보육시간’과 기본보육시간 이후 돌봄공백이 우려되는 영아에게 적용되는 ‘연장보육시간’으로 보육시간을 구분하는 것으로(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0. 4. 10 인출⁷⁾; 최효미 외, 2020: 33에서 재인용),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연장보육 자격 있는)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 시

② 법무부에서 해당 지자체(외국인업무 담당자)에 제공하는 아프간특별기여자 명단(공문)과 대조하여 아프간 특별기여자인지 최종 확인, ③ 외국인등록증 및 해당 공문 등 구비서류가 모두 충족되어야 함(보건복지부, 2022a: 333)

6) 국민일보(2019. 7. 3).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연장보육 시행...저녁까지 맡아준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459025&code=61111311&cp=nv>(인출일: 2022. 3. 10.).

7) www.mohw.go.kr/react/cm/scm0307nc.jsp?PAR_MENU_ID=01(인출일: 2020. 4. 10.)

시간당 연장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는 체계로 개편된 것이다(보건복지부, 2020: 340). 개편된 보육지원체계 내 ‘기본보육시간’은 어린이집 등원 후 오후 4시까지이며, 오후 4시~7시 30분까지는 ‘연장보육’으로 구직·취업·돌봄 필요 등의 자격 조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8)).

[그림 II-1-1] 보육지원체계의 변화(2018~2022)

	맞춤형 보육(2016.7~2020.2)			기본-연장보육(2020.3~)		
	〈표준보육과정〉					지원강화
프로 그램	맞춤반 (9:00~15:00)			통합반	표준 보육과정	연장과정
	통합반	종일반(7:30~19:30)				
인력	당번	담임교사	당번	당번	담임교사	연장 담임교사
비용 지원	맞춤형보육료			보육료		인력지원
	종일반보육료					
	누리과정보육료 운영비					
				〈-----〉 기본보육		〈----〉 연장보육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react/cm/scm0307nc.jsp?PAR_MENU_ID=01 (인출일 : 2020. 4. 10.); 최효미 외, 2020: 34에서 재인용을 수정함

연장보육은 고정적으로 17시 이후의 보육 수요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보육 아동 수와 연장반 아동의 연장보육 이용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반 전담교사 인건비가 지원된다. 연장보육 이용시간에 따른 연장보육료는 정부에서 어린이집으로 전액 지원하며, 이에 따라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가정에 자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보건복지부 보육지원체계개편 추진단, 2020:16~19; 최효미 외, 2020: 34~35에서 재인용).

2018년~2022년 간 보육료 지원단가(부모보육료 기준9))를 정리하면 <표 II-1-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II-1-2>에 따르면 2020년 보육지원체계 개편 이후 연령반별 보육료 지원

8)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카드뉴스, 묻고답하다 보육지원체계 개편 Q&A, http://www.mohw.go.kr/upload/content_data/2020/card_08_01.pdf(인출일: 2022. 3. 14).

9) 단, 연장보육료는 지원대상이 17시 이후 연장보육을 제공한 어린이집으로, 연장보육을 이용한 아동의 이용시간에 따라 시간당 단가를 어린이집에 지원함(보건복지부, 2021: 357)

수준은 대폭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보육지원체계 개편 이후 ‘기본보육’ 시간은 등원 후 16:00까지로 맞춤형보육 체계 내에서 09:00~15:00까지에 해당하는 맞춤형보육 이용 시간보다 1시간가량 많은 수준이나 보육료 지원 단가는 12시간 보육을 이용하는 ‘종일반’수준에 맞춰 상향되고 추가적인 연장보육시간에 대해 시간당 비용도 전액 지원되므로 보육료 지원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22년에는 2021년 대비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 지원단가는 연령반별 약 3%수준 상향되었다. 3~5세반 보육료 지원단가도 2014년 최초 도입시의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인상된 후 동결되어 있던 단가가 2020년 이후 매년 2만원씩 지속 인상되어 왔다.

〈표 II-1-2〉 보육료 지원단가 변화(2018~2022)

단위: 원

맞춤형 보육	0세반		1세반		2세반		3~5세반	
	종일반	맞춤반	종일반	맞춤반	종일반	맞춤반		
2018	441,000	344,000	388,000	302,000	321,000	250,000	220,000	
2019	454,000	354,000	400,000	311,000	331,000	258,000	220,000	
2020.1.1~ 2.29	470,000	367,000	414,000	322,000	343,000	268,000	220,000	
기본/연장 보육	0세반		1세반		2세반		3~5세반	
	연장보육 (시간당)	기본보육	연장보육 (시간당)	기본보육	연장보육 (시간당)	기본보육	연장보육 (시간당)	기본보육 (누리과정)
2020.3.1.~	3,000	470,000	2,000	414,000	2,000	343,000	1,000	240,000
2021	3,000	484,000	2,000	426,000	2,000	353,000	1,000	240,000 (~'21.2.28) /260,000 ('21.3.1~)
2022	3,000	499,000	2,000	439,000	2,000	364,000	1,000	260,000 (~'22.2.28) /280,000 ('22.3.1~)

주: 1) 월기준.

2)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3~5세반 이용의 경우 사·도지사가 정하는 수납한도액내에서 부모부담 보육료 추가 수납 가능.

자료: 보건복지부(2018). 2018년도 보육사업안내. 325p.; 보건복지부(2019).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p.332; 보건복지부(2020).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p.341~342; 보건복지부(2021).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p.349, 357; 보건복지부(2022a).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p.332를 통합재구성함.

한편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실현하고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3~5세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이 도입된 후(교육부, 2018: 1) 어린이집 3~5세반과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유아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육료·유아학비가 지원되어 왔다. 유아학비 지원은 3~5세 보육료와 동일하게 지원되어 누리과정 도입 초기인 2013년 20만원으로 도입된 후, 2014년 22만원으로 상향 후 오랜 기간 동결되었으나, 2020년 3월부터 매년 2만원씩 상향되어 2022년 3월부터는 28만원에 이르렀다(교육부, 2020: 1; 교육부, 2021: 1; 교육부, 2022: 1).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유아학비 지원액은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액에 비해 뒤늦게 인상되어 2021년 기존 6만원에서 8만원, 2022년 10만원으로 증액되었다(교육부, 2021: 1; 교육부, 2022: 1). 이밖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에 대해서는 추가 학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교육부, 2020: 1). 즉, 2019년부터는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 차상위, 한부모) 유아에 대해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월 최대 10만원까지 추가 지원하기 시작했는데(교육부, 2019: 1), 2022년도에 지원액이 월 최대 15만원으로 상향되었다(교육부, 2022: 1).

한편 방과후 과정비 지원은 2018년 이후 국공립유치원 5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7만원으로 금액 변동 없이 지원되고 있다(교육부, 2022: 1).

〈표 II-1-3〉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 변화(2018-2022)

단위: 원

연도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액			방과후과정비			저소득층유아학비 지원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2018	60,000	220,000	220,000	50,000	70,000	70,000	-
2019	60,000	220,000	220,000	50,000	70,000	70,000	100,000
2020	60,000	240,000	240,000	50,000	70,000	70,000	100,000
2021	80,000	260,000	260,000	50,000	70,000	70,000	100,000
2022	100,000	280,000	280,000	50,000	70,000	70,000	150,000

자료: 교육부(2018). 2018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교육부(2019). 2019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교육부(2020). 2020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교육부(2021). 2021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교육부(2022). 2022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통합재구성.

2) 시간제보육료 지원

가) 시간제 보육 인프라 구축 현황

시간제보육은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를 말한다(보건복지부,

2022a: 307). 시간제 보육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영아수당(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6개월~36개월 미만의 영아를 지원대상으로 한다(보건복지부, 2022a: 307).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은 시·군·구로부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으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밖에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시설로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 관련 시설¹⁰⁾ 중 지정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2a: 308).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은 2018년 443개소에서 2022년 3월 현재 832개소로 대폭 확대되었다(표 II-1-4 참조).

〈표 II-1-4〉 시간제 보육 기관 현황

단위: 보육반 수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3
제공기관	443	490	681	857	832

자료: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시도별 시간제보육 운영 현황, <https://www.kcpi.or.kr/kcpi/cyberpr/childcaresstat4.do>. (인출일: 2022. 5. 30.).

나) 시간제보육 이용 지원

시간제보육의 이용 대상은 6개월~36개월 미만의 영아(내/외국인)이며, 이중 영아수당(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하는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가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월 80시간 이내에서 시간당 3천원이 지원된다(표 II-1-5 참조). 즉, 이용 단가는 시간당 4천원이나 지원을 받을 경우 실제 부모부담은 시간당 1천원 수준이다(표 II-1-5 참조). 단,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시간당 4,000원)으로 이용 가능하며, 외국인 아동의 경우 '22년 4월부터 시간제보육 관리기관에서 아동 등록 후 전액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하게 되어 이용 대상이 확대되었다(보건복지부, 2022a: 315). 2018~2022년 동안 시간제보육의 이용단가와 지원단가는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의 운영시간은 월~금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가 원칙이며(보건복지부, 2022c: 13), 이용은 사전예약 또는 당일예약 등 예약에 의하며, 사전예약은 온라인 또는 전화로 서비스 이용일 30일 전 9:00부터

10) '보육관련시설'은 ①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아동전용시설(예시: 아동회관), ②도서관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어린이도서관, ③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육 관련 시설로 함.(보건복지부, 2022a: 308)

1일 전까지, 당일 예약은 전화로 당일 15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 2022c: 15).

〈표 II-1-5〉 시간제 보육 이용 및 지원 기준

구분		내용
이용대상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내/외국인)
지원대상		영아수당(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자
지원시간		월 80시간
보육료	이용단가	시간당 4천원
	지원단가	시간당 3천원
	부모부담	시간당 1천원

자료: 보건복지부(2022a).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p.315.

3)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우리나라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기관에서 제공하는 집단적 돌봄·교육서비스 외 개별인력이 가정으로 찾아가 한 가정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이 2007년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및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으로 신규 도입되기 시작한(여성가족부, 2022: 8) ‘아이돌봄서비스’이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도입 이후 2012년 아이돌봄지원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여성가족부, 2022: 8).

그간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지원대상 확대, 정부지원을 상향, 정부지원시간 확대 등 사업의 양적 확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지원대상, 정부지원을 및 정부지원금, 정부지원시간을 중심으로 2018~2022년 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21~2022년에 걸친 아이돌봄서비스 종류별·소득유형별 시간당 지원금액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아이돌봄서비스는 2022년에도 2021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시간당 요금 수준 인상에 따라 각 지원유형별로 절대적 정부지원금액이 증가하였다. 한편 질병감염아동지원은 A형 지원대상의 ‘나’형 소득유형에 대해서는 2019년 정부지원비율이 50%에서(여성가족부, 2019: 59) 2020년 55%로 증가한 후(여성가족부, 2020: 49), 2021년에는 60%로 정부지원율과 절대액이 지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II-1-6〉 2021~2022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시간당)

단위: 원

시간당 지원 금액	시간제 (A형 기준)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일반형		종합형		(생후 3~36개월)		A형		B형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가형	8,534원 (85%)	8,968원 (85%)	8,534원	8,968원	8,534원 (85%)	8,968원 (85%)	10,243원 (85%)	10,761원 (85%)	9,038원 (75%)	9,495원 (75%)
나형	6,024원 (60%)	6,330원 (60%)	6,024원	6,330원	6,024원 (60%)	6,330원 (60%)	7,230원 (60%)	7,596원 (60%)	6,025원 (50%)	6,330원 (50%)
다형	1,506원 (15%)	1,583원 (15%)	1,506원	1,583원	1,506원 (15%)	1,583원 (15%)	6,025원 (50%)	6,330원 (50%)	6,025원 (50%)	6,330원 (50%)
라형	-	-	-	-	-	-	6,025원 (50%)	6,330원 (50%)	6,025원 (50%)	6,330원 (50%)

주: A형은 2022년은 2015.1.1. 이후 출생아, 2021년은 2014.1.1. 이후 출생아를 의미하며, B형은 2022년은 2014. 12. 31 이전 출생아, 2021년은 2013.12.31. 이전 출생아를 의미함.

자료: 1) 여성가족부(2021). 2021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47, 49, 52.

2) 여성가족부(2022). 2022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48, 50, 53.

KICCE 소비실태조사가 시작된 2018년 이후 2022년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의 지원 기준과 정부지원비율,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다음 〈표 II-1-7〉과 같다.

가~라의 소득유형 중 정부가 서비스 이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가~다의 소득 기준은 2019년에 모든 소득유형에서 대폭 상승하였다. 즉, 가장 높은 비율의 정부지원을 받는 ‘가’형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2019년 75% 이하로 상승하였으며, ‘나’형은 중위소득 60% 초과 85% 이하에서 75% 초과 120% 이하까지 상승하였다. 마지막으로 ‘다’형은 2018년에는 중위소득 85% 초과 120% 이하인 가구가 해당하였으나 2019년 이후 기존에 정부지원대상이 되지 않았던 120% 초과 150%이하 가구가 포함되게 되어 2019년 이후 2018년 이전에 비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비용의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 II-1-7 참조).

또한 각 소득유형에 대한 정부지원의 비율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가’형은 2018년 이용단가 중 80% 정부지원에서 2019년 이후 85%로 5%p 인상되었고, ‘나’형은 2018년 이용단가의 50% 지원에서 2019년 55% 지원으로 인상된 후 2021년에 60% 지원으로 지속 상승하였다(표 II-1-7 참조).

단, 2018년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중위소득 120%초과~150%이하에 해당하는 ‘다’형의 경우에는 2018년 기존 120% 이하 가구인 ‘다’형에 대한 정부지원비율인 30%보다 하락한 15%의 정부지원율이 2019년 이후 유지되고 있다(표 II

-1-7 참조).

한편, 2020년 초 아이돌봄지원사업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 등에 대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등 이용자 부담을 완화하는 한시적 조치를 시행하여¹¹⁾,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중 정부지원 비율을 기존의 0~85%에서 40~90%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최효미 외, 2020: 38).¹²⁾

〈표 II-1-7〉 2018~2022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유형별 소득기준 및 정부지원금 변화 추이(시간제 일 반형 기준)

단위: 원

유형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중위소득 (2,712천원)	중위소득 (3,460천원)	중위소득 (3,562천원)	중위소득 (3,657천원)	중위소득 (3,840천원)
가형	소득기준 (4인가족)	60%이하 (2,712천원)	75%이하 (3,460천원)	75%이하 (3,562천원)	75%이하 (3,657천원)	75%이하 (3,840천원)
	정부지원 (비율/비용)	80% (6,240원)	85% (8,203원)	85% (8,407원)	85% (8,534원)	85% (8,968원)
나형	소득기준	85%이하 (3,841천원)	120%이하 (5,536천원)	120%이하 (5,699천원)	120%이하 (5,851천원)	120%이하 (6,145천원)
	정부지원 (비율/비용)	50% (3,900원)	55% (5,308원)	55% (5,440원)	60% (6,024원)	60% (6,330원)
다형	소득기준	120%이하 (5,423천원)	150% 이하 (6,920천원 이하)	150% 이하 (7,124천원)	150%이하 (7,314천원이하)	150% 이하 (7,681천원 이하)
	정부지원 (비율/비용)	30% (2,340원)	15% (1,448원)	15% (1,484원)	15% (1,506원)	15% (1,583원)
라형	소득기준	120%초과 (5,423천원 초과)	150% 초과 (6,920천원 초과)	150% 초과 (7,124천원 초과)	150%초과 (7,314천원초과)	150% 초과 (7,681천원 초과)
	정부지원 (비율/비용)	-	-	-	-	-

자료: 1) 여성가족부(2018). 2018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11.
 2) 여성가족부고시 제2018-57호(2019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3) 여성가족부고시 제2019-50호(2020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4) 여성가족부(2019). 2019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19.
 5) 여성가족부(2020). 2020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13.
 6) 여성가족부(2021). 2021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11, 49.
 7) 여성가족부(2022). 2022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32, 50.

- 11)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0.2.28.). 아이돌봄서비스, 코로나19로 인한 이용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6892(인출일: 2022. 4. 10)
- 12)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0.2.28.). 아이돌봄서비스, 코로나19로 인한 이용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6892(인출일: 2022. 4. 10)

마지막으로 2018~2022년에 걸쳐 아이돌봄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 시간 변화를 살펴보았다. 모든 서비스 유형이 2019년에 2018년 대비 정부지원 시간이 확대되었는 바,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정부지원을 받기 위한 하한선이 월 120시간에서 월60시간 이상으로 완화되었고, 가장 이용비율이 높은 '시간제'서비스의 경우 2018년 연 600시간에서, 2019년 720시간으로 확대된 후 2021년에 다시 한번 840시간으로 확대되어 결과적으로 2018년 대비 2022년에는 정부지원시간이 40%나 확대되었다. 한편 2020년 중증장애 부모 자녀에 대한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에 대한 특례가 도입되어 960시간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질병감염아동서비스는 2019년 시간제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 시간을 차감하는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아동의 출생연도에 따른 A, B유형, 가~라의 소득유형에 따라 정부시간을 차감하는 것을 적용하거나 정부가 기본요금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이 차등적으로 적용받게 되었다(표 II-1-8 참조).

〈표 II-1-8〉 2018~2022 아이돌봄서비스 유형별 지원시간 변화

단위: 시간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영아종일제	월120~200시간	월 60~200시간	월 60~200시간	월 60~200시간	월 60~200시간
시간제	연 600시간	연 720시간	연 720시간	연 840시간	연 840시간
시간제 (중증장애 부모 자녀 대상 특례)	-	-	960시간	960시간	960시간
질병감염 아동서비스	-	연720시간(시간 제서비스 정부지원시간 한도에서 차감)	주)정부시간차감 적용/미적용 선택/ 정부가 기본요금의 50% 지원(출생연도 및 소득유형에 따라 차등)	정부시간차감 적용/미적용선택 / 정부가 기본요금의 50% 지원(출생연도 및 소득유형에 따라 차등)	정부시간차감 적용/미적용선택 / 정부가 기본요금의 50% 지원(출생연도 및 소득유형에 따라 차등)

주: A형('가', '나'), B형('가'): 이용가정이 ① 정부지원시간 차감적용, ② 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중 선택하며, A형('다', '라'), B형('나', '다', '라')은 정부가 기본요금의 50%를 지원함(여성가족부, 2022: 12).

- 자료: 1) 여성가족부(2018). 2018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9.
 2) 여성가족부(2019). 2019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19.
 3) 여성가족부(2020). 2020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p.13~14.
 4) 여성가족부(2021). 2021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p.11~12.
 5) 여성가족부(2022). 2022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p.11~12.

4) 양육수당/영아수당

가) 양육수당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은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까지는 취학 전 연령의 12월까지 지원하였으나, 2019년부터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로 지원기간이 2개월 연장되었다(최효미 외, 2019: 30). 지원금액은 일반적인 양육수당,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아동 양육수당,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 양육수당으로 구분되며, 월령별로 다르게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22a: 374). 지원금액은 2018년 이후 계속 동일하였다.

〈표 II-1-9〉 양육수당 지원금액

단위: 개월, 천원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200천원	0~11	200천원	0~35	200천원
12~23	150천원	12~23	177천원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0천원	36~47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29천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자료: 보건복지부(2022a).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p.374.

나) 영아수당¹³⁾

영아수당은 2022년 출생아부터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0~1세 영유아에게 지원하며, 소득기준이 없는 보편적 지원이다. 2022년 기준 지원액은 월 30만원이며,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중 1가지 서비스만을 받을 수 있으며 동시 지원은 불가하다. 가정양육하는 아동 중 만 2세부터는 영아수당이 아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13) 복지로, 복지서비스, 영아수당 지원,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 (인출일: 2022. 6. 8.).

5)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도입시기에는 만 6세 미만의 아동 중 소득·재산 기준 하위 90%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9년 1월에 지원 대상 가구 소득 기준이 삭제되었다(최효미 외, 2019: 24). 2019년 9월에는 기존 만 6세 미만의 아동에서 만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되었으며, 2022년 4월부터는 만 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되었다(최효미 외, 2019: 24; 보건복지부, 2022b: 3). 지원 금액은 도입 이후 10만원으로 모두 동일하였다.

〈표 II-1-10〉 아동수당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구분	2018년 9월 1일	2019년 1월 1일	2019년 9월 1일	2022년 4월 1일
	도입	보편지급	연령확대	연령확대
지원 대상 연령	만 6세 미만의 일부 아동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
지원 대상 가구 소득 기준	소득·재산 기준 하위 90%	없음	없음	없음
지원 금액	아동당 매월 10만원	아동당 매월 10만원	아동당 매월 10만원	아동당 매월 10만원

주: 1) 제도 적용 시기로 제시된 날짜 기준으로 대상 연령을 표기함.
 2) 2019. 1.1 기준 아동수당 지원 대상 연령 계산 방식은 A년 B월에는 (A-6)년 (B+1)월 출생까지를 지원함.
 자료: 1) 최효미 외(2019).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II). p.24. 〈표 I-4-2〉를 참조하여 재구성함.
 2) 보건복지부(2022b). 2022년 아동수당 사업 안내. p.3.

6) 기타: 코로나19 대응 한시 아동돌봄쿠폰 지원(2020)¹⁴⁾

아이돌봄쿠폰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다. 아동수당을 받은 약 177만 명의 보호자(아동 수 기준 약 230만 명)에게 아동 1인당 40만원을 돌봄포인트로 지원하였다. 아동이 거주하는 광역시 또는 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등 일부를 제외하고 일반카드가 사용 가능한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카드를 사용 시 자동으로 돌봄포인트가 사용되는 방식으로 지원되었다.

14)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0. 4. 13.).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 오늘 약 177만 명의 보호자에게 지급.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040&SEARCHKEY=TITLE&SEARCHVALUE=%EC%95%84%EB%8F%99%EB%8F%8C%EB%B4%84%EC%BF%A0%ED%8F%B0\(인출일: 2022. 4. 10\).](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040&SEARCHKEY=TITLE&SEARCHVALUE=%EC%95%84%EB%8F%99%EB%8F%8C%EB%B4%84%EC%BF%A0%ED%8F%B0(인출일: 2022. 4. 10).)

나. 부모 시간 지원 정책의 동향

본 절에서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 지원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김나영·도남희·이동하·조혜주(2016: 24)에서는 시간정책을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의 부모들이 자녀양육을 위하여 기본적인 양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정의하면서 유연근무제도와 출산 및 육아관련 휴가·휴직제도를 포함하여 소개하였다. 이러한 프레임에서 본 절에서는 유연근무제도와 육아관련 휴가·휴직제도의 최근 정책동향과 제도 사용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 유연근로제도

가) 근로기준법 상 유연근로제도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고용노동부, 2019: 3). 근로기준법상 유연근로시간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 사업장 간주근로시간제(제58조제1·2항), 재량근로시간제(제58조제3항)이고 넓게는 보상휴가제(제57조)까지 포함한다(고용노동부 2019: 3).

〈표 II-1-11〉 유연근로제도

구분	주요 유형
근로기준법 상 유연근로시간제	-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
	-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제58조제1·2항)
	- 재량근로시간제(제58조제3항)
	※ 보상휴가제(제57조)

자료: 고용노동부(2019).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p.3.

각 유연근무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일이 상대적으로 없을 것 같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이다(표 II-1-12참조).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표 II-1-12참조).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는 출장 등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정 근로시간 또는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무제도이다(표 II-1-12 참조). 재량근로시간제도는 업무 성질을 고려하여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표 II-1-12참조).

〈표 II-1-12〉 유연근로제도 별 상세 내용

구분	주요 유형	적합직무
탄력적 근로시간제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시기별(성수기·비수기) 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 등
선택적 근로시간제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근로시간(근로일)에 따라 업무량의 편차가 발생하여 업무조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관리(금융 거래·행정처리 등), 연구, 디자인, 설계 등
사업장 밖 간주근로 시간제	출장 등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정 근로시간 또는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무제도	근로시간 대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영업직, A/S 업무, 출장 업무 등
재량근로 시간제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에 한함 1.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 연구 2. 정보처리시스템 설계 또는 분석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사업의 기사 취재, 편성 또는 편집 4.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5.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 제작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6. 회계·법률사건·납세·법무·노무 관리·특허·감정평가·금융투자분석·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위촉을 받아 상담·조언·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보상휴가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로 부여하는 제도	업무를 완료한 이후에는 일정기간 휴식기간을 가지는 직무, 다른 인력으로 하여금 대체업무 수행이 가능한 연구·교육 등의 직무

자료: 고용노동부(2019).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p.4.

나) 재택근무제

재택근무는 근로자가 부여받은 업무를 자택 등 지정된 장소에서 수행하는 근로 유형을 말한다(고용노동부, 2022: 1). 근로기준법 상에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으면 이를 근거로 하여 재택근무가 가능하다(고용노동부, 2022: 3). 최근 코로나 19의 전국적 확산으로 기업에서 재택근무 활용성이 높아지게 되어 정부의 관련 가이드라인이 배포되게 되었다(고용노동부, 2022: 1).

정부에는 재택근무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용노동부, 2022: 6).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이고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1/2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22: 6).

〈표 II-1-13〉 재택근무 인프라(설비) 구축비 지원 대상 시설

종류	지원금 용도	지원방식
시스템 구축비	■ 정보시스템 - 그룹웨어, ERP,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 보안시스템 - VPN 등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인증 시스템 등 ■ 서비스 사용료(최대 3년 사용약정분) - 웹 기반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 등 ■ 취업규칙 변경, 제도 도입 컨설팅 비용 ■ 인사담당자 교육·훈련 비용	직접 지원

자료: 고용노동부(2022).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p.6.

다) 최근 근로기준법 상 유연근로제도 개정 사항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주52시간 법정근로시간제도’와 ‘일·생활 균형 확산 정책’으로 인해 유연근로제도와 관련된 법령도 최근 개정되었다. 주요 골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와 근로시간제도의 범위와 적용의 확대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 제시하였다.

2020년 12월 9일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의 유연근무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21: 1). 종전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은 2주 단위, 3개월 단위만 인정되었으나, 법개정으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도 신설되었다(한

국노동조합총연맹, 2021: 2). 즉 1주간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21: 2).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1조에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1조 2에 기술되어 있다.

〈표 II-1-14〉 탄력적근로시간제 관련 근로기준법 법조문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填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③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

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填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 1. 5.]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2199&lsId=001872&chRClCd=010202&urlMode=lsEflInfoR&viewCls=thdCmpNewScP&ancYnChk=0#> (인출일: 2022. 5. 26.).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종전에 정산기간을 1개월 이내의 일정기간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을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의 경우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정할 수 있게 하였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21: 12). 또한 1개월 초과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경우,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21: 12).

〈표 II-1-15〉 선택적 근로시간제 관련 근로기준법 법조문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1. 5.〉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5.〉

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2.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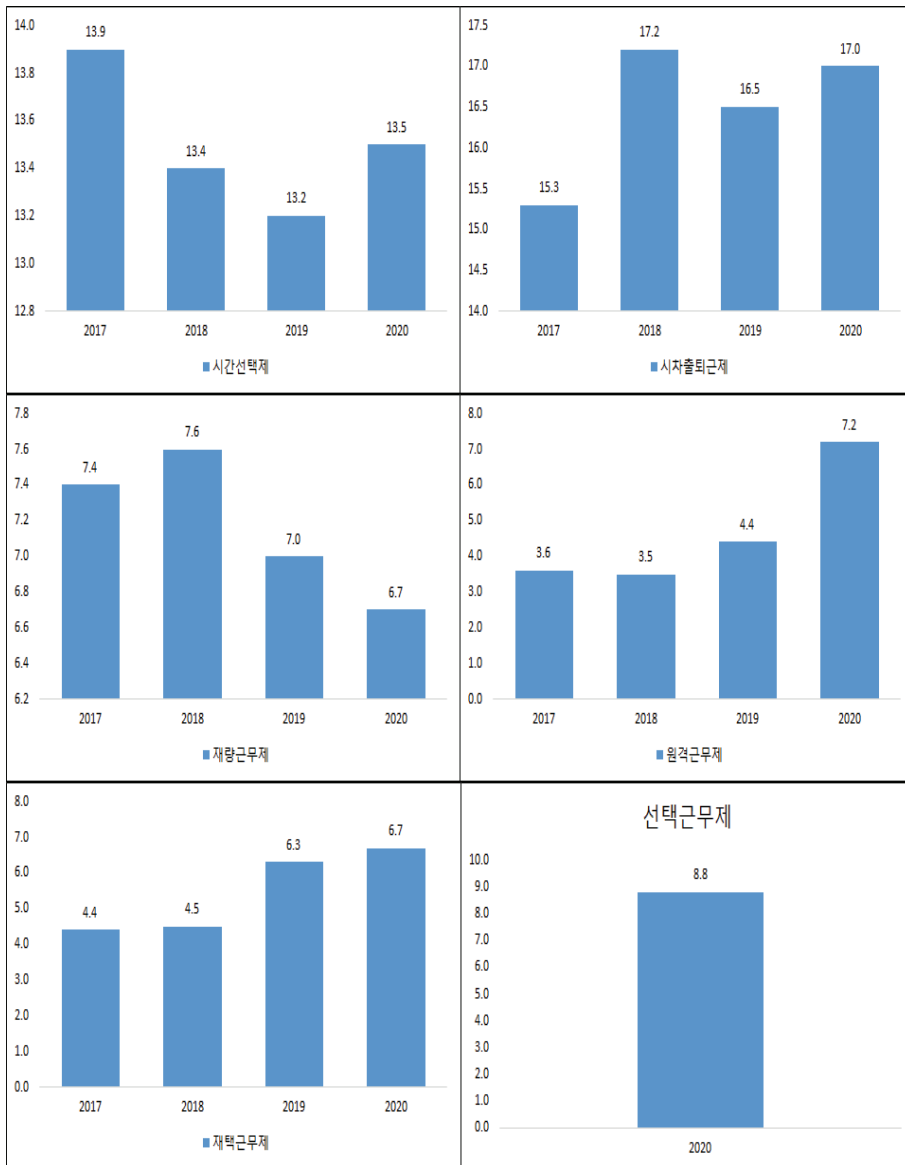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2199&lsId=001872&chRClCd=010202&urlMode=lsEflInfoR&viewCls=thdCmpNewScP&ancYnChk=0#> (인출일: 2022. 5. 26.).

라) 유연근로제 도입 현황

유연근무제 도입 현황을 살펴보면 시간선택제의 경우 2017년도에 13.9%의 기업이 도입하였으나 2019년도에는 13.2%로 감소하다가 2020년도에 13.5%로 소폭 증가하였다(그림 II-1-2 참조). 시차출퇴근제의 경우에는 2017년도 15.3%에서 2018년도에 17.2%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가 2020년도에 17.0%로 유지되었다(그림 II-1-2 참조). 재량근무제의 경우에는 2017년도에 7.4%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20년도에는 6.7%로 도입률이 낮아졌다(그림 II-1-2 참조). 원격근무제는 2017년도에 도입률이 3.6%였으나 2020년도에 7.2%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그림 II-1-2 참조). 재택근무제는 2017년도 4.4%에서 2020년도 6.7%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그림 II-1-2 참조).

이러한 유연근로제도 도입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기업에서는 주로 시간선택제 시차출퇴근제보다 원격근무제와 재택근무제를 주로 활용하였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림 II-1-2] 연도별 유연근무제 도입률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유연근로제도 도입여부,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045_A091&conn_path=I3 (인출일: 2022. 5. 30.)과 KOSIS 국가통계포털, 유연근로제도 도입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045_A091_1&conn_path=I3 (인출일: 2022. 5. 30.)을 합산하여 작성한 그래프임.

2) 출산 및 육아관련 휴가·휴직제도

가) 출산 및 육아관련 휴가·휴직제도 현황

우리나라에서 임신·출산 가구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래 표에 제시하였다.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 12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고 유산사산시에도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다(표 II-1-16 참조).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표 II-1-16 참조). 출산 가구가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시에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고, 모와 부가 각각 3개월씩 휴직을 활용하는 동안에는 최대 300만원까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표 II-1-16 참조).

또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1년간 활용할 수 있다(표 II-1-16 참조). 근로시간 단축 후에는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고 단축근로시간의 통상임금은 최초 5시간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원, 하한 50만원) 나머지 시간분은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표 II-1-16 참조).

〈표 II-1-16〉 출산 및 육아 관련 휴가 휴직제도

구분	대상	내용	지원요건 등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인 여성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 12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되어야 함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 유급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 근로자의 신청에 대한 언급이 없는 강행규정으로, 근로자가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여도 미부여 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
유산사산휴가	임신 중 유산·사산한 여성	임신 중 유산·사산한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함 * 임신 11주 이내: 5일, 임신 12~15주: 10일, 임신 16~21주: 30일, 임신 22~27주: 60일, 임신 28주 이상: 90일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청구한 경우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동	아래 기준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근로기준법의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사용했을 것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구분	대상	내용			지원요건 등
		구분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마지막 30일 (다태아 45일)	
		우선지 원대상 기업	· (정부) 최대 월 200만원의 출 산전후휴가급 여 지급 · (사업주) 통상 임금과 200만원 의 차액분 지급	정부가 통상임 금 지급(최대 200만원)	이상일 것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 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대규모 기업	사업주가 통상임 금을 지급	정부가 통상임 금 지급(최대 200만원)	
육아휴직	임신 중인 여 성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 교 2학년 이 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 한 자녀당 남녀 각각 1년 가능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 6개월 이상
육아휴직급여	상동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육아휴직급여)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급여의 25%는 사업장 복귀 후 6개월 이 상 계속 근무시 지급 (3+3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해 생 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 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30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 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 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 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 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지급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했을 것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 이 180일 이상일 것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 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 교 2학년 이 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1년간(육아휴 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 근로시간 단축(단축 후 근로시간 : 주당 15~35시간) 을 허용해야 함 * 근로계약 변경으로 임금이 감소하게 됨			단축 개시 예정일 전날 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 6개월 이상 사업주가 14일 이상 대

구분	대상	내용	지원요건 등
		* 개정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시행('19.10.1.) 이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사용한 경우에는 개정법 적용을 받지 않음	체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상동	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의 일부를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원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하한 50만원) × (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시간분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유급*)의 휴가 부여하여야 함 *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0일로 확대('19.10.1. 시행)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상동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유급 5일분, 상한액 382,770원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일 것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출처: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대상자별 정책, 여성, 모성보호 육아지원,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woman/list5.do> (인출일: 2022. 5. 30.).

나) 출산 및 육아관련 휴가·휴직제도 변경 내용

문재인정부 시기의 일생활균형 관련 정책강화로 인해 출산 및 육아관련 휴가 휴직제도의 변화가 있었다. 우선 출산전후·유산급여의 경우에는 2019년도에 통상임금 한도액이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대되었다(표 II-1-17 참조).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가 1회에서 2회로, 임신 중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은 분할횟수에서 제외되었으며 부부가 같은 자녀에게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표 II-1-17 참조).

육아휴직급여도 기존의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제도가 만들어져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세 번째 달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표 II-1-17 참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경우에는 3개월 단위로 제한 없이 분할 사용 가능하도록 바뀌었으며 단축시간도 3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상향조정되었다(표 II-1-17 참조). 배우자 출산(유급)휴가의 경우에는 3일에서 10일까지로 확대되었다(표 II-1-18 참조).

〈표 II-1-17〉 출산 및 육아 관련 휴가 휴직제도 변경 내용

구분	관련법령	개정내용	개정일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고용노동부 출산 전휴휴가 급여등의 상한액 고시 ¹⁾	통상임금의 100%를 180만원 한도액을 200만원으로 증액	2019년 12월 23일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의 4 ²⁾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를 1회에서 2회로 상향(2020.12.8.),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 분할 횟수에서 제외(2021.5.18.)	2020년 12월 8일 2021년 5월 18일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²⁾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추가(유산 또는 사산 위험성 등)	2021년 11월 19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 ²⁾	부부가 같은 자녀에게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함	2019년 12월 24일
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³⁾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150만원으로 인상	2019년 8월 27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2 ³⁾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2021년 12월 31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3 ³⁾	출생 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특례(3+3부모휴직제) 가.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1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월 200만원 나.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2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3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2021년 12월 31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의 2, 제19조의 4 ²⁾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기간 및 분할시간 사용 횟수 개편, 단축시간 상한 조정 30시간→35시간 정부지원금 인상: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2019년 8월 27일

구분	관련법령	개정내용	개정일
배우자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 ²⁾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로 증가	2019년 12월 23일

출처: 1) 고용노동부공고 제2019 - 533호, 2020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 고시 행정예고.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2225&lsId=000130&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thdCmpNewScP&ancYnChk=0#> (인출일: 2022. 5. 30.).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4735&lsId=00176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thdCmpNewScP&ancYnChk=0#> (인출일: 2022. 5. 30.).

〈표 II-1-18〉 2018-2022 출산 및 육아관련 휴가 휴직제도 지원 내용 변화 추이

유형	구분	2018	2019	2020	2022
출산전후·유 산사산휴가	급여	통상임금 100%, 한도 180만원		통상임금 100%, 한 200만원	
	대상				임신기간 중 육아휴직 허용
	급여	3개월까지만 상한액 월 150만원 나머지 9개월 상한액 100만원 (통상임금 40%)	4개월째부터 상한액 120만원으로 인상 (통상임금의 50%)		12개월 동안 상한액 월 150만원 (통상임금 80%)
	아빠 육아휴직 지원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00만원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		3+3부모휴직제로 개편 월 상한액 300만원
	기타	분할사용 횟수 1회		분할사용 횟수 2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단축시간	상한 30시간	상한 35시간		
	급여	월 상한액 150만원(통상임금80%) ×근로시간 단축비율	(1시간 단축분)월 상한액 200만원(통상임 금100%)×근로 시간 단축비율		
	기타		육아휴직 미사용 시 가산 3개월 단위로 자유롭게 분할 사용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출산 30일 이내	출산 90일 이내, 분할사용		
	기간	3~5일	10일		
	급여	유급 3일	유급 10일		

주: 2018년도 내용은 당시 기준으로 작성됨. 2019년도 이후 내용은 시행연도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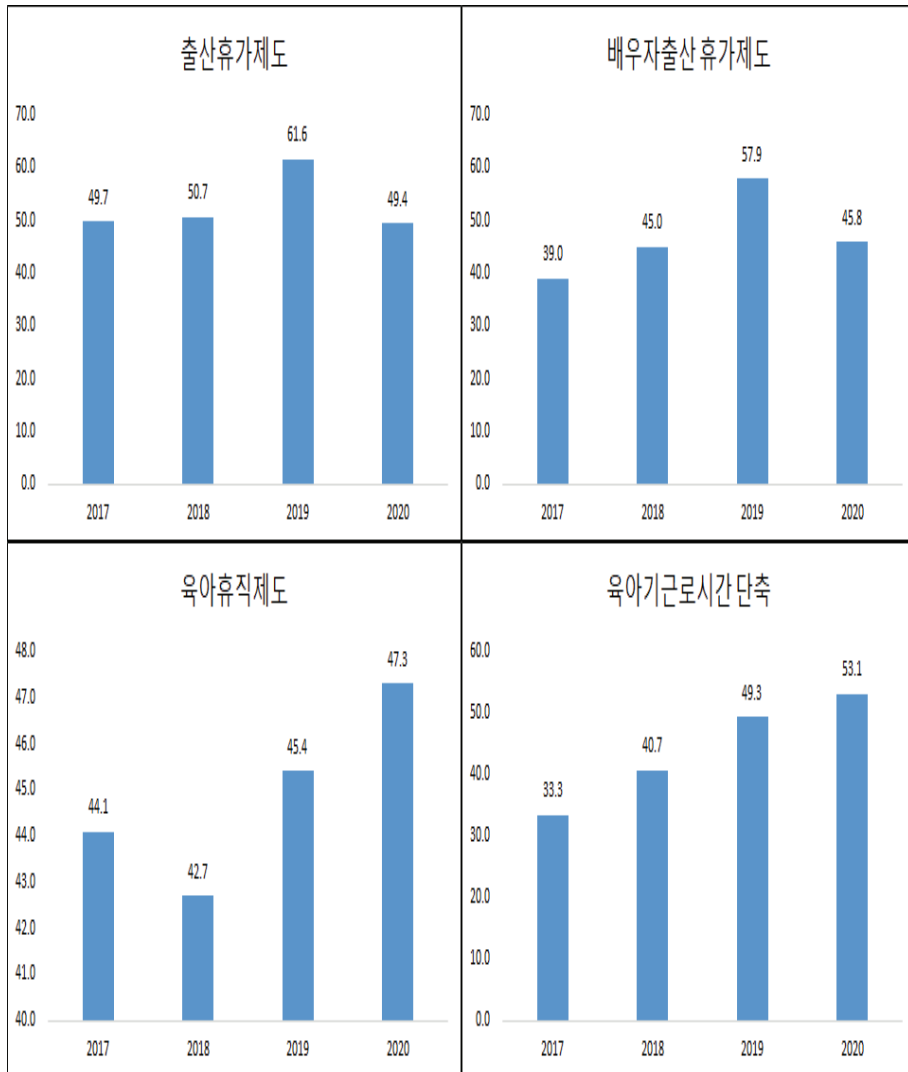
출처: 최효미 외(2021).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IV). p.63. 〈표 II-2-7〉 내용과 본 보고서 〈표 II-1-17〉의 내용을 보완하여 시행연도 기준으로 작성함.

3) 출산 및 육아관련 휴가·휴직제도 변경 내용

출산 및 육아관련 휴가·휴직제도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2017년 49.7%가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다고 응답하였고 2019년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1.6%로 가장 높았으나 2020년도에는 49.4%로 감소하였다(그림 II-1-3 참조). 배우자출산휴가제도의 경우 2017년도에 39.0%가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도에 57.9%로 증가했으나 2020년도에 45.8%로 감소하였다(그림 II-1-3 참조). 육아휴직제도는 2017년도에 44.1%가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다고 응답하였고 2018년도에 42.7%로 감소하였으나 2019년 45.4%, 2020년도에 47.3%로 다시 증가하였다(그림 II-1-3 참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의 경우에는 2017년도에 33.3%, 2018년도에 40.7%, 2019년도에 49.3%, 2020년도에 53.1%로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그림 II-1-3 참조).

[그림 II-1-3] 연도별 출산육아휴직제도 활용가능현황-필요한 사람은 모두 자유롭게 활용 가능

단위: %



출처: 1) KOSIS 국가통계포털, 출산휴가제도-활용가능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045_A011&conn_path=I2 (인출일: 2022. 6. 7.).
 2) KOSIS 국가통계포털, 배우자 출산휴가제도-활용가능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045_A019&conn_path=I2 (인출일: 2022. 6. 7.).
 3) KOSIS 국가통계포털, 육아휴직제도-활용가능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045_A043&conn_path=I2 (인출일: 2022. 6. 7.).
 4) KOSIS 국가통계포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활용가능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045_A076&conn_path=I2 (인출일: 2022. 6. 7.).

2. 영아기 집중 투자 관점의 육아지원 강화 배경과 동향

가. 영아기 집중 투자 관점에서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전환

1) 제1~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목표

우리 사회는 초저출산 및 급격한 고령화 현상을 극복하고자 현재까지 네 차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실행해왔다. 제1차 기본계획(2006~2010년)을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였으며, 제2차 기본계획(2011~2015년)에서는 국가책임보육 실현과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시키고자 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05. 대한민국정부, 201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2020¹⁵⁾).

제3차 기본계획(2016~2020년)은 ‘저출산·고령화의 근본 요인이 되는 사회적 제반 여건들에 대한 구조적 접근’이라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표방하며 출산·양육에 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함을 고려하여 일자리와 신혼부부 주거 지원 등의 구조적 대응을 시도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5: 37~38, 56). 이에 더하여 제3차 기본계획(수정)에서는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라는 비전 아래 1)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2)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노후, 3) 인구변화 적극 대비의 세 가지 추진영역이 설정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19: 9). 특히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는 출산·양육비 부담은 최소화하고,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은 최대화하며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아이 키우기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대한민국정부, 2019: 9). 출산·양육비 부담 완화의 구체적인 형태는 건강보험 적용과 아동수당 확대를 통해 출산과 양육비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제안된다(대한민국정부, 2019: 10). 그러나 초저출산 현상과 빠른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해당 목표의 달성을 어렵게 만들었다.

1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2020. 12. 15.).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977> (인출일: 2022. 5. 10.).

2) 제3차 기본계획 수정과 제4차 기본계획 방향성

가) 제3차 기본계획 진단과 재구조화

제3차 기본계획의 목표달성 부족으로 인한 방향 재설정을 위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연구」(김종훈 외, 2018)가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 제3차 기본계획에 대한 비판적 평가의 논점은 “1) 정책 목표와 수단의 연계에 있어 복지·가족·여성·인구·경제 정책이라는 다원적 정책 추진전략이 인구 전략적 정책목표를 달성해 낼 여지의 불분명함, 2) 정책수단 간의 중복과 단절로 인한 정책 간 균형과 소관 부처들 간의 조율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 3) 인구현상을 대하는 국가와 개인의 인식과 형태, 인구정책에 대한 동의와 이해에 있어 정책수요자인 개인, 아동, 여성 등의 관점에서의 접근 부족, 4) 기본 관점의 정립 부재로 다양하고 제각각인 정책수단들이 이질성과 차이를 무시한 채 뒤섞임”으로 요약 제시되었다(김종훈 외, 2018: 26~27). 이러한 제3차 기본계획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통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임신·출산 지원 영역에서 현황과 기존 정책을 진단하고 재구조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특히 임신·출산의 연계선상에서 임신 전 지원, 분만 지원, 출산 후 지원으로 세분화하여 각 시점별로 재구조화 포함 여부를 구체화하였다.

임신·출산에 대한 시점별 지원에 대한 재구조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임신 전 지원의 경우 ‘난임부부 종합지원체계 구축’이 핵심 사안으로 설정되었다. 이는 저출산 현상의 완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즉각적인 정책 효과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만 지원의 경우 임신출산의료비를 대폭 경감하며 임신·출산진료비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이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 ‘국민행복카드 기간 확대’와 ‘행복출산패키지와 통합’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출산 후 지원으로 산모·신생아 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1세 아동 의료비 제로화’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 완화’가 검토되었다(김종훈 외, 2018: 55).

나) 제4차 기본계획 상의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정책 방향

제3차 기본계획을 출산율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 전환하는 수정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저출산으로 이어진 사회구조적 ‘원인’에 집중하고 그 원인을 해소하려는 종합적인 대응으로 확장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19: 6). 이러한 기본계획 수정의

연장선상에서 제4차 기본계획(2021~2025년)은 ‘개인의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유아기부터 생애 주기에 따른 개별화된 삶의 권리 보장을 통해 순조롭고 유연하게 삶의 경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20a;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¹⁶).

이러한 중점 사안을 기반으로 제4차 기본계획은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와 관련하여 1) 임신·출산 전후에 의료비 등 부담 경감과 영아에 대해 보편적 수당 지급 등의 ‘영아기 집중투자’, 2) 아이와 함께 하는 필수시간 보장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 이용자 확대 추진, 3) 아동 돌봄의 공공성 강화, 서비스 내실화, 4)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교육지원 확대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20a.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¹⁷).

나. 영아기 집중투자 관점에서의 정책 변화

1)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목표

제3차 기본계획(수정)과 제4차 기본계획을 기축으로 한 영아기 집중투자는 여러 유관 부처가운데, 현 시점으로 보건복지부 주관의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시간’과 ‘비용’을 함께 꾸러미로 지원하는 것(대한민국정부, 2020a)으로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따라서 출산 및 양육가정에서 경력단절이나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겠다(대한민국정부, 2020a). 이러한 맥락에서 육아현안과 육아정책에 대해 실제 육아카페 상에 오고가는 게시글과 학술논문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연구에서는 임신·출산·양육의 주체인 엄마, 아빠를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보완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김동훈·이재희·장현진, 2021: 128~12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 집중투자’와 연계한 출산 및 양육 가정 지원의 일환

1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2020. 12. 15.).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977> (인출일: 2022. 5. 10.).

1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2020. 12. 15.).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977> (인출일: 2022. 5. 10.).

으로 2022년 신규 도입된 정책을 비용지원과 서비스지원으로 구분하여, 각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2) 2022년 임신·출산·양육 관련 비용지원 정책변화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 도입된 주요 비용지원 정책은 ‘첫 만남 이용권’과 ‘영아수당’이다. 영아수당은 기존의 가정양육수당과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보육료 지원 간의 비용 격차를 완화하여 부모의 직접 돌봄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아동수당 또한 비용지원 정책의 하나로 지급 연령을 기존보다 확대하여 더 많은 육아가정에 양육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접근을 이어오고 있다. 관련하여 2022년 신규 도입되거나 확대된 주요 정책은 생애 주기를 고려한 임신·출산·양육의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임신·출산지원비 정책으로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제공되는 진료비 지원 사업이다. 2021년 기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진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불하도록 60만원(다태아 100만원)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2022년부터 진료비 지원 규모를 40만원 증액해 100만원(다태아 140만원)까지 지원하며,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20만원을 더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대한민국정부, 2020a). 이와 더불어 의료비 바우처의 사용 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출산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산모와 출생아의 의료이용에 대한 유연성을 확대시켰다(국가바우처 통합카드 국민행복카드¹⁸⁾; 베이비뉴스¹⁹⁾).

18) 국가바우처 통합카드 국민행복카드. <http://www.voucher.go.kr/voucher/pregnancy.do?null> (인출일: 2022. 6. 27.).

19) 베이비뉴스(2021. 1. 28.). 2022년 출생아부터 300만원 지원, 자세히 알아보니,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283> (인출일: 2022. 3. 14.).

나) 첫만남 이용권

‘첫만남 이용권’은 아이를 양육하는 가구에 “시간”(육아휴직 활성화)과 “비용”을 함께 ‘꾸러미’로 지원하여, 양육 걱정 없이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2022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바우처가 지급된다(대한민국정부, 2020a).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이며,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용 신청은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 보호자의 대리인(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 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카드 포인트)는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된다²⁰⁾. 바우처(카드 포인트)²¹⁾는 출생 초기 양육부담경감을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2022년 1월~3월생의 경우는 2022년 4월 1일~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22: 4~5; 8).

다) 영아수당

정부는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양육 시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해왔다. 가정양육을 희망하는 비율은 0~1세 부모의 경우 특히 높으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보다 적은 지원을 받고 있어 기관 이용 시 지원되는 수준으로 조정하자는 양육수당 현실화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김동훈·양미선·김문정, 2020: 132).

이에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전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대신 영아수당(0~1세 30만 원)²²⁾을 지급받게 되었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0세만 약 50만 원)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을 통합한 수당

20)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에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도 있고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21) 단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은 제외된다(보건복지부, 2022d: 6). 그러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올해 처음 도입되는 정책인 만큼 제도시행을 위한 준비에 다소 시간이 걸려 2022년 1월 5일부터 신청 받아,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된다(보건복지부, 2022d: 24).

22) 영아수당(현금)지원 규모는 2025년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2025년이 되면 어린이집 이용 시의 보육료와 가정양육 시의 영아수당(현금)이 50만 원으로 같아져 해당 연령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은 양육방식과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다.

(0~1세 30만 원)으로, 부모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현금(가정양육 시)으로 수당을 수령하거나,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시)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으로도 수급할 수 있다. 다만 보육료와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 원을 초과하여도 전액이 지원된다(표 II-2-1 참조).

〈표 II-2-1〉 출생시점과 양육 방법에 따른 정책 및 지원 금액

출생시점 기준	양육 방법	관련 정책	지원 금액 (원)
2022년 1월 이전 출생아 (0~11개월)	기관이용(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499,000
	가정양육	가정양육수당	200,000
2022년 1월 이후 출생아 (0~11개월)	기관이용(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499,000
	아이돌봄서비스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정부지원금 규모는 가구 소득에 따라 다름
	가정양육	영아수당	300,000 ²³⁾

출처: 1) 보건복지부(2022a). 2022년 보육사업안내. p.374.

2) 2022년 1월 이후 출생아의 경우 가정양육 시 현금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가, 나, 다형) 지원 중 한가지 서비스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간 변경은 가능하다 동시지원 불가함.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양육. http://www.mogef.go.kr/cs/opf/cs_opf_f926.do (인출일: 2022. 6. 27.).

라)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영아수당과 더불어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2018년 9월 소득·재산 기준 90% 이하 가구의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되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2. 2. 8)²⁴⁾.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2022년부터는 「아동수당법」개정을 통해 지급대상이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되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2. 2. 8).²⁵⁾ 이에 따라 2022년 1월 기준으로 8세 미만인 아동

23) 영아수당(현금)지원 규모는 2025년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2025년이 되면 어린이집 이용 시의 보육료와 가정양육 시의 영아수당(현금)이 50만 원으로 같아져 해당 연령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은 양육방식과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다.

2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 2. 8).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2. 9~3.31운영)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0114&SEARCHKEY=TITLE&SEARCHVALUE=%EC%95%84%EB%8F%99%EC%88%98%EB%8B%B9

2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 2. 8).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2. 9~3.31운영)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0114&SEARCHKEY=TITLE&SEARCHVALUE=%EC%95%84%EB%8F%99%EC%88%98%EB%8B%B9

(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아동)은 2022년 1월부터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²⁶⁾. 이에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7세가 되어 이미 지급이 중단되었거나 중단될 아동(2014년 2월 1일~2015년 3월 31일 출생 아동)에 대해서는 2022년 4월 아동수당 지급 시 2022년 1~3월분을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2. 2. 8).²⁷⁾

3) 2022년 임신·출산·양육 관련 서비스지원 정책변화

이 절에서는 2022년 임신·출산·양육 관련 서비스지원 정책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임신·출산·양육 관련 서비스지원의 정책변화로는 ‘임신·영아기 방문형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가) 임신·영아기 방문형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영아기 집중투자의 일환으로 임신·영아기 방문형 생애초기 건강관리 제공 확대를 목표(보건복지부, 2021a. 보건복지부 블로그²⁸⁾)로 ‘20년도 21개 보건소를 시작으로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이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지역보건법」제11조 및 「모자보건법」제10조에 근거하여 아동 건강의 시작점인 임신부와 만 2세 미만 영아기의 맞춤형 건강관리 교육 및 사회심리학적 지원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 및 양육역량 강화와 고위험 가정(산모 우울 등)의 사회생태학적 위험 요인에 대한 지속적 개입 및 양육지지 환경조성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0: 4), 22년 전국 50개 보건소, 약 2만 가구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1. 4. 1²⁹⁾). 이와 더불어, 생애주기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영유

26) 다만, 전산시스템 개편 등 시행준비로 인해 개정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2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 2. 8).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2. 9~3.31운영)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0114&SEARCHKEY=TITLE&SEARCHVALUE=%EC%95%84%EB%8F%99%EC%88%98%EB%8B%B9

28) 보건복지부 블로그, [2022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https://blog.naver.com/mohw2016/222608655025> (인출일: 2022. 3. 14.).

29)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1. 4. 1.). 엄마와 아기의 건강 지킴이,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7월부터 확대 실시,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4939 (인출일: 2022. 3. 14.).

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이 기존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 기존 하위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확대됨을 안내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21; 네이트뉴스³⁰⁾). 이와 더불어 종전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은 기존과 동일하게 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2022년부터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은 최대 40만원을 지원,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 하위 70% 이하는 최대 20만원의 검사·진료비 혜택을 받게 된다.

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이란 장애아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고 가족의 안전성과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2021b. 보건복지부 카드뉴스³¹⁾). 정부는 중증장애아동 돌봄 관련 예산 부족으로 돌보미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장애아동이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고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정부 지원규모에 대한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다(보건복지부, 2021b. 보건복지부 카드뉴스³²⁾). 제시된 확대 계획의 내용은 서비스 이용 시간과 비용을 포함한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연간 돌봄 시간을 기존 720시간에서 2022년에는 840시간으로 월 평균 10시간 확대하고, 지원비용은 최중증 장애인의 활동지원사 매칭 강화를 위해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인 활동지원가산급여 대상도 3천 명에서 4천 확대하며 지원단가도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여 시행된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³³⁾). 정부는 또한 중증장애아돌봄서비스 대상자도 4천 명에서 8천 명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블로그³⁴⁾).

30) 네이트뉴스(2021. 12. 31.). 우리 아이도 혹시 발달장애?...정밀 검사비 지원 대상 늘린다, <https://news.nate.com/view/20211231n08677> (인출일: 2022. 3. 14.).

31) 보건복지부 카드뉴스, 돌보미 필요한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합니다!, <https://blog.naver.com/mohw2016/222468475590> (인출일: 2022. 3. 14.).

32) 보건복지부 카드뉴스, 돌보미 필요한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합니다!, <https://blog.naver.com/mohw2016/222468475590> (인출일: 2022. 3. 14.).

3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450> (인출일: 2022. 3. 14.).

34) 보건복지부 블로그, [기획기사B] 2022년, 더 큰 복지가 찾아옵니다. 보건복지부 정책 정리, <https://blog.naver.com/mohw2016/222609396566> (인출일: 2022. 3. 14.).

〈표 II-2-2〉 2022년 중앙정부의 출산·양육기정 신규·확대 지원 정책

사업명	신설/확대	소득무관	제공방식	지원 대상	지원내용
1)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소득무관	국민행복 카드 바우처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임신 1회당 '21년 60만원에서 '22년 100만원 이용권 확대 지급(단체아 100만원, 단체아 140만원)
2) 첫만남 이용권 (첫만남 꾸러미)	신설	소득무관	국민행복 카드 바우처	2022년 1월 1일 이후 모든 출생아	- 출산여당 200만 원 이용권지급하며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2022년 1월 5일부터 신청 바아,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
3) 영아수당	신설	소득무관	현금지원	2022년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전까지 지급	기존 가정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대신 영아수당(0~1세 30만 원)으로 지급하며 수당금액은 단계적으로 상향예정 ('25년까지 월50만원 점진적 확대 계획)
4) 아동수당	확대	소득무관	현금지원	2022년부터는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다만, 2022년 이전 중단 기간에 대하여는 소급지급하지 않으며, 2015.4.1. 이후 출생 아동은 개정법에 따라 자동으로 연장되어 지속 지급
5) 생애초기 건강관리 제공	확대	소득무관	현금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지자체 내 임신·영아기 가정	- 임신·영아기 가정에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이 방문해 맞춤형 서비스(임산부 건강관리, 영아발달 상담, 모유수유 및 양육교육 등) 제공 '21. 29개 보건소 → '22. 50개, 약 2만 가구 수혜 계획
6)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확대	소득차등	현금지원	건강검진 중 발달 선별 검사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	- 정밀 검사 비용 지원 대상은 종전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과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 기준 하위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확대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은 최대 40만원을 지원,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 하위 70% 이하는 최대 20만원의 검사·진료비 혜택 수급
7) 중증장애이동복 서비스	확대	소득차등	현금지원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대상자 기준 4천 명에서 8천 명으로 확대 - 돌봄 시간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연장 - 활동지원 가산급여* 대상도 3천 명에서 4천 확대/ 단가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

주: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최종중 장애인의 활동지원사 매칭 강화를 위해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

자료: 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건복지부, 2022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9752> (인출일: 2022. 3. 14.), p. 12, p. 19, p. 23.
 2) 아동수당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lsSeq=237515&viewCls=lsRvsDocInforR#> (인출일: 2022. 3. 14.).

4) 제8대 새 정부의 ‘영아기 집중투자’ 관련 국정과제

2022년 새 정부는 영아기 집중 투자 흐름의 연속선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부모급여를 신설하여 부모의 가정 양육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예방접종 확대를 국정과제로 제시하였다(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22: 15, 87, 117). 부모급여는 2022년 신규 도입된 영아수당³⁵⁾에서 지원 금액을 확대하여 0~11개월 아동에 2023년 월 70만원을 지급하며, 2024년부터 월 100만원으로 확대하여 지급될 계획이다(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22: 87). 이와 더불어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백신³⁶⁾ 국가 무료접종을 실시를 토대로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확대할 계획이다(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22: 117).

현재까지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영아기 집중투자’와 연계된 국가 주도의 정책 중 2022년에 도입되었거나 차년도 내에 도입될 내용은 대부분 가구의 소득과 무관하게 출생아 중심의 현금성 지원³⁷⁾이 큰 축을 이루고 있다. 서비스 지원 측면에서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건강관리, 발달관련 지원, 장애관련 지원 등으로 현행 서비스 영역에서 지원규모를 늘려 더 많은 가구와 아동이 정책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35)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와 가정양육 때 받는 가정양육수당을 통합한 수당으로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영아수당(0~1세)은 2022년 기준, 월 30만원이 지급됨(보건복지부, 2022e: 4).

36) 국가예방접종 표준예방접종일정표(2022)에 따르면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은 RV1 (2회 접종: 생후 2개월, 생후 4개월)와 RV5(3회 접종: 생후 2개월, 생후 4개월, 생후 6개월) 두 종류로 접종이 계획되어 있음.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국가예방접종 표준예방접종일정표(2022). <https://nip.kdca.go.kr/irhp/infm/goVcntInfo.do?menuLv=1&menuCd=115>(인출일: 2022. 5. 10).

37) 이 연구에서는 국가예방접종의 확대를 통해 로타바이러스 백신접종이 필수접종으로 전환되면 별도의 접종비 지불이 없으므로 비용지원(보조)으로 구분하겠음.

Part I

2022년 KICCE 소비실태조사 기초분석

III

KICCE 소비실태조사 개요

- 01 5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설계
- 02 설문 구성 및 변화
- 03 응답자 특성
- 04 소결 및 시사점

III. KICCE 소비실태조사 개요

1. 5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설계³⁸⁾

가. 표본 추적 및 구축

5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는 4차년도에 응답한 가구들을 대상으로 하여 추적조사한다.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일반적인 패널조사들의 추적 방식인 1차년도 원표본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것이 아닌 전년도 응답 가구들을 원표본으로 하여 추적조사하고 있다. 일반적인 패널조사 방식을 취할 경우, 매년 조사대상 아동의 나이가 한 살씩 높아지기 때문에 영유아 모든 연령을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년도 조사 가구를 추적 조사하고 있으며, 신생아 표본을 추가 구축하고 있다.

본 연구가 조사 대상자를 횡단 조사에 비해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패널 조사 방식을 통해 조사를 하는 이유는 횡단 자료 구축 시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가구 소득 등을 통제하기 어려워, 양육비용의 추이 분석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최효미 외, 2019a: 5).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매년 조사마다 조사 대상 육아 가구에게 2022년까지 해당 연구가 진행됨을 고지하고 사전 동의를 받은 상태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KICCE 소비실태조사’는 각 연령별 아동의 적정 표본수를 확보하기 위해 추적 조사에 실패한 가구들과 동질적인 특성을 가진 대상을 대체 표본으로 하여 조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연구 기간의 한계로 인해 일반적인 가구패널 조사와 달리 단기간(3개월) 이내에 모든 조사를 완료해야 하고, 영유아 가구의 특성 상 이주가 잦고 접촉이 어려운 부분이 많아 원표본 가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수반된다(최효미 외, 2019a: 6; 최효미 외, 2020: 67에서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는 가구 패널 조사 방식에 조사구 패널 방식을 접목하여, 조사 기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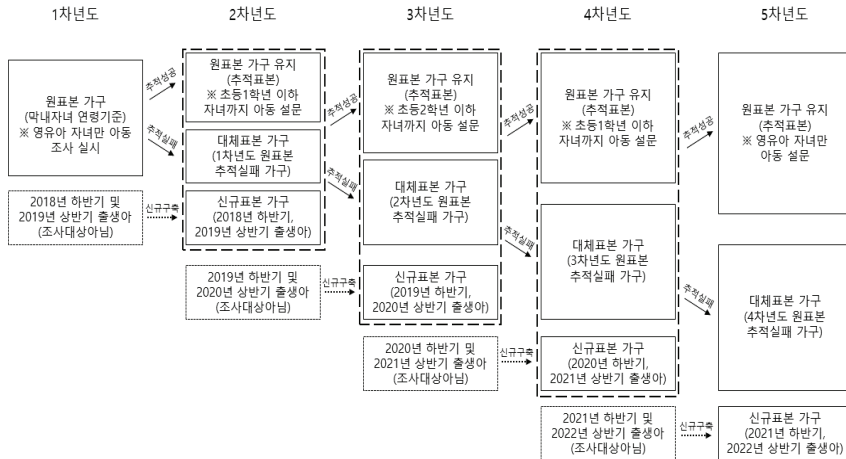
38) 본 절은 1~5차년도 보고서에서 반복되는 부분으로 상당한 내용이 중복적으로 보고될 수 있음.

절반이 넘어가는 시점부터 더 이상 추적이 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한 가구에 대해서는 조사구 내 대체 표본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막내 자녀 연령 기준으로 연령별 최소 250가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본 대체의 원칙은 추적 조사에 실패한 가구의 자녀수와 막내 자녀 연령이 동일하고 해당 조사구 내에 거주하는 가구로 하여, 최대한 대체 표본으로 인한 표본 특성이 변하지 않도록 노력한다(최효미 외, 2021: 85). 4차년도 조사에서는 3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표본 중 막내자녀가 초등1학년 이하인 1,679가구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1,463가구(87.1%)가 추적조사에 성공하였다. 나머지 12.9%(216가구)는 대체 표본으로 구축되었다(최효미 외, 2021: 88).

한편 매년 자녀의 연령이 한 살씩 높아져 영유아기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전년도 하반기에 출생한 신생아 및 조사 당해연도 상반기 출생 신생아를 각각 약 125가구, 총 250가구 이상 추가적으로 신규 표집하여 조사한다(최효미 외, 2021: 85).

표본 추적 및 구축방법은 2차년도(2019년) 이후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다만, 5차년도(2022년)에는 예산 제약으로 인해 2022년 현재 막내자녀 연령 기준 초등1학년 이상의 가구들은 모두 제외하여 영유아 가구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KICCE 소비실태조사’는 매년 원표본을 추적조사할 뿐 아니라 신생아 신규표본을 250가구 이상씩 추가 구축하는 형태로 인하여 구조적으로 표본이 매해 확대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연구 예산의 제약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표본 수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본 연구의 목적이 상대적으로 돌봄 필요성이 높은 어린 연령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최효미 외, 2021: 86) 4차년도에는 초등2학년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제외한데 이어, 5차년도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한 영유아 가구에 한정된 조사로 마무리하게 되었다.

[그림 III-1-1] KICCE 소비실태조사 표본 추적 및 추가 방식(1~5차)



주: 가는 점선은 당해연도 조사대상이 아닌 경우, 굵은 점선은 추적 대상 원표본 가구를 의미함.
 자료: 최효미 외(2021).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IV). p.86. [그림 III-1-1]을 수정 보완함.

각 년도 원표본 가구의 기준(막내 자녀의 연령)별 조사 대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차년도 조사 당시 원표본 가구는 만0~6세(2018년 상반기~2012년생)까지의 영유아 가구로, 만0세(2018년생)은 상반기 출생아만 125가구 구축하였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년도에 구축된 원표본 가구를 모두 추적 조사하고 2018년 하반기 신생아 및 2019년 상반기 출생아를 각 125가구 추가 구축하여, 막내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만0세(2019년 상반기)부터 초등1학년인 만7세(2012년생)까지를 조사 대상 가구로 하였다.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조사된 3차년도 연구는 표본이 더욱 확장되어 만0세(2020년 상반기)부터 초등2학년인 만8세(2012년생)까지를 조사 대상 가구로 하였다. 4차년도 연구는 3차년도 기준 영유아 가구 표본만을 추적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막내 자녀 연령이 만0세(2021년 상반기)부터 초등1학년인 만7세(2014년생)까지인 가구를 조사하였다(최효미 외, 2021: 87). 마지막 5차년도 연구는 4차년도 가구 표본중 2022년에 막내자녀가 초등1학년생이 되는(2015년생) 가구를 제외하여 1차년도와 동일한 포맷으로 만0~6세(2022년 상반기~2016년생)까지의 영유아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표 III-1-1〉 연차별 조사 대상 연령(막내 자녀 연령 기준, 만나이)

출생년도	출생시기	1차년도(2018)	2차년도(2019)	3차년도(2020)	4차년도(2021)	5차년도(2022)
2022	상반기					0세
2021	하반기					1세
	상반기				0세	1세
2020	하반기				1세	2세
	상반기			0세	1세	
2019	하반기			1세	2세	3세
	상반기		0세	1세		
2018	하반기		1세	2세	3세	4세
	상반기	0세	1세			
2017		1세	2세	3세	4세	5세
2016		2세	3세	4세	5세	6세
2015		3세	4세	5세	6세	
2014		4세	5세	6세	7세(초1)	
2013		5세	6세	7세(초1)		
2012		6세	7세(초1)	8세(초2)		

- 주: 1) 셀 안의 연령은 만나이(생활연령)로, 당해연도 조사 당시 해당 출생년도 아동의 연령을 의미함. 연령이 기재되지 않고 사선 처리된 경우는 당해연도 조사 대상 가구에 해당하지 않음을 의미함.
 2) 검은색 음영 표기 부분은 당해연도 신생아 표본으로 신규 표본 가구를 의미하며, 회색 음영 표기 부분은 초등학령기가 조사된 차수와 조사된 연령 구간을 표시한 것임.
 3) 최효미 외(2021).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IV). p. 87 〈표 III-1-1〉에 추가함.

1차년도(2018년) 가구 표본은 1,648가구였으며, 2차년도(2019년) 1,902가구, 3차년도(2020년) 2,156가구까지 증가하였다. 4차년도(2021년)는 막내 자녀 연령 기준 만7세(초등1학년)까지를 표본 대상 가구로 해서, 최종적으로 1,933가구를 조사하였으며, 5차년도에는 4차년도 원표본 중 막내자녀 연령이 초등학교 이상인 경우를 제외한 1,436가구와 신규 구축 신생아 표본 약 254사례를 포함한 총 1,730사례가 조사되었다. 한편, 아동용 설문조사에 응답한 아동 수³⁹⁾는 영유아 기준으로 1차년도 2,277명, 2차년도 2,324명, 3차년도 2,368명, 4차년도 2,401명으로, 영유아 표본이 증가하여 왔는데, 5차년도에는 가구표본의 대폭 감소로 아동용 설문조사에 응답한 아동 수도 2,395명으로 감소하였다.

39) 본 조사의 가구표본은 막내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구축되며, 아동용 설문은 해당 가구표본 내 영유아를 모두 대상으로 각각 실시되므로, 가구표본수 보다 아동설문조사에 응한 아동수가 많으며, 1~5차년도에 걸쳐 해당 가구표본에서 신규 출생하는 아동도 조사에 포함되므로 아동수의 변동이 발생한다.

〈표 III-1-2〉 KICCE 소비실태조사 표본 수(2018~2022년)

단위: 가구, 명

구분		1차년도 (2018)	2차년도 (2019)	3차년도 (2020)	4차년도 (2021)	5차년도 (2022)
가구 표본		1,648	1,902	2,156	1,933	1,730
아동 조사	영유아	2,277	2,324	2,368	2,401	2,395
	초등1학년	-	452	441	431	-
	초등2학년	-	-	469	-	-

자료: 최효미 외(2021).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IV), p.88.에 추가함.

가구 표본 유지율을 살펴보면, 1차년도(2018년) 원표본 1,648가구 중에서 2차년도(2019년) 1,243가구(75.4%)가, 3차년도(2020년) 조사에서는 2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총 1,902가구 중 1,634가구(85.9%)가, 4차년도(2021년) 조사에서는 3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표본 중 막내자녀가 초등1학년생 이하인 1,679가구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실시하여 1,463가구(87.1%)가 추적 조사에 성공하였다(최효미 외, 2021: 88). 한편 5차년도(2022년) 본 조사에서는 4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표본 중 막내자녀가 초등학생인 가구를 제외한 영유아 가구 1,476가구에 대해서만 추적 조사를 통해 1,325가구의 조사에 성공하여 추적성공률은 89.8%로 집계되었다. 한편 추적조사에 실패한 사례에 대해서는 동일한 특성을 지닌 영유아 가구에 대해 대체 표본을 구축하였다.

〈표 III-1-3〉 KICCE 소비실태조사 표본 추적률 (2018~2022년)

단위: 가구, %

구분	전체 표본 수	추적대상 표본 수	당해연도 조사성공 가구 특성			표본 추적률
			추적성공 가구표본 수	대체가구 표본 수	신규가구 표본 수	
1차년도 (2018년)	1,648					
2차년도 (2019년)	1,902	1,648	1,243	405	254	75.4
3차년도 (2020년)	2,156	1,902	1,634	268	254	85.9
4차년도 (2021년)	1,933	1,679	1,463	216	254	87.1
5차년도 (2022년)	1,730	1,476	1,325	151	254	89.8

주: 1) 전년도 '추적성공표본+대체표본+신규표본'을 추적 대상 표본으로 함.

2) 추적 대상 표본이 매해 변동되는 이유는 당해연도 신생아 표본과 대체 가구가 매해 추가 구축되기 때문에 이를 추적대상에 포함하기 위함. 4차년도는 추적대상 표본 연령이 낮아짐.

3) 표본 유지율은 (당해연도 추적 성공 표본/당해연도 추적 대상 표본) *100으로 산출됨.

자료: 1) 최효미 외(2021).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IV), p.88. 〈표 III -1-3〉

2)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나. 조사 도구 및 조사 시기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조사 도구는 2차년도 조사까지는 태블릿 PC를 활용한 TAPI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3차년도부터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장시간의 대면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종이설문(PAPI)으로 전환하여 진행하였다(최효미 외, 2020: 68; 최효미 외, 2021: 89에서 재인용).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조사 시기는 조사 설계 등으로 조사가 다소 지연된 1차년도를 제외하고는 매년 5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진행되고 있으며(최효미 외, 2021: 89), 5차년도 조사도 전년도 조사 시점과 유사하게 5~7월 중 진행되었다. 이는 양육비용 지출 등에서 계절성으로 인한 변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최효미 외, 2021: 90).

한편, ‘KICCE 소비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조사되는 일체의 비용, 즉 가구 생활비 지출 및 양육비용 등은 매년 5월~7월 소비자물가(2015년=100기준) 평균값을 반영하여, 실질비용으로 환산한 값을 활용하며, ‘KICCE 소비실태조사’ 결과 분석은 보고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된 값으로, 이후 자료정제(클리닝) 및 재조사(차년도 조사 포함) 결과 등을 반영하여 원자료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매해 조금씩 결과 값이 변동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최효미 외, 2021: 90).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조사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1-4〉 KICCE 소비실태조사 조사 개요: 5차

구분		5차(2022)년도
조사 대상		4차년도 원표본 가구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신규 원표본 : 2021년 하반기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
		대체 표본 : 4차년도 원표본 가구 대체 가구
표본 수	가구	1,730
	영유아	2,395
설문 종류		본조사(가구용, 아동용)
조사 도구		PAPI/ 종이설문
조사 방법		방문 대면 면접 조사/ 코로나19로 일부 유치조사 허용
조사 시기		2022. 5~7월

2. 설문 구성 및 변화

가. 설문 구성의 개요 및 변화

이 절에서는 2022년 ‘KICCE 소비실태조사’가 5차 조사로서 종료됨에 따라 2018년 1차 조사가 시작된 이래 매 차수 설문 내용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5차년도 설문 변경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였다. 2018년 1차 조사가 실시된 이후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설문 문항은 당해년도 시의성 주제 및 표본 변화 등에 따라 변화하였다(최효미 외, 2021: 90). 1차년도(2018년)에는 양육비용 설문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본 설문 개발에 집중되었으며, 본 조사와는 별도로 실시된 온라인조사를 통해 공유 경제 관련 문항을 조사하였다(최효미 외, 2021: 90).

이후 2차년도(2019년)에는 아동수당 지원이 시작되는 첫해로, 아동수당 및 세제 지원과 관련된 문항이 대거 포함되었고, 표본 추적 조사에 따라 초등학교생이 된 표본을 위한 초등학교생용 설문을 새롭게 개발하여 추가하였다는 점도 특기할 만한 변화였다(최효미 외, 2021: 90~91).

이어 3차년도(2020년)와 4차년도(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과 지출, 육아서비스 이용의 변화가 예측되는 한편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금과 서비스가 개발·제공되었던 시기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변화를 측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문항이 개발되어 추가되었던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를 반영한 문항 외에도 매년 신규 도입된 양육비 및 육아서비스 지원 제도 관련 문항, 예를 들면 3차년도(2020년)에 새롭게 도입된 보육지원체계에 대한 인지 및 의견 관련 문항도 대거 보강되었다(최효미 외, 2021: 91).

4차년도(2021년)에는 전반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소비의 변화와 육아서비스 활용 실태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설문이 변경되었다. 특히 코로나19시기에 서비스 이용이 위축되는 대면서비스를 대신해 활용도가 높아진 비대면서비스, 가정 내 양육과 관련된 서비스에 방점을 두고 이러한 육아서비스의 활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이 대거 추가되었다(최효미 외, 2021: 92).

이처럼 매년 신규 제도의 도입, 정책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문항이 추가되는 가운

데 단기간에 변화되지 않는 가치관 등을 측정하는 문항, 시간표형태의 문항 등은 삭제하거나 변형하여 응답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다(최효미 외, 2021: 91~92)

〈표 III-2-1〉 KICCE 소비실태조사 주요 설문 변경 내용 및 사유 (2~5차년도)

구분	주요 변경내용	변경 사유
2차년도 (2019)	아동수당 및 세제 지원 문항 추가	아동수당 제도 도입
	육아서비스 선호 및 이용의사, 사회경제적 가치관 및 미래 전망 문항 축소 통합	응답부담 경감
	개별돌봄서비스 가구용으로 이관	서비스 활용 양태를 고려하여, 응답자 편의 제고
	초등아동용 설문 개발 및 추가	표본 확대
3차년도 (2020)	긴급돌봄 관련 문항 추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 파악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 및 양육비용 변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 파악
	보육지원 체계에 대한 인지 및 어린이집 이용 시간 에 대한 의견	보육지원체계 제도 도입
	시간표 형태로 설문 전환	육아서비스 이용 시간대 및 조합방식 확인
4차년도 (2021)	유연근무 활용 실태 문항 추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향 파악
	비대면 육아서비스 활용 실태 문항 추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향 파악
	가정내 돌봄서비스 및 부모지원서비스 활용 실태 문항 추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향 파악
	육아서비스 이용시간으로 설문 복원	3차년도 한시 설문으로, 응답자 편의 제고를 위해 기존 설문으로 복원
5차년도 (2022)	영아수당 관련 설문 추가(수혜여부, 가정양육 수당·영아수당의 활용 비목 및 자녀양육비용 경감에 도움 정도)	가정양육수당의 '영아수당'으로의 확대개편
	첫만남이용권 관련 설문 추가(인지, 사용 비목 계획, 양육비 경감에 도움 정도)	'영아기 집중투자' 관련 지원으로서 '첫만남이 용권' 도입
	육아휴직급여특례 수혜 경험 추가	육아휴직 이용 장려를 위한 특례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실질적 활용 정도 파악
	여유소득 증가시 자녀양육을 위한 지출 비목 설문 추가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 양육비 경감을 위 한 현금성 지원 증가시의 효과 예측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변동의 가계 경제 부담 과 대응 관련 문항 추가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 지출감소 및 증가 항 목 파악
	영유아 가구의 주거비 부담감 항목 추가	거주 형태에 따른 주거비 부담 정도 파악
	코로나19로 인한 육아서비스 이용 변화 관련 문항 추가	육아서비스(개별, 반일제 이상 기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 파악
	가정 내 부모직접 돌봄 관련 문항 추가	자녀양육부담 경감 용도로 미디어 허용 여부 파악
	생애주기 중 정부 지원의 부족 시기 및 해당 시기에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 추가	생애주기별 정책 요구 파악
	돌봄공백 관련 문항 추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의 구체적 상황/ 일 상적인 돌봄공백과 돌발적인 돌봄공백 상황에 대한 수요 구분
	비정기 체험활동 이용 관련 문항 추가	영유아기에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신(新)육아 서비스 이용 행태 파악

구분	주요 변경내용	변경 사유
	육아소비 성향 및 육아 품목 물가 체감/경제 인식 및 물가전망 관련 문항 삭제	연관 세부과제(주)의 종료. 육아소비 성향 관련 2개 문항은 유지.
	초등학생용 설문 삭제	초등학생 표본 제외

주: KICCE 소비실태조사 연구의 세부과제 중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를 위한 조사를 본 연구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에서 통합하여 수행하였으나, 세부과제 중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는 4차년도를 끝으로 종료됨.

자료: 최효미 외(2021).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IV). 육아정책연구소. p.91, 〈표 III-2-1〉에 추가함.

올해 연구인 5차년도(2022년)에는 코로나19 확산 후 3년차이며 엔데믹으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경제의 부담과 소비 지출의 변화, 육아서비스 이용의 변화를 정리하는 차원의 설문을 대거 보강하였으며, 영아수당, 첫 만남이용권, 육아휴직급여특례 등 2022년 출생아, 2022년 사용자부터 적용되는 육아지원제도에 대한 인지와 수혜, 양육비경감에 대한 기대 등 정책 도입기의 수혜 정도와 수요자의 기대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을 추가하였다. 이외 '영유아기 집중투자'의 일환으로 영아가 있는 가구를 위한 비용지원이 대대적으로 확대되는 변화를 맞이하며, 영유아 부모들이 생애주기별로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지원의 형태를 파악하여 현재의 정책 방향성과 수요자의 요구의 부합 여부를 진단하고자 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돌봄공백의 상황과 코로나19로 경험하게 된 비일상적인 돌봄공백에 대한 영유아 가구의 인식을 파악하는 설문을 포함하여 향후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돌봄공백' 대응의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한편 2022년 5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에서는 1~4차년도에 걸쳐 연관 세부과제⁴⁰⁾를 위해 통합하여 조사하였던 '육아소비 성향 및 육아 품목 물가 체감', '경제인식 및 물가전망' 관련 문항은 5차년도에 해당 세부과제가 종료됨에 따라 삭제하였다. 단, 해당 범주에서 본 조사에 포함하여 유지할 문항을 선별하여 2개 문항을 'II.가구의 지출 및 양육비용' 범주에 추가하였다. 한편, 2차년도부터 초등학생 표본을 위해 개발·조사하였던 '초등학생용 설문'은 초등학생 표본을 본 조사에서 제외함으로써 일괄 삭제하였다.

1차~5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의 주요 내용과 변화 상황을 간략히 정리하면, 〈표 III-2-2〉와 같다.

40)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

〈표 III-2-2〉 본조사 설문지의 개요 (1~5차년도)

설문종류	설문 주요 내용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가구용 조사	가구와 부모, 자녀 특성	○	○	○	○	○
	가구의 경제활동 → '가구의 소득과 정책 수 혜'로 변경(2022)	○	양육 관련 공적 이전소득, 아동수당, 세제 지원 문항 추가	코로나19로 인한 변동 문항 추가, 아동수당 및 세제지원 문항 축소	유연근무, 시간지원 활용 현황 추가, 코로나19 변동 문항 축소, 세목 조정, 주택관련 문항 추가,	영아수당 관련 문항 추가, 첫만남 이용권 관련 문항 추가, 육아휴직급 여특례 수혜 경험 추가, 육아소비성 향 관련 문항 추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출 감소증가 비목 추가, 주거비에 대한 주관적 부담감 추가
	가구의 지출 및 양육 비용	○				
	육아서비스 선호 및 이용의사	○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정책에 대한 의견 및 요구	○	○	×	×	×
	영유아 가구의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	○	설문축소	×	×
	가정 내 부모 직접 돌봄 및 부모지원 서비스	×	×	×	문항 추가	○
	개별돌봄서비스	×	○	○	○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 이용 변화 추가
	자녀 양육에 대한 의견 및 요구	×	○	○	○	임신출산/영 아기/유아기 별 부족한 육아지원에 대한 의견 추가
	긴급 돌봄 대응, 돌봄 공백	×	×	○	○	코로나19 관련 돌봄공백 경험 추가
	육아 소비 성향	○	○	○	○	×
	영유아 가구의 사회경제 적 가치관 및 미래 전망	○	일부 문항만 조사	○	○	×

설문종류	설문 주요 내용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육아용품 구매 경험 및 소비 행태	온라인 조사	×	×	×	×
	육아용품 물가 체감	온라인 조사	본 설문에서 조사	○	○	×
	경제 인식 및 물가 전망	온라인 조사	본 설문에서 조사	○	○	×
아동용 조사 :영유아	육아서비스 이용 및 수요	○	○	시간표 형태로 조사, 이용시간(기 본보육시간) 관련 문항 및 긴급 돌봄 관련 문항 추가	서비스별 이용 시간 조사로 복원, 비대면 서비스 활용 추가	반일제이상 기관 서비스 코로나19로 인한 미이용 경험 추가, 비정기 체험활동 이용 행태 추가
	- 어린이집 이용					
	- 유치원 이용					
	-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 시간제 사교육 이용					
	- 기타 돌봄					
	개별돌봄서비스	○	가구용으로 이관	×	×	×
아동용 조사 : 초등	육아서비스 이용 및 수요	×	○	시간표 형태로 조사, 긴급 돌봄 관련 문항 추가	서비스별 이용 시간 조사로 복원, 비대면 서비스 활용 추가	×
	- 초등돌봄교실 이용					
	- 방과후학교 이용					
	- 시간제 사교육 이용					
	- 기타 돌봄					

주: 1) 문자 기입사항은 주요 변화 내용이며, 설문의 변화가 없거나 문구 수정 등의 작은 변화만이 있는 경우는 ○로 표기, 해당년도에 조사 문항 자체가 삭제되어 조사되지 않은 경우 ×로 표기함.
 2) 육아물가체감, 육아물가 전망은 이 연구가 아닌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에서 활용하는 문항임.
 자료: 1) 최효미 외(2021),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Ⅳ), 육아정책연구소, pp.92~93, <표 III-2-2>에 추가, 수정함.
 2)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2022년) 설문지.

나. 가구용 설문

좀 더 구체적으로 가구용 설문의 내용과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차년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문항 간소화 및 소소한 변경 외에 4차년도에는 부모 특성에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활용도와 요구가 증가한 유연근무 및 시간 지원 정책의 활용 정도를 질문하는 문항을 추가적으로 구성한 것이(최효미 외, 2021: 93) 특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5차년도에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단축된 시간'을 추가로 질문하였으며, 코로나19로 생활비 지출이 감소하거나 증가한 비목에 대한 문항, 소득 감소나 양육비 부담 증가시 생활비 감축의 우선순위 등 가구소득 변동에 따른 지출 변동의 우선순위 관련 문항을 추가하였다. 이는 5차

년도 조사에서 1~4차년도 동안 지속된 ‘KICCE 육아물가지수’ 관련 문항을 일괄 삭제하면서 대표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문항으로 선별한 것이다.

〈표 III-2-3〉 가구용 설문 비교 (1~5차년도) : 가구 특성 및 가계경제양육비

세부분항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응답자 성별, 자녀수, 자녀 출생연월 및 성별, 가구원 구성	○	○	○	○	○
부모 특성 : 생년, 학력, 취업여부, 직업, 근로형태, 노동시간, 출퇴근 시간	○	노동시간 관련 설문은 세분	○	유연근무, 시간지원 활용	근로시간단 축 시간 추가
결혼 시기, 기초생활수급 대상 가구 여부	○	결혼 시기는 신규 가구만 응답	○	○	○
[미취업모] 취업 의향	×	×	문항 신설	×	×
가구소득(지난 3개월 월평균 세후) : 근로소득, 부동산소득 및 금융소득, 공적이전소 득, 사적이전소득, 기타소득, 사회보험소득, 코로 나19 긴급상황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	○	근로소득 및 사업자 소득으로 수정	○	○	○
양육관련 공적이전 소득 1 : 누리과정, 보육료, 양육수당(영아수당), 육아휴직급여, 출산장려 금, 기타	지난 1개월 1회 수령	지난 1년 동안의 수급 현황 모두 조사	문항 통합 (응답표 형태 수정)	○	○
양육관련 공적이전 소득 2 : 아동수당	×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변동, 부모 노동시간 변동 등	×	×	문항 신설	×	×
아동수당 사용 출처, 양육비용 부담 경감 도움 정도	×	○	○	○	○
코로나19 공적지원금 활용처	×	×	×	○	○
세제 지원 인지 및 수급현황	×	○	○	문항간소화	○
아동수당 지원제도 정책 변화 인지 및 경로	×	○	×	×	×
아동수당정책에 대한 선호 및 우선순위	×	○	×	×	×
아동수당 지원 정책의 확대 방향에 대한 의견	×	○	×	×	×
가정양육수당(영아수당) 사용 비목, 양육비용 부담 경감 도움 정도	×	×	×	×	○
첫만남이용권 사용계획 지출비목, 양육비용 경 감 도움 정도에 대한 기대	×	×	×	×	○
세법 개정(아동수당과 자녀 세액공제 중복 수혜 금지) 에 대한 인지 여부, 인지 경로, 정책에 대한 의견	×	○	×	×	×
자녀 장려금 제도 변화에 대한 인지 및 의견	×	○	×	×	×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선호	×	○	보육지원 체계개편	×	×
생활비 지출 및 자녀 양육비용 : 비목 13개, 세부 항목 11개	○	○	○	보건의료 예시보강, 기기/집기 세목 추가	○

세부분항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코로나19로 인한 지출 변동, 양육비용 변동	×	×	문항 신설	×	코로나19로 생활비 지출이 감소·증가한 비목
주거 관련 문항 : 현재 주거 현황, 주택 구입의 필요성, 주거관련 양육환경, 주거비 부담	○	문항 간소화	문항 간소화	주택평수 추가	주거비에 대한 부담감 정도 추가
양육 비용 충분성 및 지출 우선 순위, 비용 부담	○	○	○	○	생활비 감축 우선순위 추가
자녀 출산 전후 가계 소비 변화	○	×	×	×	×

주: 문자 기입사항은 주요 변화 내용이며, 설문지의 변화가 없거나 문구 수정 등의 작은 변화만이 있는 경우는 ○로 표기, 해당년도에 조사 문항 자체가 삭제되어 조사되지 않은 경우 ×로 표기함.

자료: 1) 최효미 외(2021),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Ⅳ). 육아정책연구소. pp.93~94, <표 III-2-3>의 내용에 추가함.

2)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설문지.

이외 5차년도 가구용 설문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의 실제 경험을 파악하고, 영유아 부모들의 일상적인 돌봄 공백에 대한 요구와 긴급 돌봄에 대한 요구의 차이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추가하였고, 가구단위로 조사된 개별돌봄서비스의 이용에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을 추가하였다. 또한 4차년도 조사 문항에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녀들이 가정 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른 양육 부담과 영유아의 전자기기 노출 시간의 변화를 고찰하기 위한 문항이 추가되었는 바(최효미 외, 2021: 94), 5차년도 조사에서는 이러한 취지의 연속선상에서 가정 내 양육과 함께 증가하는 영유아의 전자기기 노출과 양육부담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한 문항도 추가하였다. 이외 대부분의 문항들은 패널조사로서의 연속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하여 가능하면 삭제하지 않고 유지하였다. 단, 1~4차년도에 걸쳐 통합조사로 실시되었으나 5차년도에는 조사문항을 활용하는 연관 세부과제가 종료됨에 따라 ‘육아 소비 성향 및 육아 품목 물가 체감’, ‘경제 인식 및 물가전망’ 파트의 문항은 일괄 삭제되었으며, 막내자녀가 초등학생인 가구 표본이 조사에서 제외되어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 대상의 ‘자녀 양육에 대한 의견 및 요구’도 삭제되었다.

〈표 III-2-4〉 가구용 설문 비교 (1~5차년도) : 육아서비스 이용 및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세부분항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 정책 인지, 선호	×	×	문항 신설	×	×
가정내 부모직접 돌봄 및 부모지원 서비스, 자녀양육부담, 자녀의 전자기기 이용 시간 및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전자기기 허용 여부	×	×	×	문항 신설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전자기기 허용 여부
자녀 연령별 이용희망 서비스, 자녀연령별 이상적인 육아서비스	○	○	×	×	×
자녀 양육에 대한 의견 및 요구	×	○	○	○	임신출산/영아기/유아기별 부족한 육아지원에 대한 의견 추가
초등학교 입학 후 자녀 돌봄 방법	○	○	○	×	×
긴급 돌봄 대응, 돌봄 공백	×	×	○	○	긴급한 돌봄공백 경험,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경험 추가
육아 정책 변화에 따른 육아서비스 이용 의사 변화	○	○	×	×	×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용 설문	○	○	○	코로나19로 인한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변화 추가
보건 의료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이용, 만족도 / 교육·보육관련 지원 정책 이용여부, 만족도, 미이용 사유 /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인지, 이용 / 가정 내 양육 지원 정책 인지, 이용, 만족도	○	×	×	×	×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부모/국가), 부모교육 필요성, 자녀 양육에 있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육아지원 분야	○	○	×	×	×
초등 돌봄 국가 책임(부모/국가)	×	○	×	×	×
양육 지원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육아지원 분야	×	○	○	○	○

주: 문자 기입사항은 주요 변화 내용이며, 설문의 변화가 없거나 문구 수정 등의 작은 변화만이 있는 경우는 ○로 표기, 해당년도에 조사 문항 자체가 삭제되어 조사되지 않은 경우 ×로 표기함.

자료: 1) 최효미 외(2021).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IV). 육아정책연구소. p.95, 〈표 III-2-4〉의 내용을 수정 보완함.

2)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설문지.

다. 아동용 설문

5차년도 영유아용 아동 설문은 패널조사 종료 시점임을 고려해 4차년도 설문 항목과 거의 동일하게 유지하여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다만, 4차년도 설문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영유아 설문 항목에 공통적으로 지난 1년간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유로 반일제이상 기관을 등원하지 못한 경험에 대한 설문 항목을 추가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반일제이상 기관의 휴원 뿐 아니라 ‘확진자 및 접촉자동거가족 격리 지침⁴¹⁾’ 등에 따라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의 영향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타서비스에 기존 설문의 ‘키즈카페’ 범주와 더불어 영유아들이 비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비정기 체험활동(**체험, 견학 활동 등)’의 범주를 추가하여 영유아기 육아서비스 이용의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1~5차년도에 걸친 아동용 설문의 변화 경향을 살펴보면 육아서비스의 유형별로 전반적인 이용 실태(이용여부, 종류, 개수, 비용, 만족도 등)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을 지속하면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육아서비스 수요 및 이용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문항(3차~5차), 비대면서비스 이용 관련 문항(4차, 5차) 등 시의성 문항이 회차별로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2-5〉 아동용 설문 비교 (1~5차년도) : 영유아

세부 문항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주로 돌보는 사람		○	○	×	×	×
자녀를 직접 돌보지 못하는 이유		×	○	×	×	×
자녀의 기관 이동 경험		×	○	×	×	×
기관 이동 경로		×	○	×	×	×
평균적인 한 주 일과(시간대별 육아서비스 이용 종류)		×	×	○	×	×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용하지 못한 서비스		×	×	○	×	×
어린이집 이용자	어린이집 유형, 이용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 이용 관련 지출비용, 특별활동 이용관련 지출비용, 만족도, 이용 사유, 원하는 양육 형태	○	○	문항 간소화	○	○
	비대면(온라인 수업) 서비스 이용	×	×	×	○	○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이유로 어린이집을 등원하지 못한 경험	×	×	×	×	○

4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국민용 누리집. 접촉자-자가격리. ncv.kdca.go.kr/menu.es?mid=a30800000000 (인출: 2022. 6. 15.)

세부 문항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유치원 이용자	유치원 유형, 이용 서비스, 이용 시간, 만족도, 서비스 이용 관련 지출비용,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이용 관련 지출비용, 이용 사유, 원하는 양육 형태	○	○	문항 간소화	○	○
	비대면(온라인 수업) 서비스 이용	×	×	×	○	○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이유로 유치원을 등원하지 못한 경험	×	×	×	×	○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자	반일제 이상 기관 유형, 이용시간, 서비스 이용 관련 지출비용, 특별활동 이용관련 지출비용, 만족도, 이용 사유, 원하는 양육 형태	○	○	문항 간소화	○	○
	비대면(온라인 수업) 서비스 이용	×	×	×	○	○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이유로 반일제 이상 기관을 등원하지 못한 경험	×	×	×	×	○
문화센터	이용 기관, 이용 종류, 이용 비용	○	○	○	횟수, 시간 문항 추가	○
	코로나19 영향 이용 수요	×	×	×	○	○
시간제 일시 보육	이용여부, 시간제 보육 장소, 이용 빈도, 1회당 평균 이용 시간, 지출비용, 만족도, 이용 사유	○	○	이용 사유 삭제	○	○
개별돌봄 서비스	이용여부, 돌봄 장소, 개별돌봄 인력 근무형태, 육아도우미 국적, 이용 빈도, 이용시간, 지출비용, 만족도, 이용 사유, 원하는 양육 형태	○	가구용 설문으로 이관	×	×	×
학원	이용여부, 종류, 개수, 월 이용비용, 비대면 수업 여부, 만족도,	○	○	○	비대면 수업 관련 문항 추가	○
	코로나19 영향 이용 수요	×	×	×	○	○
시간제 사교육	이용여부, 이용 사교육 개수, 이용 빈도, 이용시간, 지출비용, 만족도, (비용, 서비스), 이용 사유	○	○	서비스 종류별로 세분	○	○
	비대면 서비스 이용	×	×	×	○	○
기타 육아 서비스	이용여부, 이용 빈도, 이용시간, 지출비용, 만족도(비용, 서비스), 이용 사유	○	○	키즈카페 만 질문	○	비정기체 험활동 관련 설문 추가

주: 문자 기입사항은 주요 변화 내용이며, 설문지 변화가 없거나 문구 수정 등의 작은 변화만이 있는 경우는 ○로 표기, 해당년도에 조사 문항 자체가 삭제되어 조사되지 않은 경우 ×로 표기함.

자료: 1) 최효미 외(2021).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IV). 육아정책연구소, pp.96~97, <표 Ⅲ-2-6>의 내용을 수정 보완함.

2)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설문지.

3. 응답자 특성

가. 표본 가구 특성

1) 5차년도(2022년) 표본 가구 특성⁴²⁾

5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가구 표본을 막내자녀 연령별로 살펴보면, 가구 기준 전체 표본은 1,730가구이며, 4차년도 표본에서 추적에 성공한 가구가 1,325가구로 76.6%, 이탈로 인해 대체한 표본이 151가구로 8.7%, 신규로 추가한 가구가 254가구로 14.7%를 차지했다.

막내자녀 연령별로 2022년생 152가구, 2021년생 311가구, 2020년생 296가구, 2019년생 291가구, 2018년생 259가구, 2017년생 209가구, 2016년생 212가구로 나타났다. 5차년도 조사에서는 앞선 2~4차년도 조사와 다르게 영유아 가구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표 III-3-1〉 KICCE 소비실태조사 가구 표본(2022년) : 막내자녀 연령별 가구표본 비율

단위: 가구(%)

구분	가구 기준			
	전체 표본 수	추적성공	대체 표본	신규 표본
전체	1,730(100.0)	1,325(76.6)	151(8.7)	254(14.7)
2016년생 (6세)	212(100.0)	195(92.0)	17(8.0)	-
2017년생 (5세)	209(100.0)	196(93.8)	13(6.2)	-
2018년생 (4세)	259(100.0)	236(91.1)	23(8.9)	-
2019년생 (3세)	291(100.0)	264(90.7)	27(9.3)	-
2020년생 (2세)	296(100.0)	255(86.1)	41(13.9)	-
2021년생 (1세)	311(100.0)	155(49.8)	30(9.6)	126(40.5)
2022년생 (0세)	152(100.0)	24(15.8)	0(0.0)	128(84.2)

주: 1) 연령은 막내자녀 연령을 의미함.

2) 추적성공은 전년도(4차) 조사에 참여한 가구의 추적조사에 성공한 경우이며, 대체표본은 추적조사에 실패한 가구를 대신하여 대체된 표본, 신규표본은 조사차수 기준 전년도 하반기 및 당해연도 상반기에 출생한 신생한 표본을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5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가구 표본을 지역규모별로 살펴보면, 전체 1,730가구 중 39.5%인 683가구는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중소도시는 788가구로 45.5%, 읍면지역은 259가구로 1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부모의 일반적 특성 및 근로특성은 부표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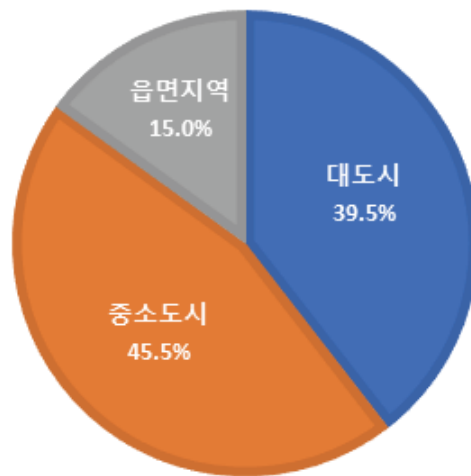
〈표 III-3-2〉 KICCE 소비실태조사 가구 표본(2022년) : 지역규모별

단위: 가구(%)

구분		KICCE소비실태조사(2022)	
전체		1,730	(100.0)
지역규모	대도시	683	(39.5)
	중소도시	788	(45.5)
	읍면지역	259	(15.0)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그림 III-3-1] KICCE 소비실태조사 가구 표본(2022년) : 지역규모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5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가구 표본을 자녀수 및 맞벌이 여부로 살펴보면, 전체 1,730가구 중 맞벌이가구는 767가구로 44.3%, 외벌이가구는 963가구로 55.7%를 차지했다. 자녀가 1명인 가구는 583가구(33.7%), 2명인 가구 900가구 (52.0%), 3명 이상인 가구는 247가구(14.3%)로 나타났다.

맞벌이가구 중 자녀가 1명인 가구는 246가구로 32.1%, 2명인 가구는 419가구로 54.6%,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102가구로 13.3%를 차지했다. 외벌이가구의 경우, 자녀가 1명인 가구가 337가구(35.0%), 2명인 가구 481가구(49.9%), 3명 이상인 가구는 145가구(15.1%)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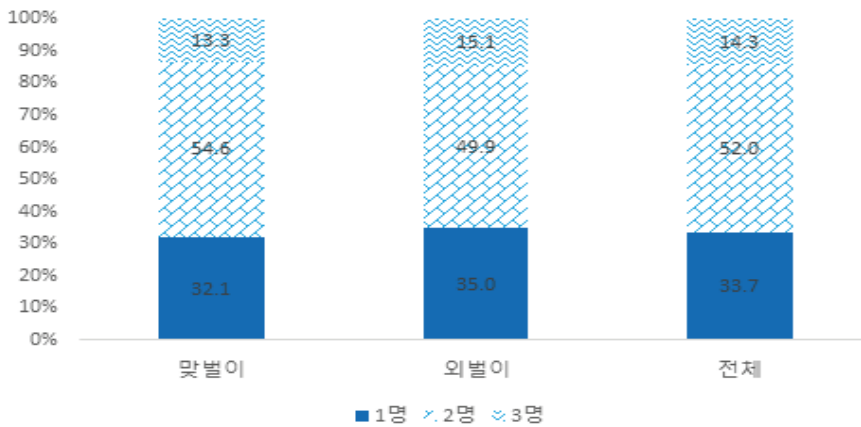
〈표 III-3-3〉 KICCE 소비실태조사 가구 표본(2022년) : 자녀수 및 맞벌이 비중

단위: 가구(%)

구분	맞벌이가구	외벌이가구	전체
자녀수	1명 246 (32.1) [42.2]	337 (35.0) [57.8]	583 (33.7) [100.0]
	2명 419 (54.6) [46.6]	481 (49.9) [53.4]	900 (52.0) [100.0]
	3명 102 (13.3) [41.3]	145 (15.1) [58.7]	247 (14.3) [100.0]
전체	767 (100.0) [44.3]	963 (100.0) [55.7]	1,73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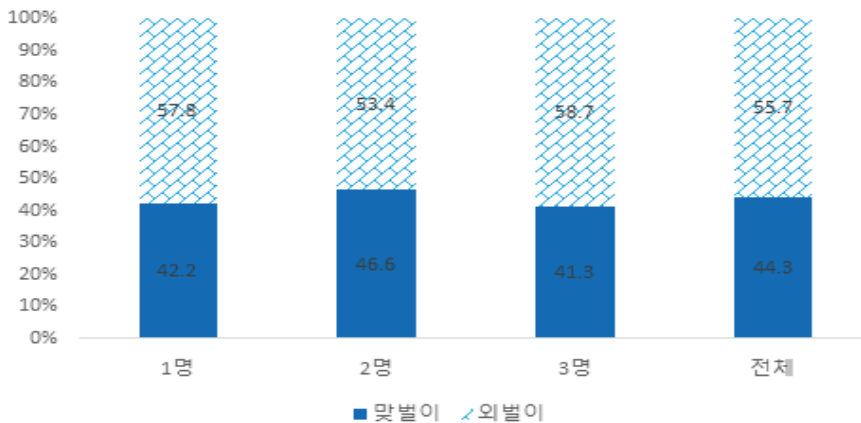
주: []안은 행백분율, ()안은 열백분율을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그림 III-3-2〕 KICCE 소비실태조사 가구 표본(2022년) : 맞벌이 여부별 자녀수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그림 III-3-3〕 KICCE 소비실태조사 가구 표본(2022년) : 자녀수별 맞벌이 여부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5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가구 표본을 자녀수 및 자녀구성별로 살펴보면, 자녀가 1명인데 영아인 경우가 393가구(22.7%), 유아인 경우 190가구(11.0%), 자녀가 2명인데 영아만 있는 경우 110가구(6.4%), 유아만 있는 경우 66가구(3.8%), 영아와 유아가 모두 있는 경우 288가구(16.6%), 영아와 초등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106가구(6.1%), 유아와 초등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330가구(19.1%) 자녀가 3명 이상이며 영아와 유아로 구성된 경우는 52가구(3.0%), 영아, 유아 그리고 초등이상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가 195가구로 전체 가구 중 11.3%를 나타냈다.

〈표 III-3-4〉 KICCE 소비실태조사 가구 표본(2022년) : 자녀수 및 자녀구성별

단위: 가구(%)

구분			가구	
전체			1,730	(100.0)
자녀구성	1명	영아만	393	(22.7)
		유아만	190	(11.0)
	2명	영아만	110	(6.4)
		유아만	66	(3.8)
		영아+유아	288	(16.6)
		영아+초등이상	106	(6.1)
		유아+초등이상	330	(19.1)
		3명 이상	영아만	-
	유아만		-	-
	영아+유아		52	(3.0)
	영아+초등		-	-
	유아+초등		-	-
	기타	영아+유아+초등이상	195	(11.3)
기타		-	-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2) 1~5차년도 표본 가구 특성

KICCE 소비실태조사의 표본특성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I-3-5〉 ~ 〈표 III-3-7〉과 같다.

전체 가구 표본을 비교해 보면(표 III-3-5 참조), 1차년도는 1,648가구, 2차년도 1,902가구, 3차년도 2,156가구, 4차년도 1,933가구, 5차년도 1,730가수로 1차년도 이후 3차년도까지 증가하다 이후로 다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차년도는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2차년도는 초등1학년까지, 3차년도는 초등2학년까지 추적조사를 하였고, 4차년도는 다시 초등1학년까지, 5차년도는

영유아가구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이다. 가구원수에 따라서는 5차년도에 3명이하는 33.1%, 4명 50.3%, 5명 이상 16.6%로 나타나, 3명이하는 연도별로 계속 줄고 4명이상인 가구는 계속 늘어나다가 5차년도에는 2차년도와 비슷한 비중을 나타냈다. 평균 가구원수는 1차년도 3.8명외에는 2~5차년도 모두 3.9명으로 같게 나타났다. 맞벌이가구의 비중은 1차년도 46.2%에서 연도별로 계속 줄어들다가 5차년도는 44.3%로 3차년도와 비슷한 수준(44.5%)을 나타냈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5차년도에 299만원 이하 8.4%, 300~399만원 이하 28.6%, 400~499만원 이하 24.2%, 500~599만원 이하 17.4%, 600만원 이상 21.4%로 나타났다.

영유아 가구 표본을 비교해 보면(표 III-3-5 참조), 1차년도는 1,648가구, 2차년도 1,665가구, 3차년도 1,679가구, 4차년도 1,709가구, 5차년도 1,730가구로 나타났다. 가구원수에 따라서는 5차년도에 3명이하 33.1%, 4명 50.3%, 5명 이상 16.6%로 1차년도에 3명이하인 가구 비중이 다소 크고 나머지 년도는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평균 가구원수도 1차년도만 3.8명이고, 나머지 년도는 3.9명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맞벌이가구의 비중은 5차년도 44.3%로 1차년도 이후로 비중이 줄어들다 4차년도부터 다소 늘어났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5차년도는 299만원 이하가 8.4%, 300~399만원 이하 28.6%, 400~499만원 이하 24.2%, 500~599만원 이하 17.4%, 600만원 이상 21.4%로 나타났다.

자녀수에 따라서는 전체 가구의 경우(표 III-3-6 참조), 5차년도에 자녀가 1명인 가구가 33.7%, 2명 52.0%, 3명 이상 14.3%로 평균 자녀수는 1.8명으로 나타나 연도별로 다자녀 가구의 비중이 다소 늘어났으나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가구의 경우, 5차년도 자녀가 1명인 경우 33.7%, 2명 52.0%, 3명 이상 14.3%, 평균 자녀수 1.8명으로 연도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전체 가구의 경우(표 III-3-7 참조), 5차년도에 대도시 가구가 39.5%, 중소도시 45.5%, 읍면지역 15.0%로 나타나 연도별로 대도시와 읍면지역 비중이 줄고 중소도시 비중이 다소 늘었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영유아 가구의 경우, 5차년도에 대도시 가구가 39.5%, 중소도시 45.5%, 읍면지역 15.0%로 전체 가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도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5〉 KICCE 소비실태조사 표본 특성 (2018~2022년)

단위: 가구(%)

구분	전체 가구 표본					영유아 가구 표본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전체	1,648(100.0)	1,902(100.0)	2,156(100.0)	1,933(100.0)	1,730(100.0)	1,648(100.0)	1,665(100.0)	1,679(100.0)	1,709(100.0)	1,730(100.0)
가구원 수										
3명이하	609(37.0)	638(33.5)	704(32.7)	617(31.9)	572(33.1)	609(37.0)	542(32.6)	527(31.4)	541(31.7)	572(33.1)
4명	781(47.4)	952(50.1)	1,087(50.4)	986(51.0)	871(50.3)	781(47.4)	843(50.6)	858(51.1)	880(51.5)	871(50.3)
5명이상	258(15.7)	312(16.4)	365(16.9)	330(17.1)	287(16.6)	258(15.7)	280(16.8)	294(17.5)	288(16.9)	287(16.6)
평균 가구원수	3.8	3.9	3.9	3.9	3.9	3.8	3.9	3.9	3.9	3.9
맞벌이										
가구	762(46.2)	856(45.0)	960(44.5)	837(43.3)	767(44.3)	762(46.2)	738(44.3)	735(43.8)	720(42.1)	767(44.3)
여부										
외벌이	886(53.8)	1,046(55.0)	1,196(55.5)	1,096(56.7)	963(55.7)	886(53.8)	927(55.7)	944(56.2)	989(57.9)	963(55.7)
299만원 이하	223(13.5)	153(8.0)	128(5.9)	129(6.7)	145(8.4)	223(13.5)	129(7.8)	95(5.7)	119(7.0)	145(8.4)
300~399만원 이하	439(26.6)	510(26.8)	368(17.1)	438(22.7)	495(28.6)	439(26.6)	460(27.6)	288(17.2)	398(23.3)	495(28.6)
400~499만원 이하	384(23.3)	484(25.5)	619(28.7)	575(29.8)	419(24.2)	384(23.3)	415(24.9)	492(29.3)	512(30.0)	419(24.2)
500~599만원 이하	269(16.3)	348(18.3)	463(21.5)	349(18.1)	301(17.4)	269(16.3)	313(18.8)	354(21.1)	301(17.6)	301(17.4)
600만원 이상	333(20.2)	407(21.4)	578(26.8)	442(22.9)	370(21.4)	333(20.2)	348(20.9)	450(26.8)	378(22.1)	370(21.4)

주: 1) 1, 5차년도 조사는 영유아 가구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영유아 가구와 전체 가구 응답 결과가 동일함.

2) 가구소득은 2022년 공표된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를 통해 2020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임.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표 III-3-6〉 KICCE 소비실태조사 가구의 자녀 구성 (2018~2022년)

구분	전체 가구					영유아 가구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전체	1,648 (100.0)	1,902 (100.0)	2,156 (100.0)	1,933 (100.0)	1,730 (100.0)	1,648 (100.0)	1,665 (100.0)	1,679 (100.0)	1,709 (100.0)	1,730 (100.0)
1명	638 (38.7)	660 (34.7)	725 (33.6)	625 (32.3)	583 (33.7)	638 (38.7)	559 (33.6)	543 (32.3)	551 (32.2)	583 (33.7)
2명	818 (49.6)	987 (51.9)	1,125 (52.2)	1,022 (52.9)	900 (52.0)	818 (49.6)	878 (52.7)	889 (53.0)	910 (53.2)	900 (52.0)
3명 이상	192 (11.7)	255 (13.4)	306 (14.2)	286 (14.8)	247 (14.3)	192 (11.7)	228 (13.7)	247 (14.7)	248 (14.5)	247 (14.3)
평균 자녀수	1.7	1.8	1.8	1.8	1.8	1.7	1.8	1.8	1.8	1.8

주: 1. 5차년도 조사는 영유아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영유아 가구와 전체 가구 응답 결과가 동일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표 III-3-7〉 지역규모별 KICCE 소비실태조사 가구 표본 (2018~2022년)

단위: 가구(%)

구분	전체 가구					영유아 가구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전체	1,648 (100.0)	1,902 (100.0)	2,156 (100.0)	1,933 (100.0)	1,730 (100.0)	1,648 (100.0)	1,665 (100.0)	1,679 (100.0)	1,709 (100.0)	1,730 (100.0)
대도시	662 (40.2)	762 (40.1)	865 (40.1)	764 (39.5)	683 (39.5)	662 (40.2)	664 (39.9)	670 (39.9)	670 (39.2)	683 (39.5)
중소 도시	717 (43.5)	833 (43.8)	952 (44.2)	886 (45.8)	788 (45.5)	717 (43.5)	728 (43.7)	746 (44.4)	781 (45.7)	788 (45.5)
읍면 지역	269 (16.3)	307 (16.1)	339 (15.7)	283 (14.6)	259 (15.0)	269 (16.3)	273 (16.4)	263 (15.7)	258 (15.1)	259 (15.0)

주: 1. 5차년도 조사는 영유아 가구만을 조사대상으로 하며, 영유아 가구와 전체 가구 응답 결과가 동일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나. 가구 소득 특성⁴³⁾

여기서는 먼저 2022년 조사된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응답 가구의 소득 특성을 먼저 살펴본 후, 1~5차년도 응답 가구의 소득 특성을 비교해서 살펴보았다.

1) 5차년도 응답 가구의 소득 특성

5차년도 응답 가구의 소득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 III-3-8>과 같다. 5차년도 응답 가구 1,730가구는 막내자녀가 초등학생 이상인 가구는 포함되지 않은 '막내 자녀 기준' 영유아 가구이다. 즉, 5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의 가구표본은 1명 이상의 영유아가 포함된 '영유아 가구'이다. 5차년도(2022년) 영유아 가구 표본 1,730 사례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총 500만5천원이며, 이중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437만원을 차지해 87.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외 공적이전소득이 28만9천원(5.8%), 코로나19 관련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 22만2천원(4.4%), 기타소득 4만8천원, 사적이전소득 4만7천원, 부동산 및 금융소득 2만9천원 순으로 나타났다. 영유아가구 중 각 소득유형별 보유 비중은 공적이전소득이 100.0%,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99.5%, 코로나19 관련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 39.6%, 사적이전소득 6.6%, 기타소득 3.8%, 부동산 및 금융소득이 3.2% 순이었다. 영유아가구의 소득유형별 가구소득 보유율, 금액 수준의 조사 결과를 통해 한국의 영유아가구의 가장 큰 소득원은 가구원이 직접 일을 하여 얻는 소득(근로 및 사업 소득)임을 알 수 있으며, 한편 어떤 형태로든 공적이전소득을 모든 영유아 가구가 받고 있고 공적이전소득이 총 가구소득에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이 영유아가구의 소득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표 III-3-8 참조).

가구특성별로 살펴보면,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이 585만5천원으로 외벌이 가구의 432만8천원에 비해 약 150만원, 즉 외벌이 가구에 비해 35%가량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의 소득 차이는 대부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격차로 인해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가구소득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근로소득 및

43) 가구소득은 소비자물가지수(2020=100기준)를 활용하여 모든 값을 실질함.

사업소득도 당연히 높아지나, 그 외 모든 유형의 소득에서도(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포함)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액이 높아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낮을 뿐 아니라 다른 유형의 소득에서도 취약성이 높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중요성(또는 의존도)가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자녀수는 많을수록 총 가구소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다만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자녀가 2명인 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적이전소득, 코로나19 관련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 사적이전소득은 자녀수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자녀(연령) 구성에 따른 가구소득의 차이를 살펴보면, 자녀가 1명인 경우 영아 가구보다는 유아가구의 가구소득이 높았으며, 2자녀 가구는 1자녀 가구보다는 가구소득이 높으나 세부 자녀구성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었다. 즉, 영아만 2명인 가구의 소득이 가장 낮고 2명의 자녀 중 초등학생이 포함된 경우 가구소득이 다소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서 3명의 자녀가 모두 영유아인 경우에 비해 초등학생을 포함하여 3자녀 이상인 경우의 가구소득이 높았다. 연령이 높은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의 연령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부모 연령이 높을 경우 경력을 반영하여 근로소득이 높아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이러한 자녀 구성에 따른 가구소득 수준을 통해 영아가 있는 가구(즉, 부모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소득의 취약성이 높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영유아 가구의 소득을 구성하는 소득 유형 중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라 ‘공적 영역’으로부터의 ‘지원’의 의미가 있는 소득이 가구소득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살펴보았다.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다음으로 영유아 가구의 소득 구성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득유형은 각종 수당 및 사회보험급여를 포함하는 ‘공적이전소득’이며, 코로나19와 관련해 지급된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도 실질적으로 ‘공적 이전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유사한 두 유형의 소득이(‘공적 소득’으로 지칭) 전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2%(51만1천원)이며, 가구특성별로 가구소득 중 ‘공적 소득’의 비중은 차이를 보였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외벌이 가구의 전체 소득 중 공적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11.7%로 맞벌이 가구(8.8%) 보다 높았다.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소득이

가장 낮은 299만원 이하 가구들의 가구소득 중 공적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11.7%), 다음으로 가장 가구소득이 높은 600만원 이상 가구가 10.8%, 300~599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9.7%~9.8%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많을수록 가구소득 중 공적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여서 자녀가 1명인 가구는 공적소득이 8.3%를 차지하나, 2명인 가구는 10.5%, 3명 이상인 가구는 13.0%로 나타났다. 이는 공적이전소득 산정에 포함된 아동 양육 관련 수당이 자녀 별로 지급되는 구조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상황 지원금 등이 가족수(즉, 자녀 수)에 따라 차등화되는 구조를 보였던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III-3-8〉 가구특성별 세목별 월평균 가구소득(2022년: 실질비용)

단위: (%), 만원(가구)

구분		근로 소득 및 사업 소득	부동산 소득 및 금융 소득	공적소득			사적 이전 소득	기타 소득	계(명)	
				공적 이전 소득	코로나19 로 인한 긴급상황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	가구 소득 중 공적소득 비중(%)				
소득보유비율 (%)		(99.5)	(3.2)	(100.0)	(39.6)		(6.6)	(3.8)	(1,730)	
전체		437.0	2.9	28.9	22.2	(10.2)	4.7	4.8	500.5(1,730)	
맞벌이 가구여부	맞벌이	522.9	4.3	26.5	25.1	(8.8)	2.9	3.8	585.5(767)	
	외벌이	368.6	1.8	30.7	19.8	(11.7)	6.2	5.6	432.8(963)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19.4	0.1	24.2	5.2	(11.7)	2.3	0.2	251.4(145)	
	300~399만원 이하	317.4	0.5	27.2	7.4	(9.8)	1.7	0.3	354.4(495)	
	400~499만원 이하	405.0	1.5	28.6	15.5	(9.7)	2.1	1.6	454.3(419)	
	500~599만원 이하	483.2	1.9	32.8	20.8	(9.8)	5.4	4.4	548.4(301)	
	600만원 이상	681.1	9.8	30.0	57.1	(10.8)	12.2	16.5	806.8(370)	
자녀수	1명	412.4	1.3	24.0	13.7	(8.3)	2.4	2.9	456.9(583)	
	2명	450.8	4.1	29.9	24.8	(10.5)	5.4	6.4	521.3(900)	
	3명이상	445.1	2.5	36.5	32.2	(13.0)	7.8	3.2	527.4(247)	
자녀 구성	1명	영아	389.3	1.4	30.0	13.5	(9.9)	3.0	3.1	440.3(393)
		유아	460.2	1.1	11.7	14.3	(5.3)	1.2	2.6	491.2(190)
	2명	영아만	378.9	11.2	63.0	27.5	(18.0)	11.9	9.1	501.6(110)
		유아만	475.8	2.0	23.6	16.7	(7.7)	3.2	0.5	521.7(66)
		영아+유아	429.6	1.8	34.9	26.4	(12.0)	3.5	15.7	511.8(288)
		영아 +초등 이상	458.4	1.5	21.4	28.4	(9.4)	17.7	1.6	529.0(106)
		유아 +초등 이상	485.7	4.9	18.4	23.1	(7.8)	1.3	0.2	533.7(330)
		영유아만	420.7	1.8	59.6	17.1	(15.1)	6.8	0.9	506.9(52)
	3명 이상	영유아 +초등 이상	451.6	2.7	30.3	36.3	(12.5)	8.1	3.9	532.9(195)

주: 1) 근로소득은 본인의 근로소득+배우자 근로소득+가구원 근로소득으로 계산함.

2) 소득이 없는 경우는 0으로 처리한 후 계산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이처럼, 단순히 자녀수에 따라서만 살펴보면 자녀수가 많을수록 공적 영역으로부터의 지원 비중이 높아지는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같은 자녀 수 내에서도 자녀 구성이 ‘공적 소득’의 수준에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지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자녀가 1명인 경우 그 자녀가 영아인 경우는 가구소득 중 ‘공적소득’이 9.9%를 차지하였으나 1명의 자녀가 유아인 경우에는 그 비중이 5.3%로 감소하였다. 자녀가 2명일 때, 그 자녀들이 모두 영아인 경우는 가구소득 중 ‘공적소득’의 비중이 18.0%에 달했으나 영아가 없이 유아만 있거나(7.7%), 유아와 초등학생 이상인 경우(7.8%) 공적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유아나 초등학생이 있더라도 두 자녀 중 1명은 영아인 경우에는 공적소득의 비중이 유아 이상만 있는 경우에 비해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3명이 모두 영유아인 경우 15.1%, 초등학생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12.5%로 모두 영유아인 경우가 공적소득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즉, 이는 자녀수가 같을 경우 어린 자녀가 많을수록 국가나 지자체와 같은 공적 영역으로부터 지원되는 소득이 가구소득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됨을 의미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자녀 연령에 따라 지원액이 차등화 되거나 일정 연령 이상에서 지급이 중단되는 공적소득의 지원이 자녀의 성장에 따라 감소하면서 양육비용의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있는데, 공적소득의 비중이 높았던 저소득 다자녀 가구의 경우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이에 다자녀 가구, 혹은 적어도 저소득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영아기를 벗어나는 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양육비용 경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2) 연도별 가구 소득 특성

다음으로 ‘KICCE 소비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5년간 가구소득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본 결과는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실질 비용으로 환산된 가구소득을 의미하는데, 영유아가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3차년도까지 증가하였던 가구소득이 4차년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물가를 고려한다면 영유아가구의 소득은 현재 2019년과 유사한 수준에 해당하였다. 이는 맞벌이, 외벌이 가구에서 동일한 경향이나 4차년도(2021년) 대비 외벌이 가구의 가구소득 감소율이 맞벌이 가구에 비

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자녀수에 따라서는 자녀가 2명인 가구가 4차년도에는 가장 소득이 높았으나, 5차년도 본 조사에서는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가구소득이 가장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고, 이러한 변화로 인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서는 4차년도 대비 5차년도 가구소득이 미미하게나마 증가하였으나 자녀가 1, 2명인 가구의 경우 4차년도 대비 5차년도의 가구소득이 감소하였다. 특히, 자녀가 1명인 경우에 가구소득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영유아 가구의 총 가구소득은 1차년도(2018년) 조사 이후 5년간 약 31만8천원(약 6.8%) 증가하였다.

〈표 III-3-9〉 가구특성별 KICCE 소비실태조사 월평균 총 가구소득 변화 (2018~2022년, 실질비용)

단위: 만원

구분	전체 가구					영유아 가구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전체	468.7	501.5	528.1	514.2	500.5	468.7	497.0	528.6	511.2	500.5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547.5	587.3	601.0	590.9	585.5	547.5	579.5	601.9	588.4	585.5
외벌이	400.9	431.3	469.7	455.6	432.8	400.9	431.4	471.5	455.1	432.8
자녀수										
1명	461.4	485.9	499.3	479.5	456.9	461.4	480.9	495.2	471.8	456.9
2명	467.5	505.9	543.1	529.5	521.3	467.5	505.0	544.4	530.8	521.3
3명이상	498.0	525.0	541.5	535.1	527.4	498.0	505.9	545.2	526.4	527.4

주: 1) 5차년도 조사는 영유아 가구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영유아 가구와 전체 가구 응답 결과가 동일함.

2) 2022년 공표된 소비자물가지수(2020=100)을 통해 2020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로 본 표에 제시된 1~4차년도 결과는 소비자물가지수(2015=100)을 통해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하여 제시되었던 1~4차년도 소비실태조사 보고서 결과와 차이가 있음.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세목별로 영유아가구의 가구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3차년도 이후 영유아가구의 가구소득이 많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5차년도(2022년) 본 조사에서도 영유아가구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437만원으로 4차년도(2021년)의 448만8천원에 비해 약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부동산 소득 및 금융소득도 4차년도에 11만6천원에서 2만9천원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사적이전소득, 기타소득도 감소하였다. 반면 공적이전소득 및 사회보험소득이 1~5차년도 중 가장 높은 금액인 28만9천원으로 나타나 공적이전소득 및 사회보험소득의 중요성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으며 코로나19 관련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도 4차년도(2021년) 대비 5차

년도(2022년) 조사에서 크게 높아졌다. 이는 2022년 상반기에 급증한 코로나19 확진과 이에 따른 생활지원금 지급 등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추측된다.

〈표 III-3-10〉 세목별 가구소득 변화 (2018~2022년, 월평균, 실질비용)

단위: 만원

구분	전체 가구					영유아 가구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451.5	458.8	431.7	454.4	437.0	451.5	452.5	424.3	448.8	437.0
부동산 소득 및 금융소득	4.0	6.5	4.2	11.6	2.9	4.0	6.5	3.8	11.6	2.9
공적이전소득 및 사회보험소득	9.8	24.6	22.6	22.7	28.9	9.8	27.6	26.9	24.6	28.9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상황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	-	-	58.6	14.3	22.2	-	-	61.2	13.8	22.2
사적이전소득	1.9	4.7	4.9	5.3	4.7	1.9	3.1	5.6	5.8	4.7
기타소득	1.4	6.9	6.1	5.8	4.8	1.4	7.4	6.8	6.5	4.8

주: 1) 5차년도 조사는 영유아 가구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영유아 가구와 전체 가구 응답 결과가 동일함.

2) 2022년 공표된 소비자물가지수(2020=100)을 통해 2020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로 본 표에 제시된 1~4차년도 결과는 소비자물가지수(2015=100)을 통해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하여 제시되었던 1~4차년도 소비실태조사 보고서 결과와 차이가 있음.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한편 양육관련 공적 지원금으로 가정양육수당(2022년 출생아는 영아수당), 보육료 지원금, 누리과정 지원금, 아동수당에 한하여 1~5차년도의 조사 결과를 비교하였다. 영유아가구 중 가정양육수당의 수혜 비중은 4차년도에 41.9%에서 5차년도에는 36.4%로 감소하였다. 다만 2022년 출생아 중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은 가정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이 지급되므로 5차년도(2022년) 영아수당 수혜 비중인 5.5%를 가정양육수당 수혜비중에 추가하면(36.4%+5.5%) 41.9%로 결과적으로는 4차년도와 5차년도에 가정양육을 선택한 가정에 대한 공적 지원금 수혜 비중은 동일한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보육료 지원을 받은 영유아 가구 비중은 5차년도에 51.5%로 4차년도(2021년) 대비 1.6%p 감소하였고⁴⁴⁾, 누리과정 지원금 수혜 비중도 63.9%로 4차년도(2021년) 대비 동일하게 1.6%p 감소하였다. 아동수당은 영유아가구의 99.8%가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관련 공적

44) 단, 영아수당에서 보육료지원에 해당하는 '바우처'를 선택하여 수급한 경우가 0.8%에 해당하므로, 결과적으로는 4차년도 대비 5차년도에 0.8%p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원금별 수혜 비중은 아동수당이 가장 높고(99.8%), 누리과정지원(63.9%), 보육료지원(51.5%), 가정양육수당 및 영아수당(현금)(41.9%) 순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경향은 3차년도 이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표 III-3-11〉 양육관련 공적 지원금 수혜 비중 변화(2018~2022년)

단위: %

구분	전체 가구					영유아 가구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가정양육수당	25.5	29.8	31.9	38.2	36.4	25.5	33.6	40.5	41.9	36.4
영아수당 (‘22년 출생아)	-	-	-	-	5.5	-	-	-	-	5.5
보육료지원(영아)	56.7	54.6	39.3	47.0	51.5	56.7	61.5	50.5	53.1	51.5
누리과정지원(유아)	38.7	41.6	58.0	68.1	63.9	38.7	39.2	63.4	65.5	63.9
아동수당	-	83.3	88.8	99.8	99.8	-	93.6	99.0	99.8	99.8

주: 1) 5차년도 조사는 영유아 가구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영유아 가구와 전체 가구 응답 결과가 동일함.

2) 영아수당은 현금과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비용 전액 지원)지원의 두 가지 형태를 포함하므로 본 표에서는 ‘현금’ 지원을 받은 비중만 제시함. 현금과 바우처 지원을 모두 포함할 경우 6.3%가 지급받음.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양육관련 공적 지원금의 월평균 수혜금액을 공적 지원금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표 III-3-12 참조), 5차년도(2022년) 가장 수혜금액이 큰 양육관련 공적 지원금은 ‘보육료지원금’으로 39만2천원에 해당하며, 다음으로 ‘누리과정지원금’이 30만8천원, 2022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영아수당’이 27만7천원, ‘가정양육수당’ 16만8천원, ‘아동수당’ 15만8천원 순으로 나타났다. 4차년도 대비 5차년도의 월평균 보육료지원 수혜 금액이 약 6만2천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조사 표본인 영유아 가구의 영유아들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이 감소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⁴⁵⁾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감소하고 반일제이상 기관 미이용 비율이 증가한 것은 유아보다는 주로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감소한 것을 시사하며, 보육료 지원액은 연령이 어릴수록 높기 때문이다.⁴⁶⁾

또한 2022년 출생아에 대해서는 가정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이 지급되게 되어 가정양육수당 중 20만원을 지급받는 0세아가 다수 제외됨으로써 4차년도 조사 결과에 비해 5차년도 조사 결과에서 가정양육수당 수급액이 감소한 것으로 사료된

45) 본 보고서의 〈표 V-1-1〉를 참조할 것.

46) 본 보고서의 〈표 II-1-2〉를 참조할 것.

다. 아동수당은 도입 이후 지급대상 연령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4차년도 대비 5차년도 수급액(가구별)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III-3-12〉 양육관련 공적 지원금 수혜 금액 변화(2018~2022년, 월평균, 실질비용)

단위: 만원

구분	전체 가구					영유아 가구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가정양육수당	16.6	16.9	17.5	18.4	16.8	16.6	17.0	17.6	18.6	16.8
영아수당 (‘22년 출생아)	-	-	-	-	27.7	-	-	-	-	27.7
보육료지원(영아)	29.1	27.7	34.1	45.4	39.2	29.1	27.7	34.1	45.4	39.2
누리과정지원(유아)	21.0	22.1	22.7	27.8	30.8	21.0	22.0	22.9	29.3	30.8
아동수당	-	10.1	10.0	13.8	15.8	-	10.1	10.0	14.3	15.8

주: 1) 5차년도 조사는 영유아 가구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영유아 가구와 전체 가구 응답 결과가 동일함.

2) 2022년 공표된 소비자물가지수(2020=100)을 통해 2020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로 본 표에 제시된 1~4차년도 결과는 소비자물가지수(2015=100)을 통해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하여 제시되었던 1~4차년도 소비실태조사 보고서 결과와 차이가 있음.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한편 코로나19 관련 공적 지원금 수혜 금액을 살펴보면 수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가 63.6%, 30만원 이상인 경우가 18.9%, 10~20만원 미만 11.4%, 20~30만원 미만 6.1% 순이었으며, 평균 수급 금액은 22만2천원에 해당하였다.

〈표 III-3-13〉 코로나19 관련 공적 지원금 수혜 금액 (2022년, 월평균, 실질비용)

단위: %, 만원, %(명)

10만원미만	10~20만원	20~30만원	30만원 이상	평균	계(수)
63.6	11.4	6.1	18.9	22.2	100.0(1,730)

주: 2022년 공표된 소비자물가지수(2020=100)을 통해 2020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다. 아동 특성

5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아동용 설문에 응답한 아동(영유아)은 총 2,395명이었으며, 연령별 분포는 다음 〈표 III-3-14〉와 같았다. 5차년도의 경우 2016년생(6세)까지만 추적조사를 진행하였다.

〈표 III-3-14〉 아동 자료 특성 변화 : 연령 (2018~2022년)

단위: %(명)

출생년도	해당차시 연령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1차	2차	3차	4차	5차					
2022년생	-	-	-	-	0세	-	-	-	-	6.5 (156)
2021년생	-	-	-	0세	1세	-	-	-	5.6 (160)	13.4 (321)
2020년생	-	-	0세	1세	2세	-	-	4.8 (158)	11.2 (316)	14.0 (335)
2019년생	-	0세	1세	2세	3세	-	5.7 (158)	9.8 (321)	12.5 (353)	16.5 (396)
2018년생	0세	1세	2세	3세	4세	5.6 (127)	10.7 (297)	10.1 (331)	13.0 (367)	15.8 (379)
2017년생	1세	2세	3세	4세	5세	11.7 (267)	10.7 (296)	10.2 (333)	12.8 (363)	16.4 (392)
2016년생	2세	3세	4세	5세	6세	13.0 (295)	12.1 (336)	11.6 (379)	14.3 (404)	17.4 (416)
2015년생	3세	4세	5세	6세	-	15.6 (356)	14.8 (410)	12.9 (424)	15.5 (438)	-
2014년생	4세	5세	6세	7세 (초1)	-	16.2 (370)	14.6 (406)	12.9 (422)	15.2 (431)	-
2013년생	5세	6세	7세 (초1)	-	-	17.7 (403)	15.2 (421)	13.5 (441)	-	-
2012년생	6세	7세 (초1)	8세 (초2)	-	-	20.2 (459)	16.3 (452)	14.3 (469)	-	-
전체						100.0 (2,277)	100.0 (2,776)	100.0 (3,278)	100.0 (2,832)	100.0 (2,395)

주: 1) 아동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

2) 최호미 외(2021). p.105. 〈표 III-3-10〉에 5차년도 본 조사 자료를 추가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라.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

표본가구의 특성 중 하나로 영유아 가구 부모들의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 정도를 살펴보았다.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일자리가 있었던 응답자 본인/배우자를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제도 이용 경험을 질문한 것이다. 〈표 III-3-15〉에 따르면 2022년 1월 이후 출산휴가 이용 경험은 아버지 8.9%, 어머니 15.9%에 해당하였다. 육아휴직은 아버지 3.6%, 어머니는 21.8%가 이용 경험이 있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아버지 0.8%, 어머니 5.8%에 해당하여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비해 이용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4차년도 결과와 비교시

부,모 모두 일자리가 있는 부, 모 중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용 경험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의 이용 경험 비율은 4차년도보다 오히려 감소하였는데, 이는 선택 가능한 상황이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보다는 육아휴직제도 이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위한 심층면담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 시 단축된 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로 기대하는 수준에 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매우 낮다는 점이 해당 제도 이용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적으로는 단축한 시간만큼 금액(급여)가 차감되는게 아니라 거의 절반 이상이 차감이 돼서 사실 그 돈을 받으려면 그냥 집에 있는게 나을 것 같다는 수준이 돼서 사람들이 실제로 쓰려고 하면 못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사례 7]

〈표 Ⅲ-3-15〉 부모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 경험 (2021~2022년)

단위: %

구분	아버지		어머니	
	4차년도(2021)	5차년도(2022)	4차년도(2021)	5차년도(2022)
출산휴가	6.7	8.9	13.6	15.9
육아휴직	2.8	3.6	18.6	21.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6	0.8	6.7	5.8

주: 1) 부, 모 중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일자리가 있는 사례 부 1,702명, 모 779명의 응답 결과임.

2) 최효미 외(2021). p.106 〈표 Ⅲ-3-11〉의 이용률 수치를 추가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2) 최효미 외(2021). p. 106.〈표 Ⅲ-3-11〉 결과

한편, 영유아의 부모들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한 경우, 이 제도를 통해 최종 근로한 시간은 아버지 평균 31.2시간, 어머니 평균 30.5시간으로 유사하였다. 아버지의 경우 최종 근로한 시간이 25~30시간 미만인 경우가 71.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어머니의 경우도 25~30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가 가장 많아 46.7%에 해당하였고, 이외 30~35시간 근무한 경우도 37.8%로 적지 않았다. 2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는 15.6%에 해당하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하는 경우 대부분 하루 2~3시간을 단축하여 5~6시간 정도 근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3-1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최종 근로한 시간 (2022년: 주당)

단위: %, %(명), 시간

부						모					
15~ 20시간	20~ 25시간	25~ 30시간	30~ 35시간	계(수)	평균	15~ 20시간	20~ 25시간	25~ 30시간	30~ 35시간	계(수)	평균
0.0	0.0	71.4	28.6	100.0 (14)	31.2	6.7	8.9	46.7	37.8	100.0 (45)	30.5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최종 근로한 시간을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5차년도(2022년) 조사 결과 가족돌봄휴직 이용은 아버지 0.5%, 어머니 1.0%로 4차년도(2021)년 조사 결과에 비해서도 감소하였다. 가족돌봄휴가는 5차년도 조사에서 아버지 2.1%, 어머니 4.2%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4차년도 조사 대비 미미하게나마 증가하였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 경험은 아버지 0.6%, 어머니 1.5%로 '가족돌봄휴직'에 비해서는 이용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3-17〉 부모의 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휴가 이용 경험 (2021~2022년)

단위: %

구분	아버지		어머니	
	4차년도(2021)	5차년도(2022)	4차년도(2021)	5차년도(2022)
가족돌봄휴직	1.0	0.5	2.1	1.0
가족돌봄휴가	1.9	2.1	3.1	4.2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0.6	-	1.5

주: 1) 부, 모 중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일자리가 있는 사례 부 1,702명, 모 779명의 응답 결과임.
2) 최효미 외(2021). p.107 〈표 III-3-12〉의 이용률 수치를 추가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2) 최효미 외(2021). p. 107.〈표 III-3-12〉 결과

영유아의 부모들 중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한 경우, 이 제도를 통해 최종 근로한 시간은 아버지 평균 30.0시간, 어머니 평균 28.7시간으로 어머니가 조금 적었다. 아버지의 경우 모든 경우가 최종 근로한 시간이 25~30시간 미만이었으며, 어머니의 경우도 25~30시간 미만 근로한 경우가 83.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표 Ⅲ-3-18〉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최종 근로한 시간 (2022년: 주당)

단위: %, %(명), 시간

부			모				
25~30시간	계(수)	평균	15~20시간	20~25시간	25~30시간	계(수)	평균
100.0	100.0(10)	30.0	8.3	8.3	83.3	100.0(12)	28.7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최종 근로한 시간을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다음으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도 이용 경험을 살펴보았다. 5차년도(2022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택근무는 아버지 10.5%, 어머니 12.6%가 이용 경험이 있고, 시차출퇴근제는 아버지 3.5%, 어머니 4.6%, 선택근로제 아버지 1.7%, 어머니 3.2%, 원격근무제 아버지 2.1%, 어머니 3.0%, 전환형시간선택제 아버지 0.2%, 어머니 1.0%로 응답되었다. 즉, 5차년도에는 4차년도(2021년) 대비 거의 모든 유형의 유연근무제도 이용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연근무제도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영유아가 이용하는 서비스 기관의 휴원·휴교와 맞물려 돌봄공백 대응을 위해 활성화된 측면이 있었는 바, 2022년에는 영유아 교육·보육기관의 휴원·휴교가 없어 다시 이용이 감소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이러한 유연근무제도가 단지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한 긴급한 돌봄공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취업한 부모의 일상적인 일-가정 양립의 수월성을 지원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활용이 아닌 일상적인 정착과 재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표 Ⅲ-3-19〉 부모의 유연근무제도 이용 경험 (2021~2022년)

단위: %

구분	아버지		어머니	
	4차년도(2021)	5차년도(2022)	4차년도(2021)	5차년도(2022)
재택근무	11.3	10.5	14.5	12.6
시차출퇴근	4.0	3.5	6.5	4.6
선택근로제	2.1	1.7	2.7	3.2
원격근무	3.5	2.1	3.3	3.0
전환형시간선택제	0.7	0.2	1.9	1.0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2) 최효미 외(2021). p. 107.〈표 Ⅲ-3-13〉 결과

4. 소결 및 시사점

본 장을 통해 ‘KICCE 소비실태조사’ 표본가구의 1~5차년도에 걸친 가구소득의 특성과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이용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통해 발견되는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영유아 가구의 주 소득원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으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변화가 영유아 가구의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보다 약 35% 정도 소득이 높았으며 이는 대부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영향이었다. 즉, 이는 부모의 경제활동에 따른 차이가 전체 소득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한시적으로 부모의 경제활동이 취약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 한편으로는 영유아 부모의 일-가정 양립 환경을 개선하여 마음 놓고 일하며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공적이전소득’은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전체 소득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9.6%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저소득 가구일수록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즉, 이는 기타 유형의 소득은 미미하고 주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과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 영유아 가구에 대해서는 영유아의 양육으로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 창출이 제한되는 시기에 한시적으로 소득을 보완해주기 위한 추가적 소득보장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본 5차년도 조사에서 2020년도 기준 물가지수를 반영해 산출한 영유아 가구의 소득은 3, 4차년도의 영유아 가구소득보다 감소하여 2차년도(2019년) 수준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확산되었던 3차년도(2020년)의 경우 영유아 가구의 근로소득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이를 ‘코로나19 관련 공적 지원금’이 상쇄하고 오히려 가용소득을 증가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반해 5차년도에는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공적이전소득과 육아휴직급여 등 사회보험소득 외 모든 유형의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근 급격히 상승한 물가 부담으로 영유아 가구의 실질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영유아 가구의 근로소득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의 활성화와 취약한 시기의 소득 보전을 위한 ‘공적이전소득’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영유아 부모들의 육아 관련 휴가휴직제도, 유연근무제도 등 시간 지원 관련 제도들의 이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4차년도 대비 휴가휴직제도의 이용률은 증가했으나, 유연근무제도 이용률은 유형별로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휴직제도 관련 ‘근로시간단축제도’의 이용률은 매우 미미하게 나타났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용이 활성화되었던 유연근무제도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약화되면서 다시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연근무제도는 단지 코로나19와 같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 돌봄공백의 상황에만 활용되는 제도가 아닌, 육아 가구 또는 자녀가 없는 근로자 가구에도 일상적인 일-가정 양립을 위해 이용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제도라 사료된다. 유연근무제도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긴급한 돌봄 공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나, 이미 제도와 관련해 2년간의 실험을 거쳤다고 할 수 있으므로, 코로나19의 위험성이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제도 이용이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된다. 오히려 2년간의 실험으로 유연근무제도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각종 시스템이 도입된 경우가 많은 만큼 누구나 마음 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선진적인 근로 문화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V

영유아가구의 소비실태 및 양육비용

- 01 생활비 지출 총액 및 주요 지수
- 02 육아 가구 양육비용 실태
- 03 공적 지원금 및 세제 혜택 수혜 실태
- 04 양육비용 부담 및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 05 소결 및 시사점

IV. 영유아가구의 소비실태 및 양육비용

1. 생활비 지출 총액 및 주요 지수

2018년(1차)~2022년(5차)에 걸쳐 영유아 가구가 생활비로 지출한 비용을 양육비용의 비목과 일치시킨⁴⁷⁾ 형태로 산출한 결과는 <표 IV-1-1>에 제시한 바와 같다.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실질비용으로 환산된 5차년도(2022년) 생활비 지출액은 총 303만2천원으로 4차년도(2021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다. 영유아 가구의 생활비 지출은 3차년도(2020년) 조사 시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하였으나 4차년도(2021년) 조사에서는 다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5차년도에는 4차년도 수준에서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영유아 가구의 생활비 지출액은 첫 조사가 시작된 2018년에 비해 5차년도 조사(2022년)에 21만1천원이 (7.5%) 상승하여 같은 기간 영유아 가구의 소득 증가율에 비해 영유아 가구의 생활비 지출 증가율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⁴⁸⁾.

대표적인 생활비 지출 증가 비목은 ‘식비’로 영유아 가구의 식비 지출이 3차년도 이후 80만원 대에서 90만원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그 외 ‘기기/집기’, ‘보건/의료비’ 지출액도 3차년도 이후 대폭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식비의 경우 외식비의 지출 증가폭은 크지 않은데 비하여 전체 식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식재료 물가가 다른 비목 대비 빠르게 상승하였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반면 영유아 가구에서 식비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보육비의 경우 3차년도에 급격히 감소한 후 4차년도부터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가 및 문화생활비’는 5차년도 조사에서 4차년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비목으로 4차년도 조사 결과 25만4천원을 지출하였으나 5차년도에는 31.0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가족여행과 관람, 체험학습 비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47) 전체 지출 비목 중 양육비로는 지출되지 않는 주거비, 이전지출 등을 제외한 금액

48) 영유아 가구의 총 가구소득은 1차년도(2018년) 대비 5차년도(2022년)에 약 31만8천원(6.8%) 상승하였음.

코로나19의 진정 국면으로 바깥 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피복비, 교통비, 통신비, 개인유지비의 경우 3차년도에 1, 2차년도 대비 다소 큰 폭으로 증가한 후 상당히 안정적인 지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IV-1-1〉 월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 및 비목별 비중 변화 :

양육비용과 비목 일치 시(2018~2022년, 실질비용, 영유아 가구 표본)

단위: 만원, (%)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평균 비용	비목별 비중	평균 비용	비목별 비중	평균 비용	비목별 비중	평균 비용	비목별 비중	평균 비용	비목별 비중
총계	282.1	(100.0)	295.9	(100.0)	290.7	(100.0)	304.0	(100.0)	303.2	(100.0)
1. 식비(외식비포함)	82.1	(29.1)	83.8	(28.3)	94.5	(32.5)	93.0	(30.6)	91.1	(31.2)
1-1. 외식비	25.3	(9.0)	26.2	(8.9)	27.6	(9.5)	27.8	(9.2)	28.5	(9.6)
3. 기기/집기	6.3	(2.2)	8.0	(2.7)	11.0	(3.8)	12.8	(4.2)	12.6	(3.3)
4. 피복비(의류및신발)	18.5	(6.6)	18.8	(6.3)	18.8	(6.5)	19.8	(6.5)	20.2	(6.7)
5. 보건/의료비	7.1	(2.5)	9.0	(3.0)	11.4	(3.9)	12.4	(4.1)	12.3	(3.9)
6. 교육/보육비	41.5	(14.7)	43.4	(14.7)	30.1	(10.4)	38.9	(12.8)	38.3	(11.3)
7. 여가및문화생활비 (교양/오락비)	32.7	(11.6)	31.8	(10.7)	22.9	(7.9)	25.4	(8.4)	31.0	(9.8)
7-1. 가족여행 등	20.0	(7.1)	19.3	(6.5)	11.1	(3.8)	14.1	(4.6)	18.5	(5.8)
7-2. 관람 체험학습	4.1	(1.5)	4.1	(1.4)	1.3	(0.4)	1.7	(0.6)	3.2	(1.0)
7-3. 완구	4.0	(1.4)	4.1	(1.4)	4.7	(1.6)	4.7	(1.5)	4.4	(1.5)
7-4. 도서구매	4.6	(1.6)	4.3	(1.5)	5.0	(1.7)	4.4	(1.4)	4.1	(1.3)
8. 교통비	26.7	(9.5)	27.8	(9.4)	26.2	(9.0)	26.0	(8.5)	26.3	(9.2)
9. 통신비	17.3	(6.1)	17.7	(6.0)	18.0	(6.2)	17.7	(5.8)	17.0	(6.1)
9-1. 휴대전화비	12.7	(4.5)	12.3	(4.1)	12.9	(4.4)	13.1	(4.3)	11.3	(4.1)
10. 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13.0	(4.6)	13.6	(4.6)	14.8	(5.1)	14.8	(4.9)	14.9	(5.2)
11-2. 보험	36.8	(13.0)	42.2	(14.3)	42.9	(14.8)	43.2	(14.2)	39.5	(13.3)

주: 1) 비목 및 세목별 지출액이 없는 경우는 0으로 처리하였으며, 총계 대비 각 비목별 비중은 가구별로 각각 비중을 산출한 후 평균한 값임.

2) 양육비용과 비목을 일치시킨 생활비 지출은 생활비 지출 총액에서 주거비, 이전 지출 등을 제외한 금액.

3) 2022년 공표된 소비자물가지수(2020=100)을 통해 2020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로 본 표에 제시된 1~4차년도 결과는 소비자물가지수(2015=100)을 통해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하여 제시되었던 1~4차년도 소비실태조사 보고서 결과와 차이가 있음.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5차년도(2022년) 조사에서 영유아 가구의 생활비 지출 총액(양육비용 비목 포함 전체 비목)은 336만5천원으로 4차년도(2021년)의 336만4천원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영유아가구의 총 생활비 지출액은 1차년도(2018년) 조사 이후 3차년도(2020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맞벌이 가구 여부별로 살펴보면 5차년도 조사에서의 맞벌이 가구 생활비는 365만

1천원이고 외별이 가구는 313만7천원을 지출해 외별이 가구 대비 맞벌이 가구가 약 16.4% 더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가 외별이 가구보다 생활비 지출 총액이 유의미하게 큰 현상은 1차년도 조사 이후 동일한 경향이다. 또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총 생활비 지출액이 커지는 현상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단, 가구소득 300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생활비 지출 총액이 증가하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3차년도(2020년)에 크게 감소하였다가 4차년도(2021년)부터 다시 1, 2차년도 이상으로 생활비 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3차년도(2020년)에도 지속 증가하였다가 4차년도(2021년)부터 대폭 감소하는 추세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IV-1-2〉 가구 특성별 월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 변화 (2018~2022년, 실질비용, 영유아 가구 표본)

단위: 만원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전체		315.8	329.9	323.8	336.4	336.5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338.7	352.3	349.9	365.9	365.1
	외별이	296.1	312.0	303.6	315.0	313.7
<i>t</i>		7.2***	6.9***	8.3***	8.6***	8.0***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17.2	242.7	244.6	234.8	236.8
	300~399만원 이하	270.2	276.6	264.4	287.2	291.4
	400~499만원 이하	313.8	321.3	297.2	317.8	322.9
	500~599만원 이하	351.2	358.1	334.4	356.4	361.9
	600만원 이상	415.5	417.5	399.5	429.5	430.7
	<i>F</i>	156.5***	117.4***	108.8***	120.1***	102.0***

주: 1) 맞벌이 가구는 부모가 모두 취업상태를 말하며, 외별이 가구는 부모 중 한 사람이 미취업상태를 말함. 취업은 취업 및 휴직을 포함. 미취업 상태는 학업중, 구직중, 미취업을 포함.

2) 본 연구에서는 가구 지출 비목 중 1,2,3,4,5,6,7,8,9,10,11-2,13 항목의 합산값만을 “가구 생활비”로 정의하였음. 이에 ‘가구생활비 지출 총액’에는 11-1(저축), 11-3(원금상환), 11-4(이자상환), 12(이전지출)에 대한 지출액이 합산에서 제외됨.

3) 2022년 공표된 소비자물가지수(2020=100)을 통해 2020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로 본 표에 제시된 1~4차년도 결과는 소비자물가지수(2015=100)을 통해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하여 제시되었던 1~4차년도 소비실태조사 보고서 결과와 차이가 있음.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 $p < .001$.

한편, 5차년도(2022년) 조사 결과 영유아 가구 표본의 가구생활비 지출총액을 이루는 비목별 지출액 수준을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는 양육비용과 일치시킨 가구생활비 지출에 ‘11-2. 보험료 지출액’과 ‘13. 기타상품 및 서비스 지출

액'을 추가한 결과이다. 가구생활비 지출 총액에는 금융상품 등 지출액 중 저축액과 이자 및 원금 상환에 지출된 금액은 제외되어 있다.

〈표 IV-1-3〉 월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 및 비목별 비중/가구지출 총액(2022년, 실질비용, 영유아 가구 표본)

단위: %, 만원

구분	가구생활비 지출총액(주)			가구 지출 총액(만원)
	명목비용 (만원)	비목별비중 (%)	평균비용(실질) (만원)	
총계	458.6	100.0	336.5	424.0
1.식비(외식비포함)	98.6	22.6	91.1	91.1
1-1.외식비	30.8	6.9	28.5	28.5
2.주거/관리비	29.5	6.8	27.2	27.2
2-1.관리비및수도/광열비	21.8	5.2	20.2	20.2
2-2.월세	4.4	1.1	4.1	4.1
3.기기/집기	13.6	2.5	12.6	12.6
3-1 PC/노트북/태블릿PC	3.1	0.6	2.9	2.9
4.피복비(의류및신발)	21.9	4.9	20.2	20.2
5.보건/의료비	13.3	2.8	12.3	12.3
6.교육/보육비	41.4	8.3	38.3	38.3
7.여가및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33.5	7.1	31.0	31.0
7-1.가족여행 등	20.0	4.2	18.5	18.5
7-2.관람 체험학습	3.5	0.7	3.2	3.2
7-3.완구	4.8	1.1	4.4	4.4
7-4.도서구매	4.4	1.0	4.1	4.1
8.교통비	28.4	6.6	26.3	26.3
9.통신비	18.4	4.4	17.0	17.0
9-1.휴대전화비	12.2	2.9	11.3	11.3
10.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16.1	3.7	14.9	14.9
11.금융상품(저축 및 보험납입금)	124.9	26.4	115.5	115.5
11-1.저축	47.7	9.9	44.1	44.1
11-2.보험	42.7	9.6	39.5	39.5
11-3.원금상환	18.5	3.7	17.1	17.1
11-4.이자상환	15.3	3.1	14.2	14.2
12.이전지출	12.4	2.5	11.5	11.5
13.기타상품및서비스	6.6	1.4	6.1	6.1

주: 1) 본 연구에서는 가구 지출 비목 중 1,2,3,4,5,6,7,8,9,10,11-2,13 항목의 합산값만을 “가구 생활비”로 정의하였음. 이에 ‘가구생활비 지출 총액’에는 11-1(저축), 11-3(원금상환), 11-4(이자상환), 12(이전지출)에 대한 지출액이 합산에서 제외됨.

2) 2022년 공표된 소비자물가지수(2020=100)을 통해 2020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다음으로 영유아 가구의 생활비 지출 관련 주요 지수를 살펴보았다. 먼저 가구생활비 총액 중 식비의 비중을 의미하는 ‘엔젤지수’를 살펴보면 5차년도(2022년)에는 28.0으로 3, 4차년도 보다는 낮지만 1, 2차년도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

다. 가구생활비 총액 중 주거비 비중을 의미하는 '슈바베지수'는 5차년도에 8.3으로 1차년도 이후 4차년도까지 감소하다가 5차년도부터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생활비 지출 총액 중 양육비의 비중을 의미하는 '엔젤지수'는 5차년도에 26.9로 4차년도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는 1차년도(2018년)에 29.1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1-4〉 생활비 관련 주요 지수 현황 (2018~2022년, 영유아 가구표본)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엔젤지수	26.5	26.1	30.0	28.4	28.0
슈바베지수	8.7	8.4	8.5	8.1	8.3
엔젤지수	29.1	26.5	26.7	27.2	26.9

주: 1) 엔젤지수는 각 가구별로 (식비/ 가구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2) 슈바베지수는 각 가구별로 (주거비/ 가구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3) 엔젤지수는 각 가구별로 (영유아 양육비용 총액/ 가구 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이러한 생활비 지출 비목 관련 주요 지수들을 가구특성별로 살펴보면, 식비 비중을 의미하는 엔젤지수는 외별이 가구가 맞벌이 가구보다 높고, 주거비 비중을 의미하는 슈바베지수도 외별이 가구가 맞벌이 가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양육비 비중을 의미하는 엔젤지수도 외별이 가구가 맞벌이 가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라 살펴보면 엔젤지수와 슈바베지수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낮은 경향을 뚜렷하게 보이며, 엔젤지수는 소득계층에 따른 어떤 경향성을 찾을 수 없었다. 이는 엔젤지수 산출이 영유아 양육비용, 자녀 중 영유아에게 투입된 비용만을 기준으로 산출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최효미 외, 2021:115).⁴⁹⁾

한편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일반적으로 외별이 가구가 맞벌이 가구에 비해 소득의 제약으로 필수적이며 고정적인 지출에 해당하는 식비, 주거비의 부담이 큼을 알 수 있으며, 이때문에 맞벌이 가구에 비해 기타 추가적인 소비지출의 여력이 제약될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49) 이는 일반적으로 자녀 양육비 중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사교육비' 지출이 영유아기에는 비교적 지출금액 수준이 적고 소득 계층간 격차가 작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다.

〈표 IV-1-5〉 가구특성별 생활비 관련 주요 지수 현황 (2022년, 영유아 가구표본)

구분		엔젤지수	슈바베지수	엔젤지수
전체		28.0	8.3	26.9
맞벌이가구 여부	맞벌이	26.8	7.9	26.5
	외벌이	28.9	8.6	27.2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30.1	10.9	27.7
	300~399만원 이하	29.0	9.1	26.3
	400~499만원 이하	27.9	8.3	27.4
	500~599만원 이하	27.7	7.3	27.4
	600만원 이상	26.2	7.0	26.6

주: 1) 엔젤지수는 각 가구별로 (식비/ 가구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2) 슈바베지수는 각 가구별로 (주거비/ 가구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3) 엔젤지수는 각 가구별로 (영유아 양육비용 총액/ 가구 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2. 육아 가구 양육비용 실태

가. 가구당 총 양육비용⁵⁰⁾

영유아 가구의 총 양육비용은 5차년도(2022년) 기준 월평균 127만3천원으로 나타났다. 4차년도(2021년)의 127만6천원보다는 다소 낮지만 본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거의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양육비 지출의 전반적인 추세는 증가추세였으나 3차년도(2020년)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다소 감소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5차년도 영유아 가구의 총 양육비는 1차년도의 116만6천원 대비 약 9.2%에 해당하는 총 10만7천원이 증가하였다.

5차년도 기준 비목별로 살펴보면, 교육/보육비가 33만4천원으로 양육비용 중 가장 많이 지출되는 비목이었고, 이외 식비 29만9천원, 여가문화생활비 18만7천원으로 양육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목으로 나타났다. 양육비용 중 교육/보육비가 가장 큰 지출 비목으로 나타나나, 실질비용으로 환산한 금액 수준은 3차년도를 제외하면 본 소비실태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이는 다른 비목에 비해 교육/보육 관련 서비스 이용이 코로나19로 감소한 후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지는 않았거나, 또는 다른 비목의 물가 상승에 비해 그간 교육/보육비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총 양육비용

50) '총 양육비용'은 본 조사의 표본인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모든 자녀(초등학생 이상 자녀까지 포함)를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을 의미함. 영유아 가구의 '영유아' 자녀 양육비만을 의미하는 '영유아 양육비'와 차이가 있음.

중 여가문화생활비는 5차년도(2022년)에 특히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즉, 여가문화생활비 비목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가족여행 축소, 체험학습의 축소 영향으로 3차년도(2020년)에 관련 양육비용 지출액이 대폭 감소하였으나 4차년도부터는 코로나19의 지속 중에도 점차 일상회복을 하며 가족여행, 체험학습 등의 외부활동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

주요 비목의 양육비용 지출 경향은 3차년도(2020년)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교육/보육비의 지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식비가 증가하여 양육비 지출비목 순위가 변경되었으나, 그 외에는 1차년도 이후 동일한 경향을 지속하고 있다.

〈표 IV-2-1〉 비목별 월평균 총 양육비용 변화 (2018~2022년, 실질비용) : 영유아 가구

단위: (가구), 만원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총계 (사례수)	116.6 (1,648)	124.5 (1,665)	118.0 (1,679)	127.6 (1,708)	127.3 (1,730)
1.식비(외식비포함)	24.7	26.5	31.4	29.7	29.9
1-1.외식비	5.9	6.4	7.3	6.9	7.8
3.기기/집기	2.9	3.3	4.3	5.3	5.2
4.피복비(의류및신발)	9.4	9.9	10.6	11.2	11.8
5.보건/의료비	4.4	5.3	6.5	6.8	7.3
6.교육/보육비	39.7	42.2	29.0	37.9	33.4
7.여가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19.4	18.3	15.0	16.2	18.7
7-1.가족여행 등	9.0	8.8	5.3	6.5	8.5
7-2.관람 체험학습	2.4	2.2	0.8	1.0	2.1
7-3.완구	3.8	3.7	4.5	4.6	4.3
7-4.도서구매	4.3	3.6	4.6	4.1	3.8
8.교통비	0.6	0.8	1.0	0.7	1.0
9.통신비	0.5	0.6	0.9	0.7	0.7
9-1.휴대전화비	0.4	0.5	0.7	0.6	0.6
10.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5.3	5.8	6.6	6.7	7.0
11-2.보험	9.5	11.8	12.6	12.5	12.2

주: 1) 총 양육비용은 가구 내 모든 자녀에게 소요된 양육비용을 의미함.

2) 2022년 공표된 소비자물가지수(2020=100)을 통해 2020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로 본 표에 제시된 1~4차년도 결과는 소비자물가지수(2015=100)을 통해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하여 제시되었던 1~4차년도 소비실태조사 보고서 결과와 차이가 있음.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한편 가구 특성별 영유아 가구의 총 양육비용을 살펴보면, 5차년도(2022년 기준) 맞벌이 가구는 139만9천원, 외벌이 가구는 117만2천원을 지출하여 맞벌이 가

구가 외별이 가구 대비 약 19.4%(22만7천원)을 더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차년도 기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양육비용 지출액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월평균 80만6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월평균 173만6천원을 양육비용으로 지출해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자녀수에 따라서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총 양육비용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 자녀수에 따른 양육비용의 차이는 1차년도(2018년) 조사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향이다.

〈표 IV-2-2〉 가구 특성별 총 양육비용 변화 (2018~2022년, 실질비용, 영유아 가구)

단위: (가구), 만원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전체 (사례수)		116.6 (1,648)	124.5 (1,665)	118.0 (1,679)	127.6 (1,708)	127.3 (1,730)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26.5	133.1	128.9	140.1	139.9
	외벌이	108.1	117.7	109.5	118.6	117.2
	<i>t</i>	5.5***	4.4***	6.0***	5.8***	6.0***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75.3	86.9	87.7	88.1	80.6
	300~399만원	95.2	99.2	91.5	104.1	100.9
	400~499만원	114.8	122.3	103.5	116.6	123.1
	500~599만원	136.0	136.3	126.6	138.6	142.0
	600만원 이상	158.7	164.0	150.4	171.0	173.6
	<i>F</i>	82.4***	58.5***	56.3***	59.0***	73.1***
총 자녀수	1명	84.4	83.7	75.3	77.7	76.0
	2명	127.2	135.3	128.8	140.1	140.6
	3명이상	178.3	183.0	173.1	192.8	199.6
	<i>F</i>	198.6***	221.0***	273.0***	294.6***	340.6***

주: 2022년 공표된 소비자물가지수(2020=100)을 통해 2020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로 본 표에 제시된 1~4차년도 결과는 소비자물가지수(2015=100)을 통해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하여 제시되었던 1~4차년도 소비실태 조사 보고서 결과와 차이가 있음.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 $p < .001$.

가구소득 대비 총 양육비용의 비중은 5차년도는 27.0%로 4차년도 28.0%에 비해 하락하였다. 1차년도 27.3%에서 증가하다가 3차년도(2020년)에 24.2%로 하락하였으나 4차년도에 1, 2차년도 이상으로 회복된 바 있으나, 5차년도에는 다시 다소 하락하였다.

한편, 가구 특성별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용 비중의 차이를 살펴보면, 맞벌이 가

구는 양육비용이 가구소득의 25.6%에 해당하는 반면 외벌이 가구는 28.1%로 외벌이 가구가 맞벌이 가구 보다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용의 부담이 큰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가구소득은 증가할수록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용의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5차년도(2022년) 기준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양육비용이 가구소득의 36.5%에 달하였으나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에서는 22.3%로 큰 차이를 보였다. 다만 299만원 이하 가구의 가구소득 중 양육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4차년도의 52.9%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이다. 5차년도(2022년) 조사 결과에서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의 가구에서 지출한 총 양육비용이 80만6천원으로 1차년도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용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5차년도(2022년) 기준 자녀가 1명인 경우 양육비용이 가구소득의 17.6%에 해당하였으나, 2자녀인 경우 29.5%, 3자녀 이상인 경우 40.0%에 달하였다. 외벌이 가구, 저소득 가구, 다자녀 가구가 양육비용 부담이 큰 양상은 1~5차년도 조사에 걸쳐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다.

〈표 IV-2-3〉 가구소득 대비 총 양육비용 비중 변화 (2018~2022년, 실질비용, 영유아 가구)

단위: %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전체		27.3	27.9	24.2	28.0	27.0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24.4	24.9	22.5	25.2	25.6
	외벌이	29.9	30.4	25.4	29.9	28.1
	<i>t</i>	-4.3***	-3.3***	-3.3***	-2.5*	-2.9**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39.2	48.8	49.2	52.9	36.5
	300~399만원	28.2	28.8	25.5	30.1	28.4
	400~499만원	26.6	27.8	23.1	26.2	27.1
	500~599만원	25.7	25.4	23.2	25.3	25.8
	600만원 이상	20.6	21.7	19.9	22.3	22.3
	<i>F</i>	18.6***	16.3***	65.1***	15.6***	17.9***
총 자녀수	1명	19.6	18.8	17.0	18.6	17.6
	2명	30.2	30.7	25.6	28.8	29.5
	3명이상	40.5	40.0	34.7	45.5	40.0
	<i>F</i>	62.7***	39.9***	102.9***	42.9***	181.6***

주: 1) 가구별로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용 비중을 산출하여 평균한 값.

2) 총 양육비용은 영유아가 아닌 자녀의 양육비용도 합산된 금액, 영유아 자녀 양육비용은 가구내 모든 영유아 자녀의 양육비용을 합산한 금액,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은 아동당 비용을 기준으로 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 $p < .05$, ** $p < .01$, *** $p < .001$.

가구 생활비 대비 총 양육비용 비중을 살펴보면, 5차년도 기준 자녀 양육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이 영유아 가구의 생활비 중 36.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비중은 2, 4, 5차년도가 거의 유사하였으며 1차년도와 3차년도 결과에서 다소 낮게 나타났다. 한편, 가구 생활비 중 자녀양육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목별로 살펴보면, 총 생활비 중 자녀 양육비용으로 지출된 비중이 가장 큰 비목은 교육/보육비로 91.8%에 달하였으며, 다음으로 여가및문화생활비의 63.7%, 보건/의료비의 61.8%, 피복비의 59.9%, 기기/집기의 51.1% 등이 총 가구생활비의 50% 이상을 자녀를 위해 지출하는 비목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보육비(91.8%)와 여가및문화생활비 중 완구(98.7%), 도서구매(95.1%)의 지출은 대부분 자녀를 위한 지출이었다(최효미 외, 2021: 122). 비목별 가구 생활비 대비 총 양육비용 비중의 경향은 1~5차년도에 걸쳐 유사하게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2-4〉 비목별 가구 생활비 대비 총 양육비용 비중 (2018~2022년, 실질비용, 영유아 가구)

단위: %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총계	35.8	36.6	35.5	36.6	36.5
1.식비(외식비포함)	30.7	32.4	33.2	32.6	33.3
3.기기/집기	50.4	44.0	43.7	43.7	51.1
4.피복비(의류및신발)	54.1	56.4	58.3	59.4	59.9
5.보건/의료비	71.5	68.1	61.9	59.7	61.8
6.교육/보육비	96.6	96.5	96.1	97.4	91.8
7.여가및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62.9	62.0	69.7	68.4	63.7
7-1.가족여행 등	45.7	46.7	47.5	45.6	45.4
7-2.관람 체험학습	61.8	56.3	58.8	61.4	66.1
7-3.완구	95.0	91.0	94.7	97.5	98.7
7-4.도서구매	92.4	85.4	90.6	94.3	95.1
8.교통비	3.0	3.2	4.2	3.1	4.4
9.통신비	2.5	3.1	4.4	3.8	4.0
9-1.휴대전화비	3.1	3.7	5.1	4.6	4.6
10.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42.5	43.7	44.5	46.0	47.9
11-2.보험	30.4	31.2	32.6	31.9	33.5

주: 총 양육비용은 영유아가 아닌 자녀의 양육비용도 합산된 금액으로, 생활비 대비 비율은 각 가구별로 “(총양육비용/가구 총소비지출)*100”로 변수를 생성한 후에 이 비중을 평균한 값. (예: 식비 총양육비용 비율 =(전체 자녀에게 들어간 식비/가구 전체 식비지출)*100).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나. 영유아 양육비용

영유아 가구의 모든 자녀가 아닌, 취학전 영유아에게 소요된 비용만을 한정하여 ‘영유아 양육비용’은 5차년도(2022년) 기준 가구 당 90만2천원에 해당하였다. 이는 4차년도(2021년)의 92만2천원 보다 다소 감소한 수치로 5차년도(2022년) 영유아 양육비용이 감소한 것은 ‘교육/보육비’ 지출이 20만원으로 4차년도(2021년)의 24만원에 비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외에도 4차년도(2021년) 대비 ‘가족여행’이나 ‘체험학습’ 등 바깥 활동에 지출된 여가및문화생활비 세부비목의 지출 비용은 증가했으나 ‘완구’, ‘도서구매’ 등 실내 활동을 위한 세부비목은 다소 감소하였고 보험료 지출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유아 양육비용 지출은 3차년도(2020년)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교육/보육비의 지출이 대폭 감소하면서 총 지출액이 크게 감소한 바 있고,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초기를 지나 점차 적응되어 가는 4차년도(2021년) 부터는 교육/보육비 지출의 회복으로 인해 영유아 양육비용 지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5차년도(2022년)에는 다시 다소 감소하였다.

〈표 IV-2-5〉 비목별 영유아 양육비용 변화 (2018~2022년, 실질비용)

단위: (가구), 만원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총계 (사례수)	93.0 (1,648)	93.1 (1,665)	86.5 (1,679)	92.2 (1,708)	90.2 (1,730)
1.식비(외식비포함)	19.4	19.8	23.2	22.0	22.1
1-1.외식비	4.6	4.6	5.3	5.0	5.4
3.기기/집기	2.5	2.6	3.3	3.4	3.4
4.피복비(의류및신발)	7.4	7.6	8.2	8.6	8.7
5.보건/의료비	3.9	4.5	5.2	5.5	5.8
6.교육/보육비	31.1	29.7	18.2	24.0	20.0
7.여가및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16.0	14.4	11.9	12.8	14.5
7-1.가족여행 등	7.3	6.9	4.1	5.1	6.6
7-2.관람 체험학습	1.9	1.6	0.6	0.7	1.4
7-3.완구	3.4	3.2	3.8	4.0	3.7
7-4.도서구매	3.5	2.7	3.4	3.0	2.8
8.교통비	0.3	0.5	0.7	0.5	0.7
9.통신비	0.1	0.1	0.2	0.0	0.1
9-1.휴대전화비	0.0	0.0	0.1	0.0	0.0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10.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4.5	4.9	5.7	5.7	5.9
11-2.보험	7.8	9.1	9.8	9.6	9.2

주: 1) 영유아 양육비용은 가구 내 모든 영유아 자녀에게 소요된 양육비용을 의미함. 즉, 초등학교 이상의 자녀에게 소요된 양육비용은 제외된 비용임.

2) 2022년 공표된 소비자물가지수(2020=100)을 통해 2020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로 본 표에 제시된 1~4차년도 결과는 소비자물가지수(2015=100)을 통해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하여 제시되었던 1~4차년도 소비실태조사 보고서 결과와 차이가 있음.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다음으로 가구특성별 영유아 양육비용의 지출 양상을 살펴보면, 5차년도(2022년) 기준 외벌이 가구는 영유아 양육비용으로 85만6천원, 맞벌이 가구는 96만원을 지출하여 맞벌이 가구가 영유아 양육비용을 더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총 자녀수가 많을수록 영유아 양육비용을 더 많이 지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총 양육비용과 동일한 경향이다.

1~5차년도 조사 결과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맞벌이 가구의 영유아 양육비용 지출은 4차년도 보다 감소하여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양육비용이 크게 감소했던 3차년도(2020년) 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며 1, 2차년도의 영유아 양육비용 지출액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외벌이 가구의 경우 3차년도에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유사한 영유아 양육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5차년도(2022년)에는 400~599만원 이하 소득의 가구에서는 4차년도(2021년) 대비 영유아 양육비용이 증가하였으나 그 외의 소득계층에서는 오히려 영유아 양육비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차년도의 조사 결과로부터 가구소득 수준별 영유아 양육비용의 증감은 매년 다른 경향을 보였는바, 이는 소비실태조사의 표본가구의 특성에서 발생하는 차이일 수도 있고, 이외에도 매년 발생하는 양육비용과 관련된 특정한 상황이나 정책의 변화 등이 가구소득별로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표 IV-2-6〉 가구 특성별 영유아 양육비용 변화 (2018~2022년, 실질비용)

단위: (가구), 만원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전체 (사례수)		93.0 (1,648)	93.1 (1,665)	86.5 (1,679)	92.2 (1,708)	90.2 (1,730)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02.0	100.2	93.8	100.4	96.0
	외벌이	85.2	87.4	80.8	86.2	85.6
<i>t</i>		5.9***	4.3***	5.0***	4.7***	3.6***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62.9	70.4	67.3	71.3	67.3
	300~399만원	78.9	76.3	69.9	79.7	75.4
	400~499만원	87.6	92.6	77.3	81.9	88.5
	500~599만원	109.5	99.0	92.0	96.8	101.0
	600만원 이상	124.6	118.9	106.9	122.0	112.2
	<i>F</i>	59.6***	32.6***	32.8***	36.4***	30.6***
총 자녀수	1명	84.4	83.7	75.3	77.7	76.0
	2명	98.5	98.4	92.9	98.5	97.0
	3명이상	98.2	95.4	88.4	101.1	99.1
	<i>F</i>	11.6***	10.6***	18.6***	23.2***	26.3***

주: 1) 영유아 양육비용은 가구 내 모든 영유아 자녀에게 소요된 양육비용을 의미함. 즉, 초등학교 이상의 자녀에게 소요된 양육비용은 제외된 비용임.
 2) 2022년 공표된 소비자물가지수(2020=100)을 통해 2020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로 본 표에 제시된 1~4차년도 결과는 소비자물가지수(2015=100)을 통해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하여 제시되었던 1~4차년도 소비실태조사 보고서 결과와 차이가 있음.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 $p < .001$.

가구소득 대비 영유아 양육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5차년도 기준 가구소득의 1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년도인 4차년도(2021년)의 조사의 20.1%보다 다소 하락하였으며, 3차년도(2020년)을 제외한 조사 차수 중 가장 낮은 비중에 해당한다. 가구특성별로는 맞벌이 가구보다 외벌이 가구의 가구소득 중 영유아 양육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소득 중 영유아 양육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5차년도(2022년)의 경우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가구의 가구소득 대비 영유아 양육비용의 비중은 1~5차년도 중 가장 낮아, 2022년도는 저소득 가구의 영유아 양육비용의 부담은 다소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겠다. 5차년도(2022년)의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가구의 영유아 양육비용 금액 자체의 하락도 있으나(67만3천원), 실질비용이 더 낮았던 1차년도(2018년) 결과(62만9천원)를 고려시, 5차년도(2022년)에는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에 속한 가구의 평균 소득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측

된다.

한편, 자녀수별로는 한 명의 자녀를 둔 경우 보다 2명,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에서 영유아 양육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2-7〉 가구소득 대비 영유아 양육비용 비중 변화 (2018~2022년, 실질비용)

단위: %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전체		22.1	20.9	17.9	20.1	19.7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9.6	18.8	16.8	18.3	18.2
	외벌이	24.2	22.7	18.9	21.4	20.9
	<i>t</i>	-3.7***	-3.9***	-3.0**	-3.4***	-3.5***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33.4	37.3	38.1	36.8	30.9
	300~399만원	23.3	22.1	19.5	23.0	21.4
	400~499만원	20.2	21.0	17.4	18.5	19.5
	500~599만원	20.6	18.4	16.9	17.8	18.3
	600만원 이상	16.2	15.6	14.2	15.8	14.4
	<i>F</i>	17.9***	30.5***	66.5***	35.1***	30.1***
총 자녀수	1명	19.6	18.8	17.0	18.6	17.6
	2명	23.8	22.1	18.5	20.4	20.8
	3명이상	22.9	21.9	17.9	22.1	20.8
	<i>F</i>	5.1**	4.9**	1.8	3.2*	7.4***

주: 1) 가구별로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용 비중을 산출하여 평균한 값.

2) 영유아 양육비용은 가구 내 모든 영유아 자녀에게 소요된 양육비용을 의미함. 즉, 초등학교 이상의 자녀에게 소요된 양육비용은 제외된 비용임.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 $p < .05$, ** $p < .01$, *** $p < .001$.

마지막으로 가구의 생활비 대비 영유아 양육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았다. 5차년도(2022년)에 전체 가구 생활비 중 영유아 양육비용의 비중이 가장 큰 비목은 교육/보육비로 전체 교육/보육비 지출 중 64.4%가 영유아에게 지출된 비용으로 나타났다. 교육/보육비는 영유아용 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목이나 1차년도(2018년)~4차년도(2021년) 조사 결과와 비교시 5차년도(2022년)의 교육/보육비 지출 중 영유아 교육/보육비로 지출된 비중은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하여, 코로나19로 영유아의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이 크게 위축되었던 3차년도(2020년) 결과(67.7%) 보다도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다음으로 영유아를 위한 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목은 5차년도(2022년)에는 '여가및문화생활비'로 총 생활비 지출 중 영유아용 지출이 50.5%에 달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3

차년도(2020년), 4차년도(2021년)에도 동일하였으나, 1차년도(2018년), 2차년도(2019년)에는 ‘보건/의료비’비목에서 영유아용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교육/보육비 다음을 차지하여 차이를 보였다.

〈표 IV-2-8〉 비목별 가구 생활비 대비 영유아 양육비용 비중 (2018~2022년, 실질비용, 영유아 가구)

단위: %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총계	29.1	27.9	26.7	27.2	26.9
1.식비(외식비포함)	24.6	24.8	25.2	24.6	25.0
3.기기/집기	43.3	34.6	35.6	32.4	39.0
4.피복비(의류및신발)	43.9	43.8	45.7	46.0	46.0
5.보건/의료비	63.4	56.9	50.9	48.4	49.8
6.교육/보육비	79.1	74.1	67.7	70.6	64.4
7.여가및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52.8	48.9	55.9	55.2	50.5
7-1.가족여행 등	37.4	37.5	37.9	36.1	35.7
7-2.관람 체험학습	49.2	40.6	42.9	43.9	50.0
7-3.완구	86.9	78.9	81.6	85.7	86.3
7-4.도서구매	75.3	63.7	68.3	69.4	70.9
8.교통비	1.6	2.0	2.8	2.1	3.1
9.통신비	0.3	0.4	0.9	0.3	0.4
9-1.휴대전화비	0.3	0.4	0.8	0.1	0.3
10.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35.7	36.1	37.2	38.0	39.5
11-2.보험	25.2	24.3	25.8	24.9	26.0

주: 영유아 양육비용은 가구 내 모든 영유아 자녀의 양육을 위해 소요된 비용(즉,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에게 소요된 양육비용은 제외된 비용임)으로 총 양육비용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다.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앞서 표본가구의 전체 영유아에게 지출되는 양육비용을 살펴보았는바, 여기서는 표본가구의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을 산출하여 살펴보았다.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은 5차년도 기준 65만2천원으로 4차년도(2021년)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3차년도(2020년)의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인 61만3천원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1차(2018년), 2차년도(2019년) 보다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자녀의 연령별로는 영아 1인 보다는 유아 1인에 대한 양육비용이 높고, 자녀 연령이 높아질수록 양육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녀 연령별 1인당 영유아

양육비용의 경향은 1~5차의 조사 결과에서 일관되게 발견되는 경향이다.

〈표 IV-2-9〉 자녀 연령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변화 (2018~2022년, 월평균, 실질비용)

단위: 만원, (명)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전체	66.7 (2,298)	66.4 (2,334)	61.3 (2,368)	65.5 (2,403)	65.2 (2,395)
연령 ^{주3)}					
0세	54.2 (128)	54.0 (161)	53.3 (158)	51.6 (161)	58.9 (156)
1세	51.7 (267)	54.0 (298)	54.1 (321)	55.4 (316)	55.2 (321)
2세	57.9 (299)	58.9 (296)	53.6 (331)	59.8 (354)	55.5 (335)
3세	60.4 (360)	59.5 (337)	59.6 (333)	61.7 (367)	62.8 (396)
4세	71.3 (372)	67.8 (411)	61.5 (379)	68.6 (363)	67.7 (379)
5세	75.2 (407)	72.7 (408)	66.3 (424)	70.1 (404)	75.1 (392)
6세	78.1 (465)	83.2 (423)	72.2 (422)	78.9 (438)	73.6 (416)
F	22.3***	24.2***	15.2***	18.5***	16.8***

주: 1) 가구조사 자료를 아동단위로 자료화하여 분석한 것임.

2) 2022년 공표된 소비자물가지수(2020=100)을 통해 2020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로 본 표에 제시된 1~4차년도 결과는 소비자물가지수(2015=100)을 통해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하여 제시되었던 1~4차년도 소비실태조사 보고서 결과와 차이가 있음.

3) 연령은 생활연령을 의미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 $p < .001$.

생활비에 대비한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비중은 5차년도(2022년) 기준 19.4%로 4차년도(2021년)의 19.3%와 거의 동일한 수준을 보였으며, 3차년도보다는 높지만 1차년도(2018년), 2차년도(2019년)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었다. 한편 자녀 연령별로는 1세~5세까지는 자녀 연령이 증가할수록 생활비 중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영아기보다는 유아기의 양육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영아기 내에서는 0세 1인당 양육비용이 1~2세 보다는 생활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4차년도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0세아 1인당 양육비용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 신생아 용품 등 0세아의 양육과 관련된 물품과 서비스의 물가가 5차년도에 상대적으로 더 변동이 있었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5차년도(2022년)에 생활비 대비 연령별 1인당 양육비용의 비중이 가장 낮은 1세 1인당 양육비용은 가구 생활비의 17.9%에 해당하였고, 비중이 가장 큰 5세 1인당 양육비용은 가구 생활비의 20.9%에 해당해 3%p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 성장하면서 자녀에게 소요되는 양육비가

더욱 증가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는 즉, 자녀가 성장할수록 양육비 증가로 인해 생활비 지출이 더욱 증가해 가구의 자산을 축적할 저축 여력이 감소하거나, 생활비 지출 수준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가구는 성인 가구원을 위한 기타 소비 지출을 줄이게 될 것이므로, 경제의 전반적인 활력을 떨어뜨리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증가하는 양육비의 부담을 적절한 수준으로 경감하는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IV-2-10〉 생활비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비중 변화 (2018~2022년, 실질비용)

단위: %, (명)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전체	20.8 (2,298)	19.9 (2,334)	18.9 (2,368)	19.3 (2,403)	19.4 (2,395)
연령					
0세	18.1 (128)	16.7 (161)	17.9 (158)	16.8 (161)	18.4 (156)
1세	17.9 (267)	17.4 (298)	17.7 (321)	17.4 (316)	17.9 (321)
2세	19.4 (299)	18.4 (296)	17.4 (331)	18.4 (354)	18.2 (335)
3세	19.9 (360)	18.4 (337)	18.1 (333)	18.5 (367)	19.0 (396)
4세	21.4 (372)	20.7 (411)	19.1 (379)	19.6 (363)	20.0 (379)
5세	22.8 (407)	21.3 (408)	20.2 (424)	20.2 (404)	20.9 (392)
6세	22.8 (465)	23.1 (423)	20.8 (422)	21.9 (438)	20.6 (416)
F	17.6***	23.9***	9.2***	14.7***	8.0***

주: 가구조사 자료를 아동단위로 자료화하여 분석한 것임.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 $p < .001$.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을 비목별로 살펴본 결과, 5차년도(2022년)에는 '식비'의 지출액이 15만9천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교육/보육비가 14만4천원, 여가 및 문화생활비 10만5천원, 보험료 6만7천원, 피복비 6만3천원 등이 주로 많이 지출되는 비목이었다.

5차년도(2022년) 조사 결과가 1~4차년도(2018년~2021년) 조사 결과와 차이가 나는 점은 1인당 양육비용에서 '교육/보육비'의 지출액이 가장 큰 1~4차년도 조사 결과와는 달리 5차년도 조사에서는 '식비'가 지출액이 가장 큰 비목으로 나타났다. 이는 5차년도 조사에서 나타난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비목 중 '식비'의 지출액이 클 뿐 아니라, '교육/보육비' 지출액이 3차년도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표 IV-2-11〉 비목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변화 (2018~2022년, 실질비용)

단위: (명), 만원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총계 (사례수)	66.7 (2,298)	66.4 (2,334)	61.3 (2,368)	65.5 (2,403)	65.2 (2,395)
1.식비(외식비포함)	13.9	14.1	16.4	15.6	15.9
1-1.외식비	3.3	3.3	3.8	3.5	3.9
3.기기/집기	1.8	1.9	2.4	2.4	2.4
4.파복비(의류및신발)	5.3	5.4	5.8	6.1	6.3
5.보건/의료비	2.8	3.2	3.7	3.9	4.2
6.교육/보육비	22.3	21.2	12.9	17.1	14.4
7.여가 및 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11.5	10.3	8.4	9.1	10.5
7-1.가족여행 등	5.2	4.9	2.9	3.6	4.7
7-2.관람 체험학습	1.3	1.1	0.4	0.5	1.0
7-3.완구	2.4	2.3	2.7	2.8	2.7
7-4.도서구매	2.5	2.0	2.4	2.2	2.0
8.교통비	0.2	0.3	0.5	0.3	0.5
9.통신비	0.0	0.0	0.1	0.0	0.1
9-1.휴대전화비	0.0	0.0	0.1	0.0	0.0
10.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3.2	3.5	4.1	4.1	4.2
11-2.보험	5.6	6.5	7.0	6.9	6.7

주: 1) 가구조사 자료를 아동단위로 자료화하여 분석한 것임.

2) 2022년 공표된 소비자물가지수(2020=100)을 통해 2020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로 본 표에 제시된 1~4차년도 결과는 소비자물가지수(2015=100)을 통해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하여 제시되었던 1~4차년도 소비실태조사 보고서 결과와 차이가 있음.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을 가구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IV-2-12〉와 같다. 우선 5차년도(2022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맞벌이 가구에서의 영유아 1인당 지출한 양육비용이 71만3천원, 외벌이 가구는 60만5천원으로 맞벌이 가구의 지출이 외벌이 가구 보다 약 17.9%(10만8천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은 높을수록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지출이 높아져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영유아 1인당 월평균 50만원을 지출하고 있으나, 600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80만7천원을 지출해 299만원 이하 가구 대비 30만7천원(61.4%)을 더 지출하고 있었다.

자녀수별로 자녀수가 1명인 경우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을 가장 많이 지출하여 76만원을 지출하고 있었으나,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지출액은 감소하여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54만6천원을 1인당 양육비용으로 지

출하고 있었다.

지역규모는 클수록 1인당 자녀양육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와 외벌이 가구, 가구소득, 자녀수, 지역규모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차이의 특성은 1~5차년도 조사에서 공통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외벌이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구소득이 높고, 맞벌이 가구의 특성 상 대리 돌봄 서비스의 이용 등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으로 이해 가능하다. 또한 영유아 가구들이 가구소득을 고려해 양육비 수준을 조절할 수 있으며, 자녀수가 많으면 가용 소득을 자녀별로 분산하여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1인당 양육비 지출액을 줄이려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자녀수에 따라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비목(예: 식비)도 있을 수 있고, 자녀 간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나 품목이 있어 절감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규모는 거주하는 영유아 가구의 소득수준의 차이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자녀양육비 관련 물가가 지역규모가 클수록 높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IV-2-12〉 가구특성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변화 (2018~2022년, 실질비용)

구분		1차년도(2018년)	2차년도(2019년)	3차년도(2020년)	4차년도(2021년)	5차년도(2022년)
전체		66.7 (2,298)	66.4 (2,334)	61.3 (2,368)	65.5 (2,403)	65.2 (2,395)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75.4 (1,031)	73.9 (1,000)	68.7 (1,004)	72.8 (991)	71.3 (1,033)
	외벌이	59.6 (1,267)	60.8 (1,334)	55.9 (1,364)	60.4 (1,412)	60.5 (1,362)
		9.3***	7.6***	8.9***	7.6***	6.8***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48.7 (505)	54.6 (300)	50.9 (152)	51.1 (166)	50.0 (195)
	300~399만원 이하	57.3 (655)	55.6 (671)	53.0 (508)	57.2 (555)	55.7 (670)
	400~499만원 이하	71.9 (530)	66.6 (637)	55.0 (747)	60.3 (696)	63.0 (589)
	500~599만원 이하	74.5 (273)	73.9 (364)	66.2 (427)	67.3 (433)	71.2 (427)
	600만원 이상	97.5 (335)	88.3 (362)	77.3 (534)	83.4 (553)	80.7 (514)
		98.1***	48.6***	50.2***	44.7***	45.2***
총 자녀수	1명	84.4 (638)	83.7 (559)	75.3 (543)	77.7 (550)	76.0 (583)
	2명	62.0 (1,300)	63.5 (1,361)	60.0 (1,376)	64.7 (1,385)	64.0 (1,364)
	3명이상	52.4 (360)	52.5 (414)	48.6 (449)	53.6 (468)	54.6 (448)
		96.2***	79.1***	78.2***	48.2***	42.4***
지역 규모	대도시	72.4 (929)	70.8 (911)	61.4 (946)	68.9 (998)	67.5 (950)
	중소도시	64.2 (985)	62.6 (1,036)	60.6 (1,050)	63.6 (1,077)	64.4 (1,094)
	읍면지역	59.3 (384)	66.2 (387)	63.4 (372)	61.5 (328)	61.3 (351)
		17.4***	9.4***	0.9	6.4**	3.7*

주: 1) 가구조사 자료를 아동단위로 자료화하여 분석한 것임.

2) 2022년 공표된 소비지출지수(2020=100)를 통해 2020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로 본 표에 제시된 1~4차년도 결과는 소비지출지수(2015=100)를 통해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하여 제시되었던 1~4차년도 소비실태조사 보고서 결과와 차이가 있음.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가구특성별로 ‘가구생활비’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의 비중과 ‘가구소득’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의 비중을 살펴보았다. 5차년도(2022년)의 ‘가구생활비’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의 비중은 19.4%로 4차년도(2021년)의 19.3%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차년도(2018년) 조사 이후 3차년도(2020년)까지 매년 1%p 가량 하락하였으나 4차년도(2021년) 이후 다소 증가한 수준이다. ‘가구소득’ 대비 비중은 5차년도(2022년)에는 14.2%로 역시 4차년도(2021년)의 14.3%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가구소득’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의 비중도 1차(2018년) 조사에서 3차(2020년) 조사까지는 감소하였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양육비용 지출이 크게 감소했던 3차년도(2020년)에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4차년도(2021년)부터는 상당한 회복을 보였다.

가구특성별로 보면,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보다 가구생활비 지출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의 비중이 다소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구소득 대비로는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의 비중이 맞벌이 가구 보다 외벌이 가구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KICCE 소비실태조사의 모든 차수에서 지속되는 경향이다.

한편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가구생활비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의 비중은 비교적 유사한 수준에서 나타나고 있다. 5차년도(2022년)에는 299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19.7%이고 600만원 이상 가구에서도 19.1%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1차년도(2018년), 2차년도(2019년) 조사에서는 가구소득이 높은 가구에서 가구생활비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의 비중이 좀 더 높은 경향이 나타나기는 했으나 3차년도(2020년) 이후의 조사에서는 뚜렷한 경향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반대로 가구소득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의 비중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모든 차수의 조사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구생활비 및 가구소득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의 비중은 모두 자녀수가 많을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으며, 이는 1차년도(2018년)에서 5차년도(2022년)까지의 모든 차수에서 동일한 경향이였다.

〈표 IV-2-13〉 가구특성별 가구생활비 및 가구소득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비중 변화(2019~2022년, 실질비용)

단위: (명), %

구분	가구생활비 대비 비중					가구소득 대비 비중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총계 (사례수)	20.8 (2,298)	19.9 (2,334)	18.9 (2,368)	19.3 (2,403)	19.4 (2,395)	15.8 (2,298)	14.9 (2,334)	12.7 (2,368)	14.3 (2,403)	14.2 (2,395)
맞벌이 이 외벌이	21.7	20.6	19.5	19.9	19.7	14.5	13.9	12.3	13.3	13.5
가구 여부	20.1	19.4	18.5	18.9	19.2	16.9	15.7	13.1	15.0	14.8
<i>t</i>	4.6***	3.4***	2.7**	2.9**	1.4	-3.6***	-3.1**	-1.8	-2.9**	-3.1**
299만원 이하	20.0	21.7	21.1	20.5	19.7	23.7	28.3	29.6	26.4	22.9
300~399만원	20.4	19.3	19.5	19.8	19.2	16.5	15.7	14.3	16.5	15.8
400~499만원	21.0	19.6	18.1	19.0	19.5	15.1	14.4	12.1	13.6	13.9
500~599만원	21.0	20.3	19.3	18.7	19.3	14.1	13.5	11.8	12.4	12.9
600만원 이상	21.7	20.2	18.9	19.3	19.1	11.8	11.2	9.9	10.8	10.4
<i>F</i>	2.2	2.9*	4.3**	2.1	1.2	28.6***	48.7***	115.4***	44.8***	67.7***
1명	27.6	26.9	25.9	25.9	25.8	19.6	18.8	17.0	18.6	17.6
2명	19.2	18.9	18.1	18.8	18.7	15.0	14.2	12.0	13.4	13.7
3명이상	14.7	13.9	13.3	13.2	13.5	12.2	12.1	9.8	11.7	11.4
<i>F</i>	413.9***	372.2***	384.4***	383.4***	416.3*** ^(a)	29.2***	29.2***	72.5***	35.1***	52.4***

주: 1) 아동별로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용 비중을 산출하여 평균한 값.

2) 2022년 공표된 소비자물가지수(2020=100)을 통해 2020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인 각년도 가구소득 비중을 실질비용 기준으로 산출하였기 때문에, 2020=100 물가지수 적용에 따라 본 표에 제시된 1~4차년도 결과는 소비자물가지수(2015=100)을 통해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하여 제시되었던 1~4차년도 소비실태조사 보고서 결과와 차이가 있음.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2~4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 $p < .05$, ** $p < .01$, *** $p < .001$.

3. 공적 지원금 및 세제 혜택 수혜 실태

가. 아동수당 활용 실태

아동수당 활용처의 1+2 순위를 조사한 결과, 5차년도(2022년)에는 식비 62.7%, 개인유지비 40.0%, 교육/보육비 30.8%, 저축 등 금융상품 28.1%, 피복비 13.0%, 보건/의료비 10.8%, 여가 및 문화생활비 9.1% 순으로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활용처 순위는 4차년도(2021년)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각 항목별 응답은 약간의 증감이 있었다. 4차년도(2021년)에 비해 5차년도(2022년)에는 식비 활용 2.8%p, 피복비 활용 1.8%p, 보건/의료비 활용 3.2%p가 증가하였다. 4차년도에 비해 5차년도에는 교육/보육비 활용 1.9%p, 개인유지비 활용 1.7%p, 저축 등 금융상품 활용이 1.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1〉 아동 수당의 활용처 : 1+2순위 (2019~2022년, 영유아 가구)

단위: (가구), %

구분	2차년도(2019년)	3차년도(2020년)	4차년도(2021년)	5차년도(2022년)
총계	(1,665)	(1,679)	(1,709)	(1,730)
식비	42.1	68.7	59.9	62.7
피복비	11.2	13.3	11.2	13.0
보건/의료비	8.4	14.7	7.6	10.8
교육/보육비	37.0	20.3	32.7	30.8
여가 및 문화생활비	18.2	7.8	9.2	9.1
개인유지비	29.9	41.6	41.7	40.0
저축 등 금융상품	29.3	22.6	29.3	28.1
가기/잡기	-	-	-	0.2
기타	0.7	0.9	0.3	0.4
아동수당 받지 않음	-	-	0.5	-
무응답	23.3	10.2	0.1	-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2) 최효미 외(2021). p. 133.〈표 IV-3-1〉 결과

아동수당의 주요 활용처 비목인 식비, 교육보육비, 개인유지비에 대한 지출이 가구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에 비해 식비와 개인 유지비에 사용했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교육보육비는 외벌이 가구가 맞벌이 가구에 비해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소득 구간마다 약간의 증감 추세가 있지만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식비와 개인 유지비

에 사용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교육보육비에 사용하는 비중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총 자녀수에 따라서는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아동수당을 식비에 사용했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표 IV-3-2〉 가구특성별 아동수당 활용처 : 1+2순위, 주요 비목 (2019~2022년, 영유아 가구)

단위: %

구분		2차년도(2019년)			3차년도(2020년)			4차년도(2021년)			5차년도(2022년)		
		식비	교육 보육비	개인 유지비	식비	교육 보육비	개인 유지비	식비	교육 보육비	개인 유지비	식비	교육 보육비	개인 유지비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40.9	38.4	29.0	58.4	22.9	39.9	56.1	34.9	38.1	62.7	30.8	40.0
	외벌이	43.0	35.9	30.5	72.0	18.3	43.0	62.6	31.0	44.4	60.2	35.5	38.6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48.1	36.8	28.0	75.4	16.1	46.6	72.5	29.0	45.5	64.7	27.1	41.1
	300~399만원	43.4	32.7	33.3	71.0	17.2	42.8	61.6	30.0	44.7	74.5	23.4	44.8
	400~499만원	43.0	39.3	28.0	66.4	18.9	39.6	58.0	32.8	40.6	62.4	25.7	45.1
	500~599만원	40.3	37.7	36.9	69.3	20.3	42.9	57.0	34.5	40.3	64.4	35.3	36.0
	600만원 이상	34.5	40.4	20.8	66.9	26.5	40.7	54.1	37.3	37.3	62.8	31.2	38.5
총 재녀수	1명	39.0	28.1	36.0	65.0	13.4	50.1	54.1	23.4	49.9	56.5	35.1	37.0
	2명	42.5	40.9	28.1	69.4	24.3	36.8	60.4	37.9	38.0	58.7	22.3	49.1
	3명이상	48.3	43.9	21.5	74.1	21.1	40.5	70.6	33.9	37.1	63.1	34.9	36.8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2) 최호미 외(2021), p. 134.〈표 IV-3-2〉 결과.

아동수당이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5차년도 기준 평균 3.4점으로 나타나 ‘보통 이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수당 지원이 양육비용의 부담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는 3차년도에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그 이후에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표 IV-3-3〉 아동수당 지원이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을 준 정도 (2019~2022년, 영유아 가구)

단위: %, 점, (가구)

구분	도움 정도(빈도)						평균 점수	계
	전혀 도움 안됨	별로 도움 안됨	보통	약간 도움됨	매우 도움됨	아동수당 받지않음		
2차년도 (2019년)	2.2	13.2	29.6	31.5	17.2	6.4	3.5	100.0 (1,665)
3차년도 (2020년)	0.6	8.0	22.9	43.2	25.2	0.1	3.8	100.0 (1,679)
4차년도 (2021년)	1.3	10.8	29.8	40.6	17.4	0.1	3.6	100.0 (1,709)
5차년도 (2022년)	1.8	14.9	34.2	35.4	13.8	-	3.4	100.0 (1,730)

주: 5점 척도로, 매우 도움됨이 5점임.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2) 최효미 외(2021). p. 134.〈표 IV-3-3〉 결과

나. 가정양육수당(영아수당) 활용 실태

가정양육수당(영아수당)의 활용처를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식비(47.5%)로 활용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개인유지비 21.7%, 저축 등 금융상품 17.6%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자녀수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자녀수에 관계없이 가정양육수당(영아수당)을 식비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개인유지비, 저축 등 금융상품 순으로 활용하였다. 하지만 그 비율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는데, 총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식비로 활용했다는 응답의 비중이 증가하여 개인유지비나 저축 등 금융상품으로 활용한다는 응답은 낮아졌다. 또한 총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가정양육수당(영아수당)을 보건/의료비와 교육/보육비로 활용한다는 응답률은 높아지고, 피복비와 여가 및 문화 생활비로 활용한다는 응답률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다.

〈표 IV-3-4〉 가정양육수당(영아수당)의 활용처: 자녀수별

단위: (가구), %

구분	전체		총 자녀수					
			1명		2명		3명이상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총계	(720)	(720)	(296)	(296)	(328)	(328)	(96)	(96)
식비	47.5	19.3	44.3	23.3	47.6	17.1	57.3	14.6
피복비	3.1	11.0	4.1	12.8	2.7	9.1	1.0	11.5
보건/의료비	3.3	7.6	2.7	5.1	3.7	8.2	4.2	13.5
교육/보육비	5.8	10.7	4.4	8.1	6.1	12.5	9.4	12.5
여가 및 문화생활비	0.7	4.9	0.7	6.4	0.9	4.0	0.0	3.1
개인유지비	21.7	34.4	22.3	35.1	22.3	34.8	17.7	31.3
저축 등 금융상품	17.6	8.3	21.3	6.4	16.5	9.1	10.4	11.5
기기/집기	0.0	0.3	0.0	0.0	0.0	0.6	0.0	0.0
기타	0.0	0.1	0.0	0.0	0.0	0.0	0.0	1.0
아동수당 받지 않음	-	-	-	-	-	-	-	-
모름/무응답	0.3	0.0	0.3	0.0	0.3	0.0	0.0	0.0

주: 가정양육수당(영아수당)을 받은 가구만을 대상을 한 결과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가구소득별로 가정양육수당(영아수당)의 활용처를 살펴본 결과, 1순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모든 가구소득구간에서 식비로 활용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 응답 비율에 있어서는 가구소득이 299만원 이하인 경우는 62.9%인 반면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39.5%로 나타나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가정양육수당(영아수당)을 식비로 활용했다는 응답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구간에서는 식비 다음으로 개인유지비와 저축 등 금융상품 순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저축 등 금융상품으로 활용했다는 응답(21.8%)이 개인유지비에 활용했다는 응답(19.3%)보다 많았다.

〈표 IV-3-5〉 가정양육수당(영아수당)의 활용처: 가구소득별

단위: (가구), %

구분	가구소득									
	299만원이하		300~399만원		400~499만원		500~599만원		600만원이상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총계	(62)	(62)	(263)	(263)	(180)	(180)	(96)	(96)	(119)	(119)
식비	62.9	21.0	46.8	22.1	48.9	19.4	46.9	14.6	39.5	16.0
피복비	4.8	12.9	1.9	13.3	2.2	6.1	2.1	17.7	6.7	6.7
보건/의료비	1.6	4.8	4.6	6.8	2.2	9.4	6.3	4.2	0.8	10.9
교육/보육비	6.5	6.5	5.3	8.0	3.3	13.9	6.3	12.5	10.1	12.6

구분	가구소득									
	299만원이하		300~399만원		400~499만원		500~599만원		600만원이상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여가 및 문화생활비	0.0	3.2	1.1	4.6	0.6	5.0	0.0	5.2	0.8	5.9
개인유지비	14.5	38.7	21.7	32.3	23.9	36.7	25.0	33.3	19.3	34.5
저축 등 금융상품	9.7	9.7	18.3	8.7	18.9	7.2	13.5	8.3	21.8	8.4
기기/집기	0.0	0.0	0.0	0.0	0.0	0.6	0.0	0.0	0.0	0.8
기타	0.0	0.0	0.0	0.4	0.0	0.0	0.0	0.0	0.0	0.0
아동수당 받지 않음	-	-	-	-	-	-	-	-	-	-
무응답	0.0	0.0	0.4	0.0	0.0	0.0	0.0	0.0	0.8	0.0

주: 가정양육수당(영아수당)을 받은 가구만을 대상을 한 결과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가구소득별로 가정양육수당(영아수당)이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을 준 정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7점이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가구소득별로 평균에 일부 차이가 있었는데, 가구소득이 300~399만원과 400~499만원인 경우에는 평균이 3.7점으로 전체 평균과 같았고, 299만원 이하와 500~599만원의 경우에는 평균 3.5점으로 도움 정도에 대해서 전체 평균 이하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평균이 3.8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높아 가정양육수당(영아수당)이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6〉 가정양육수당(영아수당) 지원이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을 준 정도: 가구소득별

단위: %, 점, (가구)

구분	도움 정도(빈도)						평균 점수	계
	전혀 도움 안됨	별로 도움 안됨	보통	약간 도움됨	매우 도움됨	모름/무응답		
전체	0.3	7.6	31.1	46.7	14.0	0.3	3.7	100.0 (720)
가구 소득	299만원이하	0.0	9.7	37.1	45.2	8.1	3.5	100.0 (62)
	300~399만원	0.0	7.2	31.2	46.0	15.2	3.7	100.0 (263)
	400~499만원	0.6	5.6	35.6	41.7	16.7	3.7	100.0 (180)
	500~599만원	1.0	11.5	31.3	47.9	8.3	3.5	100.0 (96)
	600만원 이상	0.0	7.6	21.0	55.5	15.1	3.8	100.0 (119)
	χ^2/F	20.8					2.1	

주: 1) 5점 척도로, 매우 도움됨이 5점임.
 2) 가정양육수당(영아수당)을 받은 가구만을 대상을 한 결과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가정양육수당(영아수당)이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가구생활비 지출별로 살펴본 결과 가구생활비 지출 금액이 많을수록 도움 정도를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가구생활비 지출이 199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평균이 3.8점으로 가장 높았고 가구생활비 지출이 200~299만원과 300~399만원인 경우는 평균 3.7점, 400~499만원인 경우에는 평균 3.6점이었다. 하지만 가구생활비 지출 금액에 따른 평균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IV-3-7〉 가정양육수당(영아수당) 지원이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을 준 정도: 가구 생활비 지출별
단위: %, 점, (가구)

구분		도움 정도(빈도)						평균 점수	계
		전혀 도움 안됨	별로 도움 안됨	보통	약간 도움됨	매우 도움됨	모름/ 무응답		
전체		0.3	7.6	31.1	46.7	14.0	0.3	3.7	100.0(720)
가구 생활비 지출	199만원이하	0.0	3.1	34.4	45.3	17.2	0.0	3.8	100.0(64)
	200~299만원	0.3	7.5	30.1	48.4	13.1	0.6	3.7	100.0(335)
	300~399만원	0.0	6.6	33.2	45.0	15.2	0.0	3.7	100.0(211)
	400~499만원	0.9	12.7	28.2	45.5	12.7	0.0	3.6	100.0(110)
	χ^2/F	10.3						0.9	

주: 1) 5점 척도로, 매우 도움됨이 5점임.

2) 가정양육수당(영아수당)을 받은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조사 결과임.

다. 첫만남 이용권 활용 계획

첫만남 이용권을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조사한 결과 1순위로 식비에 활용하겠다는 응답률이 40.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개인유지비 15.1%, 기기/집기 12.5%, 보건의료비 11.2% 순으로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총 자녀수에 따라서 첫만남 이용권 활용 계획에는 차이가 있었다. 자녀수에 상관없이 첫만남 이용권을 식비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동일했으나 자녀수가 1명이거나 2명인 경우에는 식비 다음으로 개인유지비, 기기/집기 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많았고,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식비 다음으로 피복비, 보건/의료비, 기기/집기 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응답(10.5%)이 많이 나타났다.

〈표 IV-3-8〉 첫만남 이용권 활용계획: 자녀수별

단위: (가구), %

구분	전체		총 자녀수					
			1명		2명		3명이상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총계	(152)	(152)	(61)	(61)	(72)	(72)	(19)	(19)
식비	40.1	14.5	31.1	8.2	45.8	19.4	47.4	15.8
피복비	7.2	17.8	6.6	19.7	6.9	19.4	10.5	5.3
보건/의료비	11.2	18.4	13.1	23.0	9.7	16.7	10.5	10.5
교육/보육비	1.3	2.0	0.0	1.6	1.4	0.0	5.3	10.5
여가 및 문화생활비	2.6	2.6	3.3	3.3	2.8	1.4	0.0	5.3
개인유지비	15.1	28.9	18.0	26.2	15.3	29.2	5.3	36.8
산후조리비	8.6	5.9	13.1	6.6	5.6	5.6	5.3	5.3
기기/집기	12.5	7.9	14.8	9.8	11.1	6.9	10.5	5.3
기타	1.3	0.0	0.0	0.0	1.4	0.0	5.3	0.0

주: 첫만남 이용권 지급 대상 가구(‘22년 출생아가 있는 가구)만을 대상을 한 결과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첫만남 이용권 활용계획을 가구소득별로 살펴본 결과,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식비로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모든 가구소득구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때,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식비로 활용하겠다는 응답률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가구소득이 299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식비로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66.7%에 달했으나, 300~399만원은 39.5%, 400~499만원은 37.8%, 500~599만원은 40.0%, 600만원 이상은 39.4%의 응답자가 식비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식비로 활용할 계획이 높게 나타난 것은 자연히 첫만남 이용권이 식비 외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낮추었는데, 가구소득이 299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식비 외에 피복비와 보건/의료비에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각각 16.7%로 나타났을 뿐 그 밖의 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응답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300~399만원, 400~499만원, 500~599만원인 경우에는 식비 다음으로 개인 유지비로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각각 18.6%, 15.6%, 16.0%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식비 다음으로 기기/집기 비용으로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18.2%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3-9〉 첫만남 이용권의 활용계획: 가구소득별

단위: (가구), %

구분	가구소득									
	299만원이하		300~399만원		400~499만원		500~599만원		600만원이상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총계	(6)	(6)	(43)	(43)	(45)	(45)	(25)	(25)	(33)	(33)
식비	66.7	16.7	39.5	9.3	37.8	15.6	40.0	20.0	39.4	15.2
피복비	16.7	33.3	11.6	20.9	4.4	20.0	8.0	16.0	3.0	9.1
보건/의료비	16.7	0.0	9.3	25.6	13.3	13.3	12.0	16.0	9.1	21.2
교육/보육비	0.0	0.0	0.0	0.0	0.0	2.2	0.0	8.0	6.1	0.0
여가 및 문화생활비	0.0	0.0	0.0	7.0	4.4	0.0	4.0	0.0	3.0	3.0
개인유지비	0.0	33.3	18.6	23.3	15.6	20.0	16.0	36.0	12.1	42.4
산후조리비	0.0	16.7	9.3	2.3	11.1	8.9	4.0	4.0	9.1	6.1
기기/집기	0.0	0.0	7.0	9.3	13.3	15.6	16.0	0.0	18.2	3.0
기타	0.0	0.0	4.7	0.0	0.0	0.0	0.0	0.0	0.0	0.0
무응답	-	-	-	-	-	-	-	-	-	-

주: 첫만남 이용권 지급 대상 가구('22년 출생아가 있는 가구)만을 대상을 한 결과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첫만남 이용권 지원이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은 5점 만점에 평균 4.3점으로 나타나 도움 정도를 비교적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구소득별로 양육비용 부담 경감 도움 인식 평균 점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일 때 평균점수가 4.5점으로 첫만남 이용권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 도움 정도를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10〉 첫만남 이용권 지원이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정도: 가구소득별

단위: %, 점, (가구)

구분	도움 정도(빈도)					평균 점수	계
	전혀 도움 안됨	별로 도움 안됨	보통	약간 도움됨	매우 도움됨		
전체	-	1.3	13.8	38.2	46.7	4.3	100.0 (152)
가구소득	299만원이하	0.0	16.7	50.0	33.3	4.2	100.0 (6)
	300~399만원	-	2.3	11.6	34.9	4.3	100.0 (43)
	400~499만원	-	2.2	17.8	37.8	4.2	100.0 (45)
	500~599만원	-	0.0	20.0	40.0	4.2	100.0 (25)
	600만원 이상	-	0.0	6.1	39.4	4.5	100.0 (33)
	χ^2/F	5.9				0.9	

주: 1) 첫만남 이용권 지급 대상 가구('22년 출생아가 있는 가구)만을 대상을 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매우 도움됨이 5점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첫만남 이용권 지원이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은 가구생활비 지출 액수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가구생활비 지출이 199만원 이하일 때 도움 인식 정도의 평균은 4.2점이었고, 400~499만원일 때 평균이 4.4점으로 나타나 가구생활비 지출 액수가 많아질수록 도움 정도를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IV-3-11〉 첫만남 이용권 지원이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정도: 가구 생활비 지출별

단위: %, 점, (가구)

구분	도움 정도(빈도)						평균 점수	계
	전혀 도움 안됨	별로 도움 안됨	보통	약간 도움됨	매우 도움됨	아동수당 받지 않음		
전체	-	1.3	13.8	38.2	46.7	-	4.3	100.0 (152)
가구 생활비 지출	199만원이하	-	0.0	21.1	36.8	42.1	-	4.2 100.0 (19)
	200~299만원	-	2.7	10.7	42.7	44.0	-	4.3 100.0 (75)
	300~399만원	-	0.0	20.0	27.5	52.5	-	4.3 100.0 (40)
	400~499만원	-	0.0	5.6	44.4	50.0	-	4.4 100.0 (18)
	χ^2/F	7.6						0.3

주: 1) 첫만남 이용권 지급 대상 가구('22년 출생아가 있는 가구)만을 대상을 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매우 도움됨이 5점임.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조사 결과임.

라. 코로나19 관련 공적 지원금 활용 실태

영유아가구의 코로나19 관련 공적 지원금 활용처는 식비와 개인유지비에 집중되어있는 경향이 있었다. 1+2순위 기준으로 볼 때 식비(85.5%)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으며 다음으로 개인유지비(49.1%)로 활용된 경우가 많았다. 그외 피복비(14.0%), 보건/의료비(13.6%), 교육/보육비(13.2%), 여가 및 문화생활비(12.3%), 저축 등 금융상품(9.1%) 순으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12〉 코로나19 관련 공적 지원금의 활용처(2022년, 영유아 가구)

단위: (가구), %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총계	(1,730)	(1,730)	(1,730)
식비	72.0	13.5	85.5
피복비	3.8	10.3	14.0
보건/의료비	2.7	11.0	13.6
교육/보육비	4.0	9.2	13.2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여가 및 문화생활비	1.9	10.4	12.3
개인유지비	9.8	39.4	49.1
저축 등 금융상품	5.2	3.9	9.1
기기/ 집기	0.3	0.1	0.5
기타	0.4	0.1	0.5
코로나19 관련 공적지원금 받지 않음	-	-	-
무응답	-	-	-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코로나19 관련 공적 지원금 활용처 1+2순위를 연도별로 비교해볼 때, 4차년도와 5차년도에 공통적으로 식비와 개인유지비에 지원금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다만 식비에 사용한 비율이 4차년도(81.4%)보다 5차년도(85.5%)에 4.1% 증가하였으며 개인유지비로 활용한 비율 역시 4차년도(45.8%)보다 5차년도(49.1%)에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차년도에 비율이 증가한 또 다른 활용처는 보건/의료비로, 4.3%가 더 많이 활용되었다. 반면, 4차년도보다 5차년도에 코로나19 관련 공적지원금이 교육/보육비로 활용된 경우는 7.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13〉 코로나19 관련 공적지원금의 활용처 : 1+2순위 (2021~2022년, 영유아 가구)

구분	단위: (가구), %	
	4차년도(2021년)	5차년도(2022년)
총계	(1,709)	(1,730)
식비	81.4	85.5
피복비	15.0	14.0
보건/의료비	9.3	13.6
교육/보육비	20.3	13.2
여가 및 문화생활비	13.0	12.3
개인유지비	45.8	49.1
저축 등 금융상품	8.4	9.1
기기/집기	-	0.5
기타	0.9	0.5
코로나19 관련 공적지원금 받지 않음	0.3	-
무응답	1.9	-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2) 최효미 외(2021). p. 135.〈표 IV-3-4〉 결과

가구특성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공적 지원금의 주요 활용처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는데,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 총 자녀수에 따른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구 특성에 관계없이 식비에 코로나19 관련 공적 지원금을 사용했다는 응답이 모

두 83% 이상으로 상당히 높았으며, 다음으로 개인유지비, 교육보육비 순으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4차년도와 동일하였다. 가구 특성에 따라 5차년도의 세부적인 응답 비율을 비교해 보면,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보다 식비와 개인유지비에 코로나19 관련 공적 지원금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소득이 높을수록 식비나 개인유지비에 코로나19 관련 공적 지원금을 사용한 비율은 감소하고 교육/보육비에 사용한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총 자녀수가 많을수록 식비와 교육/보육비에 코로나19 관련 공적 지원금을 사용한 비율은 증가하고 개인유지비에 사용한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관련 공적 지원금이 양육비용 부담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질문한 결과, 5차년도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6점으로 나타나 도움 인식 수준은 '보통 이상'이었다. 4차년도의 평균 3.7점과 비교할 때, 점수 차이는 크지 않지만 '전혀 도움 안됨', '별로 도움 안됨', '보통'으로 응답한 비율은 증가하고, '약간 도움됨'과 '매우 도움됨'으로 응답한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관련 공적 지원금이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시켜준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일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3-14〉 코로나19 관련 공적 지원금이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을 준 정도
(2019~2022년, 영유아 가구)

단위: %, 점, (가구)

구분	도움 정도(빈도)						평균 점수	계
	전혀 도움 안됨	별로 도움 안됨	보통	약간 도움됨	매우 도움됨	모름		
4차년도 (2021년)	0.6	5.8	28.7	46.1	16.9	2.0	3.7	100.0 (1,709)
5차년도 (2022년)	1.3	6.8	40.7	37.5	13.8	-	3.6	100.0 (1,730)

주: 5점 척도로, 매우 도움됨이 5점임.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2) 최효미 외(2021). p. 136.〈표 IV-3-6〉 결과

가구소득별로 코로나19 관련 공적 지원금이 양육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었는지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평균이 3.7점이었으며 나머지 가구소득구간의 평균은 모두 3.5점으로 동일했다. 또한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도움 정도를 인식함에 있어 '약간 도움됨'으로 응답한 비율이 43.0%로 가장 많았는데, 나머지 가구소득구간의 경우

‘보통’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다.

〈표 IV-3-15〉 코로나19 관련 공적지원금이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된 정도:
가구소득별(2022년, 영유아 가구)

단위: %, 점, (가구)

구분	도움 정도(빈도)					평균 점수	계
	전혀 도움 안됨	별로 도움 안됨	보통	약간 도움됨	매우 도움됨		
전체	1.3	6.8	40.7	37.5	13.8	3.6	100.0 (1,730)
가구소득	299만원이하	0.7	6.2	46.9	35.2	3.5	100.0 (145)
	300~399만원	1.6	8.3	40.6	36.2	3.5	100.0 (495)
	400~499만원	1.0	7.4	41.5	37.5	3.5	100.0 (419)
	500~599만원	1.7	5.3	44.2	34.2	3.5	100.0 (301)
	600만원 이상	1.1	5.4	34.6	43.0	3.7	100.0 (370)
	χ^2/F	18.3					2.3

주: 1) 코로나19 관련 공적지원금을 받은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매우 도움됨이 5점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마. 세제 혜택 인지 및 수혜 여부

육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자녀 기본 공제에 대해서는 수혜비율이 2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그 외의 다른 혜택들에 대해서는 수혜비율이 높지 않았다. 5차년도를 기준으로 수혜비율은 자녀 기본공제 77.2%, 출산입양 공제 대상 자녀 8.6%, 자녀 장려금 11.4%, 자녀 교육비 소득 공제 26.8%였으며, 모든 세제 혜택 항목에 있어 5차년도의 수혜비율이 조사기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16〉 세제혜택 수혜여부 (2019~2022년)

단위: %, (가구)

구분	2차년도(2019년)	3차년도(2020년)	4차년도(2021년)	5차년도(2022년)
자녀 기본 공제	79.0 (1,129)	80.1 (1,728)	79.0 (1,528)	77.2 (1,336)
출산·입양 공제 대상 자녀	15.6 (143)	14.7 (318)	16.1 (312)	8.6 (148)
자녀 장려금	31.1 (291)	13.9 (300)	13.1 (254)	11.4 (197)
자녀 교육비 소득 공제	48.0 (511)	33.3 (717)	29.7 (575)	26.8 (464)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2) 최효미 외(2021). p. 137.〈표 IV-3-7〉 결과

세제혜택의 구체적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고 있는 비율은 세제 혜택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5차년도를 기준으로 자녀 장려금에 대해 알고 있는 비율이 46.2%로 다른 세제혜택에 비해 인지도가 높았으며 자녀 교육비 소득 공제는 23.3%, 자녀 기본 공제는 18.6%, 출산·입양 공제 대상 자녀는 17.3%가 구체적 지원금액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 혜택 수혜여부와 연관하여보면 자녀 기본 공제는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비율이 높았던 반면 구체적 지원금액에 대한 인지도는 비교적 부족하였다. 그리고 4차년도에 비해 5차년도에 자녀 기본공제, 출산·입양 공제 대상 자녀, 자녀 장려금의 구체적 지원금액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인 세제 혜택 금액에 대한 인지도는 2차년도에 가장 높았다.

〈표 IV-3-17〉 세제혜택 구체적 지원금액 인지 비율 (2019~2022년)

단위: %, (가구)

구분	2차년도(2019년)		3차년도(2020년)		4차년도(2021년)		5차년도(2022년)	
	알고 있음	(수)	알고 있음	(수)	알고 있음	(수)	알고 있음	(수)
자녀 기본 공제	30.0	(1,129)	23.1	(1,728)	17.7	(1,348)	18.6	(1,336)
출산·입양 공제 대상 자녀	40.6	(143)	14.2	(318)	9.9	(312)	17.3	(225)
자녀 장려금	59.8	(291)	42.7	(300)	41.1	(236)	46.2	(197)
자녀 교육비 소득 공제	33.9	(511)	27.3	(717)	24.9	(485)	23.3	(464)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2) 최효미 외(2021). p. 137.〈표 IV-3-8〉 결과

4. 양육비용 부담 및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가. 양육비용 부담

영유아 가구에 양육비용이 충분한지를 살펴본 결과 5차년도의 평균은 2.9점으로 보통 수준을 보였다. 같은 척도로 조사된 2~4차년도의 평균이 3.0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차년도에는 평균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가구 특성별로 양육비용 충분성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맞벌이 가구 여부, 가구 소득, 총 자녀수에 따라 평균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에 비해 양육비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가구 소득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총 자녀수가 적을수록 양육비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의 경향은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동일하였다.

〈표 IV-4-1〉 가구 특성별 양육비용 충분성에 대한 태도 변화 (2018~2022년)

단위: 점, (가구)

구분		1차년도(2018년)		2차년도(2019년)		3차년도(2020년)		4차년도(2021년)		5차년도(2022년)	
		평균 점수	(수)	평균 점수	(수)	평균 점수	(수)	평균 점수	(수)	평균 점수	(수)
전체		2.5	(1,648)	3.0	(1,665)	3.0	(1,679)	3.0	(1,709)	2.9	(1,730)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2.6	(761)	3.1	(738)	3.2	(735)	3.1	(720)	3.0	(767)
	외벌이	2.4	(887)	3.0	(927)	2.9	(944)	2.9	(989)	2.9	(963)
<i>t</i>		5.8***		2.2**		5.1***		4.1***		2.2*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2	(359)	2.7	(239)	2.5	(118)	2.6	(200)	2.6	(145)
	300~399만원	2.4	(474)	2.9	(468)	2.9	(372)	2.9	(476)	2.8	(495)
	400~499만원	2.6	(374)	3.0	(435)	3.0	(512)	3.0	(448)	2.9	(419)
	500~599만원	2.6	(201)	3.1	(268)	3.1	(296)	3.2	(293)	3.0	(301)
	600만원 이상	2.7	(240)	3.3	(255)	3.3	(381)	3.3	(292)	3.2	(370)
	<i>F</i>	25.2***		17.2***		21.8***		28.3***		20.5***	
총 자녀수	1명	2.6	(638)	3.1	(559)	3.2	(543)	3.2	(551)	3.0	(583)
	2명	2.5	(818)	3.0	(878)	3.0	(889)	3.0	(910)	2.9	(900)
	3명이상	2.3	(192)	2.8	(228)	2.8	(247)	2.7	(248)	2.7	(247)
	<i>F</i>	15.0***		15.5***		16.6***		25.4***		13.3***	

주: 1차년도는 4점 척도, 2~5차는 5점 척도로 조사되었으므로 주의를 요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2) 최효미 외(2021). p. 138.〈표 IV-4-1〉 결과

* $p < .05$, ** $p < .01$, *** $p < .001$.

자녀 양육에 있어 부담되는 비목으로는 1~5차년도까지 동일하게 교육/보육비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식비가 부담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조사 연도에 따라 순위의 차이는 있지만 개인유지비와 원리금 상황에 대한 부담도 자녀 양육 시 부담을 느끼는 주요 비목에 해당하였다. 5차년도를 기준으로 교육/보육비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비율은 35.3%로 나타났는데, 이는 1차년도 조사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였다. 식비에 대한 부담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5차년도에는 28.7%의 가구에서 식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하면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4차년도와 비교했을 때, 5차년도에는 개인유지비에 대한 부담(9.7%)은 감소했지만 원리금 상황(9.9%)에 대한 부담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2〉 자녀 양육 시 부담되는 비목 변화 (2018~2022년)

단위: %, (가구)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수)	(1,648)	(1,665)	(1,679)	(1,709)	(1,730)
1.식비(외식비포함)	17.7	15.5	18.7	24.3	28.7
2.주거 관리비	4.0	2.7	1.5	1.3	1.9
3.기기/집기	0.8	0.8	0.5	0.6	0.5
4.피복비(의류 및 신발)	1.8	2.0	1.8	1.9	2.1
5.보건/의료비	1.6	1.6	1.3	1.5	1.4
6.교육/보육비	44.6	48.8	54.6	40.6	35.3
7.여가 및 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5.0	3.5	2.5	2.8	4.0
8.교통비/통신비	0.8	1.0	0.2	0.3	0.5
9.개인유지비	7.0	7.7	6.8	11.0	9.7
10.금융상품	4.1	4.1	2.4	4.1	5.0
11.원리금 상환	-	11.0	7.8	9.5	9.9
12.이전지출	0.7	1.0	0.7	1.0	0.3
13. 기타 상품 및 서비스	0.5	0.5	1.2	0.1	0.6
14. 부담되는 항목없음	11.3	-	-	0.8	-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2) 최효미 외(2021). p. 139.〈표 IV-4-2〉 결과

5차년도 응답을 기준으로 가구특성별로 자녀 양육에 있어 부담되는 비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에 비해 교육/보육비, 원리금 상환 등이 부담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식비와 개인유지비의 경우 외벌이 가구가 맞벌이 가구에 비해 부담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교육/보육비가 부담된다는 응답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었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식비가 부담된다는 응답이 많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총 자녀수에 따라서 살펴보면,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 식비에 대한 부담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었다. 자녀수가 1명인 경우에는 다자녀 가구보다 주거/관리비, 여가/문화생활비, 개인유지비, 원리금상환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높았고, 교육/보육비가 부담된다는 응답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3〉 가구특성별 자녀 양육 시 부담되는 비목(2022년)

단위: %

구분		자녀 양육시 부담되는 항목													
		식비	주거/ 관리비	기기/ 집기	피복비	보건/ 의료비	교육/ 보육비	여가/ 문화 생활비	교통/ 통신비	개인 유지비	금융 상품	원리금 상환	이전 지출	기타 상품 및 서비스	부담 되는 비용 없음
전체		28.7	1.9	0.5	2.1	1.4	35.3	4.0	0.5	9.7	5.0	9.9	0.3	0.6	-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26.5	1.7	0.4	1.8	1.2	38.3	3.4	0.4	7.8	4.4	12.6	0.4	1.0	-
	외벌이	30.4	2.1	0.6	2.4	1.7	32.9	4.5	0.5	11.2	5.4	7.7	0.3	0.3	-
	x ²	29.5**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42.1	3.4	0.0	1.4	0.7	26.9	4.1	0.0	9.0	4.1	6.9	0.7	0.7	-
	300~399만원	28.7	3.0	0.8	2.0	2.6	27.5	4.4	0.6	13.7	4.6	11.1	0.2	0.6	-
	400~499만원	29.1	2.1	1.0	1.7	1.0	39.1	3.6	0.5	8.4	5.3	8.1	0.0	0.2	-
	500~599만원	25.2	1.0	0.3	3.3	1.7	39.5	2.3	0.3	9.0	5.0	11.0	0.3	1.0	-
	600만원 이상	25.7	0.3	0.0	2.2	0.5	41.4	5.1	0.5	6.8	5.4	10.5	0.8	0.8	-
	x ²	86.3***													
총 자녀수	1명	28.3	3.6	0.7	2.4	2.1	19.9	5.5	0.9	15.6	6.0	13.2	0.7	1.2	-
	2명	26.3	1.2	0.6	1.9	1.1	45.3	3.6	0.2	6.2	3.9	9.1	0.2	0.3	-
	3명이상	38.1	0.4	0.0	2.4	1.2	35.2	2.0	0.4	8.5	6.5	4.9	0.0	0.4	-
	x ²	159.8***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 $p < .01$, *** $p < .001$.

추가(여유)소득 발생 시 자녀양육을 위해 우선 지출할 비목을 조사한 결과, 교육/보육비에 지출하겠다는 응답이 42.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여가/문화생활비 25.8%, 금융상품13.3%, 식비 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 특성에 따라서 우선 지출하는 비목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봤을 때 맞벌이 가구 여부나 가구소득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자녀수에 따라서는 교육/보육비에 지출하겠다는 응답은 자녀수가 2명인 경우에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여가/문화생활비에 지출하겠다는 응답률은 총 자녀수가 1명인 경우에 가장 높았다.

〈표 IV-4-4〉 추가(여유)소득 발생 시 우선 지출 양육비 비목 (2022년)(1순위)

단위: %, (가구)

구분		여유소득 활용 자녀양육 우선지출 비목 (자녀용)							
		식비	기기/집기	피복비	보건/의료비	교육/보육비	여가/문화생활비	금융상품	기타
전체		10.6	3.8	1.3	3.1	42.0	25.8	13.3	0.1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9.4	3.8	1.0	2.5	42.0	27.2	14.0	0.1
	외벌이	11.5	3.8	1.6	3.5	42.1	24.7	12.8	0.0
	χ^2	7.0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9.7	2.8	1.4	6.9	37.9	26.9	14.5	0.0
	300~399만원	13.5	3.2	1.8	3.4	39.0	26.5	12.5	0.0
	400~499만원	8.8	3.1	1.7	2.1	45.1	25.5	13.4	0.2
	500~599만원	7.6	5.0	1.0	3.3	44.2	25.2	13.6	0.0
	600만원 이상	11.4	4.9	0.5	1.9	42.4	25.4	13.5	0.0
	χ^2	31.7							
총 자녀 수	1명	12.9	4.5	1.4	3.3	32.9	28.6	16.5	0.0
	2명	9.2	3.3	1.3	3.0	48.0	24.4	10.7	0.0
	3명이상	10.1	4.0	1.2	2.8	41.7	24.3	15.4	0.4
	χ^2	43.6***							

주: 식비(자녀용 유기농 식재료; 영유아용 이유식, 반차 등 자녀 외식비 포함); 기기/ 집기(자녀용 가전제품, 책상 등 가구); 피복비 (자녀용); 보건/의료비 (자녀용 영양제 등 포함); 교육/보육비 (자녀의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육, 육아도우미 비용 등); 여가 및 문화생활비 (자녀를 위한 여행, 체험활동, 완구, 도서구매); 금융상품 (자녀용 저축 등 금융상품으로 어린이보험, 저축 등).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 $p < .001$.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이 높아졌을 때 우선적으로 지출을 축소하겠다는 비목은 1+2순위 기준으로 식비가 47.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 후로 여가/문화생활비 43.8%, 개인유지비 31.1%, 피복비 27.2%, 금융상품 15.3%, 교육/보육비 1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4-5〉 양육비용 부담 증가 시 우선적 지출 축소 비목(2022년)

단위: %(명)

구분	양육부담 증가로 인한 지출축소 우선 비목													(수)
	식비	주거/관리비	기기/집기	피복비	보건/의료비	교육/보육비	여가/문화생활비	교통/통신비	개인유지비	금융상품	이전지출	기타상품 및 서비스	모름/무응답	
1+2순위	47.5	2.3	5.0	27.2	2.5	12.1	43.8	3.2	31.1	15.3	5.0	1.8	1.0	(1,730)
1순위	35.0	0.6	1.7	10.7	0.8	5.9	22.8	0.5	11.2	7.5	1.9	0.5	1.0	(1,730)
2순위	12.4	1.7	3.2	16.5	1.7	6.2	21.0	2.8	19.9	7.8	3.1	1.3	0.0	(1,730)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추가(여유)소득 발생 시 우선적으로 지출할 항목에 대해서는 5차년도 기준으로 교육/보육비에 지출하겠다는 응답이 29.7%로 가장 많았다. 1차년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교육/보육비에 우선 지출하겠다는 응답은 지속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5차년도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금융상품에 지출하겠다는 응답은 19.0%였는데, 이는 예년의 26.9%보다 크게 감소한 결과이다. 여가 및 문화생활비에 지출하겠다는 응답은 18.8%로, 이는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응답률이며 예년 응답률 11.3%보다 증가한 결과이다. 식비에 지출하겠다는 응답은 11.0%로 3차년도 이후 유사한 응답률을 기록하였으며, 원리금 상환에 지출하겠다는 응답은 10.5%로 나타나 2차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응답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V-4-6〉 추가소득 발생 시 우선 지출 비목(2018~2022년)

단위: %, (가구)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수)	(1,648)	(1,665)	(1,679)	(1,709)	(1,730)
1.식비(외식비포함)	8.7	7.2	11.1	11.6	11.0
2.주거 관리비	1.6	1.4	1.4	0.8	0.5
3.기기/집기	0.4	1.1	2.0	2.0	1.8
4.피복비(의류 및 신발)	0.7	1.4	1.3	1.5	1.6
5.보건/의료비	1.0	0.5	1.4	0.9	2.1
6.교육/보육비	26.4	25.6	28.8	26.4	29.7
7.여가 및 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14.3	15.9	10.5	11.3	18.8
8.교통비/통신비	0.4	0.2	0.1	0.1	0.3
9.개인유지비	3.1	3.3	3.6	4.2	4.5
10.금융상품	14.7	25.0	24.3	26.9	19.0
11.원리금 상환	13.7	17.6	15.1	13.5	10.5
12.이전지출	0.3	0.4	0.4	0.6	0.2
13. 기타 상품 및 서비스	0.2	0.5	0.1	0.1	0.1
14. 추가지출의향없음	14.6	-	-	-	-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2) 최효미 외(2021). p. 140.〈표 IV-4-4〉 결과.

나. 코로나19로 인한 변동

5차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 가계 경제 부담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28.0%로, 3~4차년도보다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가구특성별로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코로나19로 인해 가계 경제 부담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많은 경향이 있었는데, 특히 가

구소득이 299만원이하인 경우에는 44.1%가 가계 경제 부담이 증가했다고 응답하여 다른 소득구간에 비해 응답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자녀수가 많을수록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경제 부담이 증가했다는 응답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7〉 가구특성별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경제 부담 증가 여부 (2020~2022년)

단위: %, (가구)

구분		3차년도(2020년)			4차년도(2021년)			5차년도(2022년)		
		예	아니오	(수)	예	아니오	(수)	예	아니오	(수)
전체		31.6	68.4	(1,679)	34.1	65.9	(1,709)	28.0	72.0	(1,730)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32.0	68.0	(735)	35.0	65.0	(720)	29.2	70.8	(767)
	외벌이	31.4	68.6	(994)	33.5	66.5	(989)	27.1	72.9	(963)
		χ^2			0.1			0.4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52.5	47.5	(118)	47.5	52.5	(200)	44.1	55.9	(145)
	300~399만원 이하	34.4	65.6	(372)	36.6	63.4	(476)	26.9	73.1	(495)
	400~499만원 이하	33.0	67.0	(512)	31.0	69.0	(448)	27.7	72.3	(419)
	500~599만원 이하	29.1	70.9	(296)	29.4	70.6	(293)	24.6	75.4	(301)
	600만원 이상	22.6	77.4	(381)	30.5	69.5	(292)	26.5	73.5	(370)
		χ^2			41.0***			23.8***		
총 자녀수	1명	21.4	78.6	(543)	26.1	73.9	(551)	21.1	78.9	(583)
	2명	34.1	65.9	(889)	35.6	64.4	(910)	29.7	70.3	(900)
	3명이상	45.3	54.7	(247)	46.4	53.6	(248)	38.5	61.5	(247)
		χ^2			50.4***			33.1***		
지역 규모	대도시	28.4	71.6	(670)	30.1	69.9	(670)	26.5	73.5	(683)
	중소도시	33.8	66.2	(746)	37.0	63.0	(781)	30.1	69.9	(788)
	읍면지역	33.8	66.2	(263)	35.7	64.3	(258)	25.9	74.1	(259)
		χ^2			5.5			7.9*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2) 최효미 외(2021). p. 141.〈표 IV-4-5〉 결과.

* $p < .05$, *** $p < .001$.

코로나19로 인해 가계 경제 부담이 증가하였을 때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한 방법을 조사한 결과, 4차년도와 동일하게 5차년도에도 생활비를 최대한 줄여서 소득 내에서 해결했다는 응답이 3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존에 저축해 둔 돈을 털어 쓴다는 응답은 29.9%, 은행 기관 등의 대출을 활용한다는 응답은 12.0%였으며, 조사연도가 지날수록 이 두 가지 항목들에 대한 응답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정부의 공적 자금지원으로 충당한다는 응답은 8.2%로 나타나 3차년도의 43.1%, 4차년도의 11.1% 응답률에 비해서 크게 감소한 응답 비중을 보였다.

〈표 IV-4-8〉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경제 부담 증가 시 부족한 생활비 충당 방법 (2020~2022년)

단위: %(가구)

구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소득이나 생활비 변동이 크지 않아, 별도의 충당이 필요 없음	6.6	8.9	9.3
정부의 공적 자금 지원(긴급 기본소득 지원 등)	43.1	11.1	8.2
정부의 긴급 대출 지원	4.5	1.7	3.3
은행 기관 등의 대출(보험 담보 대출 포함)	5.7	11.7	12.0
기존의 저축해 둔 돈을 털어 씀(보험 해지 포함)	18.6	25.9	29.9
부모님 등 친인척으로부터의 지원 받음	1.7	5.1	3.7
생활비를 최대한 줄여서 소득 내에서 해결	19.2	33.3	33.0
기타	0.6	2.2	0.6
총계(수)	100.0 (531)	100.0 (584)	100.0 (485)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2) 최효미 외(2021). p. 142.〈표 IV-4-5〉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경제 부담 증가 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는 방법에는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만 '⑦생활비를 최대한 줄여서 소득 내에서 해결한다'는 응답과 '④은행 기관 등의 대출을 활용한다'는 응답은 가구소득이 299만원 이하인 경우에 각각 35.9%와 15.6%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①소득이나 생활비 변동이 크지 않아 별도의 충당이 필요 없다'는 응답은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많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표 IV-4-9〉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경제 부담 증가 시 부족한 생활비 충당 방법 (2022년)

단위: %(가구)

구분		부족한 생활비 충당 방법								계(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기타	
전체		9.3	8.2	3.3	12.0	29.9	3.7	33.0	0.6	100.0 (485)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4.7	7.8	1.6	15.6	26.6	6.3	35.9	1.6	100.0 (64)
	300~399만원 이하	6.8	10.5	2.3	12.0	32.3	3.8	31.6	0.8	100.0 (133)
	400~499만원 이하	10.3	8.6	4.3	8.6	31.0	3.4	33.6	0.0	100.0 (116)
	500~599만원 이하	9.5	8.1	2.7	12.2	31.1	5.4	31.1	0.0	100.0 (74)
	600만원 이상	14.3	5.1	5.1	13.3	26.5	1.0	33.7	1.0	100.0 (98)
χ^2		18.9								

주: ① 소득이나 생활비 변동이 크지 않아, 별도의 충당이 필요 없음; ② 정부의 공적 자금 지원(긴급 기본소득 지원 등); ③ 정부의 긴급 대출 지원; ④ 은행 기관 등의 대출(보험 담보 대출 포함); ⑤ 기존의 저축해 둔 돈을 털어 씀(보험 해지 포함); ⑥ 부모님 등 친인척으로부터의 지원 받음; ⑦ 생활비를 최대한 줄여서 소득 내에서 해결.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코로나19로 인해 생활비 지출을 축소하거나 증가시킨 비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먼저 지출을 축소한 비목으로는 '식비'가 45.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

음으로 '여가/문화생활비'(20.6%), '개인유지비'(9.4%), '피복비'(8.8%) 순으로 지출을 축소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지출이 증가한 비목으로도 '식비'가 65.8%로 가장 높았다. 즉 '식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출을 축소하거나 증가시킨 주요 비목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보건/의료비'에 지출을 증가시켰다는 응답은 14.0%, '원리금 상환'에 지출을 증가시켰다는 응답은 4.0%였다. 생활비 지출이 변동된 항목이 없다는 응답은 7.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10〉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비 지출 축소/증가 비목 (2022년)

단위: %(가구)

구분	생활비지출의 변동 비목													
	식비	주거/관리비	기기/집기	피복비	보건/의료비	교육/보육비	여가/문화생활비	교통/통신비	개인유지비	금융상품	원리금상환	이전지출	기타상품 및 서비스	감소/증가 항목 없음
지출축소 비목	45.0	0.6	3.8	8.8	1.3	3.8	20.6	0.6	9.4	4.4	0.6	0.6	0.6	-
지출증가 비목	65.8	0.9	0.3	0.6	14.0	1.6	0.6	0.3	3.7	0.6	4.0	-	-	7.5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다. 영유아 가구의 주거형태와 주거비 부담

영유아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의 종류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영유아 가구는 아파트(82.2%)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립/다세대주택 13.4%, 단독주택 2.7% 순이었다. 영유아 가구 주택 거주 형태로는 자가인 경우가 53.1%로 가장 많았고, 전세는 32.1% 월세가 9.6%를 차지하였다.

〈표 IV-4-11〉 영유아 가구 거주 주택 종류 및 거주 형태(2022년)

단위: %, (가구)

영유아 가구 거주 주택 종류						영유아 가구 주택 거주 형태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	상가주택	기타	계(수)	자가	전세	월세	기타(사택, 친인척 주택, 무상거주)	계(수)
2.7	82.2	13.4	1.3	0.4	100.0 (1,730)	53.1	32.1	9.6	5.1	100.0 (1,730)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주택의 주거비가 어느 정도 부담되는지를 질문한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3.1점으로 나타나 보통 수준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부담 정도가 적당하다는 응답이 41.8%로 가장 많았고, 다소 부담된다는 응답은 23.7%,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8.8%로 나타났다. 가구특성별로는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주거비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주택거주형태에 따라서는 월세인 경우에 부담 정도의 평균이 3.6점으로 다른 주택거주형태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자가나 전세에 비해 주택 주거비에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V-4-12〉 주택의 주거비 부담 정도 (2022년): 전체가구

단위: %, 점, (가구)

구분		부담정도					평균 점수	(수)
		전혀 부담 안됨	별로 부담 안됨	적당	다소 부담됨	매우 부담됨		
전체		7.2	18.8	41.8	23.7	8.4	3.1	(1,730)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7.6	9.0	43.4	24.8	15.2	3.3	(145)
	300~399만원 이하	4.4	17.8	43.4	24.8	9.5	3.2	(495)
	400~499만원 이하	8.1	17.9	40.8	24.8	8.4	3.1	(419)
	500~599만원 이하	9.0	17.9	44.5	23.3	5.3	3.0	(301)
	600만원 이상	8.4	25.7	38.1	20.8	7.0	2.9	(370)
	χ^2/F	42.0***					5.7***	
주택 거주 형태	자가	7.0	19.6	42.3	23.3	7.8	3.1	(919)
	전세	3.2	19.4	45.3	25.4	6.7	3.1	(556)
	월세	3.6	12.0	31.3	30.7	22.3	3.6	(166)
	기타	41.6	19.1	34.8	4.5	0.0	2.0	(89)
	χ^2/F	237.9***					48.1***	

주: '매우부담됨'(1점)~'전혀 부담되지 않음'(5점)으로 응답된 결과로, 평균점수는 역코딩하여 산출함. 점수가 높을수록 부담감이 높음을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 $p < .001$.

거주 주택의 평균 면적은 92.7m²로 나타났고, 평균 방 개수는 2.9개로 나타났다. 거주 주택 면적과 방 개수는 가구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먼저 가구소득이 많아질수록 거주 주택의 평균 면적이 넓어졌으며 방 개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가구소득이 299만원 이하인 경우 거주 주택의 평균면적이 83.6m²이며 방 개수 평균은 2.8개였는데,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거주 주택의 평균면적은 99.7m²이며 방 개수 평균은 3.0개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총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거주 주택의 평균 면적과 방 개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거주 형태에 따라서는 자가인 경우에 거주 주택의 평균 면적이 100.7m²로 가장 넓었으며, 방 개수 평균도 3.1개로 가장 많았다. 이에 비해 월세인 경우에는 거주 주택의 평균 면적이 72.6m², 방 개수 평균은 2.5개로 나타났다.

〈표 IV-4-13〉 거주 주택의 면적 및 방 개수(2022년)

단위: m², 개, (가구)

구분		거주 주택 면적		방 개수	
		평균(m ²)	(수)	평균	(수)
전체		92.7	(1,730)	2.9	(1,730)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83.6	(145)	2.8	(145)
	300~399만원 이하	89.2	(495)	2.9	(495)
	400~499만원 이하	92.1	(419)	2.9	(419)
	500~599만원 이하	95.2	(301)	3.0	(301)
	600만원 이상	99.7	(370)	3.0	(370)
	F	16.7***		9.9***	
총 자녀수	1명	85.5	(583)	2.8	(583)
	2명	95.9	(900)	3.0	(900)
	3명이상	98.2	(247)	3.0	(247)
	F	41.6***		21.2***	
주택 거주 형태	자가	100.7	(919)	3.1	(919)
	전세	85.2	(556)	2.8	(556)
	월세	72.6	(166)	2.5	(166)
	기타	94.5	(89)	2.9	(89)
	F	104.1***		65.6***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 $p < .001$.

5. 소결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영유아 가구의 소비 지출, 특히 양육비용 지출의 세부 내역과 부담 수준을 가구특성별로 살펴보는 한편,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의 활용 비목과 도움 정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나타나는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차년도(2018년) 이후 5차년도(2022년) 조사시까지 영유아 가구의 소득도 증가하였으나 생활비 지출도 증가하였으며, 특히 생활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비'의 비중이 3차년도(2020년) 이후 상당 폭 상승한 후 지속되는 경향을 보였다. 즉, 가구 생계를 위한 필수재인 식재료 물가가 눈에 띄게 상승하여 가구의

생활비 지출 부담을 높이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육/보육비의 경우 영유아가구 생활비 지출 비목 중 지출 수준이 큰 항목임은 지속적인 현상이나 5차년도에는 1~4차년도 대비 지출 수준과 비중이 다소 감소한 현상을 보였다.

둘째, 5차년도 조사에서 전체 자녀에 지출된 총 양육비용은 1~4차년도 대비 높은 수준인 127만3천원이나, 교육/보육비는 다소 하락하였고 대신 여가 및 문화생활비 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가족여행과 체험활동 등 바깥활동이 증가하면서 일상 회복에 따른 양육비용 지출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교육/보육비의 경우 다른 비목에 비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가 이용하는 주요 교육/보육 서비스 비용 등 교육/보육비 부문의 물가가 상대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짐작된다.

셋째, 가구소득 중 총 양육비용, 영유아 양육비용 등 자녀 양육비용의 비중은 외벌이 가구, 다자녀 가구, 저소득 가구에서 특히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영유아 양육비용은 필수재에 대한 소비처럼 어느 한도 이상 줄이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는 바, 양육비용 부담이 큰 가구유형(특히 다자녀 가구, 저소득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양육비용 부담 경감 방안 개발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은 1~5세까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1인당 양육비용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자녀의 성장에 따라 불가피하게 증가하는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적절수준의 지원 설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예를 들면 ‘아동수당’과 같이 ‘양육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현금성 지원의 경우 지원 대상 아동 연령 기준을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이 추가되는 영아기를 제외하고 유아기부터 아동수당의 금액을 높여 차등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유아 가구들은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자녀를 위한 교육/보육비에 지출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는 바, ‘현금’형태의 지원이 추가적으로 지급될 경우 영유아 대상의 사교육 이용을 유도할 수 있다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를 감안하면, 현금 지원은 비교적 사교육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낮은 ‘영아기’에 지원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아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이 추가될 경우에는 이러한 부작용을 감안하여 사용처를 다소 제한한 바우처의 형태나 유아기의 추가적인 양육부담을 최소한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 수준으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에서 같은 영아의 경우에도 0세의 경우 1, 2세보다 더 높은 양육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 직후 1년까지의 0세의 경우 신생아 용품과 식재료, 해당 시기에 특히 필요한 서비스(예: 개별돌봄서비스) 등 1~2세보다 더 많은 양육비용이 소요될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부모의 근로소득 창출에 가장 취약한 시기로 해당 시기의 부모 근로소득의 보완과 양육비 지출 부담 경감을 위한 한시적 지원이 추가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여섯째, 정부에서 영유아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현금 지원들의 활용처와 영유아 가구가 인식하는 양육비 부담 경감에의 도움 정도를 살펴본 결과,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은 식비, 교육·보육비, 개인유지비에 가장 많이 활용되며, 첫만남 이용권은 식비에 가장 많이 사용할 계획이며, 개인유지비, 기기/집기, 보건의료비, 교육/보육비 등 다양한 비목에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비’로 활용하려는 비율은 자녀가 1명인 경우에 13.1%로 나타났고, 자녀가 2~3명이상인 경우에는 10%에 미치지 않았다.

수급자들이 인식하는 이러한 정부 지원의 자녀양육비 부담 경감의 도움 정도는 ‘첫만남 이용권’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4.3점), 특히 생활비 지출이 큰 계층에서 도움 정도를 더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의 자녀양육비 부담 경감의 도움 정도는 ‘첫만남 이용권’보다는 낮은 아동수당은 3.5점, 가정양육수당은 3.7점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생활비 지출이 낮은 가구에서 양육비 부담 경감의 도움 정도를 더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한 달 10~20만원 정도 수준의 지원에 대해서는 생활비 지출이 적은 계층에서 도움 정도를 크게 인식하나, 고액의 일시 지원에 대해서는 생활비 지출이 큰 가구에서 양육비 부담 경감에 대한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양육비용 경감을 위한 보편적인 지원을 설계할 경우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수급자들이 혜택을 인식하고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일곱째, 영유아 가구가 현재 지출하고 있는 양육비의 충분성 정도는 5점 만점에 2.9점으로 충분하다고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외벌이, 다자녀, 저소득 가구일수록 원하는 만큼 양육비를 지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즉 가구소득의 제약으로 자녀를 위해 충분한 만큼 양육비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가장 부담을 느끼는 양육비 비목은 교육/보육비

와 식비였고, 양육비용 부담 시에 가장 먼저 식비를 줄이나 교육/보육비는 가능한 줄이지 않으려 하는 비목이었다. 반면에 추가 소득이 생기면 교육/보육비를 추가적으로 지출하고자 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에 영유아 가구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 상황이나 저소득 가구를 위해 필수적인 '교육/보육(서비스)비용'에 대한 보조는 필요하고, 반대로 영유아 가구의 추가 소득을 지원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교육'의 팽창의 부작용을 항시 주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육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및 지원 요구

- 01 영유아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 02 가정내 돌봄 및 부모지원서비스 이용 행태
- 03 육아서비스 지원에 대한 요구
- 04 소결 및 시사점

V. 육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및 지원 요구

1. 영유아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가. 반일제이상 기관

1) 이용기관

〈표 V-1-1〉에 따르면 5차년도(2022년) 만0세~6세까지의 영유아 2,393명 중 49.2%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고, 유치원 27.1%, 반일제이상 학원 등 1.1%로 77.4%가 반일제이상 기관을 이용하고, 22.6%가 반일제이상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비율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3차년도(72.4%)에 대폭 감소하였다가 4차년도(80.5%)에는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5차년도(2022년)에 다시 3.1%p 감소하였다.

〈표 V-1-1〉 연령별 및 연도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2018~2022년)

단위: %(명)

구분	1차년도(2018년)	2차년도(2019년)	3차년도(2020년)	4차년도(2021년)	5차년도(2022년)
전체	100.0 (2,277)	100.0 (2,333)	100.0 (2,368)	100.0 (2,371)	100.0 (2,393)
어린이집	51.1 (1,163)	53.0 (1,235)	48.1 (1,139)	50.4 (1,196)	49.2 (1,177)
유치원	27.7 (630)	26.5 (617)	23.3 (551)	28.8 (682)	27.1 (648)
반일제이상 학원 등	3.2 (74)	1.6 (37)	1.0 (24)	1.3 (31)	1.1 (27)
반일제이상 기관 미이용	18.0 (410)	19.0 (443)	27.6 (653)	19.5 (462)	22.6 (5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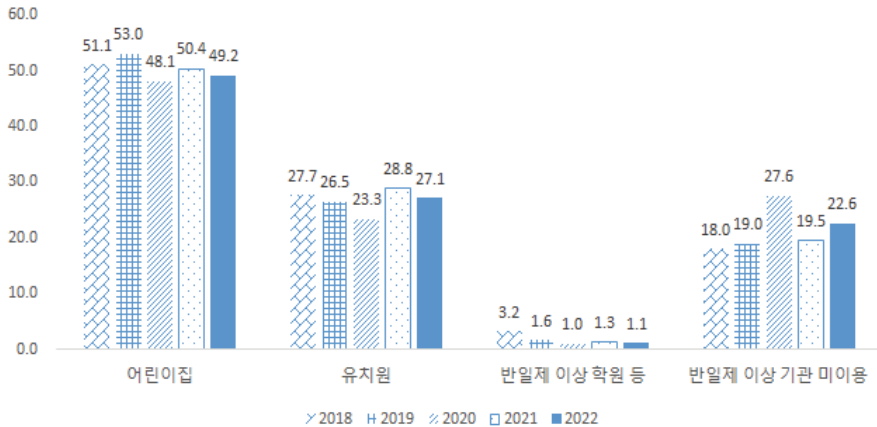
주: 반일제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그림 V-1-1] 연도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2018~2022년)

단위: %



주: 1) 반일제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2) <표 V-1-1>을 기반으로 구성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한편 5차년도 조사에서 나타난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행태를 가구특성 별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표 V-1-2>에 따르면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 총 자녀 수, 자녀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응답 결과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먼저 부모가 맞벌이를 할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54.7%로 가장 높아 외벌이 가구의 어린이집 이용률 45.1%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등의 이용률은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이 유사한 비율을 보이는 가운데, 외벌이 가구는 반일제이상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28.6%로 맞벌이 가구의 14.7%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가구가 어린이집 이용률이 58.2%로 가장 높고, 반일제이상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16.2%로 가장 낮았다. 이는 취약계층 배려가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구에서 반일제이상 기관 특히 어린이집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그 외 소득 구간 (300만원~600만원 이상)에서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어린이집 이용률이 높아지고, 반대로 반일제이상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은 낮아졌는데, 이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이 일반적으로 외벌이 가구에 비해 높은 특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총 자녀수의 경우 자녀수가 많을수록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높고, 자녀가 1명일 경우 반일제이상 기관 미이용의 비율이 현저히 높은 특징을 보였다. 이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어린이집 입소가 유리한 가점의 적용과 자녀수가 많을수록 양육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반일제이상 기관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자녀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0세부터 3세까지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어린이집 이용률이 높아지고 유치원 이용이 가능해지는 4세부터 6세까지는 유치원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어린이집 이용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반일제이상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데 특히 3세를 기점으로 현저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2〉 가구특성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2022년)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등	반일제 이상 기관 미이용	계(수)
전체		49.2	27.1	1.1	22.6	100.0 (2,393)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54.7	29.4	1.2	14.7	100.0 (1,027)
	외벌이	45.1	25.3	1.1	28.6	100.0 (1,366)
	χ^2	64.7***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58.2	25.6	0.0	16.2	100.0 (191)
	300~399만원	47.8	23.1	0.5	28.6	100.0 (668)
	400~499만원	47.1	28.1	1.0	23.8	100.0 (594)
	500~599만원	49.6	31.2	0.8	18.4	100.0 (426)
	600만원 이상	49.6	28.1	2.8	19.5	100.0 (513)
	χ^2	51.1***				
총 자녀수	1명	45.2	17.3	0.9	36.6	100.0 (585)
	2명	49.1	31.1	1.3	18.5	100.0 (1,359)
	3명이상	54.4	27.6	0.9	17.1	100.0 (449)
	χ^2	100.7***				
지역 규모	대도시	47.4	28.8	1.3	22.5	100.0 (913)
	중소도시	50.6	26.0	1.2	22.2	100.0 (1,081)
	읍면지역	49.4	26.1	0.5	24.0	100.0 (399)
	χ^2	4.6				
자녀 연령	0세(2022년생)	1.2	0.0	0.0	98.8	100.0 (254)
	1세(2021년생)	27.5	0.0	0.0	72.5	100.0 (275)
	2세(2020년생)	77.2	0.0	0.3	22.5	100.0 (307)
	3세(2019년생)	95.7	0.5	0.2	3.5	100.0 (333)
	4세(2018년생)	58.6	38.1	1.3	1.9	100.0 (365)
	5세(2017년생)	43.1	55.3	1.2	0.4	100.0 (414)
	6세(2016년생)	33.7	62.4	3.4	0.5	100.0 (445)
	χ^2	2319.1***				

주: 반일제 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 $p < .001$

다음으로는 영유아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반일제이상 기관인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를 대상으로,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설립유형을 살펴보았는바, 가장 많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설립유형은 ‘민간’으로 51.4%에 해당하였다. 이밖에 ‘국공립’ 30.2%, ‘가정’ 8.8%, ‘법인·단체’ 3.4%, ‘사회복지법인’ 3.2%, ‘직장’ 2.8%, ‘협동’ 0.2% 순으로 나타났다(표 V-1-3 참조). 이러한 설립유형을 가구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부모의 맞벌이 여부, 총 자녀수, 지역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전체적 비중은 작지만 ‘직장’어린이집 이용률이 4.9%로 외벌이 가구의 0.9%에 비해 약 5.4배 높은 결과를 보였고, ‘가정’어린이집의 이용률도(11.2%) 외벌이 가구의 6.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설립유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총 자녀수에 따라서는 자녀수가 적을수록 ‘가정’어린이집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법인·단체’ 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자녀수가 많을수록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이용률이 약 7:1(34.7%:5.0%)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월등히 높은 반면, 읍면지역의 경우 약 2:1(25.8%:12.3%)로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국공립’ 어린이집의 이용 기회가 낮은 것으로 보이는 결과가 나타났다.

〈표 V-1-3〉 가구특성별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 설립 유형 (2022년)

단위: %(명)

구분	국공립	사회 복지 법인	법인· 단체	민간	가정	직장	협동	모름	계(수)
전체	30.2	3.2	3.4	51.4	8.8	2.8	0.2	-	100.0 (1,177)
맞벌이	27.8	2.4	3.3	50.3	11.2	4.9	0.2	-	100.0 (561)
가	32.4	3.9	3.6	52.5	6.7	0.9	0.1	-	100.0 (616)
여부	χ^2 28.0***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9.6	3.4	4.7	55.2	3.8	3.3	0.0	100.0 (111)
	300~399만원	32.9	4.3	4.1	47.1	9.2	2.1	0.3	100.0 (320)
	400~499만원	27.3	3.7	1.6	55.3	9.8	1.9	0.3	100.0 (280)
	500~599만원	25.7	2.3	3.8	57.4	9.1	1.7	0.0	100.0 (211)
	600만원 이상	33.9	1.8	3.6	46.0	9.2	5.4	0.0	100.0 (255)
	χ^2	30.3							
총 자녀수	1명	27.2	4.3	2.8	51.8	10.6	3.3	0.0	100.0 (265)
	2명	30.0	1.5	2.7	53.4	8.5	3.7	0.3	100.0 (668)
	3명이상	33.9	6.6	6.0	45.7	7.8	0.0	0.0	100.0 (244)

구분	국공립	사회 복지 법인	법인· 단체	민간	가정	직장	협동	모름	계(수)
	χ^2 38.2***								
지역	대도시	34.7	1.6	5.6	49.3	5.0	3.7	0.2	100.0 (433)
	중소도시	28.2	3.8	2.1	52.9	10.6	2.2	0.2	100.0 (547)
규모	읍면지역	25.8	4.9	2.3	52.1	12.3	2.6	0.0	100.0 (197)
	χ^2 34.6***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 $p < .001$

본 조사 대상 유아 중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이용하는 유치원의 설립 유형은 66.5%가 사립유치원, 33.5%가 국·공립유치원으로 사립유치원 이용 비율이 약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총 자녀수와 지역규모에 따라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총 자녀수가 많을수록,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국·공립유치원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 총 자녀수가 1명일 경우 24.9%가 국·공립유치원을 이용 중인 반면 자녀수가 3명이상인 경우 국·공립 이용률이 26%p이상 높은 50.9%에 달하였고, 대도시지역 거주 유아인 경우 28.2%가 국·공립유치원을 이용하나 읍면지역 거주 유아 중에서는 48.7%가 이용하여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국·공립유치원의 이용 기회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 결과가 나타났다(표 V-1-4 참조).

〈표 V-1-4〉 가구특성별 유아가 이용하는 유치원 설립 유형 (2022년)

단위: %(명)

구분		국·공립	사립	계(수)
전체		33.5	66.5	100.0(648)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33.1	66.9	100.0(302)
	외벌이	33.9	66.1	100.0(346)
	χ^2	0.0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30.1	69.9	100.0(49)
	300~399만원	42.2	57.8	100.0(155)
	400~499만원	31.7	68.3	100.0(167)
	500~599만원	31.5	68.5	100.0(133)
	600만원 이상	29.4	70.6	100.0(144)
	χ^2	7.1		
총 자녀수	1명	24.9	75.1	100.0(101)
	2명	30.5	69.5	100.0(423)
	3명이상	50.9	49.1	100.0(124)
	χ^2	21.9***		

구분		국·공립	사립	계(수)
지역규모	대도시	28.2	71.8	100.0(263)
	중소도시	32.9	67.1	100.0(281)
	읍면지역	48.7	51.3	100.0(104)
	χ^2	14.7***		-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연구.

*** $p < .001$

한편 어린이집, 유치원 외에 영유아가 이용하는 반일제이상 학원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표 V-1-5>에 따르면 영유아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반일제이상 학원은 영어학원으로 85.3%를 차지하였고, 놀이학원 10.5%, 기타 학원 4.2%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 사례가 27사례로 많지 않아 이용 학원 유형 비율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표 V-1-5> 가구특성별 영유아가 이용하는 반일제 이상 학원 유형 (2022년)

단위: %(명)

영어학원	예능학원	놀이학원	체육학원	기타	계(수)
85.3	-	10.5	-	4.2	100.0(27)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연구.

2) 특별활동, 특성화프로그램 이용

반일제이상 기관 유형별로 영유아의 특별활동, 특성화프로그램 이용 행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반일제이상 기관 유형별 영유아의 특별활동, 특성화프로그램 이용률을 살펴보면 5차년도 조사인 2022년에 어린이집 특별활동은 71.7%, 유치원 특성화프로그램은 84.2%, 반일제이상 학원 특성화프로그램은 54.5%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V-1-6 참조). 반일제이상 기관의 특별활동, 특성화프로그램 이용률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3차년도에 크게 감소하였으나, 4차년도에는 예년 수준을 회복하였고 5차년도에는 전년에 비해서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6〉 이용 기관별 영유아의 특별활동 이용비중 (2018~2022년)

단위: %, (명)

구분	어린이집 특별활동	유치원특성화 프로그램	반일제이상 학원 특성화 프로그램
1차년도(2018년)	65.1 (726)	66.4 (401)	59.1 (44)
2차년도(2019년)	65.9 (734)	52.1 (288)	47.2 (18)
3차년도(2020년)	42.4 (459)	42.3 (211)	42.7 (10)
4차년도(2021년)	66.3 (792)	73.5 (501)	51.0 (16)
5차년도(2022년)	71.7 (843)	84.2 (545)	54.5 (15)

주: 해당 기관 이용자 중 특별활동 이용자 비중 및 수임.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2) 최효미 외(2021). p. 167 〈표 V-1-6〉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이용 과목 수는 5차년도(2022년)의 경우 3.0개, 유치원의 경우 3.0개, 반일제이상 학원 3.2개로 예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표 V-1-7참조). 4차년도에 특별활동 이용 과목수가 약간 감소했던 어린이집의 경우 다시 약간 증가한 반면, 약간의 증가 양상을 보였던 유치원과 반일제이상 학원의 특성화프로그램 과목 수는 다시 약간 감소한 양상을 보였다.

〈표 V-1-7〉 이용 기관별 영유아의 특별활동 이용 과목 수 (2018~2022년)

단위: 개, (명)

구분	어린이집 특별활동 과목 수	유치원특성화 프로그램 과목 수	반일제이상 학원 특성화 프로그램 과목 수
1차년도(2018년)	3.0 (726)	3.1 (401)	2.9 (44)
2차년도(2019년)	3.0 (734)	3.1 (288)	2.9 (18)
3차년도(2020년)	2.9 (459)	2.9 (211)	2.9 (10)
4차년도(2021년)	2.7 (792)	3.2 (501)	3.4 (16)
5차년도(2022년)	3.0 (843)	3.0 (545)	3.2 (15)

주: 특별활동 이용자 기준 평균 값임.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2) 최효미 외(2021). p. 167〈표 V-1-7〉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특별활동 및 특성화프로그램 이용 변화를 살펴보면 반일제이상 학원 등은 차이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88.3%였으며 유치원 72.4%, 어린이집 67.1%로 차이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코로나19로 차이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어린이집이 9.0%, 유치원 7.7%, 반일제이상 학원 등은 0.0%로 나타나 반일제이상 학원 등은 거의 이용변화가 없었고 일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에만 이용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8〉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특별활동 및 특성화프로그램 이용 변화 (2022년)

단위: 개, %, (명)

구분	이용 과목수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이용계획 개수	차이여부			
			차이가 있다	차이가 없다	잘 모르겠다	계(수)
어린이집	3.0	3.0	9.0	67.1	23.9	100.0 (1,177)
유치원	3.0	3.0	7.7	72.4	20.0	100.0 (648)
반일제이상 학원 등	3.2	-	0.0	88.3	11.7	100.0 (27)

주: 반일제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3) 이용시간

각 반일제이상 기관 유형별 영유아의 주당 평균 이용 시간을 살펴보면 2022년 5차 조사에서는 어린이집은 34.9시간, 유치원은 34.8시간, 반일제이상 학원 등은 35.1시간으로 서로 큰 차이 없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표 V-1-9 참조).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1~5차년도 조사 결과 이용 시간에 큰 변화 없었으나, 반일제이상 학원 등의 경우 1차년도 이후 이용 시간이 지속 증가하다 전년도 잠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5차년도 조사에서는 1차년도(28.3 시간) 대비 약 7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9〉 연도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주당 평균 이용 시간 (2018~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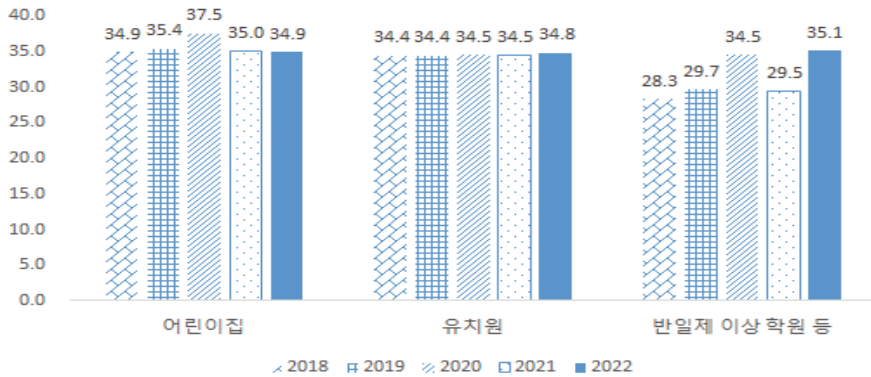
단위: 시간, (명)

구분	1차년도(2018년)	2차년도(2019년)	3차년도(2020년)	4차년도(2021년)	5차년도(2022년)
어린이집	34.9 (1,163)	35.4 (1,235)	37.5 (1,139)	35.0 (1,196)	34.9 (1,851)
유치원	34.4 (630)	34.4 (617)	34.5 (551)	34.5 (682)	34.8 (1,177)
반일제 이상 학원 등	28.3 (74)	29.7 (37)	34.5 (24)	29.5 (31)	35.1 (648)

주: 1) 반일제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2) 해당 서비스 이용자 기준으로 산출함.
3) 3차년도 이용시간은 시간표로 조사된 시간을 합산한 값이며, 1차, 2차, 4차, 5차년도는 하루 이용시간에 5일로 곱하여 산출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2) 최효미 외(2021). p. 169(표 V-1-9)

[그림 V-1-2] 연도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주당 평균 이용 시간 (2018~2022년)

단위: %



주: <표 V-1-9>를 기반으로 구성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다음으로 2022년도 5차년도 조사에서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하루 평균 이용시간을 가구특성별로 살펴보았다.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 총 자녀수, 지역규모, 아동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맞벌이 가구는 하루 평균 7시간 24분을 이용하여 외벌이 가구의 6시간 34분에 비해 하루 평균 약 50분 더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은 300만원 이상의 가구에서 소득이 높아질수록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여 300~399만원 이하 가구(6시간 42분)와 비교해 600만원 이상 가구(7시간 21분)의 영유아는 하루 평균 약 39분 더 긴 시간 이용하였다. 또한 총 자녀수가 많을수록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증가하였다. 총 자녀수가 1명인 경우 하루 평균 6시간 47분을 이용하였으나 총 자녀수가 2명인 경우 6시간 58분, 3명 이상인 경우 7시간 11분으로 점점 긴 시간을 이용하는 경향이였다.

지역규모는 작을수록 이용 시간이 증가하여 대도시에 거주하는 영유아는 하루 평균 6시간 50분 어린이집을 이용하나 읍면지역 거주 영유아는 평균 7시간 7분을 이용하였다. 아동 연령의 경우 5세를 제외하고는 1세~6세까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시간도 6시간 17분에서 7시간 14분으로 약 57분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이용 유아의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7시간 1분이며, 맞벌이 가구 여부,

가구소득, 총 자녀수, 아동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맞벌이 가구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 가구 유아의 유치원 이용 시간이 길어서 하루 평균 7시간 20분을 이용하는 반면 외벌이 가구 유아는 6시간 45분을 이용해 평균 35분의 차이를 보였으며,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의 가구 유아가 유치원 이용 시간이 가장 길어 평균 7시간 23분 이용하며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의 가구 유아가 평균 6시간 48분을 이용해 가장 이용시간이 짧은 소득 구간이었다. 이는 고소득 가구일수록 맞벌이 가구의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총 자녀수의 경우도 어린이집 이용 시간 결과와 동일하게 자녀수가 많을수록 영유아의 유치원 이용 시간이 증가하였고, 지역 규모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반일제이상 학원 등 이용 영유아의 이용 시간은 가구소득에 따라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600만원 이상 가구의 영유아가 반일제이상 학원 등을 이용하는 시간이 5시간 44분으로 가장 짧은 시간을 이용하였고, 500~599만원 이하 가구가 7시간 37분으로 가장 긴 시간 이용하였다. 이는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소득이 증가할수록 이용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던 것과 차이가 있었다.

〈표 V-1-10〉 가구특성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하루 평균 이용시간 (2022년)

단위: 시간, 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등
전체(2022)		6시 58분 (1,177)	7시 1분 (648)	6시 10분 (27)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7시 24분 (561)	7시 20분 (302)	6시 33분 (12)
	외벌이	6시 34분 (616)	6시 45분 (346)	5시 51분 (14)
	<i>t</i>	11.6***	7.5***	1.6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6시 46분 (111)	6시 48분 (49)	- (0)
	300~399만원 이하	6시 42분 (320)	6시 50분 (155)	6시 44분 (3)
	400~499만원 이하	6시 55분 (280)	6시 57분 (167)	6시 9분 (6)
	500~599만원 이하	7시 6분 (211)	6시 60분 (133)	7시 37분 (3)
	600만원 이상	7시 21분 (255)	7시 23분 (144)	5시 44분 (15)
	<i>F</i>	10.7***	7.1***	3.5*
총 자녀수	1명	6시 47분 (265)	6시 50분 (101)	6시 52분 (5)
	2명	6시 58분 (668)	6시 59분 (423)	6시 9분 (17)
	3명이상	7시 11분 (244)	7시 16분 (124)	5시 22분 (4)
	<i>F</i>	6.7**	5.6**	2.2
지역 규모	대도시	6시 50분 (433)	6시 58분 (263)	6시 9분 (11)
	중소도시	7시 2분 (547)	7시 1분 (281)	6시 7분 (13)
	읍면지역	7시 7분 (197)	7시 8분 (104)	6시 40분 (2)
	<i>F</i>	4.4*	1	0.2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등
아동 연령	0세(2022년생)	6시 38분 (3)	- (0)	- (0)
	1세(2021년생)	6시 17분 (76)	- (0)	- (0)
	2세(2020년생)	6시 55분 (237)	- (0)	5시 40분 (1)
	3세(2019년생)	6시 57분 (319)	4시 31분 (2)	5시 30분 (1)
	4세(2018년생)	7시 10분 (214)	7시 0분 (139)	6시 4분 (5)
	5세(2017년생)	6시 55분 (178)	7시 2분 (229)	6시 10분 (5)
	6세(2016년생)	7시 14분 (150)	7시 2분 (278)	6시 16분 (15)
<i>F</i>		5.8***	3.7*	0.1

주: 반일제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 $p < .05$, ** $p < .01$, *** $p < .001$.

한편 반일제이상 기관의 이용을 줄이고 싶은 가구를 대상으로 주당 얼마나 이용을 줄이고 싶은지를 질문하였다. <표 V-1-11>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경우 가구특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유치원의 경우 맞벌이 가구 여부와 지역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맞벌이 가구는 주당 6.2시간(하루 평균 1.24시간)을 외벌이 가구는 주당 3.3시간(하루 평균 0.66시간)을 줄이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의 유치원 하루 평균 이용시간이 각각 7.33시간과 6.75시간이며 줄이고 싶은 시간이 각각 1.24시간과 0.66시간임을 고려해보면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가 동일하게 하루 평균 약 6.09시간 정도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표 V-1-11>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을 줄이고 싶은 주당 평균 시간 (2022년)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전체		6.6 (42)	5.3 (33)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6.9 (33)	6.2 (23)
	외벌이	5.5 (8)	3.3 (10)
	<i>t</i>	0.9	2.8**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7.5 (4)	- (0)
	300~399만원 이하	6.4 (3)	4.8 (10)
	400~499만원 이하	8.6 (3)	4.9 (9)
	500~599만원 이하	6.8 (15)	7.0 (5)
	600만원 이상	5.9 (16)	5.5 (9)
	<i>F</i>	0.3	0.7
총 자녀수	1명	6.9 (7)	7.6 (6)
	2명	7.0 (26)	5.0 (23)
	3명이상	5.3 (9)	4.0 (4)
	<i>F</i>	0.5	2.5

단위: 시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 규모	대도시	6.6	(18)	6.1	(18)
	중소도시	6.6	(18)	3.4	(12)
	읍면지역	6.5	(6)	8.4	(3)
<i>F</i>		0.0		6.3**	
아동 연령	0세(2022년생)	-	(0)	-	(0)
	1세(2021년생)	9.2	(3)	-	(0)
	2세(2020년생)	7.5	(10)	-	(0)
	3세(2019년생)	4.8	(7)	-	(0)
	4세(2018년생)	7.4	(10)	5.1	(9)
	5세(2017년생)	3.9	(3)	5.2	(12)
	6세(2016년생)	6.2	(8)	5.7	(12)
<i>F</i>		1.0		0.1	
현재 이용 시간	8시간 미만	4.9	(12)	5.0	(21)
	8시간 이상	7.4	(29)	5.8	(12)
<i>F</i>		3.1		0.5	

주: 반일제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 $p < .01$

4) 이용비용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의 월평균 이용비용을 연도별로 살펴보았다. <표 V-1-12>에 따르면 2022년 5차년도 조사에서 어린이집 이용시 월평균 이용비용은 7만1천원, 유치원은 12만원, 반일제이상 학원 등 이용 시 98만4천원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은 3차년도 이후 0.5만원씩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유치원은 2차년도 이후 지속 감소하여 5차년도에는 가장 낮은 12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반일제이상 학원 등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에 비해서 이용비용이 매우 높은 경향이 지속되고 있었으나 특히 5차년도에 4차년도 대비 급격한 비용 상승을 보이며 어린이집, 유치원과의 이용비용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

<표 V-1-12> 연도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월평균 이용 비용 (실질비용, 2018~2022년)

단위: 만원, (명)

구분	1차년도(2018년)	2차년도(2019년)	3차년도(2020년)	4차년도(2021년)	5차년도(2022년)
어린이집	6.7 (1,163)	7.9 (1,235)	6.1 (1,139)	7.0 (1,196)	7.1(1,177)
유치원	14.4 (630)	15.3 (617)	13.7 (551)	13.9 (682)	12.0(648)
반일제 이상 학원 등	57.9 (74)	71.6 (37)	89.2 (24)	90.1 (31)	98.4(27)

주: 1) 반일제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2) 반일제이상 이용 비용은 2022년 공표된 소비자물가지수(2020=100)을 통해 2020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로 본 표에 제시된 1~4차년도 결과는 소비자물가지수(2015=100)을 통해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하여 제시되었던 1~4차년도 소비실태조사 보고서 결과와 차이가 있음.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월평균 이용비용을 가구특성별로 살펴보았다. 어린이집의 경우 가구특성 중 총 자녀수에 따른 이용비용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2명일 때 어린이집 이용비용이 평균 7만5천으로 가장 높았고 1명과 3명이상이 각각 6만4천원, 6만6천원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유치원 이용비용은 가구소득, 총 자녀수, 지역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대체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월평균 유치원 이용비용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총 자녀수에 따라서는 총 자녀수가 많을수록 유치원 이용 유아의 월평균 이용비용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이용비용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대상 유아들이 이용하는 유치원의 지역 규모별 설립유형 분포에 따른 차이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반일제이상 학원의 월평균 이용비용은 가구특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V-1-13〉 가구특성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월평균 이용비용 (2022년)

단위: 만원,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등
전체		7.1 (1,177)	12.0 (648)	98.4 (27)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7.1 (561)	12.5 (302)	103.5 (12)
	외벌이	7.0 (616)	11.5 (346)	94.1 (14)
<i>t</i>		0.1	1.1	0.6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5.9 (111)	10.0 (49)	- (0)
	300~399만원 이하	7.0 (320)	9.7 (155)	114.1 (3)
	400~499만원 이하	7.2 (280)	11.9 (167)	79.1 (6)
	500~599만원 이하	7.5 (211)	12.1 (133)	87.7 (3)
	600만원 이상	7.1 (255)	15.0 (144)	105.2 (15)
	<i>F</i>	1.5	4.0**	0.7
총 자녀수	1명	6.4 (265)	14.0 (101)	72.4 (5)
	2명	7.5 (668)	12.5 (423)	111.6 (17)
	3명이상	6.6 (244)	8.6 (124)	76.4 (4)
	<i>F</i>	4.4*	6.4**	2.6
지역 규모	대도시	6.8 (433)	14.9 (263)	107.1 (11)
	중소도시	7.5 (547)	11.6 (281)	88.5 (13)
	읍면지역	6.4 (197)	5.6 (104)	114.2 (2)
	<i>F</i>	2.9	23***	0.7

주: 1) 반일제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2) 반일제이상 이용비용은 2022년 공표된 소비자물가지수(2020=100)을 통해 2020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 $p < .05$, ** $p < .01$, *** $p < .001$.

한편 기관유형별 및 연도별로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시의 세부비용을 살펴보았다(표 V-1-14 참조). 어린이집의 경우 5차년도에는 특별활동 비용이 4만2천원으로 총액 7만1천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육료는 2만4천원에 해당하였다. 보육료는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특별활동 비용이 전년대비 다소 상승하여 5차년도의 어린이집 이용비용(총액)도 다소 증가하였다.

〈표 V-1-14〉 기관유형별 및 연도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월평균 세부비용
(실질비용, 2018~2022년)

단위: 만원, (명)

구분		보육료/ 교육료/ 수업료	그 밖의 비용	시간 연장형 보육 /방과후	어린이집 특별활동/ 유치원 특성화/ 특별활동	총계 (수)
어린이집	1차년도(2018년)	0.8	1.9	0.1	3.4	6.7 (1,163)
	2차년도(2019년)	1.0	1.8	0.0	4.4	7.9 (1,235)
	3차년도(2020년)	1.2	1.8	0.1	2.8	6.1 (1,139)
	4차년도(2021년)	2.6	0.0	0.0	4.0	7.0 (1,196)
	5차년도(2022년)	2.4	0.0	0.1	4.2	7.1 (1,177)
유치원	1차년도(2018년)	5.6	2.9	0.3	4.4	14.4 (630)
	2차년도(2019년)	6.7	2.8	0.6	4.5	15.3 (617)
	3차년도(2020년)	7.2	2.2	0.4	3.5	13.7 (551)
	4차년도(2021년)	5.4	2.1	0.6	4.8	13.9 (682)
	5차년도(2022년)	4.5	1.8	0.4	4.8	12.0 (648)
반일제 이상 학원 등	1차년도(2018년)	45.4	6.6	0.0	5.9	57.9 (74)
	2차년도(2019년)	54.6	10.2	0.0	6.8	71.6 (37)
	3차년도(2020년)	71.8	7.7	0.0	9.7	89.2 (24)
	4차년도(2021년)	73.9	9.5	0.0	6.6	90.1 (31)
	5차년도(2022년)	76.7	11.2	0.0	10.6	98.4 (27)

주: 1) 보육료,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특별활동은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서비스이며, 교육료, 방과후 과정,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은 유치원에 해당하며, 반일제 이상 학원 등은 수업료와 특별활동이 해당됨.

2) 반일제이상 이용비용은 2022년 공표된 소비자물가지수(2020=100)을 통해 2020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로 본 표에 제시된 1~4차년도 결과는 소비자물가지수(2015=100)을 통해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하여 제시되었던 1~4차년도 소비실태조사 보고서 결과와 차이가 있음.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유치원 이용비용의 경우 총액 12만원 중 교육비가 4만5천원, 특성화프로그램 이용비용이 4만8천원으로 비슷한 비중을 보였다. 1~4차년도에 걸쳐 유치원 이용비용은 교육비가 특성화프로그램 이용비용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해왔으나, 5차년

도에서는 교육비는 4차년도에 비해 감소하여 조사가 시작된 2018년 이후 가장 낮게 나타났고, 특성화프로그램 이용비용은 4차년도와 동일하게 나타남에 따라 처음으로 교육비보다 특성화프로그램 이용비용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반일제 이상 학원 등의 경우 5차년도 응답 결과 수업료는 76만7천원으로 총액 98만4천원 중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수업료, 기타 비용, 특별활동 비용 모두 4차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총액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5) 서비스 만족도

반일제이상 기관 유형별 만족도는 다음 <표 V-1-15>에 제시된 바와 같다. ‘매우 만족’과 ‘대체로 만족’을 합한 비율로 살펴 본 만족 비중은 어린이집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89.8%, 유치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87.5%, 반일제이상 학원 비용에 대한 만족 비율은 84.8%로 나타났으며, 이는 4차년도 조사 결과 대비 모두 상승한 결과이다.

5점 척도(‘매우 불만족’ 1점~‘매우 만족’ 5점)로 측정한 기준에서는 모든 서비스 유형에 대해 4점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수준이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 만족한다는 비중과 평균 점수가 1차 조사 이후 지속 상승하였으나, 반일제이상 학원 비용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중은 3차년도에 크게 하락한 이후 소폭씩 상승하고 있으며, 평균 점수는 2차년도 4.2점으로 응답된 이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15>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만족도 (2018~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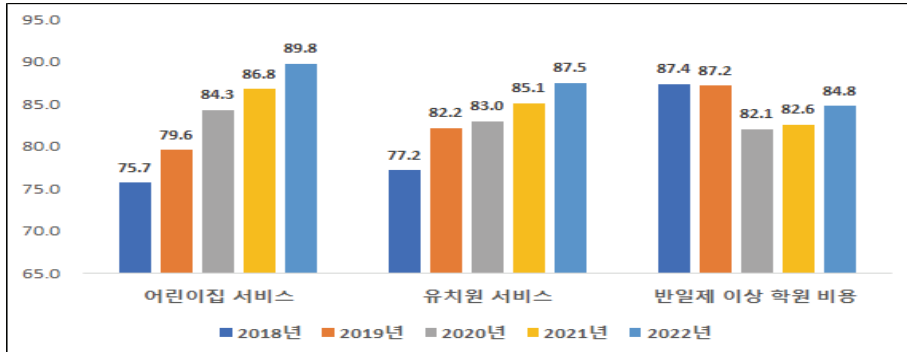
단위: %, 점

구분	어린이집 서비스		유치원 서비스		반일제이상 학원 비용	
	만족 비중	평균점수	만족 비중	평균점수	만족 비중	평균점수
1차년도(2018년)	75.7	3.9	77.2	3.9	87.4	4.0
2차년도(2019년)	79.6	3.9	82.2	4.0	87.2	4.2
3차년도(2020년)	84.3	4.0	83.0	4.0	82.1	4.0
4차년도(2021년)	86.8	4.0	85.1	4.0	82.6	4.0
5차년도(2022년)	89.8	4.1	87.5	4.1	84.8	4.0

주: ‘매우 불만족=1’~‘매우 만족=5’로 역코드 하여 산출한 수치임.
 자료: 1) 최효미 외(2021). p. 175.<표 V-1-14>에 5차년도 본 조사 결과를 추가함.
 2)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그림 V-1-3] 연도별 영유아의 반일제 이상 기관 만족도 (2018~2022년)

단위: %



주: <표 V-1-15>를 기반으로 구성함.
 자료: 1) 최효미 외(2021). p. 175.<표 V-1-14>에 5차년도 본 조사 결과를 추가함.
 2)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는 자녀에 대해 현재 이용하는 양육 형태가 자녀 연령대별 원하는 양육 형태인지의 여부 및 원하는 형태가 아니라면, 실제 희망하는 양육 형태는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V-1-16)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전 연령에 걸쳐 현재 원하는 형태의 양육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낮게는 85.4%부터 높게는 100%까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이 희망하는 양육 형태를 살펴보면 자녀 연령대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1세~2세에서는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보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1.6%, 56.8%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3세의 경우 가정에서 부모가 돌보며 시간제 양육지원 이용을 희망하는 가구의 비중이 44.3%로 가장 높았고 4세, 5세, 6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서는 유치원 이용을 희망한다는 응답이 각각 42.1%, 58.9%, 60%의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는 가구는 전 연령에 걸쳐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V-1-16〉 해당 자녀의 연령에서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 여부 및 희망하는 양육 형태 (2022년)

단위: %, (명)

구분		원하는 양육 형태 여부		자녀 연령대별 가장 희망하는 양육 형태						
		원하는 형태임	(수)	유치원 이용	어린이 집 이용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가정에서 부모가 돌봄	가정에서 부모가 돌봄+시 간제 양육지원 이용	가정에서 조부모, 육아도우미 등이 대리 돌봄	계(수)
전체		94.5	(1,825)	37.4	9.1	7.5	23.4	21.8	0.9	100.0 (100)
아동 연령	0세(2022년생)	100.0	(3)	0.0	0.0	0.0	0.0	0.0	0.0	100.0 (0)
	1세(2021년생)	85.4	(76)	0.0	0.0	0.0	61.6	38.4	0.0	100.0 (11)
	2세(2020년생)	94.0	(237)	6.3	0.0	6.0	56.8	24.9	6.0	100.0 (14)
	3세(2019년생)	95.8	(320)	30.5	0.0	5.8	19.4	44.3	0.0	100.0 (13)
	4세(2018년생)	93.4	(353)	42.1	12.1	12.4	16.7	16.7	0.0	100.0 (23)
	5세(2017년생)	94.6	(408)	58.9	13.7	13.6	9.1	4.6	0.0	100.0 (22)
	6세(2016년생)	96.2	(428)	60.0	20.1	0.0	0.0	19.9	0.0	100.0 (16)
χ^2		16.7*		56.6***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 $p < .05$, *** $p < .001$.

희망하는 양육 형태로 양육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1세부터 5세를 양육하는 가구에서는 일을 하고 있어서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1세, 2세 저연령에서 각각 77.5%, 81.7%로 높게 나타났다. 6세를 양육하는 가구에서는 비용 부담이라는 응답이 39.8%로 가장 높았으며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가 26.9%, 일을 하고 있어서가 19.9% 순으로 나타났다.

〈표 V-1-17〉 아동연령별 가장 희망하는 형태의 양육을 하지 않는 이유 (2022년)

단위: %, (명)

구분		비용 부담	일을 하고 있어서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집 근처에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아이를 맡길만한 인력을 찾지 못해서	원하는 서비스 수준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이 달라서	서비스 이용 자격에 해당하지 않아서	기타	계(수)
전체		18.9	37.9	9.3	9.2	6.8	1.7	6.9	1.8	7.4	100.0 (100)
아동 연령	0세(2022년생)	-	-	-	-	-	-	-	-	-	- (0)
	1세(2021년생)	7.5	77.5	0.0	0.0	0.0	7.5	0.0	0.0	7.5	100.0 (11)
	2세(2020년생)	6.3	81.7	0.0	0.0	0.0	0.0	6.0	0.0	6.0	100.0 (14)
	3세(2019년생)	29.2	32.4	0.0	5.8	6.5	0.0	6.5	6.5	13.0	100.0 (13)
	4세(2018년생)	7.9	17.7	8.4	16.3	17.0	3.9	16.0	4.2	8.6	100.0 (23)
	5세(2017년생)	22.7	27.3	13.6	16.0	4.5	0.0	6.9	0.0	9.0	100.0 (22)

구분	비용 부담	일을 하고 있어서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집 근처에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아이를 맡길만한 인력을 찾지 못해서	원하는 서비스 수준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이 달라서	서비스 이용 자격에 해당하지 않아서	기타	계(수)
6세(2016년생)	39.8	19.9	26.9	6.9	6.5	0.0	0.0	0.0	0.0	100.0 (16)
χ^2	59.0*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 $p < .05$.

6) 온라인 수업

한편 반일제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조사시점 이전 3개월 간 반일제이상 기관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여부와 월평균 온라인 수업 횟수, 온라인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하였다.

〈표 V-1-18〉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는 1.5%가 온라인 수업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고, 유치원에서는 3.8%, 반일제이상 학원에서는 3.9%가 온라인 수업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4차년도 대비 크게 감소한 결과이다. 온라인 수업을 경험한 경우 월평균 수업 횟수를 4차년도 결과와 비교해보면 어린이집은 월평균 2.9회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유치원은 2.8회로 매우 감소하였으며, 반일제이상 학원은 10회로 크게 증가하였다. 온라인 수업 경험 및 월평균 수업 횟수 모두 반일제이상 학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18〉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온라인 수업 경험 및 횟수 (2018~2022년)

단위: %, 회,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 경험	월평균 수업 횟수	계(수)	이용 경험	월평균 수업 횟수	계(수)	이용 경험	월평균 수업 횟수	계(수)
4차년도(2021년)	2.6	2.6	100.0(31)	5.8	6.5	100.0(39)	6.9	2.0	100.0(2)
5차년도(2022년)	1.5	2.9	100.0(18)	3.8	2.8	100.0(25)	3.9	10.0	100.0(1)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2) 최효미 외(2021). p. 175.〈표 V-1-15〉

이러한 온라인 수업을 이용한 경우 만족도는 어린이집의 경우 3.7점, 유치원은 3.4점, 반일제이상 학원 4.0점으로 4차년도 조사 결과 대비 모두 소폭 상승하였다.

반일제이상 기관별로 온라인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본 결과는 다음(표 V-1-19)과 같다. 어린이집의 경우 ‘매우 만족’의 응답 비율이 14.2%, ‘대체로 만족’ 51.4%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65.6%였으며, 유치원의 경우 ‘매우 만족’ 8.1%, ‘대체로 만족’ 52.3%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60.4%, 반일제이상 학원의 경우 ‘매우 만족’은 0%, ‘대체로 만족’ 100.0%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100.0%로, 반일제이상 학원의 경우 온라인 수업에 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만 반일제이상 학원 응답 사례가 1사례로 조사 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것에는 주의가 따른다.

〈표 V-1-19〉 반일제 이상 기관의 온라인 수업 만족도 (2021-2022년)

단위: %, 점, (명)

구분	만족도(2022)					만족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4차년도 (2021)	5차년도 (2022)	
어린이집	14.2	51.4	29.2	5.2	0.0	3.6	3.7	100.0 (18)
유치원	8.1	52.3	17.5	13.2	8.9	3.1	3.4	100.0 (25)
반일제 이상 학원	0.0	100.0	0.0	0.0	0.0	3.5	4.0	100.0 (1)

주: 만족도 점수는 ‘매우 불만족=1점’~‘매우 만족=5점’의 5점 척도로 측정된 결과임.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2) 최효미 외(2021). p. 176.〈표 V-1-16〉

7) 코로나19로 인한 이유로 반일제이상 기관 미등원 경험

조사시점 기준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이유로 반일제이상 기관을 등원하지 않은 적이 있다면 어떤 이유로 얼마나 있었는지의 경험을 살펴보았다. 먼저 미등원 일수를 살펴본 결과 자녀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자녀수가 많을수록 미등원 일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동거가족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등원하지 못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구체적인 미등원 이유로는 ‘기관의 휴원으로 인한 미등원’이 42.3%, ‘동거가족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미등원’이 41.5%, ‘자녀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미등원’이 40.2%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에 따른 미등원 이유의 차이를 살펴보면 총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의 코로나19 확진, 동거가족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미등원 경험이 증가하였고, 지역규모가 클수록 동거가족의 코로나19 확진과 기관의 휴원으로 인한 미등원 경험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용기관 유형의 경우

반일제이상 기관은 동거가족 확진, 기관의 휴원으로 인한 미등원 경험이 19.7%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V-1-20〉 제특성별 코로나19로 인한 사유별 기관 미등원 경험

단위: %, 일,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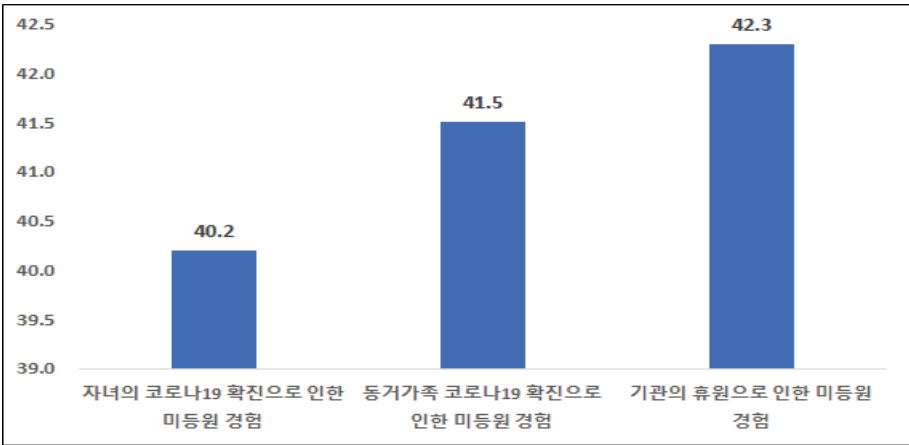
구분		사유별 미등원 경험				미등원 일수 (지난1년)	계(수)
		자녀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미등원 경험	동거가족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미등원 경험	기관의 휴원으로 인한 미등원 경험	계(수)		
전체		40.2	41.5	42.3	(1,851)	21.2	(1,080)
총 자녀수	1명	30.8	30.5	40.9	(371)	17.8	(196)
	2명	40.5	42.5	41.3	(1,108)	20.2	(655)
	3명이상	48.5	49.6	46.5	(372)	27.1	(229)
	χ^2/F	24.7***	29.2***	3.5		10.6***	
지역규모	대도시	42.9	44.2	44.8	(707)	21.8	(419)
	중소도시	39.3	41.3	42.5	(841)	21.7	(499)
	읍면지역	36.3	35.9	35.6	(303)	18.3	(162)
	χ^2/F	4.3	6.1*	7.4*		1.6	
이용 기관 유형	어린이집	39.7	40.7	44.6	(1,177)	21.8	(701)
	유치원	41.1	43.9	38.9	(648)	20.3	(368)
	반일제이상 기관	34.8	19.7	19.7	(27)	14.0	(10)
	χ^2/F	0.7	7.2*	11.3**		1.1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V-1-4〉 코로나19로 인한 사유별 기관 미등원 경험

단위: %



주: 〈표 V-1-20〉을 기반으로 구성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나. 시간제 사교육⁵¹⁾

1) 이용기관

영유아가 지난 3개월 이내 이용한 시간제 사교육에 대해 질문한 결과, 5차년도 조사에서는 단시간 학원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21.9%로 가장 높았다. 그 외 방문형 학습지는 12.0%, 문화센터 7.6%, 교육형 온라인 콘텐츠 3.4%,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3.3%,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2.2%, 개인 및 그룹지도 1.9% 순으로 나타났다. 단시간 학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3차 조사 결과에서 감소를 보였었지만 4차 조사에서 이용률이 크게 증가한 후 또다시 0.6% 포인트 증가하였으나, 방문형 학습지는 다시 3차 조사 수준인 12%로 크게 하락하였다. 비대면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인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통신교육/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이용률은 4차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고, 문화센터와 개인 및 그룹지도 이용률은 각각 1.9%p, 0.5%p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은 회복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표 V-1-21〉 연도별 시간제 사교육 이용 (2018~2022년)

단위: %(명)

구분	1차년도(2018년)	2차년도(2019년)	3차년도(2020년)	4차년도(2021년)	5차년도(2022년)
단시간 학원	15.5 (353)	16.0 (372)	12.9 (304)	21.3 (506)	21.9 (524)
방문형학습지	15.3 (349)	14.6 (341)	12.1 (287)	15.0 (356)	12.0 (286)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2.2 (49)	1.7 (40)	1.5 (35)	2.1 (49)	2.2 (52)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교육	3.2 (72)	3.2 (74)	3.9 (91)	3.4 (80)	3.3 (79)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1.1 (26)	1.1 (25)	1.0 (23)		
개인 및 그룹지도	3.2 (73)	2.5 (58)	1.5 (35)	1.4 (32)	1.9 (46)
문화센터	10.0 (228)	8.2 (190)	0.9 (21)	5.7 (134)	7.6 (181)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3.2 (76)	3.4 (81)

주: 1) 전체 영유아 중 해당 서비스 이용자 비중으로, 중복 응답 문항임.

2) 사선으로 표현된 서비스는 해당 연도에 조사가 되지 않은 항목임.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2) 최효미 외(2021). p. 177.〈표 V-1-17〉

51) 반일제 이상 학원 제외

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에 이어 영유아의 높은 이용률을 보이는 문화센터 이용기관에 대해 살펴보면 백화점, 마트의 문화센터 이용자가 83.3%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29.8%, 주민센터 15.1%, 기타 5.7%의 순으로 응답되었다(표 V-1-22 참조).

〈표 V-1-22〉 영유아의 문화센터 이용기관(2022년)

단위: %, (명)

백화점, 마트	주민센터	공공기관	기타	(수)
83.3	15.1	29.8	5.7	(181)

주: 1) 이용 기관을 중복응답한 결과임.

2) 기관별 이용률은 문화센터 전체 이용자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중복 이용 문항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다음으로 가구특성별로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 비중을 살펴보았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에 비해 문화센터와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를 제외한 모든 시간제 사교육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이용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반대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문화센터 이용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자녀수가 적을수록, 지역규모가 클수록 문화센터 이용 비율이 높았고 반일제이상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문화센터 이용 비중이 7.4%로 이용률이 1% 내외인 여타의 시간제 사교육과 비교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문화센터의 주된 이용 층이 영아가구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 사료된다.

〈표 V-1-23〉 가구특성별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 비중 (2022년)

단위: %

구분	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개인 및 그룹 지도	문화 센터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전체	21.9	12.0	2.2	3.3	1.9	7.6	3.4
맞벌이	25.4	14.1	2.6	3.9	2.2	7.3	3.3
가구 여부	19.2	10.3	1.9	2.8	1.7	7.7	3.4
가구 소득	11.9	9.0	1.5	5.1	0.0	9.1	2.6
299만원 이하	16.2	10.1	1.9	2.4	0.7	9.1	4.0
300~399만원	23.9	11.6	0.9	2.9	2.9	6.7	3.0
400~499만원	26.5	13.6	2.0	3.3	2.4	7.6	3.2
500~599만원	26.9	14.5	4.3	4.2	2.7	5.8	3.5
600만원 이상							

구분		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개인 및 그룹 지도	문화 센터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총 자녀수	1명	12.9	10.0	2.7	2.3	1.5	12.8	2.9
	2명	26.7	13.2	2.5	3.8	1.9	6.1	3.8
	3명이상	19.1	10.7	0.4	3.1	2.6	5.2	2.6
지역규모	대도시	22.4	13.2	2.4	3.4	1.7	9.3	2.6
	중소도시	23.6	12.0	1.7	3.6	1.8	6.9	3.6
	읍면지역	16.2	9.0	2.9	2.4	2.5	5.4	4.6
반일제 이상기관 이용 여부	이용	27.9	15.2	2.6	4.2	2.4	7.6	4.2
	미이용	1.2	0.8	0.8	0.1	0.2	7.4	0.4

주: 이용 비중은 해당 가구특성별 영유아 중 각 서비스 이용자 비중이며, 중복 이용 문항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2) 이용시간

지난 3개월 동안 이용한 시간제 사교육의 주당 평균 이용시간의 1~5차년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5차년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단시간 학원은 주당 평균 3.9시간을 이용해 영유아의 이용률이 가장 높고 이용시간도 가장 긴 보편적인 사교육 형태로 나타났다. 이외 방문형 학습지 0.6시간,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0.7시간,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3.6시간, 개인 및 그룹지도 2.2시간, 문화센터 1.3시간,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는 1.9시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24>에 제시된 결과에 따르면 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구활동 교육은 1~5차년도에 걸쳐 이용시간에 변화가 별로 없이 이용되는 사교육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비방문형 학습지,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등 비대면서비스는 여타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 시간이 4차년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과 달리 이용 시간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표 V-1-24> 연도별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주당 이용 시간 (2018~2022년)

단위: 시간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단시간 학원	3.2	3.5	5.6	4.2	3.9
방문형학습지	0.6	0.5	0.6	0.6	0.6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1.1	0.7	0.8	0.8	0.7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교육	1.0	1.1	1.6	1.7	3.6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1.3	1.0	1.3		
개인 및 그룹지도	1.9	1.7	2.1	2.8	2.2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문화센터	1.2	1.1	2.3	1.2	1.3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1.9	1.9

주: 1) 이용 시간은 해당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2) 사선인 서비스는 해당 연도에 조사가 되지 않은 항목임.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2) 최효미 외(2021). p. 180.〈표 V-1-20〉

한편, 영유아가 이용하는 시간제 사교육 과목을 ‘학습관련’, ‘예체능’의 목적으로 나누고 구분(유형)별로 주당 이용시간을 살펴보았다. 같은 유형의 사교육에서도 이용 과목의 목적이 ‘학습관련’인지, ‘예체능’ 특기 교육인지에 따라 이용시간의 장단에 차이가 있었다. 단시간 학원의 경우 학습관련 과목은 주당 2시간 30분, 예체능 과목은 3시간 40분으로 예체능 과목의 이용시간이 길었으며, 방문형 학습지는 학습관련 혹은 예체능 과목의 이용시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학습관련 과목의 이용시간이 가장 긴 사교육 유형은 비방문형 교구활동 교육으로 주당 3시간 47분을 이용하였고, 예체능 과목의 경우 단시간 학원으로 3시간 40분 이용하였다. 학습관련 과목 및 예체능 과목 모두 이용시간이 가장 짧은 유형은 ‘방문형 학습지’로 나타났다.

〈표 V-1-25〉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유형별 주당 이용시간 (2022년)

단위: 시간, 분, (명)

구분	학습관련		예체능	
	이용시간	(수)	이용시간	(수)
단시간 학원	2시간 30분	(124)	3시간 40분	(475)
방문형 학습지	36분	(266)	30분	(34)
방문형 교구 활동교육	43분	(24)	43분	(29)
비방문형 교구 활동교육	3시간 47분	(73)	41분	(8)
개인 및 그룹지도	1시간 53분	(36)	1시간 56분	(15)
문화센터	58분	(26)	1시간 16분	(167)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1시간 57분	(73)	54분	(7)

주: 1) 이용 시간은 해당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2) 학습관련 학원에는 한글, 영어, 영어 외 언어, 수학 및 과학, 종합교과가 포함되며, 예체능 학원에는 체육, 음악, 미술, 기타가 포함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3) 이용비용

2018년 1차 조사에서 2022년 5차 조사에 이르기까지 시간제 사교육의 유형별 월평균 이용비용을 살펴보았다. 〈표 V-1-26〉에 따르면 우선 5차년도 조사에서 월

평균 이용비용이 가장 높은 시간제 사교육의 유형은 ‘개인 및 그룹지도’로 월평균 21만5천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단시간 학원’은 월평균 이용비용이 16만6천원,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과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이 9만9천원,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9만2천원, ‘방문형학습지’ 8만9천원, ‘문화센터’ 5만2천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개인 및 그룹지도’의 경우 2020년 3차 조사에서의 14만9천원에서 2021년 4차 조사의 20만8천원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반면 ‘단시간 학원’의 경우 3차 조사에서는 17만1천원에서 4차년도 17만2천원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각 시간제 사교육 유형별 주당 이용시간의 변동에 따른 것으로 사료된다. 4차년도 대비 방문형학습지, 비방문 학습지 및 교구 활동교육, 개인 및 그룹지도는 이용비용이 상승하였고, 단시간학원,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문화센터,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는 이용비용이 다소 감소하였다.

〈표 V-1-26〉 연도별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월평균 이용비용 (실질비용, 2018~2022년)

단위: 만원

구분	1차년도(2018년)	2차년도(2019년)	3차년도(2020년)	4차년도(2021년)	5차년도(2022년)
단시간 학원	13.6	14.3	17.1	17.2	16.6
방문형학습지	7.5	7.2	8.2	8.4	8.9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10.4	9.2	11.4	10.0	9.9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교육	5.6	7.7	8.3	9.0	9.9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8.9	8.1	8.6		
개인 및 그룹지도	12.9	14.9	14.9	20.8	21.5
문화센터	5.2	4.9	5.5	5.4	5.2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9.9	9.2

주: 1) 이용비용은 해당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2) 사선인 서비스는 해당 연도에 조사가 되지 않은 항목임.

3) 시간제 사교육 월평균 이용비용은 2022년 공표된 소비자물가지수(2020=100)을 통해 2020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로 본 표에 제시된 1~4차년도 결과는 소비자물가지수(2015=100)을 통해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하여 제시되었던 1~4차년도 소비실태조사 보고서 결과와 차이가 있음.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한편 가구특성별 시간제 사교육 월평균 이용비용을 분석한 결과, 단시간 학원의 경우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비방문형 교구 활동교육은 맞벌이 여부에 따라 월평균 이용비용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단시간 학원의 월평균 이용비용은 300만원 이상 구간에서 대체로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서, 가구소득 300~399만원 이하에서는 단시간 학원 이용에 14만8천원을 지출하였지만,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에서는 18만8천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방문형 교구 활동의 월평균 이용비용은 맞벌이 가구가(11만7천원) 외벌이 가구에(7만9천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 V-1-27〉 가구특성별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월평균 이용비용 (2022년)

단위: 만원

구분		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구 활동교육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개인 및 그룹 지도	문화 센터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전체		16.6	8.9	9.9	9.9	21.5	5.2	9.2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6.7	9.3	10.2	11.7	24.5	5.7	9.1
	외벌이	16.4	8.5	9.6	7.9	18.6	4.8	9.2
<i>t</i>		0.4	1.1	0.4	2.4*	0.9	1.4	-0.1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5.9	9.0	9.6	10.4	-	3.9	6.8
	300~399만원 이하	14.8	8.4	10.0	10.2	10.4	4.9	10.3
	400~499만원 이하	16.0	9.0	11.1	8.0	22.2	6.0	9.4
	500~599만원 이하	16.4	8.5	9.6	7.8	18.6	5.3	10.3
	600만원 이상	18.8	9.6	9.7	12.2	26.5	5.4	7.1
	<i>F</i>	3*	0.4	0.1	1.1	0.6	0.8	1.2
총 자녀수	1명	18.2	10.2	10.6	8.3	20.1	5.4	9.9
	2명	16.7	8.4	9.7	10.6	26.5	5.2	8.8
	3명이상	14.6	9.1	8.4	8.8	11.9	4.5	9.8
	<i>F</i>	2.9	1.9	0.2	0.7	1.6	0.3	0.4
지역 규모	대도시	17.0	9.2	9.9	8.1	28.8	5.3	7.9
	중소도시	16.4	8.4	9.9	10.7	20.2	5.4	9.3
	읍면지역	15.8	9.8	9.8	12.0	12.5	4.1	10.5
	<i>F</i>	0.5	1	0	1.5	1.5	0.6	1.1

주: 1) 이용비용은 해당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2) 시간제 사교육 월평균 이용 비용은 2022년 공표된 소비자물가지수(2020=100)을 통해 2020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 $p < .05$

영유아의 이용률이 가장 높고 이용시간도 가장 긴 것으로 응답된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인 단시간 학원 비용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니 59.6%(매우 만족 3.9% + 대체로 만족 55.7%)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평균 점수 3.5~3.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V-1-28〉 단시간 학원 비용 만족도 (2022년)

단위: %, 점, (명)

구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평균 점수	계(수)
전체		3.9	55.7	31.4	8.3	0.8	3.5	(524)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3.0	52.9	34.9	8.0	1.2	3.5	(261)
	외벌이	4.7	58.5	27.9	8.5	0.4	3.6	(263)
	χ^2/t	4.7					-1.6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9.6	44.2	41.9	0.0	4.4	3.5	(23)
	300~399만원	6.4	57.5	25.5	9.6	0.9	3.6	(108)
	400~499만원	2.9	55.5	31.0	9.9	0.7	3.5	(142)
	500~599만원	2.7	56.0	34.2	7.1	0.0	3.5	(113)
	600만원 이상	2.8	56.3	32.3	7.8	0.8	3.5	(138)
	χ^2/F	14.9					0.2	
총 자녀수	1명	4.0	52.6	38.2	3.9	1.3	3.5	(75)
	2명	3.6	54.8	31.8	8.9	0.9	3.5	(363)
	3명이상	4.9	62.3	23.2	9.6	0.0	3.6	(86)
	χ^2/F	6.9					0.8	
지역규모	대도시	3.0	59.2	32.0	5.8	0.0	3.6	(204)
	중소도시	4.7	53.5	29.8	10.4	1.6	3.5	(255)
	읍면지역	3.1	53.7	35.4	7.7	0.0	3.5	(65)
	χ^2/F	9.6					1.1	

주: 1) 해당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2) 만족도는 '매우 만족=1'~'매우 불만족=5'로 측정된 수치를 역코딩 하여 산출함.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4) 만족도 및 개선요구

5차년도 조사에서 서비스 만족도가 가장 높은 시간제 사교육의 유형은 '개인 및 그룹지도'로 5점 만점에 평균 4.0점의 만족도를 보였고, '비방문형 교구활동'은 3.5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단시간학원'이 유일하게 4차년도 만족도 대비 소폭(0.1점) 상승하였고 여타 서비스 만족도는 4차년도 대비 유지 혹은 소폭 하락하였지만 시간제 사교육을 이용한 영유아 가구들은 보통 이상으로(최저 3.5 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29〉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만족도 (2018~2022년)

단위: 점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단시간학원	3.9	3.9	3.9	3.8	3.9
방문형학습지	3.6	3.6	3.8	3.8	3.8
방문형 교구활동	3.9	3.9	3.8	4.1	3.8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비방문형 학습지, 통신교육	3.5	3.5	3.8	3.7	3.5
비방문형 교구활동	3.7	3.9	3.9		
개인 및 그룹지도	3.9	4.0	3.9	4.1	4.0
문화센터	4.0	3.8			
교육용온라인콘텐츠				3.7	3.7

주: 해당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하였으며, 사선인 서비스는 해당 연도에 조사가 되지 않은 항목임.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2) 최효미 외(2021). p. 183. <표 V-1-24>

한편 이러한 시간제 사교육에 대한 비용 부담이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보통'이라는 응답이 45.4%로 가장 많았고, 부담된다'라는 응답(부담됨+매우 부담됨) 비율이 40%로 '부담 안된다'는 응답(부담안됨+전혀 부담안됨) 비율 14.5%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즉, 사교육 비용 부담의 평균은 5점 만점(전혀 부담안됨=1 ~ 매우 부담됨=5) 중 3.3점으로 부담감이 적당한 수준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으로 보인다.

〈표 V-1-30〉 사교육 비용 부담정도 (2022년)

단위: %, 점, (명)

구분		매우 부담됨	부담됨	보통	부담 안됨	전혀 부담 안됨	평균 점수	계(수)
전체		9.8	30.2	45.4	12.2	2.3	3.3	100.0 (786)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7.1	28.2	28.7	16.0	0.0	3.7	100.0 (44)
	300~399만원	10.8	30.8	43.2	12.7	2.5	3.3	100.0 (180)
	400~499만원	8.5	36.0	43.6	10.6	1.3	3.4	100.0 (193)
	500~599만원	9.7	19.7	58.4	9.8	2.5	3.2	100.0 (160)
	600만원 이상	6.7	32.9	42.6	14.2	3.6	3.2	100.0 (209)
	χ^2/F	38.8**						2.7*

주: 1) 해당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2) '전혀 부담안됨=1'~'매우 부담됨=5'로 측정됨. 점수가 높을수록 사교육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높음을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 $p < .05$, ** $p < .01$.

자녀를 위해 이용하는 사교육 비용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사례만을 대상으로 사교육의 비용이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을 이용하는 이유를 질문하였는데, 영유아 부모들이 사교육 부담에도 사교육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 뒤쳐질까봐 두려워서'로 35.6%가 이에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주기 위하여’ 30.5%,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10.5%, ‘아이가 원해서’ 7.7%, ‘자녀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게 하기 위해’ 5.7%, ‘서비스의 질이 높다고 생각되어서’ 3.6% 순으로 나타나 예년과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표 V-1-31〉 사교육 부담에도 이용하는 이유 (2020~2022년)

단위: %(명)

구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자녀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게 하기 위해	8.3	8.1	5.7
자녀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 뒤쳐질까봐	31.1	36.2	35.6
서비스의 질이 높다고 생각되어서	5.9	5.3	3.6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 주기 위해서	26.5	27.4	30.5
퇴근 전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2.7	1.4	2.6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12.0	11.1	10.5
다른 돌봄서비스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어서	0.5	1.1	2.5
아이가 원해서	9.5	7.7	7.7
기타	1.0	1.6	1.3
모름	2.4	0.0	-
계(수)	100.0 (220)	100.0 (291)	100.0 (315)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2) 최효미 외(2021), p. 184.〈표 V-1-25〉.

5) 단시간 학원 온라인 수업

한편 단시간 학원을 이용하는 사례 중 이용하는 학원에서 비대면 수업(온라인 수업)을 받아 본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4차년도 보다 0.2% 감소된 2.8%였으며, 과목별로 차이가 있었다. 비대면 수업 경험이 가장 높은 유형은 ‘영어 외 언어(한글, 한자)’학원으로 11.9%가 비대면 수업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 ‘영어’ 학원은 4차년도 보다 7.6%가 증가하여 11.1%가 온라인 수업을 경험하였다. 반면 ‘미술’학원은 0.6%, ‘체육’학원은 0.7%로 4차년도 대비 온라인 수업 경험이 감소하였다. 대체적으로 체육, 미술, 음악과 같이 예체능 학원의 온라인 수업 경험이 적고 언어, 수학 등 학습 관련 학원의 온라인 수업 경험 비율이 높았다.

〈표 V-1-32〉 단시간 학원 유형별 온라인 수업 이용 경험 (2021~2022년)

단위: %(명)

구분	4차년도(2021)			5차년도(2022)		
	있음	계(수)		있음	계(수)	
전체	3.0	100.0	(722)	2.8	100.0	(721)
체육	1.2	100.0	(272)	0.7	100.0	(319)
음악	2.2	100.0	(88)	1.7	100.0	(59)
미술	1.6	100.0	(187)	0.6	100.0	(183)
영어	3.5	100.0	(60)	11.1	100.0	(66)
영어 외 언어	12.1	100.0	(43)	11.9	100.0	(33)
수학 및 과학	9.3	100.0	(56)	8.6	100.0	(51)
기타	7.0	100.0	(15)	0.0	100.0	(9)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2) 최효미 외(2021). p. 185.〈표 V-1-26〉

이러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 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응답하도록 하였는 바, '보통'이 4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대체로 만족'이 33.9%, '매우불만족' 14.7%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점수는 3.2점으로 '보통' 정도로 4차년도 결과와 동일한 수준이다.

〈표 V-1-33〉 단시간 학원 온라인 수업 비용 수준 만족도 (2022년)

단위: %, 점.(명)

만족도(2022)						평균점수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수)	2021	2022
7.2	33.9	44.1	-	14.7	100.0 (15)	3.2	3.2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2) 최효미 외(2021). p. 185 〈표 V-1-27〉

6) 코로나19로 인한 시간제 사교육서비스 대체 경향

여기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이 감소하였던 학원의 분야는 무엇인지를 질문하였는 바, 코로나19로 인해 이용하고 싶었으나 이용하지 못했던 학원 중 가장 비중이 큰 분야는 '체육'관련 학원으로 58.5%가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더 이용을 하고 싶은 분야로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미술'관련 학원 18.2%, '음악'관련 학원 13.8%, '영어'학원 10%, '영어 외 다른 언어'학원 9.3%, '수학 및 과학'관련 8.8% 순으로 응답되었다. 즉, 영유아의 부모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자녀를 위해 이용하고 싶었던 예체능 학원의 이용을 많이 줄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V-1-34〉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이 감소한 단시간 학원 유형 (2022년)

단위: %, (명)

이용 감소 경험여부		이용이 감소한 학원 유형							
있음	계(수)	체육 관련	음악 관련	미술 관련	영어	영어 이외 다른 언어	수학 및 과학 관련	기타	(수)
23.2	100.0 (524)	58.5	13.8	18.2	10.0	9.3	8.8	0.9	(122)

주: 1) 코로나19로 인해 단시간 학원 서비스 이용이 감소한 경우는 단시간 학원 이용자 524명 중 23.2%(122명)임.

2) 중복 응답으로 합계가 100%를 초과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코로나19로 인해 단시간 학원 이용에 제약이 있어 학원을 대체하여 이용한 서비스를 살펴본 결과, 대체한 서비스로는 '비방문형 학습지/교구활동'이 61%로 가장 많았고,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가 28.8%, '체험학습 시설'이 24.4%, '키즈카페, 놀이시설'이 14.3%,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이 8.2%, '방문형 학습지/교구활동'이 7.4%, '문화센터 프로그램'이 7.2% 순으로 나타났다.

〈표 V-1-35〉 코로나19로 인해 단시간 학원을 대체하여 이용한 서비스 (2022년)

단위: %, (명)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의 특별활동	문화 센터 프로 그램	방문형 학습지/ 교구 활동	비방문형 학습지/ 교구활동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개별 및 그룹 지도	장난감, 도서대여, 육아 꾸러미 등 서비스	체험 학습 시설	키즈 카페, 놀이 시설	다른 종류의 학원	기타	(수)
8.2	7.2	7.4	61.0	28.8	-	-	24.4	14.3	-	10.9	(14)

주: 코로나19로 단시간학원 이용이 감소한 경우(총 122명) 중 다른 서비스로 학원 이용을 대체한 경우는 11.5%(14명)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센터 이용을 줄인 경험이 있는 경우는 4차년도 58.5%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7.9%로 조사됐다. 체육 관련 문화센터 이용을 줄인 경험이 67.8%로 가장 많고, 통합놀이 49.9%, 미술 39.8%, 음악 19.5%, 언어 9.4%, 과학 3.1%, 수학 2.8% 순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용하지 못한 기관은 '백화점, 마트 등의 문화센터'가 81.6%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17.6%, '주민센터 등의 문화센터' 12.5% 순이었다.

〈표 V-1-36〉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센터 이용 감소 경험 및 이용하지 못한 기관 유형(2021~2022년)

단위: %

구분	문화센터 이용 감소 경험 있음	코로나19로 인해 이용하지 못한 기관			
		백화점, 마트 등의 문화센터	주민센터 등의 문화센터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기타
2021	58.5	69.1	15.1	24.6	1.4
2022	7.9	81.6	12.5	17.6	3.2
체육	67.8	80.9	9.8	15.0	2.1
음악	19.5	71.1	23.7	17.5	2.3
미술	39.8	76.5	10.3	15.1	4.0
통합놀이	49.9	81.9	8.8	16.1	0.8
언어	9.4	44.3	15.9	50.5	4.4
수학	2.8	67.2	33.1	65.8	0.0
과학	3.1	65.9	15.8	49.8	0.0
기타	1.0	48.2	48.2	100.0	0.0

주: 1) 2022년 5차년도 조사에서 전체 영유아 중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센터 이용 감소 경험이 있는 경우는 2,393명 중 총 189명임(7.9%).

2) 코로나19로 인해 이용하지 못한 기관은 중복 응답임.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2) 최효미 외(2021). p. 186. 〈표 V-1-29〉

이처럼 문화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용하고 싶은 만큼 이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문화센터를 이용하지 못할 때 영유아 부모들은 대체서비스로 '키즈카페, 민간놀이시설'을 가장 많이 이용했으며(74.6%), '방문형 학습지 및 교구활동' 16.2%, '단시간 학원' 12.6%, '비방문형 학습지 및 교구활동'과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각 11.8%, 11.7%, '개별 및 그룹지도' 4.9% 순으로 이용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4차년도 대비 '방문형 학습지 및 교구활동'을 이용했다는 응답 비중은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표 V-1-37〉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센터를 대체하여 이용한 서비스 (2021~2022년)

단위: %, (명)

구분	시간제보육	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및 교구활동	비방문형 학습지 및 교구활동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개별 및 그룹지도	키즈카페, 민간놀이시설	기타	(수)
2021	-	15.2	7.4	-	21.4	-	72.5	12.3	(14)
2022	-	12.6	16.2	11.8	11.7	4.9	74.6	3.9	(23)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2) 최효미 외(2021). p. 187.〈표 V-1-30〉

다. 기타서비스

영유아의 육아를 위해 사용하는 기타 육아서비스 중 시간제 일시보육과 키즈카

페 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지난 3개월 동안 시간제 일시보육의 이용 행태를 살펴보면, 응답대상 영유아 중 5차년도에는 0.6%가 시간제 일시보육을 이용한 경험에 있었고,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월평균 6.2회 이용하였고, 1회당 2.3시간(2시간 18분) 이용하여 월평균 6만1천원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일시보육의 이용 경험률은 4차년도 조사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나, 월평균 이용 횟수와 1회당 이용 시간은 크게 감소하였다.

키즈카페의 경우 5차년도 조사에서는 조사시점 기준 지난 3개월 동안 42.9%가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영향으로 크게 감소하였던 3차년도와(14.7%) 비교하여 이용 경험률이 크게 높아졌다. 키즈카페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월평균 1.6회, 1회당 2.2시간(2시간 12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키즈카페 이용시 1시간당 비용은 8천원으로 응답되었다. 키즈카페의 이용 경험률은 크게 높아졌으나, 월평균 이용 횟수 및 이용 시간, 비용은 4차년도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다.

비정기 체험활동은 5차년도 새롭게 질문한 기타 육아서비스로 지난 3개월 동안 16.5%가 비정기 체험활동을 경험하였고, 월평균 1.4회, 1회당 2.5시간(2시간 30분), 1회 평균 1만9천원의 비용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38〉 가구특성별 유아의 기타서비스 이용 현황 (2018~2022년)

단위: %, 회, 시간, 만원

구분		이용 비중	횟수(월평균)	이용 시간(회당)	비용
시간제 일시보육	1차년도(2018년)	1.9	8.7	2.7	7.0
	2차년도(2019년)	0.8	7.4	2.2	2.0
	3차년도(2020년)	1.8	10.5	3.0	5.4
	4차년도(2021년)	0.7	11.3	3.8	3.2
	5차년도(2022년)	0.6	6.2	2.3	6.1
키즈카페	1차년도(2018년)	47.2	2.0	2.0	0.7
	2차년도(2019년)	57.7	1.7	2.0	0.6
	3차년도(2020년)	14.7	1.5	2.2	0.8
	4차년도(2021년)	24.9	1.5	2.2	0.9
	5차년도(2022년)	42.9	1.6	2.2	0.8
비정기 체험활동	5차년도(2022년)	16.5	1.4	2.5	1.9

주: 1)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 키즈카페와 비정기 체험활동은 지난 3개월 동안 이용경험, 월평균 이용횟수이며, 1회 이용 시 시간이며,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월평균 비용, 키즈카페는 1시간당 이용비용 그리고 비정기 체험활동은 1회 이용비용임.

2) 기타서비스 이용 비용은 2022년 공표된 소비자물가지수(2020=100)을 통해 2020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로 본 표에 제시된 1~4차년도 결과는 소비자물가지수(2015=100)을 통해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하여 제시되었던 1~4차년도 소비실태조사 보고서 결과와 차이가 있음.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2) 최효미 외(2021). p. 188.〈표 V-1-31〉

다음으로 이러한 기타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시간제 일시보육의 경우 5차년도 조사에서 ‘매우 만족’ 20.5%, ‘대체로 만족’ 42.2%로 62.7%가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5점 만점으로 측정한 만족도 평균 점수는 3.7점으로 ‘보통’ 이상 정도의 만족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수치는 4차년도 조사 결과 대비 만족한다는 의견은 21.1%, 만족도는 0.4점 하락한 수치이다.

키즈카페의 경우 ‘매우 만족’ 15.5%, ‘대체로 만족’ 63.7%로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79.2%로 1~5차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만족도는 3.9점으로 전년과 동일하였다. 비정기 체험활동은 ‘매우 만족’ 22.8%, ‘대체로 만족’ 64.1%로 86.9%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만족도 평균도 4.1점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타서비스 이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할만한 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러한 서비스 이용이 위축된 2020년과 2021년의 3,4차 조사에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이러한 서비스 이용이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위축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가정내 양육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러한 서비스의 효용과 만족도는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사료된다. 즉, 이러한 서비스가 코로나19 등 감염위험에 대한 상시적인 대비책을 갖추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양육자의 부담 및 양육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영유아들에게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볼 수 있다(최효미 외, 2021: 189).

〈표 V-1-39〉 기타서비스 유형별 만족도 (2018~2022년)

단위: %(명), 점

구분		만족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시간제 일시 보육	1차년도(2018년)	18.7	37.8	31.9	6.9	4.7	3.6	100.0 (43)
	2차년도(2019년)	17.2	44.9	22.1	15.8	0.0	3.6	100.0 (19)
	3차년도(2020년)	20.9	64.2	14.9	0.0	0.0	4.1	100.0 (42)
	4차년도(2021년)	27.0	56.8	16.3	0.0	0.0	4.1	100.0 (17)
	5차년도(2022년)	20.5	42.2	29.9	6.1	1.2	3.7	100.0 (66)
키즈 카페	1차년도(2018년)	11.2	61.7	24.7	2.1	0.3	3.7	100.0 (1,076)
	2차년도(2019년)	8.0	55.0	32.6	4.1	0.3	3.7	100.0 (1,347)
	3차년도(2020년)	11.2	61.7	24.8	2.1	0.3	3.8	100.0 (349)
	4차년도(2021년)	11.5	65.2	22.2	1.0	0.2	3.9	100.0 (591)
	5차년도(2022년)	15.5	63.7	19.6	0.8	0.4	3.9	100.0 (1,027)

구분		만족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비정기 체험활동	5차년도(2022년)	22.8	64.1	12.4	0.7	0.0	4.1	100.0 (395)

주: '매우 불만족=1'~'매우 만족=5'로 측정된 수치임.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2) 최효미 외(2021). p. 189.<표 V-1-32>

시간제 일시보육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의 만족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범주별 '매우 만족'과 '대체로 만족'의 응답 비율의 합을 만족한다는 의견으로 볼 때, '인력의 전문성'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68.2%, '이용시간의 선택성'에 대한 만족 60.3%, '비용'에 대한 만족 67.9%, '이용 장소의 접근성'에 대한 만족 61.8%, '긴급 보육의 유용성'에 대해 만족한다는 55.5% 순으로 나타나 모든 범주에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다. 평균 만족도 점수 역시 5점 만점 중 최저 3.7, 최고 3.9점의 분포로 '대체로 만족'에 가까운 만족도를 보였다.

〈표 V-1-40〉 시간제 일시보육 범주별 만족도 (2022년)

단위: %(명), 점

구분		만족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시간제 일시 보육	이용시간의 선택성	20.9	39.4	33.8	0.0	5.9	3.7	100.0 (13)
	비용	25.7	42.2	25.9	6.2	0.0	3.9	100.0 (13)
	이용 장소의 접근성	28.3	33.5	25.9	12.4	0.0	3.8	100.0 (13)
	인력의 전문성	0.0	68.2	31.8	0.0	0.0	3.7	100.0 (13)
	긴급 보육의 유용성	27.7	27.8	32.4	12.1	0.0	3.7	100.0 (13)

주: '매우 불만족=1'~'매우 만족=5'로 측정된 수치임.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다음으로 기타서비스 중 키즈카페를 이용하는 이유를 살펴보았다. '아이가 좋아해서' 58.5%, '집에 없는 놀이기구들이 있어서' 13.4%, '집에서 돌보는 것보다 편안해서' 12.9%, '자녀를 동반해서 지인을 만날 수 있으므로' 10.5%, '지역에 적당한 공공 놀이장소가 없어서' 3.2% 순으로 나타났다. 즉 키즈카페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소이자 양육자에게는 양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공간(집에서 돌보는 것보다 편안해서 12.9% + 자녀를 동반해 지인을 만날 수 있으므로 10.5%)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아이가 좋아하는 안전한 놀이장소라는 점이 가장 주요한 이유이나 양육자의 입장에서 잠시 양육부담에서 벗어나 쉴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자녀를 동반해 지인을 만날 수도 있는 장소라는 점 등 양육자에게도 필요한 장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키즈카페’는 영유아들 뿐 아니라 영유아의 보호자들을 위한 장소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최효미 외, 2021: 189).

〈표 V-1-41〉 키즈카페 이용 이유 (2022년)

단위: %(명)

집에 없는 놀이기구들이 있어서	집에서 돌보는 것보다 편안해서	자녀를 동반해 지인을 만날 수 있으므로	아이가 좋아해서	비용이 저렴해서	지역에 적당한 공공 놀이장소가 없어서	기타	계(수)
13.4	12.9	10.5	58.5	0.3	3.2	1.2	100.0 (1,027)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한편 지난 3개월 동안 키즈카페를 이용하지 않았던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키즈카페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를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76.5%가 ‘코로나19의 감염을 피하기 위하여’라 응답하였고, ‘기타’ 11.6%, 주변에 운영하는 키즈카페가 없어서 4.8%, ‘비용이 부담되어서’ 3.2%, ‘아이가 좋아하지 않아서’ 2.7%, ‘자녀를 동반한 만남이 줄어서’ 1.3% 순으로 응답되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일상이 회복되는 양상이지만 여전히 코로나19의 감염은 육아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V-1-42〉 키즈카페 이용하지 않는 이유 (2022년)

단위: %(명)

주변에 운영하는 키즈카페가 없어서	코로나19의 감염을 피하기 위해	자녀를 동반한 만남이 줄어서	아이가 좋아하지 않아서	비용이 부담되어서	기타	계(수)
4.8	76.5	1.3	2.7	3.2	11.6	100.0 (1,366)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마지막으로 기타서비스 중 비정기 체험활동을 이용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아이가 좋아해서’ 49.3%, ‘자녀가 희망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서’ 23.3%, ‘체험활동 인솔자의 해당분야 전문성을 고려해서’ 9.6%, ‘집에서 돌보는 것보다 편안해서’

9.0%, ‘원하는 시간대에 참여할 수 있어서’ 3.2%, ‘비용이 저렴해서’ 1.7% 순으로 나타났다.

〈표 V-1-43〉 비정기 체험활동 이용 이유 (2022년)

단위: %(명)

체험활동 인솔자의 해당분야 전문성을 고려해서	집에서 돌보는 것보다 편안해서	자녀가 희망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서	아이가 좋아해서	비용이 저렴해서	원하는 시간대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타	계(수)
9.6	9.0	23.3	49.3	1.7	3.2	3.9	100.0 (395)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반면 비정기 체험활동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코로나19의 감염을 피하기 위해’ 60.6%, ‘체험활동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15.5%, ‘안전에 대한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8.9%, ‘기타’ 8.6%, ‘비용이 부담되어서’ 3.8%, ‘아이가 좋아하지 않아서’ 2.6%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정기 체험활동 역시 여전히 코로나19 감염 위험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44〉 비정기 체험활동 이용하지 않는 이유 (2022년)

단위: %(명)

체험활동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코로나19의 감염을 피하기 위해	안전에 대한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아이가 좋아하지 않아서	비용이 부담되어서	기타	계(수)
15.5	60.6	8.9	2.6	3.8	8.6	100.0 (1,998)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2. 가정내 돌봄 및 부모지원서비스 이용 행태

가.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행태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는 조부모인 경우가 가장 많은데, 2차 조사에서 68.9%, 3차 조사 77.3%, 4차 조사 75.9%, 5차 조사에서는 7.6% 감소한 68.3%로 나타나 2~5차년도 중 가장 낮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그리고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 응답 비율 역시 4차 조사 대비 감소하였으나, 민간 육아도우미

라고 응답한 비율은 4차 조사 대비 2.1% 증가한 8%로 다른 연도들보다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즉 조부모와 친인척 등 가족의 돌봄 비중은 감소하고 가족 외 육아도우미의 돌봄 비중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돌봄 부담의 증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V-2-1〉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 (2019~2022년, 중복응답)

단위: %, (가구)

구분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				(수)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민간 육아도우미	조부모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	
2차년도(2019년)	17.1	7.8	68.9	11.9	(225)
3차년도(2020년)	6.7	5.3	77.3	13.8	(193)
4차년도(2021년)	16.0	5.9	75.9	8.9	(237)
5차년도(2022년)	15.6	8.0	68.3	8.0	(224)

주: 1) 각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 비율은 개별돌봄서비스 이용가구를 대상으로 한 응답 비율임.

2) 개별돌봄은 개별돌봄서비스로 부모가 아닌 사람(조부모, 친인척,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민간아이 도우미 등)이 가정에서 해당 아동(혹은 가구 내 아동)을 돌보는 경우를 의미함.

3) 개별돌봄서비스는 중복 이용으로 비중의 합이 100%를 초과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2) 최효미 외(2021). p. 206 〈표 V-3-1〉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의 동시 돌봄 자녀수는 민간 육아도우미(1.4명)을 제외하고 모든 유형에서 1.5명으로 동일했고, 주당 평균 이용시간도 민간 육아도우미를 제외한 돌봄 유형에서 4차 조사보다 짧아진 양상을 보였는데 특히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 시간이 4.9시간 짧아진 19.3시간으로 코로나 이전인 2차 조사(18.8시간) 수준으로 회귀하였다. 조부모 돌봄 시간은 20.5시간으로,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는 15.2시간으로 2~5차년의 각 유형에서 가장 짧은 이용시간을 보였고, 민간 육아도우미는 전년대비 0.5시간 증가한 21.5시간으로 5차 조사 돌봄 유형 중 주당 평균 이용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육아도우미의 월평균 이용비용은 68.6만원,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이용비용은 18만원으로 2차 조사 이후 점점 낮아지고 있는 반면, 조부모 돌봄 비용은 4차 조사 보다 소폭 증가하여 35.3만원이었다.

개별돌봄서비스 이용비용은 이용시간 대비 민간육아도우미 이용비용이 가장 높고, 조부모 돌봄 이용비용,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 비용,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가 가장 낮은 비용 수준을 보였다.

〈표 V-2-2〉 개별돌봄서비스 동시 돌봄 자녀수, 이용시간, 이용비용 (2019~2022년)

단위: 명, 시간, 만원, (가구)

구분		동시 돌봄 자녀수	주당 평균 이용시간	월평균 이용비용	(수)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2차년도(2019년)	1.5	16.9	28.0	(33)
	3차년도(2020년)	1.3	20.7	25.8	(15)
	4차년도(2021년)	1.3	17.6	21.1	(38)
	5차년도(2022년)	1.5	15.2	18.0	(33)
민간 육아도우미	2차년도(2019년)	1.4	28.8	82.2	(15)
	3차년도(2020년)	1.3	20.4	73.6	(12)
	4차년도(2021년)	1.3	21.0	74.6	(14)
	5차년도(2022년)	1.4	21.5	68.6	(17)
조부모 돌봄	2차년도(2019년)	1.5	26.4	41.8	(133)
	3차년도(2020년)	1.5	22.3	32.3	(170)
	4차년도(2021년)	1.4	22.5	35.5	(179)
	5차년도(2022년)	1.5	20.5	35.3	(148)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	2차년도(2019년)	1.2	18.8	17.9	(23)
	3차년도(2020년)	1.5	22.7	42.9	(31)
	4차년도(2021년)	1.4	24.2	31.2	(21)
	5차년도(2022년)	1.5	19.3	29.1	(17)

주: 1) 돌봄은 개별돌봄서비스로 부모가 아닌 사람(조부모, 친인척,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민간아이 도우미 등)이 가정에서 해당 아동(혹은 가구내 아동)을 돌보는 경우를 의미함.

2) 월평균 이용비용은 2022년 공표된 소비자물가지수(2020=100)을 통해 2020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로 본 표에 제시된 1~4차년도 결과는 1~4차년도 소비실태조사 보고서 결과와 차이가 있음.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3) 최효미 외(2021), p. 207〈표 V-3-2〉

이처럼 주당 평균 이용시간이 가장 길고, 월평균 이용비용이 높은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구인 경로를 질문하였다. 58.8%가 지인소개라 응답하였고, 29.4%는 인터넷기반 돌봄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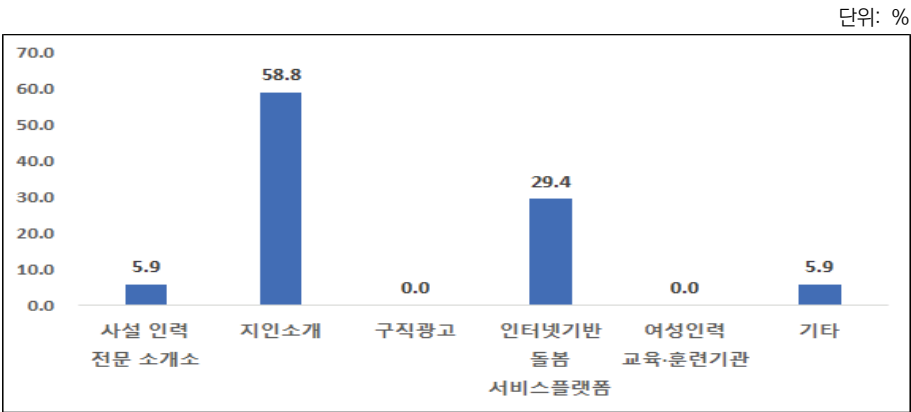
〈표 V-2-3〉 민간도우미 구인 경로 : 민간육아도우미 이용 가정 (2022년)

단위: %, (가구)

사설 인력 전문 소개소	지인소개	구직광고	인터넷기반 돌봄 서비스플랫폼	여성인력 교육· 훈련기관	기타	(수)
5.9	58.8	-	29.4	-	5.9	(17)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그림 V-2-1] 민간육아도우미 구인 경로



주: <표 V-2-3>을 기반으로 구성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개별돌봄서비스 이용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살펴 보았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에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본 결과 6.8%만이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변화가 있었던 경우, 맞벌이가 8.3%로 외벌이 2.0%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V-2-4> 코로나19로 인한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 변화 여부 (2022년)

단위: %, (가구)

구분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 변화 경험		(수)
		있음	없음	
전체		6.8	93.2	(206)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8.3	91.7	(157)
	외벌이	2.0	98.0	(49)
	χ^2	2.3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다음으로 개별돌봄서비스 동시 돌봄 자녀수에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았는데, 93.7%가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변화가 있었던 경우, 4.9%는 돌봄 자녀수가 늘어났고, 1.5%는 자녀수가 줄어든 것으로 응답되었다.

〈표 V-2-5〉 코로나19로 인한 개별돌봄서비스 동시 돌봄 자녀 수 변화 (2022년)

단위: %, (가구)

개별돌봄서비스 동시 돌봄 자녀 수 변화 경험			(수)
돌봄 자녀수 늘어남	돌봄 자녀수 줄어듦	변화 없음	
4.9	1.5	93.7	(206)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개별돌봄서비스 이용시간에 변화가 있었는지도 살펴보았는데, 85.0%가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표 V-2-6〉에 따르면 이용시간이 증가한 경우 외벌이 보다는 맞벌이 가구의 응답 비율이 높았고 이용시간이 감소한 경우 맞벌이 가구보다 외벌이 가구의 응답 비율이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V-2-6〉 코로나19로 인한 개별돌봄서비스 이용시간 변화 (2022년)

단위: %, (가구)

구분		개별돌봄서비스 이용시간 변화			(수)
		이용시간 증가	이용시간 감소	변화 없음	
전체		13.1	1.9	85.0	(206)
맞벌이 가구	맞벌이	14.6	1.3	84.1	(157)
	외벌이	8.2	4.1	87.8	(9)
여부		χ^2 2.8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마지막으로 개별돌봄서비스 이용비용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이 92.7%에 달했다. 5.8%는 비용증가를, 1.5%는 비용감소의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표 V-2-7〉 코로나19로 인한 개별돌봄서비스 이용비용 변화 (2022년)

단위: %, (가구)

개별돌봄서비스 이용비용 변화			(수)
비용증가	비용감소	변화 없음	
5.8	1.5	92.7	(206)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나. 가정 내 부모 직접 돌봄

1) 돌봄 시간 및 미디어 활용, 양육부담

조사시점 기준 최근 3개월 동안 영유아가 가정 내에 머물렀던 시간(‘가정 내 양

육' 시간으로 지칭)과 이처럼 자녀가 가정에서 머무르는 시간 동안 부모 중 한명이라도 자녀와 함께 있었던 시간('부모직접돌봄시간'으로 지칭)이 하루 평균 몇 시간 인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자녀가 하루 중 가정 내에 머물렀던 시간은 평일에는 하루 평균 8.37시간(약 8시간 22분), 주말에는 13.05시간(약 13시간 3분)이었으며, 이처럼 자녀가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 중 평일에는 하루 평균 8.27시간(약 8시간 16분), 주말에는 13.03시간(약 13시간 2분)을 부모 중 한명이라도 함께 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유아 자녀가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 동안 거의 대부분을 부모 중 한명이 적어도 같은 공간에서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일보다는 주말에 가정 내 양육시간과 부모직접돌봄시간이 모두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정 내 양육 및 부모직접돌봄 시간은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 총자녀수, 아동의 연령 등 가구특성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정 내 양육 시간과 부모직접돌봄 시간은 모두 맞벌이 가구보다 외벌이 가구에서 긴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의 가정 내 양육 시간은 평일 7.49시간, 주말 12.83시간이며, 외벌이 가구는 평일 9.07시간, 주말 13.22시간으로 특히 평일의 경우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평일 기준 외벌이 가구가 맞벌이 가구보다 1.58시간(약 1시간 35분) 가정 내 양육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의 경우도 외벌이 가구의 가정 내 양육 시간이 맞벌이 가구보다는 길었으나 격차는 0.39시간(약 23분 가량)으로 평일보다는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 평일 기준 맞벌이 가구의 가정 내 양육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나는 것은 맞벌이 가구가 대리 돌봄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 교육보육서비스 기관을 이용하는 시간이 길어 가정 내에 자녀가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가정 내 양육 시간은 평일에는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가구에서 500만원 미만 가구보다 짧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주말에도 다소간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짧은 경향을 보였으나 평일에 비하면 차이가 크지 않았다. 자녀수에 따라서는 평일과 주말 모두 총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정 내 양육 시간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자녀가 1명일 경우 2명 이상인 경우에 비해 가정 내 양육 시간이 현저히 길게 나타났는데 이는 평일기준으로는 자녀가 많은 경우 기관을 이용하는 자녀수도 증가하여 기관 이용으로 인해 가정 내 양육 시간이 줄어들 수 있으며, 주말기준으로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족의 바깥 활동이 증가하거나 자녀들이 외부에서 놀이를 하는 시간이 길 수 있기 때문으로(최효미 외, 2021: 208) 보인다. 또한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평일 가정 내 양육 시간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평일 기준 0세는 11.33시간, 1세는 10.44시간이며, 2세부터 가정 내 양육 시간이 크게 줄어 2세 8.71시간으로 나타났고 6세는 6.5시간을 가정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의 경우는 0~2세 영아 보다는 3세 이상 유아의 가정 내 양육시간이 짧게 나타나며, 3세 이상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정 내 양육시간이 짧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연령별 시간의 차이는 평일만큼 크지 않게 나타났다.

부모직접돌봄 시간의 경우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 총 자녀수, 아동연령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 양육 시간과 유사하게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평일 맞벌이 가구(7.14시간) 보다 외벌이 가구(9.17시간)의 부모직접돌봄 시간이 길고, 주말에도 맞벌이(12.79시간)보다 외벌이 가구의 부모직접돌봄 시간(13.22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평일의 부모직접돌봄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가구소득 300만원~399만원 이하에서 부모직접돌봄시간이 9.37시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고(약 9시간 22분), 다음으로 299만원 이하 가구 8.81시간(약 8시간 47분), 400~499만원 이하 8.11시간(약 8시간 7분), 600만원 이상 7.5시간(약 7시간 30분), 500~599만원 이하 가구에서 7.37시간(약 7시간 22분) 순으로 점차 줄어들었다. 이는 맞벌이 가구일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대체적으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평일 부모직접돌봄 시간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주말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총 자녀수에 따라서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평일 부모직접돌봄 시간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총 자녀수가 1명인 경우 평일에 부모가 직접돌보는 시간이 9.4시간(약 9시간 24분)이었으나, 3명 이상인 경우는 7.65시간(약 7시간 39분)으로 집계되었다. 주말의 경우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다.

아동연령은 높아질수록 평일 부모직접돌봄시간이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주말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V-2-8〉 가구특성별 가정 내 양육 및 부모직접돌봄 시간 (2022년)

단위: 시간, (가구)

구분		가정 내 양육		부모직접돌봄		(수)
		평일	주말	평일	주말	
전체		8.37	13.05	8.27	13.03	(1,730)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7.49	12.83	7.14	12.79	(767)
	외벌이	9.07	13.22	9.17	13.22	(963)
	<i>t</i>	-9.0***	-2.8**	-10.9***	-2.8**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8.72	13.50	8.81	13.34	(145)
	300~399만원 이하	9.23	13.31	9.37	13.46	(495)
	400~499만원 이하	8.31	13.01	8.11	12.88	(419)
	500~599만원 이하	7.66	13.05	7.37	12.98	(301)
	600만원 이상	7.74	12.57	7.50	12.55	(370)
	<i>F</i>	12.7***	4.6**	17.7***	4.8***	
총 자녀수	1명	9.56	13.36	9.40	13.27	(583)
	2명	7.80	12.89	7.71	12.94	(900)
	3명이상	7.65	12.87	7.65	12.77	(247)
	<i>F</i>	47.3***	5.4**	35.7***	2.7	
지역 규모	대도시	8.40	13.24	8.20	13.24	(683)
	중소도시	8.31	12.90	8.23	12.88	(788)
	읍면지역	8.47	12.99	8.58	12.93	(259)
	<i>F</i>	0.2	2.6	0.9	2.3	
아동 연령	0세(2022년생)	11.33	13.12	11.50	13.20	(152)
	1세(2021년생)	10.44	13.27	10.39	13.16	(311)
	2세(2020년생)	8.71	13.37	8.52	13.40	(296)
	3세(2019년생)	7.69	13.16	7.40	13.10	(291)
	4세(2018년생)	7.26	12.94	7.25	12.94	(259)
	5세(2017년생)	6.89	12.66	6.71	12.72	(209)
	6세(2016년생)	6.50	12.57	6.48	12.52	(212)
	<i>F</i>	63.1***	2.8**	56.7***	2.0	

주: 평범한 지난 주를 기준으로 하며, 하루 평균임. 수면시간 제외.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 $p < .01$, *** $p < .001$.

지난 1개월 동안의 영유아가 가정에서 머무는 '가정 내 양육 시간' 중 전자 기기(TV, PC 기타 미디어 기기)를 이용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 본 결과, 평일 기준으로는 영유아들이 하루 평균 1.34시간(약 1시간 20분), 주말에는 2.0시간 미디어를 이용하는데 시간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유아가 가정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평일 보다 긴 주말에 영유아가 미디어를 이용하는 시간도 길어짐을 알 수 있다.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은 맞벌이 가구 여부, 총 자녀수, 지역규모, 아동연령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평일의 경우 맞벌이 가구는 1.38시간(약 1시간 23분), 외벌이 가구는 1.31시간(약 1시간 19분)으로 맞벌이 가구의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이 더 길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고, 가구소득에 따라서도 뚜렷한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자녀수에 따라서는 자녀가 1명일 경우 평일 기준 1.24시간(약 1시간 14분), 2명인 경우 1.34시간(약 1시간 20분), 3명 이상인 경우 1.58시간(약 1시간 35분)으로 총 자녀수가 많을수록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주말의 경우에도 동일한 경향이 발견되며, 특히 주말에는 자녀 1명일 경우 1.66시간(약 1시간 40분), 2명인 경우 2.05시간(약 2시간 3분), 3명인 경우 2.63시간(약 2시간 38분)으로 평일 대비 각각 26분, 43분, 1시간 3분으로 더 많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평일보다 주말의 이용이 길어지는 경향에 자녀수 증가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⁵²⁾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대도시의 영유아는 평일 1.24시간(약 1시간 14분)을 미디어를 이용하는데 사용하나, 중소도시의 영유아는 1.36시간(약 1시간 22분), 읍면지역의 영유아는 1.55시간(약 1시간 33분)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주말의 경우는 대도시 영유아 1.85시간(약 1시간 51분), 중소도시 2.02시간(약 2시간 1분), 읍면지역 2.31시간(약 2시간 19분)을 사용하고 있었다.

아동 연령에 따른 미디어 이용 시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미디어 이용 시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평일과 주말에 걸쳐 공통적인 경향이었다.

전반적으로 맞벌이 가구, 다자녀 가구, 읍면지역의 영유아가 미디어를 많이 접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고 보여지며,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미디어 이용시간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2) 자녀가 많을수록 각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부모가 관리하기 어렵고 자녀들 사이에 다른 자녀가 미디어를 이용하면 같이 보게 되면서 시간이 증가하게 되는 등의 상호작용의 효과가 추가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최효미 외, 2021: 210).

〈표 V-2-9〉 가구특성별 자녀 미디어 이용시간 (2022년)

단위: 시간, (가구)

구분		평일	주말	(수)
전체		1.34	2.00	(1,730)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38	2.10	(767)
	외벌이	1.31	1.92	(963)
	<i>t</i>	1.2	2.1*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35	2.08	(145)
	300~399만원 이하	1.32	1.93	(495)
	400~499만원 이하	1.37	2.03	(419)
	500~599만원 이하	1.30	1.97	(301)
	600만원 이상	1.37	2.05	(370)
	<i>F</i>	0.2	0.4	
총 자녀수	1명	1.24	1.66	(583)
	2명	1.34	2.05	(900)
	3명이상	1.58	2.63	(247)
	<i>F</i>	7.6***	27.1***	
지역규모	대도시	1.24	1.85	(683)
	중소도시	1.36	2.02	(788)
	읍면지역	1.55	2.31	(259)
	<i>F</i>	6.8**	6.2**	
아동 연령	0세(2022년생)	0.68	0.86	(152)
	1세(2021년생)	0.88	1.15	(311)
	2세(2020년생)	1.31	1.83	(296)
	3세(2019년생)	1.54	2.24	(291)
	4세(2018년생)	1.59	2.49	(259)
	5세(2017년생)	1.67	2.53	(209)
	6세(2016년생)	1.64	2.85	(212)
	<i>F</i>	27.1***	42.6***	

주: 평범한 지난 주를 기준으로 하며, 하루 평균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 $p < .05$, ** $p < .01$, *** $p < .001$.

한편 영유아 가구의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가정 내 부모 직접돌봄 시) 양육 부담을 얼마나 느끼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양육 부담은 '전혀 부담 안됨=1점'에서 '매우 부담됨=5점'의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 V-2-10〉에 따르면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다소 부담된다'는 응답이 36.1%로 가장 높았고, '적당하다'가 31.7%, '별로 부담안됨' 19.4%, '매우 부담됨' 8.2%, '전혀 부담안됨' 4.7% 순으로 응답되었으며 평균 3.2점으로 적당한 수준보다는 다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부담된다는 응답 비율은 44.3%(다소 부담됨 36.1%+매우 부담됨 8.2%)로,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

24.1%(전혀 부담안됨 4.7%+ 별로 부담안됨 19.4%)보다 많았다.

이러한 가정 내 부모직접돌봄의 부담감 정도는 가구소득, 총 자녀수, 지역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구소득 300~399만원 이하, 400~499만원 이하 가구에서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부모직접돌봄 시) 부담을 상대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300~399만원 이하 가구는 부담된다(다소 부담됨+매우 부담됨)는 응답 비율이 44%, 400~499만원 이하 가구는 48.5%에 달하였다. 반면에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는 부담감 평균이 3.1점으로 가장 낮고, '전혀 부담안됨'의 비율도 7.8%로 전 소득계층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총 자녀수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부모 직접돌봄 시간)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가 1명일 때 부담된다는 응답(다소 부담됨+부담됨) 비율은 37.3%이나, 2명인 경우 44.9%, 3명 이상인 경우 58.7%에 달하는 부모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가정 내 부모직접돌봄 시 부모의 부담감을 느낀다는 비율이 읍면지역에서 가장 높아 46.3%(다소 부담됨+매우 부담됨)로 나타났고, 중소도시 44.8%, 대도시 42.9%로 지역규모가 작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부모직접돌봄의 부담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10〉 가구특성별 가정 내 부모직접돌봄 시간의 부담 정도 (2022년)

단위: %, 점, (가구)

구분		부담정도					평균 점수	(수)
		전혀 부담안됨	별로 부담안됨	보통	다소 부담됨	매우 부담됨		
전체		4.7	19.4	31.7	36.1	8.2	3.2	(1,730)
맞벌이 가구	맞벌이	5.3	19.2	32.2	36.1	7.2	3.2	(767)
	외벌이	4.2	19.5	31.3	36.1	8.9	3.3	(963)
여부		χ^2/t					-1.1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7.6	13.8	40.0	30.3	8.3	3.2	(145)
	300~399만원 이하	3.2	21.2	31.5	34.7	9.3	3.3	(495)
	400~499만원 이하	3.8	17.7	30.1	41.1	7.4	3.3	(419)
	500~599만원 이하	3.0	21.3	32.6	34.6	8.6	3.2	(301)
	600만원 이상	7.8	19.5	29.7	35.9	7.0	3.1	(370)
	χ^2/F	30.0*					1.4	

구분		부담정도					평균 점수	(수)
		전혀 부담안됨	별로 부담안됨	보통	다소 부담됨	매우 부담됨		
총 자녀수	1명	6.2	24.7	31.9	32.8	4.5	3.0	(583)
	2명	3.7	17.9	33.6	36.8	8.1	3.3	(900)
	3명이상	4.9	12.1	24.3	41.7	17.0	3.5	(247)
	χ^2/F	63.8***					22.9***	
지역 규모	대도시	3.4	18.0	35.7	35.0	7.9	3.3	(683)
	중소도시	4.9	21.4	28.8	37.3	7.5	3.2	(788)
	읍면지역	7.3	16.6	29.7	35.5	10.8	3.3	(259)
	χ^2/F	19.2*					0.5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 $p < .05$, *** $p < .001$.

한편 가정 내에서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가정 내 부모직접돌봄 시간)에 보통 수준 이상의 부담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가구를 대상으로 부담감을 느끼는 이유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부모들이 가정 내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에 부담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1순위) '가사와 육아를 동시 병행하는 것이 힘들어서'로 30.9%에 해당하였으며, '양육 과정(아이가 울거나 떼를 쓸)에서 생기는 스트레스 때문에' 28.8%, '육아가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28.7%가 유사하게 높은 응답을 차지한 주된 이유였다.

2순위로 응답한 부모직접돌봄시간의 부담 이유로는 역시 '가사와 육아를 동시에 병행하기 힘들어서'가 29.3%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고, 그 외 '나만의 시간이 없어서'가 24.7%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1, 2순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영유아의 부모들은 영유아와 가정에서 함께 있는 시간에 육아뿐 아니라 가사도 같이 병행해야 하는데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고, 체력적으로 힘들고, 영유아의 특성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으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핵가족 중심의 양육 문화에서 자녀 양육이 부부 중심, 혹은 부부 중 한명이 주로 책임지는 '독박육아'의 상황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양육자가 휴식을 취할 시간도 부족한 경우로 인해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V-2-11〉 가구특성별 가정 내 부모직접돌봄 시간의 부담이유 (2022년, 순위별)

단위: %, (가구)

구분	①양육 과정의 스트레스	②체력 적으로 힘듦	③가사- 육아 병행의 어려움	④성인 과의 교류 감소	⑤놀이 줄 방법을 몰라서	⑥나만의 시간 부재	⑦기타	(수)
1순위	28.8	28.7	30.9	1.3	2.1	7.8	0.4	(1,314)
2순위	14.4	22.5	29.3	2.5	5.3	24.7	0.5	(1,314)
1+2순위	43.2	51.2	60.2	3.8	7.5	32.6	0.8	(1,314)

주: ① 양육 과정(아이가 울거나 때를 씌면서 생기는 스트레스 때문, ② 육아가 체력적으로 힘이 들어서, ③ 가사와 육아를 동시에 병행하기 힘들어서, ④ 육아 고민 등을 상담할 수 있는 성인들과의 교류가 줄어들어서, ⑤ 아이와 어떻게 놀아줘야 할지 몰라서, ⑥ 나만의 시간이 없어서.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이처럼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시간 동안 많은 부모들이 양육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TV, PC, 미디어 기기 등 각종 전자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응답 결과, 응답가구의 76.0%가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의 전자기기 이용을 허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응답은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 총 자녀수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 가구가(79.7%) 외벌이 가구(73.0%) 보다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전자기기 허용 경험이 많을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은 대체로 가구소득 증가에 따라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자녀의 전자기기 사용 허용 경험이 높아졌으며 특히 500만원~599만원 이하 가구에서의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총 자녀수는 자녀 1명과 2명 이상의 경우에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이유로 자녀에게 전자기기 사용을 허용한 경험에 차이가 커서, 자녀가 1명인 경우 양육부담 경감을 이유로 한 전자기기 허용 경험은 58.0%였으나 2명 85.0%, 3명 이상인 경우 85.4%로 나타났다. 총 자녀수가 1명인 경우 2022년 0세인 표본가구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앞서 영유아 가구의 부모들의 직접돌봄에 부담감을 느끼는 이유를 살펴보았는바(표 V-2-11 참조), 자녀수가 많거나 육아나 가사에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양육자에게 전적인 양육 부담이 가해진다면 부모의 휴식시간의 확보를 위해 영유아에게 전자기기를 보조양육자로 활용하게 될 위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V-2-12〉 가구특성별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자기기 사용(TV, PC, 전자기기 등) 허용 여부
(2022년)

단위: %, (가구)

구분		허용여부		
		그렇다	아니다	계(수)
전체		76.0	24.0	100.0 (1,730)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79.7	20.3	100.0 (767)
	외벌이	73.0	27.0	100.0 (963)
	χ^2	10.4**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75.2	24.8	100.0 (145)
	300~399만원 이하	69.1	30.9	100.0 (495)
	400~499만원 이하	77.3	22.7	100.0 (419)
	500~599만원 이하	81.1	18.9	100.0 (301)
	600만원 이상	79.7	20.3	100.0 (370)
	χ^2	20.4***		
총 자녀수	1명	58.0	42.0	100.0 (583)
	2명	85.0	15.0	100.0 (900)
	3명 이상	85.4	14.6	100.0 (247)
	χ^2	155.6***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 $p < .01$, *** $p < .001$.

2) 장난감 대여 및 도서 대여 서비스 활용

영유아 부모들이 최근 3개월 동안 장난감, 도서 등 육아 관련 대여서비스를 얼마나 활용하였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장난감 및 도서 대여 이용 여부를 살펴본 결과, 장난감 대여는 6.8%, 도서 대여는 16.5%가 이용 경험이 있었다. 4차년도(2021년) 조사 결과 대비 장난감 대여 1.2%p, 도서 대여 이용 비율은 1.0%p 증가하였다.

가구특성별로는 2022년에는 총 자녀수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난감 대여의 경우 1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8.9%, 2명인 경우 6.2%, 3명 이상인 경우 4.0%가 장난감 대여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총 자녀수가 적을수록 장난감 대여 이용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 대여의 경우는 반대의 경향으로 자녀가 1명인 경우 10.8%, 2명인 경우 18.9%, 3명 이상인 경우 21.1%가 응답하여 자녀수가 많을수록 도서 대여를 이용한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표 V-2-13〉 가구특성별 장난감 및 도서 대여 이용여부 (2022년)

단위: %, (가구)

구분		이용률				계(수) (2022)
		장난감 대여		도서 대여		
		2022	2021	2022	2021	
전체		6.8	5.6	16.5	15.5	100.0 (1,730)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7.4	6.2	16.2	15.5	100.0 (767)
	외벌이	6.3	5.1	16.7	15.5	100.0 (963)
	χ^2	0.8	1.1	0.1	0.0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9.7	7.7	15.2	16.7	100.0 (145)
	300~399만원 이하	6.3	5.5	15.8	14.5	100.0 (495)
	400~499만원 이하	6.7	6.2	19.3	15.0	100.0 (419)
	500~599만원 이하	7.0	5.8	13.3	12.0	100.0 (301)
	600만원 이상	6.5	3.2	17.3	20.7	100.0 (370)
	χ^2	2.2	5.9	5.2	11.2*	
총 자녀수	1명	8.9	7.5	10.8	11.0	100.0 (583)
	2명	6.2	4.9	18.9	17.7	100.0 (900)
	3명이상	4.0	3.8	21.1	17.5	100.0 (247)
	χ^2	7.5*	7.0*	21.2***	14.2***	
지역규모	대도시	6.0	5.9	16.5	16.9	100.0 (683)
	중소도시	7.4	4.9	17.1	15.2	100.0 (788)
	읍면지역	7.3	7.1	14.3	12.7	100.0 (259)
	χ^2	1.2	2.2	1.2	2.8	

주: 최호미 외(2021). p. 215 〈표 V-3-7〉, p. 218 〈표 V-3-10〉의 추치를 추가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 $p < .05$, *** $p < .001$.

장난감이나 도서 대여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대여서비스 이용 빈도를 살펴보았는데, 장난감의 경우 '월 1회' 대여한다는 응답이 42.4%로 가장 높았고, '격주 1회' 27.1%, '주 1~2회' 19.5%, '분기별 1회' 10.2%, '주 3~4회' 0.8% 순으로 나타났다. 도서 대여의 경우 '주 1~2회' 대여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아 35.1%에 해당하였고, '월 1회' 31.2%, '격주 1회' 22.1%, '분기별 1회' 6.7%, '주 3~4회' 3.9%, '매일' 1.1%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도서의 대여 주기가 더 짧음을 알 수 있다.

〈표 V-2-14〉 장난감/도서 대여 이용 빈도 (2022년)

단위: %(명)

구분	대여 이용 빈도						계(수)
	매일	주 3~4회	주 1~2회	격주 1회	월 1회	분기별 1회	
장난감	-	0.8	19.5	27.1	42.4	10.2	100.0 (118)
도서	1.1	3.9	35.1	22.1	31.2	6.7	100.0 (285)

주: 장난감/도서 대여 서비스 이용자 기준.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장난감, 도서를 대여해 준 기관 및 이용비용,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영유아가구에서 장난감을 가장 많이 대여해 본 기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66.9%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장난감 대여 경험이 있었으며, ‘지자체 및 지자체 위탁기관’에서 대여해 본 경우가 21.2%,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의 공공시설’이 11.0%였으며, 민간사설업체에서 대여해 본 경우도 6.8%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도서의 경우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시설’에서 대여해 본 경우가 87.0%로 현저히 높았고, 이외 ‘어린이집, 유치원, 기타 반일제이상 기관 등 반일제이상 기관’ 7.0%, ‘육아종합지원센터’ 6.7%, ‘지자체 및 지자체 위탁기관’ 3.9%, ‘민간사설업체’ 3.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비용은 한 달 평균 5천원, 도서 대여 서비스는 한 달 평균 1천원 수준이며, 대여 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장난감 대여 서비스는 4.2점, 도서 대여 서비스는 4.4점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V-2-15〉 장난감 대여 제공기관, 이용비용 및 만족도 (2022년)

단위: %, 만원, 점, (가구)

구분	제공기관(중복응답)							이용 비용	만족도	(수)
	반일제 이상 기관	육아 종합 지원 센터	공공 시설	지자체 (위탁기 관 포함)	지역 아동 센터	민간 사설 업체	기타			
장난감	0.8	66.9	11.0	21.2	0.8	6.8	-	0.5	4.2	(118)
도서	7.0	6.7	87.0	3.9	-	3.9	0.4	0.1	4.4	(285)

주: 1) 장난감/도서 대여 서비스 이용자 기준.

2) 만족도는 ‘매우 만족=1’~ ‘매우 불만족=5’로 응답된 수치를 역코딩하여 산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3) 육아 물품 지원 서비스 활용

다음으로 최근 3개월 동안 가정에서 육아 물품 제공 서비스(혹은 활동)을 받아본 경험을 살펴보았다. 육아 물품 제공 서비스(혹은 활동)을 받아보았다는 응답은 8.7%였으며, 최근 3개월 동안 평균 3.6회의 이용 경험이 있었다.

가구특성에 따라서는 지역규모에 따라 이용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이용횟수는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 지역 거주자가 육아 물품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본 비율이 11.0%로 가장 높고, 중소도시(7.1%), 읍면지역(7.3%)은 유사하였다. 이
 용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 이용 횟수는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났는데,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가구가 지난 3개월 간 평균 5.3회로 가장 많았고, 600만원 이상 가
 구 4.7회, 500~599만원 가구 3.7회, 400~499만원 가구 3.2회, 300~399만원 가
 구 2.1회로 나타났다. 즉, 299만원 이하의 가장 저소득 가구와 600만원 이상
 의 고소득 가구에서 모두 이용 횟수가 높게 나타난다. 이는 고소득 가구가 거
 주하는 지역에서 지자체 시책으로 육아 물품 지원 서비스가 더 많이 제공되었
 을 가능성을 보여주며, 동시에 저소득 가구에 제공되는 선별적 육아 물품 지원
 서비스가 많거나 저소득 가구가 서비스 제공에 접근할 기회가 많았을 것으로
 추측된다⁵³⁾.

〈표 V-2-16〉 가구특성별 육아 물품 지원 서비스 이용여부 및 횟수 (2022년)

단위: %, (가구), 회

구분		이용여부			이용횟수	
		이용함	이용안함	계(수)	평균	(수)
전체		8.7	91.3	100.0 (1,730)	3.6	(150)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9.1	90.9	100.0 (767)	3.8	(70)
	외벌이	8.3	91.7	100.0 (963)	3.4	(80)
	χ^2/t	0.4			0.6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1.0	89.0	100.0 (145)	5.3	(16)
	300~399만원 이하	7.5	92.5	100.0 (495)	2.1	(37)
	400~499만원 이하	7.9	92.1	100.0 (419)	3.2	(33)
	500~599만원 이하	7.6	92.4	100.0 (301)	3.7	(23)
	600만원 이상	11.1	88.9	100.0 (370)	4.7	(41)
	χ^2/F	5.4			2.9*	
총 자녀수	1명	7.2	92.8	100.0 (583)	4.0	(42)
	2명	9.0	91.0	100.0 (900)	3.2	(81)
	3명이상	10.9	89.1	100.0 (247)	4.4	(27)
	χ^2/F	3.3			1.2	
지역 규모	대도시	11.0	89.0	100.0 (683)	3.2	(75)
	중소도시	7.1	92.9	100.0 (788)	4.5	(56)
	읍면지역	7.3	92.7	100.0 (259)	2.5	(19)
	χ^2/F	7.6*			2.3	

주: 이용 횟수는 최근 3개월간 이용 횟수이며, 서비스 이용자 기준 평균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 $p < .05$

53) 영아 가구의 소득이 대체로 유아 가구보다 낮는데, 가정에서 영아와 부모가 함께하는 활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영아를 위한 교재/교구 물품꾸러미의 제공이 더 많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육아 물품 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은 기관으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이 6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외 ‘육아종합지원센터’ 24.0%, ‘민간사설업체’ 8.7%,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시설’ 6.7%, ‘지자체 및 지자체 위탁기관’ 5.3%, ‘지역아동센터’ 4.0% 순으로 나타났다. 육아 물품 제공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한 달 평균 1만4천원의 비용이 소요되었고, 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4점에 해당하였다.

〈표 V-2-17〉 육아 물품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비용 및 만족도 (2022년)

단위: %, 만원, 점, (가구)

제공기관(중복응답)							이용 비용	만족도	(수)
①반일제 이상 기관	②육아종합 지원 센터	③공공 시설	④지자체 (위탁기관 포함)	⑤지역 아동 센터	⑥민간 사설 업체	⑦기타			
62.7	24.0	6.7	5.3	4.0	8.7	0.7	1.4	4.0	(150)

주: ① 어린이집, 유치원,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② 육아종합지원센터, ③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시설, ④ 주민센터 등 지자체 및 지자체 위탁 기관, ⑤ 지역아동센터, ⑥ 민간사설업체(민간기업, 사설업체).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4) 육아지원 서비스 정책 개선 요구

이러한 장난감, 도서 대여, 육아 물품 제공과 같은 육아지원 서비스와 관련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어떤 정책 추진을 노력해야 하는지 중요한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 V-2-18〉에 따르면 장난감, 도서 대여, 육아 물품 지원 등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응답되었다(55.6%). 이외 ‘대여/제공하는 물품(장난감, 도서, 기타 물품)의 품질/프로그램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6.0%, ‘물품/프로그램의 다양성 제고로 선택권 확대’ (36.1%)가 많은 응답을 얻었으며, ‘부모용 교육이나 지도서 제공’ 23.6%, ‘물품/프로그램 활용법을 쌍방향 소통되는 형태로 제공(온라인 수업 포함)’ 21.2%, ‘소독/위생 관리 철저’ 18.6% 순으로 응답되었다. 즉, 육아용품의 대여 및 물품 제공 서비스는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경감과 합리적 소비에 도움이 되므로, 제공기관을 가까운 거리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의 확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대여/제공되는 물품 자체의 질 제고와 다양화로 영유아 부모들의 이용 활성화와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표 V-2-18〉 장난감, 도서 대여 및 육아 물품 지원 서비스 정책 방향 (2022년, 1+2순위)

단위: %, (가구)

구분		육아 지원 서비스 정책 방향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기타	
전체		55.6	23.6	21.2	36.0	36.1	18.6	6.8	1.4	(1,730)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56.3	23.9	19.2	34.8	35.6	20.9	6.8	1.6	(767)
	외벌이	55.0	23.4	22.8	36.9	36.4	16.7	6.7	1.3	(963)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56.6	17.9	19.3	37.2	38.6	13.1	11.0	3.4	(145)
	300~399만원 이하	52.7	24.2	22.4	36.0	36.0	17.4	8.3	2.0	(495)
	400~499만원 이하	59.7	23.2	19.6	35.3	34.8	20.3	5.5	1.0	(419)
	500~599만원 이하	59.5	25.9	19.3	31.9	33.9	23.3	6.0	0.3	(301)
	600만원 이상	51.4	23.5	23.8	39.5	38.4	16.5	5.1	1.4	(370)
자녀수	1명	53.5	24.0	20.2	35.5	38.9	20.1	6.3	1.0	(583)
	2명	56.6	23.6	22.3	38.1	32.1	18.3	6.2	1.6	(900)
	3명이상	57.1	22.7	19.4	29.1	43.7	15.8	9.7	2.0	(247)
지역규모	대도시	54.5	23.1	22.3	38.2	34.7	21.2	5.1	0.7	(683)
	중소도시	58.0	22.8	20.4	33.4	36.9	16.6	8.0	2.2	(788)
	읍면지역	51.4	27.0	20.8	37.8	37.1	17.4	7.3	1.2	(259)

주: ① 대여 기관이나 서비스 제공 기관 접근성이 개선되었으면, ② 부모가 아이의 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교육이나 지도서 등이 함께 제공되었으면, ③ 물품/프로그램 활용법을 생방향 소통이 되는 형태로 제공해 줬으면, ④ 물품 품질이나 프로그램 내용이 좀 더 질적으로 개선되었으면, ⑤ 물품/프로그램이 좀 더 다양해서 선택의 폭이 넓었으면, ⑥ 소독 및 위생 관리가 철저히 되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었으면, ⑦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었으면.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다. 부모 지원 서비스

다음으로 부모교육, 부모상담, 육아멘토 등 '부모 지원 서비스'의 전반적인 이용 경험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영유아 부모가 지난 3개월 동안 어떠한 부모 지원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그 이용 여부 및 이용 횟수를 살펴보았는데, '부모상담'을 받은 경우가 15.0%로 가장 많았고 '부모교육' 10.2%, 육아멘토 1.0%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한 경우 각 이용 횟수를 살펴보면, 부모교육은 이용자 평균 1.6회(지난 3개월 기준), 부모상담은 평균 1.4회, 육아멘토는 2.4회 이용한 것으로 응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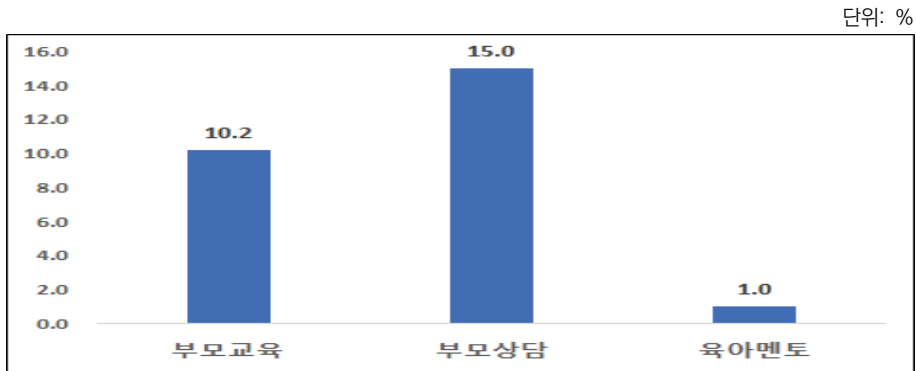
〈표 V-2-19〉 부모 지원 서비스별 이용 여부 및 이용횟수 (2022년)

단위: %, 회, (가구)

구분	이용경험여부		이용횟수	
부모교육	10.2	(1,730)	1.6	(177)
부모상담	15.0	(1,730)	1.4	(260)
육아멘토	1.0	(1,730)	2.4	(18)

주: 평균 이용횟수는 이용자 기준으로 산출.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그림 V-2-2] 부모 지원 서비스별 이용 경험



주: <표 V-2-19>를 기반으로 구성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각 부모 지원 서비스별 제공기관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반일제이상 기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든 서비스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기타 반일제이상 기관' 등 반일제이상 기관에서 제공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부모교육 72.9%, 부모상담 92.3%, 육아멘토 50.0%), 육아종합지원센터(부모교육 16.4%, 육아멘토 16.7%)이 그 다음으로 많이 응답된 제공기관이었다.

<표 V-2-20> 부모 지원 서비스별 제공기관 (2022년)

단위: %, (가구)

구분	부모교육	부모상담	육아멘토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72.9	92.3	50.0
육아종합지원센터	16.4	1.9	16.7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시설	2.3	0.8	5.6
주민센터 등 지자체 및 지자체 위탁 기관	4.0	0.8	0.0
지역아동센터	1.7	1.2	5.6
민간사설업체	0.6	2.3	5.6
기타	2.3	0.8	16.7
계 (수)	(177)	(260)	(18)

주: 각 서비스별 이용자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이러한 부모 지원 서비스별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서비스 시간(교육 시간)이 긴 순서대로 2가지까지 응답하도록 한 결과, '부모교육'은 '양육방법' 62.1%, '영유아 성장 발달 관련 정보' 49.2%, '보호자의 역할' 38.4%, '영유아의 인권 보호 및 아

동학대 예방교육' 15.3%, '부모 정서 상담 및 지원' 11.9% 순으로 응답되었다.

'부모 상담'의 경우는 '영유아 성장 발달 관련 정보'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졌다는 응답이 80.4%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양육방법' 55.8%, '보호자의 역할' 20.4%, '부모 정서 상담 및 지원' 10.4%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육아멘토'의 경우 '영유아 성장 발달 관련 정보'와 '양육방법'에 대한 멘토링을 받은 경우가 각각 72.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보호자의 역할' 16.7%, '부모 정서 상담 및 지원' 11.1%로 서비스별 주요 내용의 순위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V-2-21〉 부모 지원 서비스별 내용 분야 (2022년, 1+2순위)

단위: %, (가구)

구분	부모교육	부모상담	육아멘토
영유아 성장 발달 관련 정보	49.2	80.4	72.2
양육 방법	62.1	55.8	72.2
보호자의 역할,	38.4	20.4	16.7
영유아의 인권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15.3	7.7	5.6
가족윤리 및 예절	5.1	3.5	5.6
가족의 건강·영양·안전교육	4.0	8.1	5.6
미디어·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3.4	1.5	5.6
부모 정서 상담 및 지원	11.9	10.4	11.1
기타	2.8	1.9	0.0
(수)	(177)	(260)	(18)

주: 각 서비스별 이용자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이러한 부모 지원 서비스의 제공 방식(대면/비대면 서비스 이용 여부)과 유료 여부,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비대면 서비스로 이루어진 경우가 모든 부모지원 서비스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부모 교육'은 70.1%가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해 가장 비대면 서비스 이용 비율이 높았고, 육아멘토 50%, 부모상담 48.8%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다만, 전년도인 4차년도(2021년) 조사 결과에 비해서는 비대면 서비스 이용률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였으나, 2022년 이후 코로나19에 대한 위기감이 다소 누그러지면서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감소하였다고 보여진다.

한편, 이러한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한 비율은 부모교육 2.8%, 부모상담 3.1%, 육아멘토 11.1%로 육아멘토 이용 시 유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육아멘토’의 경우 민간사설업체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모두 평균 4.1점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표 V-2-22〉 부모 지원 서비스의 비대면 서비스 여부, 유료여부 및 만족도 (2022년)

단위: %, 점, (가구)

구분	비대면 서비스 여부				유료 여부	만족도	(수)
	대면	비대면		대면+비대면			
		2022	2021				
부모 교육	27.7	70.1	73.4	2.3	2.8	4.1	(177)
부모 상담	48.5	48.8	67.8	2.7	3.1	4.1	(260)
육아 멘토	38.9	50.0	84.6	11.1	11.1	4.1	(18)

주: 1) 각 서비스별 이용자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2) 만족도는 ‘매우 만족=1’~‘매우 불만족=5’로 응답된 수치를 역코딩하여 산출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2) 최효미 외(2021). p. 226. 〈표 V-3-18〉

이러한 부모지원 서비스와 관련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중요한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 V-2-23〉에 따르면 ‘부모지원서비스의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1.1%로 가장 많았고, ‘일대일 서비스 확대’ 29.8%, ‘이용시간 확대 혹은 변경’ 29.7%, ‘서비스 홍보 강화’ 25.8%, ‘서비스 제공기관 접근성 개선’ 24.8%,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21.6% 등이 20% 이상 고르게 응답되었다.

이는 부모지원서비스의 이용률이 10%를 상회하는 정도에 불과해 높지 않은 가운데 전방위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확대, 욕구에 맞는 전문화, 부모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시간적 접근성의 개선(제공기관의 접근성, 프로그램 제공 시간), 그리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강화 등 다방면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표 V-2-23〉 부모 지원 서비스 개선 필요사항(2022년, 1+2순위)

단위: %,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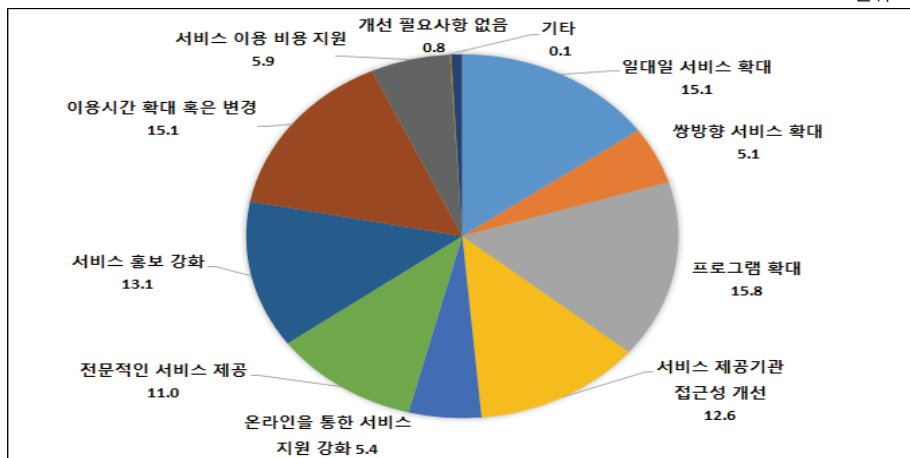
구분	부모지원서비스
일대일 서비스 확대	29.8
쌍방향 서비스 확대	10.0
프로그램 확대	31.1
서비스 제공기관 접근성 개선	24.8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지원 강화	10.7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21.6
서비스 홍보 강화	25.8
이용시간 확대 혹은 변경	29.7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11.7
기타	0.2
개선 필요사항 없음	1.6
(수)	(1,730)

주: 각 서비스별 이용자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그림 V-2-3] 부모 지원 서비스 개선 필요사항

단위: %



주: 〈표 V-2-23〉을 기반으로 구성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3. 육아서비스 지원에 대한 요구

가. 희망하는 육아서비스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녀에게 실제 가장 희망하는 양육형태는 어린이집 이용이 아닌 경우에 대하여, 실제 원하는 양육 형태는 무엇인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1~5차년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차(2018년), 2차(2019년) 조사에서는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봄’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3차(2020년) 조사 이후 ‘유치원 이용’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추세이다. 5차년도 조사에서도 어린이집 이용을 가장 원한 것은 아니었던 (현재)어린이집 이용자녀에 대해 ‘실제’ 가장 희망하는 양육 형태는 ‘유치원 이용’이라는 응답이 47.9%로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하였다. 이외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봄’이 27.5%, ‘가정에서 부모가 주로 돌보며 시간제로 양육지원 이용’ 18.9%, ‘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이 4.5% 순으로 나타나, 1~4차 조사 대비 ‘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이 크게 감소하였다.

〈표 V-3-1〉 어린이집 이용이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가 아닌 어린이집 이용자녀에 대한 실제 원하는 양육형태 (2018~2022년)

단위: %, (명)

구분	유치원 이용	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봄	가정에서 부모가 주로 돌보며 시간제로 양육지원 이용	가정에서 조부모, 육아도우미 등이 부모 대신 돌봄	기타	계(수)
1차년도(2018년)	24.8	11.3	34.8	26.4	1.7	1.0	100.0 (199)
2차년도(2019년)	31.6	10.0	36.9	19.6	1.3	0.6	100.0 (166)
3차년도(2020년)	32.5	11.3	31.6	20.8	1.9	1.8	100.0 (109)
4차년도(2021년)	37.1	9.9	33.7	18.6	0.8	-	100.0 (112)
5차년도(2022년)	47.9	4.5	27.5	18.9	1.1	-	100.0 (78)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2) 최효미 외(2021). p.228(V-4-1)

해당 자녀를 실제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로 양육하지 않는 이유는 1~5차년도 조사에 걸쳐 모두 ‘일을 하고 있어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외 ‘비용 부담 때문에’, ‘집 근처에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가 지속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응답이었다. 5차년도 조사에서도 ‘일을 하고 있어서’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로 양육하지 못한다는 경우가 43.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비용 부담 때문에’가 18.9%로 높게 나타났다.

〈표 V-3-2〉 어린이집이용이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가 아닌 어린이집 이용자녀를 실제 원하는 양육형태로 양육하지 않는 이유 (2018~2022년)

단위: %, (명)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1년)
비용 부담 때문에	17.0	19.1	13.6	11.8	18.9
일을 하고 있어서	43.5	38.6	41.1	41.6	43.4
원하는 서비스는 대기가 길어서	2.7	7.2	9.4	11.9	6.3
집 근처에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	12.6	7.4	13.0	5.3	8.7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6.3	5.7	6.5	7.8	6.4
아이를 맡길만한 인력을 찾지 못해서	3.1	8.9	5.3	4.6	1.1
원하는 서비스 수준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이 달라서	6.1	4.3	2.9	4.4	3.4
서비스 이용자격이 해당하지 않아서	0.5	0.6	1.8	0.8	2.4
기타	8.2	8.3	6.4	11.8	9.5
계(수)	100.0(199)	100.0(166)	100.0(109)	100.0(112)	100.0(78)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2) 최효미 외(2021). p.230(V-4-3)

한편 현재 유치원을 이용하는 자녀에게 가장 희망하는 양육형태는 유치원 이용이 아닌 경우에 대하여서도, 실제 원하는 양육 형태는 무엇인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1~5차년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차(2018년), 2차(2019년) 조사에서는 '학원 등 기타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을 가장 희망한다는 응답 비율이 40.2%, 28.9%로 가장 높았으나, 3차년도(2020년) 조사에서는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봄'의 비율이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4차년도(2021년)와 5차년도(2022년) 조사에서는 가장 희망하는 양육 형태가 '어린이집 이용'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변화를 보였다. 한편 5차년도에는 유치원 이용자 중 어린이집을 실제 가장 이용하길 원한다는 응답 외에도 '가정에서 부모가 주로 돌보며 시간제로 양육 지원 이용'을 하고 싶다는 비율도 32.1%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였다.

다음으로 유치원 이용자녀에 대해 실제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로 양육하지 않는 이유는 1~3차년도 조사까지는 '일을 하고 있어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4차년도 조사에서는 '기타'가 29.8%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5차년도 조사에서도 '원하는 서비스는 대기가 길어서'가 19.8%, '원하는 서비스 수준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이 달라서'가 19.4%로 나타나 조사 연차별 차이를 보였다. 이는 현재 유치원 이용자녀에 대해 실제로는 유치원 이용을 원하지 않았다는 응답 사례수가 매우 희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표 V-3-3〉 유치원 이용이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가 아닌 유치원 이용자녀에 대한 실제 원하는 양육형태 (2018~2022년)

단위: %, (명)

구분	어린이 집이용	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봄	가정에서 부모가 주로 돌보며 시간제로 양육지원 이용	가정에서 조부모, 육아도우미 등이 부모 대신 돌봄	기타	계(수)
1차년도(2018년)	26.8	40.2	7.9	25.1	-	-	100.0 (37)
2차년도(2019년)	27.6	28.9	23.5	12.1	3.9	4.0	100.0 (24)
3차년도(2020년)	29.2	21.3	38.5	11.0	0.0	0.0	100.0 (19)
4차년도(2021년)	53.0	23.4	11.9	5.9	5.8	0.0	100.0 (18)
5차년도(2022년)	41.2	18.0	8.6	32.1	-	-	100.0 (22)

주: 최효미 외(2021). p.231(V-4-4)에 5차년도 본 조사결과를 추가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2) 최효미 외(2021). p.231(V-4-4)

〈표 V-3-4〉 유치원 이용이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가 아닌 유치원 이용자녀를 원하는 양육형태로 양육하지 않는 이유 (2018~2022년)

단위: %, (명)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비용 부담 때문에	25.5	23.6	22.0	11.7	18.8
일을 하고 있어서	30.6	27.5	38.1	23.6	18.3
원하는 서비스는 대기가 길어서	5.2	4.2	11.0	11.9	19.8
집 근처에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	23.3	24.3	6.1	11.5	11.0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3.1	-	6.1	0.0	8.6
아이를 맡길만한 인력을 찾지 못해서	4.9	8.1	5.3	0.0	4.1
원하는 서비스 수준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이 달라서	4.8	4.2	0.0	11.5	19.4
서비스 이용자격이 해당하지 않아서	2.6	4.0	0.0	0.0	-
기타	-	4.0	11.5	29.8	-
계(수)	100.0(37)	100.0(24)	100.0(19)	100.0(18)	100.0(22)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2) 최효미 외(2021). p.232(V-4-6)

나. 자녀 양육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및 요구

1) 정부 지원 부족 부분 및 정책 범주별 개선 필요 사항

5차년도 조사에서 영유아 가구가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느꼈던 육아지원 분야에 대해 응답하도록 한 결과, '양육수당 등 현금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4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 '기관 보육교

육서서비스(어린이집, 유치원)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18.8%, ‘개별 돌봄 서비스’는 13.9%, ‘육아휴직 등 돌봄 시간 지원’ 11.6%, ‘시간제 이용기타 서비스’ 7.4%, ‘기저귀 등 육아 물품 지원’ 6.0% 순으로 부족하다고 응답되었다.

정부 지원이 부족한 육아정책 분야를 가구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 지역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먼저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 외벌이를 불문하고 ‘양육수당 등 현금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응답 비율은 외벌이 가구가(47.2%) 맞벌이 가구(36.4%) 보다 현저히 높았다. 맞벌이 가구는 ‘육아휴직 등 돌봄 시간 지원’의 요구가 16.7%로 외벌이 가구의 7.5%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고 ‘개별돌봄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응답도 17.2%로 외벌이 가구의 11.2%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육아휴직 등 돌봄 시간 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으로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에서는 6.2%가 이에 응답하였으나, 600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15.9%가 응답하였다. 반면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양육수당 등 현금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 비율이 증가하여,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에서는 34.3%가 현금지원이 부족하다 응답했으나,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54.5%가 응답하였다.

한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총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현금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 자녀가 1명인 경우 37.6%, 2명 43.9%, 3명 이상 48.6%가 현금지원 부족에 응답하였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현금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 비율이 증가하여 대도시 36.3%인 반면 중소도시 46.2%, 읍면지역 47.1%로 나타났고, ‘기관보육교육서비스(22.5%)’, ‘개별돌봄서비스(15.7%)’, ‘시간제 이용기타서비스(7.8%)’ 등 육아지원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응답은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V-3-5〉 가구특성별 정부 지원 부족 부분 (2022년)

단위: %, (가구)

구분		정부 지원 부족 부분						계(수)
		기관보육· 교육 서비스	개별 돌봄 서비스	시간제 이용·기타 서비스	육아휴직 등 돌봄 시간 지원	양육수당 등 현금 지원	기저귀 등 양육 물품 지원	
전체		18.8	13.9	7.4	11.6	42.4	6.0	100.0(1,730)
맞벌이 가구	맞벌이	16.3	17.2	8.2	16.7	36.4	5.2	100.0(767)
	외벌이	20.8	11.2	6.7	7.5	47.2	6.5	100.0(963)
여부		χ^2						61.4***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4.5	8.3	9.7	6.2	54.5	6.9	100.0(145)
	300~399만원	21.8	12.1	5.7	7.9	44.0	8.5	100.0(495)
	400~499만원	17.2	13.4	7.6	11.7	46.8	3.3	100.0(419)
	500~599만원	16.6	15.6	9.0	14.6	37.9	6.3	100.0(301)
	600만원 이상	20.0	17.6	7.3	15.9	34.3	4.9	100.0(370)
		χ^2						61.8***
총 자녀수	1명	21.6	14.8	7.9	11.3	37.6	6.9	100.0(583)
	2명	18.0	13.7	7.0	12.2	43.9	5.2	100.0(900)
	3명이상	15.0	12.6	7.7	9.7	48.6	6.5	100.0(247)
		χ^2						14.5
지역 규모	대도시	22.5	15.7	7.8	12.0	36.3	5.7	100.0(683)
	중소도시	15.7	12.9	7.1	11.7	46.2	6.3	100.0(788)
	읍면지역	18.1	12.0	7.3	10.0	47.1	5.4	100.0(259)
		χ^2						23.1*

주: 개별돌봄서비스는 부모가 아닌 사람(조부모, 친인척,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민간아이도우미 등)이 가정에서 해당 아동(혹은 가구내 아동)을 돌보는 경우를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 $p < .05$, *** $p < .001$.

기관 보육·교육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답한 응답 사례에 대해 기관 보육·교육서비스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응답하도록 한 결과, 5차년도(2022년) 조사에서는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충’에 51.4%가 응답하였다. 이는 1~5차 조사 전반에 걸쳐 지속되는 경향이다. 이외 5차년도에서는 ‘유치원·어린이집 영유아 인구 수 대비 적정 설치 및 확충으로 접근성 제고’가 16.9%, ‘보육료·교육비 지원 안정화’ 8.3%, ‘인력지원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 감축’ 7.7%, ‘아동학대 등 근절’ 7.4% 순으로 응답되었다. 보육·교육서비스 질 제고에 대한 요구도 높게 나타나 여전히 기관 인프라의 공급과 관련된 요구가 높게 나타나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다만,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충의 요구는 양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기관 서비스의 ‘질’에 대한 요구를 함축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표 V-3-6〉 기관보육·교육서비스 개선 필요 부분 (2018~2022년)

단위: %, (가구)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유치원·어린이집 영유아 인구 수 대비 적정 설치 및 확충으로 접근성 제고	18.3	20.7	23.4	12.0	16.9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충	50.2	52.9	49.6	51.9	51.4
보육료·교육비 지원 안정화	9.3	9.3	9.0	8.8	8.3
시설 등 물리적 환경 개선	2.6	4.1	2.4	6.1	3.1
보육·교육과정(표준교육과정, 누리과정) 개선	4.6	2.8	4.1	4.0	3.4
인력 지원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 감축	8.3	4.5	6.6	8.8	7.7
아동학대 등 근절	5.2	2.8	3.2	6.4	7.4
부모 참여 프로그램 확대	0.2	1.0	0.2	0.3	0.3
기타	1.1	1.0	0.7	0.8	1.2
개선할 부분 없음	0.2	1.0	0.7	1.1	0.3
계(수)	100.0(460)	100.0(507)	100.0(411)	100.0(376)	100.0(325)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2) 최효미 외(2021). p.236 〈V-4-10〉.

개별돌봄서비스에 정부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응답한 사례에 대해 개별돌봄서비스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응답하도록 한 결과, 5차년도(2022년) 조사에서는 '공공 개별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 확대'에 가장 많은 34.2%가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공공 개별돌봄인력 양성 확대'에 22.5%가 응답하였다. 즉, 개별돌봄서비스 정책 부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유아의 부모들은 '공공 개별돌봄서비스(즉,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비용 지원 대상인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소득 기준의 상향을 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공 개별돌봄인력인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를 더 많이 양성해 더 많은 영유아 가구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항목에 대한 높은 요구는 소비실태조사의 1~5차 조사 전반에 걸쳐 지속되는 경향이다. 5차년도에는 이외에도 '공공 개별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수준 제고' 13.3%, '개별돌봄인력의 전문성 제고' 11.7%, '공공 개별돌봄서비스의 유형 다양화' 9.2%, '긴급 돌봄에 대한 대응성 제고' 8.3% 순으로 개선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단, 5차년도에는 3~4차년도에 17.3%~18.2%의 높은 응답을 보였던 '공공 개별돌봄서비스의 유형 다양화'에 대한 요구는 9.2%로 크게 하락하여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공공 개별돌봄서비스인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비용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비용 부담이 크고, 아이돌보미 공급의 부족으로 서비스 이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매우 제한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비용 지원 대상의 확대와

아이돌보미 양성 확대에 대한 요구가 가장 주요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공공 개별돌봄인력 양성 확대에 대한 높은 요구는 기관 보육교육서비스에서 국공립 기관 확대 요구가 높은 점과 공통적인 ‘공공 돌봄서비스 인프라 확대의 요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V-3-7〉 개별돌봄서비스 개선 필요 부분 (2018~2022년)

단위: %, (가구)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공공 개별돌봄인력 양성 확대	29.3	27.7	22.8	19.8	22.5
공공 개별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 확대	33.2	30.8	35.9	33.1	34.2
공공 개별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수준 제고	10.3	8.7	6.7	11.2	13.3
공공 개별돌봄서비스의 유형 다양화	9.8	10.8	17.3	18.2	9.2
공공 개별돌봄인력의 전문성 제고	7.1	13.3	9.3	10.3	11.7
간접 돌봄에 대한 대응성 제고	9.8	6.7	7.1	5.8	8.3
기타	-	1.0	0.3	0.8	0.4
개선할 부분 없음	0.5	1.0	0.6	0.8	0.4
계(수)	100.0(184)	100.0(195)	100.0(312)	100.0(242)	100.0(240)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2) 최효미 외(2021). p.237 〈V-4-11〉.

시간제 이용기타 서비스 부분에서의 개선 필요 사항을 응답하도록 한 결과, 5차년도(2022년) 조사에서는 ‘서비스의 다양성 확대’가 36.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35.9%, ‘적극적 홍보로 서비스 내용에 대한 인지도 제고’가 17.2%, ‘서비스 수준 제고’ 9.4% 순으로 응답되었다. 이러한 응답 순위는 매년 응답률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2차년도(2019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향이다. 시간제 이용기타서비스의 경우는 수요자의 다양화된 욕구에 부응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더 많은 영유아가구가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 볼 수 있겠다. 또한 서비스의 인지도 부족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로 서비스를 많은 수요자에게 인지도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제공 대상에게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홍보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V-3-8〉 시간제 이용·기타 서비스 개선 필요 부분 (2018~2022년)

단위: %, (가구)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서비스의 다양성 확대	29.4	34.5	40.4	40.8	36.7
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	29.4	27.4	36.8	28.0	35.9
서비스 수준 제고	21.1	13.7	8.8	11.5	9.4
적극적 홍보로 서비스 내용에 대한 인지도 제고	19.3	21.4	12.7	15.9	17.2
기타	0.9	3.0	1.3	3.2	0.8
개선할 부분 없음	-	0.0	0.0	0.6	-
계(수)	100.0 (109)	100.0 (168)	100.0 (228)	100.0 (157)	100.0 (128)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2) 최효미 외(2021). p.238 〈V-4-12〉.

다음으로 부모의 돌봄 시간 지원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응답한 사례를 대상으로 부모 돌봄 시간 지원 부분에서의 개선 필요 사항을 응답하도록 한 결과, 5차년도(2022년) 조사에서는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홍보 강화)’가 25.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제도 이용의 일부 자동화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21.0%,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직장 지원 강화’가 20.5%,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에 연동된 급여 수준 제고’ 14.5%, ‘근로시간 단축 등에 연동된 복지(휴가 사용), 승급 등 인사 관련 수준의 명확한 기준 설정’ 11.5%, ‘서비스 다양성 강화’ 6.0% 순으로 응답되었다. 즉, 영유아의 부모들은 부모의 직접 자녀 돌봄을 지원하는 ‘시간 지원 제도’의 경우 해당 제도를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직장(에 대한) 지원⁵⁴⁾ 강화, 나아가 제도 이용의 일부 자동화강제화가 1~5차 년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가장 많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영유아 부모들은 자녀 돌봄 시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제도 자체의 ‘내용’ 개선 보다 ‘있는’ 제도를 ‘실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4) 휴직, 휴가 제도 이용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의미함.

〈표 V-3-9〉 부모의 돌봄 시간 지원 개선 필요 부분 (2018~2022년)

단위: %, (가구)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에 연동된 급여 수준 제고	12.4	18.5	17.9	10.9	14.5
근로시간 단축 등에 연동된 복지(휴가 사용), 승급 등 인사관련 수준의 명확한 기준 설정	14.5	7.7	8.2	8.2	11.5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홍보 강화)	32.8	26.5	27.9	28.9	25.5
제도 이용의 일부 자동화·강제화	19.0	12.1	13.9	21.4	21.0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직장 지원 강화	16.2	26.8	22.5	19.0	20.5
이용 대상 자녀 연령기준 상향	-	2.0	4.6	4.8	-
서비스 다양성 강화	4.5	4.7	4.3	6.1	6.0
기타	0.7	1.7	0.7	0.3	1.0
개선할 부분 없음	0.0	0.0	0.0	0.3	-
계(수)	100.0(290)	100.0(298)	100.0(280)	100.0(294)	100.0(200)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2) 최효미 외(2021). p.239 〈V-4-13〉.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응답한 사례를 대상으로 양육 관련 현금 지원 부분에서의 개선 필요 사항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 결과, 5차년도(2022년) 조사에서는 '현금 지원 수준 제고'가 48.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이는 1차~5차 조사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다. 이외 5차년도 조사에서는 '자녀 연령별 양육비가 많이 소요되는 핵심 범주에 대한 집중적인 양육비 제공'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1.9%, '양육비용 지원 대상 확대'가 21.0%로 유사한 응답률을 보였고, '자격 충족 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지급되는 시스템 구축'에 대한 요구는 8.2%로 나타났다. 1~4차년도 조사까지는 '양육비용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한 요구가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을 보였으나, 5차년도 조사에서는 미미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자녀 연령별 양육비가 많이 소요되는 핵심 범주에 대한 집중 양육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1~5차년도 조사에 걸쳐 '현금 지원 수준 제고'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은 공통적인 현상이나 5차년도에는 이러한 요구가 48.5%를 차지하여 1차년도 30.5% 대비 18.0%p나 증가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차년도(2020년) 39.9%로 현금 지원 수준 제고에 대한 요구가 1,2차년도 대비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하여 4차년도 44.7%, 5차년도 48.5%까지 상승하여 영유아 부모들이 현금 지원 부분에서는 지

원 수준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매우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V-3-10〉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 개선 필요 부분 (2018~2022년)

단위: %, (가구)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현금 지원 수준 제고	30.5	30.5	39.9	44.7	48.5
자격 충족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지급되는 시스템	17.9	13.8	10.4	8.6	8.2
양육 비용 지원 대상 확대	25.5	29.0	28.0	24.4	21.0
자녀 연령별 양육비 소요 핵심범주 집중 양육비 제공	25.1	24.9	20.1	21.9	21.9
기타	0.8	1.5	0.8	0.4	0.3
개선할 부분 없음	0.2	0.3	0.7	0.1	0.1
계(수)	100.0 (509)	100.0 (594)	100.0 (756)	100.0 (759)	100.0 (734)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2) 최효미 외(2021). p.240〈V-4-14〉.

한편, 2022년 양육 관련 현금 지원 개선 필요 부분에 대한 요구를 가구 특성별로 살펴보면, 맞벌이 가구 여부, 가구소득, 총 자녀수,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 연령별 양육비가 많이 소요되는 핵심 범주에 대한 집중 양육비 제공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양육비용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한 요구도 자녀가 1명인 경우 대비 2명 이상인 가구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즉, 다자녀 가정에서는 현재의 양육 관련 현금지원 정책 설계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양육 관련 현금 지원은 어린 연령부터 확대되고 있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자녀 중 현금 지원 대상이 안되는 손윗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 때문에 현금 지원 대상의 연령 확대를 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역시 여러 명의 자녀의 각 생애주기별로 양육비가 많이 소요되는 범주가 달라짐에 따라 연령에 따른 차별적인 요구가 현금 지원 정책에서도 반영되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표 V-3-11〉 가구특성별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 개선 필요 부분 (2022년): 전체 자녀

단위: %, (가구)

구분		개선이 필요한 부분						계(수)
		현금 지원 수준 제고	자격 충족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지급되는 시스템	양육 비용 지원 대상 확대	자녀 연령별 양육비가 많이 소요되는 핵심 범주에 대한 집중 양육비 제공	기타	개선할 부분 없음	
전체		48.5	8.2	21.0	21.9	0.3	0.1	100.0(734)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50.2	7.5	21.9	20.1	0.0	0.4	100.0(279)
	외벌이	47.5	8.6	20.4	23.1	0.4	0.0	100.0(455)
	χ^2	4.2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41.8	7.6	29.1	20.3	1.3	0.0	100.0(79)
	300~399만원	53.2	8.3	19.3	18.8	0.5	0.0	100.0(218)
	400~499만원	40.8	8.2	23.5	27.6	0.0	0.0	100.0(196)
	500~599만원	48.2	6.1	21.9	23.7	0.0	0.0	100.0(114)
	600만원 이상	56.7	10.2	14.2	18.1	0.0	0.8	100.0(127)
	χ^2	27.4						
총 자녀수	1명	56.2	8.7	15.5	19.6	0.0	0.0	100.0(219)
	2명	45.6	7.6	23.5	22.8	0.3	0.3	100.0(395)
	3명이상	44.2	9.2	22.5	23.3	0.8	0.0	100.0(120)
	χ^2	12.3						
지역 규모	대도시	52.0	7.7	18.1	21.4	0.4	0.4	100.0(248)
	중소도시	48.4	9.1	21.4	20.9	0.3	0.0	100.0(364)
	읍면지역	41.8	6.6	25.4	26.2	0.0	0.0	100.0(122)
	χ^2	8.4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조사 결과임.

마지막으로 양육물품에 대한 정부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응답한 사례를 대상으로 이 부분의 개선 필요 사항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 결과, 5차년도(2022년) 조사에서는 '물품 지원량 실제 필요량 수준으로 제고'와 '지원 자격기준 확대'가 동일하게 26.2%로 가장 높게 나타나, 2차~4차년도(2019년~2021년)에 걸쳐 '물품 지원 서비스 분야 다양화'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던 결과와는(2차 30.0%, 3차 28.4%, 4차년도 29.5%) 차이를 보였다.

〈표 V-3-12〉 양육물품 지원 개선 필요 부분 (2018~2022년)

단위: %, (가구)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물품 지원 서비스 분야 다양화	17.7	30.0	28.4	29.5	17.5
물품 지원량 실제 필요량 수준으로 제고	12.5	15.0	22.5	20.0	26.2
서비스 홍보 강화	13.5	9.3	10.1	6.7	5.8
물품 당 지원 기간 연장	9.4	4.3	5.3	8.6	9.7
지원 자격기준 확대	30.2	25.7	19.5	21.0	26.2
물품지원 전달체계의 접근성 확대	16.7	14.3	13.0	13.3	10.7
기타	-	0.7	0.0	1.0	1.9
개선할 부분 없음	-	0.7	1.2	0.0	1.9
계(수)	100.0 (96)	100.0 (140)	100.0 (169)	100.0 (105)	100.0 (103)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2) 최효미 외(2021), p.240(V-4-15).

2) 육아지원 부족 시기 및 개선 필요 정책 범주

육아지원 대상 시기를 ‘임신·출산기’, ‘영아양육기(출생~24개월 이하)’, ‘유아양육기(24개월~초등학교 입학 전)’으로 구분하여, 이중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한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응답 대상 영유아 가구들 중 61.0%는 ‘유아기’에 대한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응답하였고, ‘영아기’ 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26.2%, ‘임신·출산 시기’ 12.8%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 특성별 응답을 분석하면, 맞벌이 가구 중 유아기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 비율은 64.5%, 외벌이 가구는 58.3%로 맞벌이 가구가 유아기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299만원 이하 소득 가구에서 ‘영아기’에 대한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는 응답이 32.4%로 다른 소득계층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유아기 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대체로 400만원 이상 소득의 가구에서 399만원 이하 가구 보다 높게 나타났다. 임신·출산시기에 대한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는 응답은 300만원~399만원 이하 소득 가구에서 다른 소득계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녀수는 많을수록 유아기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고, 반면 자녀수가 적을수록 임신·출산기 지원, 영아기 지원에 대한 부족을 응답하는 비율이 자녀수가 많은 경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 중 유아까지 포함되거나 유아자녀 양육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아 각 시기별 부족 정도를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영아기에 기관 서비

스 대신 수급할 수 있는 가정양육수당, 또는 2022년 신규 도입된 영아수당 등 현금 지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유아기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없어 이러한 응답이 나타났을 수 있다.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 총 자녀수별 응답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반면 지역규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지역규모가 클수록 영아기 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높고,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유아기 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읍면지역에서는 대도시, 중소도시 지역에 비해 ‘임신·출산기’ 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현재 영유아 가구 자녀의 연령이나 자녀수, 임신·출산 계획 등에 따라 응답자들이 육아지원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희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응답 결과가 ‘유아기’에 대한 정부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 사료된다. 최근 임신·출산기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현금성 지원(예: 첫만남꾸러미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확대 등 서비스 지원 확대, ‘영아수당’ 등 현금지원의 수급액 상향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가 ‘유아’이상의 연령으로 수혜 대상이 아니거나 자녀 성장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는 경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뿐 아니라, 유아기 이후 양육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지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은 본 연구를 위한 사례면담에서도 다음과 같이 드러났으며, 현금 지원을 확대할 수 없다면 기관 이용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저는 속상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때는 그런 혜택을 전혀 못 받아 가지고. …(중략) 월급이 육아휴직 때문에 줄어드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고, 육아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금전적인 부담이 되고 하는 부분이 저는 있었거든요. … 육아휴직 급여가 100만원 미만으로 떨어져서 저는 (육아휴직을) 1년을 다 못썼는데 … 사실 저는 지금 다섯 살 아이 키우는데 지금이 비용이 많이 들고, 월급에서 양육비용 비중이 크다보니까. 왜 진짜 낳을 친구들에게만 지원을 해주고 실제로 둘째까지 현재 키우고 있어서 힘든 사람들한테는 왜 지원을 안 해주지라는 마음이 들거든요.[사례 11]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왜 영아한테만 그렇게 지원을 하는지(예요). 사실 아이가 크면 클수록 교육비나 뭐든 더 많이 돈이 드는데…[사례 13]

…(부모급여 지원계획에 대해) 뭐랄까 좀 억울한 것 같긴 해요. 저는 어린이집에 안보내고 아기를 오래 가정 보육 했었어서, 저는 정말 어린이집 안 보내면 손해야 이런 말을 듣고 키

웠던(사람인데). 근데 이제 만약에 누군가 아기를 낳으면 100만원씩 받고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육아하면서 그래도 뭔가 든든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저는 키울 때 약간 나는 정책에서 소외되는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중략)... 1년 차이로 누구는 받는데 누구는 하나도 안 줘 이러면 그 엄마는 약간 후회되지 않을까... 한 달 늦게 낳을걸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는 좀 억울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사례 14]

...(중략)...사실 조금 나이가 유아로 되면 가정환경에 따라 교육은 틀리니까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유치원 보내는 비용 같은 거는 조금 더 지원을 해줘서...그런 부분도 개선이 됐으면 좋겠거든요.[사례 15]

또한 지원의 지역 격차에 대한 고려도 필요해 보인다.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지역규모에 따라 육아지원이 부족한 시기에 대한 응답을 살펴 보면 몇 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읍면지역은 출생아 수가 적기 때문에 임신출산기에 필요한 의료서비스의 지원, 산후조리 서비스 등 임신·출산 관련 인프라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반면, 출생아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도시지역에서는 영아보육을 위한 보육서비스 인프라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반면 유아기에는 읍면지역에 유아들을 위한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관 보육교육 인프라의 부족과 초등학교 입학 준비에 대한 지원에 부족함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V-3-13〉 가구특성별 육아지원 부족한 시기 (2022년)

단위: %, (가구)

구분		부족한 시기			계(수)
		임신·출산 시기	영아기(출생~24개월 이하)	유아기(24개월~ 초등학교 입학 전)	
전체		12.8	26.2	61.0	100.0 (1,730)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0.7	24.8	64.5	100.0 (767)
	외벌이	14.4	27.3	58.3	100.0 (963)
	χ^2	8.5*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9.7	32.4	57.9	100.0 (145)
	300~399만원 이하	16.8	25.9	57.4	100.0 (495)
	400~499만원 이하	12.2	25.8	62.1	100.0 (419)
	500~599만원 이하	11.3	22.9	65.8	100.0 (301)
	600만원 이상	10.5	27.3	62.2	100.0 (370)
	χ^2	15.5*			
총 자녀수	1명	17.0	31.9	51.1	100.0 (583)
	2명	11.3	23.2	65.4	100.0 (900)
	3명이상	8.1	23.5	68.4	100.0 (247)
	χ^2	39.2***			

구분		부족한 시기			
		임신·출산 시기	영아기(출 생~24개월 이하)	유아기(24개 월~ 초등학교 입학 전)	계(수)
지역규모	대도시	12.4	28.0	59.6	100.0 (683)
	중소도시	12.3	26.3	61.4	100.0 (788)
	읍면지역	15.1	21.2	63.7	100.0 (259)
	χ^2	5.1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 $p < .05$, *** $p < .001$.

한편, 임신·출산, 양육기 시기별로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사례를 대상으로 해당 시기별로 어떤 범주의 육아지원이 부족한지를 질문하였다.

임신·출산기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응답한 사례의 경우, '비용지원'의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70.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서비스 지원' 16.3%, '물품지원' 9.5%, '시간지원' 3.6% 순으로 나타났다. 영아기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응답한 사례의 경우도 역시 '비용지원'이 가장 부족하다는 응답이 47.7%로 높고, '서비스 지원' 28.7%, '물품지원' 14.1%, '시간지원' 9.5%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정부 지원이 부족한 시기로 응답되었던 '유아기'의 경우도 역시 '비용 지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5.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서비스 지원' 16.0%, '시간지원' 14.5%, '물품지원' 순으로 지원이 부족한 범주를 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 각 시기에 대한 정부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은 무엇보다 '비용지원'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표 V-3-14〉 시기별 부족한 육아지원 범주 (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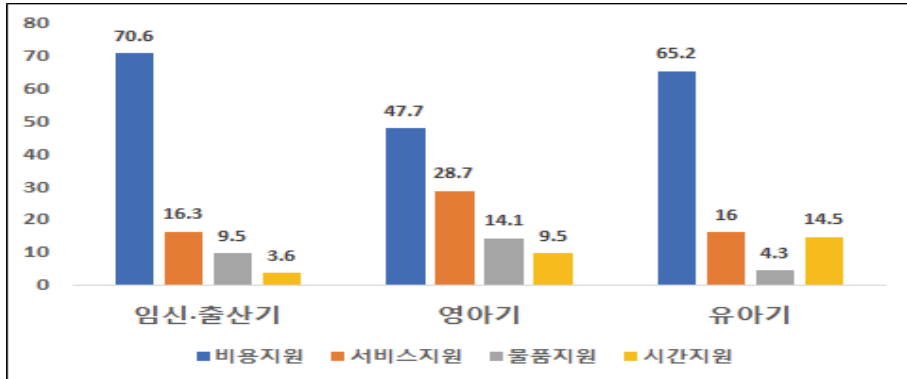
단위: %, (가구)

구분	지원 부족으로 개선이 필요한 범주				
	비용지원	서비스지원	물품지원	시간지원	계(수)
임신·출산기	70.6	16.3	9.5	3.6	100.0 (221)
영아기	47.7	28.7	14.1	9.5	100.0 (453)
유아기	65.2	16.0	4.3	14.5	100.0 (1,056)

주: 각 시기가 가장 육아지원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사례를 대상으로 개선 필요 범주를 질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그림 V-3-1] 시기별 부족한(개선이 필요한) 육아지원 범주

단위: %



주: <표 V-3-14>를 기반으로 구성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한 시기로 응답되었던 '유아기'에 개선이 필요한(지원이 부족한) 육아지원 범주를 가구 특성별로 살펴보았다. 맞벌이 가구 여부, 가구소득, 총 자녀수에 따른 응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외벌이 가구(69.2%)가 맞벌이 가구(60.8%) 보다 유아기에 대한 '비용 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았고, 반면 맞벌이 가구는 유아기에 대한 '시간지원'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9.0%를 차지해 외벌이 가구의 10.5%보다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가구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유아기 '비용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 299만원 이하 소득 가구에서는 76.2%가 응답하였으며, 반면 가구소득이 높은 가구에서 대체로 '서비스 지원', '시간지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유아기 자녀는 대부분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관 보육교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자녀 1명 당 월 십만원의 아동수당 지급이 현금으로 수혜 받는 유일한 지원일 가능성이 높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원받음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시의 추가 부담액이나 기타 양육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저소득계층일수록 클 수 있다고 보여진다. 반면 상대적으로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맞벌이 가구가 많을 수 있어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시간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 출생을 전후한 시기에 주로 사용되므로 유아기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영아기처럼 휴

가휴직을 통한 ‘집중적인 돌봄 시간 지원’과는 다른 일상적인 ‘돌봄 시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이는 ‘유연근무제’의 활성화가 필요한 부분이라 사료된다. 맞벌이 가구에 대한 ‘시간지원’의 요구는 본 연구를 위한 사례면담에서도 토로되었다.

좀 국가적으로 기업 문화를 좀 바꿔서 무조건 회사에 나와 있어야 하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근무를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기업 문화 자체를 만들어 주고 장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사례 10]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가장 눈치 보이는게 갑자기 일이 생기거나 이런 거구요 …(중략)… 제가 다른 워킹맘들한테도 물어봤었는데 다들 그냥 현금을 받는단가 누가 이모님이 와서 돌봐준다거나 이런거를 원하지 않더라고요. …아기가 돌봄 필요할 때는 진짜 어릴때잖아요. 그럴 때 엄마가 직접 케어를 하고 싶은데 돈은 벌어야 하고 또 아기는 어리고..(엄마들이) 그 사이에서 너무 애쓰고 있거든요.[사례 11]

그래서 그걸 양립할 수 있게 단축 근무를 한다고 해도 월급이 엄청 줄어들어요. 2시간 단축하게 되면 월급이 정말 확 줄고.. …(중략)…국가에서나 회사에서도 그렇게 노동력이 빠지는 거에 대해 똑같은 월급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면 재택근무라도 수행할 수 있게 해줘서 양립할 수 있게 가정과 일을(해줬으면 좋겠어요)[사례 11]

…(중략)분위기상 (육아휴직을) 좀 쓰면 안될 것 같은 그런게 있어가지고 3개월을 겨우 쓰고 복직을 했던 케이스인데. 아이는 어린데 떼어놓고 사실 복직하는게 되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육아휴직도 써도 된다고 하지만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다보니 회사에서도 꼭 써야 하는거 아니잖아 이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나라에서 육아휴직을 당연히 써도 되는(쓸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 아이를 내가 직접 돌봤으면 좋겠다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자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제재할 수 있는 이런게 생기면 좋겠다…[사례 12]

자녀수에 따라서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유아기 ‘비용 지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가 적을수록 유아기 ‘서비스 지원’과 ‘시간 지원’에 대한 응답이 높아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유아기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는 무엇보다 양육비용의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V-3-15〉 가구특성별 유아기 부족한 육아지원 범주 (2022년)

단위: %, (가구)

구분		지원 부족으로 개선이 필요한 범주				
		비용지원	서비스지원	물품지원	시간지원	계(수)
전체		65.2	16.0	4.3	14.5	100.0 (1,056)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60.8	15.6	4.6	19.0	100.0 (495)
	외벌이	69.2	16.4	3.9	10.5	100.0 (561)
	χ^2	16.3***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76.2	8.3	8.3	7.1	100.0 (84)
	300~399만원 이하	69.0	16.2	4.2	10.6	100.0 (284)
	400~499만원 이하	64.6	17.7	4.2	13.5	100.0 (260)
	500~599만원 이하	61.1	14.1	4.0	20.7	100.0 (198)
	600만원 이상	60.9	18.3	3.0	17.8	100.0 (230)
	χ^2	25.6*				
총 자녀수	1명	57.0	20.8	6.0	16.1	100.0 (298)
	2명	67.6	14.8	3.4	14.3	100.0 (589)
	3명이상	71.6	11.8	4.1	12.4	100.0 (169)
	χ^2	15.6*				
지역규모	대도시	60.9	17.4	3.7	17.9	100.0 (407)
	중소도시	67.6	15.3	4.1	13.0	100.0 (484)
	읍면지역	69.1	14.5	6.1	10.3	100.0 (165)
	χ^2	10.5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 $p < .05$, *** $p < .001$.

3) 영유아 가구 비용 지원 정책 만족도

영유아 가구 대상 비용 지원 정책별 수혜 여부와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V-3-16〉과 같다. 수혜율이 가장 높은 비용 지원 정책은 ‘아동수당’으로 99.9%의 영유아 가구에서 수혜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85.8%, ‘양육수당(영아수당 포함)’ 84.7%, ‘유치원 교육비 지원’ 47.5%, ‘첫만남 이용권’ 8.0% 순으로 응답되었다. 해당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첫만남 이용권’이 가장 높아서 5점 만점 중 평균 4.4점의 만족도를 보였고, 다음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4.1점, 유치원 교육비 지원 3.9점, 양육수당과 영아수당 동일하게 3.7점 순으로 모두 ‘대체로 만족’ 수준에 가까운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다. 한편 2022년 최초 도입된 ‘첫만남 이용권’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는데 이는 출생 후 1년까지 사용 가능한 상당히 파격적인 수준의 현금이 소득기준 등 수급 자격에 대한 제한 없이 보편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표 V-3-16〉 비용 지원 정책 수혜여부 및 만족도 (2022년)

단위: %, 점, (가구)

구분	수혜 여부	만족도							계(수)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모름/무응답	평균 점수	
유치원 비용 지원	47.5	17.5	58.5	12.2	4.3	1.7	5.8	3.9	100.0 (822)
어린이집 비용 지원	85.8	24.9	62.5	7.3	3.4	0.4	1.4	4.1	100.0 (1,484)
양육수당 (영아수당 포함)	84.7	13.0	56.2	22.0	6.2	2.4	0.2	3.7	100.0 (1,465)
아동수당	99.9	13.0	51.0	22.7	8.3	2.5	2.4	3.7	100.0 (1,728)
첫만남 이용권 ^주	8.0	47.2	32.6	7.6	2.8	0.7	9.0	4.4	100.0 (144)

주: 1) 첫만남 이용권은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만 수혜한 것으로 간주함.

2) 만족도 점수는 '매우 만족=1점'~'매우 불만족=5점'으로 측정하여 역코딩하여 산출함.

3) 만족도 점수 산출시 '모름/무응답' 사례는 제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다. 돌봄 공백 정책 요구

1) 돌봄 공백 발생과 긴급 돌봄 대응

지난 1년간 영유아 가구에서 영유아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지 못해 자녀돌봄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우(돌봄 공백 상황)가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응답 결과를 보면, 18.7%의 가구에서 돌봄 공백 상황을 경험했으며, 맞벌이 가구의 28.4%에서 돌봄 공백 상황을 겪어서 외벌이 가구의 10.9% 대비 3배 가까이 돌봄 공백 상황을 많이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은 높아질수록 지난 1년 예기치 않은 돌봄 공백을 맞은 가구가 많았던 것으로 응답되어,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에서는 13.8%가 돌봄 공백 상황을 겪었으나, 600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27.0%가 돌봄 공백을 경험했던 것으로 집계되었다. 가구소득이 높은 가구에 맞벌이 가구의 비율이 높아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총 자녀수별로는 다자녀 가구에서 더 돌봄공백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가(20.4%)로 대도시(18.6%), 읍면지역(13.5%)에 비해 돌봄 공백을 겪었던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2022년 조사시점까지 약 1년 사이 영유아 가구 5가구 중 1가구 정도는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돌봄 공백'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대표적으로 부모 모두가 취업중인 맞벌이 가구가 돌봄 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자녀가 많을수록 자녀 중

누구라도 돌봐줄 사람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다자녀 가구의 돌봄 공백 위험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표 V-3-17〉 가구특성별 돌봄 공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경우 (2022년)

단위: %, (가구)

구분		돌봄 공백 여부		
		그렇다	아니다	계(수)
전체		18.7	81.3	100.0 (1,730)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28.4	71.6	100.0 (767)
	외벌이	10.9	89.1	100.0 (963)
	χ^2	86.3***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3.8	86.2	100.0 (145)
	300~399만원 이하	12.9	87.1	100.0 (495)
	400~499만원 이하	14.8	85.2	100.0 (419)
	500~599만원 이하	25.6	74.4	100.0 (301)
	600만원 이상	27.0	73.0	100.0 (370)
	χ^2	43.6***		
총 자녀수	1명	15.1	84.9	100.0 (583)
	2명	19.9	80.1	100.0 (900)
	3명이상	22.7	77.3	100.0 (247)
	χ^2	8.4*		
지역규모	대도시	18.6	81.4	100.0 (683)
	중소도시	20.4	79.6	100.0 (788)
	읍면지역	13.5	86.5	100.0 (259)
	χ^2	6.2*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 $p < .05$, *** $p < .001$.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돌봄 공백 상황을 겪었던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그러한 돌봄 공백 상황 중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돌봄 공백이 있었는지 여부를 질문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을 거의 대부분 겪었으며, 가장 많은 경우인 61.9%가 '자녀가 이용하는 기관의 코로나19로 인한 휴원으로 등원 불가'가 됨으로써 갑작스런 돌봄 공백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휴원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자녀의 코로나19 확진' 24.1%, '부모의 코로나19 확진' 23.8%, '가정에서의 자녀 돌봄 인력의 코로나19 확진' 13.9%, '기타' 4.6%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러한 긴급한 돌봄 공백 상황 발생 시 희망하는 자녀 돌봄의 방식을 희망하는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하도록 한 결과는 〈표 V-3-19〉와 같다. 5차년도(2022년) 기준 이러한 돌봄 공백 상황에서 '부모 직접 돌봄'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86.5%로 압도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이외 ‘조부모 등 친인척 돌봄’(55.3%), ‘국가가 지정한 돌봄 기관 이용’(30.6%)이 영유아 부모들이 긴급한 돌봄 공백 상황에서 주요하게 희망하는 자녀 돌봄 방식이었으며, 이외 ‘아이돌보미 등 타인에 의한 개별 돌봄’ 9.2%, ‘지역공동체를 통한 돌봄’ 7.4%, ‘아이들끼리 됨’ 4.2% 순으로 응답되었다. 이는 전년도인 4차년도 조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이나, 4차년도에 비해 ‘조부모 등 친인척 돌봄’을 희망하는 비율이 13.2%p 증가했고, 대신 ‘국가가 지정한 돌봄 기관 이용’을 선호하는 비율은 4차년도 37.6%에서 5차년도 30.6%로 7%p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4차년도 대비 긴급한 돌봄 공백 상황에서는 ‘가정 내에서’의 부모 및 친인척 등 혈연에 의한 돌봄을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V-3-18〉 가구특성별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상황 (중복응답) (2022년)

단위: %, (가구)

①자녀돌봄인력의 코로나확진	②코로나19이유로 기관 휴원	③자녀의 코로나 19확진	④부모의 코로나 19 확진	⑤기타	(수)
13.9	61.9	24.1	23.8	4.6	(323)

주: 1) ① 자녀를 돌봐주던 인력(육아도우미, 조부모 등)의 코로나 19 확진으로 인한 돌봄 불가 ② 자녀가 이용하는 기관의 코로나 19로 인한 휴원으로 인한 등원 불가 ③ 자녀의 코로나 19 확진으로 휴원으로 인한 등원 불가 ④ 부모의 코로나19확진 ⑤ 기타
2) 가구특성별 응답 결과는 부표를 참고할 것.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표 V-3-19〉 가구특성별 긴급한 돌봄공백 발생시 희망하는 자녀 돌봄 형태 (1+2순위) (2021~2022년)

단위: %, (가구)

구분	부모직접 돌봄	조부모 등 친인척 돌봄	아이돌보미 등 타인에 의한 개별돌봄	지역공동 체를 통한 돌봄	국가가 지정한 돌봄 기관 이용	아이들끼리 있어도 됨	기타	(수)
5차년도 (2022년)	86.5	55.3	9.2	7.4	30.6	4.2	0.1	(1,730)
4차년도 (2021년)	83.1	42.1	10.3	7.0	37.6	4.7	0.1	(1,933)

주: 가구특성별 응답 결과는 부표를 참고할 것.
자료: 1)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조사 결과임.
2) 최효미 외(2021). p245. [그림 V-4-2] 수치.

다음으로 맞벌이 가구만을 대상으로 긴급한 돌봄 공백 발생 시 취업중인 부모가 활용할 수 있는 방식들에 대한 돌봄 방식 선호도를 살펴보았다. 가장 많은 맞벌이

가구가 '부모 중 누구든 연월차 휴가 사용'으로 자녀를 직접 돌보고 싶다고 응답하였고(34.6%), '부모 중 누구든 가족돌봄휴가(휴직) 사용'을 희망한다는 경우도 34.5%로 거의 유사한 응답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부모 중 누구든 재택근무 사용'으로 자녀를 직접 돌보고 싶다는 응답은 14.2%, '부모 중 누구든 육아휴직 사용'을 원한다는 응답은 11.8%, '아이를 일터에 데려감' 4.2%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돌봄휴가(휴직) 사용'으로 자녀를 직접 돌보고 싶다는 응답이 4차년도 29.5%에서 34.5%로 높아졌는데, 이는 '가족돌봄휴가(휴직)'의 인지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육아휴직, 재택근무 사용 희망은 4차년도 대비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취업한 부모들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긴급한 돌봄 공백 상황에 대해서는 '휴가' 형태로 해당 상황에 즉시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일시적인 긴급 돌봄 공백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과 같은 중장기적인 돌봄 방식이나, 일상적인 근로와 자녀 돌봄을 병행하는 '재택근무'같은 형태 보다는 가급적이면 이러한 긴급 돌봄 공백을 지원하는 목적의 '휴가'형태의 돌봄 지원이 더욱 효과적이며 선호되는 지원이 될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표 V-3-20〉 긴급한 돌봄 공백 발생 시 맞벌이 가구가 희망하는 부모직접돌봄 방식 (2022년)

단위: %, (가구)

구분	부모 중 누구든 연월차 휴가 사용	부모 중 누구든 가족돌봄휴가 (휴직) 사용	부모 중 누구든 육아휴직 사용	부모 중 누구든 재택근무 사용	아이를 일터에 데려감	기타	계(수)
5차년도 (2022년)	34.6	34.5	11.8	14.2	4.2	0.8	100.0 (621)
4차년도 (2021년)	33.1	29.5	14.4	16.0	5.0	2.1	100.0 (583)

주: 가구특성별 응답 결과는 부표를 참고할 것.

자료: 1)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조사 결과임.

2) 최효미 외(2021). p245. [그림 V-4-3] 수치.

2) 사회적 긴급 상황을 위한 육아지원 정책 개선 요구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휴원, 휴교 조치가 내려질 경우를 위해 현재 어떠한 육아지원 정책에 개선이 필요한지를 질문하였다. 가장 많은 영유아 부모가 응답한 사회적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히 개선이 필요한 육아지원 정책 분야는 '가족돌봄휴가제도'로 39.9%가

응답하였으며, ‘아이돌봄지원제도’ 25.3%, ‘기관돌봄’ 11.3%, ‘유연근무제도’ 10.5%, ‘육아휴직제도’ 9.5%, ‘지역공동체 및 기타 아동 지원’ 4.2%, 기타 0.2% 순으로 나타났다.

〈표 V-3-21〉 사회적 긴급상황 대비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육아지원 정책 (중복응답) (2022년)

단위: %, (가구)

가족돌봄 휴가제도	육아휴직 제도	유연 근로제도	아이돌봄 지원제도	기관 돌봄	지역공동체 및 기타 아동 지원	기타	(수)
39.9	9.5	10.5	25.3	11.3	4.2	0.2	(1,730)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조사 결과임.

사회적 긴급상황을 대비하여 개선이 필요한 육아지원 정책별로 개선해야 할 방향성을 응답하도록 한 결과는 〈표 V-3-22〉에 제시한 바와 같다. 정책별로 가장 필요한 순서대로 개선 방향을 응답하도록 하였던 바, 가장 많은 영유아 가구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족돌봄휴가제도’의 경우 ‘휴가 사용 일수 연장’(54.9%), ‘비용 지원의 확대’(49.4%), ‘제도 사용 의무화(34.1%)’가 주요 응답이었다.

사회적 긴급 상황 대비를 위해 ‘육아휴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개선의 방향성은 ‘비용 지원의 확대(59.4%)’, ‘휴가사용 일수 연장’(56.4%)에 대한 요구가 주요한 응답이었다.

‘유연근무제도’의 경우 ‘제도 사용 의무화’에 대한 개선이 38.7%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응답되었으며, 아이돌봄지원제도는 ‘비용 지원의 확대’(56.5%), ‘기관돌봄’은 ‘어떤 제도이든 신속한 대응체계의 마련’(38.3%), ‘지역공동체 및 기타 아동 지원’에서는 ‘비용 지원 확대’(50.7%)가 개선 방향으로 가장 많이 요구되는 방향성이었다.

응답 결과를 통해 뚜렷하게 드러나는 점은 영유아 부모들이 각 제도들을 이용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즉, 가족돌봄휴가와 같은 신규 도입 제도의 경우 사용 가능 일수가 아직은 제한되어 있고 휴가 사용 시의 급여 감소 등의 문제가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이며, 육아휴직은 낮은 급여대체율과 사용 가능 기간의 제한이 육아휴직제도 이용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가족돌봄휴가휴직, 육아휴직, 유연근무제도와 같이 취업한 부모가 취업을 중단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제도들은 공통적으로 '제도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이 용하기 어려운 (직장)문화나 분위기'에서 당당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자격해당자의 제도 사용 의무화'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표 V-3-22〉 정책별 사회적 긴급상황에서 개선이 필요한 정책별 육아지원 정책의 개선 방향 (2022년, 1+2순위)

단위: %, (가구)

구분	정책 개선 방향									(수)
	휴가 사용 일수 의 연장	비용 지원의 확대	신청 절차의 간소화	제도 사용 의무화	어떤 제도가 든 신속 대응 체계의 마련	방역 체계를 보강하여 기존이용기 관이 휴원하지 않고 운영	학습 결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지원 체계 구축	돌봄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모니터 링 강화	기타	
전체	37.1	49.3	28.4	28.5	27.9	17.7	5.5	4.7	0.2	(1,730)
필요한 정책	가족돌봄휴가제도 54.9	49.4	23.9	34.1	20.1	9.3	4.1	3.5	0.1	(690)
	육아휴직제도	56.4	59.4	27.3	27.3	18.2	6.7	2.4	1.8	(165)
	유연근무제도	38.1	32.6	29.8	38.7	31.5	14.9	7.2	5.5	(181)
	아이돌봄지원제도	16.5	56.5	35.2	21.7	35.9	23.3	5.0	5.0	(437)
	가관돌봄	13.3	37.8	30.1	18.4	38.3	42.9	10.7	7.1	(196)
	지역공동체 및 기타아동 지원	16.4	50.7	23.3	23.3	37.0	27.4	11.0	11.0	(73)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지난 1년간 경험한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의 자녀돌봄과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자녀돌봄에 대한 수요와 요구가 다르다고 생각하는지 영유아 부모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응답 결과 영유아 부모의 52.4%가 지난 1년간의 위험상황에서의 자녀돌봄의 요구와 일상적인 자녀 돌봄에의 요구나 수요는 다르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 차이를 못 느끼는 경우가 25.7%이며, 다르지 않다는 경우는 21.9%에 해당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과반수 이상의 영유아 부모들은 일상적인 자녀 돌봄에의 요구나 수요는 코로나19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위험상황(긴급 상황)에서의 자녀 돌봄 요구나 수요와 다른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에 긴급 상황에 대비한 돌봄 정책이 추가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 자녀수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였다. 맞벌이 가구가(57.6%) 외벌이 가구(48.1%)보다 두 상황에서의 자녀 돌봄 수요와 요구가 차이가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또한 두 상황에서의 돌봄 수요와 요구의 차이를 다르게 인식하는 비율은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299만원 이하에서 41.4%(어느 정도 다름 29.0%+ 매우 다름 12.4%)로 가장 낮고, 400~499만원 이하 가구에서 57%(35.3%+ 21.7%)로 가장 높았다. 한편 자녀수가 많을수록 코로나19와 같은 긴급상황과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돌봄 수요와 요구가 다르다는 의견이 많았다.

〈표 V-3-23〉 가구특성별 코로나19 상황과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자녀돌봄에 대한 수요와 요구에 대한 인식차이 (2022년)

단위: %, (가구)

구분		전혀 다르지 않다	별로 다르지 않다	보통	어느정도 다르다	매우 다르다	기타	계(수)
전체		2.5	19.4	25.7	32.7	19.7	0.1	100.0 (1,730)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2.3	18.0	21.9	33.9	23.7	0.1	100.0 (767)
	외벌이	2.6	20.5	28.8	31.7	16.4	0.1	100.0 (963)
χ^2		21.6***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1	28.3	28.3	29.0	12.4	0.0	100.0 (145)
	300~399만원 이하	3.0	19.6	29.7	32.1	15.4	0.2	100.0 (495)
	400~499만원 이하	2.1	16.9	23.9	35.3	21.7	0.0	100.0 (419)
	500~599만원 이하	3.0	18.6	23.9	32.9	21.6	0.0	100.0 (301)
	600만원 이상	1.9	18.9	23.0	31.6	24.3	0.3	100.0 (370)
	χ^2	32.4*						
총 자녀수	1명	2.7	21.6	28.5	28.8	18.2	0.2	100.0 (583)
	2명	2.1	17.8	25.8	33.8	20.6	0.0	100.0 (900)
	3명이상	3.2	19.8	19.0	37.7	19.8	0.4	100.0 (247)
	χ^2	18.8*						
지역 규모	대도시	2.3	19.5	25.5	35.6	17.0	0.1	100.0 (683)
	중소도시	2.2	18.5	26.3	29.9	23.0	0.1	100.0 (788)
	읍면지역	3.9	21.6	24.7	33.2	16.6	0.0	100.0 (259)
	χ^2	15.6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 $p < .05$, *** $p < .001$.

4. 소결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및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를 살펴보았는데,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들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실태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영유아

들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률이 감소한 가운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여전히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이용 비율이 민간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이용 비율보다 낮았다. 어린이집의 경우는 읍면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대도시, 중소도시보다 낮게 나타났고, 유치원의 경우는 대도시 지역의 국공립유치원 이용 비율이 읍면지역에 비해 크게 낮았다. 기관 보육교육서비스 관련 영유아 부모들의 정책 개선 요구를 살펴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보육교육서비스 기관’ 비율의 확대는 지속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모들이 ‘국공립’ 기관을 선호하는 것은 결국 국공립 보육교육서비스 기관의 서비스 질이 더욱 높을 것이라는 ‘질’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양적인 확대와 더불어 질적인 우수성이 담보될 수 있는 서비스 질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국공립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기회에 있어 지역 인프라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역별 국공립 보육교육서비스 인프라의 총량을 고려해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영유아들의 어린이집, 유치원, 기타 반일제이상 기관 등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비용을 살펴본 결과 어린이집은 2018년 대비 5천원 상승, 유치원은 2018년 대비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나, 기타 반일제이상 기관(예: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 놀이학원 등)의 비용은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다수의 영유아가 이용하고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은 무상보육교육 정책으로 인해 비용 부담이 매우 낮게 유지되고 있어, 전반적인 교육보육비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고 보여진다. 즉,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보육비’ 부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이에 대한 재정지원이 꾸준히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셋째, 영유아 부모들이 희망하는 자녀돌봄의 형태를 지원하기 위해 부모의 직접 돌봄시간을 지원하는 제도의 확대 강화가 필요하다. 본 5차년도 조사 결과, 현재 기관을 이용하는 자녀를 위해 실제로 희망하는 자녀연령대별 양육 형태는 1~2세 영아의 경우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봄’이며, 3세는 ‘가정에서 부모가 돌보며 시간제 양육지원을 이용하는 것’, ‘4~6세’는 유치원 등 기관을 이용하는 양육 형태였다. 이처럼 3세 이하의 어린 영유아들을 돌보는데 있어 취업·미취업을 불문하고 부

모가 직접돌보는 시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겠다. 이에 육아휴직 등 취업 부모의 ‘직접돌봄시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실질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휴직을 통한 전적인 돌봄이 아니더라도 유연근무제도를 통해 자녀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

넷째, 공공 개별돌봄서비스의 확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조사 결과 가정내 개별인력에 의한 ‘개별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중 서비스 제공자가 ‘조부모’인 경우는 5차년도에 3차, 4차년도 대비 감소하였고, 민간 육아도우미 비중이 높아졌다. 조부모 의존도가 감소하였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공공 아이돌보미의 확대가 아직 더딘 가운데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시 비용 부담과 인력의 신뢰성에 대한 확인의 어려움으로 개별 가정에서 민간육아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개별 가구의 사적자원인 ‘조부모’와 민간 육아도우미 서비스 시장에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의 책임을 맡겨둘 것이 아니라 ‘공공의 개별돌봄서비스(예: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 보여진다.

다섯째, 영유아 부모의 직접돌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조사 결과 많은 영유아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시간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4.3%의 영유아 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사와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힘들어서(30.9%)’, ‘양육과정의 스트레스 때문에(28.8%)’, ‘체력적으로 힘들어서(28.7%)’ 등이 주요한 이유로 응답되었다. 이러한 양육부담 때문에 TV, 미디어 기기 등 전자기기의 이용을 자녀에게 허용한다는 경우도 70.6%에 달할 정도로 미디어를 양육부담 경감의 도구로 활용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핵가족화로 인해 자녀 양육부담이 부부 또는 주양육자 1인 위주로 집중되면서 소위 ‘독박육아’의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 부모가 적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가정 내에서의 양육부담을 덜어줄 ‘외부 인력’의 도움이 필요하며, ‘가정 내’에서의 양육 환경의 한계로 더 어려워지는 돌봄 시간을 편안하고 즐겁게 채울 수 있는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여섯째,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로 도서관 장난감 대여 서비스,

육아물품 지원은 무엇보다 접근성의 개선이 필요한 것을 나타냈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육아지원 서비스들은 이용한 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고, 양육비용 경감에 도움이 되고 합리적인 육아소비를 이끌 수 있는 바람직한 서비스로 판단되나,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의 접근성에 대한 요구가(물리적 접근성, 홍보 부족 등)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이외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지만 다양성 확대와 ‘품질’관리에 대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모상담, 부모교육 등의 부모지원 서비스들도 이용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이용을 원하는 부모가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접근성을 높이고, 프로그램의 다양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일곱째, 5차년도 조사에서 가장 정부지원이 부족한 시기가 언제인지 질문한 결과 ‘유아기’가 가장 부족한 시기로 응답되었다. 임신·출산기, 영아기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지속적으로 도입되고 있음에 비해 특별히 유아기를 타겟으로 한 지원이 없어 유아를 둔 가구에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킬 뿐 아니라, 실제로 영아보다 유아기에 증가하는 양육비용 대비해서도 정부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제기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유아기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범주도 ‘비용지원’이라는 응답이 65.2%에 달하여 ‘비용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다고 할 수 있겠다. 자녀 성장에 따라 증가하는 양육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다양한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영아기’ 이후의 연령대에 대한 현금성 지원 확대, 또는 대부분의 유아가 사용하는 ‘기관 보육·교육서비스’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에 대한 추가지원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Part II

심층분석

VI

육아가구 특성별 소득 및 지출 시계열 분석

- 01 분석 배경: 육아가구 특성별 소득 및 지출 변화 고찰
- 02 분석 자료 및 방법
- 03 분석 결과
- 04 소결 및 시사점

VI. 육아가구 특성별 소득 및 지출 시계열 분석

1. 분석 배경: 육아가구 특성별 소득 및 지출 변화 고찰

‘KICCE 소비실태조사’는 2018년부터 육아 가구를 대상으로 연동 패널조사 방식을 접목하여, 지속적인 표본 추적(패널 조사) 및 신규표본 추가를 통해,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를 조사해왔다(최효미·강은진·조미라·조숙인·김태우, 2018: 77~78). 이에 대해 새롭게 변화된 정책 현황을 고려하여 설문 시의 적절하게 수정, 추가함으로써 정책적 변화에 대응하는 육아 가구의 행동 양태 및 수요 변화를 고찰해왔다. 더불어 본 조사는 시계열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패널 조사와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횡단조사의 장점을 모두 가진 조사로서, 새로운 정책 변화의 효과를 보다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축적이 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최효미 외, 2018: 77~78; 252).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의 본 심층분석에서는 1~4차년도까지 자료를 활용하여, 육아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양육비용의 크기와 비중에 대한 시계열적 흐름을 파악하고, 신규 도입 및 확산된 영유아 가구 지원 정책의 효과에 대해 소비와 관련된 주요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육아 가구의 소비실태와 관련하여 생활비 관련 주요 지표로는 엔젤지수⁵⁵⁾, 슈바베지수⁵⁶⁾, 엔젤지수⁵⁷⁾ 등이 있으며, 이와 더불어 보건/의료비⁵⁸⁾와 영유아 가구의 완구와 도서구매와 같은 육아용품 지출에 대한 추이도 주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실제

55) 엔젤지수는 각 가구별로 (식비/가구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

56) 슈바베지수는 각 가구별로 (주거비/가구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

57) 엔젤지수는 각 가구별로 (영유아 양육비용 총액/가구 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

58) ‘KICCE 소비실태조사’에서 보건/의료비 1차년도(2018년)부터 4차년도(2021년)까지 생활비 지출 총액에서 평균 비용 및 비목별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자녀양육에 지출한 비율은 감소하고 있음(예: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비목별 가구 생활비 대비 총 보건/의료비 양육비용 비중은 1차년도(71.5%), 2차년도(68.1%), 3차년도(61.9%), 4차년도(59.7%)임(최효미 외, 2021: 123)).

2016년부터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대여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20년에 크게 감소하였다(최효미 외, 2021: 64). 이러한 육아 관련 용품의 대여 실적 감소는 대여가 아닌 가구별 소비를 통한 용품 확보로 이어져 관련 품목에 대한 가구의 지출규모를 확대시켰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가구별 지출 행태는 가구소득의 규모와 가구의 개별적 특성(맞벌이 가구 여부, 자녀 수,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심층분석에서는 가처분소득(可處分所得, disposable income)⁵⁹⁾인 가구소득을 세목⁶⁰⁾별로 세분화하여 육아가구의 개별 가구특성을 고려한 소득과 소비지출의 규모와 비중의 추이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영유아 가구의 구성원들이 소비하는 식비, 주거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완구 및 도서 관련 비용의 비중을 결정짓는 요인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가구의 소득과 지출 특성⁶¹⁾을 구분 짓는 거주 지역, 맞벌이 가구 여부, 자녀 수, 부모의 연령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자료의 영유아 가구(막내 자녀의 연령이 만6세 이하인 가구)를 분석 대상으로 하며 가구특성에 따른 가구소득 대비 육아가구의 지출 비중의 추세를 비교하였다.

2. 분석 자료 및 방법

가. 분석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는 매년 육아가구의 소득 및 지출에 대한 정보를 설문을 통해 수집하며 조사 문항은 크게 가구조사 문항과 아동조사 문항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따라 가구조사 자료만을 활용하여 진행되었음을 밝

59) 가처분소득(可處分所得, disposable income)은 소득을 분류하는 여러 가지 기준 중의 하나인데, 후생 수준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일반 시민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가처분소득을 구하기 위한 공식은 다음과 같다. 가처분소득=시장소득(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비소비지출(나무위키, 가처분소득, <https://namu.wiki/w/%EA%B0%80%EC%B2%98%EB%B6%84%EC%86%8C%EB%93%9D> (인출일: 2022. 9. 12.)).

60) 소비실태조사에서 가구소득은 근로소득, 부동산 소득 및 금융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기타소득, 사회보험소득으로 구분되어 조사된다(최효미 외, 2018: 87).

61) 조사가구의 소득은 지난 3개월간의 월 평균 소득(세후소득)을 조사하였으며, 2020~2021년 기준으로 8개의 소득으로 구분되어 진다. 8개의 소득은 본인 근로 및 사업소득, 배우자 근로 및 사업소득, 기타 가구원 근로소득, 부동산소득 및 금융소득, 공적이전소득 및 사회보험소득,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상황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2018~2019년 해당 항목 없음), 사적이전소득,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한편 생활비 지출 및 자녀 양육비용은 조사시점대비 지난 3개월간의 월평균 비용이 조사되었다.

혀둔다.

이 장의 심층 분석을 위해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까지 축적된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패널데이터는 횡단면적 정보뿐만 아니라 시계열 정보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연구의 목적에 따라 시계열 분석 내지 횡단면 분석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추가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패널 데이터의 종류는 각 개체의 데이터 포괄 기간이 서로 동일한지 여부와 시간 갭(Time gap)의 여부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⁶²⁾. KICCE 소비실태조사의 경우 조사주기는 1년 단위로 매년 유사한 시점에 조사를 수행하므로 시간 갭이 있는 균형 패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KICCE 소비실태조사는 패널방식으로 매년 자료를 수집해왔으며 동시에 실제적으로 양육환경과 관련 정책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여 조사문항을 설계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왔다. 따라서 여타 패널자료와 달리 매년 일부 문항이 새롭게 추가되거나 통합 혹은 세분화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요약하면 일반적인 패널자료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긴 하나 횡단면적 관점에 집중하여 설계된 조사 문항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숙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널자료의 여러 장점을 이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한다. 먼저 패널 자료는 매년 특정 시점에서 여러 개체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변수들 간 정적 관계를 추정할 수 있으며, 매년 유사한 특성을 지닌 영유아 육아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므로 개별 가구에 대한 정보를 반복하여 수집하기 때문에 동적관계를 동시에 추정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분석 대상이 되는 패널가구의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 요인을 모형에서 고려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패널자료는 횡단면 또는 시계열자료에 비해 더 많은 정보와 변수의 변동성(variability)을 제공하므로 효율적인 추정량(efficient estimator)을 얻을 수 있다. 즉 동일한 가구를 대상으로 반복측정을 하게 되어 특정 가구내의 관찰 값에 대한 상관성이 높아 선행회귀모형을 적용할 경우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62) 패널데이터의 종류는 각 개체의 데이터 포괄기간이 서로 동일한지 여부와 시간 갭(Time gap)의 여부에 따라 ① 각 개체의 데이터 포괄기간이 동일하고 시간갭이 없는 균형 패널, ② 각 개체의 데이터 포괄기간이 다르지만 시간갭이 없는 불균형 패널, ③ 각 개체의 데이터 포괄기간이 동일하지만 시간갭이 존재하는 균형 패널, ④ 각 개체의 데이터 포괄기간이 다르며 시간갭이 존재하는 불균형 패널로 분류할 수 있음. (위키백과, 패널분석. https://ko.wikipedia.org/wiki/%ED%8C%A8%EB%84%90_%EB%B6%84%EC%84%9D (인출일: 2022. 6. 15.)).

본 심층분석에서 사용된 소득, 지출, 양육비용에 대한 자료는 2022년 소비자 물가지수(2020=100) 공표전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 1차년도(2018)에서 4차년도(2021년)'까지 활용된 소비자 물가지수(2015=100)를 통해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하여 실질비용 처리된 자료로서, 본 보고서 III~V장에서 2020년 기준 물가로 환산 처리하여 제시한 수치와는 차이가 있음을 밝혀둔다. 특히 III~V장에서 제시된 1~5차년도 자료에서는 가구소득 범주도 2022년 소비자 물가지수(2020=100)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산출함으로써 각 년도 가구소득 범주에 해당하는 가구의 사례 수도 본 심층 분석 결과와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나. 분석 대상 특성

KICCE 소비실태조사 연도별 표본 특성을 살펴보면 연도별로 3명 이하 가구 비중은 점차 줄고 4명 이상의 가구 비중이 다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추세는 전체 가구 표본에서 더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그러나 연도별 가구원수의 비중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평균 가구원수는 1차년도는 3.8명으로 나타났으며 2~4차년도 모두 3.9명으로 대체로 일정하게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맞벌이 가구 비중은 1차년도에 46.2%에서 4차년도에 43.3%로 연도별로 비중이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은 영유아 가구 표본의 경우 3차년도에 400만 원 이상 가구의 비중이 70.8%로 다른 년차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I-2-1〉 KICCE 소비실태조사 표본 특성 (2018~2021년)

단위: 가구(%)

구분		전체 가구 표본				영유아 가구 표본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전체		1,648 (100.0)	1,902 (100.0)	2,156 (100.0)	1,933 (100.0)	1,648 (100.0)	1,665 (100.0)	1,679 (100.0)	1,709 (100.0)
가구원수	3명이하	609 (37.0)	638 (33.5)	704 (32.7)	617 (31.9)	609 (37.0)	542 (32.6)	527 (31.4)	541 (31.7)
	4명	781 (47.4)	952 (50.1)	1,087 (50.4)	986 (51.0)	781 (47.4)	843 (50.6)	858 (51.1)	880 (51.5)
	5명이상	258 (15.7)	312 (16.4)	365 (16.9)	330 (17.1)	258 (15.7)	280 (16.8)	294 (17.5)	288 (16.9)

구분		전체 가구 표본				영유아 가구 표본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평균 가구원수		3.8	3.9	3.9	3.9	3.8	3.9	3.9	3.9
기초 수급 여부	해당	20 (1.2)	20 (1.1)	13 (0.6)	13 (0.7)	20 (1.2)	19 (1.1)	11 (0.7)	12 (0.7)
	비해당	1,628 (98.8)	1,882 (99.0)	2,143 (99.4)	1,920 (99.3)	1,628 (98.8)	1,666 (98.9)	1,668 (99.3)	1,696 (99.3)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762 (46.2)	856 (45.0)	960 (44.5)	837 (43.3)	762 (46.2)	738 (44.3)	735 (43.8)	720 (42.1)
	외벌이	886 (53.8)	1,046 (55.0)	1,196 (55.5)	1,096 (56.7)	886 (53.8)	927 (55.7)	944 (56.2)	989 (57.9)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359 (21.8)	273 (14.4)	158 (7.3)	221 (11.4)	359 (21.8)	239 (14.4)	118 (7.0)	200 (11.7)
	300~399만원 이하	474 (28.8)	536 (28.2)	471 (21.8)	525 (27.2)	474 (28.8)	468 (28.1)	372 (22.2)	476 (27.9)
	400~499만원 이하	374 (22.7)	493 (25.9)	634 (29.4)	501 (25.9)	374 (22.7)	435 (26.1)	512 (30.5)	448 (26.2)
	500~599만원 이하	201 (12.2)	298 (15.7)	402 (18.6)	343 (17.7)	201 (12.2)	268 (16.1)	296 (17.6)	293 (17.1)
	600만원 이상	240 (14.6)	302 (15.9)	491 (22.8)	343 (17.7)	240 (14.6)	255 (15.3)	381 (22.7)	292 (17.1)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

가구특성별 KICCE 소비실태조사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1차년도 444.6만원, 2차년도 475.7만원, 3차년도 501.8만원, 4차년도에 488.5만원으로 3차년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를 하는 가구의 월평균 총 가구소득이 연도별로 차이는 있으나 외벌이 가구보다 대략 100~150만원 가량 더 높게 나타났다. 자녀수에 따라서는 대체로 자녀가 1명인 가구에 비해 2명 이상인 가구가 월평균 50만원 내외로 소득이 높게 나타났다.

〈표 VI-2-2〉 가구특성별 KICCE 소비실태조사 월평균 총 가구소득 변화 (2018~2021년, 실질비용)

단위: 만원

구분		전체 가구				영유아 가구			
		1차	2차	3차	4차	1차	2차	3차	4차
전체		444.6	475.7	501.8	488.5	444.6	471.5	502.3	485.6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518.8	557.1	571.0	561.4	518.8	549.7	571.9	558.8
	외벌이	380.9	409.2	446.3	432.8	380.9	409.2	448.1	432.3
자녀수	1명	437.6	460.9	474.4	455.6	437.6	456.2	470.5	448.2
	2명	443.5	479.9	516.0	503.1	443.5	479.0	517.3	504.3
	3명이상	472.4	498.0	514.5	508.4	472.4	479.9	518.0	500.1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

영유아 가구의 생활비 지출은 코로나19 전(2018~2019년)과 후(2020~2021년)로 양태가 구분된다. 전반적으로 생활비 지출총계는 코로나19 초기인 3차년도(2020년)에는 전년에 비해 다소 낮아지며 소비가 위축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4차년도에는 지출 수준이 예년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관찰되었다(최효미 외, 2021: 112). 실질비용 기준으로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2021년 287만4천원으로, 전년 대비 11만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2차년도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최효미 외, 2021: 112).

생활비 지출을 비목별로 살펴보면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으며 교육/보육비가 두 번째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식비의 평균 비용 및 비중은 1차년도 77만9천원(29.9%), 2차년도 79만5천원(28.3%), 3차년도 89만8천원(32.5%), 4차년도 88만4천원(31.8%)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3차년도) 이후에 크게 증가하였다(최효미 외, 2021: 112). 교육/보육비는 2018년 39만4천원(13.4%), 2019년 41만2천원(14.7%)에 달했으나, 2020년 28만6천원으로 급감하였으며, 2021년에는 35만7천원으로 증가하긴 했으나, 2018년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최효미 외, 2021: 113).

연도별 비교에서 1~4차년도(2018~2021년) 사이에 비용 및 비중이 꾸준히 증가한 비목은 기기/집기, 보건/의료비, 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에 해당하며, 보건/의료비의 경우 1차년도 6만8천원(2.8%), 2차년도 8만5천원(3.0%), 3차년도 10만8천원(3.9%), 4차년도 11만7천원(4.0%)으로 3차년도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표 VI-2-3〉 월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 및 비목별 비중 변화 :

양육비용과 비목 일치 시(2018~2021년, 실질비용, 영유아 가구 표본)

단위: 만원(%)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평균 비용	비목별 비중	평균 비용	비목별 비중	평균 비용	비목별 비중	평균 비용	비목별 비중
총계	267.6	(100.0)	280.7	(100.0)	276.2	(100.0)	287.4	(100.0)
1.식비(외식비포함)	77.9	(29.9)	79.5	(28.3)	89.8	(32.5)	88.4	(31.8)
1-1.외식비	24.0	(9.0)	24.9	(8.9)	26.2	(9.5)	26.4	(9.3)
3.기기/집기	6.0	(1.9)	7.6	(2.7)	10.4	(3.8)	12.1	(3.3)
4.피복비(의류 및 신발)	17.5	(6.6)	17.8	(6.3)	17.9	(6.5)	18.8	(6.6)
5.보건/의료비	6.8	(2.6)	8.5	(3.0)	10.8	(3.9)	11.7	(4.0)
6.교육/보육비	39.4	(13.4)	41.2	(14.7)	28.6	(10.4)	35.7	(11.2)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평균 비용	비목별 비중	평균 비용	비목별 비중	평균 비용	비목별 비중	평균 비용	비목별 비중
7.여가 및 문화생활비 (교양/오락비)	31.0	(11.0)	30.1	(10.7)	21.8	(7.9)	24.1	(8.0)
7-1.가족여행 등	19.0	(6.6)	18.3	(6.5)	10.5	(3.8)	13.4	(4.3)
7-2.관람 체험학습	3.9	(1.5)	3.8	(1.4)	1.2	(0.4)	1.6	(0.5)
7-3.완구	3.8	(1.4)	3.9	(1.4)	4.4	(1.6)	4.4	(1.6)
7-4.도서구매	4.3	(1.5)	4.1	(1.5)	4.7	(1.7)	4.2	(1.4)
8.교통비	25.3	(10.0)	26.3	(9.4)	24.9	(9.0)	24.7	(9.0)
9.통신비	16.4	(6.7)	16.8	(6.0)	17.1	(6.2)	16.8	(6.3)
9-1.휴대전화비	12.0	(4.9)	11.6	(4.1)	12.2	(4.4)	12.4	(4.7)
10.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12.4	(4.9)	12.9	(4.6)	14.0	(5.1)	14.0	(5.1)
11-2.보험	34.9	(11.6)	40.0	(14.3)	40.8	(14.8)	41.0	(14.6)

주: 1) 비목 및 세목별 지출액이 없는 경우는 0으로 처리하였으며, 총계 대비 각 비목별 비중은 가구별로 각각 비중을 산출한 후 평균한 값임.

2) 양육비용과 비목을 일치시킨 생활비 지출은 생활비 지출 총액에서 주거비, 이전 지출 등을 제외한 금액.

3) 소비자물가지수(2015=100)를 통해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

다. 분석 방법

KICCE 소비실태조사는 매년 추적 실태 표본에 대해 대체표본을 추가하여 진행하며, 매년 추가된 표본을 고려하여 4차년도 기준으로 한 차례라도 조사에 참여한 가구의 전체 규모는 3,300가구에 이른다. 전체적으로 표집 규모를 매년 일정하게 유지하려 노력하였기에 자료 구조가 조금 더 복잡해진 특성이 있다. 일부 패널조사의 경우,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표집설계시점에 가중치 산출방법을 결정하고, 표집이 완료된 시점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모수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소비실태조사도 표집이 완성된 이후에 가중치를 산출하여 적용하였으며 가중치 산출 및 적용은 모집단인 육아가구의 특성 파악이 어려워 아동만을 대상으로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가구조사 자료만을 활용하기에 가중치 설계 및 적용에 대한 기술은 제외한다. 한편 2018년 1차년도 조사 이후로 2021년 진행된 4차년도 조사까지 유지된 본 표본의 크기는 733가구에 해당한다.

KICCE 소비실태조사 자료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육아가구라는 동일한 특성을 가진 집단에서 일부 대체 패널이 추가되어 기존의 표본과 유사한 표본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조사 시점 간 관측치를 비교하는 추세연구에 적합한 형태이다. 따라서

분석 대상 가구 기준은 분석단계에서 본 표본 유지 가구와 대체 표본가구의 특성을 구분하고 분석 자료를 구체화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KICCE 소비실태조사의 패널 특성과 자료수집 특성을 고려하여 통계적 분석방법은 연도별 횡단분석과 시계열적 분석을 활용하였다.

〈표 VI-2-4〉 KICCE 소비실태조사 차수별 조사 대상 가구 수

단위: 가구

가구수	조사년도				합계
	1차 (2018년)	2차 (2019년)	3차 (2020년)	4차 (2021년)	
1차	406	127	382	733	1,648
2차	-	141	151	368	660
3차	-	-	160	362	522
4차	-	-	-	470	470
합계	406	268	693	1,933	3,300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

1) 1~4차년도(2018~2021년) 자료를 활용한 기술적 분석

KICCE 소비실태조사 선행연구에서는 물가에 대한 연도별 추이 비교를 위해 물가지수⁶³⁾를 활용하여 소득과 소비 규모를 재산출하였다. 그러나 이번 심층연구에서는 물가지수를 적용하지 않고, 조사가구에서 응답한 수치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2018~2021년) 자료는 본 표본 유지보다 대체 표본의 크기가 더 커 회귀분석에 활용할 관심 변인들은 연도별로 구분하여 기술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술적 분석은 회귀모형에 적합 시킬 독립변인의 범주에 따라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2) 1~4차년도(2018~2021년) 자료를 활용한 횡단적 회귀분석

횡단적 접근의 회귀분석은 소비실태조사 자료의 패널 특성을 고려하여 육아가구의 소득 및 지출의 변화를 연도에 따라 개별 자료로 구분하여 연관성과 추이를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통계적 분석방법은 독립변인을 가구 특성 (지역, 가구원수, 자녀 수, 맞벌이 여부, 기초수급자 여부, 가구소득 범주)으로 설정하고, 종속변인을 식비, 주거비, 교육·보육비, 보건·의료비, 완구 및 도서관 관련 비용이 차지하는 규모

63)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소비자물가지수(2015=100)를 통해 2015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임.

와 비중을 연속변수로 설정하여 독립변인과의 연관성을 추정하였다. 회귀분석방법은 일반화 선형모형(Generalized linear model)을 적용하였다.

3) 1~4차년도(2018~2021년) 자료를 활용한 시계열적 회귀분석

반복측정분석 방법은 가구 특성에 따른 가구소득과 지출 및 그 비중에 대한 연관성 분석을 수행하는데 있어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분석 기법 중의 하나이다. 반복 측정자료에서 반복 조사되는 변인들의 공분산구조를 설정하는 통계적 방법들은 다양하다. 대표적인 방법은 전통적인 다변량과 일변량 선형모형을 동시에 고려한 혼합모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시에 임의 효과와 오차의 공분산 행렬을 지정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반복측정분석 방법의 적용 가능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1~4차(2018~2021년) 조사에 꾸준히 참여한 가구를 대상으로 관심 변인들의 분포를 연도별로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연도별로 참여 가구 전체와 4차년도 조사까지 유지된 본 표본 733가구에서 특정 변인의 범주구분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추세가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주거비, 교육비 비중에서 유지표본 733 가구를 대상으로 분포를 살펴보니 표본수의 축소로 인해 편차의 크기가 지나치게 커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즉, 733가구만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연도별 점 추정치의 불안정성과 분산 크기의 확대로 반복측정 분석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이에 횡단적 회귀분석에서 적용했던 일반화 선형모형을 적용하여 시계열적 추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종속변인에 대한 시계열적인 추세 파악은 4개년도의 자료를 통합하여 구축하고 관심 변인을 모형에 적합시켜 비용 및 비중 간의 연관성을 추정함과 동시에 연도 변수를 생성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량의 추이를 추정하였다.

3. 분석 결과

가. 가구 특성에 따른 소득 및 지출 추세

1) 1~4차년도(2018~2021년) 소득 및 지출의 변화

가) 1~4차년도(2018~2021년) 소득 및 지출의 변화 산출 방법

이 연구에서 적용한 ‘지출’의 개념은 실질적인 금전적 지출 행위 혹은 금액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경우를 의미하며(최효미 외, 2018: 28) 특정 재화나 용역을 얻기 위해 지불된 화폐 규모를 말한다. 분석 단계에서 활용한 생활비 중 양육비용⁶⁴⁾은 크게 5가지로 구분하였으며 비용과 비중을 동시에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육아가구의 주요 양육비용 5가지는 식비, 주거비, 교육·보육비, 보건·의료비, 완구 및 도서 관련 비용으로 한정하였고, 가구 총소득은 본인 근로 및 사업소득, 배우자 근로 및 사업소득, 기타 가구원 근로소득, 부동산소득 및 금융소득, 공적이전소득 및 사회보험소득, 사적이전소득, 기타소득에 3~4차년도(2020~2021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상황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까지 포함하여 산출하였다. 소득 및 비용 산출에 있어, 실질물가지수가 아닌 명목물가지수를 적용하였다. 육아가구의 주요 양육비용 5가지에 대한 지출 비중은 가구 총소득 대비 양육비용 비목별 지출금액의 비율(%)로 산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가구 내 모든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인 비목별 총 양육비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영유아 가구는 막내자녀 연령 기준으로 미취학 아동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영유아 가구를 구분하였다. 영유아 가구에 대한 구분을 막내 자녀 연령이 만0~6세인 영유아를 포함하여 가구 내 연령이 더 높은 영유아의 형제·자매(초등학령기 이상 자녀 포함)를 포함하기에 총 양육비용은 가구 내 모든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을 의미한다. 실제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2018~2021년) 연구에서도 양육비용은 영유아 가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녀 양육에 대한 양육비용 지출에 대한 결과로 명시하고 있으며(최효미 외, 2021: 37), 이번 년도의 심층 분석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64) 양육비용은 자녀를 키우는데 드는 일체의 비용을 의미하며, 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 분담금에 해당하는 ‘양육비’와의 구분하기 위해 ‘양육비용’으로 표기함(최효미 외, 2018: 28~30).

〈표 VI-3-1〉 양육비용 산출 기준

산출단위	양육비용 구분	표본 대상 기준	산출 대상 범주
가구	총 양육비용	막내 자녀 연령이 영유아(만0~6세)인 가구 (=영유아 가구)	가구 내 모든 자녀(초등학교 입학 이상 포함)
	영유아 양육비용	영유아 가구	가구 내 모든 영유아 자녀(만 0~6세, 미취학)

주: 초등은 초등1학년만을 대상으로 국한하여 산출.

자료: 1) 이정원·이정림·김태우(2018).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방안, p.31

2) 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2020a).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부록, p.403~432(아동조사 설문) 내용을 참조하여 수정 보완함.

3) 최효미·이정원·김자연 외(2021).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Ⅳ), p.37 표를 재구성함.

‘KICCE 소비실태조사’는 1차년도 영유아 가구 표본⁶⁵⁾을 원표본으로 구축한 이후, 2차년도부터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추적조사의 특성상 가구용 설문 조사의 응답 기준이 되는 막내 자녀의 연령이 매년 1세씩 증가하여, 1차년도에 만5세였던 해당 아동이 3차년도 연구에서는 초등2학년(만8세)되었다. 이와 더불어 패널 가구에 신규 출생아동이 추가되어 결과적으로 전체 조사 표본의 수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양육비용 산출 방식은 1차년도 연구부터 동일하게 유지되나, 4차년도 연구에서는 시계열 자료상의 기준 통일을 위해 산출 기준이 되는 표본 집단의 범위를 조정하였다(최효미 외, 2021: 37). 따라서 1차년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전체 표본 가구에 대해 총 양육비용과 영유아 양육비용을 산출할 경우, 전체 표본에서 초등학교 입학 자녀가 있는 가구의 비중과 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총 양육비용 등이 과대 산출될 위험⁶⁶⁾이 있다. 이에 4차년도 연구에서는 시계열 자료의 산출 기준이 되는 표본을 1차년도와 마찬가지로 막내 자녀의 연령이 영유아인 가구만을 남긴 상태에서 재산출하여 보정하였다.

나) 1~4차년도(2018~2021년) 소득 및 지출의 시계열 추세 결과

‘KICCE 소비실태조사’의 1차년도부터 4차년도에 걸쳐 월평균 가구소득과 생활비 지출 비용에 대한 변화를 소득범주에 따라 분포를 살펴보았다. 가구소득 전체는

65) 막내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영유아(만0~6세, 미취학) 자녀가 한명이라도 있는 가구로 정의됨.

66) 통상 영유아 자녀에 비해 초등학교 입학 자녀의 양육비용이 높은 특징을 보이는데, 양육비용이 높은 표본 가구의 비중과 수가 많아져서 총 양육비용을 과대 산출하게 되는 경우이다.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부동산 소득 및 금융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기타소득, 사회보험소득 전체의 합을 의미하며⁶⁷⁾, 일반적으로 가구소득에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커, 소득에 대한 부분은 가구소득 전체와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만 따로 떼어 분포를 함께 살펴보았다. 가구소득 전체에서 1~4차년도(2018년~2021년)에 걸쳐 '299만 원 이하'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연도별로 각각 13.4%, 7.8%, 5.7%, 6.1% 이었으며, '600만 원 이상'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연도별로 각각 20.0%, 20.9%, 26.7%, 25.7%를 나타내었다.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서는 2018년~2021년 기간에 걸쳐 '299만 원 이하'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연도별로 각각 14.8%, 12.3%, 15.6%, 11.4% 이었으며, '600만 원 이상'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연도별로 각각 18.9%, 17.1%, 16.0%, 19.4%를 나타내었다. 가구소득의 소득규모별 분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나,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소득 규모별 분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뚜렷한 추세를 파악되지 않았다.

생활비 지출에 대해 식비, 주거비, 교육·보육비, 보건·의료비, 완구 및 도서관 관련 비용을 분류하여 추세를 살펴보았다. 식비의 경우, 1~4차년도(2018년~2021년)에 걸쳐 '299만 원 이하' 가구가 지출했던 월평균 금액은 59만4천원, 66만7천원, 74만2천원, 64만3천원이었으며, '600만 원 이상' 가구는 96만8천원, 97만9천원, 108만2천원, 109만8천원으로 2020년 식비의 지출규모가 전년(2019년)에 비해 다소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거비의 경우, 1~4차년도(2018년~2021년)에 걸쳐 '299만 원 이하' 가구가 지출했던 월평균 금액은 24만6천원, 24만8천원, 27만4천원, 23만3천원이었으며, '600만 원 이상' 가구는 26만8천원, 28만6천원, 29만2천원, 29만6천원으로 조사되어 주거비에 대한 가구소득 규모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한편 교육·교육비의 경우, 1~4차년도(2018년~2021년)에 걸쳐 '299만 원 이하' 가구가 지출했던 월평균 금액은 22만6천원, 25만7천원, 16만6천원, 18만4천원이었으며, '600만 원 이상' 가구는 67만원, 67만5천원, 46만6천원, 63만원으로 가구소득 규모에 따라 교육·보육비에 지출규모가 확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299만 원 이하' 가구의 교육·보육비 월평균 지출비용의 편차가 2020년(평균 16

67) 해당 소득에 대한 설명은 부록1. 설문지 문14를 참조할 것.

만6천원, 편차 21만9천원), 2021년 (평균 18만4천원, 편차 19만4천원)으로 평균 지출비용보다 큼을 확인하였다.

보건·의료비의 경우, 1~4차년도(2018년~2021년)에 걸쳐 '299만 원 이하' 가구가 지출했던 월평균 금액은 5만1천원, 6만5천원, 10만6천원, 10만7천원이었으며, '600만 원 이상' 가구는 8만4천원, 11만원, 13만원, 15만2천원으로 대체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완구 및 도서관 관련 비용의 경우, 2018년~2021년 기간에 걸쳐 '299만 원 이하' 가구가 지출했던 월평균 금액은 4만7천원, 6만2천원, 5만4천원, 6만3천원이었으며, '600만 원 이상' 가구는 11만6천원, 9만5천원, 11만5천원, 12만3천원으로 2020년에 가구소득 '299만 원 이하' 가구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600만 원 이상' 가구는 지출규모가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생활비 지출에 대해 식비, 주거비, 교육·보육비, 보건·의료비, 완구 및 도서관 관련 비용과 더불어 가구소득에서 해당 비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추세를 살펴보았다. 식비비중의 경우, 1~4차년도(2018년~2021년)에 걸쳐 가구소득 '299만 원 이하' 가구가 지출했던 월평균 식비의 비중은 29.4%, 36.2%, 39.3%, 40.5%였으며 '600만 원 이상' 가구에서는 12.8%, 13.2%, 14.5%, 14.8%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특히 가구소득 규모가 낮은 가구에서 식비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가구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의 경우, 1~4차년도(2018년~2021년)에 걸쳐 가구소득 '299만 원 이하' 가구가 지출했던 월평균 주거비 비중은 13.7%, 12.1%, 17.3%, 13.3%였으며, '600만 원 이상' 가구는 3.6%, 3.8%, 3.9%, 4.0%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뚜렷한 추세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가구소득 규모가 높은 가구에 비해 가구소득 규모가 낮은 가구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높음을 확인하였다.

교육·보육비 비중의 경우, 1~4차년도(2018년~2021년)에 걸쳐 가구소득 '299만 원 이하' 가구가 지출했던 월평균 교육·보육비의 비중은 12.0%, 17.1%, 9.9%, 15.7%였으며, '600만 원 이상' 가구는 8.7%, 8.9%, 6.1%, 8.2%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뚜렷한 추세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가구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2020년에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교육·보육비 지출 비중이 모두 감소했다가 2021년에 증

가함을 확인하였다.

보건·의료비 비중의 경우, 1~4차년도(2018년~2021년)에 걸쳐 가구소득 '299만 원 이하' 가구가 지출했던 보건·의료비의 비중은 2.7%, 3.1%, 5.8%, 5.2%였으며 '600만 원 이상' 가구는 1.1%, 1.5%, 1.7%, 2.0%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폭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완구 및 도서 관련 지출 비중의 경우, 1~4차년도(2018년~2021년)에 걸쳐 가구소득 '299만 원 이하' 가구가 지출했던 월평균 완구 및 도서 관련 지출의 비중은 2.2%, 3.1%, 3.4%, 4.6%였으며 '600만 원 이상' 가구는 1.6%, 1.3%, 1.5%, 1.6%로, '299만 원 이하' 가구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하였다.

〈표 VI-3-2〉 KICCE 소비실태조사 월평균 가구소득과 생활비 지출 비용 변화 (1~4차년도: 2018~2021년, 명목비용)

변수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체(명)		1644 (100.0)	1663 (100.0)	1679 (100.0)	1708 (100.0)
가구소득(명)	가구소득 전체	299만원 이하	129 (7.8)	96 (5.7)	104 (6.1)
		300~399만원 이하	459 (27.6)	287 (17.1)	383 (22.4)
		400~499만원 이하	415 (25.0)	493 (29.4)	451 (26.4)
		500~599만원 이하	312 (18.8)	354 (21.1)	331 (19.4)
		600만원 이상	348 (20.9)	449 (26.7)	439 (25.7)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	299만원 이하	204 (12.3)	262 (15.6)	194 (11.4)
		300~399만원 이하	492 (29.6)	532 (31.7)	436 (25.5)
		400~499만원 이하	382 (23.0)	368 (21.9)	428 (25.1)
		500~599만원 이하	300 (18.0)	249 (14.8)	319 (18.7)
		600만원 이상	285 (17.1)	268 (16.0)	331 (19.4)
생활비 지출 비용(만원)	식비 (평균, 편차)	59.4 (25.7)	66.7 (28.1)	74.2 (33.1)	64.3 (24.6)
		300~399만원 이하	75.1 (26.2)	80.2 (31.0)	83.2 (29.2)
		400~499만원 이하	82.5 (34.4)	90.5 (32.1)	93.9 (33.6)
		500~599만원 이하	87.2 (33.6)	98.0 (36.2)	100.1 (40.1)
		600만원 이상	97.9 (46.4)	108.2 (46.1)	109.8 (43.1)
	주거비 (평균, 편차)	24.6 (16.2)	24.8 (14.9)	27.4 (21.2)	23.3 (12.9)
		300~399만원 이하	23.7 (11.7)	25.0 (15.8)	24.4 (14.1)
		400~499만원 이하	26.4 (15.6)	24.4 (12.0)	25.2 (13.1)
		500~599만원 이하	26.9 (15.1)	24.9 (11.8)	25.9 (14.1)
		600만원 이상	28.6 (18.2)	29.2 (20.1)	29.6 (19.6)
	교육/보육비 (평균, 편차)	22.6 (24.6)	25.7 (25.6)	16.6 (21.9)	18.4 (19.4)
		300~399만원 이하	28.0 (27.6)	18.5 (23.7)	25.6 (25.3)
		400~499만원 이하	39.0 (31.5)	22.5 (24.8)	32.6 (30.3)
		500~599만원 이하	51.1 (44.1)	32.4 (31.2)	41.9 (34.9)
		600만원 이상	67.5 (60.7)	46.6 (45.5)	63.0 (58.4)

변수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생활비 지출 비중(%)	보건/의료비 (평균, 편차)	299만원 이하	5.1 (4.8)	6.5 (8.1)	10.6 (18.4)
		300~399만원 이하	6.7 (14.7)	8.1 (7.8)	10.3 (10.0)
		400~499만원 이하	6.8 (8.6)	8.9 (11.9)	11.1 (11.8)
		500~599만원 이하	7.9 (7.5)	9.1 (12.6)	10.6 (9.7)
		600만원 이상	8.4 (8.2)	11.0 (12.6)	13.0 (16.0)
		299만원 이하	4.7 (5.1)	6.2 (9.5)	5.4 (5.4)
	완구 및 도서관 관련 비용 (평균, 편차)	300~399만원 이하	7.3 (12.0)	7.3 (8.6)	8.2 (8.2)
		400~499만원 이하	8.6 (8.0)	9.3 (13.3)	8.9 (9.9)
		500~599만원 이하	9.8 (9.3)	8.3 (7.3)	10.3 (9.4)
		600만원 이상	11.6 (11.2)	9.5 (10.5)	11.5 (10.9)
		299만원 이하	29.4 (29.5)	36.2 (72.6)	39.3 (26.0)
		300~399만원 이하	21.8 (9.1)	21.9 (7.5)	22.4 (8.6)
	식비 비중 (평균, 편차)	400~499만원 이하	19.7 (7.6)	18.8 (7.8)	20.4 (7.3)
		500~599만원 이하	17.0 (7.6)	16.3 (6.4)	18.1 (6.8)
		600만원 이상	12.8 (6.6)	13.2 (6.5)	14.5 (6.2)
		299만원 이하	13.7 (36.8)	12.1 (14.1)	17.3 (29.5)
		300~399만원 이하	7.1 (3.9)	6.9 (3.5)	7.0 (4.5)
		400~499만원 이하	6.0 (3.8)	6.0 (3.6)	5.5 (2.7)
생활비 지출 비중(%)	주거비 비중 (평균, 편차)	500~599만원 이하	5.0 (2.9)	5.0 (2.8)	4.6 (2.2)
		600만원 이상	3.6 (2.2)	3.8 (2.3)	3.9 (2.6)
		299만원 이하	12.0 (19.6)	17.1 (62.3)	9.9 (17.6)
		300~399만원 이하	8.6 (8.2)	8.2 (7.9)	5.2 (6.6)
		400~499만원 이하	8.7 (7.0)	8.9 (7.2)	5.0 (5.5)
		500~599만원 이하	9.5 (8.1)	9.6 (8.3)	5.9 (5.7)
	교육/보육비 비중 (평균, 편차)	600만원 이상	8.7 (7.3)	8.9 (8.0)	6.1 (5.7)
		299만원 이하	2.7 (4.3)	3.1 (4.0)	5.8 (10.4)
		300~399만원 이하	2.0 (4.3)	2.4 (2.3)	2.9 (3.0)
		299만원 이하	2.7 (4.3)	3.1 (4.0)	5.8 (10.4)
		300~399만원 이하	2.0 (4.3)	2.4 (2.3)	2.9 (3.0)
		299만원 이하	2.7 (4.3)	3.1 (4.0)	5.8 (10.4)
		300~399만원 이하	2.0 (4.3)	2.4 (2.3)	2.9 (3.0)
		299만원 이하	2.7 (4.3)	3.1 (4.0)	5.8 (10.4)
		300~399만원 이하	2.0 (4.3)	2.4 (2.3)	2.9 (3.0)
		299만원 이하	2.7 (4.3)	3.1 (4.0)	5.8 (10.4)
		300~399만원 이하	2.0 (4.3)	2.4 (2.3)	2.9 (3.0)
		299만원 이하	2.7 (4.3)	3.1 (4.0)	5.8 (10.4)
		300~399만원 이하	2.0 (4.3)	2.4 (2.3)	2.9 (3.0)

변수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	400~499만원 이하	1.6 (2.0)	2.0 (2.7)	2.5 (2.7)	2.7 (3.4)
.	500~599만원 이하	1.5 (1.4)	1.7 (2.3)	2.0 (1.8)	2.3 (2.2)
.	600만원 이상	1.1 (1.1)	1.5 (1.7)	1.7 (2.1)	2.0 (3.0)
.	완구 및 도서관련 비중 (평균, 편차)	2.2 (3.1)	3.1 (6.1)	3.4 (6.6)	4.6 (15.6)
.	300~399만원 이하	2.2 (3.4)	2.1 (2.5)	2.3 (2.3)	2.4 (2.7)
.	400~499만원 이하	2.0 (1.9)	2.1 (3.0)	2.0 (2.2)	1.8 (1.8)
.	500~599만원 이하	1.9 (1.8)	1.6 (1.4)	1.9 (1.7)	1.6 (1.5)
.	600만원 이상	1.6 (1.5)	1.3 (1.5)	1.5 (1.5)	1.6 (2.3)

주: 자료를 토대로 연구진이 작성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

2) 가구특성에 따른 항목별 지출 규모와 비중의 추세(1~4차년도)

가) 가구특성에 따른 항목별 지출 규모의 추세(1~4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의 1차년도부터 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특성에 따른 생활비 지출 규모에 대한 분포를 살펴보았다. 식비의 경우 1~4차년도(2018년~2021년)에 걸쳐 81만1천원, 83만3천원, 94만1천원, 95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었으며, 가구특성에 따라 맞벌이 가구, 자녀수가 2명 이상인 가구, 대도시 거주 가구(특별시나 광역시 거주), 가구소득 및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높은 가구에서 규모가 더 큼을 확인하였다. 주거비의 경우, 1~4차년도(2018년~2021년) 기간에 걸쳐 25.3만원, 26.1만원, 26.1만원, 26.2만원으로 시간에 따른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가구특성에 따라 맞벌이 가구,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가구, 대도시 거주 가구(특별시나 광역시 거주), 가구소득 및 근로소득이 높은 가구에서 규모가 더 큼을 확인하였다.

교육·보육비의 경우, 1~4차년도(2018년~2021년)에 걸쳐 41만원, 43만2천원, 30만원, 39만8천원으로 3차년도(2020년)에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가 4차년도(2021년)에 다시 증가하였다. 가구특성에 따라 맞벌이 가구,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가구, 대도시 거주 가구(특별시나 광역시 거주), 가구소득 및 근로소득이 높은 가구, 가구의 연령이 높은 가구에서 지출 비용의 규모가 더 큼을 확인하였다.

보건·의료비의 경우, 1~4차년도(2018년~2021년)에 걸쳐 7만원, 8만9천원, 11만4천원, 12만6천원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여주었다. 가구특성에 따라 맞벌이 가구,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가구, 대도시 거주 가구(특별시나 광역시 거주), 가구소득 및 근로소득이 높은 가구에서 지출 비용의 규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완구 및 도서관련 비용의 경우, 1~4차년도(2018년~2021년)에 걸쳐 8만5천원, 8만4천원, 9만6천원, 9만2천원으로 3차년도(2020년)에 소폭으로 증가하였다가 4차년도(2021년)에 소폭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가구특성에 따라 맞벌이 가구,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가구, 대도시 거주 가구(특별시나 광역시 거주), 가구소득 및 근로소득이 높은 가구에서 지출 비용의 규모가 더 컸다.

〈표 VI-3-3〉 가구특성별 KICCE 소비실태조사 월평균 생활비 지출 비용 변화 (1~4차년도: 2018~2021년, 명목비용)

생활비 지출 항목	변수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식비(만원)	전체		81.1 (38.1)	83.3 (35.9)	94.1 (38.6)	95.0 (38.2)
	맞벌이 가구	해당	83.8 (39.6)	84.8 (36.9)	96.5 (40.3)	99.1 (40.1)
		비해당	78.8 (36.6)	82.1 (35.2)	92.2 (37.1)	92.0 (36.6)
	기초수급자	해당	55.3 (22.0)	67.6 (30.1)	71.4 (31.5)	60.8 (12.4)
		비해당	81.4 (38.1)	83.5 (36.0)	94.3 (38.6)	95.2 (38.3)
	자녀수	1명	77.5 (35.4)	77.8 (32.2)	84.3 (33.7)	86.7 (34.3)
		2명	80.2 (36.2)	84.0 (36.9)	95.7 (37.5)	95.4 (38.0)
		3명이상	96.6 (49.3)	94.0 (38.2)	110.1 (45.6)	111.7 (41.9)
	지역	특별시 및 광역시	88.5 (39.0)	91.6 (36.6)	98.7 (38.8)	99.4 (37.5)
		그외	75.8 (36.5)	77.5 (34.3)	90.9 (38.1)	91.9 (38.5)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59.4 (25.7)	66.7 (28.1)	74.2 (33.1)	64.3 (24.6)
		300~399만원 이하	72.8 (29.8)	75.1 (26.2)	80.2 (31.0)	83.2 (29.2)
		400~499만원 이하	84.0 (31.8)	82.5 (34.4)	90.5 (32.1)	93.9 (33.6)
		500~599만원 이하	89.1 (39.1)	87.2 (33.6)	98.0 (36.2)	100.1 (40.1)
주거비(만원)		600만원 이상	96.8 (49.8)	97.9 (46.4)	108.2 (46.1)	109.8 (43.1)
	근로소득	299만원 이하	60.0 (26.1)	67.5 (28.1)	75.2 (32.0)	73.3 (31.8)
		300~399만원 이하	73.8 (30.1)	76.1 (28.3)	88.5 (31.8)	84.2 (30.3)
		400~499만원 이하	84.0 (32.6)	84.5 (34.0)	96.6 (35.6)	96.3 (35.1)
		500~599만원 이하	90.7 (41.3)	88.4 (32.8)	100.6 (38.4)	101.1 (39.3)
		600만원 이상	96.8 (48.7)	100.1 (48.4)	114.2 (48.5)	114.3 (42.9)
	가구주 연령*	20~39세	77.3 (36.7)	80.4 (35.5)	90.5 (37.1)	91.0 (34.5)
		40~49세	85.2 (38.3)	86.1 (36.2)	97.9 (38.6)	98.6 (41.0)
		50세 이상	88.0 (52.5)	87.7 (35.5)	92.4 (55.5)	95.7 (40.5)
	전체		25.3 (15.1)	26.1 (15.2)	26.1 (15.9)	26.2 (15.5)
	맞벌이 가구		25.5 (13.3)	27.6 (16.6)	26.7 (15.9)	27.3 (17.5)
	비해당		25.1 (16.5)	24.9 (13.8)	25.6 (15.8)	25.4 (13.9)

생활비 지출 항목	빈수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교육비(만원)	기초수급자	해당	23.3 (22.9)	29.4 (14.2)	21.7 (8.7)	31.3 (20.2)
		비해당	25.3 (15.0)	26.1 (15.2)	26.1 (15.9)	26.1 (15.5)
		1명	24.6 (13.5)	25.3 (14.2)	24.8 (14.8)	24.3 (14.0)
		2명	25.7 (16.1)	26.2 (15.7)	26.3 (16.1)	27.0 (15.4)
	지역	3명이상	25.8 (15.9)	27.7 (15.2)	28.1 (17.0)	27.5 (18.6)
		특별시 및 광역시	25.9 (16.8)	26.2 (15.9)	25.9 (16.3)	26.1 (16.9)
		그 외	24.9 (13.7)	26.0 (14.6)	26.3 (15.6)	26.3 (14.6)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24.6 (16.2)	24.8 (14.9)	27.4 (21.2)	23.3 (12.9)
		300~399만원 이하	23.6 (13.1)	23.7 (11.7)	25.0 (15.8)	24.4 (14.1)
		400~499만원 이하	25.5 (16.1)	26.4 (15.6)	24.4 (12.0)	25.2 (13.1)
		500~599만원 이하	26.5 (15.2)	26.9 (15.1)	24.9 (11.8)	25.9 (14.1)
	근로소득	600만원 이상	26.8 (15.4)	28.6 (18.2)	29.2 (20.1)	29.6 (19.6)
		299만원 이하	24.5 (15.8)	25.0 (16.0)	26.4 (18.6)	27.7 (20.0)
		300~399만원 이하	24.1 (14.1)	24.2 (12.7)	24.5 (13.2)	24.4 (14.2)
		400~499만원 이하	25.3 (15.9)	26.7 (15.2)	24.7 (11.8)	24.9 (12.1)
	가구주 연령*	500~599만원 이하	26.4 (14.1)	26.2 (13.8)	24.7 (10.1)	25.6 (13.0)
		600만원 이상	26.9 (15.6)	29.2 (18.9)	32.3 (23.8)	29.9 (19.3)
		20~39세	24.3 (13.1)	25.4 (14.4)	25.2 (15.2)	25.2 (13.1)
		40~49세	26.3 (17.1)	26.6 (15.4)	26.8 (16.2)	26.8 (16.8)
	전체	50세 이상	29.1 (14.6)	29.7 (21.9)	29.2 (19.9)	32.4 (25.1)
			41.0 (41.3)	43.2 (43.2)	30.0 (34.4)	39.8 (41.8)
	맞벌이 가구	해당	48.1 (45.6)	50.9 (49.5)	38.8 (39.4)	48.5 (47.0)
		비해당	34.9 (36.1)	37.0 (36.4)	23.2 (28.2)	33.4 (36.2)
	기초수급자	해당	22.2 (18.8)	35.0 (22.8)	14.5 (16.4)	21.3 (19.5)
		비해당	41.2 (41.5)	43.3 (43.4)	30.1 (34.5)	39.9 (41.8)
	자녀수	1명	29.9 (36.4)	28.2 (38.8)	16.6 (28.8)	17.3 (27.2)
		2명	44.5 (41.1)	46.6 (41.2)	33.3 (31.6)	46.9 (41.3)

생활비 지출 항목	변수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보건·의료비(만원)	지역	3명이상	63.1 (46.2)	66.5 (47.7)	47.9 (43.5)	63.5 (47.2)
		특별시 및 광역시	46.5 (48.4)	47.2 (47.2)	30.7 (37.2)	43.0 (45.4)
		그외	37.1 (34.9)	40.4 (40.0)	29.5 (32.4)	37.6 (38.9)
		가구소득	22.6 (24.6)	25.7 (25.6)	16.6 (21.9)	18.4 (19.4)
	근로소득	300~399만원 이하	28.6 (27.5)	28.0 (27.6)	18.5 (23.7)	25.6 (25.3)
		400~499만원 이하	37.2 (30.0)	39.0 (31.5)	22.5 (24.8)	32.6 (30.3)
		500~599만원 이하	50.1 (42.7)	51.1 (44.1)	32.4 (31.2)	41.9 (34.9)
		600만원 이상	67.0 (58.2)	67.5 (60.7)	46.6 (45.5)	63.0 (58.4)
	가구주 연령*	20~39세	23.2 (25.5)	25.0 (25.4)	17.1 (20.9)	22.6 (21.9)
		40~49세	29.1 (28.0)	29.7 (29.6)	19.8 (22.9)	26.2 (26.7)
		50세 이상	37.7 (30.1)	42.6 (36.7)	30.6 (29.6)	34.3 (30.4)
		가구주 연령*	50.5 (42.8)	52.6 (42.7)	36.6 (35.0)	45.4 (36.6)
보건·의료비(만원)	전체	20~39세	68.6 (59.1)	70.3 (62.1)	56.1 (50.4)	69.2 (62.9)
		40~49세	34.1 (37.0)	33.3 (37.3)	23.9 (31.5)	29.0 (36.2)
		50세 이상	48.2 (43.6)	52.3 (46.1)	35.7 (36.3)	49.4 (44.1)
		가구주 연령*	61.8 (56.0)	62.2 (49.6)	40.8 (31.9)	44.9 (40.8)
	맞벌이 가구	해당	7.0 (10.1)	8.9 (11.0)	11.4 (12.9)	12.6 (18.2)
		비해당	7.1 (7.3)	9.4 (11.1)	11.3 (12.5)	13.4 (18.8)
	기초수급자	해당	7.0 (11.9)	8.6 (10.9)	11.4 (13.2)	12.0 (17.8)
		비해당	7.3 (7.8)	8.9 (15.6)	4.6 (5.8)	8.2 (8.6)
	자녀수	1명	7.0 (10.1)	8.9 (11.0)	11.4 (12.9)	12.7 (18.3)
		2명	6.5 (11.0)	7.8 (7.5)	9.9 (12.5)	11.6 (19.5)
		3명이상	7.2 (9.7)	9.2 (12.7)	11.6 (12.1)	12.1 (13.2)
	지역	특별시 및 광역시	8.1 (8.3)	10.5 (11.3)	13.7 (15.9)	16.9 (27.9)
		그외	7.6 (13.3)	8.5 (11.8)	11.5 (15.2)	13.1 (22.5)
		가구소득	6.6 (6.8)	9.3 (10.4)	11.2 (11.0)	12.3 (14.6)
		가구주 연령*	5.1 (4.8)	6.5 (8.1)	10.6 (18.4)	10.7 (20.5)

생활비 지출 항목	빈수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완구 및 도서관련 비용(만원)		300~399만원 이하	6.7 (14.7)	8.1 (7.8)	10.3 (10.0)	11.2 (20.3)
		400~499만원 이하	6.8 (8.6)	8.9 (11.9)	11.1 (11.8)	12.0 (15.1)
		500~599만원 이하	7.9 (7.5)	9.1 (12.6)	10.6 (9.7)	12.4 (11.6)
		600만원 이상	8.4 (8.2)	11.0 (12.6)	13.0 (16.0)	15.2 (22.1)
		근로소득	5.1 (4.8)	7.3 (8.1)	10.8 (14.3)	13.5 (30.3)
		299만원 이하	7.1 (15.0)	8.7 (11.4)	11.1 (12.4)	10.8 (12.0)
	가구주 연령*	300~399만원 이하	6.6 (7.6)	8.8 (10.0)	11.1 (9.6)	12.1 (15.0)
		400~499만원 이하	7.8 (7.5)	9.2 (12.3)	10.8 (9.4)	13.7 (23.6)
		500~599만원 이하	8.4 (8.2)	10.4 (12.0)	13.3 (18.1)	14.1 (12.6)
		600만원 이상	6.8 (9.0)	8.7 (9.4)	10.9 (12.1)	12.4 (18.8)
		20~39세	7.4 (11.4)	9.1 (12.4)	11.9 (13.9)	12.9 (17.7)
		40~49세	6.4 (7.1)	10.4 (12.2)	8.8 (6.2)	11.7 (18.2)
	전체 맞벌이 가구	50세 이상	8.5 (10.0)	8.4 (10.3)	9.6 (9.7)	9.2 (11.5)
		해당	9.2 (9.7)	9.2 (12.3)	9.9 (10.2)	10.0 (14.3)
		비해당	7.9 (10.3)	7.8 (8.3)	9.3 (9.3)	8.7 (8.9)
		해당	9.1 (10.6)	3.7 (4.6)	4.8 (3.8)	7.1 (9.5)
		비해당	8.5 (10.0)	8.5 (10.3)	9.6 (9.7)	9.3 (11.5)
		초·중·고	8.1 (9.4)	8.0 (12.4)	9.0 (9.6)	9.0 (11.1)
	자녀수	1명	8.7 (10.7)	8.3 (8.7)	9.8 (9.5)	9.2 (10.6)
		2명	9.0 (9.2)	9.6 (10.3)	10.0 (10.7)	9.9 (15.1)
		3명 이상	9.3 (12.1)	8.9 (11.6)	9.9 (9.7)	9.7 (11.4)
		지역	8.0 (8.3)	8.1 (9.2)	9.4 (9.8)	8.9 (11.6)
	가구소득	특별시 및 관역시 그외	4.7 (5.1)	6.2 (9.5)	5.4 (5.4)	6.3 (9.1)
		299만원 이하	7.3 (12.0)	7.3 (8.6)	8.2 (8.2)	8.4 (9.4)
		300~399만원 이하	8.6 (8.0)	9.3 (13.3)	8.9 (9.9)	8.1 (8.0)
		400~499만원 이하	9.8 (9.3)	8.3 (7.3)	10.3 (9.4)	8.7 (8.1)
		500~599만원 이하	11.6 (11.2)	9.5 (10.5)	11.5 (10.9)	12.3 (17.0)
		600만원 이상				

생활비 지출 항목	변수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 근로소득		299만원 이하	4.9 (5.3)	6.4 (8.4)	6.7 (7.6)	7.3 (10.7)
		300~399만원 이하	7.5 (12.2)	7.6 (8.9)	9.3 (9.7)	8.1 (8.6)
		400~499만원 이하	8.5 (7.9)	9.7 (13.8)	9.7 (9.7)	8.1 (7.6)
		500~599만원 이하	10.4 (10.4)	8.8 (9.2)	10.4 (10.8)	9.0 (8.5)
		600만원 이상	11.4 (10.4)	9.1 (8.9)	12.1 (9.8)	13.7 (18.6)
· 가구주 연령*		20~39세	8.5 (11.4)	8.6 (12.0)	9.8 (10.6)	9.2 (10.8)
		40~49세	8.6 (8.2)	8.3 (8.4)	9.5 (8.8)	9.4 (12.2)
		50세 이상	7.9 (7.2)	7.6 (7.2)	7.4 (7.1)	7.2 (8.8)

주: 1) 자료를 토대로 연구진이 작성함.
2) 가구주 연령*은 부부의 경우, 나이가 많은 배우자를 기준으로 가구 대상자 연령을 정의함. (예- (1) 아내 연령 34세, 남편 연령 35세의 경우 가구주 연령은 20-39세 범주로 정의함; (2) 아내 연령 34세, 남편 연령 41세의 경우 가구주 연령은 40~49세 범주로 정의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

나) 가구특성에 따른 항목별 지출 비중의 추세(1~4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의 1차년도부터 4차년도(2018~2021년)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특성에 따른 가구소득 중 생활비 지출 비중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가구소득 중 식비 지출 비중의 경우, 1~4차년도(2018년~2021년)에 걸쳐 19.8%, 19.4%, 19.7%, 20.9%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었으며 가구특성에 따라서는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가구, 대도시 거주가구(특별시나 광역시 거주), 가구소득 및 근로소득이 낮은 가구에서 비중이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가구소득 중 주거비 지출 비중은 1~4차년도(2018년~2021년)에 걸쳐 6.7%, 6.1%, 5.8%, 5.9%로 시간에 따른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가구특성에 따라 가구소득 및 근로소득이 높은 가구에서 규모가 더 큼을 확인하였다.

가구소득 중 교육·보육비 지출 비중의 경우, 1~4차년도(2018년~2021년)에 걸쳐 9.2%, 9.5%, 5.8%, 8.2%로 3차년도(2020년)에 큰 폭으로 축소되었다가 4차년도(2021년)에 다시 증가하였다. 가구특성에 따라서는 기초수급자 가구,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가구, 대도시 거주 가구(특별시나 광역시 거주), 가구소득 및 근로소득이 낮은 가구, 가구주의 연령이 높은 가구에서 지출 비중의 규모가 더 컸다.

가구소득 중 보건·의료비 지출 비중은 1~4차년도(2018년~2021년)에 걸쳐 1.7%, 2.0%, 2.4%, 2.7%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주었다. 가구특성에 따라 기초수급자 가구, 대도시 거주 가구(특별시나 광역시 거주), 가구소득 및 근로소득이 낮은 가구에서 지출 비중의 규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가구소득 중 완구 및 도서 관련 지출 비중은 1~4차년도(2018년~2021년)에 걸쳐 2.0%, 1.9%, 2.0%, 2.0%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뚜렷한 추세는 관찰되지 않았다. 가구특성에 따라 기초수급자 가구, 대도시 거주가구(특별시나 광역시 거주), 가구소득 및 근로소득이 낮은 가구에서 지출 비중이 더 큼을 확인하였다.

〈표 VI-3-4〉 가구특성별 KICCE 소비실태조사 월평균 생활비 지출 비중 변화 (1~4차년도: 2018~2021년, 명목비용 기준으로 산출)

항목	변수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식비 비중(%)	전체		19.8 (13.9)	19.4 (22.1)	19.7 (10.8)	20.9 (25.0)
	맞벌이 가구	해당	16.9 (8.4)	16.4 (9.0)	17.2 (8.4)	17.8 (7.8)
		비해당	22.2 (17.0)	21.7 (28.3)	21.7 (12.1)	23.1 (32.0)
	기초수급자	해당	28.3 (16.3)	27.2 (12.2)	37.1 (18.0)	31.3 (10.4)
		비해당	19.7 (13.9)	19.3 (22.1)	19.6 (10.7)	20.8 (25.1)
	자녀수	1명	19.3 (10.6)	18.3 (8.3)	19.0 (10.5)	20.8 (26.2)
		2명	19.5 (16.1)	19.5 (28.7)	19.4 (10.0)	19.6 (8.2)
		3명이상	22.5 (13.5)	21.5 (14.0)	22.7 (13.5)	26.0 (50.3)
	지역	특별시 및 광역시	20.6 (9.5)	21.5 (30.9)	21.2 (12.0)	23.0 (37.8)
		그외	19.2 (16.3)	17.8 (12.3)	18.7 (9.8)	19.4 (8.4)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29.4 (29.5)	36.2 (72.6)	39.3 (26.0)	40.5 (94.5)
		300~399만원 이하	21.8 (9.1)	21.9 (7.5)	22.4 (8.6)	23.9 (8.4)
		400~499만원 이하	19.7 (7.6)	18.8 (7.8)	20.4 (7.3)	21.4 (7.7)
		500~599만원 이하	17.0 (7.6)	16.3 (6.4)	18.1 (6.8)	18.7 (7.4)
		600만원 이상	12.8 (6.6)	13.2 (6.5)	14.5 (6.2)	14.8 (6.2)
	근로소득	299만원 이하	28.4 (28.4)	30.3 (58.4)	27.3 (19.2)	32.1 (70.0)
		300~399만원 이하	21.6 (9.1)	21.0 (8.0)	20.8 (8.1)	22.5 (8.4)
주거비 비중(%)		400~499만원 이하	19.5 (7.7)	18.6 (7.7)	18.9 (7.4)	20.7 (7.7)
		500~599만원 이하	17.2 (7.8)	16.1 (6.2)	16.5 (6.5)	18.1 (7.5)
		600만원 이상	12.8 (6.4)	13.3 (6.7)	14.3 (5.7)	15.1 (6.2)
	가구주 연령*	20~39세	19.9 (16.5)	20.0 (29.7)	19.5 (11.3)	20.9 (22.1)
		40~49세	19.5 (9.5)	18.9 (10.3)	20.0 (10.5)	20.9 (27.9)
		50세 이상	20.7 (18.6)	17.2 (7.7)	18.8 (7.9)	21.2 (11.9)
	전체		6.7 (14.1)	6.1 (5.4)	5.8 (8.2)	5.9 (6.9)
	맞벌이 가구	해당	5.3 (3.6)	5.4 (3.8)	5.2 (8.7)	5.0 (3.4)
		비해당	7.8 (18.9)	6.6 (6.3)	6.3 (7.7)	6.5 (8.6)
	기초수급자	해당	12.1 (9.4)	10.6 (4.5)	11.3 (6.4)	15.3 (8.9)
		비해당	6.6 (14.1)	6.0 (5.3)	5.8 (8.2)	5.8 (6.9)
	자녀수	1명	6.4 (4.8)	6.1 (4.4)	6.2 (11.0)	5.9 (7.1)

항목	변수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교육비 비중(%)	지역	2명	6.9 (19.4)	5.9 (4.7)	5.5 (6.7)	5.7 (3.7)
		3명이상	6.5 (5.6)	6.7 (8.8)	6.0 (5.4)	6.5 (13.0)
		특별시 및 광역시	6.2 (4.8)	6.0 (4.8)	6.1 (11.1)	6.0 (9.9)
		그외	7.0 (18.0)	6.1 (5.7)	5.6 (5.3)	5.7 (3.7)
		299만원 이하	13.7 (36.8)	12.1 (14.1)	17.3 (29.5)	13.3 (23.7)
		300~399만원 이하	7.1 (3.9)	6.9 (3.5)	7.0 (4.5)	7.1 (4.2)
	가구소득	400~499만원 이하	6.0 (3.8)	6.0 (3.6)	5.5 (2.7)	5.7 (2.9)
		500~599만원 이하	5.0 (2.9)	5.0 (2.8)	4.6 (2.2)	4.8 (2.6)
		600만원 이상	3.6 (2.2)	3.8 (2.3)	3.9 (2.6)	4.0 (2.5)
		299만원 이하	13.0 (35.1)	10.3 (11.7)	10.8 (18.9)	11.0 (17.9)
		300~399만원 이하	7.0 (3.9)	6.7 (3.5)	5.8 (3.3)	6.5 (3.8)
		400~499만원 이하	5.9 (3.8)	5.9 (3.4)	4.8 (2.3)	5.3 (2.6)
	가구주 연령*	500~599만원 이하	5.0 (2.7)	4.8 (2.6)	4.1 (1.7)	4.6 (2.4)
		600만원 이상	3.6 (2.3)	3.8 (2.2)	4.1 (3.0)	3.9 (2.4)
		20~39세	7.0 (18.7)	6.2 (5.1)	5.9 (10.2)	5.9 (6.3)
		40~49세	6.3 (4.7)	6.0 (5.6)	5.7 (5.4)	5.8 (7.6)
		50세 이상	8.0 (8.8)	6.1 (5.3)	6.6 (6.9)	6.9 (4.5)
		해당	9.2 (10.2)	9.5 (19.0)	5.8 (7.1)	8.2 (20.4)
교육비 비중(%)	전체	비해당	9.1 (8.5)	9.2 (8.4)	6.4 (6.3)	8.1 (6.9)
		해당	9.4 (11.5)	9.7 (24.3)	5.3 (7.6)	8.2 (26.2)
		비해당	12.4 (17.9)	13.4 (9.4)	5.3 (5.5)	11.3 (14.5)
	기초수급자	비해당	9.2 (10.1)	9.4 (19.1)	5.8 (7.1)	8.1 (20.4)
		1명	6.4 (7.3)	5.8 (7.1)	3.4 (6.5)	3.6 (4.8)
		2명	10.2 (10.7)	10.6 (24.6)	6.3 (6.2)	9.0 (6.7)
	자녀수	3명이상	14.5 (12.9)	14.1 (10.5)	9.1 (9.3)	15.4 (50.6)
		특별시 및 광역시	9.7 (9.5)	10.6 (27.6)	6.1 (8.2)	9.3 (30.9)
		그외	8.9 (10.6)	8.7 (8.6)	5.6 (6.2)	7.4 (6.7)
	지역	299만원 이하	12.0 (19.6)	17.1 (62.3)	9.9 (17.6)	15.7 (78.2)
		300~399만원 이하	8.6 (8.2)	8.2 (7.9)	5.2 (6.6)	7.3 (7.2)
		400~499만원 이하	8.7 (7.0)	8.9 (7.2)	5.0 (5.5)	7.4 (6.8)

항목	변수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근로소득	500~599만원 이하	9.5 (8.1)	9.6 (8.3)	5.9 (5.7)	7.8 (6.5)
		600만원 이상	8.7 (7.3)	8.9 (8.0)	6.1 (5.7)	8.2 (6.9)
		299만원 이하	11.7 (19.0)	13.3 (49.9)	6.6 (11.8)	11.7 (57.4)
		300~399만원 이하	8.5 (8.1)	8.2 (8.0)	4.7 (5.6)	7.0 (7.1)
		400~499만원 이하	8.7 (6.9)	9.2 (7.6)	5.9 (5.9)	7.3 (6.5)
		500~599만원 이하	9.6 (8.1)	9.6 (7.7)	6.0 (5.8)	8.0 (6.5)
		600만원 이상	8.9 (7.4)	9.1 (8.0)	6.9 (6.0)	8.8 (7.3)
		20~39세	8.1 (10.8)	8.1 (25.4)	4.7 (7.1)	5.9 (6.2)
		40~49세	10.4 (9.2)	10.8 (9.1)	6.8 (7.0)	10.2 (27.8)
		50세 이상	12.1 (9.9)	11.6 (8.5)	8.0 (6.0)	8.7 (7.3)
보건·의료비 비중(%)	전체		1.7 (3.0)	2.0 (2.5)	2.4 (3.5)	2.7 (4.5)
		해당	1.4 (1.5)	1.8 (2.3)	2.1 (2.6)	2.4 (3.2)
	맞벌이 가구	비해당	2.0 (3.9)	2.2 (2.7)	2.7 (4.1)	2.9 (5.2)
		해당	3.0 (3.3)	2.7 (2.9)	2.3 (2.0)	3.9 (3.1)
	기초수급자	비해당	1.7 (3.0)	2.0 (2.5)	2.4 (3.5)	2.7 (4.5)
		1명	1.6 (3.3)	1.9 (2.1)	2.4 (4.6)	2.7 (4.0)
	자녀수	2명	1.8 (3.0)	2.0 (2.8)	2.4 (2.7)	2.5 (2.8)
		3명이상	1.9 (1.9)	2.3 (2.4)	2.8 (3.5)	3.8 (8.7)
	지역	특별시 및 광역시	1.8 (3.7)	1.9 (2.6)	2.5 (3.1)	2.9 (5.5)
		그외	1.7 (2.4)	2.1 (2.5)	2.4 (3.8)	2.6 (3.6)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2.7 (4.3)	3.1 (4.0)	5.8 (10.4)	5.2 (8.8)
		300~399만원 이하	2.0 (4.3)	2.4 (2.3)	2.9 (3.0)	3.3 (6.2)
		400~499만원 이하	1.6 (2.0)	2.0 (2.7)	2.5 (2.7)	2.7 (3.4)
		500~599만원 이하	1.5 (1.4)	1.7 (2.3)	2.0 (1.8)	2.3 (2.2)
		600만원 이상	1.1 (1.1)	1.5 (1.7)	1.7 (2.1)	2.0 (3.0)
		299만원 이하	2.6 (4.1)	2.9 (3.6)	4.0 (6.9)	4.9 (10.3)
근로소득		300~399만원 이하	2.1 (4.4)	2.3 (2.8)	2.6 (2.7)	2.9 (3.0)
		400~499만원 이하	1.5 (1.7)	1.9 (2.2)	2.2 (1.9)	2.6 (3.2)
		500~599만원 이하	1.5 (1.4)	1.6 (2.2)	1.8 (1.5)	2.4 (3.6)
		600만원 이상	1.1 (1.0)	1.4 (1.7)	1.7 (2.3)	1.8 (1.5)

항목	변수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완구 및 도서관련 비중(%)	가구주 연령*	20~39세	1.8 (2.9)	2.1 (2.4)	2.5 (4.2)	2.8 (4.3)
		40~49세	1.7 (3.1)	2.0 (2.6)	2.4 (2.8)	2.7 (4.7)
		50세 이상	1.9 (3.3)	2.0 (2.8)	1.8 (1.3)	2.4 (3.2)
	전체		2.0 (2.5)	1.9 (2.8)	2.0 (2.5)	2.0 (4.4)
		해당	1.8 (2.0)	1.8 (2.7)	1.8 (2.7)	1.8 (2.5)
		비해당	2.1 (2.9)	2.0 (2.9)	2.1 (2.3)	2.2 (5.4)
	기초수급자	해당	2.3 (2.4)	1.4 (1.7)	2.7 (2.5)	4.2 (7.6)
		비해당	2.0 (2.5)	1.9 (2.8)	2.0 (2.5)	2.0 (4.4)
	자녀수	1명	1.9 (2.0)	1.9 (3.1)	2.0 (3.1)	2.1 (3.0)
		2명	2.1 (2.9)	1.9 (2.5)	2.0 (2.1)	1.9 (2.3)
		3명이상	1.9 (1.8)	2.2 (3.0)	2.0 (2.4)	2.5 (9.7)
	지역	특별시 및 광역시	2.1 (2.9)	2.0 (3.1)	2.2 (3.1)	2.3 (6.2)
		그외	1.9 (2.2)	1.9 (2.6)	1.9 (2.0)	1.9 (2.5)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2.2 (3.1)	3.1 (6.1)	3.4 (6.6)	4.6 (15.6)
		300~399만원 이하	2.2 (3.4)	2.1 (2.5)	2.3 (2.3)	2.4 (2.7)
		400~499만원 이하	2.0 (1.9)	2.1 (3.0)	2.0 (2.2)	1.8 (1.8)
		500~599만원 이하	1.9 (1.8)	1.6 (1.4)	1.9 (1.7)	1.6 (1.5)
		600만원 이상	1.6 (1.5)	1.3 (1.5)	1.5 (1.5)	1.6 (2.3)
		299만원 이하	2.2 (3.0)	2.6 (5.0)	2.5 (4.4)	3.5 (11.7)
근로소득		300~399만원 이하	2.2 (3.4)	2.1 (2.5)	2.2 (2.3)	2.2 (2.3)
		400~499만원 이하	2.0 (1.9)	2.1 (3.0)	1.9 (1.9)	1.8 (1.7)
		500~599만원 이하	2.0 (1.9)	1.6 (1.5)	1.7 (1.7)	1.6 (1.5)
		600만원 이상	1.5 (1.4)	1.2 (1.3)	1.5 (1.2)	1.8 (2.5)
	가구주 연령*	20~39세	2.0 (3.0)	2.1 (3.4)	2.1 (3.0)	2.1 (2.9)
		40~49세	1.9 (1.8)	1.8 (2.1)	1.9 (1.9)	2.0 (5.5)
		50세 이상	1.7 (2.0)	1.4 (1.4)	1.6 (1.6)	1.4 (1.7)

주: 1) 자료를 토대로 연구진이 작성함.

2) 가구주 연령은 부부의 경우, 나이가 많은 배우자를 기준으로 가구 대상자 연령을 정의함. (예- (1) 아내 연령 34세, 남편 연령 35세의 경우 가구주 연령은 20~39세 범주로 정의함. (2) 아내 연령 34세, 남편 연령 41세의 경우 가구주 연령은 40~49세 범주로 정의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

3) 가구특성과 지출 비목별 지출 규모와 비중의 연관성

다음으로 생활비 지출 규모와 비중에 대해 회귀분석을 통해 산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비목별로 가구특성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회귀분석은 일반화선형회귀분석을 활용하였으며, 종속변수인 생활비 지출 규모와 비중은 변환하지 않고 ‘KICCE 소비실태조사’의 1차년도부터 4차년도에서 조사된 원래의 값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따라서 생활비 비목별 지출 규모에 대한 독립변인(설명변인)과의 베타 추정치를 해석할 때는 가구특성에 대한 기준단위 변화에 따라 ‘만원’ 혹은 ‘%’ 증가 혹은 감소한다고 해석하며 베타추정치와 함께 제시한 p-값을 통해 통계적 유의성을 평가할 수 있다. 이 절에서 통계적 유의성 평가기준은 일반적으로 p-값이 0.05보다 적은 기준을 적용한다.

가) 식비 지출규모와 비중

(1) 식비 지출규모

1차년도부터 4차년도(2018년~2021년)까지의 자료를 통합하여 가구특성과 식비 지출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면,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식비 지출이 줄어들고 있으며(베타추정치 -4.05, p-값 <.0001), 기초수급자 가구의 경우 식비 지출이(베타추정치 -14.70, p-값 0.0013) 크게 감소하였다. 한편 자녀수가 1명인 가구에 비해 2명(베타추정치 5.20, p-값 <.0001) 혹은 3명(베타추정치 19.93, p-값 <.0001) 이상인 가구에서 식비 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이였다.

식비 지출 규모와 근로소득구간에 따른 변화량은 근로소득구간이 ‘299만 원 이하’인 가구에 비해 ‘300~399만 원 이하’(베타추정치 11.52, p-값 <.0001), ‘400~499만 원 이하’(베타추정치 20.94, p-값 <.0001), ‘500~599만 원 이하’(베타추정치 26.80, p-값 <.0001), ‘600만 원 이상’(베타추정치 37.83, p-값 <.0001)이 모두 양의 연관성이 나타났다.

한편 식비 지출 규모와 가구주 연령 간에는 연관성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1차년도(2018년)에 비해 3차년도(2020년)(베타추정치 13.13, p-값 <.0001), 4차년도(2021년)(베타추정치 11.72, p-값 <.0001)에 식비의 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I-3-5〉 가구특성과 월평균 식비 지출 비용과의 연관성 (1~4차년도: 2018~2021년, 명목비용)

변수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18~2021년		2018~2021년	
		베타 추정치	p-값	베타 추정치	p-값	베타 추정치	p-값	베타 추정치	p-값	베타 추정치	p-값	베타 추정치	p-값
맞벌이 가구 기초수급자 재녀수	해당	-3.81	0.0472	-4.62	0.0115	-4.47	0.0214	-3.01	0.1126	-3.87	<.0001	-4.05	<.0001
	해당	-19.56	0.0177	-9.87	0.2077	-11.02	0.3184	-18.15	0.0843	-15.25	0.0009	-14.70	0.0013
	2명	1.84	0.3297	4.97	0.0069	8.72	<.0001	5.52	0.0051	5.24	<.0001	5.20	<.0001
	3명이상	17.35	<.0001	14.98	<.0001	24.02	<.0001	23.59	<.0001	20.01	<.0001	19.93	<.0001
	특별시 및 광역시	11.08	<.0001	13.88	<.0001	8.01	<.0001	6.51	0.0002	9.94	<.0001	9.91	<.0001
근로소득	300~399만원 이하	12.90	<.0001	8.07	0.0043	13.58	<.0001	10.91	0.0005	11.31	<.0001	11.52	<.0001
	400~499만원 이하	23.01	<.0001	16.97	<.0001	20.72	<.0001	22.73	<.0001	20.47	<.0001	20.94	<.0001
	500~599만원 이하	29.65	<.0001	22.68	<.0001	26.45	<.0001	27.74	<.0001	26.14	<.0001	26.80	<.0001
	600만원 이상	36.01	<.0001	33.18	<.0001	40.15	<.0001	41.11	<.0001	37.27	<.0001	37.83	<.0001
	40~49세	2.79	0.1244	0.69	0.6868	1.18	0.5202	0.78	0.6656	1.36	0.1280	1.39	0.1196
조사년도	50세 이상 연속형	5.68	0.3128	3.79	0.4630	-0.65	0.9064	-0.57	0.9164	1.80	0.5081	1.82	0.5019
	2019	-	-	-	-	-	-	-	-	4.69	<.0001	-	-
	2020	-	-	-	-	-	-	-	-	-	-	1.36	0.2634
	2021	-	-	-	-	-	-	-	-	-	-	13.13	<.0001
		-	-	-	-	-	-	-	-	-	-	11.72	<.0001

주: 1) 자료를 토대로 연구진이 작성함.

2) '가구주 연령'은 부부의 경우, 나이가 많은 배우자를 기준으로 가구 대상자 연령을 정의함. (예- (1) 아내 연령 34세, 남편 연령 35세의 경우 가구주 연령은 20~39세 범주로 정의함. (2) 아내 연령 34세, 남편 연령 41세의 경우 가구주 연령은 40~49세 범주로 정의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

(2) 식비 비중

1차년도부터 4차년도(2018년~2021년)까지의 자료를 통합하여 가구특성과 식비 지출 비중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맞벌이 가구의 식비 지출 비중은 줄어들고 있었으며(베타추정치 -1.91, p-값 0.0001), 기초수급자 가구의 경우 식비 지출 비중(베타추정치 2.73, p-값 0.2530)이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한편 자녀수가 1명인 가구에 비해 3명이상인 가구에서(베타추정치 3.97, p-값 <.0001) 지출 비중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식비 지출 비중과 근로소득구간에 따른 변화량은 근로소득이 '299만 원 이하'인 가구에 비해 '300~399만 원 이하'(베타추정치 -7.64, p-값 <.0001), '400~499만 원 이하'(베타추정치 -9.62, p-값 <.0001), '500~599만 원 이하'(베타추정치 -11.60, p-값 <.0001), '600만 원 이상'(베타추정치 -14.67, p-값 <.0001)으로 모두 음의 연관성이 나타났다.

식비 지출 비중과 가구주의 연령 간에는 연관성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1차년도(2018년)에 비해 4차년도(2021년)(베타추정치 1.37, p-값 0.0309)에 식비 지출 비중이 다소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I-3-6〉 가구특성과 월평균 식비 지출 비중과의 연관성 (1~4차년도: 2018~2021년, 명목비용)

변수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18~2021년		2018~2021년	
		베타 추정치	p-값	베타 추정치	p-값	베타 추정치	p-값	베타 추정치	p-값	베타 추정치	p-값	베타 추정치	p-값
맞벌이 가구	해당	-1.92	0.0066	-1.70	0.1447	-1.70	0.0016	-2.32	0.0780	-1.95	<.0001	-1.91	0.0001
	기초수급자	3.24	0.2867	1.69	0.7356	8.85	0.0037	-2.13	0.7704	2.79	0.2414	2.73	0.2530
	재녀수	0.33	0.6337	1.96	0.0964	0.91	0.0972	-0.31	0.8196	0.70	0.1613	0.73	0.1433
	지역	3.18	0.0036	3.80	0.0277	3.52	<.0001	5.21	0.0067	3.92	<.0001	3.97	<.0001
	특별시 및 광역시	2.05	0.0018	3.72	0.0005	2.46	<.0001	3.89	0.0013	3.03	<.0001	3.04	<.0001
근로소득	300~399만원 이하	-6.63	<.0001	-9.30	<.0001	-5.96	<.0001	-9.27	<.0001	-7.64	<.0001	-7.64	<.0001
	400~499만원 이하	-8.63	<.0001	-11.32	<.0001	-7.97	<.0001	-10.97	<.0001	-9.53	<.0001	-9.62	<.0001
	500~599만원 이하	-10.65	<.0001	-13.29	<.0001	-9.80	<.0001	-13.11	<.0001	-11.51	<.0001	-11.60	<.0001
	600만원 이상	-14.85	<.0001	-16.30	<.0001	-12.03	<.0001	-15.84	<.0001	-14.55	<.0001	-14.67	<.0001
	40~49세	0.79	0.2362	-0.20	0.8563	1.07	0.0345	0.54	0.6671	0.54	0.2497	0.54	0.2432
가구주 연령*	50세 이상	1.49	0.4719	-1.11	0.7360	-1.13	0.4574	-0.14	0.9709	-0.30	0.8329	-0.29	0.8377
	연속형	-	-	-	-	-	-	-	-	0.40	0.0455	-	-
	2019	-	-	-	-	-	-	-	-	-	-	-0.38	0.5475
	2020	-	-	-	-	-	-	-	-	-	-	-0.54	0.3968
	2021	-	-	-	-	-	-	-	-	-	-	1.37	0.0309

주: 1) 자료를 토대로 연구진이 작성함.

2) '가구주 연령'은 부부의 경우, 나이가 많은 배우자를 기준으로 가구 대상자 연령을 정의함. (예- (1) 아내 연령 34세, 남편 연령 35세의 경우 가구주 연령은 20~39세 범주로 정의함) (2) 아내 연령 34세, 남편 연령 41세의 경우 가구주 연령은 40~49세 범주로 정의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

나) 주거비 지출규모와 비중

(1) 주거비 지출규모

1차년도부터 4차년도(2018년~2021년)까지의 자료를 통합하여 가구특성과 주거비 지출규모의 변화 살펴보면, 자녀수가 1명인 가구에 비해 2명(베타추정치 1.24, p-값 0.0030)혹은 3명(베타추정치 2.09, p-값 0.0006) 이상인 가구에서 지출규모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주거비 지출규모와 근로소득구간에 따른 변화량은 근로소득구간이 '299만 원 이하'가구에 비해 '300-399만 원 이하'(베타추정치 -1.66, p-값 0.0079), '600만 원 이상'(베타추정치 3.06, p-값 <.0001)로 근로소득구간에 따라 증감이 다른 경향이 나타났다.

주거비 지출규모와 가구주 연령과의 연관성은 30대 이하 가구주에 비해 40-49세(베타추정치 1.01, p-값 0.0098), 50세 이상(베타추정치 4.37, p-값 0.0002)에서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연도별 추세는 뚜렷하지 않았다.

〈표 VI-3-7〉 가구특성과 월평균 주거비 지출 비용과의 연관성 (1~4차년도: 2018~2021년, 명목비용)

변수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18~2021년		2018~2021년	
		베타 추정치	p-값	베타 추정치	p-값	베타 추정치	p-값	베타 추정치	p-값	베타 추정치	p-값	베타 추정치	p-값
맞벌이 가구	해당	-0.58	0.4796	1.86	0.0235	-0.46	0.5842	0.89	0.2797	0.50	0.2225	0.50	0.2280
	기초수급자	-1.92	0.5856	3.96	0.2610	-5.73	0.2348	3.09	0.5004	0.43	0.8302	0.42	0.8322
	자녀수	0.86	0.2835	0.76	0.3588	1.13	0.1956	2.36	0.0063	1.25	0.0027	1.24	0.0030
	3명이상	0.55	0.6618	2.15	0.0764	2.90	0.0186	2.58	0.0326	2.11	0.0006	2.09	0.0006
	특별시 및 광역시	0.83	0.2717	0.27	0.7248	-0.51	0.5086	-0.39	0.6089	0.04	0.9219	0.04	0.9245
근로소득	300~399만원 이하	-0.75	0.5354	-0.90	0.4773	-2.09	0.0812	-3.15	0.0203	-1.65	0.0084	-1.66	0.0079
	400~499만원 이하	0.43	0.7336	1.06	0.4305	-2.10	0.1052	-3.01	0.0283	-0.85	0.1952	-0.84	0.2000
	500~599만원 이하	1.46	0.3023	0.31	0.8326	-1.97	0.1744	-2.57	0.0792	-0.63	0.3807	-0.63	0.3819
	600만원 이상	2.10	0.1285	3.06	0.0376	5.78	<.0001	1.51	0.3148	3.04	<.0001	3.06	<.0001
	40~49세	1.65	0.0329	0.49	0.5288	0.86	0.2794	0.75	0.3422	1.02	0.0094	1.01	0.0098
조사년도	50세 이상	4.48	0.0622	3.31	0.1542	4.00	0.0972	6.22	0.0088	4.38	0.0002	4.37	0.0002
	연속형	-	-	-	-	-	-	-	-	0.21	0.2009	-	-
	2019	-	-	-	-	-	-	-	-	-	-	0.79	0.1360
	2020	-	-	-	-	-	-	-	-	-	-	0.81	0.1293
	2021	-	-	-	-	-	-	-	-	-	-	0.72	0.1755

주: 1) 자료를 토대로 연구진이 작성함.

2) '가구주 연령'은 부부의 경우, 나이가 많은 배우자를 기준으로 가구 대상자 연령을 정의함. (예- (1) 아내 연령 34세, 남편 연령 35세의 경우 가구주 연령은 20~39세 범주로 정의함. (2) 아내 연령 34세, 남편 연령 41세의 경우 가구주 연령은 40~49세 범주로 정의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

(2) 주거비 비중

1차년도부터 4차년도(2018년~2021년)까지의 자료를 통합하여 가구특성과 주거비 지출비중의 변화 살펴보면, 기초수급자가구(베타추정치 2.32, p-값 0.0471)에서 양의 연관성이 관찰되었다.

주거비 지출비중과 근로소득구간에 따른 변화량은 근로소득구간이 '299만 원 이하'가구에 비해 '300~399만 원 이하'(베타추정치 -4.74, p-값 <.0001), '400~499만 원 이하'(베타추정치 -5.77, p-값 <.0001), '500~599만 원 이하'(베타추정치 -6.59, p-값 <.0001), '600만 원 이상'(베타추정치 -7.35, p-값 <.0001)로 모두 음의 연관성이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는 2018년에 비해 2020년(베타추정치 -1.02, p-값 0.0011)로 일부 조사년도에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표 VI-3-8〉 가구특성과 월평균 주거비 지출 비중과의 연관성 (1~4차년도: 2018~2021년, 명목비용)

변수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18~2021년		2018~2021년	
		베타 추정치	p-값	베타 추정치	p-값	베타 추정치	p-값	베타 추정치	p-값	베타 추정치	p-값	베타 추정치	p-값
맞벌이 가구	해당	-0.78	0.3009	0.21	0.4458	0.04	0.9332	-0.29	0.4232	-0.19	0.4362	-0.17	0.4785
기초수급자	해당	2.23	0.4901	2.31	0.0493	0.52	0.8310	4.43	0.0252	2.35	0.0441	2.32	0.0471
자녀수	2명	0.71	0.3371	0.09	0.7427	-0.25	0.5632	0.14	0.6981	0.19	0.4453	0.20	0.4154
	3명이상	0.06	0.9594	0.72	0.0751	-0.10	0.8767	0.56	0.2773	0.35	0.3253	0.37	0.2982
지역	특별시 및 광역시	-0.40	0.5709	-0.07	0.7735	0.34	0.3886	0.41	0.2051	0.05	0.8085	0.06	0.7986
근로소득	300~399만원 이하	-5.91	<0.001	-3.61	<0.001	-4.96	<0.001	-4.18	<0.001	-4.74	<0.001	-4.74	<0.001
	400~499만원 이하	-6.90	<0.001	-4.50	<0.001	-5.90	<0.001	-5.39	<0.001	-5.73	<0.001	-5.77	<0.001
	500~599만원 이하	-7.65	<0.001	-5.58	<0.001	-6.68	<0.001	-6.10	<0.001	-6.55	<0.001	-6.59	<0.001
	600만원 이상	-8.89	<0.001	-6.61	<0.001	-6.70	<0.001	-6.71	<0.001	-7.30	<0.001	-7.35	<0.001
	40~49세	0.20	0.7759	0.21	0.4207	0.24	0.5458	0.24	0.4713	0.21	0.3542	0.21	0.3487
가구주 연령*	50세 이상	1.39	0.5276	0.42	0.5900	0.84	0.4924	0.89	0.3842	0.83	0.2300	0.84	0.2281
조사년도	연속형	-	-	-	-	-	-	-	-	-0.23	0.0200	-	-
	2019	-	-	-	-	-	-	-	-	-	-	-0.48	0.1207
	2020	-	-	-	-	-	-	-	-	-	-	-1.02	0.0011
	2021	-	-	-	-	-	-	-	-	-	-	-0.59	0.0574

주: 1) 자료를 토대로 연구진이 작성함.

2) '가구주 연령'은 부부의 경우, 나이가 많은 배우자를 기준으로 가구 대상자 연령을 정의함. (예- (1) 아내 연령 34세, 남편 연령 35세의 경우 가구주 연령은 20~39세 범주로 정의함. (2) 아내 연령 34세, 남편 연령 41세의 경우 가구주 연령은 40~49세 범주로 정의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

다) 교육·보육비 지출규모와 비중

(1) 교육·보육비 지출규모

1차년도부터 4차년도(2018년~2021년)까지의 자료를 통합하여 가구특성과 교육·보육비 지출규모의 변화 살펴보면, 맞벌이 가구(베타추정치 4.58, p-값 <.0001)의 경우 교육·보육비 지출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며, 자녀수가 1명인 가구에 비해 2명(베타추정치 16.96, p-값 <.0001)혹은 3명(베타추정치 34.03, p-값 <.0001) 이상인 가구에서 지출규모가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교육·보육비 지출규모와 근로소득구간에 따른 변화량은 근로소득구간이 '299만 원 이하'가구에 비해 '300~399만 원 이하'(베타추정치 3.08, p-값 0.0320), '400~499만 원 이하'(베타추정치 10.01, p-값 <.0001), '500~599만 원 이하'(베타추정치 19.07, p-값 <.0001), '600만 원 이상'(베타추정치 37.99, p-값 <.0001)로 모두 양의 연관성이 나타났다.

교육·보육비 지출규모와 가구주 연령과의 연관성은 30대 이하 가구주에 비해 40~49세(베타추정치 8.16, p-값 <.0001), 50세 이상(베타추정치 13.47, p-값 <.0001)에서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연도별 추세는 2018년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표 VI-3-9〉 가구특성과 월평균 교육·보육비 지출 비용과의 연관성 (1~4차년도: 2018~2021년, 명목비용)

변수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18~2021년		2018~2021년	
		베타 추정치	p-값	베타 추정치	p-값	베타 추정치	p-값	베타 추정치	p-값	베타 추정치	p-값	베타 추정치	p-값
맞벌이 가구	해당	2.81	0.1568	4.30	0.0385	7.47	<.0001	3.73	0.0478	4.29	<.0001	4.58	<.0001
	기초수급자	-10.96	0.1983	-4.22	0.6350	-7.74	0.4036	-8.56	0.4135	-6.74	0.1443	-7.56	0.0995
	재녀수	13.71	<.0001	16.07	<.0001	14.03	<.0001	24.82	<.0001	16.87	<.0001	16.96	<.0001
	3명이상	30.35	<.0001	34.95	<.0001	29.31	<.0001	42.15	<.0001	33.86	<.0001	34.03	<.0001
	특별시 및 광역시	7.94	<.0001	7.00	0.0002	1.09	0.4644	3.78	0.0292	4.91	<.0001	4.95	<.0001
근로소득	300~399만원 이하	4.18	0.1556	2.07	0.5186	2.35	0.3075	4.09	0.1859	3.36	0.0201	3.08	0.0320
	400~499만원 이하	10.81	0.0004	11.55	0.0007	9.52	0.0001	8.50	0.0066	10.74	<.0001	10.01	<.0001
	500~599만원 이하	21.68	<.0001	22.34	<.0001	14.08	<.0001	17.57	<.0001	20.05	<.0001	19.07	<.0001
	600만원 이상	40.25	<.0001	37.61	<.0001	32.87	<.0001	40.07	<.0001	38.88	<.0001	37.99	<.0001
	40~49세	7.78	<.0001	10.49	<.0001	4.47	0.0036	8.91	<.0001	8.19	<.0001	8.16	<.0001
조사년도	50세 이상	17.54	0.0026	20.09	0.0006	11.50	0.0131	4.37	0.4186	13.49	<.0001	13.47	<.0001
	연속형	-	-	-	-	-	-	-	-	-2.45	<.0001	-	-
	2019	-	-	-	-	-	-	-	-	-	-	0.86	0.4799
	2020	-	-	-	-	-	-	-	-	-	-	-11.57	<.0001
	2021	-	-	-	-	-	-	-	-	-	-	-4.06	0.0008

주: 1) 자료를 토대로 연구진이 작성함.

2) '가구주 연령'은 부부의 경우, 나이가 많은 배우자를 기준으로 가구 대상자 연령을 정의함. (예- (1) 아내 연령 34세, 남편 연령 35세의 경우 가구주 연령은 20~39세 범주로 정의함. (2) 아내 연령 34세, 남편 연령 41세의 경우 가구주 연령은 40~49세 범주로 정의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

(2) 교육·보육비 비중

1차년도부터 4차년도(2018년~2021년) 자료를 통합하여 가구특성과 교육·보육비 지출비중의 변화 살펴보면, 맞벌이 가구(베타추정치 0.52, p-값 0.1959)의 교육·보육비 지출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자녀수가 1명인 가구에 비해 2명(베타추정치 4.05, p-값 <.0001)혹은 3명(베타추정치 8.05, p-값 <.0001) 이상인 가구에서 지출비중이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교육·보육비 지출비중과 근로소득구간에 따른 변화량은 근로소득구간이 '299만 원 이하' 가구에 비해 '300~399만 원 이하'(베타추정치 -3.78, p-값 <.0001), '400~499만 원 이하'(베타추정치 -3.72, p-값 <.0001), '500~599만 원 이하'(베타추정치 -3.34, p-값 <.0001), '600만 원 이상'(베타추정치 -3.36, p-값 <.0001)로 모두 음의 연관성이 나타났다.

교육·보육비 지출비중과 가구주 연령과의 연관성은 30대 이하 가구주에 비해 40~49세(베타추정치 1.91, p-값 <.0001)에서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연도별 추세는 2018년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표 VI-3-10〉 가구특성과 월평균 교육·보육비 지출 비중과의 연관성 (1~4차년도: 2018~2021년, 명목비용)

변수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18~2021년		2018~2021년	
		베타 추정치	p-값	베타 추정치	p-값	베타 추정치	p-값	베타 추정치	p-값	베타 추정치	p-값	베타 추정치	p-값
맞벌이 가구 기초수급자 재녀수	해당	0.34	0.5222	0.30	0.7700	1.14	0.0019	0.26	0.8070	0.43	0.2892	0.52	0.1959
	해당	1.72	0.4507	0.64	0.8835	-2.38	0.2547	-2.26	0.7055	0.14	0.9419	-0.11	0.9544
	2명	3.67	<.0001	4.86	<.0001	2.70	<.0001	4.96	<.0001	4.02	<.0001	4.05	<.0001
	3명이상	7.71	<.0001	8.14	<.0001	5.35	<.0001	11.03	<.0001	7.98	<.0001	8.05	<.0001
	특별시 및 광역시	1.13	0.0213	1.96	0.0357	0.58	0.0853	1.85	0.0620	1.36	0.0003	1.37	0.0002
근로소득	300~399만원 이하	-3.44	<.0001	-5.73	0.0003	-2.05	<.0001	-4.48	0.0113	-3.70	<.0001	-3.78	<.0001
	400~499만원 이하	-3.66	<.0001	-5.20	0.0019	-1.47	0.0091	-4.93	0.0059	-3.49	<.0001	-3.72	<.0001
	500~599만원 이하	-3.12	0.0007	-4.61	0.0101	-1.60	0.0108	-4.57	0.0165	-3.03	<.0001	-3.34	<.0001
	600만원 이상	-3.57	<.0001	-5.54	0.0025	-0.87	0.1680	-4.05	0.0381	-3.08	<.0001	-3.36	<.0001
	40~49세	1.94	0.0001	1.88	0.0503	1.14	0.0010	2.63	0.0105	1.92	<.0001	1.91	<.0001
조사년도	50세 이상	2.45	0.1149	2.85	0.3226	2.21	0.0349	0.44	0.8867	1.93	0.0968	1.93	0.0960
	연속형	-	-	-	-	-	-	-	-	-0.81	<.0001	-	-
	2019	-	-	-	-	-	-	-	-	-	-	-0.03	0.9508
	2020	-	-	-	-	-	-	-	-	-	-	-3.89	<.0001
	2021	-	-	-	-	-	-	-	-	-	-	-1.43	0.0060

주: 1) 자료를 토대로 연구진이 작성함.

2) '가구주 연령'은 부부의 경우, 나이가 많은 배우자를 기준으로 가구 대상자 연령을 정의함. (예- (1) 아내 연령 34세, 남편 연령 35세의 경우 가구주 연령은 20~39세 범주로 정의함. (2) 아내 연령 34세, 남편 연령 41세의 경우 가구주 연령은 40~49세 범주로 정의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

라) 보건·의료비 지출규모와 비중

(1) 보건·의료비 지출규모

1차년도부터 4차년도(2018년~2021년)까지의 자료를 통합하여 가구특성과 보건·의료비 지출규모의 변화 살펴보면, 자녀수가 1명인 가구에 비해 2명(베타추정치 0.98, p-값 0.0077)혹은 3명(베타추정치 3.41, p-값 <.0001) 이상인 가구에서 양의 연관성이 나타났다. 보건·의료비 지출규모와 근로소득구간에 따른 변화량은 근로소득구간이 '299만 원 이하'가구 대비 '600만 원 이상'(베타추정치 2.18, p-값 0.0006)인 가구에서만 유의한 양의 연관성이 관찰되었다.

연도별 추세는 2018년에 비해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2018년 대비 2019년(베타추정치 1.80, p-값 0.0001), 2020년(베타추정치 4.24, p-값 <.0001), 2021년(베타추정치 5.40, p-값 <.0001)의 수치가 관찰되었다.

〈표 VI-3-3-11〉 가구특성과 월평균 보건·의료비 지출 비용과의 연관성 (1~4차년도: 2018~2021년, 명목비용)

변수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18~2021년		2018~2021년	
		베타 추정치	p-값	베타 추정치	p-값	베타 추정치	p-값	베타 추정치	p-값	베타 추정치	p-값	베타 추정치	p-값
맞벌이 가구 기초수급자 재녀수	해당	-0.43	0.4278	0.42	0.4860	-0.46	0.5110	0.83	0.3959	0.12	0.7309	0.11	0.7720
	해당	1.22	0.6032	0.40	0.8764	-7.20	0.0695	-6.32	0.2439	-1.90	0.2794	-1.85	0.2923
	2명	0.62	0.2493	1.35	0.0250	1.59	0.0261	0.46	0.6518	0.99	0.0071	0.98	0.0077
	3명이상	1.49	0.0751	2.60	0.0033	3.79	0.0002	5.37	0.0002	3.42	<.0001	3.41	<.0001
지역 근로소득	특별시 및 광역시	0.82	0.1058	-0.75	0.1725	0.26	0.6827	0.82	0.3627	0.30	0.3697	0.30	0.3745
	300~399만원 이하	2.01	0.0130	1.29	0.1623	0.09	0.9267	-2.82	0.0790	0.28	0.6048	0.30	0.5875
	400~499만원 이하	1.47	0.0817	1.15	0.2411	-0.20	0.8483	-1.63	0.3157	0.27	0.6443	0.31	0.5868
	500~599만원 이하	2.66	0.0048	1.56	0.1384	-0.28	0.8168	-0.26	0.8808	1.03	0.1022	1.09	0.0837
	600만원 이상	3.38	0.0002	2.74	0.0106	2.26	0.0597	-0.10	0.9527	2.12	0.0008	2.18	0.0006
	40~49세	0.24	0.6449	-0.07	0.9033	0.37	0.5681	-0.34	0.7117	0.07	0.8378	0.07	0.8371
가구주 연령*	50세 이상	-0.76	0.6340	1.04	0.5395	-2.55	0.1983	-1.60	0.5673	-1.02	0.3273	-1.02	0.3271
조사년도	연속형	-	-	-	-	-	-	-	-	1.86	<.0001	-	-
	2019	-	-	-	-	-	-	-	-	-	-	1.80	0.0001
	2020	-	-	-	-	-	-	-	-	-	-	4.24	<.0001
	2021	-	-	-	-	-	-	-	-	-	-	5.40	<.0001

주: 1) 자료를 토대로 연구진이 작성함.

2) '가구주 연령'은 부부의 경우, 나이가 많은 배우자를 기준으로 가구 대상자 연령을 정의함. (예- (1) 아내 연령 34세, 남편 연령 35세의 경우 가구주 연령은 20~39세 범주로 정의함. (2) 아내 연령 34세, 남편 연령 41세의 경우 가구주 연령은 40~49세 범주로 정의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

(2) 보건·의료비 비중

1차년도부터 4차년도(2018년~2021년)까지의 자료를 통합하여 가구특성과 보건·의료비 지출비중의 변화 살펴보면, 자녀수가 1명인 가구에 비해 3명이상(베타 추정치 0.63, p-값 <.0001)인 가구에서 양의 연관성이 나타났다. 보건·의료비 지출비중과 근로소득구간에 따른 변화량은 근로소득구간이 '299만 원 이하' 가구에 비해 '300~399만 원 이하'(베타추정치 -1.13, p-값 <.0001), '400~499만 원 이하'(베타추정치 -1.55, p-값 <.0001), '500~599만 원 이하'(베타추정치 -1.75, p-값 <.0001), '600만 원 이상'(베타추정치 -2.07, p-값 <.0001)로 모두 음의 연관성이 나타났다.

연도별 추세는 2018년에 비해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2018년 대비 2019년(베타추정치 0.29, p-값 0.0143), 2020년(베타추정치 0.64, p-값 <.0001), 2021년(베타추정치 1.03, p-값 <.0001)의 수치가 관찰되었다.

〈표 VI-3-12〉 가구특성과 월평균 보건·의료비 지출 비중과의 연관성 (1~4차년도: 2018~2021년, 명목비용)

변수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18~2021년		2018~2021년	
		베타 추정치	p-값	베타 추정치	p-값	베타 추정치	p-값	베타 추정치	p-값	베타 추정치	p-값	베타 추정치	p-값
맞벌이 가구	해당	-0.24	0.1366	0.00	0.9727	-0.19	0.3164	0.04	0.8756	-0.09	0.3358	-0.09	0.3423
	기초수급자	0.78	0.2657	0.16	0.7862	-1.93	0.0696	-1.28	0.3316	-0.25	0.5719	-0.25	0.5703
	재녀수	0.14	0.3670	0.24	0.0790	0.08	0.6863	-0.02	0.9260	0.10	0.3069	0.10	0.3001
	3명이상	0.22	0.3745	0.50	0.0127	0.45	0.0973	1.22	0.0004	0.63	<.0001	0.63	<.0001
	특별시 및 광역시	0.17	0.2621	-0.25	0.0468	0.00	0.9963	0.32	0.1419	0.06	0.4521	0.06	0.4507
근로소득	300~399만원 이하	-0.49	0.0445	-0.56	0.0073	-1.53	<.0001	-2.06	<.0001	-1.13	<.0001	-1.13	<.0001
	400~499만원 이하	-1.00	<.0001	-1.01	<.0001	-1.96	<.0001	-2.33	<.0001	-1.55	<.0001	-1.55	<.0001
	500~599만원 이하	-1.01	0.0004	-1.25	<.0001	-2.30	<.0001	-2.56	<.0001	-1.75	<.0001	-1.75	<.0001
	600만원 이상	-1.33	<.0001	-1.51	<.0001	-2.37	<.0001	-3.15	<.0001	-2.07	<.0001	-2.07	<.0001
	40~49세	0.05	0.7392	-0.03	0.8171	0.08	0.6347	-0.06	0.8020	0.02	0.8144	0.02	0.8103
조사년도	50세 이상	0.22	0.6465	0.01	0.9828	-0.67	0.2072	-0.54	0.4317	-0.25	0.3472	-0.25	0.3483
	연속형	-	-	-	-	-	-	-	-	0.34	<.0001	-	-
	2019	-	-	-	-	-	-	-	-	-	-	0.29	0.0143
	2020	-	-	-	-	-	-	-	-	-	-	0.64	<.0001
	2021	-	-	-	-	-	-	-	-	-	-	1.03	<.0001

주: 1) 자료를 토대로 연구진이 작성함.

2) '가구주 연령'은 부부의 경우, 나이가 많은 배우자를 기준으로 가구 대상자 연령을 정의함. (예- (1) 아내 연령 34세, 남편 연령 35세의 경우 가구주 연령은 20~39세 범주로 정의함. (2) 아내 연령 34세, 남편 연령 41세의 경우 가구주 연령은 40~49세 범주로 정의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

마) 완구 및 도서관 관련 비용의 지출규모와 비중

(1) 완구 및 도서관 관련 비용의 지출규모

1차년도부터 4차년도(2018년~2021년)까지의 자료를 통합하여 가구특성과 완구 및 도서관 관련 지출규모의 변화 살펴보면, 자녀수가 1명인 가구에 비해 3명 이상(베타추정치 1.22, p-값 0.0029)인 가구와 중소도시보다는 특별시 및 광역시(베타추정치 0.78 p-값 0.0023)에서 양의 연관성이 관찰되었다. 완구 및 도서관 관련 지출규모와 근로소득구간에 따른 변화량은 근로소득구간이 '299만 원 이하'가구 대비 '300~399만 원 이하'(베타추정치 1.90, p-값 <.0001), '400~499만 원 이하'(베타추정치 2.77, p-값 <.0001), '500~599만 원 이하'(베타추정치 3.37, p-값 <.0001), '600만 원 이상'(베타추정치 5.44, p-값 <.0001)로 모두 양의 연관성이 나타났다.

연도별 추세는 2018년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베타추정치 0.30, p-값 0.0069)이나 연도별로 구분해보면 2020년(베타추정치 1.18, p-값 0.0010)에서만 양의 연관성이 관찰되었다.

〈표 VI-3-13〉 가구특성과 월평균 원구 및 도서관 관련 지출 비용과의 연관성 (1~4차년도: 2018~2021년, 명목비용)

변수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18~2021년		2018~2021년	
		베타 추정치	p-값	베타 추정치	p-값	베타 추정치	p-값	베타 추정치	p-값	베타 추정치	p-값	베타 추정치	p-값
맞벌이 가구	해당	-0.29	0.5919	1.02	0.0670	-0.58	0.2700	-0.36	0.5483	0.03	0.9176	0.00	0.9946
기초수급자	해당	2.45	0.2864	-3.72	0.1189	-2.34	0.4301	-0.34	0.9206	-0.87	0.5182	-0.79	0.5577
자녀수	2명	0.59	0.2609	0.44	0.4324	0.72	0.1813	0.13	0.8340	0.45	0.1094	0.44	0.1145
	3명이상	0.82	0.3180	1.92	0.0194	1.15	0.1292	0.90	0.3108	1.24	0.0026	1.22	0.0029
지역	특별시 및 광역시	1.01	0.0417	0.90	0.0765	0.58	0.2271	0.66	0.2362	0.78	0.0022	0.78	0.0023
근로소득	300~399만원 이하	2.79	0.0004	1.05	0.2219	2.45	0.0009	0.85	0.3931	1.87	<.0001	1.90	<.0001
	400~499만원 이하	3.82	<.0001	2.99	0.0011	2.99	0.0002	0.93	0.3579	2.70	<.0001	2.77	<.0001
	500~599만원 이하	5.77	<.0001	1.91	0.0506	3.86	<.0001	1.85	0.0858	3.28	<.0001	3.37	<.0001
	600만원 이상	6.75	<.0001	2.09	0.0359	5.61	<.0001	6.69	<.0001	5.35	<.0001	5.44	<.0001
가구주 연령*	40~49세	-0.57	0.2552	-0.90	0.0860	-0.77	0.1170	-0.45	0.4372	-0.65	0.0133	-0.65	0.0138
	50세 이상	-1.18	0.4520	-1.47	0.3491	-2.41	0.1047	-2.47	0.1560	-1.94	0.0151	-1.94	0.0152
조사년도	연속형	-	-	-	-	-	-	-	-	0.30	0.0069	-	-
	2019	-	-	-	-	-	-	-	-	-	-	-0.15	0.6781
	2020	-	-	-	-	-	-	-	-	-	-	1.18	0.0010
	2021	-	-	-	-	-	-	-	-	-	-	0.58	0.1067

주: 1) 자료를 토대로 연구진이 작성함.

2) '가구주 연령'은 부부의 경우, 나이가 많은 배우자를 기준으로 가구 대상자 연령을 정의함. (예- (1) 아내 연령 34세, 남편 연령 35세의 경우 가구주 연령은 20~39세 범주로 정의함. (2) 아내 연령 34세, 남편 연령 41세의 경우 가구주 연령은 40~49세 범주로 정의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

(2) 완구 및 도서관 관련 비용의 비중

1차년도부터 4차년도(2018년~2021년)까지의 자료를 통합하여 가구특성과 완구 및 도서관 관련 지출비중의 변화 살펴보면, 자녀수가 1명인 가구에 비해 3명 이상(베타추정치 0.28, p-값 0.0278)인 가구와 중소도시보다는 특별시 및 광역시(베타추정치 0.28 p-값 0.0004)에서 양의 연관성이 관찰되었다. 완구 및 도서관 관련 지출 비중과 소득구간에 따른 변화량은 소득구간이 '299만 원 이하'가구 대비 '300~399만 원 이하'(베타추정치 -0.52, p-값 <.0001), '400~499만 원 이하'(베타추정치 -0.74, p-값 <.0001), '500~599만 원 이하'(베타추정치 -0.95, p-값 <.0001), '600만 원 이상'(베타추정치 -1.12, p-값 <.0001)로 모두 음의 연관성이 나타났다. 완구 및 도서관 관련 지출비중의 연도별 추세는 관찰되지 않았다.

〈표 VI-3-14〉 가구특성과 월평균 원구 및 도서관 관련 지출 비중과의 연관성 (1~4차년도: 2018~2021년, 명목비용)

변수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18~2021년		2018~2021년	
		베타 추정치	p-값	베타 추정치	p-값	베타 추정치	p-값	베타 추정치	p-값	베타 추정치	p-값	베타 추정치	p-값
맞벌이 가구 기초수급자 자녀수	해당	-0.14	0.3192	0.09	0.5711	-0.12	0.3787	-0.19	0.4168	-0.07	0.3821	-0.07	0.3965
	해당	0.20	0.7333	-0.99	0.1291	0.17	0.8251	0.68	0.6015	-0.04	0.9258	-0.04	0.9197
	2명	0.24	0.0715	0.08	0.6116	0.05	0.7283	-0.05	0.8470	0.08	0.3764	0.08	0.3630
	3명이상	0.10	0.6284	0.40	0.0726	0.12	0.5548	0.38	0.2627	0.27	0.0297	0.28	0.0278
	특별시 및 광역시	0.22	0.0848	0.15	0.2683	0.30	0.0148	0.44	0.0399	0.28	0.0004	0.28	0.0004
근로소득	300~399만원 이하	-0.01	0.9511	-0.59	0.0119	-0.31	0.0979	-1.30	0.0008	-0.52	<0.001	-0.52	<0.001
	400~499만원 이하	-0.17	0.4081	-0.57	0.0223	-0.60	0.0034	-1.70	<0.001	-0.73	<0.001	-0.74	<0.001
	500~599만원 이하	-0.18	0.4435	-1.11	<0.001	-0.74	0.0013	-1.81	<0.001	-0.95	<0.001	-0.95	<0.001
	600만원 이상	-0.60	0.0087	-1.46	<0.001	-0.94	<0.001	-1.57	0.0002	-1.11	<0.001	-1.12	<0.001
	40~49세	-0.13	0.3176	-0.21	0.1374	-0.12	0.3271	0.00	0.9999	-0.11	0.1795	-0.11	0.1821
가구주 연령*	50세 이상	-0.23	0.5666	-0.54	0.2110	-0.50	0.1897	-0.72	0.2848	-0.50	0.0385	-0.50	0.0388
	연속형	-	-	-	-	-	-	-	-	0.03	0.3304	-	-
	2019	-	-	-	-	-	-	-	-	-	-	-0.04	0.7418
	2020	-	-	-	-	-	-	-	-	-	-	-0.02	0.8574
	2021	-	-	-	-	-	-	-	-	-	-	0.10	0.3361

주: 1) 자료를 토대로 연구진이 작성함.

2) '가구주 연령'은 부부의 경우, 나이가 많은 배우자를 기준으로 가구 대상자 연령을 정의함. (예- (1) 아내 연령 34세, 남편 연령 35세의 경우 가구주 연령은 20~39세 범주로 정의함. (2) 아내 연령 34세, 남편 연령 41세의 경우 가구주 연령은 40~49세 범주로 정의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

4. 소결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2018년도부터 시작된 ‘KICCE 소비실태조사’의 1~4차년도(2018~2022년) 자료를 활용한 시계열 분석을 통해 1차년도부터 4차년도(2018년~2021년)에 걸친 월평균 가구소득과 생활비 지출 비용의 변화를 가구특성에 따라 살펴보았다.

먼저 가구소득의 경우, 소득규모별 분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였으나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소득규모별 분포는 뚜렷한 추세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생활비 지출비목 중 식비, 주거비, 교육·보육비, 보건·의료비, 완구 및 도서관 관련 비용의 지출 규모와 소득 대비 지출 비중에 대해 기초수급자 여부, 자녀수, 근로소득 규모, 1~4차년도(2018~2021년) 시계열 추세에 따른 증감을 요약한 표와 이에 따른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VI-4-1〉 가구특성과 월평균 지출 항목에 따른 시계열 분석결과(요약)

지출 항목	구분	기초수급자	자녀수1)	근로 및 사업소득2)	시계열추세
식비	지출규모	\	/	/	/
	지출비중	—	/	\	/
주거비	지출규모	—	/	\	—
	지출비중	/	—	\	\
교육·보육비	지출규모	—	/	/	\
	지출비중	—	/	\	\
보건·의료비	지출규모	—	/	/	/
	지출비중	—	/	\	/
완구·도서관 관련 비용	지출규모	—	/	/	/
	지출비중	—	/	\	—

주: 1) 자료를 토대로 연구진이 작성함.
 2) 자녀수는 1명을 준거집단으로 두고, 2명, 3명 이상인 경우 베타 추정치의 증감이 통계적 유의성을 가질 때 화살표로 구분하여 나타내었으며 증가경향(/)과 감소경향(\)으로 표시 하였고, 유의성 수준은 (p-value < 0.05)로 설정하였으며 증감경향 없음(—)은 별도 구분함.
 3) 근로 및 사업소득은 300만원 미만을 준거집단으로 두고, 근로 및 사업소득 수준이 300~399만 원, 400~499만원, 500~599만원, 600만 원 이상으로 연속성을 고려하였을 때 증가경향(/), 감소경향(\), 감소 후 증가경향(\/)으로 표시 하여 구분하였고, 통계적 유의성 수준은 (p-value < 0.05)로 설정 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

첫째, 1차년도부터 4차년도(2018년~2021년)까지의 기간에 생활비 지출비목 중 식비⁶⁸⁾의 지출 규모와 가구소득 대비 지출 비중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

였고 특히 자녀수가 많을수록 식비의 규모와 비중이 모두 증가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 많을수록 필요한 식료품의 양과 외식의 필요성이 증가할 뿐 아니라 자녀 연령대별로 필요로 하는 식료품의 종류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일반적인 현상으로 이해된다. 한편 식비는 근로 및 사업소득이 낮은 가구에서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차년도(2022년) 본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KICCE 소비실태조사의 대상인 막내자녀가 영유아인 가구의⁶⁹⁾ 소득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근로 및 사업소득’으로 ‘근로 및 사업소득’이 가구소득을 대부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서 ‘식비’는 어느 수준 이하로는 줄이기 어려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근로 및 사업소득이 낮을수록 소득 중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식비는 필수재로서 다자녀가구와 일정 근로 및 사업소득 이하의 가구에서는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준거 가구에 비해 더 높아 이들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식비 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생활비 중 주거비의 지출 규모와 비중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뚜렷한 추세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근로 및 사업소득에 따른 주거비 지출의 차이도 크지 않았다. 그러나 근로 및 사업소득이 낮은 가구에서 근로 및 사업소득이 높은 가구에 비해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높은 경향은 확인되었다. 한편 주거비 지출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러한 경향성은 가족 구성원의 수가 많아질수록 더 넓은 주거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실제로 5차년도(2022년) 소비실태조사⁷⁰⁾ 결과에서 총 자녀수에 따른 거주 주택 면적을 살펴본 결과 자녀수 증가에 따라 거주 주택 면적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처럼 자녀수 증가에 따라 필요로 하는 거주공간의 면적이 증가하면서 실제 더 넓은 주거공간을 위해 주거비를 지출하게 되는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특성 상, 주거비 지출의 규모나 비중이 주거공간의 물리적 크기와 완전히 비례하지 않기에 세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68) 본 연구에서 식비는 가족 전체가 함께한 외식비 등을 포함하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지불한 급간식비 등은 제외됨.

69) 본 심층분석의 대상인 KICCE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조사 자료 중 1차년도는 막내자녀가 미취학 영유아인 경우, 2차,4차년도는 막내자녀가 초등1학년인 경우, 3차년도는 막내자녀가 초등2학년인 경우까지를 조사한 자료임.

70) 본 보고서 IV장 <표 IV-4-13>을 참고할 것.

근로 및 사업소득이 낮은 저소득 다자녀 가구의 경우 식비와 더불어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킬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생활비 중 교육·보육비⁷¹⁾ 지출 규모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증가에 따라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한편 교육·보육비 비중의 연도별 수치는 3차년도(2020년)에 지출 비중이 가구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가구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4차년도(2021년)에 다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3차년도(2020년)에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다소 위축되었던 사교육 및 돌봄서비스 이용 비용 지출이 4차년도(2021년)에 증가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대상이 영유아 가구이므로 코로나19로 인해 3~4차년도(2020~2021년) 사이에 발생한 돌봄 공백과 서비스 수요 변화가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의 증감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와 같은 장기적인 재난상황에서 영유아 가구의 돌봄 공백의 해소 방법과 해소 방법에 따라 지출된 직접적인 비용 규모를 파악하여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가정 보육 의존을 낮추거나 가구원의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대안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보건·의료비⁷²⁾의 경우 본 연구에서 보건·의료비 지출내역에 의료이용 뿐만 아니라 건강 관련 상품에 대한 구매 지출을 포함하고 있어 순수하게 의료이용에 따른 비용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제약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결과를 통해 보건·의료비 지출 규모와 비중이 꾸준히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대부분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2019년 1월 1일부터 1세 미만 영·유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21~42%에서 5~20%로 경감되어 적용 대상 영아의 외래진료 의료이용에 대한 비용부담이 완화되었다⁷³⁾. 그러나 본 분석 결과 여전히 보건·의료비 지출 규모와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적용 대상자의 연령이 만 1세 미만이며 의료이용이 외래이용으로 한정된 것과도 연관성이 높을 것이다.

특히 개별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보건·의료비 지출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서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였으며 이에 반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높

71) 본 연구에서 교육·보육비는 부모님의 교육비 포함, 자녀의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비용, 개별돌봄서비스 이용비용, 사교육 이용비용 등(교재교구 포함)하며 정부 지원금은 제외됨.

72) 본 연구에서 생활비 비목의 보건·의료비 지출이 병원, 약 구매비, 비타민이나 영양제, 건강보조제(홍삼, 한약 등 포함), 마스크 등의 비용도 포함하고 있음.

73)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보장성 강화 활용백서, https://www.nhis.or.kr/static/alim/paper/oldpaper/202005/sub/s01_07.html (인출: 2022. 11. 2.)

아질수록 그 비중은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완화되더라도 만1세 이상의 자녀를 동시에 양육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실제적으로 비용절감의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러한 경향성은 식비에서 확인된 결과와 유사하며 전체 생활비 지출 중 보건·의료비가 식비의 지출 규모나 비중에 비해 작지만 유사한 소비 지출 항목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유아 육아가구에서 기본적인 생활비 비목에 대해 실제적인 비용계상을 하여 관련비목에 대한 세제혜택이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적용 대상의 연령제한 완화 등을 고려해 볼 만하다.

다섯째, 완구 및 도서구입에 대한 생활비 지출 규모 및 가구소득 대비 지출 비중은 자녀 수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또한 근로 및 사업소득이 높을수록 완구 및 도서 구입 지출 비용이 증가하였으나 가구소득 중 지출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 가구에서 완구·도서구입 지출 규모와 가구소득 대비 지출 비중은 자녀 특성이나 가구의 구매력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영역임을 의미한다. 한편 영유아 가구에서 자녀의 성장에 따라 꾸준히 발생하는 새로운 완구나 도서의 필요성은 일정수준의 지출을 꾸준히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를 구매로 직결시키지 않고 특히 저소득 영유아 가구의 완구 및 도서구입비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대여 등의 다양한 대안적 방법의 활용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대여 서비스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에 따라 영유아 가구의 활용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 접근성이 낮은 가구에는 대여물품 배송 및 회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포인트 제공을 통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완충적인 시도가 요구된다.

VII

코로나의 확산이 양육비용 지출에 미친 효과

- 01 서론
- 02 선행연구
- 03 식별전략 및 계량모형
- 04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추정결과
- 05 미시수준의 추정결과
- 06 소결

VII. 코로나의 확산이 양육비용 지출에 미친 효과

1. 서론

본 장에서는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조사 자료를 활용한 심층분석 주제인 ‘코로나19(이하 코로나)의 확산이 자녀를 둔 가구의 양육비용 지출에 미친 효과’를 추정하였다. 특히, 코로나 확산 양태는 지역별 차이가 있었음을 이용해 코로나가 가구의 양육비용에 미친 효과를 식별하고자 하였다. 이에, 분석 자료로 코로나 발발 이전인 2018~2019년, 코로나 확산 이후인 2020~2021년의 가구 양육비용의 변화를 추적한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자료의 지역 수준의 집계 변수, 가구 수준의 미시 자료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코로나 19 확산의 지역별 강도에 대한 지표 등을 사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으로는 패널 자료를 이용한 ‘이중차분추정법’을 이용하였다. 처리변수(독립변수)는 코로나 확산의 정도를 측정하는 ‘10만명당 코로나 확진자수’로 정의하였다. 종속변수로서는 ‘자녀 양육비용’, ‘영유아 자녀 양육비용’, ‘소득 중 자녀양육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지역별 양육비용의 5분위 배율’ 등을 사용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횡단면 수준의 분석과 패널 미시변수 수준의 분석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횡단면 수준에서는 코로나의 확산이 자녀 양육비용을 증가시킨 것으로 보이지만, 패널 이중차분추정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의 확산으로 가구의 소득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자녀 양육비용 지출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떤 경우에는 감소된 소득보다 양육비용 지출이 더 크게 감소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자녀양육과 관련된 지출액 중 교육·보육비용과 같이 가구소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비목도 있으나(최효미 외, 2018: 130; 151) 전체적인 자녀양육비용은 필수재에 대한 소비처럼 어느 한도 이상 줄이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여 가구소득에 대한 탄력성이 크지 않은 편이다. 이에 양육비용은 소득의 변화만큼 변화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을 고려할 때, 소득 감소 이상의 양육비용 감소가 일어난 경우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보육서비스의 제공(공급) 양태의 변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근무형태 변화 등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영유아 자녀의 경우에는 그만큼 크지는 않았다.

2. 선행연구

본 연구와 가장 관련된 연구는 최효미 외(2020; 2021)의 연구이다. 최효미 외(2020a)는 코로나 발생 이후에 영유아 가구의 가계 경제와 양육비용,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코로나 19 전후로 가구의 소비지출이 변하지 않았다고 답한 가구가 62.9%이었고, 소비지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가구가 18.4% 정도였다(최효미 외, 2020: 127). 한편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자녀 돌봄은 전체적으로는 시간제 사교육 이용률이 감소하였으나 비방문 사교육(비방문 교구활동교육,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교육) 이용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최효미 외, 2020: 166~167).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휴원 또는 휴교하였을 때 자녀를 돌보았던 방식은 조부모 등 친인척의 개별돌봄을 이용한 경우가 47.1%로 가장 높았고, 어머니가 연월차 휴가를 사용했다는 응답도 38.6%에 이르고 있다고 보고하여(최효미 외, 2020: 194) 주로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가정 내 돌봄이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코로나19 확산 2년차인 2021년 4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보고서인 최효미 외(2021)의 연구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수행된 최효미 외(2020)의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심층분석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초기 양육비용 변화에 대한 정부의 공적지원금의 역할을 규명하였다. 자녀 돌봄과 관련된 공적지원금 현황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패널 DID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코로나 19 확산 초기 지원된 코로나 19 관련 지원금은 영유아 가구의 총 양육비용 경감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였다(최효미 외, 2021: 284).

이러한 연구들은 코로나19 전후 양육비용을 비교하여 양육비용의 변화를 살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코로나 19가 양육비용에 미친 영향을 직접 추정

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 즉, 코로나 확산이 양육비용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계량화 하고 있지 못하거나 통제변수로 포함되지 못함으로써 양육비용의 변화가 정책 때문인지 코로나 확산 때문인지를 구분하여 추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KICCE 소비실태조사의 1~4차년도 자료를 활용한 심층분석을 실시하면서 지역별 코로나의 확산이 지역별로 달랐다는 사실을 외생적 변인으로 사용하여 코로나 확산이 양육비용 변화에 어떤 인과적 영향을 주었는지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3. 식별전략 및 계량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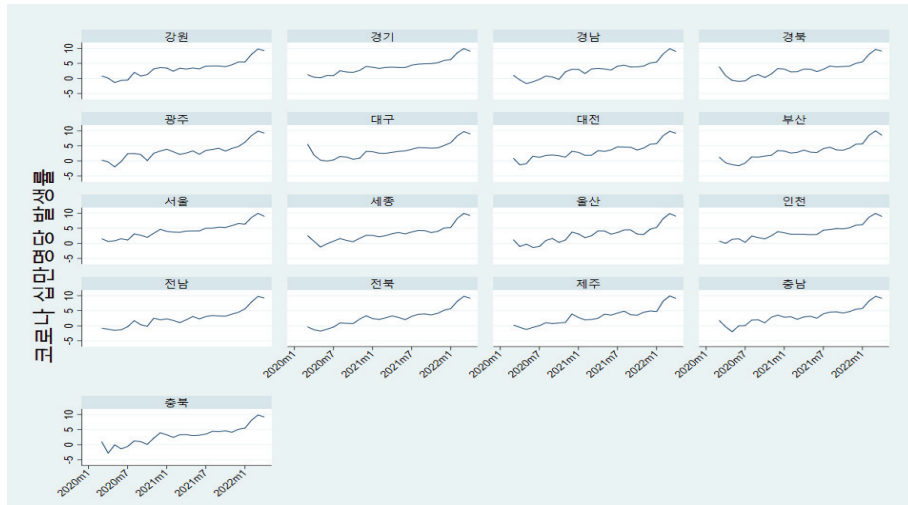
가. 코로나의 확산

우리나라에서 2020년 1월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022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코로나 확진률이 증가해왔다. 우리나라 코로나 발생 동향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의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시·도발생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VII-3-1]은 2020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의 우리나라 시도별 코로나 십만명당 확진률을 보여준다. 코로나 발생 초기인 2020년 2월에는 경북과 대구 지역에서 높은 확진률을 보였으며, 이후 모든 지역에서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경기, 대전, 서울, 인천, 제주 지역의 발생률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 높았다. 그러다 2022년 1월 전 지역에서 코로나가 크게 확산되었으며, 3월부터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표 VII-3-1〉에서 2020년, 2021년 구체적인 지역별 코로나 확진자 수, 사망자 수, 십만명당 발생률을 볼 수 있다. 대략적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인 경기, 부산, 서울, 인천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많았고, 십만명당 발생률도 높았다.

[그림 VII-3-1] 월별 코로나 십만명당 발생률(지역별)



자료: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시·도발생 현황(2020.02 ~ 2022.04), <http://openapi.data.go.kr/openapi/service/rest/Covid19/getCovid19SidolnfStateJson> (인출일: 2022. 5. 29.)에서 자료 인출함. 단, 현재는 주소 변경으로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에서 찾을 수 있음.

<표 VII-3-1> 연도별 코로나 확진자, 사망자, 십만명당 발생률(지역별)

단위: 명, %

구분	연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연 확진자 수	2020	18,988	1,867	7,801	2,838	1,081	845	673	149	14,448
	2021	206,298	23,210	15,326	33,886	6,945	11,409	6,200	1,994	171,933
연 사망자 수	2020	177	50	201	27	6	7	26	1	263
	2021	1,609	221	163	238	38	160	36	3	1,559
십만명당 발생률	2020	195.2	54.7	320.2	96.0	74.2	57.3	58.7	43.5	109.1
	2021	2134.9	684.3	635.8	1152.0	478.8	779.7	546.3	558.5	1266.2
구분	연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연 확진자 수	2020	1,207	1,163	1,653	836	560	2,424	1,325	416	
	2021	11,200	10,340	16,453	8,744	5,518	12,894	19,355	4,232	
연 사망자 수	2020	13	23	23	11	5	61	4	0	
	2021	89	86	121	94	32	100	87	13	
십만명당 발생률	2020	78.4	72.7	77.9	46.1	30.0	91.0	39.4	62.0	
	2021	725.7	645.3	775.1	483.9	298.0	489.0	579.6	625.0	

자료: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시·도발생 현황(2020.02 ~ 2022.04), <http://openapi.data.go.kr/openapi/service/rest/Covid19/getCovid19SidolnfStateJson> (인출일: 2022. 5. 29.)에서 자료 인출함. 단, 현재는 주소 변경으로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에서 찾을 수 있음.

나. 식별전략과 계량모형

통상적으로 반복 횡단면 자료(repeated cross-section data)가 있을 때에는 개별 가구의 이질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구축한 소비실태조사는 패널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가구의 고정효과를 명시적으로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가구 내 변동에 따른 양육비용의 변화를 추정할 수 있게 된다. 횡단면 자료에서는 유사한 가구와의 비교를 통해서 코로나 확산의 효과가 식별된다. 이 경우 관측된 변수를 이용한 가능한 많이 통제한다고 해도 미관측 이질성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편의를 피할 수는 없다. 반면, 패널 자료에서는 동일한 가구를 반복적으로 관측함으로써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동일 가구의 양육비 지출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추정할 수 있게 된다.

패널 자료를 이용해서 코로나 확산이 양육비용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이중차분모형(difference-in-differences)을 설정하였다.

$$(1) y_{ict} = \alpha_i + \gamma_t + Z_{ict}'\beta + \delta Covid_{ct} + \epsilon_{ict}$$

i : 가구

c : 지역(광역)

t : 시점(연도)

y : 양육비용에 대한 측도

$Covid$: 코로나 확산 강도(intensity)

α_i : 가구고정효과

γ_t : 시점 고정효과

ϵ : 미관측이질성

위 모형 중에서 처리변수(treatment variable)인 지역별 연도별 코비드 확산의 강도는 가구의 양육비용 지출과는 외생적인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개별 가구의 양육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구별 미관측 이질성이 코로나19의 확산에 집계변수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코

로나19 확산의 강도는 실제 추정에서는 연말에 측정한 10만 명당 코로나 확진자 수를 이용하였다.

이중차분추정을 위한 모형을 구성하기 위해서 가구별 고정효과 λ_i 외에 시점별 고정효과 λ_t 를 모형에 포함시켰다. 기본 모형 외에 가구별 특성을 통제하는 모형에서는 자녀수, 가구소득, 엄마의 취업 여부 등을 통제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모형(1)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두 수준에서 분석이 이루어졌다. 먼저 ① 집계변수를 이용하여 지역 수준에서의 패널분석 하였고, ② 개별 가구 수준의 패널분석을 하였다.

집계변수 수준의 분석에서는 앞의 식(1)의 모형이 다음과 같이 변형하였다.

$$(2) \bar{y}_{ct} = \alpha_c + \gamma_t + \bar{Z}_{ct}'\beta + \delta Covid_{ct} + \epsilon_{ict}$$

여기에서 $\bar{y}$ 는 지역과 연도별로 집계된 변수를 의미한다.

다. 변수의 정의

실증분석에서 사용된 변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로는 자녀 양육비용과 영유아 자녀 양육비용이 주로 사용되었다. 소득 대비 양육비 비중 역시 강건성 차원에서 종속변수로 활용되었다. 양육비용의 소득별 격차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지역별 5분위 배율을 사용하였다.

이번 연구의 처리변수로는 연말에 측정한 지역별 십만명당 코로나 확진자수를 사용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별 코로나 확진자수를 소비실태조사에 병합하여 활용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자녀수, 가구의 소득, 엄마의 취업 여부, 코로나19 지원금을 사용하였다.⁷⁴⁾

회귀분석에서는 양육비용, 가구소득, 코로나19지원금, 코로나 확산 강도 같은 경우에는 로그-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이들 변수들의 경우에는 명목변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⁷⁵⁾

74) 추가적인 통제변수들을 포함한 회귀분석 결과도 있으나,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큰 차이는 없었다.

75) 실질변수로 전환한 경우에도 명목변수를 사용한 경우와 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었다.

〈표 VII-3-2〉 변수의 정의

구분	변수명	정의
종속변수	자녀 양육비용	해당 연도 양육비용 합(만원)
	영유아 자녀 양육비용	해당 연도 영유아 자녀에 대한 양육비용의 월평균(만원)
	소득 대비 자녀 양육비용 비중	자녀 양육비용/가구소득
	소득 대비 영유아 자녀 양육비용 비중	영유아 자녀 양육비용/가구소득
	자녀 양육비용 5분위 배율	지역별 5분위 자녀 양육비용/1분위 자녀 양육비용
처리변수	코로나 확산 강도	연말 10만명당 코로나 확진자(명)
통제변수	자녀수	가구내 자녀수(명)
	가구소득	가구내 소득합(만원)
	엄마의 취업 여부	취업시 1, 나머지는 0
	코로나19지원금	지원금의 합(만원)

주요 변수에 대한 요약통계량은 〈표 VII-3-3〉에 제시하였다.

〈표 VII-3-3〉 연도별 요약통계량

단위: 만원, 명, %

연도	양육비용 (만원)	영유아 양육 비용(만원)	자녀수 (명)	가구소득 (만원)	취업비율 (%)	코로나 지원금 (만원)
2018	115.2	91.9	1,748	462.9	0.41	0
2019	126.5	92.6	1,811	498.7	0.39	0
2020	122.1	86.1	1,827	526.0	0.38	58.4
2021	134.2	94.2	1,846	525.1	0.38	14.6
총계	124.8	91.2	1,811	505.4	0.39	20.2

주: 1) 자료를 활용해 연구진이 작성.

2) 양육비용, 영유아 양육비용, 가구소득, 코로나19지원금은 명목비용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

4.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추정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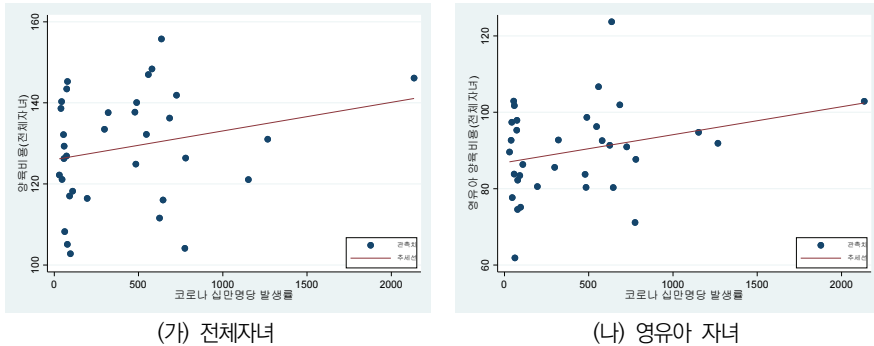
여기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지역별 집계변수를 이용하여 코로나 확산의 강도와 양육비용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2020년과 2021년의 코로나 발생 강도와 자녀양육 비용은 [그림 VII-4-1]에 제시된 지역별 코로나 발생 정도와 지역별 평균 양육비용과의 산포도를 통해 살펴보았다. 본 분석에서 활용한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에서 '양육비용'은 자녀 양육에 지출된 월별 평균 비용으로 측정되었는데, (가)는 영유아 가구 내 모든 자녀에 대해 지출된 '총 양육비용', (나)는 영유아 자녀에 대해서만 지출된 '영유아 양육비용'과 코로나 확산 정도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⁷⁶⁾. [그림 VII-4-1]은 대체로 코로나 확산 정

도가 높은 지역에서 ‘양육비용’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 관계는 지역별 횡단면 관계와 지역 내 종단 관계가 혼합되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코로나 확산 시기에 양육비용은 늘어날 수 있지만, 소득 중 양육비용의 움직임은 다를 수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소득 중 양육비용의 비중과 코로나 확산의 정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림 VII-4-2]에 따르면, 전체 자녀와 영유아 자녀 모두에 걸쳐 양육비용의 비중 역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코로나 기간 중에 소득은 양육비용만큼 증가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2020년에 비해 2021년의 소득이 감소했을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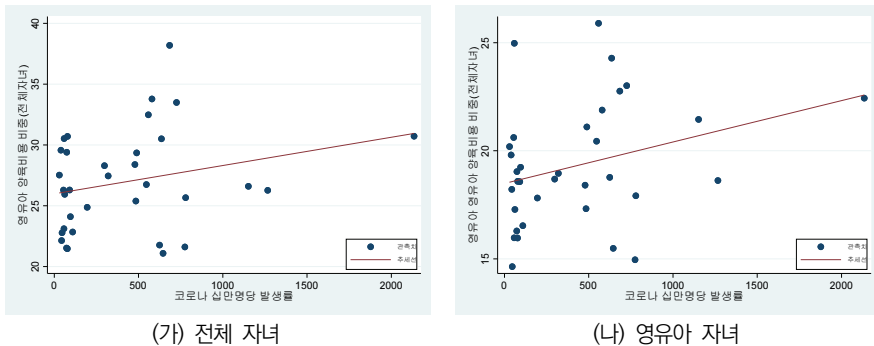
76) 본 보고서 I장. 4절. ‘주요 용어 정의’를 참조할 것.

[그림 VII-4-1] 코로나의 확산과 양육비용 지출(지역별)



주: 자료를 활용해 연구진이 작성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3~4차년도 원자료.
 2)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시·도발생 현황(2020.02 ~ 2022.04), <http://openapi.data.go.kr/openapi/service/rest/Covid19/getCovid19SidInfStateJson> (인출일: 2022. 5. 29.)에서 자료 인출함. 단, 현재는 주소 변경으로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에서 찾을 수 있음.

[그림 VII-4-2] 코로나의 확산과 양육비용 지출 비중(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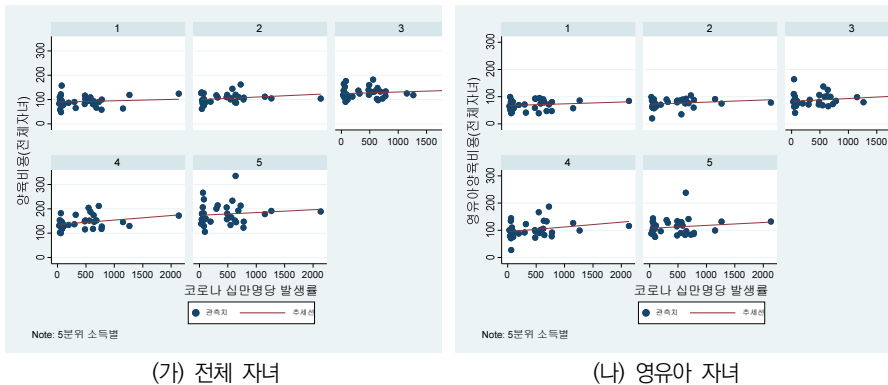
주: 자료를 활용해 연구진이 작성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3~4차년도 원자료.
 2)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시·도발생 현황(2020.02 ~ 2022.04), <http://openapi.data.go.kr/openapi/service/rest/Covid19/getCovid19SidInfStateJson> (인출일: 2022. 5. 29.)에서 자료 인출함. 단, 현재는 주소 변경으로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에서 찾을 수 있음.

이번에는 양육비용의 변화를 소득 분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소득분위별 코로나 확산과 양육비용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2, 3, 4분위는 양의 상관관계가 관측되는 반면에 1분위와 5분위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양육비용의 양극화가 진행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가구소득 1분위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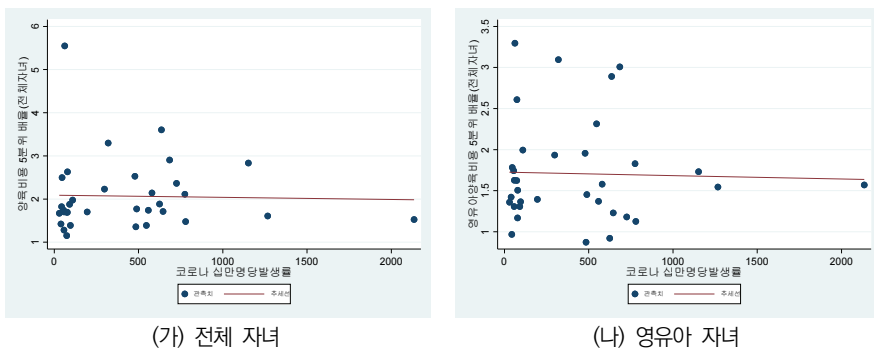
비 가구소득 5분위의 자녀 양육비용 지출의 변화, 즉 양육비용의 5분위 배율을 살펴보면, 5분위 배율은 코로나 확산이 높은 지역에서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즉, 코로나 확산세가 강했던 지역에서 양육비용의 불평등이 오히려 완화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림 VII-4-3] 소득분위별 코로나 확산과 양육비용과의 관계



주: 자료를 활용해 연구진이 작성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3~4차년도 원자료.
 2)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시·도발생 현황(2020.02 ~ 2022.04), <http://openapi.data.go.kr/openapi/service/rest/Covid19/getCovid19SidolnStateJson> (인출일: 2022. 5. 29.)에서 자료 인출함. 단, 현재는 주소 변경으로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에서 찾을 수 있음.

[그림 VII-4-4] 코로나 확산과 양육비용 5분위 배율의 차이



주: 자료를 활용해 연구진이 작성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3~4차년도 원자료.
 2)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시·도발생 현황(2020.02 ~ 2022.04), <http://openapi.data.go.kr/openapi/service/rest/Covid19/getCovid19SidolnStateJson> (인출일: 2022. 5. 29.)에서 자료 인출함. 단, 현재는 주소 변경으로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에서 찾을 수 있음.

이상의 예비적인 분석을 지역 수준에서의 회귀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 식(2)를 추정한 회귀분석 결과를 <표 VII-4-1>~<표 VII-4-4>에 제시하였다. 모형(1)은 OLS 추정결과를, 모형 (2)-(4)는 panel DID 모형 추정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모형(3), (4)는 모형(2)에 통제변수를 추가했을 때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표 VII-4-1>은 코로나 확산이 자녀 양육비용에 미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체로 코로나 확산이 더 된 지역의 자녀 양육비용은 감소하였지만, 규모가 소폭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VII-4-1> 코로나 확산이 자녀 양육비용에 미치는 효과

구분	OLS	Panel DID		
	(1)	(2)	(3)	(4)
		종속변수: 로그-자녀양육비용		
로그-코비드	-0.0152 (0.0327)	-0.0222 (0.0288)	-0.00462 (0.0324)	-0.00778 (0.0376)
자녀수			0.462 (0.273)	0.503 (0.295)
취업모 비중			0.00885 (0.196)	0.00605 (0.199)
로그-가구소득			0.354 (0.245)	0.342 (0.262)
로그-코로나지원금				0.00946 (0.0315)
상수	4.728*** (0.0498)	4.728*** (0.0316)	1.731 (1.235)	1.733 (1.239)
관측치	68	68	68	68
R-squared	0.133	0.300	0.392	0.393
연도고정효과	YES	YES	YES	YES
지역수		17	17	17

주: 자료를 활용해 연구진이 작성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

2)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시·도발생 현황(2020.02 ~ 2022.04), <http://openapi.data.go.kr/openapi/service/rest/Covid19/getCovid19SidolnStateJson> (인출일: 2022. 5. 29.)에서 자료 인출함. 단, 현재는 주소 변경으로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에서 찾을 수 있음.

*** $p < .001$

다음으로 <표 VII-4-2>는 코로나 확산이 '영유아' 자녀의 양육비용에 미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규모면에서는 <표 VII-4-1>의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모형(2)에서는 코로나 확산이 영유아 자녀 양육비용을 줄이고 있었지만, 통제변수를 추가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통계적 유의성은 사

라졌다. 즉, 코로나 확산이 영유아 자녀 양육비용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VII-4-2〉 코로나 확산이 영유아 자녀양육비용에 미치는 효과

구분	OLS	Panel DID		
	(1)	(2)	(3)	(4)
종속변수: 로그-영유아 자녀양육비				
로그-코비드	0.00414 (0.0299)	-0.0786*** (0.0268)	-0.0272 (0.0287)	-0.0345 (0.0345)
자녀수			-0.0778 (0.212)	0.0148 (0.309)
취업모 비중			-0.0909 (0.167)	-0.0974 (0.173)
로그-가구소득			0.794*** (0.264)	0.767** (0.273)
로그-코로나지원금				0.0218 (0.0321)
상수	4.447*** (0.0444)	4.447*** (0.0272)	-0.239 (1.388)	-0.234 (1.313)
관측치	68	68	68	68
R-squared	0.046	0.159	0.356	0.363
연도고정효과	YES	YES	YES	YES
지역수		17	17	17

주: 자료를 활용해 연구진이 작성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

2)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시·도발생 현황(2020.02 ~ 2022.04), <http://openapi.data.go.kr/openapi/service/rest/Covid19/getCovid19SidolnfStateJson> (인출일: 2022. 5. 29.)에서 자료 인출함. 단, 현재는 주소 변경으로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에서 찾을 수 있음.

** $p < .01$, *** $p < .001$

다음 〈표 VII-4-3〉과 〈표 VII-4-4〉는 코로나 확산이 영유아 가구의 소득 대비 양육비용의 비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또한 앞선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코로나 확산이 가구 소득 대비 자녀 양육비용의 비중과 영유아 자녀 양육비용의 비중에 미치는 효과는 모두 대체로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표 VII-4-3〉 코로나 확산이 가구소득 대비 자녀양육비용 비중에 미치는 효과

구분	OLS	Panel DID		
	(1)	(2)	(3)	(4)
		종속변수: 자녀양육비용 비중		
로그-코비드	-0.135 (0.788)	0.958 (0.855)	-0.0906 (0.968)	-0.0871 (1.244)
자녀수			39.56* (21.32)	39.52 (24.72)
취업모 비중			-10.06 (8.737)	-10.05 (8.975)
로그-가구소득			-4.686 (7.156)	-4.673 (7.988)
로그-코로나지원금				-0.0103 (1.437)
상수	28.70*** (2.135)	28.70*** (1.734)	-9.283 (60.92)	-9.285 (61.52)
관측치	68	68	68	68
R-squared	0.042	0.070	0.285	0.285
연도고정효과	YES	YES	YES	YES
지역수		17	17	17

주: 자료를 활용해 연구진이 작성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

2)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시·도발생 현황(2020.02 ~ 2022.04), <http://openapi.data.go.kr/openapi/service/rest/Covid19/getCovid19SidolnStateJson> (인출일: 2022. 5. 29.)에서 자료 인출함. 단, 현재는 주소 변경으로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에서 찾을 수 있음.

* $p < .05$, *** $p < .001$

〈표 VII-4-4〉 코로나 확산이 가구소득 대비 영유아 자녀양육비용 비중에 미치는 효과

구분	OLS	Panel DID		
	(1)	(2)	(3)	(4)
	종속변수: 영유아 자녀양육비 비중			
로그-코비드	0.0453 (0.603)	-0.408 (0.495)	-0.683 (0.683)	-0.976 (0.907)
자녀수			28.76 (18.22)	32.48 (22.19)
취업모 비중			-9.163 (6.291)	-9.423 (6.421)
로그-가구소득			4.605 (6.883)	3.502 (6.498)
로그-코로나지원금				0.875 (1.172)
상수	22.41*** (1.847)	22.41*** (1.471)	-53.50 (63.12)	-53.30 (56.60)
관측치	68	68	68	68
R-squared	0.091	0.134	0.294	0.301
연도고정효과	YES	YES	YES	YES
지역수		17	17	17

주: 자료를 활용해 연구진이 작성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

2)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시·도발생 현황(2020.02 ~ 2022.04), <http://openapi.data.go.kr/openapi/service/rest/Covid19/getCovid19SidolnStateJson> (인출일: 2022. 5. 29.)에서 자료 인출함. 단, 현재는 주소 변경으로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에서 찾을 수 있음.*** $p < .001$

5. 미시수준의 추정결과

앞에서의 분석결과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만들어진 집계변수를 이용한 회귀 분석 결과였다. 집계수준의 분석은 코로나 확산의 외생성이라는 가정의 성립 자체가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메커니즘 또한 규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집계변수를 이용한 분석 외에 추가적으로 미시수준에서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에 여기서는 가구 수준의 미시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코로나 확산이 자녀 양육비용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추정하기 위해 식(1)을 이용하였다. 〈표 VII-5-1〉~〈표 VII-5-4〉는 식(1) 중 양육비용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형(1)은 OLS, 모형(2)는 DID 추정치를, 모형(3)은 소득과 어머니의 취업 여부를 통제한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

〈표 VII-5-1〉은 코로나의 확산이 자녀 양육비용에 미친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추정결과는 집계변수와는 다르게 코로나 확산이 자녀 양육비용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낮추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 확산이 10% 커지게 되면, 자녀 양육비는 0.4% 낮추고 있었다. 다만, 이 크기는 경제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큰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표 VII-5-1〉 코로나 확산이 자녀 양육비용에 미친 효과 추정결과

구분	OLS		Panel DID	
	(1)	(2)	(3)	(4)
	종속변수: 로그-자녀양육비			
로그-코로나	-0.0424*** (0.0161)	-0.0474*** (0.0162)	-0.0450*** (0.0154)	-0.0471*** (0.0156)
자녀수			0.401*** (0.0322)	0.412*** (0.0320)
로그-가구소득			0.186*** (0.0228)	0.163*** (0.0237)
취업(모)				0.0730*** (0.0184)
로그-코로나지원금				0.00985 (0.00707)
상수	4.585*** (0.0145)	4.512*** (0.0103)	2.703*** (0.149)	2.798*** (0.151)
관측치	7,637	7,637	7,637	7,637
R-squared	0.010	0.103	0.169	0.173
연도고정효과	YES	YES	YES	YES
가구수		3,299	3,299	3,299

주: 자료를 활용해 연구진이 작성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

2)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시·도발생 현황(2020.02 ~ 2022.04), <http://openapi.data.go.kr/openapi/service/rest/Covid19/getCovid19SidolInfStateJson> (인출일: 2022. 5. 29.)에서 자료 인출함. 단, 현재는 주소변경으로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에서 찾을 수 있음.

*** $p < .001$

〈표 VII-5-2〉은 코로나 확산이 '영유아' 자녀 양육비용에 미친 효과를 추정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본 결과를 통해 질적으로는 전체 자녀 양육비용에 미친 효과와 큰 차이는 없지만 규모 면에서는 좀 더 영향이 컸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작은 차이지만 코로나 확산이 전체 자녀 양육비용 보다는 영유아 자녀 양육비용에 좀 더 큰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표 VII-5-2〉 코로나 확산이 영유아 자녀 양육비용에 미친 효과 추정결과

구분	OLS	Panel DID		
	(1)	(2)	(3)	(4)
종속변수: 로그-영유아자녀양육비				
로그-코로나	-0.0360*	-0.0494**	-0.0482**	-0.0468*
	(0.0192)	(0.0252)	(0.0242)	(0.0243)
자녀수			0.382***	0.403***
			(0.0445)	(0.0450)
로그-가구소득			0.198***	0.171***
			(0.0288)	(0.0297)
취업(모)				0.104***
				(0.0255)
로그-코로나지원금				-0.00219
				(0.0106)
상수	4.344***	4.371***	2.529***	2.619***
	(0.0150)	(0.0147)	(0.189)	(0.191)
관측치	6,698	6,698	6,698	6,698
R-squared	0.003	0.010	0.057	0.061
연도고정효과	YES	YES	YES	YES
가구수		3,129	3,129	3,129

주: 자료를 활용해 연구진이 작성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

2)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시·도발생 현황(2020.02 ~ 2022.04), <http://openapi.data.go.kr/openapi/service/rest/Covid19/getCovid19SidolInfStateJson> (인출일: 2022. 5. 29.)에서 자료 인출함. 단, 현재는 주소 변경으로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에서 찾을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한편, 코로나 확산이 가구소득 중 양육비용의 비중에 미친 효과는 〈표 VII-5-3〉과 〈표 VII-5-4〉에 제시된 추정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표 VII-5-3〉에 제시된 코로나 확산이 가구소득 중 전체 자녀 양육비용 비중에 미친 효과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가구의 특성을 통제했을 경우 자녀 양육비용이 가구소득 중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감소하였다. 소득이 감소했을 경우 그보다 더 큰 폭으로 자녀 양육비용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는 자녀에 대한 지출이 비탄력적인 것을 고려해보았을 때 특이한 현상으로,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가격 변수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양태에 있어 유의한 변화가 있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가령, 양육을 담당하는 근무형태가 재택으로 전환되었다거나 보육시설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가정내 보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표 VII-5-3〉 코로나 확산이 자녀양육비용 비중에 미친 효과 추정결과

구분	OLS	Panel DID		
	(1)	(2)	(3)	(4)
종속변수: 소득 중 양육비용의 비중(%)				
로그-코로나	-0.667 (0.676)	-0.897 (1.042)	-2.026** (1.027)	-2.264** (1.116)
자녀수			6.667** (2.602)	7.795*** (2.527)
로그-가구소득			-55.26*** (13.99)	-57.63*** (14.76)
취업(모)				7.190*** (2.778)
로그-코로나지원금				1.118* (0.576)
상수	27.33*** (0.637)	25.99*** (0.802)	347.6*** (85.68)	357.4*** (88.62)
관측치	7,637	7,637	7,637	7,637
R-squared	0.003	0.006	0.258	0.264
연도고정효과	YES	YES	YES	YES
가구수		3,299	3,299	3,299

주: 자료를 활용해 연구진이 작성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

2)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시·도발생 현황(2020.02 ~ 2022.04), <http://openapi.data.go.kr/openapi/service/rest/Covid19/getCovid19SidolnStateJson> (인출일: 2022. 5. 29.)에서 자료 인출함. 단, 현재는 주소 변경으로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에서 찾을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표 VII-5-4〉의 영유아 자녀로 한정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즉, 자녀 관련 양육비용의 감소는 대체로 소득이 감소한 만큼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표 VII-5-4〉 코로나 확산이 영유아 양육비용 비중에 미친 효과 추정결과

구분	OLS		Panel DID	
	(1)	(2)	(3)	(4)
종속변수: 소득 중 영유아 양육비용의 비중(%)				
로그-코로나	-0.0122 (0.612)	0.145 (1.014)	-0.402 (0.807)	-0.441 (0.829)
자녀수			5.992** (2.927)	6.955** (2.816)
로그-가구소득			-37.87*** (7.686)	-39.28*** (7.924)
취업(모)				4.957*** (1.273)
로그-코로나지원금				0.276 (0.318)
상수	22.07*** (0.613)	23.36*** (0.778)	240.9*** (50.19)	246.1*** (50.93)
관측치	6,698	6,698	6,698	6,698
R-squared	0.006	0.014	0.280	0.286
연도고정효과	YES	YES	YES	YES
가구수		3,129	3,129	3,129

주: 자료를 활용해 연구진이 작성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

2)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시·도발생 현황(2020.02 ~ 2022.04), <http://openapi.data.go.kr/openapi/service/rest/Covid19/getCovid19SidolnStateJson> (인출일: 2022. 5. 29.)에서 자료 인출함. 단, 현재는 주소 변경으로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에서 찾을 수 있음.** $p < .01$, *** $p < .001$

6. 소결 및 시사점

미시 수준의 KICCE 소비실태조사 패널 자료와 코로나의 지역별 확산자료를 이용한 패널 이중차분추정 모형의 추정결과를 살펴본 결과,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서 자녀 양육비용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영유아 자녀에 한정한 양육비용은 전체 자녀에 대한 양육비용만큼 감소한 것은 아니었다.

일차적으로 코로나 19 발생 이후 자녀의 양육비용이 감소한 주된 이유는 가구의 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되었다. 이는 소득에서 양육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변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구의 특성을 통제했을 경우 자녀 양육비용이 가구소득 중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감소하여, 소득 감소 폭 이상의 큰 폭으로 자녀 양육비용이 감소했음을 시사하였다. 이는 코로나 시기 양육 물품 등의 가격이 하락 하는 등의 변화

때문이기 보다는 기존에 이용하던 육아서비스 등의 이용 제약으로 인해 자녀 양육 양태에 있어 유의한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케 하는 결과이다. 즉, 영유아가 이용하는 기관의 휴원 등으로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에 제약이 발생했고, 이외에도 키즈카페, 문화센터 등 영유아가 많이 이용하는 기타서비스 등의 이용이 제한되고, 가정 내에서 외부 인력의 도움을 받는 서비스 이용이 극히 제약되어 부모의 재택근무, 휴직 등으로 가정 내 보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외부 서비스 이용에 따르는 명시적 양육비용은 감소했을 수 있어도, 그림자 가격(shadow price)이 증가해 암묵적 비용이 증가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즉, 자녀 돌봄에 대한 수요가 변화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 긴급 돌봄의 상황에서 서비스 가격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양육비용이 감소하였다는 것은 필요로 하는 서비스나 재화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외부 서비스나 재화의 이용이 제약될 때 이를 부모가 근로를 단축하며 직접 돌보거나 저비용의 가족 돌봄서비스로 대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특히 조부모나 부모의 돌봄으로 외부 서비스 이용을 대체하게 될 경우 여성이 그 돌봄 역할을 떠맡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여성의 외부 일자리를 통한 소득획득의 기회를 제한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여성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⁷⁷⁾는 점에서 긴급 돌봄을 지속적으로 가족 내에서 해결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즉,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전면적으로 공적 돌봄서비스를 중단하고 가정 내 돌봄으로 대체하기 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공적 돌봄서비스와 긴급 돌봄 지원 유형을 마련하여 상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77) 아동 돌봄을 가족 중 여성이 제공한 경우 어려운 점으로 2019년에는 '시간부족' 다음으로 '사회적인 어려움'이 높게 조사된 반면, 코로나 시기인 2021년에는 '시간부족' 다음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큰 어려움으로 조사되어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위기와 스트레스가 여성의 일자리와 소득 등 경제적인 요인과 연결됨을 시사함(서울시 여성가족정책 리뷰, 2022.12).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 코로나19 시기 가족돌봄 실태와 과제, [https://www.seoulwomen.or.kr/sfwf/contents/sfwf-newsLetter.do?&schM=view&page=2&viewCount=4&id=26485&schBdcode=&schGroupCode=\(인출일. 2022. 12. 10\)](https://www.seoulwomen.or.kr/sfwf/contents/sfwf-newsLetter.do?&schM=view&page=2&viewCount=4&id=26485&schBdcode=&schGroupCode=(인출일. 2022. 12. 10))

PartⅢ

결론 및 정책 제언

VIII

결론 및 정책 제언

- 01 정책 방향
- 02 육아지원의 생애주기적 접근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 03 양육형태별 균형적 육아지원의 발전 모색
- 04 가구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육아지원 설계

VIII. 결론 및 정책 제언

VIII장에서는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1~5차년도 간의 경향 분석, 1~4차년도 조사데이터를 활용한 심층분석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종합하여,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과 육아지원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표 하에 주요 결과를 종합한 결과, 본 연구를 통한 정책 제언의 방향성은 1) 육아지원의 생애주기적 접근 강화, 2) 양육형태별 육아지원의 균형적 발전 모색, 3) 가구특성별 맞춤형 육아지원 강화로 수렴되었다. 이에 1절에서는 각각의 방향성을 간단히 설명하고 2절에서 각 방향성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1. 정책 방향

가. 육아지원의 생애주기적 접근 강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육아지원의 생애주기적 접근 강화’는 쉽게 말하면 영아기, 유아기 등 영유아의 연령에 따른 생애주기(또한 이와 연관된 부모의 생애주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 육아지원에의 욕구에 맞게 정책을 개발, 지원하고자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 영유아 부모들은 ‘임신·출산 시기에 대한 지원’과 ‘영아기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에 비해 ‘유아기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에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22년부터 ‘영아수당’이 도입돼 기존의 ‘가정양육수당’에 비해 현금지원의 금액 수준이 상향되었고 ‘부모급여’ 도입으로 영아기를 겨냥한 지원이 지속적인 상향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2.8.19.),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을 산출한 결과 오히려 1~5세까지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양육비용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즉,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양육비용 부담이 커지는 양상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용 경감에 대한 지원은 주로 영아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영아 자녀부터 양육비용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에도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우선적으로 자녀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한편, 0세아의 경우는 같은 영아기인 1, 2세에 비해서도 양육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시기에 신생아 출산 시의 특별히 요구되는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0세아 양육기는 부모의 생애주기 면에서는 자녀의 임신출산을 전후한 시기로 영유아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근로소득활동에 가장 불리한 시기에 해당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안정적인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보장 및 양육비용 지원 방안의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나. 양육형태별 육아지원의 균형적 발전 모색

자녀를 주로 양육하는 ‘형태’를 크게 ‘부모직접돌봄’, ‘가정 내 (대리) 양육’, ‘기관 보육·교육서비스를 이용한 (대리)양육’으로 구분한다면, 지금까지의 육아지원은 주로 ‘기관 보육·교육서비스를 이용한 (대리)양육’ 선택 가구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었던 것이 사실이다. ‘기관 보육·교육서비스’ 이용에 대해 ‘무상보육·교육’ 제공으로 ‘기관 보육·교육서비스’의 인프라와 관련 정책이 크게 발전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외 ‘부모직접돌봄’ 이나 ‘가정 내 (대리) 양육’을 선택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관련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연령별로 원하는 형태의 양육을 하는데 있어 적합한 부분에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양육형태별 육아지원 간 균형적인 발전 모색’을 방향성으로 제시한다.

다. 가구특성별 맞춤형 육아지원 강화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영유아 가구가 지출하는 양육비용의 수준, 가정내 양육의 부담 수준 등에 있어 부모의 취업 특성, 자녀 특성, 거주지역, 소득수준 등에 따라 영유아 가구들이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보편적인 육아지원을 통해서만 영유아 가구가 가지는 보편적인 어려움에 대응하고 전반적인 부담을 낮출 수는 있으나, 이러한 보편적 지원은 특별한 양육의 어려움을 지닌 육아

취약 가구의 어려움에 대응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양육비용의 부담이나 육아의 어려움에서 더욱 취약한 가구에 대한 ‘가구 특성별 맞춤형 육아지원의 강화’를 또 하나의 정책 개선의 방향성으로 제안한다.

2. 육아지원의 생애주기적 접근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가. 유아기 지원 강화

1) 유아기 양육비용 경감 정책의 방향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조사 결과, 영유아 연령별 1인당 양육비용은 1세가 55만2천원, 2세 55만5천원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여 5세는 75만1천원, 6세는 73만6천원으로 1세 대비 5세가 19만원 이상(약 3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세 62만8천원, 4세 67만7천원 등 유아기에 전반적으로 영아기보다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2022년 기존의 가정양육수당보다 0~1세에 대해 상당한 금액이 상승한 영아수당, 2023년부터 0~1세에 대한 50~70만원의 ‘부모급여’가 도입될 예정인데, 0~1세를 넘어 자녀 연령이 2세 이상이 되면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부담과 충격은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가구소득의 구조에서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 ‘공적지원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가구에서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유아기의 실제 양육비용의 절대액 수준이 영아의 양육비용 보다 높다는 점과 향후 영아가 유아로 성장하면서 느껴지게 될 비용부담의 충격을 고려해 유아기에 대한 양육비용 경감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다만, 영유아 가구들은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자녀를 위한 보육/교육비에 지출하겠다는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금’형태의 지원이 추가됨으로써 영유아 대상 사교육 이용이 팽창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 또한 한정된 재원의 투입에 대한 우선순위로 유아기의 발달 단계에서 도움이 되는 적합한 서비스 이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안들을 고려하면, 영아기 현금 지원 확대 경향에 맞추어 유아기 지원을 현금성 지원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유아기 발달 단계에 적합한 서비스 이용 부담 경감과 서비스 인프

라를 탄탄히 구축하여 접근성과 서비스 질의 형평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2) 유아기 이용 서비스의 이용 부담 경감

가) 기관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비용 지원 확대

본 연구를 위한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결과를 살펴보면, 1세 이상부터 기관 보육교육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기 시작해 2세 부터는 70% 이상의 아동이 반일제이상 기관을 이용하며 3세 부터는 95.7%가 어떤 형태든 반일제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유아의 경우는 ‘기관 보육교육서비스’의 이용이 일반적이므로, 유아가 이용하는 ‘기관 보육교육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면 영아기에 대한 현금 지원 확대에 대비한 균형적인 육아지원의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정규 보육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보육료·유아학비 지출액은 어린이집 평균 2만4천원, 유치원 평균 4만5천원이며 특별활동, 특성화프로그램 이용 및 차량·급간식비·입학준비금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추가되고 있었는 바, 먼저 차량·급간식·입학준비금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출산율의 감소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아동도 지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무상보육교육서비스 재정의 가용성은 반대로 높아지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기존에 보육교육서비스 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부담으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활동(예: 체험활동, 특별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추가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나) 유아기 체험활동 등 여가문화생활비 지원 확대

소비실태조사의 양육비용 지출에서 4차년도 대비 5차년도에 크게 증가한 비목은 ‘여가및문화생활비’ 비목이었다. 또한 1~5차년도에 걸쳐 양육비용 중 교육/보육비, 식비 다음으로는 ‘여가및문화생활비’ 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는 코로나19로 그간 위축되었던 가족여행, 체험활동 등 바깥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영유아의 풍부한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영유아의

체험활동비 경감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현재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의 만6세이상 아동에게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사업(복지로, 문화누리카드.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elfareInfo/moveTWAT52011M.do?welfareInfoId=WLF00000055&welfareInfoReldBztpCd=01>. 2022.10.21. 인출)의 지원 연령 및 대상을 확대하여 영유아 가구의 주요 양육비 지출 비목인 ‘여가및문화생활비’ 부담 경감을 통해 영유아의 풍부한 문화생활 경험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영아기에 대한 주된 지원이 만24개월 미만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고려하면, 문화누리카드사업의 대상 연령은 만24개월 이상 아동부터 대상이 되도록 확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령기 이전 유아 가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 가구 소득 기준을 없애 보편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 완구 및 도서 대여 서비스 접근성 제고

자녀의 성장에 따라 연령과 발달 수준에 맞는 새로운 완구와 도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영유아 가정에서 완구 및 도서 관련 비용은 꾸준히 발생 하는 지출 영역이다. 특히 책임기 활동이 본격화되는 유아를 위해 다양한 도서의 구비가 가정에서도 필요하게 되는 바, 도서 및 완구 대여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시켜 영유아 가구의 완구 및 도서 구입 비용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 도서관 등에 영유아 관련 완구와 도서 구비를 위한 예산을 전체 도서구비 예산 중 일정 수준 이상을 확보하고, 접근이 어려운 가정을 위한 온라인 대여 신청과 배달 서비스를 확대하여 이용 접근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3) 보육·교육서비스 인프라의 질 제고

유아가 있는 개별 가정의 양육비용 경감 방안으로서의 지원 이외에, 대부분의 유아가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보육·교육기관 인프라의 접근성을 높이고, 누리과정 비용 지원의 상향을 통해 질 높은 보육·교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진다.

어린이집, 유치원 3~5세반에 대한 누리과정 비용은 ‘22년 3월부터 28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누리과정 비용은 2020년 3월 그간 동결되었던 22만원에서 24만원

으로 상향된 후 매년 상승하고 있어 최근의 상향 속도가 높은 측면이 있으나, 최근의 빠른 물가 상승을 고려하며 현재보다 높은 선진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단가의 산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보육·교육서비스 기관별로 나타나는 서비스 질의 격차를 해소하여 이용자 입장에서 어떠한 보육·교육서비스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양질의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나. 부모의 경제활동 취약시기에 대한 소득보장·양육비용 지원 강화

본 조사의 결과 영유아 가구의 소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근로 및 사업소득’으로 부모가 직접 ‘일’을 하여 얻는 소득의 차이가 영유아 가구의 전체 소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및 사업소득 획득에 유리한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보다 가구소득이 35% 정도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면, 영유아 가구의 부모가 맞벌이를 하기 어려운 시기, 즉 부모 중 한명 이상의 근로활동 및 사업이 자녀 양육으로 인해 가장 제약되는 시기에 대한 소득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연령별로는 유아 보다는 영아인 자녀가 있을 때 부모가 근로 및 사업을 통한 소득 획득에 취약한 시기로 보여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자녀가 1명인 경우의 자녀연령별 가구소득을 비교했을 때 영아가구의 가구소득(440만3천원)은 유아가구의 가구소득(491만2천원) 대비 약 10.4%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영아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가구소득 보완 혹은 양육비용 지원 성격의 지원이 추가되는 것은 적절하다 생각된다. 즉, 2023년부터 도입 예정인 ‘부모급여’의 경우 0, 1세아 가구에 지급 예정이므로(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2. 8. 19.) 가구소득이 특히 부족한 시기에 대한 추가 지원이라는 점에서 영아 가구가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재 도입 예정인 ‘부모급여’는 본 연구에서 나타나는 자녀 연령에 따른 가구소득액의 차이나 자녀연령별 양육비용의 차이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현금이 실제 가구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되기 때문에 부모급여 지급을 통해 자녀양육 가구의 만족도와 양육의 질이 향상되는지에 대한 점검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모급여’는 아동수당법에 근거하여 ‘22년 신규 도입된 ‘영아수당’을 대체하는 형

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고 있는 ‘가정양육수당’과는 근거법이 다르지만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0~1세에 대해서는 ‘가정양육수당’이 ‘영아수당’으로 대체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부모급여’는 기존의 보육시설 미이용에 대한 가정양육지원 목적의 수당일 뿐 아니라 아동수당의 성격을 모두 지니는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게 될 수 있다.

그런데, ‘24년 기준 0세아에 대한 부모급여 지급(예정)액’은 특히 기존의 0세아 대상 ‘가정양육수당’ 대신 지원받을 수 있는 보육료 지원의 단가나 아동수당 금액 10만원을 합한 금액을 상회하는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0세아에 대해 파격적인 수준의 지원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는 0세아에 대한 양육비 부담의 경감 뿐 아니라 부모의 근로를 통한 소득 획득이 크게 취약한 시기인 0세아 양육 가구의 부족한 소득 보완의 목적이 추가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00만원을 모든 0세아 가구에 일괄 지급하는 보편적인 지원 형태 보다는 0세아 가구의 ‘가구소득’을 어느 정도 반영한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구소득 차이를 반영한다면 0세의 보육료 지원 단가와 모든 아동에게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액의 합계액만큼은 모든 0세아 가구에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즉, 부모급여가 특히 0세아에 대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현금 지급을 계획하는 만큼 ‘근로 및 사업 소득’의 취약 시기인 영아기 부모, 특히 0세아 양육 부모(가구)의 소득 보완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안정적인 양육을 지원한다는 측면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실제적으로 가구별 소득의 차이를 반영한 차등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 0세아 가구 대상의 부모급여에 대해 가구소득에 따른 ‘0세 부모급여’ 차등 지급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표 Ⅷ-2-1〉 0세 부모급여 차등 지급안(가구소득별)

차등 기준	차등지급안('24년 기준)	비고
가구소득	① 중위소득 150% 초과: 699,250원 [기본지급액(599,000원) + 차등지급기준액 ×25% (100,250원)] ② 중위소득 120~150% 이하: 799,500원 [기 본지급액+차등지급기준액×50% (200,500)] ③ 중위소득 75~120% 이하: 899,750원[기본 지급액+차등지급기준액×75% (300,750원)] ④ 중위소득 75%이하: 1,000,000[기본지급액 +차등지급기준액×100%(401,000원)]	-기본 지급액: '해당년도 0~1세 보육료 지원 단가 및 아동수당 지급액 기준 산정 • 0세 보육료 지원단가('22년 499,000원) • 아동수당 지급액('22년 100,000원) ※ '22년 기준 기본지급액 주): 499,000 + 100,000=599,000 -차등지급액: 연령별 차등지급기준액(최고 지급액-기본지급액)에 대해 가구소득 4개 범주별 25%, 50%, 75%, 100% 지급

주: 기본지급액은 '0세 보육료 지원단가 + 아동수당 지급액'을 의미함. 기본지급액 산정은 해당년도 보육료지원 단가 및 아동수당지급액에 따라 매년 연동하여 변동할 수 있음.

3. 양육형태별 균형적 육아지원의 발전 모색

가. 기관 보육·교육서비스

1) 공공 인프라의 확대 지속

5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관 보육·교육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영유아 부모들은 요구되는 개선 방향으로 무엇보다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51.4%). 이는 KICCE 소비실태조사 1~5차년도 조사에 걸쳐 지속되는 경향이였다. 현재 학계에서는 유아교육·보육통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 완화 등 서비스 질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이 연구되고 있는 시점이나, 부모들은 이보다 '국공립 기관'의 확충을 요구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부모들은 우선적으로 '믿을 수 있는 보육·교육기관'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공립' 즉 국가가 개입하여 관리하는 서비스에 대해 절대적인 선호와 믿음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국공립 보육·교육서비스의 확대'는 인프라 확대의 요구라기보다는 결국 '서비스 질'에 대한 요구라 볼 수 있으므로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의 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실제로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의 관리와 개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초저출산의 지속으로 기존의 어린이집, 유치원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며 운영난

으로 폐업하는 경우도 속속 발생하고 있어 국공립 보육·교육서비스 기관의 확충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0분~20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거리에 있는 기관 이용이 어려운 영유아라는 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이정원·최효마·김진마·정주영, 2014: 167),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기관은 무엇보다 지리적 근접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예상하는 바와 같이 영유아 인구 감소가 빠른 시간 내에 멈추거나 증가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적은 수요자나마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인프라가 어느 정도 이상의 수요를 담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민간(사립)의 보육·교육서비스 기관에만 의존할 경우 수요자층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육·교육서비스 기관 인프라의 붕괴는 더욱 가속화 될 위험이 있다고 보여지며, 이는 반대로 저출산을 지속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공급 및 이용 수준은 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국공립 보육·교육 기관 접근성의 지역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국공립 보육·교육 기관의 공급 수준을 지역별로 총합하여 집계하여 파악함으로써 집계 수준에서 영유아 인구 대비 적절한 총 공급량, 국공립 기관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보육·교육서비스 기관 이용비용의 추가 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이 ‘무상보육·교육’으로 제공된다고 하나, 실제 부모들은 각종 부대비용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다. 앞서 유아기 지원의 한 방안으로 제안한 바 있으나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대비용에 대해 일정 부분 추가적인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가구소득별 양육비용 부담의 경중을 고려해 양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큰 저소득계층에 우선적으로 지원대상으로 하거나, 소득계층 무관하게 지원할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형식으로 도입함이 적절하다 생각된다.

나. 가정 내 대리 양육

1) 공공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접근성 제고: 비용 지원 대상 확대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보지 않고 개별돌봄서비스 인력을 활용한 가정 내 양육을 할 경우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양육형태에 대한 지원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지원사업’이 현재 중앙부처 수준에서 제공하는 유일한 공공 영역의 개별돌봄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5차년도 소비실태조사 결과 개별돌봄서비스 정책 분야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영유아의 부모들은 이 분야의 개선을 위해 ‘공공 개별돌봄서비스 비용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34.2%), 다음으로 ‘공공 개별 돌봄인력 양성 확대’가 22.5%, ‘공공 개별돌봄서비스 비용지원 수준 제고’ 13.3% 순으로 나타났다.

개별돌봄서비스는 가정에서 1:1로 제공되는 서비스인 만큼 여러 명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기관 보육교육서비스에 비해 비용 수준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민간 육아도우미 서비스의 경우 공공 개별돌봄서비스(아이돌봄서비스)에 비해 비용 부담이 매우 높다. 즉, 자녀의 연령이나 자녀의 특성 등으로 기관 보육교육서비스 이용이 어렵거나 부모의 직접돌봄도 어려운 경우, 가정 내 개별돌봄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에 현재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지원사업의 비용지원대상의 확대로 이용 가구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아이돌보미의 양성을 확대해 더 많은 수요자가 실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가장 시급한 상황이다.

보육교육서비스에 대해서는 소득계층에 상관없는 보편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아이돌봄서비스는 현재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을 제한하고, 지원대상자 중에서도 소득수준에 따른 비용 지원의 차등을 두고 있다. 개별돌봄서비스는 개별 가정에서 이용하기에 서비스 이용비용의 부담이 높은 만큼, 소득수준에 따른 비용 지원의 차등은 유지하더라도 비용 지원 대상은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시 입소우선순위에서 저소득계층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처럼, 동일한 수요가 있을 경우 저소득 가구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의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정도로 한다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 지원 대상을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 부모 직접 돌봄

1) 시간 지원 제도의 실효성 제고

영유아 부모들의 시간 지원 제도 활용 현황을 살펴 본 결과, 상시적인 직접 돌봄 시간 확보를 위한 제도의 활용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의 활용률은 비록 높지 않지만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취업활동을 유지하며 자녀 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의 활용률은 매우 저조하였다. 이는 사례 면담 결과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이용 시 감축되는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정도가 아닌 그 이상의 소득 감소와 관련 복지혜택의 감소 등 불이익이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소득대체율이 낮기는 하지만 차라리 집중적인 육아 기간을 가질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직업의 특성상 장기간의 휴직이 어렵거나 경력 중단으로 인한 불이익이 클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적절한 조건을 통해 일정 시간의 근로시간이 감축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훨씬 바람직할 수 있음에도 제도 설계에서의 미비로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에서는 감축되는 근로시간에 연동하여 적절한 급여와 복지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또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이용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본 조사 결과 4차년도 대비 5차년도의 각 유형별 유연근무제도의 이용률이 감소하였다. 2020년 코로나19를 계기로 유명무실했던 ‘유연근무제’가 활성화되었었는데 2022년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약화되면서 이용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조사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육아지원 정책 중 ‘시간지원정책’에 대한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영유아 가구들은 개선 방향으로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25.5%) 유사한 수치로 ‘제도 이용의 일부 자동화, 강제화’를 요구하였다(21.0%). 유연근무제도와 같은 시간지원제도는 단지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돌봄 상황에서만 필요한 제도가 아니라 육아 가구 또는 자녀가 없는 근로자라도 일상적인 일-가정 양립을 위해 활성화가 필요한 지원이다. 항상 시간이 부족한 취업 부모에게 가장 유용할 수 있으나 더불어 모든 가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 대한 인식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된다. 즉, ‘유연근무제’를 포함한 ‘시간 지원 제도’에 대한 직장 내 인식의 개선을 위해, 그리

고 근로자가 ‘반드시 휴가나 휴직을 하지 않더라도 적절히 근로와 돌봄을 조절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할 수 있도록’ 적합 업종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유연근무제의 활용을 강력히 권고할 필요가 있다.

2) 지역사회 육아지원 인프라 접근성 제고

영유아 부모들은 자녀를 직접 돌보기를 원하기도 하나, 실제 자녀를 직접 돌보는 데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에서 직접 돌보는 시간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44.3%에 달하였고, TV 등 전자기기를 양육부담을 덜기 위한 용도로 허용하는 경우도 많이 발견되었다. 직접 돌봄 시의 부담은 ‘가사와 육아를 함께 해야 하는 어려움’, ‘양육과정에서의 스트레스’, ‘체력적인 부담’이 주요한 이유였다. 핵가족 중심의 육아로 인해 부부 혹은 주양육자 1인에게 양육부담이 가중되는 ‘독박육아’의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 현실에서 ‘부모직접돌봄’이 항상 즐거울 수는 없다. 부모의 직접 돌봄이 부모와 자녀에게 행복한 양육이 되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양육분담과 함께 외부의 인프라 활용이 필수적이다.

부모직접돌봄 시에는 시간제로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돌봄서비스와 부모와 영유아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각종 육아 물품의 대여서비스 등의 지역사회 육아지원이 가까운 거리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비되어야 한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부모와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부모교육 등 부모 지원 서비스, 장난감·도서 대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별 분소 추가 설립, 장난감, 대여, 양육상담 등의 ‘찾아가는 서비스’,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 육아지원서비스 홍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온라인 서비스 확대 등으로 물리적 접근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핵가족화되어 고립된 육아, 독박 육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주변의 또래 아동의 부모들과 육아 정보를 나누고 양육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조 모임’의 활성화도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의 ‘공동육아나눔터’의 지속 확대로 접근성과 인지도를 높이고 해당 활동을 위한 비용 지원 및 장소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 긴급 돌봄 지원 체계 활성화

영유아 가구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돌봄 공백’의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다. 5차년도 소비실태조사에서는 지난 1년간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돌봄 공백 상황’을 경험한 경우가 18.7%에 해당하였으며, 특히 맞벌이 가구, 다자녀 가구에서 돌봄 공백을 경험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상시적인 돌봄 욕구가 아닌 ‘긴급한 상황’에서의 돌봄 공백에 대해서 영유아 가구들은 ‘부모직접돌봄’을 가장 희망하며, 부모직접돌봄의 방식으로서는 육아휴직 같은 중장기간의 휴직을 사용하기 보다는 긴급 돌봄 공백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한정된 일시,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휴가’의 형태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적 긴급상황 대비를 위해 가장 개선을 요하는 육아 지원 정책은 ‘가족돌봄휴가제도’로 응답되었다(39.9%). 실제 코로나19의 확산을 계기로 이용되기 시작하였던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코로나 확진 등과 같이 타인에게 돌봄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 유용한 긴급 돌봄 체계일 수 있다. 그러나, 가족돌봄휴가가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휴가 사용 일수의 연장’ 및 ‘비용 지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 코로나19가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부모직접돌봄이나 조부모 등의 사적네트워크 사용에 의한 그림자비용은 고려되지 않은 결과로 사료되는 바, 부모의 휴직, 무급휴가 등의 이용을 통한 소득의 감소나 저비용의 조부모 돌봄 의존 현상이 있지 않았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충분한 보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생각된다.

한편, 긴급한 돌봄 공백 상황에서 부모들이 직접돌봄을 가장 원하기는 하나, 부모가 항상 직접 돌볼 수는 없을 수 있어, 부모 외에 긴급한 돌봄 공백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촘촘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어린이집의 긴급보육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지역사회 돌봄 공동체 등 다양한 형태의 돌봄서비스에서 긴급상황에 대비한 프로그램과 매뉴얼, 컨트롤 타워를 갖추고 언제든지 다양한 돌봄서비스가 ‘긴급 돌봄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신속한 대응 체계를 상시적으로 구비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위협만이 아니

라 풍수해, 산불 등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자연재해, 전쟁 등 국가 위기 상황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해 대비된 매뉴얼과 대응체계를 마련해 ‘긴급 돌봄 공백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가구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육아지원 설계

가. 다자녀 가구

1) 자녀수를 고려한 아동수당 설계

본 연구를 통해 뚜렷이 드러나는 결과 중 하나는 자녀수의 증가가 가구의 생활비 지출 부담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점이었다. 5차년도 조사 결과, 가구의 총양육비용 수준은 자녀가 1명일 경우 월 76만원, 2명일 경우 140만6천원, 3명 이상일 경우 199만6천원으로 증가하여, 자녀가 1명일 경우에 비해 2명인 경우 약 1.9배, 3명 이상인 경우는 1명에 비해 약 2.6배의 양육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용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자녀가 1명일 경우 17.6%이나, 2명인 경우 29.5%, 3명 이상인 경우 40.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양육비용으로 인해 다자녀 가구는 기타 성인 가구원의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전체 생활비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보고서의 VI장에서 제시한 1~4차년도 소비실태조사 자료의 심층분석 결과에서도 1~4차년도의 기간(2018~2021년) 동안 식비, 주거비, 교육·보육비, 보건·의료비, 완구·도서구입비의 지출 수준과 가구소득 중 차지하는 비중이 ‘다자녀 가구’에서는 모두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이러한 비목의 양육비 지출은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하기도 하지만 또 소득이 감소한다고 해도 일정 수준의 꾸준한 지출이 발생하는 특성도 있어 가구소득이 낮은 가구에서 이러한 비목들의 비중은 더욱 커지는 결과를 보였다.

더욱이 양육비용 중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절감하기 어려운 필수적인 양육비용 증가는 다자녀 가구에는 더욱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자녀 가구의 자산축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는 다자녀 가구의 노후 대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출산을 더욱 기피하게 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자녀 양육비용의 부담이 절대적으로 높은 다자녀 가구를 위한 양육비용 경감 대책은 더욱 강조되고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우선적으로 양육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아동수당'에 대해 '다자녀 우대설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본 소비실태조사의 1~5차년도(2018년~2022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자녀 1인에 대한 양육비용 대비 2명일 경우 약 1.5~1.9배, 3명 이상일 경우 약 2.1~2.6배의 양육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현재 일괄 8세 이하 자녀에 대해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을 해당 자녀가 첫째 자녀일 때는 10만원, 둘째일 때 15만원, 셋째 이상일 경우 20만원을 지급하는 등 출생순위에 따른 아동수당 차등 지급을 제안한다.

또한 다자녀 가구에서 연령이 높은 자녀가 차례로 현행 지급대상 연령 기준을 초과하면서 아동수당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자녀 연령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양육비용의 부담 증가에 더하여 기존에 받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부담이 가중될 소지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아동복지법⁷⁸⁾ 상 아동 기준인 18세 미만까지 상향을 제안한다.

〈표 VIII-4-1〉 아동수당 출생순위별 차등지급안

차등지급안	비고
첫째 자녀: 기준액(현행 100,000원) 둘째 자녀: 기준액*1.5=150,000원 셋째 자녀: 기준액*2.0=200,000원	차등기준: 출생순위

주: '기준액'은 해당연도 첫째 기준 아동수당액을 의미함.

2) 자녀수가 고려된 전방위적 다자녀 가구 지원 설계

본 보고서의 VI장에서 실시한 1~4차년도(2018~2021년) 소비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도 1~4차년도의 기간 중 다자녀 가구의 식비, 주거비, 교육·보육비, 보건·의료비, 완구·도서 구입비 등 양육비 지출 비목의 주요 영역에서 모두 다자녀 가구의 지출이 증가하고 가구소득 중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해 온 경향이 확인되었다. 즉, 다자녀 가구는 자녀수가 많아짐에 따라 추가 주거공

78) [아동복지법]제3조(정의)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간을 필요로 하게 되며, 식료품의 요구량과 다양성 증가, 교육·보육의 수요와 비용 지출 증가,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및 의약품·의료용품 구매 빈도와 지출 증가, 완구·도서의 다양성 및 필요량 증가 등 전방위적인 지출 증가 압력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초저출생 시대에는 양육비가 지출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다자녀’ 우대 혹은 적어도 ‘자녀수’의 고려가 필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특히 저소득 다자녀 가구를 위한 주거비에 대한 세제혜택, 보건·의료비에 대한 세제혜택, 교육·보육비 지원에서의 자녀수 고려한 추가 지원을 마련하거나, 문화누리카드 등 지원액에 대해서도 다자녀 우대를 위한 자녀수에 따른 차등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나. 저소득 가구

‘KICCE 소비실태조사’의 결과를 통해 영유아 가구의 생활비 지출 및 양육비용의 지출 비목 중 ‘식비’가 지속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1~4차년도 조사 자료에 대한 시계열 분석 결과로부터 식비의 비중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 가구의 식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영유아 가구는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등 현금 지원을 ‘식비’에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하는 자녀들을 위해 좋은 식재료로 영양이 부족하지 않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금 지원의 확대 외에 가장 부담이 크고 필수적인 양육비 지출 비목인 식비 지출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성 지원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특히 저소득 가구 영유아 자녀의 영양가 있는 식사와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서는 이러한 지원은 필수적이라 사료된다. 이에 따라 자녀수를 고려한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 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일반 슈퍼, 재래시장, 대형마트 등 다양한 형태의 식료품 구입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 혹은 바우처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영양플러스 사업’의 경우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임산부와 영유아 중 영양위험 요인을 가진 대상에 대해 보충식품패키지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식비 지출 부담 경감’ 목적의 정책 방안과는 차이가 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영양플러스 사업 운영,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

PAR_MENU_ID=06&MENU_ID=06330203&PAGE=3&topTitle=. 인출일: 2022. 11. 9.). 영양플러스 사업과의 차이를 고려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식비 부담 경감 방안은 대상 범위는 중위소득 100~120% 이하 정도로 좀 더 보편화하며, 영양 위험성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위해 실시한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2022년) 결과에 따르면 전체 가구원의 생활비 중 식비 지출액은 91만1천원, 총영유아를 위한 식비 지출액은 22만1천원이며, 전체 가구원의 식비 중 영유아를 위한 식비 지출액 비중이 2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영유아 가구에 대한 식료품 할인권으로 총 지출액의 20~25% 정도를 할인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할인받은 금액의 상한은 20만원 정도로 책정할 필요가 있다.

식료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할 경우에도 바우처 금액을 20만원 정도로 책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식료품 할인권 혹은 바우처를 제공할 경우 일부 품목(예: 주류)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어야 할 것이다.

〈표 VIII-4-2〉 저소득 가구 식비 부담 경감 방안

구분	식료품 바우처	식료품 할인권
지원기준	가구소득(자녀수 반영)	
사용처	재래시장, 슈퍼마켓, 대형 마트(온라인 포함)	
지원액	20만원	구매액의 20~25% 할인(상한 20만원)
내용	식료품 구매 시 사용 가능한 20만원 상당의 바우처	식료품 구매 시 전체 구매액수에서 할인.
비고	식료품에 한정. 식료품 중 주류 등 일부 품목 구매 비적용	

〈표 Ⅷ-4-3〉 정책 방향 및 정책제언(요약)

정책방향	정책제언
육아지원의 생애주기적 접근 강화	- 유아기 양육 지원 강화 ▶ (배경) 유아기 자녀양육 지원 부족 평가/ 유아기 양육비용이 영아기보다 높음. ▶ 유아기 지원은 사교육 팽창 자극 우려로 현금지원보다 유아기 발달에 적합한 서비스 이용 부담 경감과 서비스 인프라 개선 방향 지향 ▶ 유아기 이용 서비스 이용 부담 경감: 기관 보육교육서비스 이용시 부대비용 추가 지원, 유아기 체험활동 등 여가문화생활비 지원 확대(‘문화누리카드’ 대상 연령 하향), 완구 및 도서 대여 서비스 접근성 제고 ▶ 보육교육서비스 인프라 질 제고: 누리과정 비용 지원 상향으로 선진적 서비스 제공 및 기관유형별 서비스 질 격차 해소 - 영아 가구의 부모 소득 지원 ▶ (배경) 부모의 소득 구성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를 통한 소득(근로 및 사업소득) 획득이 자녀 출산 전후인 ‘영아(임신 및 출생 전후)시기’에 가장 취약한 시기로 나타남. ▶ 부모급여 지급으로 영아 부모의 소득 보완 가능하나, ‘소득’ 지원의 측면에서는 ‘소득수준별’ 차등지원이 더욱 합리적.
양육형태별 육아지원의 균형적 발전 모색	- 기관 보육교육서비스를 이용한 대리양육 지원 ▶ 공간인프라의 확대 지속 및 지역 공급 격차 해소 ▶ 보육교육서비스 기관 이용 비용 추가 지원: 부대비용(차량, 급간식비, 입학금 등) 저소득층 (또는 소득계층별 차등에 의한) 추가 지원 - 가정 내 대리양육 지원 ▶ 공공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접근성 제고: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 - 부모 직접 돌봄 지원 ▶ 시간 지원 제도의 실효성 제고: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시 감축 근로시간에 연동한 적절한 급여 및 복지혜택 유지를 위한 개선,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도의 일부 자동화, 강제화 도입,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조성 ▶ 지역사회 육아지원 인프라 접근성 제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별 분소 설립을 통한 접근성 제고,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온라인 서비스 확대 - 긴급 돌봄 지원 체계 활성화 ▶ 부모 직접 돌봄 지원을 위한 ‘가족돌봄 휴가’이용 정착을 위한 개선: 휴가 사용 일수 확대, 비용 지원 확대 추진 ▶ 긴급상황에 대비한 상시적 ‘긴급 돌봄 지원 체계’ 마련
가구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육아지원 설계	-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용 경감 대책 강화: 아동수당의 다자녀 우대 설계, 아동수당 지급 연령의 상향 ▶ 자녀수가 고려된 전방위적 다자녀 가구 지원 설계: 주거비 세제혜택, 보건의료비 세제혜택, 교육보육비 다자녀 추가 지원, 문화누리카드의 다자녀 우대 도입(출생순위별 우대) -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 ▶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용 중 ‘식비’ 부담 경감을 위한 목적성 지원 추가: 식료품 구입처 사용 가능한 할인권(총 지출액의 20~25% 할인, 할인액 상한 20만원), 혹은 바우처 제공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2019).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 고용노동부(2022).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 교육부(2018). 2018년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 교육부(2019). 2019년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 교육부(2020). 2020년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 교육부(2021). 2021년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 교육부(2022). 2022년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 관계부처합동(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김나영·도남희·이동하·조혜주(2016). 육아지원을 위한 시간정책의 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김동훈·양미선·김문정 (2020). 포용적 사회를 위한 육아형평성 제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김동훈·이재희·장현진(2021). 빅데이터에 기반한 육아정책 쟁점과 향후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김종훈·이소영·이윤경·이지혜·김세진·우해봉·변수정·조성호·백혜연·이상림·김혜영·김희삼·양난주·윤홍식·이철희·정재훈·최슬기·김은지·배호중·최진희(2018).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대한민국정부(2005). 제1차(2006~201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보완판).
- 대한민국정부(2010). 제2차(2011~2015)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대한민국정부(2015).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대한민국정부(2019).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수정본).
- 대한민국정부(2020a) 제4차(2021~2025)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대한민국정부(2020b) 제4차(2021~2025)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 대한민국정부(2021).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보건복지부(2017).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8). 2018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9).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20).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2020).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2021).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22a).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22b). 2022년 아동수당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22c). 2022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22d). 2022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22e). 2022년 영아수당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보육지원체계개편 추진단(2020). '20.3월 시행 보육지원체계 개편안
문고 답하기(부모용).
- 보건복지부 (2021a). 2022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대하는 정부.
- 보건복지부 (2021b).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합니다!
- 여성가족부(2018). 2018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 여성가족부(2019). 2019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 여성가족부(2020). 2020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 여성가족부(2021). 2021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 여성가족부(2022). 2022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 이정림·구자연·김한솔(2019).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방안(II).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원·최효미·김진미·정주영(2014). 사회 통합 관점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형
평성 제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원·이정림·김태우(2018).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방안. 육아

정책연구소.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22. 5.).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최효미·강은진·조미라·조숙인·김태우(2018).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최효미·장혜원·김태우·고영우(2019).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II). 육아정책연구소.

최효미·장혜원·김태우·고영우(2019a).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II) -부록. 육아정책연구소.

최효미·이정원·박은정·김태우(2020).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III). 육아정책연구소.

최효미·이정원·박은정·김태우(2020a).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III).-부록. 육아정책연구소.

최효미·이정원·김자연·이재희·김태우(2021).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IV). 육아정책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2021). 유연근무제 확대 주요개정내용 및 대응지침.

[보도자료·신문기사]

네이트뉴스(2021. 12. 31.). 우리 아이도 혹시 발달장애?...정밀 검사비 지원 대상 늘린다, <https://news.nate.com/view/20211231n08677> (인출일: 2022. 3. 1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2020. 12. 15.).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977> (인출일: 2022. 5. 10.).

베이비뉴스(2021. 1. 28.). 2022년 출생아부터 300만원 지원, 자세히 알아보니,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283> (인출일: 2022. 3. 14.).

보건복지부 보도설명자료(2020. 2. 27.). 2월 27일자 세계일보, “‘긴급돌봄’ 시간 짧고 감염 우려 커...‘돌봄 공백’ 어찌나” 보도 관련,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4&page=1&CONT_SEQ=353193&SEARCHKEY=TITLE&SEARCHVAL

UE=%EA%B8%B4%EA%B8%89%EB%8F%8C%EB%B4%84 (인출일: 2022. 3. 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7. 8. 16.). 2018.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3&CONT_SEQ=341087&SEARCHKEY=TITLE&SEARCHVALUE=%EC%95%84%EB%8F%99%EC%88%98%EB%8B%B9 (인출일: 2022. 3. 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 7. 3.).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 실시,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0009&SEARCHKEY=TITLE&SEARCHVALUE=%EB%B3%B4%EC%9C%A1%EC%A7%80%EC%9B%90%EC%B2%B4%EA%B3%84+%EA%B0%9C%ED%8E%B8 (인출일: 2022. 3. 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 7. 22.). 아동수당, 9월부터 만7세 미만까지 연령 확대,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0248&SEARCHKEY=TITLE&SEARCHVALUE=%EC%95%84%EB%8F%99%EC%88%98%EB%8B%B9 (인출일: 2022. 3. 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1. 4. 1.). 엄마와 아기의 건강 지킴이,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7월부터 확대 실시,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4939 (인출일: 2022. 3. 1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 2. 8.).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사전신청 및 자료정비 기간 운영,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0114&SEARCHKEY=TITLE&SEARCHVALUE=%EC%95%84%EB%8F%99%EC%88%98%EB%8B%B9 (인출일: 2022. 3. 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 8. 19.). 보건복지부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2631&SEARCHKEY=TITLE&SEARCHVALUE=%EC%83%88+%EC%A0%95%EB%B6%80+%EC%97%85%EB%AC%B4%EA%B3%84%ED%9A%8D+%EB%B3%B4%EA%B3%A0 (인출일: 2022. 9. 15.).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0. 4. 13.).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동돌봄쿠폰 돌
봄포인트 오늘 약 177만 명의 보호자에게 지급,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040&SEARCHKEY=TITLE&SEARCHVALUE=%EC%95%84%EB%8F%99%EB%8F%8C%EB%B4%84%EC%BF%A0%ED%8F%B0(인출일: 2022. 4. 13.).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0. 2. 28.). 아이돌봄서비스, 코로나19로 인한 이용부담
을 줄여드리겠습니다,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892(인출일: 2022. 4. 10)
- 통계청 보도자료(2022. 2. 23.). 2021년 출생·사망통계(잠정),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416897&pageNo=2&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rch&sTarget=title&sTxt=%EC%B6%9C%EC%83%9D (인출
일: 2022. 3. 5.).
- 국민일보(2019. 7. 3.).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연장보육 시행... 저녁까지 맡아준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459025&code=61111311&cp=nv>(인출일: 2022. 3. 10).

[인터넷 자료]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대상자별 정책, 여성, 모성보호 육아지원,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woman/list5.do>(인출일: 2022. 5. 30.).
- 국가바우처 통합카드 국민행복카드. <http://www.voucher.go.kr/voucher/pregnancy.do?null>(인출일: 2022. 6. 27.).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보장성 강화 활용백서, https://www.nhis.or.kr/static/alim/paper/oldpaper/202005/sub/s01_07.html(인출일:
2022. 11. 2.).
- 나무위키, 가처분소득, <https://namu.wiki/w/%EA%B0%80%EC%B2%98%EB%B6%84%EC%86%8C%EB%93%9D> (인출일: 2022. 9. 1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년 장애인보건의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450> (인
출일: 2022. 3. 1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건복지부, 2022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9752> (인출일: 2022. 3. 14.).
- 보건복지부 블로그, [2022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https://blog.naver.com/mohw2016/222608655025> (인출일: 2022. 3. 14.).
- 보건복지부 블로그, [기획기사B] 2022년, 더 큰 복지가 찾아옵니다. 보건복지부 정책 정리, <https://blog.naver.com/mohw2016/222609396566> (인출일: 2022. 3. 14.).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cm/scm0307nc.jsp?PAR_MENU_ID=01 (인출일: 2020. 4. 10.).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영양플러스 사업 운영,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30203&PAGE=3&topTitle= (인출일: 2022. 11. 9.).
- 보건복지부 카드뉴스,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합니다!, <https://blog.naver.com/mohw2016/222468475590> (인출일: 2022. 3. 14.).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카드뉴스, 묻고 답하다 보육지원체계 개편 Q&A, http://www.mohw.go.kr/upload/content_data/2020/card_08_01.pdf (인출일: 2020. 4. 10.).
- 복지로, 복지서비스, 영아수당 지원,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 (인출일: 2022. 6. 8.).
- 복지로, 문화누리카드,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55&wlfareInfoReldBztpCd=01> (인출일: 2022. 10. 21.).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 코로나19 시기 가족돌봄 실태와 과제(서울시 여성가족정책 리뷰, 2022.12), <https://www.seoulwomen.or.kr/sfwf/contents/sfwf-newsLetter.do?&schM=view&page=2&viewCount=4&id=26485&schBdcode=&schGroupCode=> (인출일: 2022. 12. 10)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양육, http://www.mogef.go.kr/cs/opf/cs_opf_f926.do (인출일: 2022. 6. 27.).
- 위키백과, 패널분석, https://ko.wikipedia.org/wiki/%ED%8C%A8%EB%84%90_

- %EB%B6%84%EC%84%9D (인출일: 2022. 6. 15.).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국가예방접종 표준예방접종일정표(2022). <https://nip.kdca.go.kr/irhp/infm/goVcntInfo.do?menuLv=1&menuCd=115> (인출일: 2022. 5. 10).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국민용 누리집. 접종자-자가격리. ncv.kdca.go.kr/menu.es?mid=a30800000000 (인출일: 2022. 6. 15.).
- 한국보육진흥원, 시도별 시간제보육 운영 현황. <https://www.kcpi.or.kr/kcpi/cyberpr/childcarestat4.do> (인출일: 2022. 5. 30.).
- KOSIS 국가통계포털, 배우자 출산휴가제도-활용가능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045_A019&conn_path=I2 (인출일: 2022. 6. 7.).
- KOSIS 국가통계포털, 유연근로제도 도입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045_A091_1&conn_path=I3 (인출일: 2022. 5. 30.).
- KOSIS 국가통계포털, 유연근로제도 도입여부,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045_A091&conn_path=I3 (인출일: 2022. 5. 30.).
- KOSIS 국가통계포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활용가능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045_A076&conn_path=I2 (인출일: 2022. 6. 7.).
- KOSIS 국가통계포털, 육아휴직제도-활용가능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045_A043&conn_path=I2 (인출일: 2022. 6. 7.).
- KOSIS 국가통계포털, 출산휴가제도-활용가능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045_A011&conn_path=I2 (인출일: 2022. 6. 7.).

[법령·고시]

고용노동부공고 제2019 - 533호, 2020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 고시 행정예고.

고용보험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4735&lsId=00176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thdCmpNewScP&ancYnChk=0#> (인출일: 2022. 5. 30.).

근로기준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2199&lsId=001872&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thdCmpNewScP&ancYnChk=0#> (인출일: 2022. 5. 26.).

남녀고용평등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2225&lsId=000130&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thdCmpNewScP&ancYnChk=0#> (인출일: 2022. 5. 30.).

여성가족부고시 제2018-57호(2019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 기준).

여성가족부고시 제2019-50호(2020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 기준).

아동복지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95%84%EB%8F%99%EB%B3%B5%EC%A7%80%EB%B2%95#undefined>(인출일: 2022. 11. 13.).

아동수당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7515&viewCls=lsRvsDocInfoR#> (인출일: 2022. 3. 14.).

[통계 원자료]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시·도발생 현황(2020.02 ~ 2022.04), <http://openapi.data.go.kr/openapi/service/rest/Covid19/getCovid19SidoInfStateJson> (인출일: 2022. 5. 29.)에서 자료 인출. 단, 현재는 주소 변경으로 공공 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에서 찾을 수 있음.

KICCE 소비실태조사 1차년도(2018) 원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2차년도(2019) 원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2020) 원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2021) 원자료.



KICCE Spending Survey: A Study of Childrearing Costs and Demand for Childcare Services (V)

Jeong Won Lee · Jae Hee Lee · Ja Yeun Kim · Seokjin Woo · Tae Woo Kim

This study is the 5th wave of the 5-year (2018~2022) study, the KICCE Spending Survey, which collects information on the childrearing costs and usage of childcare services among childrearing households, for the purpose of informing policies that can help alleviate the cost burden associated with such spending.

In addition to collecting the 5th data of the ongoing KICCE Spending Survey, in this year's 'KICCE Spending Survey: A Study of childrearing Costs and Demand for Childcare Services(V)' we also utilize the time series data compiled over the 1st ~ 4th waves of the KICCE Spending Survey to conduct two in-depth analyses.

The two main avenues of research methodology employed here are the 'empirical survey' and 'focus group interviews (FGI)' of childrearing parents. In the 5th wave of the KICCE Spending Survey, households where the youngest child had enrolled in elementary school or higher have been excluded. Thus, only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were included. Sample households from the 4th wave (2021) study were followed for the principal sample. A substitute sample of 151 households was included to replace households from the 4th wave that could not be tracked. Furthermore, an additional sample of 254 households with newborns (children born during the later half of 2021 or earlier half

of 2022) was included in the 5th wave (2022) study, thus comprising a total of 1,730 households throughout the study. Of the 1,476 households from the 4th wave designated for tracking (excluding those whose youngest child was in elementary school or above), 89.8% were successfully tracked.

In the questionnaire for the 5th wave study, question regarding childcar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re removed. Furthermore, in view of the spread of COVID19 and the dampened impact of the pandemic on childcare practices, new questions have been included regarding households' economic burden, changes in consumption expenditure, and changes in the usage of childcare services in relation to the pandemic. Additionally, with regards to new childcare support measures being introduced in 2022, questions were included to gauge the awareness and actual usage of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as well as their expectations regarding the potential alleviation of childcare costs.

A total of 1,730 households were included in the sample of the current wave study, with a total of 2,395 young children.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 households revealed little overall changes compared to those from the previous wave. Thus,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nded sample were found to have been retained fairly well.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organized into the following four categories: 1. Income Situation of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2. Expenditure on Living Expenses and Childcare among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3. Use of Childcare Services by Childrearing Households & Policy Demands, and 4. Findings from the In-Depth Analyses.

1. Income Situation of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 Among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in the 5th wave (2022), the average monthly income was 5,005,000 KRW (net), down from 5,112,000 KRW in the 4th wave (2021). The continued rise in household income that was observed until the 3rd wave (2020) was found to have reversed since the 4th wave (2021).

- Income-wise,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in the 5th wave (2022) were most reliant on ‘labor and business income’ (87.3%) and ‘public transfer income’ (5.8%).
- In the 5th wave, the average monthly income of dual-earner households was 5,855,000 KRW, or about 35% higher compared to the 4,328,000 KRW of single-earner households. This difference appears to be attributable to differences in ‘labor and business income’.

2. Expenditure on Living Expenses and Childcare among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 In the 5th wave, average monthly expenditure among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was 3,032,000 KRW, down slightly from 3,040,000 KRW in the 4th wave (2021) but still higher than the figures from the 1st~3rd waves (2018~2020).
- Among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food’ (31.2%) accounted for the largest share of living expenses. Expenditure on food has risen significantly since the 3rd wave (2020), which coincided with the early stages of the pandemic.
- Engel coefficient: 28.0 as of the 5th wave (2022) – lower than in the 4th wave (28.4) but still higher than in the 1st and 2nd waves
- Schwabe index: 8.3 as of the 5th wave, up again following the decrease to 8.1 in the 4th wave
- Angel coefficient: 26.9 as of the 5th wave(2022), down from 27.2 in the 4th wave, reaching a similar level to that in the 3rd wave
- Total average monthly childcare costs for the 5th wave stood at 1,273,000 KRW, which is higher than observed in the 1st~3rd waves, albeit lower than in the 4th wave (1,276,000 KRW).
- Among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the share of ‘education / childcare costs’ was 334,000 KRW which was the second-lowest level (after the 3rd wave) observed throughout the 5-year study.
- Average monthly ‘childcare costs for young children) in the 5th wave stood at 902,000 KRW, down slightly from 922,000 KRW in the 4th

wave.

- Compared to the 4th wave, 'education / childcare costs' expenditure dropped noticeably in the 5th wave while the share of 'family trips' and 'experiential learning' under 'leisure / cultural activities' grew. In contrast, expenditure fell for items associated with indoor activities such as 'toys' or 'book purchases'.
- In the 5th wave (2022), the monthly average childcare cost per young child stood at 652,000 KRW, a level comparable to 655,000 KRW in the 4th wave.
- For children aged 1~5, young children were associated with higher childcare cost burdens compared to infants. That said, among infants, newborns (age 0) took up a higher share of living expenses compared to young children aged 1~2.

3. Use of Childcare Services by Childrearing Households & Policy Demands

- Use of Childcare Facilities Offering Half-day or longer programs:
 - Of the 2,393 young children observed, 77.4% made use of facilities offering half-day or longer programs. By type, childcare centers accounted for 49.2%, followed by 27.1% in kindergartens and 1.1% in study centers offering half-day or longer programs. 22.6% of young children were found to not use half-day or longer facilities.
 - Use time: Among young children in half-day or longer facilities, weekly average use hours were 34.9 hours for childcare centers, 34.8 hours for kindergartens, and 35.1 hours for half-day or longer study centers.
 - Cost of use: Average monthly fees paid to each type of facility was 71,000 KRW for childcare centers, 120,000 KRW for kindergartens, and 984,000 KRW for half-day or longer study centers.
 - Satisfaction with service: The satisfaction score for childcare center and kindergarten users was 4.1 (5.0 being the highest), while that for half-day or longer study centers was 4.0.

- Absenteeism at half-day or longer facilities due to COVID19:
 - Over the past year, the average number of days of absenteeism among young children enrolled in half-day or longer facilities due to COVID was 21.2. In descending order, the most frequent reasons for absenteeism (multiple choice) included 'closing of facility (42.3%)', 'COVID19 positive case among cohabiting family (41.5%)', 'COVID19 positive case of child (40.2%)'.
- Use of Part-time Private Education:
 - Share by type: The most frequently reported type of facility used was short-term study centers (21.9%), followed by in-person workbooks (12.0%), culture centers (7.67%), non-visit type workbooks and activities (3.3%), visit type workbooks and activities (2.2%), and individual / group tutoring (1.9%).
 - Use time and cost: The form of part-time private education associated with the longest use hours was 'short-term study centers' (3.9 hours per week), while that associated with the highest cost was 'individual / group tutoring' (215,000 KRW per month).
 - Satisfaction: Services that were associated with the highest satisfaction levels were 'individual / group tutoring' (4.0 out of a possible 5.0).
- Use of In-Home Childcare and Parental Support Services
 - Use of Individual Care Services: While 'grandparents' represented the predominant provider of individual care services, the 5th wave saw a rise in the share of 'private caregivers' compared to the first 4 waves.
 - Use time and costs: Among households that hired private caregivers, they made use of a weekly average of 21.5 hours of services at a cost of 685,000 KRW, making it the costliest (per hour) option.
 - In-home care by Parents: Parents spent an average of 8 hours 22 minutes per day for childcare on weekdays, and 13 hours and 3 minutes on weekends. The average hours of 'in-person parental care' where at least one parent was present stood at 8 hours and 16 minutes on weekdays and 13 hours and 2 minutes on weekends.

- Regarding the use of electronic devices (TV, PC, etc.) during in-home childcare, they were used for an average of 1 hours and 20minutes on weekdays and 2 hours and 6 minutes on weekends. About 76.0% of respondents reported allowing their children access to digital devices in order to help alleviate the in-home care burden.
- 6.8% of respondent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reported having used toy rental services, while 16.5% reported having used book rental services and 8.7% reported having received assistance for childcare supplies.
- In relation to parental support services, take-up rates by type were as follows: parental training (10.2%), parental counseling (15.0%), and childrearing mentorship (1.0%).
- Demands Regarding Childcare Support Services
 - Throughout each wave of the 5-year study, the aspect of government support that parents found to be the most lacking was 'childcare allowance' and the expansion of other forms of cash subsidies. In terms of 'parental support for childcare time', demand has intensified greatly for 'making access to programs automatic / mandatory'.
- Parents found government support to be the most lacking during 'early childhood (24 months~entry to elementary school, 61.0%), 'infancy' (26.2%), and 'before and after childbirth' (12.8%), with 'cost support' being the most-demanded type of support across all periods.
- Addressing the Need for Emergency Care
 - In the event of unforeseen need for emergency care, the most opted-for means of care was 'direct care by a parent' (86.5%). The most-demanded form of direct care among dual earner households was 'use of paid days off' (34.6%) followed by 'use of family care leave / days off' (34.5%), and 'working from home' (14.2%).
 - Regarding the childcare support policy that needed improvement in the face of societal crisis situations, the most frequently-requested item was 'better support for family care leave'

(39.9%).

4. In-Depth Analyses Findings

- Time Series Analysis of Income and Expenditure, by Characteristics of Childrearing Households

- Merging the KICCE Spending Survey data from the first four waves (2018~2021) into panel data, we found an upward trend in income distributions. Expenditure levels on living expenses rose sharply in the 3rd wave while expenditure on education / childcare grew in step with household income growth. Meanwhile, healthcare / medical was found to increase over time.
- Composition of living expenses: Food expenditure accounted for a growing share among living expenses throughout the first 4 waves – this phenomenon was particularly apparent among low-income households.
- Trends in living expenses and the number of children: In terms of both share and level, items such as food, housing, education / childcare, healthcare / medical, and the purchase of toys / books tended to be greater among households with more children.
- Impact of COVID19 on Childcare Expenditure
- Taking into account the extent of COVID19 infection by region, we looked at changes in household childcare expenditure prior to (2018~2019) and following (2020~2021) the pandemic. At the micro level, our estimates indicated that the pandemic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childcare expenditure, where a 10% increase in COVID19 prevalence was associated with a 0.4% decrease in childcare costs.

In view of this finding, we considered several policy directions for alleviating the childcare cost burden for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as follows: 1) strengthening a lifecycle-based approach to childcare support, 2) pursuing balanced development of childcare support across various types of childrearing situations, and 3) designing childcare

support measures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household type. Specifically, these entail the following.

First, strengthening a lifecycle-based approach to childcare support would include further financial support toward out-of-pocket expenses (transport fees, meals and snacks at facilities, costs for school entrance, etc.) associated with the use of childcare / educational services. Further measures include expanding the eligibility for Culture Nuri Cards to 3 years of age, income support for parents during pregnancy and childbirth, and improving support for parental allowance.

Second, for the balanced development of childcare support across various types of childrearing situations, there will be a need to continue expanding public infrastructure and closing inter-regional gaps in facility accessibility to further support for surrogate care. We also proposed expanding cost support for in-home childcare services to include all income levels. Also, to support direct in-person support by parents, we proposed improving the efficacy of time support schemes and expanding accessibility to local childcare support infrastructure.

Third, to design childcare support measures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household type, we proposed strengthening favorability toward households with multiple children by tuning the child allowance and Culture Nuri Cards to be more favorable for households with more children, and upping the age limit of child allowance eligibility. To provide support to low-income households, we also proposed the addition of objective-oriented support so as to alleviate the burden associated with food costs.

Keyword: childrearing costs, usage of childcare services, impact of COVID19 on childrearing costs, impact of COVID19 on the usage of childcare services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 부록 -

이정원·이재희·김자연·우석진·김태우



연구보고 2022-20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 부록 -

저 자

이정원, 이재희, 김자연, 우석진, 김태우

연 구 진

연구책임자 이 정 원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이 재 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 자 연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우 석 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김 태 우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부록 **369**

부록 1. 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지 369

부록 2. 부록 표 417



부표 목차

〈부표 Ⅲ-3-1〉 가구특성 및 자녀수별 세목별 가구소득 (2022년, 실질비용) ..	417
〈부표 Ⅲ-3-2〉 영유아 가구의 가구특성 및 자녀수별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관련 공적이전 지원금 변화 (2018~2022년, 실질비용) ..	418
〈부표 Ⅲ-3-3〉 가구특성, 자녀수 및 지역규모별 아동 표본 특성 (2018~2022년) : 영유아	419
〈부표 Ⅲ-3-4〉 가구특성, 자녀수 및 지역규모별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 경험 (부, 2022년)	420
〈부표 Ⅲ-3-5〉 가구특성, 자녀수 및 지역규모별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 경험 (모, 2022년)	421
〈부표 Ⅲ-3-6〉 가구특성, 자녀수 및 지역규모별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이용 경험 (부, 2022년)	422
〈부표 Ⅲ-3-7〉 가구특성, 자녀수 및 지역규모별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이용 경험 (모, 2022년)	422
〈부표 Ⅲ-3-8〉 가구특성, 자녀수 및 지역규모별 유연근무제도 이용 경험 (부, 2022년)	423
〈부표 Ⅲ-3-9〉 가구특성, 자녀수 및 지역규모별 유연근무제도 이용 경험 (모, 2022년)	424
〈부표 Ⅳ-1-1〉 월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 및 비목별 비중 변화 : 양육비용과 비목 일치 시(2018~2022년, 실질비용, 전체 표본)	425
〈부표 Ⅳ-1-2〉 가구 특성별 월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 변화 (2018~2022년, 실질비용, 전체 가구표본)	426
〈부표 Ⅳ-1-3〉 가구특성별 생활비 관련 주요 지수 현황 (2018~2022년) ..	426
〈부표 Ⅳ-1-4〉 가구특성별 생활비 관련 주요 지수 현황 (2022년, 전체 가구)	427
〈부표 Ⅳ-1-5〉 가구 소득 구간별 생활비 관련 주요 지수 현황 (2022년, 전체 가구)	427
〈부표 Ⅳ-2-1〉 비목별 총 양육비용 변화 (2018~2022년, 실질비용) : 전체 가구	428
〈부표 Ⅳ-2-2〉 가구 특성별 총 양육비용 변화 (2018~2022년, 실질비용, 전체 가구)	429

〈부표 IV-2-3〉 가구 소득 대비 총 양육비용 비중 변화 (2018~2022년, 실질비용, 전체 가구)	429
〈부표 IV-2-4〉 비목별 가구 생활비 대비 총 양육비용 비중 (2018~2022년, 실질비용) : 전체 가구	430
〈부표 IV-2-5〉 비목별 가구 생활비 및 가구소득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비중 (2018~2022년, 실질비용)	431
〈부표 IV-4-1〉 가구 특성별 추가소득 발생 시 우선 지출 비목 (2022년)	432
〈부표 V-1-1〉 연령별 및 연도별 영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비중 (2018~2022년)	433
〈부표 V-1-2〉 연령별 및 연도별 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비중 (2018~2022년)	434
〈부표 V-1-3〉 연령별 및 연도별 영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시간1 (2018~2022년)	435
〈부표 V-1-4〉 연령별 및 연도별 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시간2 (2018~2021년)	435
〈부표 V-1-5〉 연령별 및 연도별 영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비용1 (2018~2022년)	436
〈부표 V-1-6〉 연령별 및 연도별 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비용2 (2018~2022년)	436
〈부표 V-1-7〉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시간의 충분성 정도 (2022년) ..	437
〈부표 V-1-8〉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시간의 충분성 정도 (2022년) ..	438
〈부표 V-1-9〉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을 늘리고 싶은 주당 평균 시간 (2022년)	439
〈부표 V-1-10〉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시간을 늘리고 싶음에도 현재만큼만 이용하는 이유 (2022년)	440
〈부표 V-1-11〉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을 줄이고 싶은 주당 평균 시간 (2022년)	441
〈부표 V-1-12〉 가구특성별 코로나19 전후 특별활동 이용 변화 및 이용 계획 개수 (2022년)	442
〈부표 V-1-13〉 영유아의 이용 서비스 (2022년)	443
〈부표 V-1-14〉 연령별 및 연도별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 비중 (2018~2022년)	444

〈부표 V-1-15〉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유형별 이용 과목 (2022년)	445
〈부표 V-1-16〉 영유아의 문화센터 유형별 이용 과목 (2022년)	445
〈부표 V-1-17〉 연령별 및 연도별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주당 이용 시간 (2018~2021년)	446
〈부표 V-1-18〉 가구특성별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주당 이용시간 (2022년)	447
〈부표 V-1-19〉 가구특성별 시간제 사교육 이용시간 (2022년)	448
〈부표 V-1-20〉 가구특성별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한 단시간 학원 유형 (2022년)	448
〈부표 V-1-21〉 연령별 및 연도별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월평균 이용비용 (2018~2022년)	449
〈부표 V-1-22〉 가구특성별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 (2022년)	450
〈부표 V-1-23〉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만족도 (2022년)	450
〈부표 V-1-24〉 시간제 사교육 비용 부담 (2022년)	451
〈부표 V-1-25〉 가구특성별 사교육 부담에도 이용하는 이유 (2022년)	451
〈부표 V-1-26〉 가구특성별 단시간 학원 온라인 수업 비용 수준 만족도 (2022년)	452
〈부표 V-1-27〉 가구특성별 비대면 기타 사교육서비스 불편한 점 (2022년) ..	453
〈부표 V-1-28〉 과목별 코로나19로 인해 이용하지 못한 기관 (2022년, 중복응답)	453
〈부표 V-1-29〉 비대면 기타 사교육 서비스 이용시 개선 필요 사항 (2022년)	454
〈부표 V-1-30〉 가구특성별 코로나19로 인한 단시간 학원 이용 감소 (2022년)	454
〈부표 V-1-31〉 가구특성별 키즈카페 이용 이유 (2022년)	455
〈부표 V-1-32〉 가구특성별 키즈카페 이용하지 않는 이유 (2022년)	456
〈부표 V-1-33〉 가구특성별 비정기 체험활동 이용 이유 (2022년)	457
〈부표 V-1-34〉 가구특성별 비정기 체험활동 이용하지 않는 이유 (2022년) ..	458
〈부표 V-2-1〉 가구특성별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 (2022년)	459
〈부표 V-2-2〉 코로나19로 인한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 변화 여부 (2022년)	460
〈부표 V-2-3〉 코로나19로 인한 개별돌봄서비스 동시 돌봄 자녀수 변화 (2022년)	460

〈부표 V-2-4〉 코로나19로 인한 개별돌봄서비스 이용시간 변화 (2022년) ...	461
〈부표 V-2-5〉 코로나19로 인한 개별돌봄서비스 이용비용 변화 (2022년) ...	461
〈부표 V-2-6〉 가구특성별 가정 내 양육 및 부모직접돌봄 하루평균 시간 (2022년) : 영유아가구	462
〈부표 V-2-7〉 가구특성별 자녀 미디어 이용시간 (2022년) : 영유아 가구 ..	463
〈부표 V-2-8〉 가구특성별 가정 내 양육 부담 이유 (2022년, 1순위)	463
〈부표 V-2-9〉 가구특성별 장난감 대여 이용 빈도 (2022년)	464
〈부표 V-2-10〉 가구특성별 장난감 대여 제공기관, 이용비용 및 만족도 (2022년)	464
〈부표 V-2-11〉 가구특성별 도서 대여 이용 빈도 (2022년)	465
〈부표 V-2-12〉 가구특성별 도서 대여 제공기관, 이용비용 및 만족도 (2022년)	465
〈부표 V-2-13〉 가구특성별 육아 물품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비용 및 만족도 (2022년)	466
〈부표 V-2-14〉 가구특성별 부모교육 이용여부, 이용횟수 및 제공기관 (2022년) : 부모교육	467
〈부표 V-2-15〉 가구특성별 부모상담 이용여부, 이용횟수 및 제공기관 (2022년) : 부모상담	468
〈부표 V-2-16〉 가구특성별 육아멘토 이용여부, 이용횟수 및 제공기관 (2022년) : 육아멘토	469
〈부표 V-2-17〉 부모 지원 서비스 개선 필요사항 (2022년, 1+2순위) : 전체가구	470
〈부표 V-2-1〉 해당 자녀의 연령에서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 여부 및 희망하는 양육 형태(2022년)	471
〈부표 V-2-2〉 가구특성별 어린이집 이용자의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 (2022년)	472
〈부표 V-2-3〉 가구특성별 유치원 이용자의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 (2022년) ..	473
〈부표 V-2-4〉 가장 희망하는 형태의 양육을 하지 않는 이유(2022년)	474
〈부표 V-2-5〉 가구특성별 어린이집 이용자의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로 양육하지 않는 이유 (2022년)	475
〈부표 V-2-6〉 가구특성별 유치원 이용자의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로 양육하지 않는 이유 (2022년)	475

〈부표 V-2-7〉 가구특성별 기관보육·교육서비스 개선 필요 부분 (2022년) :	
전체 자녀	476
〈부표 V-2-8〉 가구특성별 개별돌봄서비스 개선 필요 부분 (2022년) :	
전체 자녀	477
〈부표 V-2-9〉 가구특성별 시간제 이용·기타 서비스 개선 필요 부분 (2022년) :	
전체 자녀	478
〈부표 V-2-10〉 부모의 돌봄 시간 지원 개선 필요 부분 (2022년) :	
전체 자녀	479
〈부표 V-2-11〉 가구특성별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 개선 필요 부분 (2022년) :	
전체 자녀	480
〈부표 V-2-12〉 가구특성별 양육물품 지원 개선 필요 부분 (2022년) :	
전체 자녀	481
〈부표 V-2-13〉 가구특성별 임신·출산시기 부족한 육아지원 범주 (2022년) ..	482
〈부표 V-2-14〉 가구특성별 영아기 부족한 육아지원 범주 (2022년)	482
〈부표 V-2-15〉 가구특성별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상황 (2022년)	
(중복응답)	483
〈부표 V-2-16〉 가구특성별 긴급한 돌봄공백 발생시 희망하는 자녀 돌봄 형태	
(1+2순위) (2022년)	484
〈부표 V-2-17〉 긴급한 돌봄 공백 발생시 맞벌이 가구가 희망하는	
부모직접돌봄 방식 (2022년)	485
〈부표 V-2-18〉 가구특성별 사회적 긴급상황에서 개선이 필요한 육아지원 정책	
(중복응답) (2022년)	486
〈부표 V-2-19〉 가구특성별 사회적 긴급상황 대비를 위해 필요한 육아지원 정책의	
개선 방향 (2022년, 1+2순위)	487

부록 1. 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지

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지

☐ 기존 ☐ 대체 ☐ 신규

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지

가구 ID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 2022년 일반과제인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의 일환으로,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양육비 부담과 육아서비스 이용, 육아물품 구매 및 정책에 대한 선호 등에 대해 부모님들의 의견을 여쭙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어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2018년부터 5년 동안 실시되는 조사로, 2022년은 조사의 마지막 해입니다.

귀하의 의견이나 개인 정보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①, 제②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그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시·도 ()구군 ()동읍면			
세부 주소				
모 취업 여부	① 취업 ② 휴직 중 ③ 학업 중 ④ 구직중 ⑤ 미취업 ⑥ 없음			
조사원 이름	조사원 ID	조사표 작성일	2022년 월 일	
조사 방법	① 방문 ② 전화 ③ 유치 ④방문+전화 ⑤방문+유치 ⑥기타			

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지



가구와 부모, 자녀 특성에 관한 질문

문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자
2. 여자

문2. 귀댁의 자녀는 모두 몇 명입니까?

()명

문3. 귀댁 자녀의 출생연월과 성별은 각각 어떠한가요?

※ 가구 내 가장 나이가 많은 첫째 자녀부터 순서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자녀 번호	구분	문3-1. 출생연월	문3-2. 성별	
			1.남	2.여
1	첫째 자녀	()년 ()월 생		
2	둘째 자녀	()년 ()월 생		
3	셋째 자녀	()년 ()월 생		
4	넷째 자녀	()년 ()월 생		
5	다섯째 자녀	()년 ()월 생		
6	여섯째 자녀	()년 ()월 생		

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지

문4. 현재 귀댁의 가족 구성원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떨어져 살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는 가족 구성원으로 응답. 예: 주말 부부, 외국에 나가 있는 초등학교 자녀 등

단 떨어져 산 기간이 1년 이상으로 해당 가족의 가계 지출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는 응답 대상에서 제외

※ 떨어져 살면서 생계가 분리된 경우는 제외. 예: 매달 생활비를 보내더라도 따로 사는 조부모 등

※ 함께 살고 있더라도 가족이 아닌 경우는 제외. 예: 입주 돌보미 등

1. 자녀의 부
2. 자녀의 모
3. 자녀 부의 형제자매
4. 자녀 모의 형제자매
5. 자녀의 조부
6. 자녀의 조모
7. 자녀의 외조부
8. 자녀의 외조모
9. 그 외 친인척 ()

문4-1. 영유아 자녀와 응답자 본인과의 관계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1. 자녀의 부
2. 자녀의 모
3. 자녀 부의 형제자매
4. 자녀 모의 형제자매
5. 자녀의 조부
6. 자녀의 조모
7. 자녀의 외조부
8. 자녀의 외조모
9. 그 외 친인척 ()

문5. 귀댁은 기초생활수급 대상 가구입니까?

1. 예
2. 아니오

문6. 영유아 부모님은 언제 결혼했습니까?

()년도

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지

문7~8. 귀댁의 영유아 부모님의 연령 등에 관해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문7. 모(어머니)	문8. 부(아버지)
① 출생연도	()년생	()년생
② 최종학력	1. 고졸 미만 2. 고졸 3. 전문대(2~3년제)졸업 4. 4년제 대학 졸업 5. 대학원 이상	1. 고졸 미만 2. 고졸 3. 전문대(2~3년제)졸업 4. 4년제 대학 졸업 5. 대학원 이상
③ 취업여부	1. 취업 2. 휴직 중 3. 학업 중 → 문8(부)로 4. 구직 중 → 문8(부)로 5. 미취업 → 문8(부)로	1. 취업 2. 휴직 중 3. 학업 중 → 문9로 4. 구직 중 → 문9로 5. 미취업 → 문9로
④ 직업군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치·기계 조작 및 주립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10. 군인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치·기계 조작 및 주립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10. 군인
⑤ 근로 형태	1. 임금근로자 2.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프리랜서, 고용주 등) 3. 무급가족종사자(18시간 이상 근로만 응답)	1. 임금근로자 2.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프리랜서, 고용주 등) 3. 무급가족종사자(18시간 이상 근로만 응답)
⑥ 노동시간	주당 평균 () 시간	주당 평균 () 시간

※ 무급가족종사자는 돈을 받지 않고, 일주일에 18시간 이상을 근로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노동시간에는 가사 노동 등에 소요한 시간을 제외하고 일자리에서의 노동시간만을 응답하며, 야근, 휴일 노동 등 초과 노동시간도 합산하여 응답합니다.

※ 문9~11은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일자리가 있었던 본인/배우자의 경우에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9-1~9-2.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귀댁 영유아의 부모님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 이용한 제도는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문9-1. 모(어머니)	문9-2. 부(아버지)
1. 출산휴가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2. 육아휴직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3.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1. 있음 → 주당 ()시간으로 단축 2. 없음	1. 있음 → 주당 ()시간으로 단축 2. 없음

문10-1~10-2.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귀댁의 영유아 부모님은 가족돌봄휴직이나 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용하셨다면 얼마나 사용하셨습니까?

1. 가족돌봄휴직제도: 가족 구성원(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한해 연 최대 90일까지 사용 가능
2. 가족돌봄휴가제도: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경우, 연 최대 20일(취약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최대 25일)까지 사용 가능(이 중 일반 가구 10일, 한부모 가구 15일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와 관련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단,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22년 근로자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되며, 가족돌봄휴직 중 최대 10일까지는 가족돌봄휴가로 차감 가능.

구분	문10-1. 모(어머니)	문10-2. 부(아버지)
1. 가족돌봄휴직	1. 있음→ 총()일 2. 없음	1. 있음→ 총()일 2. 없음
2. 가족돌봄휴가	1. 있음→ 총()일 2. 없음	1. 있음→ 총()일 2. 없음
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1. 있음 → 주당 ()시간으로 단축	1. 있음 → 주당 ()시간으로 단축

문11-1~11-2.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귀댁의 영유아 부모님은 아래에 제시된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 이용한 제도는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유연근무제도 유형>

1. 재택근무: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회사의 통신 회선으로 연결된 기기를 통해 업무
2. 시차출퇴근: 정해진 근무 시간을 채우는 한에서 출퇴근 시간 조절
3. 신역근로제: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결정
4. 원격근무: 사무실이 아닌 외부 장소에서 컴퓨터나 기기를 활용해 근무
5. 전환형시간선택제: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일정 기간 시간선택제로 일하다가 전환 기간 만료 후 전일제 복귀

구분	문11-1. 모(어머니)	문11-2. 부(아버지)
1. 재택근무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2. 시차출퇴근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3. 선택근로제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4. 원격근무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5. 전환형시간선택제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I. 가구의 소득과 정책 수혜

문12. 귀댁의 자녀는 지금까지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각 아동별로 아동수당 수혜 여부에 대해 응답하여 주십시오.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이란 만 8세 미만(0~95개월)의 모든 아동에게 한 명당 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이라면 신청 후 누구나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될 수 있음)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넷째 자녀	다섯째 자녀	여섯째 자녀
1. 수혜경험 있음	1. 수혜경험 있음	1. 수혜경험 있음	1. 수혜경험 있음	1. 수혜경험 있음	1. 수혜경험 있음
2. 수혜경험 없음	2. 수혜경험 없음	2. 수혜경험 없음	2. 수혜경험 없음	2. 수혜경험 없음	2. 수혜경험 없음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지

문12-1. 귀댁에서 지난 1년간(2021.5.1.~2022.4.30.) 받으신 양육관련 공적 이전소득지원 확인을 위해 이용하신 기관과 지원금액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 ※ 2021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이용하신 기관 유형에 ☒ 표시해주세요.
- ※ 어린이집을 이용한 경우 17:00 이후 연장보육에 한해 시간당 단가에 맞춘 지원 금액을 계산하여 적어주십시오.
- ※ 유치원 지원금액은 아동의 방과후수업 신청 과목 수에 따라 방과 후 과정 지원금액을 계산하여 적어주시고, 저소득층 대상 기타 실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금액을 합산하여 적어주세요.
-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양육을 하시는 경우에는 지원받으신 가정양육수당 혹은 영아수당('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해당) 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 ※ 금액은 반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응답하되, 반올림하여 만원 미만인 경우 0원 처리해 주십시오.

가정양육수당 지원 금액				'22년 영아수당 지원 금액('22년 출생아부터 지급)		
연령	일반가정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연령	영아수당 종류	
					현금	바우처
12개월 미만	20만원	20만원	20만원	24개월 미만	30만원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전액)
24개월 미만	15만원	17만 7천원				
36개월 미만	10만원	15만 6천원				
48개월 미만		12만 9천원	10만원			
48개월~86개월 미만		10만원				
※24개월 미만 아동 중 2022년 이전 출생아는 영아수당 대신 가정양육수당 지원				※영아수당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22년 월 30만원에서 '25년 월50만원까지 단계적 확대 예정		

'22년 보육료·만3~5세 누리과정 지원 단가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5세반(누리과정)	3-5세반(누리과정)	장애아
적용시기	(‘22.1.1~)	(‘22.1.1~)	(‘22.1.1~)	(‘22.1.1~2.28)	(‘22.3.1~)	(‘22.1.1~)
계	1,069,000	749,000	574,000	260,000	280,000	1,154,000
부모보육료	499,000	439,000	364,000	260,000	280,000	532,000
기관보육료	570,000	310,000	210,000	-	-	62,000

어린이집 연장 보육료 지원 금액		유치원 방과후 과정 지원 금액	
보육연령 (한국나이)	연장보육 (17:00~)	구분	방과후 과정 지원 금액
만0세반 (1,2세)	1시간당 3천원	국·공립 유치원	최대 5만원
만1세반 (3세)	1시간당 2천원		
만2세반 (4세)	1시간당 2천원		
만3~5세반 (5,6,7세) 누리과정	1시간당 1천원	사립 유치원	최대 7만원
※연장보육료는 17:00이후 하원아를 기준으로 30분 단위로 시간당 단가로 책정			

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지

※ 달별로 ①어린이집, ②유치원, ③가정양육수당 ④영아수당(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아)중에 받으신 지원금을 택1하고,

해당하는 내용에 ☒ 표시해주세요.

(어린이집 지원, 유치원 지원,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 지원은 중복수해가 불가합니다)

			21년 5월	21년 6월	21년 7월	21년 8월	21년 9월	21년 10월	21년 11월	21년 12월	22년 1월	22년 2월	22년 3월	22년 4월
첫 째 자 녀	① 어 린 이 집	만0~2세반	☐	☐	☐	☐	☐	☐	☐	☐	☐	☐	☐	☐
		만3~5세반 (누리과정)	☐	☐	☐	☐	☐	☐	☐	☐	☐	☐	☐	☐
		(이용시) 연장보육 지원비용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② 유 치 원	국공립	☐	☐	☐	☐	☐	☐	☐	☐	☐	☐	☐	☐
		사립	☐	☐	☐	☐	☐	☐	☐	☐	☐	☐	☐	☐
		방과후/ 추가지원 비용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③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	☐	☐	☐	☐	☐	☐	☐	☐	☐	☐	☐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④영아수당 (22년 출생아)	현금	☐	☐	☐	☐	☐	☐	☐	☐	☐	☐	☐	☐
		바우처	☐	☐	☐	☐	☐	☐	☐	☐	☐	☐	☐	☐
둘 째 자 녀	① 어 린 이 집	만0~2세반	☐	☐	☐	☐	☐	☐	☐	☐	☐	☐	☐	☐
		만3~5세반 (누리과정)	☐	☐	☐	☐	☐	☐	☐	☐	☐	☐	☐	☐
		(이용시) 연장보육 지원비용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② 유 치 원	국공립	☐	☐	☐	☐	☐	☐	☐	☐	☐	☐	☐	☐
		사립	☐	☐	☐	☐	☐	☐	☐	☐	☐	☐	☐	☐
		방과후/ 추가지원 비용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③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	☐	☐	☐	☐	☐	☐	☐	☐	☐	☐	☐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④영아수당 (22년 출생아)	현금	☐	☐	☐	☐	☐	☐	☐	☐	☐	☐	☐	☐
		바우처	☐	☐	☐	☐	☐	☐	☐	☐	☐	☐	☐	☐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지

※ 달별로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아)중에 받으신 지원금을 택1하고,

해당하는 내용에 ☒ 표시해주세요.

(어린이집 지원, 유치원 지원,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 지원은 중복수해가 불가합니다)

			21년 5월	21년 6월	21년 7월	21년 8월	21년 9월	21년 10월	21년 11월	21년 12월	22년 1월	22년 2월	22년 3월	22년 4월	
셋 째 자 녀	㉠ 어 린 이 집	만0~2세반	☐	☐	☐	☐	☐	☐	☐	☐	☐	☐	☐	☐	
		만3~5세반 (누리과정)	☐	☐	☐	☐	☐	☐	☐	☐	☐	☐	☐	☐	☐
		(이용시) 연장보육 지원비용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 유 치 원	국공립	☐	☐	☐	☐	☐	☐	☐	☐	☐	☐	☐	☐	☐
		사립	☐	☐	☐	☐	☐	☐	☐	☐	☐	☐	☐	☐	☐
		방과후/ 추가지원 비용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	☐	☐	☐	☐	☐	☐	☐	☐	☐	☐	☐	☐
㉣영아수당 (22년 출생아)	현금	☐	☐	☐	☐	☐	☐	☐	☐	☐	☐	☐	☐	☐	
	바우처	☐	☐	☐	☐	☐	☐	☐	☐	☐	☐	☐	☐	☐	
넷 째 자 녀	㉠ 어 린 이 집	만0~2세반	☐	☐	☐	☐	☐	☐	☐	☐	☐	☐	☐	☐	
		만3~5세반 (누리과정)	☐	☐	☐	☐	☐	☐	☐	☐	☐	☐	☐	☐	☐
		(이용시) 연장보육 지원비용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 유 치 원	국공립	☐	☐	☐	☐	☐	☐	☐	☐	☐	☐	☐	☐	☐
		사립	☐	☐	☐	☐	☐	☐	☐	☐	☐	☐	☐	☐	☐
		방과후/ 추가지원 비용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	☐	☐	☐	☐	☐	☐	☐	☐	☐	☐	☐	☐
㉣영아수당 (22년 출생아)	현금	☐	☐	☐	☐	☐	☐	☐	☐	☐	☐	☐	☐	☐	
	바우처	☐	☐	☐	☐	☐	☐	☐	☐	☐	☐	☐	☐	☐	

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지

※ 달별로 ①어린이집, ②유치원, ③가정양육수당 ④영아수당(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아)중에 받으신 지원금을 택1하고,

해당하는 내용에 ☒ 표시해주세요.

(어린이집 지원, 유치원 지원,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 지원은 중복수해가 불가합니다)

			21년 5월	21년 6월	21년 7월	21년 8월	21년 9월	21년 10월	21년 11월	21년 12월	22년 1월	22년 2월	22년 3월	22년 4월	
다 섯 째 자 녀	① 어 린 이 집	만0~2세반	☐	☐	☐	☐	☐	☐	☐	☐	☐	☐	☐	☐	
		만3~5세반 (누리과정)	☐	☐	☐	☐	☐	☐	☐	☐	☐	☐	☐	☐	☐
		(이용시) 연장보육 지원비용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② 유 치 원	국공립	☐	☐	☐	☐	☐	☐	☐	☐	☐	☐	☐	☐	☐
		사립	☐	☐	☐	☐	☐	☐	☐	☐	☐	☐	☐	☐	☐
		방과후/ 추가지원 비용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③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	☐	☐	☐	☐	☐	☐	☐	☐	☐	☐	☐	☐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④영아수당 (22년 출생아)	현금	☐	☐	☐	☐	☐	☐	☐	☐	☐	☐	☐	☐	☐
		바우처	☐	☐	☐	☐	☐	☐	☐	☐	☐	☐	☐	☐	☐
여 섯 째 자 녀	① 어 린 이 집	만0~2세반	☐	☐	☐	☐	☐	☐	☐	☐	☐	☐	☐	☐	
		만3~5세반 (누리과정)	☐	☐	☐	☐	☐	☐	☐	☐	☐	☐	☐	☐	☐
		(이용시) 연장보육 지원비용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② 유 치 원	국공립	☐	☐	☐	☐	☐	☐	☐	☐	☐	☐	☐	☐	☐
		사립	☐	☐	☐	☐	☐	☐	☐	☐	☐	☐	☐	☐	☐
		방과후/ 추가지원 비용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③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	☐	☐	☐	☐	☐	☐	☐	☐	☐	☐	☐	☐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④영아수당 (22년 출생아)	현금	☐	☐	☐	☐	☐	☐	☐	☐	☐	☐	☐	☐	☐
		바우처	☐	☐	☐	☐	☐	☐	☐	☐	☐	☐	☐	☐	☐

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지

문12-2. 귀댁에서 지난 1년간(2021.5.1.~2022.4.30.)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경험이 있으신 경우, 자녀별로 육아휴직급여 총 수급액과 수급 기간을 응답해 주십시오.

※ 금액은 반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응답하되, 반올림하여 만원 미만인 경우 0원 처리해 주십시오.

※ 육아휴직 수급 가능 기간은 자녀별로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입니다.

※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이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겹치지 않는 기간으로 합산하고, 수급액도 부모 모두의 급여액을 합산해서 기입해 주십시오.

※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지급 (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 단,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야야 함). 3+3육아휴직제 적용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 미적용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를 지급.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 미적용

	문12-2 육아휴직급여 수혜 경험	문12-2-1. 육아휴직급여특례 수혜 경험 ※1.2월 중복응답 가능	문12-2-2. 총 수급액	문12-2-3. 총 수급기간
첫째 자녀	1. 있음 → 문12-1-1로 2. 없음 → 문12-3으로	1. 3+3 부모육아휴직제(생후 12개월 내) 2. 아빠 육아휴직보너스제 3.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만원	총()개월
둘째 자녀	1. 있음 → 문12-1-1로 2. 없음 → 문12-3으로	1. 3+3 부모육아휴직제(생후 12개월 내) 2. 아빠 육아휴직보너스제 3.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만원	총()개월
셋째 자녀	1. 있음 → 문12-1-1로 2. 없음 → 문12-3으로	1. 3+3 부모육아휴직제(생후 12개월 내) 2. 아빠 육아휴직보너스제 3.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만원	총()개월
넷째 자녀	1. 있음 → 문12-1-1로 2. 없음 → 문12-3으로	1. 3+3 부모육아휴직제(생후 12개월 내) 2. 아빠 육아휴직보너스제 3.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만원	총()개월
다섯째 자녀	1. 있음 → 문12-1-1로 2. 없음 → 문12-3으로	1. 3+3 부모육아휴직제(생후 12개월 내) 2. 아빠 육아휴직보너스제 3.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만원	총()개월
여섯째 자녀	1. 있음 → 문12-1-1로 2. 없음 → 문12-3으로	1. 3+3 부모육아휴직제(생후 12개월 내) 2. 아빠 육아휴직보너스제 3.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만원	총()개월

문12-3. 귀댁에서 지난 1년간(2021.5.1.~2022.4.30.)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은 경험이 있으신 경우, 자녀별로 출산장려금 총 수급액을 응답해 주십시오.

※ 금액은 반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응답하되, 반올림하여 만원 미만인 경우 0원 처리해 주십시오.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넷째 자녀	다섯째 자녀	여섯째 자녀
수혜 경험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1. 있음 2. 없음
총 수급액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문13. 귀하께서는 올해 출생한 아들은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1. 알고 있음
2. 몰랐음

※ 첫만남 이용권

-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합니다.('22.4월 1일부터 지급 시작)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

문14. 귀댁의 소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3개월간의 월 평균 소득(세후소득)을 기입해 주십시오.

※ 지난 3개월 내 일시금으로 받으신 금액은 1/3하여 한 달 평균으로 환산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가구 전체 소득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설명
1. 본인 근로 및 사업 소득	() 만원	일을 하여 번 돈
2. 배우자 근로 및 사업 소득	() 만원	(자영업자 및 고용주, 프리랜서 등도 매출에서 재반비용을 제하고 순수하게 본인의 소득으로 남은 돈을 기입)
3. 기타 가구원 근로소득	() 만원	월세 등으로 받은 돈, 땅이나 건물을 빌려주고 생긴 소득, 주식거래 차익, 은행 이자 등 (본인이 납입한 원금은 제외, 전세보증금 등도 제외)
4. 부동산소득 및 금융소득	() 만원	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첫만남이용권, 국민기초생활 보호 대상자 지원금(생계급여) 장애통증, 장애연금, 유족연금, 사립연금, 공무원 연금,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및 장애연금, 생계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을 의미함 ※ 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 유아학비는 제외하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5. 공적이전소득 및 사회보험소득	() 만원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상황으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금액 (긴급재난지원금, 휴업지원금, 긴급아동수당, 아동돌봄쿠폰,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등) ※5. 공적이전소득 및 사회보험소득과 '6.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상황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은 중복되지 않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6.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상황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	() 만원	부모 또는 친인척 등으로부터 받은 돈
7. 사적이전소득	() 만원	보험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증여·상속, 축의금, 물간지 등으로 생긴 돈
8. 기타소득	() 만원	

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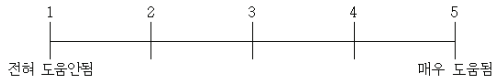
문15. 귀하는 지원받은 아동수당을 어디에 가장 많이 활용하셨습니다가?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해주시시오.

※ 생활비에 보태서 사용하여 특정 비목을 구분하기 어렵더라도, 귀하가 생각하기에 추가 소득으로 소비가 가장 증가한 품목 등을 고려하시어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	-----	-----------------------

- | | |
|------------------------------|---|
| 1. 식비 (외식비 포함) | 6. 개인유지비 (복류/세탁 용품, 이마용 서비스, 기저귀, 화장품, 화장지 등) |
| 2. 파복비 | 7. 저축 등 금융상품 (어린이보험, 저축 등) |
| 3. 보건/의료비 (영양제 등 포함) | 8. 기기/집기 |
| 4. 교육/보육비 (교재교구비 포함) | 9. 기타 () |
| 5. 여가 및 문화생활비 (교양오락비, 도서구입비) | |

문15-1. 귀하는 지원받은 아동수당이 자녀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 얼마나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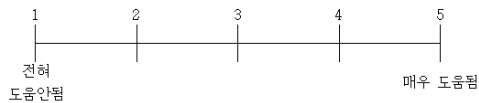
문16. [가정양육수당 또는 영아수당(현금 형태)을 받은 가구만 응답] 귀하는 지원받은 가정양육수당 또는 영아수당을 어디에 가장 많이 활용하셨습니다가?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 생활비에 보태서 사용하여 특정 비목을 구분하기 어렵더라도, 귀하가 생각하기에 추가 소득으로 소비가 가장 증가한 품목 등을 고려하시어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	-----	-----------------------

- | | |
|------------------------------|---|
| 1. 식비 (외식비 포함) | 6. 개인유지비 (복류/세탁 용품, 이마용 서비스, 기저귀, 화장품, 화장지 등) |
| 2. 파복비 | 7. 저축 등 금융상품 (어린이보험, 저축 등) |
| 3. 보건/의료비 (영양제 등 포함) | 8. 기기/집기 |
| 4. 교육/보육비 (교재교구비 포함) | 9. 기타 () |
| 5. 여가 및 문화생활비 (교양오락비, 도서구입비) | |

문16-1. 귀하는 지원받은 가정양육수당 또는 영아수당이 자녀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 얼마나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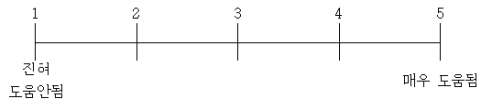
문17. [22년 출생아 가구(첫만남 이용권 지급 대상)만 응답] 귀하는 첫만남 이용권을 출산비용-자녀양육비용 중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할 계획입니까?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출산비용, 자녀양육비용을 포함한 생활비에 보태서 사용하여 특정 비목을 구분하기 어렵더라도, 귀하가 생각하기에 첫만남 이용권으로 인한 추가 소득으로 출산비용-자녀양육비용이 가장 증가할 품목 등을 고려하시어 응답해 주십시오.(이미 첫만남이용권을 지급받아 사용하신 경우, 사용 금액이 큰 순서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	-----	-----------------------

1. 식비 (출생 자녀 분유, 이유식비, 식재료구입비 등)
2. 피복비 (출생 자녀용 의류, 이불, 짚개 등 포함)
3. 보건/의료비 (출생자녀의 치료 등 의료비, 영양제, 산모용 약제비(한약) 등 포함)
4. 교육/보육비 (기관 이용, 육아도우미 비용, 교재교구비 등 포함)
5. 여가 및 문화생활비 (자녀용 도서구입비 등)
6. 개인유지비 (출생자녀용-산모용 목욕/세탁 용품, 이미용 서비스,가저귀, 영유아용 로션, 물티슈, 화장지 등)
7. 산후조리비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 이용)
8. 출생 자녀를 위한 기기/ 집기 (유모차, 카시트, 아기 침대 등)
9. 기타 ()

문17-1. 귀하는 신생아 출생 시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이 자녀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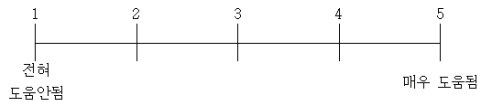
문18. [코로나19 관련 공적지원금을 받은 가구만 응답] 귀하는 지금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지원받은 공적지원금을 어디에 가장 많이 활용하셨습니다?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 공적지원금으로는 긴급재난지원금, 휴업지원금, 긴급아동수당, 아동돌봄 쿠폰,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 생활비에 보태서 사용하여 특정 비목을 구분하기 어렵더라도, 귀하가 생각하기에 추가 소득으로 소비가 가장 증가한 품목 등을 고려하시어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	-----	-----------------------

1. 식비 (외식비 포함)
2. 피복비
3. 보건/의료비 (영양제 등 포함)
4. 교육/보육비 (교재교구비 포함)
5. 여가 및 문화생활비 (교양/오락비, 도서구입비)
6. 개인유지비 (목욕/세탁 용품, 이미용 서비스,가저귀, 화장품, 화장지 등)
7. 저축 등 금융상품 (어린이보험, 저축 등)
8. 기기/집기
9. 기타 ()

문18-1. [코로나19 관련 공적지원금을 받은 가구만 응답] 귀하는 지원받은 공적지원금이 자녀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 얼마나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지

문19. 2022년도에 받으신 연말정산(2021.1~2021.12에 대한 소득)에서, 다음과 같은 세금 혜택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지원 금액의 액수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원 대상자는 누구였습니까?

※ 여러 명의 아이를 대상으로 지원된 경우 자녀를 모두 응답해 주세요

구분		수혜 여부	지원 금액 인지 여부	지원 대상자 (모두 선택)	
1. 자녀 세액 공제	1-1. 기본 공제 대상 자녀	1.지원받음 2.지원받지 않음	1. 지원 금액 알고 있음 2. 지원받았으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모르겠음		
	1-2. 출산·입양 공제 대상 자녀	1.지원받음 2.지원받지 않음	1. 지원 금액 알고 있음 2. 지원받았으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모르겠음		
2. 자녀장려금		1.지원받음 2.지원받지 않음	1. 지원 금액 알고 있음 2. 지원받았으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모르겠음	1. 첫째 자녀 2. 둘째 자녀 3. 셋째 자녀	4. 넷째 자녀 5. 다섯째 자녀 6. 여섯째 자녀
3. 자녀 교육비 소득공제		1.지원받음 2.지원받지 않음	1. 지원 금액 알고 있음 2. 지원받았으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모르겠음	1. 첫째 자녀 2. 둘째 자녀 3. 셋째 자녀	4. 넷째 자녀 5. 다섯째 자녀 6. 여섯째 자녀



II. 가구의 지출 및 양육비용

문20~21. 귀댁의 생활비 지출 및 자녀 양육비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3개월간의 월평균 비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 금액은 반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응답하되, 반올림하여 작성한 금액이 총액을 넘지 않도록 하며, 반올림하여 만원 미만인 경우 0원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자녀별 지출 비용은 미취학 자녀 뿐만 아니라 가구 내 전체 자녀에 대해 응답하며, 자녀별 지출 비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어려움하여 응답하되, 실질적인 비용 지출이 없었던 경우에는 0원을 기입해 주십시오.

※ 가족이 공동으로 사용하여 자녀별 금액이 나누어지지 않은 금액(예: 가족 외식비 등)도 자녀별로 어느 정도 비중을 고려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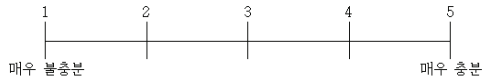
구분	해당하는 비용에 대한 설명	문20. 가구 전체 소비 지출액	문21. 가구 소비액 중 자녀 별로 지출액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넷째 자녀	다섯째 자녀	여섯째 자녀
1. 식비 (외식비 포함)	가족 전체가 함께한 외식비 등은 포함 하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지불한 급간식비 등은 제외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1-1. 외식비	부모가 식당에서 사먹는 점심값 포함, 커피값은 제외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2. 주거/관리비	관리비, 수도/광열비, 월세 등을 합산	만원						
2-1. 관리비 및 수도·광열비 등	주택 관리와 관련된 비용 포함, 단, 집 전체의 수리, 건축비 등은 제외, 수도, 전기, 가스요금 등 포함	만원						
2-2. 월세	주거를 위해 월마다 고정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 (장사를 위한 임대료는 제외)	만원						

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지

구분	해당하는 비용에 대한 설명	문20. 가구 전체 소비 지출액	문21. 가구 소비액 중 자녀 별로 지출액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넷째 자녀	다섯째 자녀	여섯째 자녀
3. 기기/집기	가구, 가전 등의 구매 (아동 침대, 책상 등 포함)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3-1. PC/노트북/태블릿PC		만원						
4. 피복비	의류 및 신발, 가방 등 구매비(자녀의 내의류 등 모두 포함), 침구류 포함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5. 보건/의료비	병원, 약 구매비, 비타민이나 영양제, 건강보조제(홍삼, 한약 등 포함), 마스크 등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6. 교육/보육비	부모님의 교육비 포함, 자녀의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비용, 개별 돌봄서비스 이용비용, 사교육 이용비용 등(교재교구 포함) (※정부 지원금 제외)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7. 여가 및 문화생활비 (교양/오락비)	한구(장난감, 도넛 등), 여가용 도서 구입비, 가족여행 등 포함 단, 교재교구는 교육비로 포함	만원						
7-1. 가족여행 등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간 경우, 사용한 비용 전액	만원						
7-2. 관람, 체험학습	영화, 스포츠, 공연, 박물관 관람 등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7-3. 완구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7-4. 도서구매	교재 교구는 제외, 아동 전집류 등은 포함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8. 교통비	자동차 유지/유류비, 대중교통비 포함, 자동차 구입비 제외, 자녀의 셔틀버스 비용은 교통비가 아닌 교육비에 포함.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9. 통신비	핸드폰 이용료, 전화요금, 인터넷 이용료, IPTV 및 케이블 TV 수신료 등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9-1. 휴대전화비	휴대폰 구입비 제외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10. 개인유지비 (생필품 포함)	목욕용품, 바디로션, 기저귀, 물티슈, 세탁용품, 구방용품, 화장지, 화장품, 키친타올, 이미지용 서비스 등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11. 금융상품 (저축 및 보험 납입금)	이자, 저축, 보험 등(자녀 명의 포함)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11-1. 저축	예금, 적금 등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11-2. 보험	저축성 및 상해 등 각종 보험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11-3. 원금 상환	주택 및 대출 관련 원금 상환액	만원						
11-4. 이자 상환	주택 및 대출 관련 이자 납입금	만원						
12. 이전 지출	부모님 용돈 경조금 등 (자녀 돌봄의 대가도 드리는 용돈은 보육비로 분류하고 제외, 가족 내 이전지출은 제외)	만원						
13. 기타 상품 및 서비스	주류 및 기호식품, 가사도우미 등 (※육아도우미는 교육/보육비에 포함)	만원						

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지

문22. 현재 가구에서 영유아 자녀에게 들어가는 양육비용은 충분한 수준(필요한 만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23. 현재 영유아 자녀를 키우면서 드는 비용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 | | |
|--------------------------|---|
| 1. 식비 (외식비 포함) | 8. 교통/통신비 |
| 2. 주거/관리비 (월세, 수도/광열비 등) | 9. 개인유지비 (복육/세탁 용품, 이미용 서비스, 가저귀, 화장품, 화장지 등) |
| 3. 기기/집기 (가전제품, 책상 등 가구) | 10. 저축 등 금융상품 (어린이보험, 저축 등) |
| 4. 피복비 | 11. 주택 대출 등 원리금 상환 |
| 5. 보건의료비 (영양제 등 포함) | 12. 부모님 용돈 등 이전지출 |
| 6. 교육/보육비 (육아도우미 비용 포함) | 13. 기타 () |
| 7. 여가 및 문화생활비 (교양/오락비) | |

문23-1. 여유소득이 있다면 영유아 자녀를 위해 다음 중 어떤 항목에 우선적으로 지출하시겠습니까?

1. 자녀 식비 (유기농 식재료, 영유아용 이유식, 반찬 등 자녀 외식비 포함)
2. 자녀용 기기/집기 (자녀용 가전제품, 책상 등 가구)
3. 자녀 피복비
4. 자녀 보건의료비 (영양제 등 포함)
5. 교육/보육비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육, 육아도우미 비용 등)
6. 자녀 여가 및 문화생활비 (여행, 체험활동, 완구, 도서 구매)
7. 자녀용 저축 등 금융상품 (어린이보험, 저축 등)
8. 기타 ()

문24. 가구소득이 줄어들거나 양육 관련 용품 가격이 증가하여 양육비용 부담이 증가할 때, 어떤 비목에서 우선적으로 지출을 줄이십니까?
우선적으로 줄일 비목을 2개 골라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 |
|------------------------|--------------------------|
| 1. 식비 (외식비 포함) | 8. 교통/통신비 |
| 2. 주거/관리비 | 9. 개인유지비 |
| 3. 기기/집기 | 10. 금융상품 |
| 4. 피복비 | 11. 이전지출 (부모님 용돈, 경조금 등) |
| 5. 보건의료비 | 12. 기타 상품 및 서비스 |
| 6. 교육/보육비 | |
| 7. 여가 및 문화생활비 (교양/오락비) | 99. 모름/무응답 |

문25.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항목에 우선 지출 하시겠습니까?

- | | |
|---------------------------|--|
| 1. 식비(외식비 포함) | 8. 교통/통신비 |
| 2. 주거/관리비(월세, 수도/광열비 등) | 9. 개인유지비(복육/세탁 용품, 이미용 서비스, 가저귀, 화장품, 화장지 등) |
| 3. 기기/집기(가전제품, 책상 등 가구 등) | 10. 저축 등 금융상품(어린이보험, 저축 등) |
| 4. 피복비 | 11. 주택 대출 등 원리금 상환 |
| 5. 보건의료비(영양제 등 포함) | 12. 부모님 용돈 등 이전지출 |
| 6. 교육/보육비(육아도우미 비용 포함) | 13. 기타 () |
| 7. 여가 및 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 |

※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변동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 문26.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가계 소득이 줄거나 지출이 늘어나는 등 가계 경제에 부담이 증가되었습니까?
 1. 예 → 문26-1로 2. 아니오 → 문27로

문26-1.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가계 경제에 부담이 증가되었다면, 부족한 생활비(또는 소득)를 어떻게 충당하셨습니까? 가장 주된 방법 한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1. 소득이나 생활비 변동이 크지 않아, 별도의 충당이 필요 없음 | 1~6 선택 시
문26-1-2로

→ 문26-1-1로 |
| 2. 정부의 공적 자금 지원(긴급 기본소득 지원 등) | |
| 3. 정부의 긴급 대출 지원 | |
| 4. 은행 기관 등의 대출(보험 담보 대출 포함) | |
| 5. 기존의 저축해 둔 돈을 털어 씀(보험 해지 포함) | |
| 6. 부모님 등 친인척으로부터의 지원 받음 | |
| 7. 생활비를 최대한 줄여서 소득 내에서 해결 | |
| 8. 기타 () | |

문26-1-1. [문26-1에서 보기7에 응답한 경우] 다음 생활비 중 어떤 항목의 지출을 가장 많이 줄였습니까?

- | | |
|--|--|
| 1. 식비(외식비, 배달비 포함) | 8. 교통/통신비 |
| 2. 주거/관리비(월세, 수도/광열비 등) | 9. 개인유지비(복류/세탁 용품, 이미용 서비스, 가저귀, 화장품, 화장지 등) |
| 3. 기기/집기(가전제품, 책상 등 가구 등) | 10. 저축 등 금융상품(어린이보험, 저축 등) |
| 4. 피복비 | 11. 주택 대출 등 원리금 상환 |
| 5. 보건/의료비(영양제, 마스크, 진단키트, 상비약 구비 등 포함) | 12. 부모님 용돈 등 이천지출 |
| 6. 교육/보육비 | 13. 기타 () |
| 7. 여가 및 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 14. 지출이 감소한 항목 없음 |

문26-1-2. [문26-1에서 보기 1~6에 응답한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비 지출이 증가한 항목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생활비 중 어떤 항목의 지출이 가장 많이 늘었습니까?

- | | |
|--|--|
| 1. 식비(외식비, 배달비 포함) | 8. 교통/통신비 |
| 2. 주거/관리비(월세, 수도/광열비 등) | 9. 개인유지비(복류/세탁 용품, 이미용 서비스, 가저귀, 화장품, 화장지 등) |
| 3. 기기/집기(가전제품, 책상 등 가구 등) | 10. 저축 등 금융상품(어린이보험, 저축 등) |
| 4. 피복비 | 11. 주택 대출 등 원리금 상환 |
| 5. 보건/의료비(영양제, 마스크, 진단키트, 상비약 구비 등 포함) | 12. 부모님 용돈 등 이천지출 |
| 6. 교육/보육비 | 13. 기타 () |
| 7. 여가 및 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 14. 지출이 증가한 항목 없음 |

※ 다음은 귀하의 주거 관련 문항입니다.

문27. 귀댁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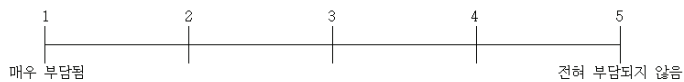
1. 단독주택
2. 아파트
3. 연립주택 혹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4. 상가주택
5. 기타

문28.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거주 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1. 자가
2. 전세
3. 월세(보증금 유무 관계없음)
4. 기타(사택, 친인척(조부모 포함) 주택 무상 거주 등)

문28-1.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주거비에 얼마나 부담을 느끼십니까?

※ 거주 형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사가의 경우 재산세 및 종부세, 전세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 비용, 월세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 비용 및 월세액에 대한 부담 등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 가능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문29.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거주 시작 시기는 언제입니까? ()년도

문30.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방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 방의 수는 거실(대청마루), 부엌, 식당(부엌에 딸린 식당 포함)을 제외한 방의 수를 응답해 주십시오.
()개

문31.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면적은 얼마입니까? 단독주택의 경우 마당을 제외하고 건물의 연면적을 기입해 주십시오.

※ 평수와 m² 중에서 편하신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시오.(아파트 등의 경우는 공급면적, 단독주택의 경우는 마당, 주차장 등을 제외한 건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답해주시지요)

()평 $\frac{1}{2}$ 은 ()m²



III. 영유아 가족의 개별 돌봄 서비스 이용

[개별 돌봄 서비스]

문32. 귀댁 자녀를 위해 최근 3개월 내 다음의 개별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1. 예 → 문32-1로
2. 아니오 → 문33(21페이지)로

<개별돌봄서비스 종류>

- | | |
|---------------------------------------|--------------------------------------|
| ①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기타 공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포함) | ② 민간 육아도우미 |
| ③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등) | ④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
(아동의 삼촌, 이모, 고모 등) |

문32-1. 이용하고 계신 개별돌봄서비스 각각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는 누구입니까? 아래 보기에서 선택하여 번호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 이용하고 계신 개별돌봄서비스에 대해 모두 기재해 주십시오. 자녀의 외할머니가 오전에, 친할머니가 오후에 자녀를 돌보아주시는 경우 이를 구분하여 각각 '③ 조부모' 돌봄으로 적어 주십시오.

문32-2.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돌보고 있는 자녀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문32-3. 개별돌봄서비스 이용비용은 월 평균 얼마입니까?

※ 비용은 월 평균 기준으로 본인 부담금만 응답해 주십시오. 별도로 비용 지불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0'을 적어주십시오.

문32-4. 해당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가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은 주당 몇 시간입니까?

※ 자녀를 직접적으로 돌보지 않고 가사일을 하거나 대기하는 시간을 포함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문32-1 보기]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

- ①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기타 공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포함) ② 민간 육아도우미 ③ 조부모 ④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

문32-1. 개별돌봄 서비스제공자	문32-2. 동시 돌봄 자녀 (모두 선택)	문32-3. 이용 비용	문32-4. 돌봄서비스제공의 노동시간
() →②민간 육아도우미 선택 시 문32-5 응답	1. 첫째 자녀 4. 넷째 자녀 2. 둘째 자녀 5. 다섯째 자녀 3. 셋째 자녀 6. 여섯째 자녀	(월 평균)원	(주당 평균)시간
() →②민간 육아도우미 선택 시 문32-5 응답	1. 첫째 자녀 4. 넷째 자녀 2. 둘째 자녀 5. 다섯째 자녀 3. 셋째 자녀 6. 여섯째 자녀	(월 평균)원	(주당 평균)시간
() →②민간 육아도우미 선택 시 문32-5 응답	1. 첫째 자녀 4. 넷째 자녀 2. 둘째 자녀 5. 다섯째 자녀 3. 셋째 자녀 6. 여섯째 자녀	(월 평균)원	(주당 평균)시간
() →②민간 육아도우미 선택 시 문32-5 응답	1. 첫째 자녀 4. 넷째 자녀 2. 둘째 자녀 5. 다섯째 자녀 3. 셋째 자녀 6. 여섯째 자녀	(월 평균)원	(주당 평균)시간
() →②민간 육아도우미 선택 시 문32-5 응답	1. 첫째 자녀 4. 넷째 자녀 2. 둘째 자녀 5. 다섯째 자녀 3. 셋째 자녀 6. 여섯째 자녀	(월 평균)원	(주당 평균)시간

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지

문32-5. [문32-1에 ②를 응답한 경우] 민간육아도우미는 어떤 경로로 구하셨습니까?

1. 사실인력전문소개업소
2. 지인소개
3. 구직광고(지역신문 등)
4. 인터넷 기반 돌봄서비스플랫폼 (*썬터, *터넷 등)
5. 여성인력 교육훈련기관
6. 기타

문32-6.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귀덕에서 개별 돌봄을 제공하던 서비스 제공자가 변동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답해 주십시오.(예: 원래 민간육아도우미가 영아를 돌보았으나 민간육아도우미의 확진으로 돌보지 못하게 된 기간에 다른 민간 육아도우미 또는 조부모 등으로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를 변경한 경우)

문32-7.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귀덕에서 개별 돌봄을 제공하던 서비스 제공자가 동시에 돌보고 있는 자녀수가 변동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답해 주십시오.(예: 유치원을 다니는 유아, 영아 중 개별돌봄서비스 인력이 영아만 돌보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유치원 휴원으로 개별돌봄서비스 인력이 유아와 영아 2명을 동시에 돌보게 된 경우 등)

문32-8.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귀덕의 개별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이 변동된 적이 있는지에 대해 답해 주십시오. (예: 개별 돌봄 서비스 인력이 기관을 다니는 유아의 오후 3~4시간을 돌봐주다가 코로나19로 기관이 휴원하면서 전일 돌봄을 하게 된 경우 등)

문32-9.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귀덕에서 지출하는 개별 돌봄 서비스 비용이 변동된 적이 있는지에 대해 답해 주십시오. (예: 1자녀만 돌보던 개별돌봄서비스 인력이 코로나19로 인해 다니던 기관이 휴원한 다른 자녀까지 돌보면서 추가 비용이 들어간 경우, 민간육아도우미가 돌보다가 민간육아도우미 확진으로 조부모가 돌보게 되면서 돌봄 비용이 줄어든 경우, 이용 시간이 길어져 비용이 증가한 경우 등)

[코로나 19로 인한 개별돌봄서비스 이용의 변화 경험]

문32-6.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 변화 경험 여부	문32-7. 개별돌봄서비스 인력의 동시 돌봄 자녀 수 변화 경험	문32-8. 개별돌봄서비스의 이용시간 변화 (주당 평균시간 기준)	문32-9. 개별돌봄서비스 이용비용 변화 경험 (월평균 기준)
① 있음	① 동시 돌봄 자녀수가 늘어난 적 있음 ② 동시 돌봄 자녀수가 줄어든 적 있음	① 이용시간이 증가한 경험이 있음 ② 이용시간이 감소한 경험이 있음	① 비용 증가 경험 있음 ② 비용 감소 경험 있음
② 없음	③ 변화 경험 없음	③ 변화 경험 없음	③ 변화 경험 없음



IV. 가정 내 부모 직접 돌봄 및 부모 지원 서비스

[가정 내 양육 지원_부모 직접 돌봄]

문33. 최근 한 달 동안(만약 방학 기간이라면 방학 전 한 달) 귀댁의 전체 자녀들의 가장 평균적인 한 주를 생각하시면서 부모가 직접 돌보지 않더라도 아이가 가정 내 머물렀던 시간을 기입해 주십시오.
※ 자녀의 야간 수면 시간은 제외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해당 자녀	문33-1. 가정내 양육시간	문33-2. 가정내 양육시간
첫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시간	주말 하루 평균 ()시간
둘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시간	주말 하루 평균 ()시간
셋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시간	주말 하루 평균 ()시간
넷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시간	주말 하루 평균 ()시간
다섯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시간	주말 하루 평균 ()시간
여섯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시간	주말 하루 평균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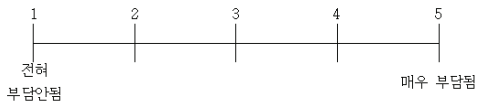
문34. 귀댁의 자녀가 가정 내 머무르는 동안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함께 계셨던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최근 한 달 동안 귀댁의 전체 자녀들의 가장 평균적인 한 주를 생각하시면서 응답해 주십시오

해당 자녀	문34-1. 부모직접돌봄시간	문34-2. 부모직접돌봄시간
첫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시간	주말 하루 평균 ()시간
둘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시간	주말 하루 평균 ()시간
셋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시간	주말 하루 평균 ()시간
넷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시간	주말 하루 평균 ()시간
다섯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시간	주말 하루 평균 ()시간
여섯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시간	주말 하루 평균 ()시간

문35. 귀댁의 자녀가 가정 내 머물렀던 시간 중에서 전자 기기(TV, PC, 전자기기 등)를 이용한 시간은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됩니까?
※ 최근 한 달 동안 귀댁의 전체 자녀들의 가장 평균적인 한 주를 생각하시면서 응답해 주십시오

해당 자녀	문35-1. 미디어 이용시간	문35-2. 미디어 이용시간
첫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시간	주말 하루 평균 ()시간
둘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시간	주말 하루 평균 ()시간
셋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시간	주말 하루 평균 ()시간
넷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시간	주말 하루 평균 ()시간
다섯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시간	주말 하루 평균 ()시간
여섯째 자녀	평일 하루 평균 ()시간	주말 하루 평균 ()시간

문36. 귀하는 가정 내에서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어느 정도 양육 부담을 느끼십니까?



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지

문36-1. 귀댁에서는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기 위한 용도로 자녀의 전자 기기(TV, PC, 전자기기 등)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문36-2. [문36에서 3이상에 응답한 경우] 가정 내 양육에 대해 부담을 느끼시는 이유를 순서대로 2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 양육 과정(아이가 출거나 떼를 씹)에서 생기는 스트레스 때문에
2. 육아가 체력적으로 힘이 들어서
3. 가사와 육아를 동시에 병행하기 힘들어서
4. 육아 고민 등을 상담할 수 있는 성인들과의 교류가 줄어들어서
5. 아이와 어떻게 놀아줘야 할지를 모르겠어서
6. 나만의 시간이 없어서
7. 기타()

문37. 귀하는 최근 3개월 동안 다음과 같은 육아 관련 대여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으십니까?

<육아서비스 종류>

1. 장난감 대여
2. 도서 대여

문37-1. 해당 육아서비스(혹은 활동)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문37-2. 해당 육아서비스(혹은 활동)를 제공한 곳은 어디입니까? 서비스를 이용하셨던 기관에 대해 모두 골라 주십시오.

문37-3. 해당 육아서비스(혹은 활동)를 이용하는 비용은 얼마였습니까?

※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은 경우 0원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문37-4. 해당 육아서비스(혹은 활동)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육아서비스 종류	문37. 이용여부	문37-1. 이용 빈도	문37-2. 제공기관 (중복 선택 가능)	문37-3. 이용비용	문37-4. 이용 만족도
장난감 대여	1.이용함 → 2.이용안함	1. 매일 2. 주 3~4회 3. 주 1~2회 4. 격주 1회 5. 월 1회 정도 6. 분기별 1회	1.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2. 육아종합지원센터 3.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시설 4. 주민센터 등 지자체 및 지자체 위탁 기관 () 5. 지역아동센터 6. 민간사설업체(민간기업, 사설업체) 7. 기타 ()	월 () 만원	1.매우 만족 2.대체로 만족 3.보통 4.대체로 불만족 5.매우 불만족
도서 대여	1.이용함 → 2.이용안함	1. 매일 2. 주 3~4회 3. 주 1~2회 4. 격주 1회 5. 월 1회 정도 6. 분기별 1회	1.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2. 육아종합지원센터 3.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시설 4. 주민센터 등 지자체 및 지자체 위탁 기관 () 5. 지역아동센터 6. 민간사설업체(민간기업, 사설업체) 7. 기타 ()	월 () 만원	1.매우 만족 2.대체로 만족 3.보통 4.대체로 불만족 5.매우 불만족

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지

문38. 귀하는 최근 3개월 동안 가정에서 육아 물품 제공 서비스(혹은 활동)를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육아서비스 종류>

1. 교재/교구 물품 꾸러미 (장난감, 도서, 놀이키트, 만들기 키트, 문구류 등)

문38-1. 해당 육아서비스(혹은 활동)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문38-2. 해당 육아서비스(혹은 활동)를 제공한 곳은 어디입니까? 서비스를 이용하셨던 기관에 대해 모두 골라 주십시오.

문38-3. 해당 육아서비스(혹은 활동)를 이용하는 비용은 얼마였습니까?

※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은 경우 0원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문38-4. 해당 육아서비스(혹은 활동)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육아서비스 종류	문38. 이용여부	문38-1. 총 이용 횟수	문38-2. 제공기관 (중복 선택 가능)	문38-3. 이용비용	문38-4. 이용 만족도
교재/교구 물품 꾸러미	1.이용함 → 2.이용안함	최근 3개월간 총 ()회	1.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2. 육아종합지원센터 3.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시설 4. 주민센터 등 지자체 및 지자체 위탁 기관 5.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6. 민간사설업체(민간기업, 사설업체) 7. 기타 ()	월 () 만원	1.매우 만족 2.대체로 만족 3.보통 4.대체로 불만족 5.매우 불만족

문39. 귀하는 상난감이나 도서 대여, 육아 꾸러미 제공 등과 같은 육아 지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정부가 우선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	-----	-----------------------

1. 대여 기관이나 서비스 제공 기관 접근성이 개선되었으면 (배송 서비스 포함)
2. 부모가 아이의 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교육이나 지도서 등이 함께 제공되었으면
3. 물품/프로그램 활용법을 쌍방향 소통이 되는 형태로 제공해 줬으면 (온라인 수업 포함)
4. 물품 품질이나 프로그램 내용이 좀 더 질적으로 개선되었으면
5. 물품/프로그램이 좀 더 다양해서 선택의 폭이 넓었으면
6. 소독 및 위생 관리가 철저히 되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었으면
7.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었으면
8. 기타 ()

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지

[가정 내 양육 지원_부모 지원 서비스(부모교육, 부모상담, 육아멘토 등)]

문40. 귀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다음과 같은 부모 지원 서비스(부모교육, 부모 상담, 육아멘토 등)를 이용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문40-1. 최근 3개월 이내에 이용하신 부모 지원 서비스는 총 몇 회입니까?

문40-2. 해당 부모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곳은 어디입니까?

※ 여러 번인 경우에는 가장 자주 이용한 곳을 기준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문40-3. 해당 부모 지원 서비스는 어떠한 방식(대면/비대면)으로 이뤄졌습니까?

문40-4. 해당 부모 지원 서비스는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교육 시간이 많은 순서대로 2개 분야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문40-5. 해당 부모 지원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였습니까?

문40-6. 해당 부모 지원 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문40-2 보기] 제공기관	[문40-4 보기] 서비스 내용
①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① 영유아 성장 발달 관련 정보
② 육아종합지원센터	② 양육 방법(대화법, 놀이방법 포함)
③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시설	③ 보호자의 역할
④ 주민센터 등 지자체 및 지자체 위탁 기관	④ 영유아의 인권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⑤ 지역아동센터	⑤ 가족유리 및 예절
⑥ 민간사설업체(민간기업, 사설업체)	⑥ 가족의 건강·영양·안전교육
⑦ 기타 ()	⑦ 미디어·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⑧ 부모 정서 상담 및 지원
	⑨ 기타 ()

항목	부모교육	부모 상담	육아 멘토 (예 : 보육반장 등)
문40. 이용여부	1.이용함 2.이용안함	1.이용함 2.이용안함	1.이용함 2.이용안함
문40-1. 이용횟수	총 () 회	총 () 회	총 () 회
문40-2. 제공기관 (보기 참조)	☐	☐	☐
문40-3. 비대면 서비스 여부	1.대면 2.비대면 3.대면+비대면	1.대면 2.비대면 3.대면+비대면	1.대면 2.비대면 3.대면+비대면
문40-4. 서비스 내용 (보기 참조)	1순위 2순위	☐ ☐	☐ ☐
문40-5. 유료서비스 여부	1.유료 2.무료	1.유료 2.무료	1.유료 2.무료
문40-6. 만족도	1.매우 만족 2.대체로 만족 3.보통 4.대체로 불만족 5.매우 불만족	1.매우 만족 2.대체로 만족 3.보통 4.대체로 불만족 5.매우 불만족	1.매우 만족 2.대체로 만족 3.보통 4.대체로 불만족 5.매우 불만족

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지

문41. 귀하는 부모교육이나 상담 등과 같은 부모 지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정부가 우선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	-----	-----------------------

- | | |
|----------------------|-------------------------------------|
| 1. 일대일 서비스 확대(맞춤서비스) | 7. 서비스에 대한 홍보 강화 |
| 2. 쌍방향 서비스 확대 | 8.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시간대 확대 혹은 변경 |
| 3. 프로그램 확대 | 9.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
| 4. 서비스 제공 기관 접근성 개선 | 10. 기타 () |
| 5.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지원 강화 | 11. 개선 필요 사항 없음 |
| 6.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 |



V. 자녀 양육에 대한 의견 및 요구 (영유아)

※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 모든 응답자가 응답해 주십시오.

문42. 귀덕에서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느꼈던 육아지원 분야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1. 기관보육·교육(어린이집, 유치원) 서비스 → 문42-1로
2. 개별 돌봄 서비스 → 문42-2로
3. 시간제 이용·기타 서비스 → 문42-3으로
4. 육아휴직 등 부모의 자녀 돌봄 시간 지원 → 문42-4로
5.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 → 문42-5로
6.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도서 및 장난감 대여 등 양육 물품 지원 → 문42-6으로

문42-1. [기관보육·교육서비스를 선택한 경우] 귀하는 기관보육·교육서비스에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답하셨습니다. 귀하는 기관보육·교육서비스 정책 분야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유치원·어린이집 설치의 지역 간 격차 해소 | 6. 인력 지원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 감축 |
| 2.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충 | 7. 아동학대 등 근절 |
| 3. 보육료·교육비 지원 안정화 | 8. 부모 참여 프로그램 확대 |
| 4. 시설 등 물리적 환경 개선 | 9. 기타() |
| 5. 보육·교육과정(표준보육과정, 누리과정) 개선 | 10. 개선할 부분 없음 |

문42-2. [개별 돌봄 서비스를 선택한 경우] 귀하는 개별 돌봄 서비스에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답하셨습니다. 귀하는 개별 돌봄 서비스 정책 분야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공공 개별 돌봄 인력(ex. 아이돌보미) 양성 확대
2. 공공 개별 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 확대
3. 공공 개별 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 수준 제고
4. 공공 개별 돌봄 서비스의 유형 다양화
5. 공공 개별 돌봄 인력의 전문성 제고
6. 긴급 돌봄에 대한 대응성 제고(이용 필요 시 즉각적 연계 강화)
7. 기타()
8. 개선할 부분 없음

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지

문42-3. [시간제 이용·기타 서비스를 선택한 경우] 귀하는 시간제 이용, 기타 서비스에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답하셨습니다. 귀하는 시간제 이용·기타 서비스 정책 분야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서비스의 다양성 확대
2. 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ex. 지역사회투자서비스 사업 비용 지원 대상 확대)
3. 서비스 수준 제고
4. 적극적 홍보로 서비스 내용에 대한 인지도 제고
5. 기타()
6. 개선할 부분 없음

문42-4. [부모의 돌봄 시간 지원을 선택한 경우] 귀하는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부모의 육아 시간 지원 서비스에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답하셨습니다. 귀하는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부모의 육아 시간 지원 서비스 정책 분야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에 연동된 급여 수준 제고
2. 근로시간 단축 등에 연동된 복지(휴가 사용), 승급 등 인사관련 수준의 명확한 기준 설정
3.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홍보 강화)
4. 제도 이용의 일부 자동화·강제화(ex. 자동육아휴직, 아빠의 달 이용 강제화)
5.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직장 지원 강화(대체인력 풀 구축 및 연계, 대체인력 비용 지원 수준 제고 등)
6. 이용 대상 자녀 연령기준 상향
7. 서비스 다양성 강화(다양한 형태의 유연 근무, 휴가 휴직 형태 도입)
8. 기타()
9. 개선할 부분 없음

문42-5.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을 선택한 경우] 귀하는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등) 서비스에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답하셨습니다. 귀하는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 정책 분야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현금 지원 수준 제고
2. 자격 충족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지급되는 시스템 구축
3. 양육 비용 지원 대상 확대(지원 대상 연령 확대 등)
4. 자녀 연령별 양육비가 많이 소요되는 핵심 범주에 대한 집중 양육비 제공
5. 기타()
6. 개선할 부분 없음

문42-6. [양육물품 지원을 선택한 경우] 귀하는 물품 지원(도서 대여, 완구, 장난감, 기저귀, 분유 등) 서비스에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답하셨습니다. 귀하는 양육 물품 지원 정책 분야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물품 지원 서비스 분야 다양화
2. 물품 지원량 실제 필요한 수준으로 제고
3. 서비스 홍보 강화(자격 충족시 대상자 통보, 이용 의향 접수)
4. 물품 당 지원 기간 연장(최대 필요 기간까지 확대)
5. 지원 자격기준 확대(소득 기준 상향 등)
6. 물품지원 전달체계의 접근성 확대(물품 대여 기관의 확충 등)
7. 기타()
8. 개선할 부분 없음

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지

문43. 귀하는 자녀의 임신출산부터 영아, 유아에 이르는 시기 중 정부의 지원이 가장 부족한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해당 시기에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은 무엇입니까?

- ※ 비용 지원: 자녀 출산양육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현금 혹은 바우처 형태의 현금성 지원
예시: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 서비스 지원: 부모의 자녀 돌봄에 대한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서비스의 직접 공급 또는 이러한 서비스 이용 비용 (일부 또는 전부) 지원
예시: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관, 아이돌보미 등 개별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등
※ 물품지원: 자녀출산양육에 필요한 직접적 물품제공 형태의 지원
예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영양플러스사업, 장난감도서 대여 등
※ 시간 지원: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휴가휴직, 유연근무 형태의 시간 지원
예시: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육아시간 제공 등

43-1. 육아지원이 가장 부족한 시기	문43-2. 개선이 필요한 지원 범주		
	문43-2-1. 임산출산 시기의 부족한 육아지원 범주	문43-2-2. 영아기의 부족한 육아지원 범주	문43-2-3. 유아기의 부족한 육아지원 범주
1. 임신·출산 시기 2. 영아기(출생~24개월 이하) 3. 유아기(24개월~초등학교 입학 전)	1. 비용지원 2. 서비스 지원 3. 물품지원 4. 시간지원	1. 비용지원 2. 서비스 지원 3. 물품지원 4. 시간지원	1. 비용지원 2. 서비스 지원 3. 물품지원 4. 시간지원

문44. 7세 미만 취학전 아동에 대한 비용지원은 크게 어린이집·유치원 비용지원/양육수당(영아수당) 및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22년 출생아부터 지급) 지급으로 이루어집니다. 귀댁에서 받는 해당 비용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비용 지원 정책	문44-1. 수혜 여부	받아 본 지원에 대해서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44-2. 비용 지원 정책 만족도	
1. 유치원 비용 지원	1. 현재 이용 중이거나 이용한 적이 있음 → 2. 이용한 적 없음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2. 어린이집 비용 지원	1. 현재 이용 중이거나 이용한 적이 있음 → 2. 이용한 적 없음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3. 양육수당(영아수당) ※ 2022년부터 영아수당으로 통합	1. 받아본 적 있음 → 2. 받아본 적 없음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4. 아동수당	1. 받아본 적 있음 → 2. 받아본 적 없음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5. 첫만남 이용권	1. 아직 신청하지 않았음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있는 경우) 2. 신청하여 지급을 기다리고 있음 3. 신청하여 지급 받았음 → 4. 해당 없음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없는 경우)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VI. 돌봄 공백

문45. 귀국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영유아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지 못해 당장 자녀돌봄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우(돌봄 공백)가 있었습니까? 귀국의 모든 영유아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 그렇다 (→문 45-1로) 2. 아니다 (→문 46으로)

문45-1. 그와 같은 돌봄 공백의 상황 중 코로나19로 인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어떠한 경우였습니까? 해당되는 경우를 모두 답해주시시오.

1. 자녀를 돌보아준 인력(육아도우미, 조부모 등)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돌봄 불가
2. 자가가 이용하는 기관의 코로나19로 인한 휴원으로 인한 등원 불가
3. 자녀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외부인력의 도움 또는 기관 등원 불가
4. 부모의 코로나19 확진
5. 기타()

문46. 향후 코로나19와 같이 사회적 긴급 상황으로 인해 기관 혹은 학교 등의 운영이 중단되는 등 긴급하게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귀하는 어떠한 방식으로 자녀(들) 돌보기를 가장 희망하십니까?

1순위		2순위	
-----	---	-----	---

1. 부모 직접 돌봄 → 맞벌이 가구인 경우 문46-1로, 외벌이 가구는 문47로
2. 조부모 등 친인척의 개별돌봄 → 문47로
3. 아이돌보미 등 타인에 의한 개별돌봄 → 문47로
4. 지역공동체를 통한 돌봄(부모들끼리 순번제 돌봄) → 문47로
5. 긴급돌봄 센터 등 국가가 지정한 돌봄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포함) → 문47로
6. 아이들끼리 있어도 됨 → 문47로
7. 기타 () → 문47로

문46-1. [맞벌이 가구만] 귀하는 어떤 방식으로 직접 돌보시기를 희망하십니까?

1. 부모 중 누구든 연월차 휴가를 사용함
2. 부모 중 누구든 가족돌봄휴가 혹은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함
3. 부모 중 누구든 육아휴직을 사용함
4. 부모 중 누구든 재택근로를 사용함
5. 아이를 일터에 데려감
6. 기타 ()

문47. 향후 사회적으로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휴원 혹은 학교 휴교 등의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를 가정할 때, 현행 육아지원 정책에서 개선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가족돌봄휴가제도
2. 육아휴직제도
3. 유연근로제도
4. 아이돌봄지원제도
5. 기관 돌봄
6. 지역공동체 및 기타 아동 지원
7. 기타 ()

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지

문47-1. 문47에서 선택하신 제도가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떠한 부분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개선 사항부터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	-----	-----------------------

1. 휴가 사용 일수의 연장
2. 비용 지원의 확대
3. 신청 절차의 간소화
4. 자격해당자의 제도 사용 의무화(정부가 강제)
5. 어떤 제도이든 신속 대응 체계의 마련
6. 방역 체계를 보강하여 기존 이용기관이 휴원하지 않고 운영
7. 학습 결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지원 체계 구축
8. 돌봄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급식 지원 등)
9. 기타 ()

문48. 지난 1년간 경험한 코로나19와 같은 위험상황에서의 자녀돌봄과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자녀돌봄에 대한 수요와 요구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전혀 다르지 않다 | ② 별로 다르지않다 |
| ③ 보통 | ④ 어느정도 다르다 |
| ⑤ 매우 다르다 | |
|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_____) | |

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지

※ 영유아 자녀용 설문은 아동 단위로 응답하며,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2016~2022년 출생)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영유아 자녀용	자녀번호	해당자녀 생년월일
------------	------	--------------



I. 영유아 자녀 육아서비스 이용 및 수요

※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2016~2022년 출생)의 육아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 자녀 수만큼 반복해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1. 귀 영유아 자녀는 최근 한 달 내에 다음의 반일제 이상 기관 중 이용한 육아 서비스가 있습니까? 이용한 반일제 이상 기관을 선택해 주세요. 한 달 이내에 변동 사항이 있다면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1. 어린이집 | → 문2 응답 후 p.31의 I-1. '어린이집' 설문으로 |
| 2. 유치원 | → 문2 응답 후 p.34의 I-2. '유치원' 설문으로 |
| 3.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 | → 문2 응답 후 p.37의 I-3. '반일제 이상 기관' 설문으로 |
| 4. 반일제 이상 기타 기관(유아스포츠탄, YMCA 등) | → 문2 응답 후 p.37의 I-3. '반일제 이상 기관' 설문으로 |
| 5.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한 적 없음 | → 문2 응답 후 p.40의 I-4. '문화센터' 설문으로 |

문2. 귀 영유아 자녀는 최근 3개월 이내 다음의 육아서비스 중 이용한 서비스가 있습니까? 각 서비스에 대해 이용 여부를 응답해 주십시오.

※ 축구클럽 등의 수업은 개인 및 그룹지도가 아닌 학원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이용 여부	
①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우리동네커뮤니티 등	1. 이용함	2. 이용 안 함
② 문화센터 등	1. 이용함	2. 이용 안 함
③ 예체능학원 (태권도, 수영, 축구교실, 발레, 피아노, 미술 등)	1. 이용함	2. 이용 안 함
④ 학습관련 학원 (영어, 수학, 국어, 과학 등)	1. 이용함	2. 이용 안 함
⑤ 기타 사교육 (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구활동교육, 비방문 학습지, 비방문형 교구활동교육, 개인 및 그룹지도,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1. 이용함	2. 이용 안 함

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지



I - 1. 어린이집 이용 자녀에 대한 설문입니다.

문3. 현재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 모를 경우, 어린이집 이름 기입

- | | | |
|---------|--------------|----------|
| 1. 국공립 | 2. 사회복지법인 | 3. 법인·단체 |
| 4. 민간 | 5. 가정 | 6. 직장 |
| 7. 부모협동 | 8. 모름(기관명:) | |

문4. 평상시에 이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 집에서 해당기관으로 출발하는 시간과 기관에 도착하는 시간, 기관에서 나오는 시간, 집에 도착하는 시간을 24시간 단위로 표기

(집) 출발시간	등원시간	하원시간	(집) 도착시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문4-1. 현재 이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많이 늘리고 싶다 → 문4-2로
-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조금 늘리고 싶다 → 문4-2로
- 현재 이용 시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 문5으로
-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조금 줄이고 싶다 → 문4-3으로
-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많이 줄이고 싶다 → 문4-3으로

문4-2. 늘리고 싶다면, 주당 얼마나 늘리고 싶으십니까?

주당 ()시간

문4-2-1.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늘리고 싶음에도 현재만큼만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용 자격 때문에
- 더 이용하는 게 웬지 눈치가 보여서
-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되어서
- 아이가 혼자 남는 걸 싫어해서
- 추가 이용 비용이 부담되어서
- 다른 기관(ex. 학원), 사교육 등 다른 일정 때문에
- 오래 이용하는 것이 아이에게 안 좋을 것 같아서
- 특별활동이 운영되지 않아 아이가 지루해해서
- 기타()

문4-3. 줄이고 싶다면, 주당 얼마나 줄이고 싶으십니까?

주당 ()시간

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지

문5. 다음의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된 비용 지출을 기입해 주십시오. 분기별, 연 1회 납부의 경우 월평균 비용으로 환산해서 기입해 주십시오. ※2022년 기준으로 기입

문5-1-5-2. 귀댁의 해당 자녀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에서는 현재 특별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다면 귀 자녀는 특별활동(한글, 영어, 미술, 체육, 음악, 과학, 수학, 교구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몇 개 과목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 없으면 0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항목	특별활동		
	문5. 비용	문5-1. 운영여부	문5-2. 과목 수
1. 정보보조금 제외 추가 보육료	월 ()원	1. 운영함 → 2. 운영하지 않음	월 ()개
2. 그 밖의 비용 (현장학습비, 행사비, 차량운행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입학금 등)	월 ()원		
3. 시간연장형 보육 서비스 (야간보육, 휴일보육, 24시간보육)	월 ()원	1. 운영함 → 2. 운영하지 않음	월 ()개
4. 어린이집 특별활동 (한글, 영어, 미술, 체육, 음악, 과학, 수학, 교구활동 등)	월 ()원		
5. 총 비용 (※ 세부 비용을 모르는 경우 총비용으로 기입해 주세요)	월 ()원		

문6-1-6-2. 현재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 특별활동(한글, 영어, 미술, 체육, 음악, 과학, 수학, 교구활동 등)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다고 가정했을 때와 비교하여 차이가 있습니까?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다면 몇 개의 특별활동을 이용하실 예정이었습니까?

문6-1. 차이 여부	문6-2. 특별활동 이용 계획 개수
1. 차이가 있다 → 문6-2로	월 ()개
2. 차이가 없다 → 문7로	
3. 잘 모르겠다 → 문7로	

문7. 자녀를 위해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문8. 해당 자녀의 연령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이 귀하가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입니까?

1. 예 → 문9로 2. 아니오 → 문8-1로

문8-1. 그렇다면, 해당 자녀의 연령에서 귀하가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낮 시간 기준)

1. 유치원 이용
2. 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3.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봄
4. 가정에서 부모가 주로 돌보며 시간제로 양육지원 이용
(ex. 시간제 보육, 조부모·육아도우미의 개별 돌봄 시간제로 이용)
5. 가정에서 조부모, 육아도우미 등이 부모 대신 돌봄
6. 기타()

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지

문8-2. 현재 귀하가 가장 원하는 형태의 양육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비용 부담 때문에
2. 일을 하고 있어서
3.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코로나19로 운영 중단, 대기가 길어서 등)
4. 집 근처에서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또는 부족하여서)
5.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이용 신청을 했으나 추첨에서 떨어져서)
6. 아이를 맡길만한 인력을 찾지 못해서(조부모 부재 포함)
7. 원하는 서비스 수준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이 달라서
(ex. 이용 가능 시간, 이용 가능 기간, 이용 형태 등)
8. 서비스 이용자격이 해당하지 않아서(소득 기준, 연령기준, 각종 지침 등에 비해당)
9. 기타()

문9. 지난 3개월간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으로부터 온라인 수업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1. 있음 → 문9-1로
2. 없음 → 문10 응답 후 40페이지로(I-4.문화센터)

문9-1. 어린이집으로부터 온라인 수업은 월 평균 몇 회 정도 받으셨습니까?

월 평균 ()회

문9-2. 어린이집의 온라인 수업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문10. 지난 1년간 아래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이유로 이 자녀가 어린이집 등원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까?

항목	보기
10-1. 이 자녀가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어린이집을 등원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있음 2. 없음
10-2. 동거가족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이 자녀가 어린이집을 등원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있음 2. 없음
10-3.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코로나19로 인해 휴원하여 이 자녀가 어린이집을 등원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있음 2. 없음
※ 10-1, 10-2, 10-3 중 해당하는 경우가 없는 경우 40페이지(I-4.문화센터)로 이동해 주십시오.	
10-4. (10-1, 10-2, 10-3 중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로 인해 이 자녀가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한 기간은 총 ()일 지난 1년간 총 며칠입니까?	

※ 어린이집 이용 설문지를 모두 완료하신 후, 40페이지(I-4.문화센터)로 이동해 주십시오.

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지



I-2. 유치원 이용 자녀에 대한 설문입니다.

문11. 현재 이용하고 있는 유치원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1. 국·공립 2. 사립

문12. 평상시에 이 자녀가 유치원을 이용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집에서 해당기관으로 출발하는 시간과 기관에 도착하는 시간, 기관에서 나오는 시간, 집에 도착하는 시간을 24시간 단위로 표기

(집)출발시간	등원시간	하원시간	(집)도착시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문12-1. 현재 이 자녀의 유치원 이용 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많이 늘리고 싶다 → 문12-2로
 2.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조금 늘리고 싶다 → 문12-2로
 3. 현재 이용 시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 문13으로
 4.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조금 줄이고 싶다 → 문12-3으로
 5.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많이 줄이고 싶다 → 문12-3으로

문12-2. 늘리고 싶다면, 주당 얼마나 늘리고 싶으십니까?

주당 ()시간

문12-2-1. 유치원 이용 시간을 늘리고 싶음에도 현재만큼만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이용 자격 때문에
 2. 더 이용하는 게 웬지 눈치가 보여서
 3.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되어서
 4. 아이가 혼자 남는 걸 싫어해서
 5. 추가 이용 비용이 부담되어서
 6. 다른 기관(ex. 학원), 사교육 등 다른 일정 때문에
 7. 오래 이용하는 것이 아이에게 안 좋을 것 같아서
 8. 특별활동이 운영되지 않아 아이가 지루해해서
 9. 기타()

문12-3. 줄이고 싶다면, 주당 얼마나 줄이고 싶으십니까?

주당 ()시간

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지

문13. 다음의 유치원 이용과 관련된 비용 지출을 기입해 주십시오. 분기별, 연 1회 납부의 경우 월평균 비용으로 환산해서 기입해 주십시오. ※ 2022년 기준으로 기입

문13-1~13-2. 귀댁의 해당 자녀가 이용하는 유치원에서는 현재 방과후 과정과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다면 귀 자녀는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한글, 영어, 미술, 체육, 음악, 과학, 수학, 교구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과목 수는 몇 개입니까? (※ 없으면 0을 기입해 주십시오)

항목	문13. 비용	문13-1. 운영여부	문13-2. 과목 수
1. 정부보조금 제외 추가 교육비	월 ()원		
2. 그 밖의 비용(현장학습비, 행사비, 통학차량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원복비, 입학금 등)	월 ()원		
3. 방과후 과정 (아침돌봄, 방과후 과정, 저녁돌봄 ※ 특성화프로그램 비용 제외)	월 ()원	1. 운영함 2. 운영하지 않음	월 () 개
4.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한글, 영어, 미술, 체육, 음악, 과학, 수학, 교구활동 등)	월 ()원	1. 운영함 2. 운영하지 않음	
5. 총 비용 (※ 세부 비용을 모르는 경우 총 비용을 기입해 주세요)	월 ()원		

문14-1~14-2. 현재 이용하고 있는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한글, 영어, 미술, 체육, 음악, 과학, 수학, 교구활동 등)은 코로나 19의 영향이 없었다고 가정했을 때와 비교하여 차이가 있습니까?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다면 몇 개의 특별활동을 이용하실 예정이었습니까?

문14-1. 차이 여부	문14-2. 특별활동 이용 계획 개수
1. 차이가 있다 → 문14-2로 2. 차이가 없다 → 문15로 3. 잘 모르겠다 → 문15로	월 () 개

문15. 자녀를 위해 이용하는 유치원의 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문16. 해당 자녀의 연령에서 유치원을 이용하는 것이 귀하가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입니까?

1. 예 → 문17로 2. 아니오 → 문16-1로

문16-1. 그렇다면, 해당 자녀의 연령에서 귀하가 가장 원했던 양육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낮시간 기준)

1. 어린이집 이용
2. 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3.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봄
4. 가정에서 부모가 주로 돌보며 시간제로 양육 지원 이용
(ex. 시간제보육 이용, 조부모·육아도우미의 개별 돌봄 시간제 이용)
5. 가정에서 조부모, 육아도우미 등이 부모 대신 돌봄
6. 기타()

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지

문16-2. 현재 귀하가 가장 원하는 형태의 양육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비용 부담 때문에
2. 일을 하고 있어서
3.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코로나19로 운영 중단, 대기가 길어서 등)
4. 집 근처에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또는 부족하여서)
5.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이용 신청을 했으나 추첨에서 떨어져서)
6. 아이를 맡길만한 인력을 찾지 못해서(조부모 부재 포함)
7. 원하는 서비스 수준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이 달라서
(ex. 이용 가능 시간, 이용 가능 기간, 이용 형태 등)
8. 서비스 이용 자격이 해당하지 않아서(소득 기준, 연령기준, 각종 지침 등에 비해당)
9. 기타()

문17. 지난 3개월간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으로부터 온라인 수업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1. 있음 → 문17-1로
2. 없음 → 문18 응답 후 40페이지로 (I-4.문화센터)

문17-1. 유치원으로부터 온라인 수업은 월 평균 몇 회 정도 받으셨습니까?

월 평균 ()회

문17-2. 유치원의 온라인 수업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문18. 지난 1년간 아래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이유로 이 자녀가 유치원 등원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까?

항목	보기
18-1. 이 자녀가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유치원을 등원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있음 2. 없음
18-2. 동거가족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이 자녀가 유치원을 등원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있음 2. 없음
18-3.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이 코로나19로 인해 휴원하여 이 자녀가 유치원을 등원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있음 2. 없음
※ 18-1, 18-2, 18-3 중 해당하는 경우가 없는 경우 40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8-4. (18-1, 18-2, 18-3 중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로 인해 이 자녀가 유치원에 등원하지 못한 기간은 총 ()일 지난 1년간 총 며칠입니까?	

※ 유치원 이용 설문을 모두 완료하신 후, 40페이지(I-4.문화센터)로 이동해 주십시오.



I -3.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자녀에 대한 설문입니다.

문19. 현재 이용하고 있는 반일제 이상 기관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1. 영어학원(키즈컬리지, YBM, ECC, SLP 등)
2. 미술학원, 음악학원 등 예능 학원
3. 놀이학원 (크라벨, 위버지니어스, 하바 등)
4. 체육학원 (YMCA 아기스포츠탄, 유아체육단 등)
5. 기타(어디:)

문20. 평상시에 이 자녀가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 집에서 해당기관으로 출발하는 시간과 기관에 도착하는 시간, 기관에서 나오는 시간, 집에 도착하는 시간을 24시간 단위로 표기

(집) 출발시간	등원시간	하원시간	(집) 도착시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문20-1. 현재 이 자녀의 기관 이용 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많이 늘리고 싶다 → 문20-2로
2.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조금 늘리고 싶다 → 문20-2로
3. 현재 이용 시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 문21로
4.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조금 줄이고 싶다 → 문20-3으로
5.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많이 줄이고 싶다 → 문20-3으로

문20-2. 늘리고 싶다면, 주당 얼마나 늘리고 싶으십니까?

주당 ()시간

문20-2-1.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시간을 늘리고 싶음에도 현재만큼만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아이가 혼자 남는 걸 싫어해서
2. 더 이용하는 게 원치 눈치가 보여서
3.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이고 싶어서
4. 추가 이용 비용이 부담되어서
5. 다른 기관(ex. 학원), 사교육 등 다른 일정 때문에
6. 오래 이용하는 것이 아이에게 안 좋을 것 같아서
7. 방과후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아 아이가 지루해해서
8. 기타()

문20-3. 줄이고 싶다면, 주당 얼마나 줄이고 싶으십니까?

주당 ()시간

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지

문21. 다음의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과 관련된 비용 지출을 기입해 주십시오. 분기별, 연 1회 납부의 경우 월평균 비용으로 환산해서 기입해 주십시오. ※ 2022년 기준으로 기입

문21-1~21-2 귀댁의 해당 자녀가 이용하는 반일제 이상 기관에서는 현재 방과후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다면 귀 자녀는 반일제 이상 기관에서 특별활동(한글, 영어, 미술, 체육, 음악, 과학, 수학, 교구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과목 수는 몇 개입니까? (※ 없으면 0을 입력해 주십시오)

항목	문21. 비용	문21-1. 운영여부	문21-2. 과목 수
1. 수업료	월 ()원		
2. 그 밖의 비용 (교재교구비, 재료비, 급간식비, 차량운행비, 방과후 과정, 현장학습비, 행사비, 입학금, 원복비 등 ※특별활동 프로그램 비용 제외)	월 ()원		
3. 특별활동 (한글, 영어, 미술, 체육, 음악, 과학, 수학, 교구활동 등)	월 ()원	1. 운영함 2. 운영하지 않음	월 () 개

문22-1~22-2 현재 이용하고 있는 특별활동(한글, 영어, 미술, 체육, 음악, 과학, 수학, 교구활동 등)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다고 가정했을 때와 비교하여 차이가 있습니까?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다면 몇 개의 특별활동을 이용하실 예정이었습니까?

문22-1. 차이 여부	문22-2. 특별활동 이용 계획 개수
1. 차이가 있다 → 문22-2로 2. 차이가 없다 → 문23으로 3. 잘 모르겠다 → 문23으로	월 () 개

문23. 이용 기관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문24. 자녀를 위해 이용하는 반일제 이상 기관의 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문25. 지난 3개월간 자녀가 다니는 반일제 이상 기관으로부터 온라인 수업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1. 있음 → 문25-1로
2. 없음 → 문26 응답 후 40페이지로(I-4.문화센터)

문25-1. 반일제 이상 기관으로부터 온라인 수업은 월 평균 몇 회 정도 받으셨습니까?

월 평균 ()회

문25-2. 반일제 이상 기관의 온라인 수업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지

문 26. 지난 1년간 아래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이유로 이 자녀가 반일제 이상 기관 등원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까?

항목	보기
26-1. 이 자녀가 코로나19에 확진되어 반일제 이상 기관을 등원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있음 2. 없음
26-2. 동거가족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이 자녀가 반일제 이상 기관을 등원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있음 2. 없음
26-3. 자녀가 다니는 반일제 이상 기관이 코로나19로 인해 휴원하여 이 자녀가 반일제 이상 기관을 등원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있음 2. 없음
※ 26-1, 26-2, 26-3 중 해당하는 경우가 없는 경우 40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6-4. (26-1, 26-2, 26-3 중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로 인해 이 자녀가 반일제 이상 기관에 등원하지 못한 기간은 총 ()일 지난 1년간 총 며칠입니까?	

※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설문을 모두 완료하신 후, 40페이지(1-4.문화센터)로 이동해 주십시오.

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지



I-4. 문화센터에 대한 설문입니다.

문27. 지난 3개월 동안 백화점, 주민센터, 공공기관 등에서 문화센터 기관 및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1. 예 → 문27-1로
2. 아니오 → 문28로

✓ 영유아용 설문 문2(30페이지)의 '㉔ 문화센터 등' 항목의 이용 여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문27-1~27-2. 지난 3개월 동안 이용하셨던 문화센터 기관과 서비스 종류에 대해서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이용 기관과 서비스 종류는 아래 보기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기재해 주십시오.

※ 지난 3개월 동안 이용하셨던 모든 서비스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문27-3~27-5. 해당 문화센터의 주당 이용 횟수와 1회 평균 이용 시간 및 월 이용 비용은 얼마입니까?

[문27-1 보기] 이용기관	[문27-2 보기] 서비스 종류
① 백화점, 마트 등의 문화센터	① 체육 관련(신체놀이)
② 주민센터 등의 문화센터	② 음악 관련
③ 공공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도서관, 박물관,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③ 미술놀이
④ 기타 ()	④ 통합놀이(오감놀이, 쿠킹클래스 등)
	⑤ 언어 관련(통화, 외국어 등)
	⑥ 수학 관련(가계 등)
	⑦ 과학 관련
	⑧ 기타 (바둑, 체스 등)

문27-1. 이용 기관	문27-2. 서비스 종류	문27-3. 이용횟수	문27-4. 이용시간	문27-5. 이용비용
()	()	주당 () 회	1회 평균 ()분	월 ()만원
()	()	주당 () 회	1회 평균 ()분	월 ()만원
()	()	주당 () 회	1회 평균 ()분	월 ()만원
()	()	주당 () 회	1회 평균 ()분	월 ()만원
()	()	주당 () 회	1회 평균 ()분	월 ()만원
()	()	주당 () 회	1회 평균 ()분	월 ()만원
()	()	주당 () 회	1회 평균 ()분	월 ()만원

문28. 코로나19 때문에 귀댁의 자녀가 문화센터 이용을 하지 못했거나 이용 횟수를 줄인 경험이 있으십니까?

1. 있음 → 문28-1로
2. 없음 → 42페이지(I-5.확원)로

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지

문28-1~28-2. 이용하지 못했거나 이용횟수가 감소한 서비스가 있다면, 서비스 종류와 이용하고자 하였던 이용 기관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이용하고 싶었던 이용 기관이 여러 곳인 경우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서비스 종류	문28-1. 이용 횟수 줄은 경험	문28-2. 이용 기관 (중복 선택)
1. 체육 관련 (신체놀이)	1. 있음 → 2. 없음	1. 백화점, 마트 등의 문화센터 2. 주민센터 등의 문화센터 3. 공공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도서관, 박물관,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4. 기타 ()
2. 음악 관련	1. 있음 → 2. 없음	1. 백화점, 마트 등의 문화센터 2. 주민센터 등의 문화센터 3. 공공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도서관, 박물관,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4. 기타 ()
3. 미술놀이	1. 있음 → 2. 없음	1. 백화점, 마트 등의 문화센터 2. 주민센터 등의 문화센터 3. 공공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도서관, 박물관,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4. 기타 ()
4. 통합놀이 (오감놀이, 쿠팡클래스 등)	1. 있음 → 2. 없음	1. 백화점, 마트 등의 문화센터 2. 주민센터 등의 문화센터 3. 공공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도서관, 박물관,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4. 기타 ()
5. 언어 관련 (통화, 외국어 등)	1. 있음 → 2. 없음	1. 백화점, 마트 등의 문화센터 2. 주민센터 등의 문화센터 3. 공공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도서관, 박물관,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4. 기타 ()
6. 수학 관련 (가계 등)	1. 있음 → 2. 없음	1. 백화점, 마트 등의 문화센터 2. 주민센터 등의 문화센터 3. 공공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도서관, 박물관,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4. 기타 ()
7. 과학 관련	1. 있음 → 2. 없음	1. 백화점, 마트 등의 문화센터 2. 주민센터 등의 문화센터 3. 공공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도서관, 박물관,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4. 기타 ()
8. 기타 (바둑, 체스 등)	1. 있음 → 2. 없음	1. 백화점, 마트 등의 문화센터 2. 주민센터 등의 문화센터 3. 공공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도서관, 박물관,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4. 기타 ()

29.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센터를 원하는 만큼 이용하지 못하였다면, 이용하고자 하였던 서비스를 다른 기관/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십니까?

1. 예 → 문29-1로
2. 아니오 → 42페이지(II-5.학원)로

문29-1. 문화센터를 대체하여 이용한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대체하여 이용한 서비스를 최대 2개까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 | | |
|--------------------|------------------|
| 1. 시간제 보육서비스 | 5.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
| 2. 단시간 학원 | 6. 개별 및 그룹지도 |
| 3. 방문형 학습지 및 교구활동 | 7. 키즈카페, 민간 놀이시설 |
| 4. 비방문형 학습지 및 교구활동 | 8. 기타 () |



I-5. 학원에 대한 설문입니다.

문30. 지난 3개월 동안 자녀가 학원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1. 예 → 문31로
2. 아니오 → 44페이지(I-6.기타 사교육)로

✓ 영유아용 설문 문2(30페이지)의 '㉓ 예체능학원(태권도수영축구교실발레피아노미술 등)' 또는
'㉔ 학습관련 학원(영어수학국어과학 등)' 항목의 이용 여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문31. 자녀가 이용하는 학원은 어떤 종류의 학원입니까?

문31-1. 몇 개의 학원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문31-2~31-4. 해당 학원의 주당 이용 횟수와 이용 시간과 월 이용비용은 얼마입니까?

※ 2분기별, 연 1회 납부의 경우 월평균 비용으로 환산해서 기입해 주십시오.

※ 해당 유형별 여러 개의 학원을 다닐 경우 이용횟수와 이용 시간은 유형별로 합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2022년 기준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문31-5. 지금 이용하시는 학원 중에서 비대면 수업(온라인 수업)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유형	문31. 이용여부	문31-1. 이용개수	문31-2. 이용횟수	문31-3. 이용시간	문31-4. 이용비용	문31-5. 비대면수업 이용경험여부
체육 관련 (태권도, 수영 등)	1. 이용함 2. 이용안함	()개	주 ()회 ()시간 ()분	주당 ()시간 ()분	월 ()만원	1. 경험 있음 2. 경험 없음
음악 관련 (피아노, 악기 등)	1. 이용함 2. 이용안함	()개	주 ()회 ()시간 ()분	주당 ()시간 ()분	월 ()만원	1. 경험 있음 2. 경험 없음
미술 관련 (그리기, 만들기 등)	1. 이용함 2. 이용안함	()개	주 ()회 ()시간 ()분	주당 ()시간 ()분	월 ()만원	1. 경험 있음 2. 경험 없음
영어	1. 이용함 2. 이용안함	()개	주 ()회 ()시간 ()분	주당 ()시간 ()분	월 ()만원	1. 경험 있음 2. 경험 없음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한글, 한자 등)	1. 이용함 2. 이용안함	()개	주 ()회 ()시간 ()분	주당 ()시간 ()분	월 ()만원	1. 경험 있음 2. 경험 없음
수학 및 과학 관련 (수, 주산, 과학실험, 로봇 등)	1. 이용함 2. 이용안함	()개	주 ()회 ()시간 ()분	주당 ()시간 ()분	월 ()만원	1. 경험 있음 2. 경험 없음
기타 (바둑, 웅변 등)	1. 이용함 2. 이용안함	()개	주 ()회 ()시간 ()분	주당 ()시간 ()분	월 ()만원	1. 경험 있음 2. 경험 없음

문31-6. [한 가지라도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 있는 경우] 전반적으로 비대면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 수준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지

문32. 코로나19로 인해 이용하지 못 했거나 지난해에 비해 이용횟수가 줄은 학원이 있었습니까?

1. 있음 → 문32-1로
2. 없음 → 문34로

문32-1. 이용하지 못 했거나 이용횟수가 줄은 학원이 있었다면, 어떤 분야의 학원을 이용하지 못했거나 이용 횟수가 줄었습니까?
2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 체육 관련 (태권도, 수영 등)
2. 음악 관련 (피아노, 악기 등)
3. 미술 관련 (그리기, 만들기 등)
4. 영어
5.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 (한글, 한자 등)
6. 수학 및 과학 관련 (수, 주산, 과학실험, 로봇 등)
7. 기타 (바둑, 증변 등)

문33. 코로나19로 인해 학원을 원하시는 만큼 이용하지 못하였다면, 이용하고자 하셨던 서비스를 다른 기관/서비스를 통해 이용 하셨습니까?

1. 예 → 문33-1로
2. 아니오 → 문34로

문33-1. 학원을 대체하여 이용한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대체하여 이용한 서비스를 최대 2개까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1. 어린이집, 유치원, 방입제 이상 학원의 특별활동
2. 백화점/마트, 주민센터, 공공기관 등의 문화센터 프로그램
3. 방문형 학습지 및 교구활동
4. 비방문형 학습지 및 교구활동
5.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6. 개별 및 그룹지도
7. 장난감, 도서 대여, 육아 꾸러미 등 서비스
8. 도서관, 박물관 등 체험학습 시설
9. 키즈카페, 놀이시설
10. 다른 종류의 학원
11. 기타 ()

문34. 이 자녀를 위해 이용하는 학원 비용수준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문35. 이 자녀를 위해 이용하는 학원 서비스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지



I -6. 기타 사교육에 대한 설문입니다.

문36. 지난 3개월 동안 귀댁의 해당 자녀는 아래의 기타 사교육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 ※ 기타 사교육: 일회성, 단발성 이용(예: 일회성 체험활동 등)이 아닌 경우에 한함
- 방문형 학습지(선생님이 직접 학습지를 들고 방문해서 수업 및 채점 등을 진행)
 - 방문형 교구 활동교육(선생님이 직접 장난감이나 퍼즐 등 교구를 들고와서 함께 놀아주거나 시간을 보내는 경우)
 - 비방문 학습지, 교구 활동교육(선생님의 방문 없이 택배나 우편으로 학습지 또는 교구를 받는 경우, 전화화상 영어 등)
 - 개인 및 그룹지도(과외 같은 경우)
 -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온라인 사이트나 모바일 어플에 접속하여 수업하는 것)

1. 예 → 문36-1로
2. 아니오 → 문38 또는 46페이지(I-7.시간제일시보육)로

☑ 영유아용 설문 문2(30페이지)의 '⑤ 기타 사교육' 항목의 이용 여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문36-1~36-5. 이용하시는 기타 사교육의 유형별로 이용 현황을 응답해 주십시오. 이 자녀를 위해 이용하는 기타 사교육의 종류와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여 이용한 경험 여부, 월 평균 총 이용비용, 서비스 이용의 만족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 2가지 이상의 방식의 섞여 있는 서비스의 경우 보다 주된 교육방식을 기준으로 유형을 응답해 주십시오.

(예: 방문형 학습지인데,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에서 듣기 파일이나, 동영상 강의를 활용하는 경우 → 방문형 학습지)

※ 이용하시는 기타 사교육이 여러 개인 경우 아래 표에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 [문36-1 보기] 기타 사교육 종류
- 체육 관련 (태권도, 수영 등)
 - 음악 관련 (피아노, 악기 등)
 - 미술 관련 (그리기, 만들기 등)
 - 영어
 - 한글
 - 기타 다른 언어(한자, 일본어 등)
 - 수학 및 과학 관련(수, 주산, 과학실험, 로봇 등)
 - 통합교과
 - 기타 (바둑, 웬변 등)

유형	문36-1. 종류	문36-2. 이용시간	36-3. 비대면수업 경험여부	문36-4. 이용비용	문36-5. 서비스 이용 만족도	비고
1. 방문형 학습지	(☐)	주 (☐) 분	1. 있음 2. 없음	()만원	1.매우 만족	
	(☐)	주 (☐) 분	1. 있음 2. 없음		2.대체로 만족	
	(☐)	주 (☐) 분	1. 있음 2. 없음		3.보통	
2. 방문형 교구 활동교육	(☐)	주 (☐) 분	1. 있음 2. 없음	()만원	4.대체로 불만족	
	(☐)	주 (☐) 분	1. 있음 2. 없음		5.매우 불만족	
	(☐)	주 (☐) 분	1. 있음 2. 없음		1.매우 만족	
3. 비방문 학습지, 교구 활동교육	(☐)	주 (☐) 분		()만원	2.대체로 만족	→문37로
	(☐)	주 (☐) 분			3.보통	
	(☐)	주 (☐) 분			4.대체로 불만족	
4. 개인 및 그룹	(☐)	주 (☐) 분	1. 있음 2. 없음	()만원	5.매우 불만족	
	(☐)	주 (☐) 분	1. 있음 2. 없음		1.매우 만족	
	(☐)	주 (☐) 분	1. 있음 2. 없음		2.대체로 만족	
5.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	주 (☐) 분		()만원	3.보통	→문37로
	(☐)	주 (☐) 분			4.대체로 불만족	
	(☐)	주 (☐) 분			5.매우 불만족	
(☐)	주 (☐) 분					
비대면수업 1.있음 → 문37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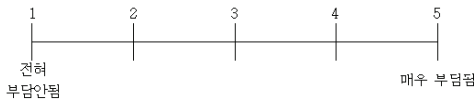
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지

문37. [문36-1에서 3. 비방문 학습지, 교구 활동교육 혹은 5.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를 선택했거나, 36-3. 현재 이용하는 비대면 기타 사교육 서비스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비대면 기타 사교육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가장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1. 전자 기기가 아닌 실물 혹은 종이 등을 통한 서비스가 더 많았으면
2. 아이들의 흥미를 장시간 유지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면
3. 교육 내용이 좀 더 질적으로 개선되었으면
4. 교육 내용이 좀 더 다양해서 선택의 폭이 넓었으면
5. 아이와 부모가 함께 진행할 수 있었으면(부모용 지도서 등의 포함)
6. 아이와 선생님이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형태였으면
7. 서비스 이용 후 사후 관리가 더 잘 이뤄졌으면
8.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었으면
9. 약정이나 의무사용 기간이 없었으면
10. 기타 ()

※ 문38은 학원 및 기타 사교육을 하나라도 이용한다고 응답한 경우에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38. 현재 자녀를 위해 이용하시는 사교육의 비용 부담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문38-1. [문38에서 부담된다(4,5)라고 응답한 경우] 사교육 비용이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자녀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2. 자녀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 뒤처질까봐 두려워서
3. 서비스의 질이 높다고 생각되어서
4.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 주기 위해서
5. 퇴근 전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6.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7. 다른 돌봄서비스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어서
8. 아이가 원해서
9. 기타()

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지



I -7. 시간제 일시보육에 대한 설문입니다.

문39. 지난 3개월 동안 귀댁의 해당 자녀는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1. 예 → 문39-1로
2. 아니오 → 47페이지(I-8.기타서비스)로

문39-1. 지난 3개월 동안 이용하고 있는 시간제 보육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용한 곳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 어린이집
2. 건강가정지원센터
3. 육아종합지원센터
4. 기타 ()

문39-2. 지난 3개월을 기준으로 해당 자녀는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를 월 평균 몇 회 이용하였습니까?

월 평균 ()회

문39-3.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 이용 시 1회당 평균 몇 시간 정도 이용하였습니까?

1회 평균 () 시간

문39-4. 자녀를 위한 시간제 일시보육 이용과 관련된 비용 지출을 기입해 주십시오.

※ 만원 이하 반올림

월 평균 ()만원

문39-5. 자녀를 위해 이용한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에 대한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매우 불만족	2.대체로 불만족	3.보통	4.대체로 만족	5.매우 만족
1. 이용시간의 선택성					
2. 비용					
3. 이용 장소의 접근성					
4. 인력의 전문성					
5. 긴급 보육의 유용성					



I - 8. 기타서비스(키즈카페, 비정기 체험활동 등)에 대한 설문입니다.

※다음은 기타서비스 중 키즈카페 혹은 비정기 체험활동(예: 숲체험, 요리체험, 박물관견학 등)에 대한 이용실태에 대한 설문입니다.
자녀를 위해 이용한 서비스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키즈카페	비정기 체험활동
문40. 이 자녀를 위해 <u>지난 3개월 이내에</u> 키즈카페를 이용한 적이 있으십니까? ※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키즈카페(놀이체험)도 포함해서 이용 경험을 응답해 주십시오. 1. 예→ 문40-1로 2. 아니오 → 문41로	문42. 이 자녀를 위해 <u>지난 3개월 이내에</u> 비정기 체험활동을 이용한 적이 있으십니까? 1. 예→ 문42-1로 2. 아니오 → 문43으로
문40-1. 키즈카페의 월 평균 이용횟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월 () 회	문42-1. 비정기 체험활동의 월 평균 이용횟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월 () 회
문40-2. 키즈카페 1회 이용 시 몇 시간 정도 이용하십니까? 1회 ()시간 이용	문42-2. 비정기 체험활동 1회 이용 시 몇 시간 정도 이용하십니까? 1회 ()시간 이용
문40-3. 키즈카페의 시간당 이용비용은 얼마 정도였습니까? 1시간 당 ()원 ※키즈카페는 영유아 입장료만 응답해 주십시오. 부모 입장료 및 식음료 비용 제외	문42-3. 비정기 체험활동의 회당 비용은 얼마 정도였습니까? 1회 당 ()원 ※ 체험활동은 해당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입장료 등을 모두 포함
문40-4. 키즈카페의 이용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문42-4. 비정기 체험활동의 이용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문40-5. 키즈카페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집에 없는 놀이기구들이 있어서 2. 집에서 돌보는 것보다 편안해서(주양육자의 휴식을 위해) 3. 자녀를 동반해 지인을 만날 수 있으므로 4. 아이가 좋아해서 5. 비용이 저렴해서 6. 지역에 적당한 공공 놀이장소가 없어서 7. 기타()	문42-5. 비정기 체험활동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체험활동 인솔자의 해당 분야 전문성을 고려해서 2. 집에서 돌보는 것보다 편안해서(주양육자의 휴식을 위해) 3. 자녀가 희망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서 4. 아이가 좋아해서 5. 비용이 저렴해서 6. 원하는 시간대에 참여할 수 있어서 7. 기타()

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설문지

문41. (지난 3개월간) 키즈카페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주변에 운영하는 키즈카페가 없어서
2. 코로나19의 감염을 피하기 위해(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기 위해)
3. 자녀를 동반한 만남이 줄어들어서
4. 아이가 좋아하지 않아서
5. 비용이 부담되어서
6. 기타 ()

문43. (지난 3개월간) 비정기 체험활동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체험활동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2. 코로나19의 감염을 피하기 위해(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기 위해)
3. 안전에 대한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4. 아이가 좋아하지 않아서
5. 비용이 부담되어서
6. 기타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2. 부록 표

Ⅲ. KICCE 소비실태조사 개요

3. 응답자 특성

나. 가구 소득 특성

〈부표 Ⅲ-3-1〉 가구특성 및 자녀수별 세목별 가구소득 (2022년, 실질비용)

단위: 만원, (가구)

구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부동산 소득 및 금융소득	공적이전소득 및 사회보험소득	코로나 지원금	사적이전 소득	기타 소득	(수)
전체		437.0	2.9	28.9	22.2	4.7	4.8	(1,730)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522.9	4.3	26.5	25.1	2.9	3.8	(767)
	외벌이	368.6	1.8	30.7	19.8	6.2	5.6	(963)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219.4	0.1	24.2	5.2	2.3	0.2	(145)
	300~399만원 이하	317.4	0.5	27.2	7.4	1.7	0.3	(495)
	400~499만원 이하	405.0	1.5	28.6	15.5	2.1	1.6	(419)
	500~599만원 이하	483.2	1.9	32.8	20.8	5.4	4.4	(301)
	600만원 이상	681.1	9.8	30.0	57.1	12.2	16.5	(370)
총 자녀수	1명	412.4	1.3	24.0	13.7	2.4	2.9	(583)
	2명	450.8	4.1	29.9	24.8	5.4	6.4	(900)
	3명 이상	445.1	2.5	36.5	32.2	7.8	3.2	(247)
지역규모	대도시	451.1	3.1	29.1	20.3	3.2	3.8	(683)
	중소도시	436.4	3.2	28.8	25.7	4.4	2.5	(788)
	읍면지역	401.8	1.6	28.5	16.3	9.8	14.5	(259)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부표 III-3-2〉 영유아 가구의 가구특성 및 자녀수별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관련 공적이전 지원금 변화 (2018~2022년, 실질비용)

단위: 만원

구분		영유아 가구				
		1차조사 (2018년)	2차조사 (2019년)	3차조사 (2020년)	4차조사 (2021년)	5차조사 (2022년)
전체		29.5	52.0	63.0	74.7	68.5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31.0	53.2	64.2	85.0	76.3
	외벌이	28.2	51.1	62.1	67.2	62.3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9.2	44.7	57.6	71.0	64.9
	300~399만원 이하	27.6	53.6	62.1	69.1	60.3
	400~499만원 이하	30.6	51.9	66.3	72.6	69.4
	500~599만원 이하	30.0	52.1	64.2	83.7	75.6
	600만원 이상	31.5	55.9	60.2	80.2	74.1
총 자녀수	1명	24.1	42.0	54.3	64.6	44.6
	2명	31.8	54.0	65.6	76.9	75.9
	3명 이상	37.5	68.6	72.4	88.6	97.6

주: 1) 전체 자녀의 공적이전지원금 합산. 모든 공적 이전 지원금(7개)를 한꺼번에 합산.

2) 1차년도는 1회 평균 수혜액을 조사하였으며, 2차년도는 월평균 수혜액을 조사하였고, 3차년도는 유형별로 월 평균 금액을 자녀별로 나눈 금액을 조사하였음.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2) 최효미 외(2021). 부표 4-2.

다. 아동 특성

〈부표 Ⅲ-3-3〉 가구특성, 자녀수 및 지역규모별 아동 표본 특성 (2018~2022년) : 영유아

단위: %, (명)

구분		1차조사 (2018년)	2차조사 (2019년)	3차조사 (2020년)	4차조사 (2021년)	5차조사 (2022년)
전체		100.0 (2,277)	100.0 (2,333)	100.0 (2,369)	100.0 (2,405)	100.0 (1,730)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44.8 (1,020)	43.0 (1,002)	42.6 (1,010)	41.2 (992)	44.3 (767)
	외벌이	55.2 (1,257)	57.0 (1,331)	57.4 (1,359)	58.8 (1,413)	55.7 (963)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2.2 (505)	12.9 (301)	6.4 (152)	11.3 (271)	8.4 (145)
	300~399만원 이하	28.5 (648)	28.8 (672)	21.5 (509)	27.6 (663)	28.6 (495)
	400~499만원 이하	23.1 (527)	27.3 (638)	31.2 (740)	26.3 (632)	24.2 (419)
	500~599만원 이하	11.8 (269)	15.5 (363)	18.1 (429)	17.6 (424)	17.4 (301)
	600만원 이상	14.4 (327)	15.4 (360)	22.8 (539)	17.3 (415)	21.4 (370)
총 자녀수	1명	28.4 (647)	24.0 (560)	22.6 (534)	22.9 (551)	33.7 (583)
	2명	56.1 (1,278)	58.3 (1,361)	58.4 (1,384)	57.6 (1,386)	52.0 (900)
	3명 이상	15.5 (352)	17.6 (412)	19.0 (450)	19.5 (468)	14.3 (247)
지역 규모	대도시	39.9 (908)	39.4 (920)	40.8 (967)	39.9 (959)	39.5 (683)
	중소도시	42.9 (976)	43.4 (1,013)	44.2 (1,047)	44.8 (1,078)	45.5 (788)
	읍면지역	17.3 (393)	17.1 (400)	15.0 (355)	15.3 (368)	15.0 (259)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3) 최효미 외(2021). 부표 4-3

라.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

〈부표 Ⅲ-3-4〉 가구특성, 자녀수 및 지역규모별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 경험 (부, 2022년)

단위: %, (명)

구분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있음	없음	계(수)	있음	없음	계(수)	있음	없음	계(수)
전체		8.9	91.1	100.0 (1,702)	3.6	96.4	100.0 (1,702)	0.8	99.2	100.0 (1,702)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8.3	91.7	100.0 (767)	4.7	95.3	100.0 (767)	1.2	98.8	100.0 (767)
	외벌이	9.4	90.6	100.0 (935)	2.7	97.3	100.0 (935)	0.5	99.5	100.0 (935)
	χ^2	0.6			5.0*			2.1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7.9	92.1	100.0 (127)	3.9	96.1	100.0 (127)	0.0	100.0	100.0 (127)
	300~399만원 이하	9.6	90.4	100.0 (492)	3.9	96.1	100.0 (492)	1.0	99.0	100.0 (492)
	400~499만원 이하	11.0	89.0	100.0 (417)	4.1	95.9	100.0 (417)	1.0	99.0	100.0 (417)
	500~599만원 이하	7.0	93.0	100.0 (300)	2.3	97.7	100.0 (300)	1.0	99.0	100.0 (300)
	600만원 이상	7.7	92.3	100.0 (366)	3.6	96.4	100.0 (366)	0.5	99.5	100.0 (366)
	χ^2	4.8			1.8			1.8		
총 자녀수	1명	9.0	91.0	100.0 (575)	3.5	96.5	100.0 (575)	1.4	98.6	100.0 (575)
	2명	8.9	91.1	100.0 (884)	3.5	96.5	100.0 (884)	0.5	99.5	100.0 (884)
	3명 이상	8.6	91.4	100.0 (243)	4.1	95.9	100.0 (243)	0.8	99.2	100.0 (243)
	χ^2	0.0			0.2			3.8		
지역 규모	대도시	9.3	90.7	100.0 (675)	3.9	96.1	100.0 (675)	0.4	99.6	100.0 (675)
	중소도시	8.9	91.1	100.0 (773)	4.3	95.7	100.0 (773)	1.0	99.0	100.0 (773)
	읍면지역	7.9	92.1	100.0 (254)	0.8	99.2	100.0 (254)	1.2	98.8	100.0 (254)
	χ^2	0.5			7.0*			2.0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 $p < .05$.

〈부표 Ⅲ-3-5〉 가구특성, 자녀수 및 지역규모별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 경험 (모, 2022년)

단위: %, (명)

구분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있음	없음	계(수)	있음	없음	계(수)	있음	없음	계(수)
전체		15.9	84.1	100.0 (779)	21.8	78.2	100.0 (779)	5.8	94.2	100.0 (779)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6.0	84.0	100.0 (767)	21.9	78.1	100.0 (767)	5.9	94.1	100.0 (767)
	외벌이	8.3	91.7	100.0 (12)	16.7	83.3	100.0 (12)	0.0	100.0	100.0 (12)
		χ^2			0.2			0.7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6.3	93.8	100.0 (32)	25.0	75.0	100.0 (32)	3.1	96.9	100.0 (32)
	300~399만원 이하	16.2	83.8	100.0 (99)	32.3	67.7	100.0 (99)	5.1	94.9	100.0 (99)
	400~499만원 이하	18.0	82.0	100.0 (172)	24.4	75.6	100.0 (172)	4.7	95.3	100.0 (172)
	500~599만원 이하	12.1	87.9	100.0 (198)	16.7	83.3	100.0 (198)	6.6	93.4	100.0 (198)
	600만원 이상	18.3	81.7	100.0 (278)	19.8	80.2	100.0 (278)	6.5	93.5	100.0 (278)
	χ^2	6.2			11.0*			1.4		
총 자녀수	1명	19.4	80.6	100.0 (252)	27.8	72.2	100.0 (252)	7.5	92.5	100.0 (252)
	2명	14.6	85.4	100.0 (424)	17.9	82.1	100.0 (424)	5.9	94.1	100.0 (424)
	3명이상	12.6	87.4	100.0 (103)	23.3	76.7	100.0 (103)	1.0	99.0	100.0 (103)
	χ^2	3.7			9.1*			5.8		
지역 규모	대도시	20.7	79.3	100.0 (323)	24.1	75.9	100.0 (323)	6.8	93.2	100.0 (323)
	중소도시	13.9	86.1	100.0 (352)	21.9	78.1	100.0 (352)	5.4	94.6	100.0 (352)
	읍면지역	7.7	92.3	100.0 (104)	14.4	85.6	100.0 (104)	3.8	96.2	100.0 (104)
	χ^2	11.9**			4.4			1.4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 $p < .05$, ** $p < .01$.

〈부표 III-3-6〉 가구특성, 자녀수 및 지역규모별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이용 경험 (부, 2022년)

단위: %, (명)

구분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있음	없음	계(수)	있음	없음	휴가일수	계(수)
전체		0.5	99.5	100.0(1,702)	2.1	97.9	5.3	100.0(1,702)
맞벌이 가구	맞벌이	0.3	99.7	100.0(767)	2.6	97.4	4.8	100.0(767)
	외벌이	0.6	99.4	100.0(935)	1.6	98.4	6.1	100.0(935)
여부		χ^2/t			2.1			-0.9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0.8	99.2	100.0(127)	1.6	98.4	5.0	100.0(127)
	300~399만원 이하	0.8	99.2	100.0(492)	2.0	98.0	5.9	100.0(492)
	400~499만원 이하	0.2	99.8	100.0(417)	2.2	97.8	3.3	100.0(417)
	500~599만원 이하	0.0	100.0	100.0(300)	2.0	98.0	5.3	100.0(300)
	600만원 이상	0.5	99.5	100.0(366)	2.2	97.8	6.9	100.0(366)
		χ^2/F			0.2			0.8
총 자녀수	1명	0.2	99.8	100.0(575)	1.9	98.1	4.8	100.0(575)
	2명	0.6	99.4	100.0(884)	2.1	97.9	5.4	100.0(884)
	3명 이상	0.8	99.2	100.0(243)	2.1	97.9	6.0	100.0(243)
		χ^2/F			0.1			0.1
지역 규모	대도시	0.3	99.7	100.0(675)	1.3	98.7	4.4	100.0(675)
	중소도시	0.8	99.2	100.0(773)	3.0	97.0	5.7	100.0(773)
	읍면지역	0.0	100.0	100.0(254)	1.2	98.8	5.3	100.0(254)
		χ^2/F			6.0			0.2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부표 III-3-7〉 가구특성, 자녀수 및 지역규모별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이용 경험 (모, 2022년)

단위: %, (명)

구분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있음	없음	계(수)	있음	없음	휴가일수	계(수)
전체		1.0	99.0	100.0(779)	4.2	95.8	5.8	100.0(779)
맞벌이 가구	맞벌이	1.0	99.0	100.0(767)	4.3	95.7	5.8	100.0(767)
	외벌이	0.0	100.0	100.0(12)	0.0	100.0	-	100.0(12)
여부		χ^2/t			0.5			-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0.0	100.0	100.0(32)	3.1	96.9	10.0	100.0(32)
	300~399만원 이하	0.0	100.0	100.0(99)	2.0	98.0	5.5	100.0(99)
	400~499만원 이하	0.6	99.4	100.0(172)	2.3	97.7	2.8	100.0(172)
	500~599만원 이하	1.0	99.0	100.0(198)	3.5	96.5	5.0	100.0(198)
	600만원 이상	1.8	98.2	100.0(278)	6.8	93.2	6.6	100.0(278)
		χ^2/F			7.7			0.7
총 자녀수	1명	1.2	98.8	100.0(252)	3.2	96.8	6.0	100.0(252)
	2명	0.9	99.1	100.0(424)	4.7	95.3	5.1	100.0(424)
	3명 이상	1.0	99.0	100.0(103)	4.9	95.1	8.4	100.0(103)
		χ^2/F			1.0			0.9
지역 규모	대도시	0.9	99.1	100.0(323)	5.9	94.1	7.1	100.0(323)
	중소도시	0.9	99.1	100.0(352)	3.4	96.6	4.5	100.0(352)
	읍면지역	1.9	98.1	100.0(104)	1.9	98.1	2.0	100.0(104)
		χ^2/F			4.1			1.7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부표 III-3-8〉 가구특성, 자녀수 및 지역규모별 유언규제도 이용 경험 (부, 2022년)

단위: %(명)

구분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로제		원격근무		전환형시간선택제	
	있음	없음	계(수)	있음	없음	계(수)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전체	10.5	89.5	100.0(1,702)	3.5	96.5	100.0(1,702)	1.7	98.3	100.0(1,702)	0.2
	11.5	88.5	100.0(767)	3.4	96.6	100.0(767)	2.0	98.0	100.0(767)	0.4
	9.6	90.4	100.0(935)	3.5	96.5	100.0(935)	1.5	98.5	100.0(935)	0.1
맞벌이 가구 여부	χ^2		1.5	0.0		0.5	0.2		1.5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4.7	95.3	100.0(127)	2.4	97.6	100.0(127)	1.6	98.4
	300~399만원 이하		8.7	91.3	100.0(492)	1.4	98.6	100.0(492)	1.2	98.8
	400~499만원 이하		8.9	91.1	100.0(417)	4.6	95.4	100.0(417)	1.0	99.0
	500~599만원 이하		11.7	88.3	100.0(300)	3.3	96.7	100.0(300)	2.3	97.7
	600만원 이상		15.6	84.4	100.0(366)	5.5	94.5	100.0(366)	3.0	97.0
	χ^2		17.8**	12.5*		7.1	6.3		5.0	
총 자녀수	1명		10.4	89.6	100.0(575)	1.7	98.3	100.0(575)	1.2	98.8
	2명		11.2	88.8	100.0(884)	4.2	95.8	100.0(884)	1.6	98.4
	3명 이상		7.8	92.2	100.0(243)	4.9	95.1	100.0(243)	2.1	97.9
	χ^2		2.3	8.1*		0.3	3.8		12.5**	
지역 규모	대도시		15.1	84.9	100.0(675)	4.1	95.9	100.0(675)	2.4	97.6
	중소도시		8.9	91.1	100.0(773)	3.4	96.6	100.0(773)	1.6	98.4
	읍면지역		2.8	97.2	100.0(254)	2.0	98.0	100.0(254)	0.4	99.6
	χ^2		33.6***	2.7		4.5	7.1*		4.8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 $p < .05$, ** $p < .01$, *** $p < .001$.

〈부표 III-3-9〉 가구특성, 자녀수 및 지역규모별 유원근무제도 이용 경험 (모, 2022년)

구분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로제			원격근무			진행형시간선택제		
	있음	없음	계(수)	있음	없음	계(수)	있음	없음	계(수)	있음	없음	계(수)	있음	없음	계(수)
전체	12.6	87.4	100.0 (779)	4.6	95.4	100.0 (779)	3.2	96.8	100.0 (779)	3.0	97.0	100.0 (779)	1.0	99.0	100.0 (779)
	12.6	87.4	100.0 (767)	4.7	95.3	100.0 (767)	3.1	96.9	100.0 (767)	2.9	97.1	100.0 (767)	1.0	99.0	100.0 (767)
	8.3	91.7	100.0 (12)	0.0	100.0	100.0 (12)	8.3	91.7	100.0 (12)	8.3	91.7	100.0 (12)	0.0	100.0	100.0 (12)
가구 소득	χ^2	0.2		0.6			1.0			1.2			0.1		
	299만원 이하	0.0	100.0 (32)	0.0	100.0	100.0 (32)	3.1	96.9	100.0 (32)	3.1	96.9	100.0 (32)	0.0	100.0	100.0 (32)
	300~399만원 이하	1.0	99.0 (99)	1.0	99.0	100.0 (99)	2.0	98.0	100.0 (99)	0.0	100.0	100.0 (99)	1.0	99.0	100.0 (99)
	400~499만원 이하	11.0	89.0 (172)	2.3	97.7	100.0 (172)	3.5	96.5	100.0 (172)	1.2	98.8	100.0 (172)	1.2	98.8	100.0 (172)
	500~599만원 이하	14.1	85.9 (198)	2.5	97.5	100.0 (198)	3.5	96.5	100.0 (198)	3.5	96.5	100.0 (198)	1.5	98.5	100.0 (198)
	600만원 이상	18.0	82.0 (278)	9.4	90.6	100.0 (278)	3.2	96.8	100.0 (278)	4.7	95.3	100.0 (278)	0.7	99.3	100.0 (278)
총 자녀수	χ^2	24.8***		22.6***			0.6			8.1			1.1		
	1명	12.7	87.3 (252)	6.0	94.0	100.0 (252)	3.6	96.4	100.0 (252)	2.0	98.0	100.0 (252)	0.8	99.2	100.0 (252)
	2명	12.5	87.5 (424)	4.5	95.5	100.0 (424)	3.1	96.9	100.0 (424)	3.1	96.9	100.0 (424)	1.4	98.6	100.0 (424)
	3명 이상	12.6	87.4 (103)	1.9	98.1	100.0 (103)	2.9	97.1	100.0 (103)	4.9	95.1	100.0 (103)	0.0	100.0	100.0 (103)
지역 규모	χ^2	0.0		2.7			0.2			2.1			1.8		
	대도시	17.0	83.0 (323)	7.4	92.6	100.0 (323)	3.1	96.9	100.0 (323)	3.7	96.3	100.0 (323)	1.2	98.8	100.0 (323)
	중소도시	10.2	89.8 (352)	2.6	97.4	100.0 (352)	3.1	96.9	100.0 (352)	2.0	98.0	100.0 (352)	0.6	99.4	100.0 (352)
	읍면지역	6.7	93.3 (104)	2.9	97.1	100.0 (104)	3.8	96.2	100.0 (104)	3.8	96.2	100.0 (104)	1.9	98.1	100.0 (104)
합계	χ^2	10.8**		9.9**			0.2			2.1			1.7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 $p < .01$. *** $p < .001$.

Ⅳ. 영유아가구의 소비실태 및 양육비용

1. 생활비 지출 총액 및 주요 지수

〈부표 IV-1-1〉 월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 및 비목별 비중 변화 :

양육비용과 비목 일치 시(2018~2022년, 실질비용, 전체 표본)

단위: 만원,(%)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평균 비용	비목별 비중	평균 비용	비목별 비중	평균 비용	비목별 비중	평균 비용	비목별 비중	평균 비용	비목별 비중
총계	282.1	(100.0)	300.3	(100.0)	297.3	(100.0)	308.5	(100.0)	303.2	(100.0)
1. 식비(외식비포함)	82.1	(29.9)	84.4	(29.1)	95.8	(33.3)	93.8	(31.5)	91.1	(31.2)
1-1. 외식비	25.3	(9.0)	26.4	(8.9)	28.0	(9.5)	28.0	(9.2)	28.5	(9.6)
3. 기기/집기	6.3	(1.9)	8.2	(2.4)	11.1	(3.0)	13.2	(3.4)	12.6	(3.3)
4. 피복비(의류및신발)	18.5	(6.6)	19.0	(6.4)	19.2	(6.4)	20.0	(6.5)	20.2	(6.7)
5. 보건/의료비	7.1	(2.6)	9.0	(3.0)	11.4	(3.8)	12.3	(4.0)	12.3	(3.9)
6. 교육/보육비	41.5	(13.4)	45.5	(14.1)	34.8	(10.6)	42.1	(12.4)	38.3	(11.3)
7. 여가및문화생활비 (교양/오락비)	32.7	(11.0)	32.2	(9.9)	22.7	(7.3)	25.2	(7.8)	31.0	(9.8)
7-1. 가족여행 등	20.0	(6.6)	19.5	(5.8)	11.1	(3.4)	14.0	(4.2)	18.5	(5.8)
7-2. 관람 체험학습	4.1	(1.5)	4.2	(1.4)	1.2	(0.4)	1.7	(0.5)	3.2	(1.0)
7-3. 완구	4.0	(1.4)	4.0	(1.3)	4.3	(1.5)	4.5	(1.5)	4.4	(1.5)
7-4. 도서구매	4.6	(1.5)	4.5	(1.4)	5.1	(1.7)	4.4	(1.4)	4.1	(1.3)
8. 교통비	26.7	(10.0)	28.0	(9.8)	26.4	(9.2)	26.2	(8.9)	26.3	(9.2)
9. 통신비	17.3	(6.7)	17.8	(6.4)	18.4	(6.6)	17.8	(6.2)	17.0	(6.1)
9-1. 휴대전화비	12.7	(4.9)	12.3	(4.4)	13.1	(4.7)	13.2	(4.6)	11.3	(4.1)
10. 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13.0	(4.9)	13.4	(4.7)	14.2	(5.1)	14.4	(4.9)	14.9	(5.2)
11-2. 보험	36.8	(13.0)	42.7	(14.2)	43.4	(14.7)	43.5	(14.5)	39.5	(13.3)

주: 1) 비목 및 세목별 지출액이 없는 경우는 0으로 처리하였으며, 총계 대비 각 비목별 비중은 가구별로 각각 비중을 산출한 후 평균한 값임.

2) 양육비용과 비목을 일치시킨 생활비 지출은 생활비 지출 총액에서 주거비, 이전 지출 등을 제외한 금액.

3) 2022년 공표된 소비자물가지수(2020=100)을 통해 2020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임.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부표 IV-1-2〉 가구 특성별 월평균 생활비 지출 총액 변화 (2018~2022년, 실질비용, 전체 가구표본)

단위: 만원

구분		1차년도(2018년)	2차년도(2019년)	3차년도(2020년)	4차년도(2021년)	5차년도(2022년)
전체		315.8	334.5	330.7	341.0	336.5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338.7	359.8	357.0	369.6	365.1
	외벌이	296.1	313.8	309.5	319.1	313.7
<i>t</i>		7.2***	8.3***	9.4***	9.1***	8.0***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17.2	241.8	237.0	238.2	236.8
	300~399만원 이하	270.2	278.7	267.9	287.7	291.4
	400~499만원 이하	313.8	324.5	306.6	321.6	322.9
	500~599만원 이하	351.2	361.9	343.1	362.2	361.9
	600만원 이상	415.5	427.7	407.2	432.1	430.7
	<i>F</i>	156.5***	146.3***	146.2***	141.2***	102.0***

주: 1) 맞벌이 가구는 부모가 모두 취업상태를 말하며, 외벌이 가구는 부모 중 한 사람이 미취업상태를 말함. 취업은 취업 및 휴직을 포함. 미취업 상태는 학업중, 구직중, 미취업을 포함.

2) 2022년 공표된 소비자물가지수(2020=100)을 통해 2020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임.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 $p < .001$.

〈부표 IV-1-3〉 가구특성별 생활비 관련 주요 지수 현황 (2018~2022년)

구분	1차년도(2018년)	2차년도(2019년)	3차년도(2020년)	4차년도(2021년)	5차년도(2022년)
엔겔지수	26.5	26.0	29.8	28.3	28.0
슈바베지수	8.7	8.3	8.4	8.0	8.3
엔젤지수	29.1	24.4	20.8	24.0	26.9

주: 1) 엔겔지수는 각 가구별로 (식비/ 가구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2) 슈바베지수는 각 가구별로 (주거비/ 가구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3) 엔젤지수는 각 가구별로 (영유아 양육비용 총액/ 가구 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부표 IV-1-4〉 가구특성별 생활비 관련 주요 지수 현황 (2022년, 전체 가구)

구분		엔젤지수	슈바베지수	엔젤지수
전체		28.0	8.3	26.9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26.8	7.9	26.5
	외벌이	28.9	8.6	27.2
총 자녀수	1명	29.0	9.2	25.8
	2명	27.4	8.0	28.3
	3명 이상	27.7	7.4	24.4

주: 1) 엔젤지수는 각 가구별로 (식비/ 가구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2) 슈바베지수는 각 가구별로 (주거비/ 가구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3) 엔젤지수는 각 가구별로 (영유아 양육비용 총액/ 가구 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부표 IV-1-5〉 가구 소득 구간별 생활비 관련 주요 지수 현황 (2022년, 전체 가구)

구분		엔젤지수	슈바베지수	엔젤지수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8.0	8.3	26.9
	300~399만원 이하	30.1	10.9	27.7
	400~499만원 이하	29.0	9.1	26.3
	500~599만원 이하	27.9	8.3	27.4
	600만원 이상	27.7	7.3	27.4

주: 1) 엔젤지수는 각 가구별로 (식비/ 가구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2) 슈바베지수는 각 가구별로 (주거비/ 가구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3) 엔젤지수는 각 가구별로 (영유아 양육비용 총액/ 가구 생활비 총액)*100으로 산출하여 평균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2. 육아 가구 양육비용 실태

가. 가구당 총 양육비용

〈부표 IV-2-1〉 비목별 총 양육비용 변화 (2018~2022년, 실질비용) : 전체 가구

단위: 만원, %, (가구)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총양육 비용	비목별 비중	총양육 비용	비목별 비중	총양육 비용	비목별 비중	총양육 비용	비목별 비중	총양육 비용	비목별 비중
총계 (수)	116.6 (1,648)	100.0 (1,648)	127.3 (1,902)	100.0 (1,902)	122.6 (2,156)	100.0 (2,156)	131.4 (1,933)	100.0 (1,933)	127.3 (1,730)	100.0 (1,730)
1.식비(외식비포함)	24.7	22.8	26.8	22.7	31.9	27.7	30.1	24.4	29.9	24.9
1-1.외식비	5.9	5.3	6.6	5.3	7.8	6.6	7.1	5.6	7.8	6.1
3.기기/집기	2.9	2.1	3.5	2.4	4.4	3.0	5.5	3.2	5.2	3.5
4.피복비(의류및신발)	9.4	8.7	10.0	8.3	10.7	9.2	11.3	9.2	11.8	9.8
5.보건/의료비	4.4	4.3	5.2	4.6	6.4	5.5	6.8	5.4	7.3	5.6
6.교육/보육비	39.7	29.8	44.4	31.0	33.5	23.3	41.0	27.2	33.4	22.4
7.여가문화생활비 (교양/오락비)	19.4	17.1	18.5	14.7	14.8	12.7	16.0	12.9	18.7	15.2
7-1.가족여행 등	9.0	7.9	8.8	6.9	5.2	4.4	6.5	5.0	8.5	6.8
7-2.관람 체험학습	2.4	2.0	2.3	1.7	0.7	0.5	1.0	0.7	2.1	1.5
7-3.완구	3.8	3.6	3.6	3.2	4.1	3.8	4.4	3.8	4.3	3.9
7-4.도서구매	4.3	3.6	3.8	2.9	4.7	4.0	4.1	3.3	3.8	3.1
8.교통비	0.6	0.5	0.8	0.5	1.0	0.8	0.8	0.6	1.0	0.8
9.통신비	0.5	0.3	0.8	0.5	1.3	0.9	0.9	0.6	0.7	0.5
9-1.휴대전화비	0.4	0.3	0.6	0.4	1.1	0.8	0.9	0.5	0.6	0.3
10.개인유지비 (생필품포함)	5.3	5.5	5.5	5.3	6.1	6.0	6.4	6.0	7.0	6.8
11-2.보험	9.5	8.8	11.7	9.9	12.6	11.0	12.6	10.6	12.2	10.4

주: 1) 총 양육비용은 가구 내 모든 자녀에게 소요된 양육비용을 의미함.

2) 2022년 공표된 소비자물가지수(2020=100)을 통해 2020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임.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부표 IV-2-2〉 가구 특성별 총 양육비용 변화 (2018~2022년, 실질비용, 전체 가구)

단위: 만원,(가구)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전체 (수)		116.6 (1,648)	127.3 (1,902)	122.6 (2,156)	131.4 (1,933)	127.3 (1,730)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26.5	137.2	133.8	143.5	139.9
	외벌이	108.1	119.1	113.6	122.3	117.2
	<i>t</i>	5.5***	5.4***	6.7***	6.1***	6.0***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75.3	86.7	85.2	91.2	80.6
	300~399만원	95.2	100.8	94.3	105.8	100.9
	400~499만원	114.8	124.0	110.7	120.1	123.1
	500~599만원	136.0	138.2	130.1	143.8	142.0
	600만원 이상	158.7	170.2	155.6	173.6	173.6
	<i>F</i>	82.4***	76.4***	70.1***	67.9***	73.1***
총 자녀수	1명	84.4	87.1	80.5	81.8	76.0
	2명	127.2	138.9	135.2	143.4	140.6
	3명 이상	178.3	186.0	175.7	197.1	199.6
	<i>F</i>	198.6***	245.0***	304.0***	330.3***	340.6***

주: 2022년 공표된 소비자물가지수(2020=100)을 통해 2020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임.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 $p < .001$.

〈부표 IV-2-3〉 가구 소득 대비 총 양육비용 비중 변화 (2018~2022년, 실질비용, 전체 가구)

단위: %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전체		27.3	28.2	25.0	28.4	27.0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24.4	25.4	23.3	25.8	25.6
	외벌이	29.9	30.6	26.3	30.5	28.1
	<i>t</i>	-4.3***	-3.5***	-4.0***	-2.8**	-2.9**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39.2	46.9	46.5	52.9	36.5
	300~399만원	28.2	29.2	26.4	30.6	28.4
	400~499만원	26.6	28.2	24.8	27.0	27.1
	500~599만원	25.7	25.7	23.8	26.2	25.8
	600만원 이상	20.6	22.2	20.5	22.8	22.3
	<i>F</i>	18.6***	18.0***	67.6***	18.2***	17.9***
총 자녀수	1명	19.6	19.5	17.9	19.1	17.6
	2명	30.2	31.1	26.9	29.5	29.5
	3명 이상	40.5	39.7	34.9	45.2	40.0
	<i>F</i>	62.7***	47.7***	133.1***	52.4***	181.6***

주: 1) 가구별로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용 비중을 산출하여 평균한 값.

2) 총 양육비용은 영유아가 아닌 자녀의 양육비용도 합산된 금액, 영유아 자녀 양육비용은 가구내 모든 영유아 자녀의 양육비용을 합산한 금액,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은 아동당 비용을 기준으로 함.

3) 2022년 공표된 소비자물가지수(2020=100)을 통해 2020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임.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 $p < .01$, *** $p < .001$.

〈부표 IV-2-4〉 비목별 가구 생활비 대비 총 양육비용 비중 (2018~2022년, 실질비용) : 전체 가구

단위: 만원, %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가구 생활비 비목별 지출액	총 양육 비용 비중(%)	가구 생활비 비목별 지출액	총 양육 비용 비중(%)	가구 생활비 비목별 지출액	총 양육 비용 비중(%)	가구 생활비 비목별 지출액	총 양육 비용 비중(%)	가구 생활비 비목별 지출액	총 양육 비용 비중(%)
총계	315.8	35.8	334.5	36.9	330.7	36.1	341.0	37.2	336.5	36.5
1.식비(외식비포함)	82.1	30.7	84.4	32.6	95.8	33.5	93.8	32.7	91.1	33.3
3.기기/집기	6.3	50.4	8.2	43.6	11.1	43.1	13.2	44.2	28.5	28.4
4.피복비(의류및신발)	18.5	54.1	19.0	56.0	19.2	57.6	20.0	59.2	12.6	51.1
5.보건/의료비	7.1	71.5	9.0	67.0	11.4	60.4	12.3	59.3	20.2	59.9
6.교육/보육비	41.5	96.6	45.5	96.8	34.8	96.3	42.1	97.6	12.3	61.8
7.여가및문화생활비 (교양/오락비)	32.7	62.9	32.2	61.6	22.7	69.1	25.2	68.2	38.3	91.8
7-1.가족여행 등	20.0	45.7	19.5	46.3	11.1	47.0	14.0	45.6	31.0	63.7
7-2.관람 체험학습	4.1	61.8	4.2	56.7	1.2	59.7	1.7	61.1	18.5	45.4
7-3.완구	4.0	95.0	4.0	91.1	4.3	95.1	4.5	97.6	3.2	66.1
7-4.도서구매	4.6	92.4	4.5	86.1	5.1	91.0	4.4	94.6	4.4	98.7
8.교통비	26.7	3.0	28.0	3.3	26.4	4.4	26.2	3.3	4.1	95.1
9.통신비	17.3	2.5	17.8	4.1	18.4	6.2	17.8	4.9	26.3	4.4
9-1.휴대전화비	12.7	3.1	12.3	4.9	13.1	7.4	13.2	6.1	17.0	4.0
10.개인유지비 (생필품포함)	13.0	42.5	13.4	42.6	14.2	42.8	14.4	45.3	11.3	4.6
11-2.보험	36.8	30.4	42.7	31.0	43.4	32.2	43.5	32.1	14.9	47.9

주: 1) 총 양육비용은 영유아가 아닌 자녀의 양육비용도 합산된 금액으로, 생활비 대비 비율은 각 가구별로 "(총양육 비용/가구 총소비지출)*100"로 변수를 생성한 후에 이 비중을 평균한 값, 식비 총양육비용 비율 =(전체 자녀에게 들어간 식비/가구 전체 식비지출)*100.

2) 2022년 공표된 소비자물가지수(2020=100)을 통해 2020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임.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나.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부표 IV-2-5〉 비목별 가구 생활비 및 가구소득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비중
(2018~2022년, 실질비용)

단위: %, (명)

구분	가구생활비 대비 비중					가구소득 대비 비중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총계 (수)	20.8 (2,298)	19.9 (2,334)	18.9 (2,368)	19.3 (2,403)	19.4 (2,395)	15.8 (2,296)	14.9 (2,334)	12.7 (2,368)	14.3 (2,403)	14.2 (2,395)
1.식비(외식비포함)	17.6	17.7	17.9	17.5	18.1	3.5	3.3	3.5	3.5	3.6
1-1.외식비	14.5	13.1	14.5	13.0	14.6	0.8	0.7	0.8	0.8	0.9
3.기기/집기	31.7	24.7	25.9	23.9	29.3	0.4	0.4	0.5	0.6	0.5
4.피복비(의류및신발)	31.6	31.3	32.3	32.8	33.3	1.3	1.2	1.2	1.4	1.4
5.보건/의료비	45.5	40.5	35.9	34.4	36.0	0.7	0.7	0.8	0.9	0.9
6.교육/보육비	55.7	52.0	46.9	48.7	45.5	5.0	4.6	2.5	3.4	2.9
7.여가및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37.9	35.0	39.5	39.2	36.5	2.7	2.2	1.8	2.0	2.3
7-1.가족여행 등	27.2	26.9	26.6	25.8	25.8	1.2	1.0	0.6	0.7	1.0
7-2.관람 체험학습	35.6	29.0	29.6	30.5	36.1	0.3	0.2	0.1	0.1	0.2
7-3.완구	62.4	55.9	56.9	59.7	61.5	0.6	0.5	0.6	0.6	0.6
7-4.도서구매	54.7	45.1	48.6	50.7	52.0	0.6	0.4	0.5	0.5	0.4
8.교통비	1.1	1.4	2.0	1.5	2.2	0.1	0.1	0.1	0.1	0.1
9.통신비	0.2	0.3	0.6	0.2	0.3	0.0	0.0	0.0	0.0	0.0
9-1.휴대전화비	0.2	0.3	0.6	0.1	0.2	0.0	0.0	0.0	0.0	0.0
10.개인유지비(생필품포함)	25.6	25.7	26.3	27.0	28.5	0.8	0.8	0.9	0.9	1.0
11-2.보험	18.0	17.3	18.3	17.7	18.8	1.4	1.5	1.5	1.5	1.5

주: 1) 아동당 양육비용 비중은 각 가구별로 “(아동당 양육비용/가구 총소비지출)*100”로 변수를 생성한 후에 이 비중을 평균한 값, 식비 비중 =(해당 자녀에게 들어간 식비/가구 전체 소비지출)*100.

2) 2022년 공표된 소비자물가지수(2020=100)을 통해 2020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임.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4. 양육비용 부담 및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가. 양육비용 부담

〈부표 IV-4-1〉 가구 특성별 추가소득 발생 시 우선 지출 비목 (2022년)

구분		추가소득 발생시 우선 지출 비목											계(수)		
		식비	주거/ 관리비	기기/ 집기	피복비	보건/ 의료비	교육/ 보육비	여가/ 문화 생활비	교통/ 통신비	개인 유지비	금융 상품 상환	이전 지출		기타 상품 및 서비스	
전체	맞벌이	11.0	0.5	1.8	1.6	2.1	29.7	18.8	0.3	4.5	19.0	10.5	0.2	0.1	100.0 (1,730)
	맞벌이	11.1	0.8	1.6	1.7	1.3	28.2	20.2	0.3	4.0	17.6	12.9	0.3	0.1	100.0 (767)
	가구 여부	11.0	0.2	2.1	1.6	2.7	30.8	17.7	0.4	4.8	20.0	8.5	0.2	0.0	100.0 (963)
	χ^2	21.6*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16.6	0.0	2.1	0.7	2.8	29.7	16.6	0.0	3.4	20.0	7.6	0.7	0.0	100.0 (145)
	300~399만원	9.3	0.8	2.2	1.8	3.0	31.3	18.2	0.6	4.6	17.8	10.1	0.2	0.0	100.0 (495)
	400~499만원	8.8	0.5	1.0	1.7	1.9	28.9	19.6	0.5	5.5	22.0	9.8	0.0	0.0	100.0 (419)
	500~599만원	10.6	0.0	2.7	1.0	1.3	29.9	18.3	0.0	5.0	17.6	13.0	0.3	0.3	100.0 (301)
	600만원 이상	14.1	0.5	1.6	2.2	1.4	28.1	20.0	0.3	3.0	17.8	10.8	0.3	0.0	100.0 (370)
	χ^2	45.0													
총 자녀수	1명	11.0	0.5	1.9	1.2	2.7	21.3	22.6	0.9	6.5	22.0	9.1	0.3	0.0	100.0 (583)
	2명	10.7	0.4	1.6	1.7	1.7	34.1	18.3	0.0	3.6	17.0	10.9	0.1	0.0	100.0 (900)
	3명 이상	12.6	0.4	2.8	2.4	2.0	33.2	11.3	0.4	2.8	19.0	12.1	0.4	0.4	100.0 (247)
	χ^2	68.8***													

단위: %,(가)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 $p < .05$, *** $p < .001$.

V. 육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및 지원 요구

1. 영유아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가. 반일제이상 기관

〈부표 V-1-1〉 연령별 및 연도별 영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비중 (2018~2022년)

단위: %, (명)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어린이집	1차년도(2018년)	2.3	(3)	32.9	(94)	82.9	(283)	94.7	(348)
	2차년도(2019년)	2.0	(3)	24.3	(70)	81.1	(265)	95.2	(356)
	3차년도(2020년)	1.8	(3)	19.9	(57)	70.6	(227)	89.4	(315)
	4차년도(2021년)	1.3	(2)	26.7	(74)	74.5	(238)	90.2	(315)
	5차년도(2022년)	1.3	(2)	27.5	(88)	77.3	(259)	95.7	(379)
유치원	5차년도(2022년)	0.0	(0)	0.0	(0)	0.0	(0)	0.5	(2)
반일제 이상 학원	1차년도(2018년)	0.0	(0)	0.4	(1)	0.7	(2)	1.4	(5)
	2차년도(2019년)	0.0	(0)	0.0	(0)	0.7	(2)	0.9	(3)
	3차년도(2020년)	0.0	(0)	0.0	(0)	0.0	(0)	0.3	(1)
	4차년도(2021년)	0.7	(1)	0.0	(0)	0.0	(0)	0.5	(2)
	5차년도(2021년)	0.0	(0)	0.0	(0)	0.3	(1)	0.3	(1)
반일제 이상 기관 미이용	1차년도(2018년)	97.7	(140)	66.8	(192)	16.4	(56)	3.9	(15)
	2차년도(2019년)	98.0	(141)	75.7	(218)	18.2	(59)	3.9	(14)
	3차년도(2020년)	98.2	(140)	80.1	(231)	29.4	(95)	10.3	(36)
	4차년도(2021년)	98.0	(137)	73.3	(204)	25.5	(81)	9.3	(32)
	5차년도(2022년)	98.7	(154)	72.5	(232)	22.4	(75)	3.5	(14)

주: 1) 해당 연령 전체 대비 해당 서비스 이용자 비중과 수임.

2) 반일제 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 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2) 최효미 외(2021). 〈부표 4-22〉.

〈부표 V-1-2〉 연령별 및 연도별 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비중 (2018~2022년)

단위: %, (명)

구분		만4세		만5세		만6세	
어린이집	1차년도(2018년)	52.1	(190)	34.1	(125)	29.4	(120)
	2차년도(2019년)	63.3	(254)	40.1	(160)	31.8	(128)
	3차년도(2020년)	55.0	(221)	41.5	(180)	31.8	(136)
	4차년도(2021년)	58.6	(224)	44.0	(191)	32.6	(153)
	5차년도(2022년)	58.3	(221)	43.1	(169)	33.7	(140)
유치원	1차년도(2018년)	41.0	(149)	60.2	(220)	63.8	(260)
	2차년도(2019년)	33.3	(134)	56.7	(226)	64.4	(258)
	3차년도(2020년)	34.5	(139)	43.0	(186)	53.1	(227)
	4차년도(2021년)	40.0	(153)	52.8	(229)	63.9	(300)
	5차년도(2022년)	38.5	(146)	55.4	(217)	62.4	(259)
반일제 이상 학원	1차년도(2018년)	5.1	(19)	5.4	(20)	6.6	(27)
	2차년도(2019년)	2.2	(9)	2.2	(9)	3.6	(14)
	3차년도(2020년)	1.4	(6)	1.6	(7)	2.4	(10)
	4차년도(2021년)	0.5	(2)	2.7	(12)	3.0	(14)
	5차년도(2022년)	1.3	(5)	1.3	(5)	3.4	(14)
반일제 이상 기관 미이용	1차년도(2018년)	1.8	(7)	0.3	(1)	0.2	(1)
	2차년도(2019년)	1.2	(5)	1.0	(4)	0.2	(1)
	3차년도(2020년)	9.2	(37)	13.9	(60)	12.7	(54)
	4차년도(2021년)	0.9	(3)	0.5	(2)	0.4	(2)
	5차년도(2022년)	1.8	(7)	0.3	(1)	0.5	(2)

주: 1) 해당 연령 전체 대비 해당 서비스 이용자 비중과 수임.

2) 반일제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2) 최호미 외(2021). 〈부표 4-23〉

〈부표 V-1-3〉 연령별 및 연도별 영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시간1 (2018~2022년)

단위: 시간(명)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어린이집	1차년도(2018년)	40.8	(3)	35.0	(94)	34.5	(283)	34.4	(348)
	2차년도(2019년)	42.2	(3)	33.8	(70)	35.1	(265)	35.1	(356)
	3차년도(2020년)	48.5	(3)	35.2	(57)	37.1	(227)	37.7	(315)
	4차년도(2021년)	14.0	(2)	34.5	(74)	34.0	(238)	35.0	(315)
	5차년도(2022년)	33.2	(3)	31.4	(76)	34.6	(237)	34.8	(319)
유치원	5차년도(2022년)	0.0	(0)	0.0	(0)	0.0	(0)	22.6	(2)
반일제 이상 학원	1차년도(2018년)	0.0	(0)	45.0	(1)	27.3	(2)	25.4	(5)
	2차년도(2019년)	0.0	(0)	0.0	(0)	20.0	(2)	36.9	(3)
	3차년도(2020년)	0.0	(0)	0.0	(0)	0.0	(0)	30.0	(1)
	4차년도(2021년)	4.0	(1)	0.0	(0)	0.0	(0)	31.0	(2)
	5차년도(2022년)	0.0	(0)	0.0	(0)	28.3	(1)	27.5	(1)

주: 1) 반일제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2) 해당 서비스 이용자 기준으로 산출함.

3) 1,2차년도 이용 시간은 평상시 하원시각에서 등원시각을 뺀 1일 기준의 계산 값을 주5일로 곱한 후 평균하여 산출한 결과이나, 3차년도의 이용 시간은 일주일의 시간표 형식의 문항을 통해 이용 기관별 이용 시간을 일주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값임.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3) 최효미 외(2021). <부표 4-24>.

〈부표 V-1-4〉 연령별 및 연도별 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시간2 (2018~2021년)

단위: 시간(명)

구분		만4세		만5세		만6세	
어린이집	1차년도(2018년)	35.2	(190)	35.9	(125)	35.5	(120)
	2차년도(2019년)	35.8	(254)	36.8	(160)	36.0	(128)
	3차년도(2020년)	37.5	(221)	38.0	(180)	38.4	(136)
	4차년도(2021년)	35.0	(224)	36.0	(191)	36.5	(153)
	5차년도(2022년)	35.8	(214)	34.6	(178)	36.2	(150)
유치원	1차년도(2018년)	34.3	(149)	34.8	(220)	34.3	(260)
	2차년도(2019년)	34.1	(134)	34.2	(226)	34.7	(258)
	3차년도(2020년)	35.1	(139)	35.0	(186)	33.8	(227)
	4차년도(2021년)	35.0	(153)	35.0	(229)	34.0	(300)
	5차년도(2022년)	35.0	(139)	35.2	(229)	35.1	(278)
반일제 이상 학원	1차년도(2018년)	27.5	(19)	28.6	(20)	28.6	(27)
	2차년도(2019년)	29.0	(9)	30.5	(9)	29.4	(14)
	3차년도(2020년)	33.3	(6)	33.1	(7)	36.4	(10)
	4차년도(2021년)	31.5	(2)	31.5	(12)	29.0	(14)
	5차년도(2022년)	30.3	(5)	30.8	(5)	31.3	(15)

주: 1) 반일제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2) 해당 서비스 이용자 기준으로 산출함.

3) 1,2차년도 이용 시간은 평상시 하원시각에서 등원시각을 뺀 1일 기준의 계산 값을 주5일로 곱한 후 평균하여 산출한 결과이나, 3차년도의 이용 시간은 일주일의 시간표 형식의 문항을 통해 이용 기관별 이용 시간을 일주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값임.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3) 최효미 외(2021). <부표 4-25>.

〈부표 V-1-5〉 연령별 및 연도별 영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비용1 (2018~2022년)

단위: 만원,(명)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어린이집	1차년도(2018년)	8.3	(3)	2.1	(93)	3.7	(284)	6.8	(348)
	2차년도(2019년)	1.5	(3)	2.4	(70)	5.2	(264)	8.1	(354)
	3차년도(2020년)	4.3	(3)	1.7	(56)	4.2	(226)	5.7	(314)
	4차년도(2021년)	0.0	(0)	2.3	(73)	4.4	(237)	6.9	(313)
	5차년도(2022년)	0.0	(3)	2.1	(76)	4.0	(238)	7.0	(321)
유치원	1차년도(2018년)	0.0	(0)	0.0	(0)	0.0	(0)	0.0	(0)
	2차년도(2019년)	0.0	(0)	0.0	(0)	0.0	(0)	0.0	(0)
	3차년도(2020년)	0.0	(0)	0.0	(0)	0.0	(0)	0.0	(0)
	4차년도(2021년)	0.0	(0)	0.0	(0)	0.0	(0)	0.0	(0)
	5차년도(2022년)	0.0	(0)	0.0	(0)	0.0	(0)	3.8	(321)
반일제 이상 학원	1차년도(2018년)	0.0	(0)	22.8	(1)	11.4	(2)	37.3	(5)
	2차년도(2019년)	0.0	(0)	0.0	(0)	90.5	(2)	47.2	(3)
	3차년도(2020년)	0.0	(0)	0.0	(0)	0.0	(0)	150.6	(1)
	4차년도(2021년)	26.4	(1)	0.0	(0)	0.0	(0)	112.6	(2)
	5차년도(2022년)	0.0	(0)	0.0	(0)	27.7	(238)	90.6	(321)

주: 1) 반일제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2) 해당 서비스 이용자 기준으로 산출함.

3) 2022년 공표된 소비자물가지수(2020=100)을 통해 2020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임.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부표 V-1-6〉 연령별 및 연도별 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비용2 (2018~2022년)

단위: 만원,(명)

구분		만4세		만5세		만6세	
어린이집	1차년도(2018년)	10.2	(190)	8.6	(125)	9.7	(120)
	2차년도(2019년)	9.5	(251)	10.7	(160)	9.5	(125)
	3차년도(2020년)	7.0	(221)	8.5	(179)	7.6	(136)
	4차년도(2021년)	8.1	(220)	8.9	(191)	9.4	(152)
	5차년도(2022년)	9.2	(412)	8.9	(412)	9.5	(443)
유치원	1차년도(2018년)	15.9	(149)	14.7	(220)	13.2	(260)
	2차년도(2019년)	16.3	(132)	14.7	(221)	15.4	(257)
	3차년도(2020년)	15.4	(139)	15.0	(186)	11.7	(227)
	4차년도(2021년)	15.7	(153)	13.6	(228)	13.1	(298)
	5차년도(2022년)	13.0	(412)	12.8	(412)	10.8	(443)
반일제 이상 학원	1차년도(2018년)	61.4	(19)	63.1	(20)	60.8	(27)
	2차년도(2019년)	75.0	(9)	85.8	(9)	63.5	(14)
	3차년도(2020년)	73.4	(6)	78.5	(6)	97.5	(10)
	4차년도(2021년)	125.3	(2)	81.8	(12)	93.4	(14)
	5차년도(2022년)	111.7	(412)	88.7	(412)	101.7	(443)

주: 1) 반일제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2) 해당 서비스 이용자 기준으로 산출함.

3) 2022년 공표된 소비자물가지수(2020=100)을 통해 2020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임.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부표 V-1-7〉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시간의 충분성 정도 (2022년)

단위: %, (명)

구분		지금보다 이용 시간을 많이 늘리고 싶다	지금보다 이용 시간을 조금 늘리고 싶다	현재 이용시간 이 적당하다	지금보다 이용 시간을 조금 줄이고 싶다	지금보다 이용 시간을 많이 줄이고 싶다	계(수)
전체		3.1	9.4	83.5	3.6	0.5	100.0 (1,851)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3.0	9.3	81.2	5.6	0.9	100.0 (876)
	외벌이	3.1	9.6	85.5	1.8	0.1	100.0 (976)
	χ^2	26.5***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3.0	14.4	80.3	1.8	0.6	100.0 (160)
	300~399만원 이하	2.7	10.0	84.5	2.5	0.2	100.0 (477)
	400~499만원 이하	3.6	9.5	84.3	2.6	0.0	100.0 (453)
	500~599만원 이하	3.5	8.6	82.1	5.1	0.8	100.0 (348)
	600만원 이상	2.6	7.4	83.8	5.2	0.9	100.0 (413)
χ^2		23.3					
총 자녀수	1명	4.8	9.9	81.7	3.3	0.2	100.0 (371)
	2명	2.4	9.1	84.1	3.8	0.6	100.0 (1,108)
	3명이상	3.4	9.8	83.3	3.2	0.2	100.0 (372)
	χ^2	8.1					
지역 규모	대도시	2.5	9.7	82.8	4.2	0.8	100.0 (707)
	중소도시	3.1	8.8	84.5	3.3	0.3	100.0 (841)
	읍면지역	4.2	10.7	82.1	3.0	0.0	100.0 (303)
χ^2		8.1					
아동 연령	0세(2022년생)	0.0	0.0	100.0	0.0	0.0	100.0 (3)
	1세(2021년생)	4.6	15.0	76.0	3.4	1.1	100.0 (76)
	2세(2020년생)	4.1	13.0	78.6	3.5	0.7	100.0 (238)
	3세(2019년생)	2.4	9.2	86.1	2.0	0.3	100.0 (321)
	4세(2018년생)	3.2	11.8	79.7	5.1	0.3	100.0 (358)
	5세(2017년생)	2.3	7.0	86.9	3.0	0.7	100.0 (412)
	6세(2016년생)	3.4	7.1	85.2	4.1	0.3	100.0 (443)
χ^2		27.7					
이용 기관 유형	어린이집	2.7	10.1	83.7	3.2	0.4	100.0 (1,177)
	유치원	3.7	7.9	83.2	4.5	0.6	100.0 (648)
	반일제이상 기관	4.2	17.8	78.0	0.0	0.0	100.0 (27)
	χ^2	10.3					

주: 반일제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 $p < .001$.

〈부표 V-1-8〉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시간의 충분성 정도 (2022년)

단위: %, (명)

구분		지금보다 이용 시간을 많이 늘리고 싶다	지금보다 이용 시간을 조금 늘리고 싶다	현재 이용시간 이 적당하다	지금보다 이용 시간을 조금 줄이고 싶다	지금보다 이용 시간을 많이 줄이고 싶다	계(수)
전체		3.1	9.4	83.5	3.6	0.5	100.0 (1,851)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3.0	9.3	81.2	5.6	0.9	100.0 (876)
	외벌이	3.1	9.6	85.5	1.8	0.1	100.0 (976)
	χ^2	26.6***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3.0	14.4	80.3	1.8	0.6	100.0 (160)
	300~399만원 이하	2.7	10.0	84.5	2.5	0.2	100.0 (477)
	400~499만원 이하	3.6	9.5	84.3	2.6	0.0	100.0 (453)
	500~599만원 이하	3.5	8.6	82.1	5.1	0.8	100.0 (348)
	600만원 이상	2.6	7.4	83.8	5.2	0.9	100.0 (413)
총 자녀수	χ^2	23.3					
	1명	4.8	9.9	81.7	3.3	0.2	100.0 (371)
	2명	2.4	9.1	84.1	3.8	0.6	100.0 (1,108)
	3명이상	3.4	9.8	83.3	3.2	0.2	100.0 (372)
	χ^2	8.1					
지역 규모	대도시	2.5	9.7	82.8	4.2	0.8	100.0 (707)
	중소도시	3.1	8.8	84.5	3.3	0.3	100.0 (841)
	읍면지역	4.2	10.7	82.1	3.0	0.0	100.0 (303)
아동 연령	χ^2	8.1					
	0세(2022년생)	0.0	0.0	100.0	0.0	0.0	100.0 (3)
	1세(2021년생)	4.6	15.0	76.0	3.4	1.1	100.0 (76)
	2세(2020년생)	4.1	13.0	78.6	3.5	0.7	100.0 (238)
	3세(2019년생)	2.4	9.2	86.1	2.0	0.3	100.0 (321)
	4세(2018년생)	3.2	11.8	79.7	5.1	0.3	100.0 (358)
	5세(2017년생)	2.3	7.0	86.9	3.0	0.7	100.0 (412)
	6세(2016년생)	3.4	7.1	85.2	4.1	0.3	100.0 (443)
	χ^2	27.7					
이용 기관 유형	어린이집	2.7	10.1	83.7	3.2	0.4	100.0 (1,177)
	유치원	3.7	7.9	83.2	4.5	0.6	100.0 (648)
	반일제이상 기관	4.2	17.8	78.0	0.0	0.0	100.0 (27)
	χ^2	10.3					

주: 반일제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 $p < .001$.

〈부표 V-1-9〉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을 늘리고 싶은 주당 평균 시간 (2022년)

단위: 시간(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등
전체		6.0 (150)	6.2 (76)	5.6 (6)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6.3 (67)	5.9 (38)	6.2 (3)
	외벌이	5.9 (83)	6.4 (38)	5.0 (3)
<i>t</i>		0.7	-0.5	0.4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6.6 (19)	6.3 (8)	- (0)
	300~399만원 이하	5.9 (45)	4.8 (15)	5.0 (1)
	400~499만원 이하	6.4 (35)	7.9 (22)	6.4 (3)
	500~599만원 이하	4.8 (26)	7.2 (16)	- (0)
	600만원 이상	6.5 (26)	3.6 (14)	4.7 (2)
	<i>F</i>	1.1	3.7**	0.1
총 자녀수	1명	6.2 (41)	5.2 (12)	5.0 (1)
	2명	6.1 (80)	6.6 (45)	6.2 (3)
	3명이상	5.6 (29)	5.7 (19)	5.0 (2)
	<i>F</i>	0.3	0.7	0.0
지역 규모	대도시	6.0 (54)	7.1 (28)	6.9 (4)
	중소도시	5.5 (61)	5.9 (38)	1.0 (1)
	읍면지역	7.0 (35)	4.1 (9)	5.0 (1)
	<i>F</i>	1.8	2.2	1.7
아동 연령	0세(2022년생)	- (0)	- (0)	- (0)
	1세(2021년생)	8.5 (15)	- (0)	- (0)
	2세(2020년생)	5.4 (40)	- (0)	5.0 (1)
	3세(2019년생)	5.9 (36)	2.0 (1)	10.0 (1)
	4세(2018년생)	6.8 (26)	5.6 (27)	1.0 (1)
	5세(2017년생)	6.2 (20)	5.7 (18)	- (0)
	6세(2016년생)	3.8 (13)	7.1 (30)	6.0 (3)
	<i>F</i>	3.3**	1.1	1.8
현재 이용 시간	6시간 미만	8.0 (31)	7.2 (27)	5.7 (5)
	6~8시간	5.6 (106)	5.6 (40)	5.0 (1)
	8시간 이상	5.1 (13)	4.5 (7)	- (0)
	χ^2	6.3**	1.9	0.0

주: 반일제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 $p < .01$

〈부표 V-1-10〉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시간을 늘리고 싶음에도 현재만큼만 이용하는 이유 (2022년)

단위: %, (명)

구분		이용 자격 때문 에	눈치 가 보여 서	코로 나19 감염 걱정 으로	아이 가 혼자 남는 걸 싫어 해서	비용 부담 때문 에	다른 일정 때문 에	아이 에게 안중 을 것 같아 서	특별 활동 이 없어 아이 가 지루 해해 서	기타	계(수)
전체		18.2	18.5	5.3	24.6	2.1	1.3	17.1	3.2	9.7	100.0 (231)
맞벌이 가구	맞벌이	7.6	22.2	5.2	24.5	1.8	2.0	21.4	4.8	10.4	100.0 (108)
	외벌이	27.5	15.3	5.3	24.6	2.4	0.7	13.4	1.8	9.1	100.0 (124)
여부		χ^2 18.6*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9.6	9.9	0.0	26.9	2.8	0.0	23.0	3.8	14.0	100.0 (28)
	300~399만원 이하	21.5	13.0	4.3	27.8	3.5	1.4	19.0	1.9	7.5	100.0 (61)
	400~499만원 이하	25.3	24.6	5.1	19.0	1.5	1.8	12.2	1.3	9.3	100.0 (59)
	500~599만원 이하	11.1	22.7	8.9	21.1	0.0	2.7	9.3	10.8	13.4	100.0 (42)
	600만원 이상	9.4	19.6	6.6	29.5	2.7	0.0	25.4	0.0	6.8	100.0 (42)
		χ^2 33.6									
총 자녀수	1명	20.1	11.9	5.1	28.7	3.5	2.1	15.1	2.1	11.5	100.0 (55)
	2명	19.3	19.3	6.5	22.6	2.4	0.8	15.7	2.4	11.1	100.0 (128)
	3명이상	13.4	23.8	2.3	24.9	0.0	1.7	23.1	6.7	4.1	100.0 (49)
		χ^2 11.8									
지역 규모	대도시	14.7	13.9	8.4	23.0	3.5	2.3	22.3	4.8	7.2	100.0 (86)
	중소도시	18.5	21.2	4.9	25.5	0.9	1.1	13.5	1.1	13.4	100.0 (100)
	읍면지역	24.3	21.5	0.0	25.4	2.2	0.0	15.3	5.0	6.2	100.0 (45)
		χ^2 16.5									
아동 연령	0세(2022년생)	-	-	-	-	-	-	-	-	-	-
	1세(2021년생)	5.8	6.4	0.0	28.7	0.0	5.6	35.8	0.0	17.8	100.0 (15)
	2세(2020년생)	13.7	30.7	4.2	25.8	0.0	0.0	15.7	5.5	4.2	100.0 (41)
	3세(2019년생)	12.1	9.5	6.5	24.5	4.4	0.0	28.9	2.1	12.0	100.0 (37)
	4세(2018년생)	15.8	16.6	5.2	38.1	0.0	0.0	8.5	0.0	15.9	100.0 (54)
	5세(2017년생)	33.8	22.0	5.2	13.0	0.0	0.0	18.2	0.0	7.7	100.0 (38)
	6세(2016년생)	20.8	18.3	6.9	16.1	7.0	4.7	12.1	9.5	4.5	100.0 (46)
		χ^2 63.8**									
이용 기관 유형	어린이집	12.0	19.8	2.8	27.8	1.8	1.3	22.4	3.0	9.1	100.0 (150)
	유치원	32.1	14.8	10.6	20.1	0.0	1.4	7.9	2.9	10.3	100.0 (76)
	반일제이상 학원	0.0	33.8	0.0	0.0	36.4	0.0	0.0	13.2	16.6	100.0 (6)
		χ^2 62.8***									
현재 이용 시간	6시간 미만	26.3	14.6	8.6	10.7	3.6	0.0	15.1	8.3	12.9	100.0 (63)
	6~8시간	16.0	17.8	3.8	28.7	1.8	2.0	19.2	1.5	9.1	100.0 (147)
	8시간 이상	10.0	36.9	0.0	38.7	0.0	0.0	9.7	0.0	4.8	100.0 (21)
		χ^2 30.5*									

주: 반일제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 $p < .05$, ** $p < .01$, *** $p < .001$.

〈부표 V-1-11〉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을 줄이고 싶은 주당 평균 시간 (2022년)

단위: 시간(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전체		6.6	(42)	5.3	(33)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6.9	(33)	6.2	(23)
	외벌이	5.5	(8)	3.3	(10)
	<i>t</i>	0.9		2.8**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7.5	(4)	-	(0)
	300~399만원 이하	6.4	(3)	4.8	(10)
	400~499만원 이하	8.6	(3)	4.9	(9)
	500~599만원 이하	6.8	(15)	7.0	(5)
	600만원 이상	5.9	(16)	5.5	(9)
	<i>F</i>	0.3		0.7	
총 자녀수	1명	6.9	(7)	7.6	(6)
	2명	7.0	(26)	5.0	(23)
	3명이상	5.3	(9)	4.0	(4)
	<i>F</i>	0.5		2.5	
지역 규모	대도시	6.6	(18)	6.1	(18)
	중소도시	6.6	(18)	3.4	(12)
	읍면지역	6.5	(6)	8.4	(3)
	<i>F</i>	0		6.3**	
아동 연령	0세(2022년생)	-	(0)	-	(0)
	1세(2021년생)	9.2	(3)	-	(0)
	2세(2020년생)	7.5	(10)	-	(0)
	3세(2019년생)	4.8	(7)	-	(0)
	4세(2018년생)	7.4	(10)	5.1	(9)
	5세(2017년생)	3.9	(3)	5.2	(12)
	6세(2016년생)	6.2	(8)	5.7	(12)
	<i>F</i>	1.0		0.1	
현재 이용 시간	8시간 미만	4.9	(12)	5.0	(21)
	8시간 이상	7.4	(29)	5.8	(12)
	<i>F</i>	3.1		0.5	

주: 반일제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 $p < .01$

〈부표 V-1-12〉 가구특성별 코로나19 전후 특별활동 이용 변화 및 이용 계획 개수 (2022년)

단위: %, 개, (명)

구분		코로나19 전후 이용 변화			이용 계획 개수	계(수)
		차이가 있다	차이가 없다	잘 모르겠다		
전체		8.4	69.2	22.4	3.0	100.0 (1,851)
맞벌이 가구	맞벌이	8.6	70.2	21.3	2.9	100.0 (876)
	외벌이	8.2	68.4	23.3	3.1	100.0 (976)
여부		χ^2/t			-0.6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7.8	61.0	31.2	2.5	100.0 (160)
	300~399만원 이하	8.9	66.9	24.2	3.3	100.0 (477)
	400~499만원 이하	7.4	67.8	24.8	2.8	100.0 (453)
	500~599만원 이하	7.7	72.7	19.5	2.2	100.0 (348)
	600만원 이상	9.6	73.9	16.5	3.7	100.0 (413)
		χ^2/F			5.5***	
총 자녀수	1명	6.9	63.7	29.4	2.8	100.0 (371)
	2명	8.4	70.1	21.5	2.9	100.0 (1,108)
	3명이상	9.9	72.1	17.9	3.4	100.0 (372)
		χ^2/F			2.1	
지역 규모	대도시	8.3	69.5	22.2	2.9	100.0 (707)
	중소도시	10.0	66.4	23.6	3.1	100.0 (841)
	읍면지역	4.2	76.5	19.4	3.4	100.0 (303)
		χ^2/F			0.8	
아동 연령	0세(2022년생)	0.0	51.3	48.7	-	100.0 (3)
	1세(2021년생)	3.4	58.1	38.5	2.0	100.0 (76)
	2세(2020년생)	4.9	66.2	28.9	2.3	100.0 (238)
	3세(2019년생)	8.6	68.4	22.9	3.1	100.0 (321)
	4세(2018년생)	8.8	70.1	21.1	2.9	100.0 (358)
	5세(2017년생)	8.8	72.6	18.6	3.4	100.0 (412)
	6세(2016년생)	10.3	69.7	20.0	3.0	100.0 (443)
		χ^2/F			1.4	
이용 기관 유형	어린이집	9.0	67.1	23.9	3.0	100.0 (1,177)
	유치원	7.7	72.4	20.0	3.0	100.0 (648)
	반일제이상 기관	0.0	88.3	11.7	-	100.0 (27)
		χ^2/F			0.0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 p < .05, ** p < .01, *** p < .001.

나. 시간제 사교육

〈부표 V-1-13〉 영유아의 이용 서비스 (2022년)

단위: %, (명)

구분	이용함	이용안함	계(수)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우리동네 키움센터 등	0.8	99.2	100.0 (2,393)
문화센터 등	7.6	92.4	100.0 (2,393)
예체능 학원	19.6	80.4	100.0 (2,393)
학습관련 학원	5.3	94.7	100.0 (2,393)
기타 사교육(방문형학습지, 방문형 교구활동교육, 비방문 학습지, 비방문형 교구활동교육, 개인 및 그룹지도, 교육용 온라인콘텐츠)	20.8	79.2	100.0 (2,393)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부표 V-1-14〉 연령별 및 연도별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이용 비중 (2018~2022년)

단위: %

구분		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교육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개인 및 그룹 지도	문화 센터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전체	1차	15.5	15.3	2.2	3.2	1.1	3.2	10.0	
	2차	16.0	14.6	1.7	3.2	1.1	2.5	8.2	
	3차	12.9	12.1	1.5	3.9	1.0	1.5	0.9	
	4차	21.3	15.0	2.1		3.4	1.4	5.7	3.2
	5차	21.9	12.0	2.2		3.3	1.9	7.6	3.4
만0세	1차	0.0	0.7	0.0	0.0	0.0	0.0	1.6	
	2차	0.0	0.0	0.0	0.0	0.0	0.0	1.2	
	3차	0.0	0.0	0.0	0.0	0.7	0.0	0.0	
	4차	0.0	0.0	0.0		0.0	0.0	0.0	0.0
	5차	0.8	0.8	0.0		0.0	0.0	0.0	0.0
만1세	1차	1.1	0.8	1.1	0.0	0.0	0.4	13.8	
	2차	0.3	0.0	0.7	0.0	0.3	0.3	13.1	
	3차	0.3	0.3	0.9	0.6	0.3	0.0	1.9	
	4차	0.0	0.0	0.6		0.0	0.0	9.6	0.0
	5차	0.3	0.9	1.3		0.0	0.0	13.9	0.0
만2세	1차	3.1	4.1	0.3	3.0	1.7	0.7	10.5	
	2차	1.3	2.4	1.7	0.7	0.0	0.4	8.5	
	3차	0.6	0.9	0.9	1.2	0.9	0.3	0.9	
	4차	1.9	3.7	2.5		2.3	0.3	7.9	0.6
	5차	2.2	1.7	0.9		0.6	0.3	8.7	1.0
만3세	1차	4.8	6.7	2.0	3.7	0.6	1.7	5.1	
	2차	3.0	9.3	1.8	2.4	2.1	1.5	5.7	
	3차	2.4	5.8	1.2	1.8	1.2	1.8	0.6	
	4차	5.4	7.3	3.8		2.5	1.3	5.5	2.0
	5차	5.6	5.4	3.5		2.2	1.5	6.3	0.3
만4세	1차	12.2	17.3	1.9	3.9	1.9	2.6	12.0	
	2차	12.2	17.5	2.4	3.4	1.0	2.4	7.8	
	3차	12.0	12.5	1.0	5.1	0.7	1.8	0.2	
	4차	18.9	18.1	3.0		4.1	2.0	5.1	4.1
	5차	20.4	15.0	4.2		5.1	1.8	7.3	4.6
만5세	1차	29.4	25.3	5.2	4.5	1.5	6.0	11.4	
	2차	27.5	25.8	1.0	6.5	1.7	3.2	8.8	
	3차	19.2	20.5	2.1	5.4	0.5	2.1	1.0	
	4차	34.3	23.2	1.8		4.7	1.3	5.2	5.0
	5차	41.8	22.8	2.8		4.8	3.1	10.1	6.5
만6세	1차	41.7	37.2	2.9	4.4	1.5	7.8	11.4	
	2차	49.2	31.5	3.1	5.9	1.4	6.9	8.8	
	3차	37.9	29.0	2.8	8.3	2.1	2.6	1.2	
	4차	55.3	31.7	1.6		6.0	2.9	4.5	6.4
	5차	55.8	24.5	1.7		7.0	4.5	5.8	7.4

주: 각 연령별 대상자 중 해당 서비스 이용자 비중임.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2) 최효미 외(2021). 〈부표 4-28〉.

〈부표 V-1-15〉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유형별 이용 과목 (2022년)

단위: %,(명)

구분	체육	음악	미술	영어	한글	영어 외 언어	수학 및 과학	종합 교과	기타	(수)
단시간 학원	60.8 (319)	11.3 (59)	35.0 (183)	12.6 (66)	-	6.4 (33)	9.7 (51)	-	1.7 (9)	(524)
방문형 학습지	2.5 (12)	0.4 (2)	2.1 (11)	9.8 (49)	44.5 (224)	2.9 (15)	32.2 (162)	3.5 (18)	2.1 (11)	(503)
방문형 교구 활동교육	9.6 (6)	6.1 (4)	21.6 (13)	5.7 (3)	9.1 (5)	0.0 (0)	8.8 (5)	19.4 (11)	19.7 (12)	(59)
비방문형 학습지, 교구 활동교육	1.6 (2)	0.0 (0)	1.5 (2)	23.9 (32)	26.3 (36)	3.7 (5)	23.1 (31)	16.8 (23)	3.0 (4)	(136)
개인 및 그룹지도	6.1 (4)	1.5 (1)	9.1 (6)	36.8 (25)	13.7 (9)	1.6 (1)	14.5 (10)	7.3 (5)	9.5 (6)	(67)
교육용 온라인콘텐츠	3.1 (4)	0.0 (0)	0.8 (1)	27.2 (35)	22.5 (29)	0.0 (0)	24.5 (2)	20.3 (26)	1.6 (2)	(130)

주: 1) 단시간 학원은 '한글'과 '종합교과'는 관련 문항이 없음.

2) 과목별 이용률은 해당 유형의 사교육 전체 이용자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중복 이용 문항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부표 V-1-16〉 영유아의 문화센터 유형별 이용 과목 (2022년)

단위: %,(명)

체육	음악	미술	통합놀이 (오감, 쿠킹클래스)	언어 관련(동화, 외국어 등)	수학 관련(가베 등)	과학 관련	기타 (바둑, 체스 등)	(수)
50.2 (91)	4.9 (9)	24.4 (44)	37.0 (67)	10.0 (18)	4.5 (8)	1.2 (2)	1.8 (3)	100.0 (181)

주: 1) 이용 과목을 중복 응답한 결과임.

2) 과목별 이용률은 문화센터 전체 이용자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중복 이용 문항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부표 V-1-17〉 연령별 및 연도별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주당 이용 시간 (2018~2021년)

단위: 시간

구분		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교육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개인 및 그룹 지도	문화 센터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전체	1차	3.2	0.6	1.1	1.0	1.3	1.9	1.2	
	2차	3.5	0.5	0.7	1.1	1.0	1.7	1.1	
	3차	5.6	0.6	0.8	1.6	1.3	2.1	2.3	
	4차	4.2	0.6	0.8		1.7	2.8	1.2	1.9
	5차	3.9	0.6	0.7		3.6	2.2	1.3	1.9
만0세	1차	0.0	0.5	0.0	0.0	0.0	0.0	1.6	
	2차	0.0	0.0	0.0	0.0	0.0	0.0	0.6	
	3차	0.0	0.0	0.0	0.0	0.7	0.0	0.0	
	4차	0.0	0.0	0.0		0.0	0.0	1.1	0.0
	5차	1.7	0.3	-		-	-	-	
만1세	1차	2.4	0.4	0.6	0.0	0.0	0.8	0.9	
	2차	0.8	0.0	0.3	0.0	0.7	0.2	1.0	
	3차	10.0	0.5	0.5	1.3	1.7	0.0	2.0	
	4차	3.2	0.4	0.7		1.2	1.7	1.2	4.1
	5차	0.7	0.5	0.8		-	-	1.1	
만2세	1차	2.6	0.6	0.5	1.5	0.8	1.2	1.0	
	2차	1.9	0.3	0.5	0.7	0.0	0.5	1.0	
	3차	3.1	0.6	0.7	0.6	1.8	2.5	1.7	
	4차	0.0	0.0	0.4		0.0	0.0	0.0	0.0
	5차	2.8	0.6	0.8		0.2	0.5	1.3	3.1
만3세	1차	3.0	0.5	0.8	1.0	0.7	1.1	1.1	
	2차	2.5	0.4	0.6	0.8	1.2	0.9	1.0	
	3차	3.3	0.5	0.6	1.0	0.3	1.1	1.5	
	4차	4.3	0.6	1.3		0.8	7.0	0.9	1.8
	5차	2.6	0.4	0.5		0.8	1.7	1.1	1.0
만4세	1차	3.2	0.5	1.0	1.0	2.1	1.4	1.0	
	2차	2.5	0.6	0.6	1.0	1.4	1.5	1.1	
	3차	5.4	0.6	0.7	1.0	1.2	2.3	1.0	
	4차	3.3	0.8	0.7		1.4	1.7	0.9	2.0
	5차	3.0	0.8	0.8		10.5	2.8	1.2	1.8
만5세	1차	2.9	0.6	1.2	1.1	1.4	2.1	1.4	
	2차	3.6	0.5	0.7	1.2	0.8	1.6	1.2	
	3차	4.6	0.5	0.8	2.1	0.8	1.9	3.6	
	4차	4.0	0.6	0.5		2.3	1.2	1.3	1.6
	5차	3.5	0.6	0.7		1.4	2.3	1.5	1.8
만6세	1차	3.4	0.7	1.3	0.8	1.0	2.2	1.5	
	2차	3.8	0.6	0.8	1.2	1.0	2.0	1.4	
	3차	6.3	0.6	0.9	1.8	1.7	2.8	2.0	
	4차	4.6	0.6	0.6		1.8	2.6	1.5	1.8
	5차	4.6	0.6	0.9		1.7	2.1	1.6	1.9

주: 이용 시간은 해당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2) 최효미 외(2021). 〈부표 4-29〉에 5차년도 수치를 추가함.

〈부표 V-1-18〉 가구특성별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주당 이용시간 (2022년)

단위: 시간(명)

구분		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개인 및 그룹 지도	문화 센터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전체 (수)		3.9 (524)	0.6 (286)	0.7 (52)	3.6 (79)	2.2 (46)	1.3 (181)	1.9 (81)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4.1	0.6	0.8	6.0	2.4	1.4	1.8
	외벌이	3.8	0.6	0.7	1.0	2.0	1.3	1.9
	<i>t</i>	1.1	0.4	1.4	1.2	0.9	0.6	-0.1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4.9	0.8	0.8	0.9	-	1.4	2.5
	300~399만원 이하	3.5	0.6	0.6	1.5	1.9	1.3	1.7
	400~499만원 이하	3.8	0.6	0.9	11.0	1.8	1.2	2.2
	500~599만원 이하	4.1	0.5	0.9	1.8	2.6	1.1	1.6
	600만원 이상	4.0	0.7	0.7	1.6	2.5	1.5	1.8
	<i>F</i>	1.5	2.5*	1.0	0.9	0.8	0.5	0.7
총 자녀수	1명	3.5	0.7	0.8	1.5	2.2	1.2	1.6
	2명	4.0	0.6	0.7	4.6	2.3	1.4	1.9
	3명 이상	3.9	0.5	0.7	1.5	1.9	1.4	2.1
	<i>F</i>	0.9	3.0*	0.2	0.3	0.2	0.5	0.3
지역 규모	대도시	4.0	0.6	0.8	1.3	2.5	1.3	1.8
	중소도시	3.9	0.6	0.7	5.8	2.1	1.1	2.1
	읍면지역	3.5	0.6	0.7	1.9	1.9	2.1	1.4
	<i>F</i>	0.8	0.2	0.1	0.6	0.4	5.7**	1.9

주: 이용 시간은 해당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 $p < .05$, ** $p < .01$.

〈부표 V-1-19〉 가구특성별 시간제 사교육 이용시간 (2022년)

단위: 시간(명)

구분		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비방문 학습지, 교구 활동 교육	개인 및 그룹 지도	문화 센터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전체 (수)		3.9 (524)	0.6 (286)	0.7 (52)	3.6 (79)	2.2 (46)	1.3 (181)	1.9 (81)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4.1	0.6	0.8	6.0	2.4	1.4	1.8
	외벌이	3.8	0.6	0.7	1.0	2.0	1.3	1.9
	<i>t</i>	1.1	0.4	1.4	1.2	0.9	0.6	-0.1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4.9	0.8	0.8	0.9	-	1.4	2.5
	300~399만원 이하	3.5	0.6	0.6	1.5	1.9	1.3	1.7
	400~499만원 이하	3.8	0.6	0.9	11.0	1.8	1.2	2.2
	500~599만원 이하	4.1	0.5	0.9	1.8	2.6	1.1	1.6
	600만원 이상	4.0	0.7	0.7	1.6	2.5	1.5	1.8
	<i>F</i>	1.5	2.5*	1	0.9	0.8	0.5	0.7
총 자녀수	1명	3.5	0.7	0.8	1.5	2.2	1.2	1.6
	2명	4.0	0.6	0.7	4.6	2.3	1.4	1.9
	3명 이상	3.9	0.5	0.7	1.5	1.9	1.4	2.1
	<i>F</i>	0.9	3*	0.2	0.3	0.2	0.5	0.3
지역 규모	대도시	4.0	0.6	0.8	1.3	2.5	1.3	1.8
	중소도시	3.9	0.6	0.7	5.8	2.1	1.1	2.1
	읍면지역	3.5	0.6	0.7	1.9	1.9	2.1	1.4
	<i>F</i>	0.8	0.2	0.1	0.6	0.4	5.7**	1.9

주: 이용 시간은 해당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 $p < .05$, ** $p < .01$.

〈부표 V-1-20〉 가구특성별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한 단시간 학원 유형 (2022년)

단위: %, (명)

구분		이용 감소 유형							(수)
		체육	음악	미술	영어	영어 외 언어	수학 및 과학	기타	
전체		58.5	13.8	18.2	10.0	9.3	8.8	0.9	(122)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65.4	13.4	18.1	5.3	9.0	5.4	2.0	(56)
	외벌이	52.5	14.1	18.3	14.2	9.5	11.7	0.0	(65)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58.5	22.1	19.9	0.0	19.4	0.0	0.0	(5)
	300~399만원 이하	57.3	14.4	14.3	10.7	7.3	10.9	0.0	(28)
	400~499만원 이하	56.1	9.9	15.6	15.3	6.3	9.5	0.0	(33)
	500~599만원 이하	72.6	12.1	19.9	12.4	7.5	0.0	0.0	(26)
	600만원 이상	49.7	17.6	22.9	3.1	14.3	15.4	3.8	(30)
총 자녀수	1명	74.7	5.5	32.3	4.9	0.0	5.0	0.0	(20)
	2명	52.3	17.3	14.6	8.2	13.4	10.2	1.3	(84)
	3명 이상	69.1	6.5	18.7	25.3	0.0	6.5	0.0	(17)
지역 규모	대도시	65.4	17.0	18.6	13.8	2.5	7.0	2.5	(45)
	중소도시	51.7	15.5	17.4	10.2	15.5	5.1	0.0	(59)
	읍면지역	63.2	0.0	19.7	0.0	5.7	25.4	0.0	(18)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부표 V-1-21〉 연령별 및 연도별 영유아의 시간제 사교육 월평균 이용비용 (2018~2022년)

단위: 만원

구분		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교육	비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개인 및 그룹 지도	문화 센터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전체	1차	13.4	7.4	10.2	5.6	8.8	12.7	5.2	
	2차	14.2	7.2	9.1	7.6	8.1	14.8	4.8	
	3차	17.8	8.2	11.4	8.3	8.6	14.8	5.7	
	4차	16.4	8.0	9.5		8.5	19.8	5.1	9.5
	5차	16.6	8.9	9.9		9.9	21.5	5.2	9.2
만0세	1차	0.0	11.0	0.0	0.0	0.0	0.0	8.6	
	2차	0.0	0.0	0.0	0.0	0.0	0.0	4.5	
	3차	0.0	0.0	0.0	0.0	10.0	0.0	0.0	
	4차	0.0	0.0	0.0		0.0	0.0	0.0	
	5차	12.0	7.9	-		-	-	-	
만1세	1차	14.3	3.5	8.6	0.0	0.0	11.0	5.3	
	2차	6.0	0.0	7.0	0.0	2.0	5.0	4.9	
	3차	44.0	9.0	20.1	9.0	4.0	0.0	7.0	
	4차	0.0	0.0	9.2		0.0	0.0	7.0	0.0
	5차	11.1	10.5	12.7		-	-	4.8	-
만2세	1차	10.2	5.4	12.0	4.8	5.9	27.0	5.6	
	2차	27.2	5.0	8.5	2.0	0.0	6.0	5.3	
	3차	10.5	6.7	6.4	7.8	3.3	20.0	7.1	
	4차	14.6	7.1	10.5		10.2	14.9	5.5	19.1
	5차	14.8	5.7	10.5		0.9	12.0	6.9	8.7
만3세	1차	14.5	7.4	7.1	4.0	15.0	8.5	6.2	
	2차	13.1	6.2	9.6	5.8	6.9	10.3	4.6	
	3차	23.2	7.2	11.8	6.0	5.8	13.8	3.0	
	4차	16.7	6.3	8.5		6.4	43.7	5.8	6.5
	5차	16.9	8.1	9.5		9.7	28.7	6.1	37.0
만4세	1차	13.5	6.4	9.6	7.1	5.6	14.0	4.7	
	2차	12.4	7.0	10.8	9.4	10.5	13.0	4.4	
	3차	12.7	8.1	9.2	7.4	7.4	13.9	4.0	
	4차	13.3	7.8	9.3		7.4	14.3	3.4	9.0
	5차	14.3	9.8	10.6		9.8	22.7	5.4	7.9
만5세	1차	12.8	7.4	11.1	6.5	19.5	10.3	4.3	
	2차	13.1	6.5	7.2	6.5	10.5	12.1	4.3	
	3차	17.0	7.7	9.4	7.8	14.0	14.9	6.5	
	4차	16.2	8.4	8.0		8.7	19.1	3.7	9.5
	5차	15.8	9.2	8.7		10.5	28.7	3.9	10.4
만6세	1차	13.9	8.0	11.5	5.2	3.1	13.8	5.3	
	2차	15.1	8.2	8.7	9.1	8.3	18.3	5.3	
	3차	19.3	8.8	12.7	9.6	11.0	15.6	3.8	
	4차	17.3	8.2	12.1		9.3	15.1	4.6	9.7
	5차	17.9	8.5	9.5		10.1	15.1	5.0	8.1

주: 1) 이용비용은 해당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2) 2022년 공표된 소비자물가지수(2020=100)을 통해 2020년 기준 물가로 환산한 결과임.

자료: 1) 'KICCE 소비실태조사' 1~4차년도 원자료.

2)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부표 V-1-22〉 가구특성별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 (2022년)

단위: 만원

구분		단시간 학원	방문형 학습지	방문형 교구 활동 교육	비방문 학습지, 교구 활동 교육	개인 및 그룹 지도	문화 센터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전체		16.6	8.9	9.9	9.9	21.5	5.2	9.2
맞벌이 가구	맞벌이	16.7	9.3	10.2	11.7	24.5	5.7	9.1
	외벌이	16.4	8.5	9.6	7.9	18.6	4.8	9.2
여부		<i>t</i>	0.4	1.1	0.4	2.4*	0.9	-0.1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5.9	9.0	9.6	10.4	-	3.9	6.8
	300~399만원 이하	14.8	8.4	10.0	10.2	10.4	4.9	10.3
	400~499만원 이하	16.0	9.0	11.1	8.0	22.2	6.0	9.4
	500~599만원 이하	16.4	8.5	9.6	7.8	18.6	5.3	10.3
	600만원 이상	18.8	9.6	9.7	12.2	26.5	5.4	7.1
	<i>F</i>	3*	0.4	0.1	1.1	0.6	0.8	1.2
총 자녀수	1명	18.2	10.2	10.6	8.3	20.1	5.4	9.9
	2명	16.7	8.4	9.7	10.6	26.5	5.2	8.8
	3명 이상	14.6	9.1	8.4	8.8	11.9	4.5	9.8
	<i>F</i>	2.9	1.9	0.2	0.7	1.6	0.3	0.4
지역 규모	대도시	17.0	9.2	9.9	8.1	28.8	5.3	7.9
	중소도시	16.4	8.4	9.9	10.7	20.2	5.4	9.3
	읍면지역	15.8	9.8	9.8	12.0	12.5	4.1	10.5
	<i>F</i>	0.5	1	0	1.5	1.5	0.6	1.1

주: 이용 비용은 해당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 $p < .05$.

〈부표 V-1-23〉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만족도 (2022년)

단위: %, 점, (명)

구분	만족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단시간학원	7.8	71.6	19.9	0.6	0.0	3.9	100.0 (524)
방문형학습지	10.0	64.8	23.6	1.6	0.0	3.8	100.0 (286)
방문형 교구활동	14.4	61.4	19.0	5.2	0.0	3.8	100.0 (52)
비방문형 학습지, 교구활동	2.5	55.4	37.0	3.9	1.2	3.5	100.0 (79)
개인 및 그룹지도	18.9	63.6	15.3	2.2	0.0	4.0	100.0 (46)
교육용온라인콘텐츠	8.3	58.7	24.2	7.5	1.2	3.7	100.0 (81)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부표 V-1-24〉 시간제 사교육 비용 부담 (2022년)

단위: %, 점, (명)

구분	부담정도					평균 점수	계(수)
	전혀 부담 안됨	별로 부담 안됨	적당	다소 부담됨	매우 부담됨		
시간제 사교육	2.3	12.2	45.4	30.2	9.8	3.3	100.0 (786)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부표 V-1-25〉 가구특성별 사교육 부담에도 이용하는 이유 (2022년)

단위: %, (명)

구분		이용하는 이유										계(수)
		자녀 또래 아이들 과 어울리 게 하기 위해	자녀가 또래 아이들 에 비해 뒤처질 까봐	서비스 의 질이 높다고 생각되 어서	자녀의 재능이 나 소질을 개발시 켜 주기 위해서	퇴근 전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선행 학습이 필요 하다고 생각 되어서	다른 돌봄서 비스로 다는 비용이 적게 들어서	아이가 원해서	기타	모름	
전체		5.7	35.6	3.6	30.5	2.6	10.5	2.5	7.7	1.3	-	100.0 (315)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7.3	34.2	3.4	26.2	5.5	11.4	3.4	8.7	0.0	-	100.0 (150)
	외벌이	4.2	36.8	3.7	34.3	0.0	9.8	1.8	6.9	2.5	-	100.0 (165)
	χ^2	17.2*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8.2	58.1	0.0	12.3	0.0	8.2	0.0	8.6	4.6	-	100.0 (24)
	300~399만원 이하	9.5	29.0	5.6	28.6	3.0	11.9	0.0	11.1	1.4	-	100.0 (75)
	400~499만원 이하	5.6	38.7	2.5	38.0	2.4	8.2	0.0	3.5	1.2	-	100.0 (86)
	500~599만원 이하	1.9	29.9	4.2	36.5	6.2	12.7	2.1	4.4	1.9	-	100.0 (47)
	600만원 이상	3.8	34.9	3.6	26.2	1.2	11.1	8.4	10.8	0.0	-	100.0 (83)
χ^2		44.6										
총 자녀수	1명	9.6	28.4	3.3	30.2	6.4	11.9	0.0	10.2	0.0	-	100.0 (51)
	2명	4.6	38.3	4.5	31.3	2.3	9.5	1.4	6.6	1.4	-	100.0 (213)
	3명이상	6.2	31.3	0.0	27.2	0.0	13.3	9.7	10.1	2.2	-	100.0 (51)
χ^2		25.5										
지역 규모	대도시	5.6	34.0	2.4	30.4	5.9	9.3	4.9	4.9	2.5	-	100.0 (121)
	중소도시	5.4	32.1	3.9	32.3	0.7	12.4	1.3	11.0	0.7	-	100.0 (148)
	읍면지역	6.7	50.9	5.5	24.4	0.0	7.8	0.0	4.6	0.0	-	100.0 (45)
χ^2		25.5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 $p < .05$.

〈부표 V-1-26〉 가구특성별 단시간 학원 온라인 수업 비용 수준 만족도 (2022년)

단위: %, 점, (명)

구분		만족도					평균 점수	계(수)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체		7.2	33.9	44.1	-	14.7	3.2	100.0 (15)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0.2	37.5	31.5	-	20.7	3.2	100.0 (10)
	외벌이	0.0	25.2	74.8	-	0.0	3.3	100.0 (4)
χ^2/t		2.7					-0.1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	-	-	-	-	-	100.0 (-)
	300~399만원 이하	0.0	49.1	50.9	-	0.0	3.5	100.0 (4)
	400~499만원 이하	0.0	0.0	0.0	-	100.0	1.0	100.0 (1)
	500~599만원 이하	24.2	24.2	51.7	-	0.0	3.7	100.0 (4)
	600만원 이상	0.0	36.6	40.9	-	22.5	2.9	100.0 (5)
	χ^2/F	10.2					2.2	
총 자녀수	1명	0.0	51.1	0.0	-	48.9	2.5	100.0 (2)
	2명	9.0	26.5	54.9	-	9.6	3.3	100.0 (12)
	3명이상	0.0	100.0	0.0	-	0.0	4.0	100.0 (1)
	χ^2/F	5.5					0.5	
지역 규모	대도시	0.0	15.1	43.6	-	41.3	2.3	100.0 (5)
	중소도시	14.7	43.0	42.3	-	0.0	3.7	100.0 (7)
	읍면지역	0.0	48.6	51.4	-	0.0	3.5	100.0 (2)
	χ^2/F	5.5					0.5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부표 V-1-27〉 가구특성별 비대면 기타 사교육서비스 불편한 점 (2022년)

단위: %, (명)

구분		대체 서비스 유형										계(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기타	
전체		7.0	19.4	9.2	3.2	4.6	8.9	6.7	24.7	15.8	0.6	100.0 (175)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4.7	23.8	7.6	2.3	4.8	11.2	5.9	25.3	14.4	0.0	100.0 (85)
	외벌이	9.1	15.3	10.7	4.0	4.4	6.7	7.4	24.2	17.2	1.1	100.0 (90)
	χ^2	6.1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6.4	12.9	20.3	11.3	0.0	12.1	0.0	11.6	25.4	0.0	100.0 (16)
	300~399만원 이하	6.8	21.0	4.5	2.3	6.6	9.1	5.4	30.4	14.0	0.0	100.0 (46)
	400~499만원 이하	9.1	14.9	2.9	2.3	0.0	3.0	8.9	37.8	21.0	0.0	100.0 (34)
	500~599만원 이하	3.2	15.9	6.2	3.2	12.8	6.2	13.1	29.4	10.0	0.0	100.0 (32)
	600만원 이상	8.4	25.5	16.7	1.9	1.9	13.5	4.3	11.0	14.6	2.1	100.0 (47)
	χ^2	42.5										
총 자녀수	1명	5.6	23.0	10.1	2.8	8.5	9.2	0.0	24.3	16.5	0.0	100.0 (35)
	2명	8.5	19.4	6.8	3.5	4.7	8.0	8.9	25.7	13.6	0.9	100.0 (108)
	3명이상	3.2	15.3	16.6	2.5	0.0	11.4	6.5	21.6	22.8	0.0	100.0 (31)
	χ^2	12.4										
지역 규모	대도시	5.2	25.9	14.2	7.5	5.3	6.8	3.2	22.0	9.9	0.0	100.0 (60)
	중소도시	9.8	16.6	3.6	0.0	6.0	8.3	10.1	22.4	22.1	1.2	100.0 (82)
	읍면지역	3.1	14.3	14.2	3.3	0.0	14.2	4.6	35.5	10.9	0.0	100.0 (33)
	χ^2	27.8										

주: ① 전자 기기가 아닌 실물 혹은 종이 등을 통한 서비스가 더 많았으면, ② 아이들의 흥미를 장시간 유지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면, ③ 교육 내용이 좀 더 질적으로 개선되었으면, ④ 교육 내용이 좀 더 다양해서 선택의 폭이 넓었으면, ⑤ 아이와 부모가 함께 진행할 수 있었으면, ⑥ 아이와 선생님이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형태였으면, ⑦ 서비스 이용 후 사후 관리가 더 잘 이뤄졌으면, ⑧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었으면, ⑨ 약정이나 의무사용 기간이 없었으면.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부표 V-1-28〉 과목별 코로나19로 인해 이용하지 못한 기관 (2022년, 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백화점, 마트 등의 문화센터	주민센터 등의 문화센터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기타	(수)
체육	80.9	9.8	15.0	2.1	(128)
음악	71.1	23.7	17.5	2.3	(37)
미술	76.5	10.3	15.1	4.0	(75)
통합놀이	81.9	8.8	16.1	0.8	(94)
언어	44.3	15.9	50.5	4.4	(18)
수학	67.2	33.1	65.8	0.0	(5)
과학	65.9	15.8	49.8	0.0	(6)
기타	48.2	48.2	100.0	0.0	(2)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부표 V-1-29〉 비대면 기타 사교육 서비스 이용시 개선 필요 사항 (2022년)

단위: %,(명)

구분	5차년도(2022년)
전자 기기가 아닌 실물 혹은 종이 등을 통한 서비스가 더 많았으면	7.0
아이들의 흥미를 장시간 유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면	19.4
교육 내용이 좀 더 질적으로 개선되었으면	9.2
교육 내용이 좀 더 다양해서 선택의 폭이 넓었으면	3.2
아이와 부모가 함께 진행할 수 있었으면	4.6
아이와 선생님이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형태였으면	8.9
서비스 이용 후 사후 관리가 더 잘 이뤄졌으면	6.7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었으면	24.7
약정이나 의무사용 기간이 없었으면	15.8
기타	0.6
계(수)	100.0 (175)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부표 V-1-30〉 가구특성별 코로나19로 인한 단시간 학원 이용 감소 (2022년)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계(수)
전체	23.2	76.8	100.0 (524)
맞벌이	21.6	78.4	100.0 (261)
가구	24.9	75.1	100.0 (263)
여부	χ^2 0.8		
299만원 이하	22.5	77.5	100.0 (23)
300~399만원 이하	25.4	74.6	100.0 (108)
400~499만원 이하	23.4	76.6	100.0 (142)
500~599만원 이하	23.2	76.8	100.0 (113)
600만원 이상	21.4	78.6	100.0 (138)
	χ^2 0.6		
총	27.2	72.8	100.0 (75)
자녀수	23.1	76.9	100.0 (363)
3명 이상	20.1	79.9	100.0 (86)
	χ^2 1.0		
대도시	21.9	78.1	100.0 (204)
중소도시	23.1	76.9	100.0 (255)
읍면지역	27.7	72.3	100.0 (65)
	χ^2 0.9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다. 기타서비스

〈부표 V-1-31〉 가구특성별 키즈카페 이용 이유 (2022년)

단위: %, (명)

구분		이용하는 이유							계(수)
		집에 없는 놀이 구들이 있어서	집에서 돌보는 것보다 편안 해서	자녀를 동반해 지인을 만날 수 있으 므로	아이가 좋아 해서	비용이 저렴 해서	지역에 적당한 공공 놀이장 소가 없어서	기타	
전체		13.4	12.9	10.5	58.5	0.3	3.2	1.2	100.0 (1,027)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2.0	14.8	9.1	60.3	0.2	2.4	1.3	100.0 (494)
	외벌이	14.7	11.1	11.9	56.8	0.3	4.0	1.1	100.0 (533)
	χ^2	8.7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3.0	8.8	5.8	66.1	1.1	4.2	1.0	100.0 (82)
	300~399만원 이하	14.9	11.5	8.5	59.6	0.3	3.6	1.6	100.0 (266)
	400~499만원 이하	16.2	11.7	11.7	54.7	0.4	4.5	0.8	100.0 (251)
	500~599만원 이하	12.9	13.9	13.8	55.9	0.0	2.0	1.5	100.0 (189)
	600만원 이상	9.4	16.3	10.6	60.6	0.0	2.0	1.1	100.0 (239)
	χ^2	23.6							
총 자녀수	1명	18.5	10.4	16.1	48.5	0.7	5.0	0.7	100.0 (243)
	2명	13.0	13.9	8.8	60.2	0.2	2.8	1.2	100.0 (619)
	3명 이상	7.2	12.8	8.9	66.7	0.0	2.3	2.0	100.0 (165)
	χ^2	33.8***							
지역 규모	대도시	12.2	14.1	15.1	54.0	0.2	3.4	1.1	100.0 (414)
	중소도시	11.6	11.3	8.4	63.8	0.4	3.3	1.2	100.0 (460)
	읍면지역	22.1	14.2	4.8	54.8	0.0	2.6	1.6	100.0 (153)
	χ^2	32.1**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 $p < .01$, *** $p < .001$.

〈부표 V-1-32〉 가구특성별 키즈카페 이용하지 않는 이유 (2022년)

단위: %, (명)

구분		이용하는 이유						계(수)
		주변에 운영하는 키즈카페가 없어서	코로나19 의 감염을 피하기 위해	자녀를 동반한 만남이 줄어서	아이가 좋아하지 않아서	비용이 부담되어서	기타	
전체		4.8	76.5	1.3	2.7	3.2	11.6	100.0 (1,366)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4.3	77.0	1.7	2.4	1.6	13.0	100.0 (533)
	외벌이	5.1	76.2	1.0	2.8	4.2	10.7	100.0 (834)
	χ^2	9.9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6.6	68.8	1.7	1.7	11.9	9.3	100.0 (109)
	300~399만원 이하	6.0	78.1	0.2	1.9	3.7	10.0	100.0 (402)
	400~499만원 이하	4.3	79.2	2.3	1.8	2.1	10.3	100.0 (344)
	500~599만원 이하	5.2	75.1	0.8	4.5	0.8	13.6	100.0 (237)
	600만원 이상	2.6	75.1	1.7	3.7	2.3	14.5	100.0 (274)
	χ^2	58.3***						
총 자녀수	1명	4.6	75.8	1.0	2.6	1.1	15.0	100.0 (342)
	2명	4.2	78.7	1.5	2.4	2.7	10.5	100.0 (740)
	3명 이상	6.7	71.7	1.0	3.4	7.1	10.2	100.0 (284)
	χ^2	28.1**						
지역 규모	대도시	3.5	78.6	1.2	4.3	2.4	9.9	100.0 (499)
	중소도시	5.7	73.8	1.6	1.9	3.7	13.3	100.0 (621)
	읍면지역	5.2	79.2	0.4	1.2	3.4	10.6	100.0 (246)
	χ^2	19.1*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 $p < .05$, ** $p < .01$, *** $p < .001$.

〈부표 V-1-33〉 가구특성별 비정기 체험활동 이용 이유 (2022년)

단위: %, (명)

구분		이용하는 이유							계(수)
		체험활동 인솔자의 해당분야 전문성을 고려해서	집에서 돌보는 것보다 편안해서	자녀가 희망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서	아이가 좋아해서	비용이 저렴해서	원하는 시간대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타	
전체		9.6	9.0	23.3	49.3	1.7	3.2	3.9	100.0 (395)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9.4	10.9	25.4	44.7	1.5	4.0	4.1	100.0 (192)
	외벌이	9.8	7.1	21.4	53.7	1.9	2.4	3.7	100.0 (204)
	χ^2	4.6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4.7	5.9	11.8	54.2	8.3	0.0	5.1	100.0 (33)
	300~399만원 이하	9.7	8.4	13.5	62.8	1.1	2.3	2.2	100.0 (90)
	400~499만원 이하	9.9	6.6	28.5	44.7	1.1	6.2	3.1	100.0 (94)
	500~599만원 이하	13.4	8.7	29.5	40.7	1.6	0.0	6.2	100.0 (64)
	600만원 이상	5.7	12.4	26.7	46.0	0.9	4.1	4.2	100.0 (115)
	χ^2	38.2*							
총 자녀수	1명	17.5	12.2	13.3	49.3	0.0	3.9	3.8	100.0 (75)
	2명	8.3	10.1	25.9	48.0	1.1	3.3	3.3	100.0 (260)
	3명 이상	5.1	0.0	24.8	55.3	6.6	1.7	6.5	100.0 (60)
	χ^2	29.2**							
지역 규모	대도시	9.0	5.0	24.8	52.9	0.0	2.8	5.5	100.0 (170)
	중소도시	8.4	10.9	22.7	48.9	2.8	2.8	3.4	100.0 (173)
	읍면지역	15.4	15.2	20.5	39.1	3.9	5.8	0.0	100.0 (52)
	χ^2	19.4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 $p < .05$, ** $p < .01$.

〈부표 V-1-34〉 가구특성별 비정기 체험활동 이용하지 않는 이유 (2022년)

단위: %, (명)

구분		이용하는 이유						계(수)
		체험활동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코로나19 의 감염을 피하기 위해	안전에 대한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아이가 좋아하지 않아서	비용이 부담되어서	기타	
전체		15.5	60.6	8.9	2.6	3.8	8.6	100.0 (1,998)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5.9	59.1	10.2	1.9	3.4	9.5	100.0 (835)
	외벌이	15.3	61.6	7.9	3.1	4.1	8.0	100.0 (1,162)
	χ^2	8.1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6.2	54.7	7.3	2.3	14.3	5.2	100.0 (158)
	300~399만원 이하	18.8	58.7	8.4	2.1	4.7	7.4	100.0 (579)
	400~499만원 이하	15.4	63.1	8.8	2.9	2.4	7.3	100.0 (501)
	500~599만원 이하	12.8	64.0	9.6	3.0	1.2	9.4	100.0 (362)
	600만원 이상	13.1	59.3	9.7	2.8	2.5	12.6	100.0 (398)
	χ^2	84.7***						
총 자녀수	1명	16.7	59.0	9.7	2.7	1.9	10.0	100.0 (510)
	2명	16.0	62.5	8.4	2.6	2.6	7.9	100.0 (1,099)
	3명 이상	12.6	57.2	9.1	2.6	9.8	8.8	100.0 (389)
	χ^2	52.3***						
지역 규모	대도시	16.6	60.0	10.4	2.9	2.9	7.3	100.0 (743)
	중소도시	14.8	61.3	8.2	2.7	3.4	9.6	100.0 (908)
	읍면지역	15.2	59.9	7.5	1.9	6.8	8.7	100.0 (347)
	χ^2	17.8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 $p < .001$.

2. 가정내 돌봄 및 부모지원서비스 이용 행태

가. 개별돌봄서비스

〈부표 V-2-1〉 가구특성별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 (2022년)

단위: %, (가구)

구분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				(수)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민간 육아도우미	조부모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	
전체		15.6	8.0	68.3	8.0	(224)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1.2	6.5	74.0	8.3	(169)
	외벌이	29.1	12.7	50.9	7.3	(55)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66.7	0.0	33.3	0.0	(9)
	300~399만원	19.0	4.8	71.4	4.8	(21)
	400~499만원	15.4	9.6	67.3	7.7	(52)
	500~599만원	7.9	7.9	66.7	17.5	(63)
	600만원 이상	15.2	8.9	73.4	2.5	(79)
총 자녀수	1명	8.1	9.5	77.0	5.4	(74)
	2명	16.5	7.1	66.1	10.2	(127)
	3명이상	34.8	8.7	52.2	4.3	(23)
지역 규모	대도시	13.5	9.9	72.1	4.5	(111)
	중소도시	12.8	5.1	73.1	9.0	(78)
	읍면지역	28.6	8.6	45.7	17.1	(35)

주: 개별돌봄은 개별돌봄서비스로 부모가 아닌 사람(조부모, 친인척,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민간아이 도우미 등)이 가정에서 해당 아동(혹은 가구 내 아동)을 돌보는 경우를 의미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부표 V-2-2〉 코로나19로 인한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 변화 여부 (2022년)

단위: %, (가구)

구분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 변화 경험		(수)
		있음	없음	
전체		6.8	93.2	(206)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8.3	91.7	(157)
	외벌이	2.0	98.0	(49)
	χ^2	2.3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5.0	75.0	(8)
	300~399만원 이하	0.0	100.0	(19)
	400~499만원 이하	6.1	93.9	(49)
	500~599만원 이하	8.9	91.1	(56)
	600만원 이상	5.4	94.6	(74)
	χ^2	6.2		
총 자녀수	1명	8.2	91.8	(73)
	2명	6.3	93.8	(112)
	3명 이상	4.8	95.2	(21)
	χ^2	0.4		
지역 규모	대도시	7.8	92.2	(102)
	중소도시	6.8	93.2	(73)
	읍면지역	3.2	96.8	(31)
	χ^2	0.8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부표 V-2-3〉 코로나19로 인한 개별돌봄서비스 동시 돌봄 자녀수 변화 (2022년)

단위: %, (가구)

구분		개별돌봄서비스 동시 돌봄 자녀 수 변화 경험			(수)
		돌봄 자녀수 늘어남	돌봄 자녀수 줄어듦	변화 없음	
전체		4.9	1.5	93.7	(206)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5.1	1.3	93.6	(157)
	외벌이	4.1	2.0	93.9	(49)
	χ^2	0.2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2.5	0.0	87.5	(8)
	300~399만원 이하	0.0	0.0	100.0	(19)
	400~499만원 이하	6.1	2.0	91.8	(49)
	500~599만원 이하	3.6	0.0	96.4	(56)
	600만원 이상	5.4	2.7	91.9	(74)
	χ^2	4.6			
총 자녀수	1명	1.4	1.4	97.3	(73)
	2명	6.3	0.9	92.9	(112)
	3명 이상	9.5	4.8	85.7	(21)
	χ^2	5.3			
지역 규모	대도시	4.9	2.0	93.1	(102)
	중소도시	5.5	1.4	93.2	(73)
	읍면지역	3.2	0.0	96.8	(31)
	χ^2	0.9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부표 V-2-4〉 코로나19로 인한 개별돌봄서비스 이용시간 변화 (2022년)

단위: %, (가구)

구분		개별돌봄서비스 이용시간 변화			(수)
		이용시간 증가	이용시간 감소	변화 없음	
전체		13.1	1.9	85.0	(206)
맞벌이 가구	맞벌이	14.6	1.3	84.1	(157)
	외벌이	8.2	4.1	87.8	(9)
여부		χ^2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5.0	0.0	75.0	(8)
	300~399만원 이하	0.0	5.3	94.7	(19)
	400~499만원 이하	14.3	2.0	83.7	(49)
	500~599만원 이하	14.3	0.0	85.7	(56)
	600만원 이상	13.5	2.7	83.8	(74)
	χ^2	6.4			
총 자녀수	1명	15.1	1.4	83.6	(73)
	2명	12.5	1.8	85.7	(112)
	3명 이상	9.5	4.8	85.7	(21)
	χ^2	1.5			
지역 규모	대도시	12.7	2.9	84.3	(102)
	중소도시	16.4	1.4	82.2	(73)
	읍면지역	6.5	0.0	93.5	(31)
	χ^2	3.3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부표 V-2-5〉 코로나19로 인한 개별돌봄서비스 이용비용 변화 (2022년)

단위: %, (가구)

구분		개별돌봄서비스 이용비용 변화			(수)
		비용증가	비용감소	변화 없음	
전체		5.8	1.5	92.7	(206)
맞벌이 가구	맞벌이	5.7	1.3	93.0	(157)
	외벌이	6.1	2.0	91.8	(49)
여부		χ^2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5.0	0.0	75.0	(8)
	300~399만원 이하	0.0	0.0	100.0	(19)
	400~499만원 이하	4.1	2.0	93.9	(49)
	500~599만원 이하	5.4	1.8	92.9	(56)
	600만원 이상	6.8	1.4	91.9	(74)
	χ^2	7.5			
총 자녀수	1명	8.2	1.4	90.4	(73)
	2명	4.5	1.8	93.8	(112)
	3명 이상	4.8	0.0	95.2	(21)
	χ^2	1.6			
지역 규모	대도시	8.8	1.0	90.2	(102)
	중소도시	2.7	2.7	94.5	(73)
	읍면지역	3.2	0.0	96.8	(31)
	χ^2	4.7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나. 가정 내 부모 직접 돌봄

〈부표 V-2-6〉 가구특성별 가정 내 양육 및 부모직접돌봄 하루평균 시간 (2022년) : 영유아가구

단위: 시간, (가구)

구분		가정 내 양육		부모직접돌봄		(수)
		평일	주말	평일	주말	
전체		8.37	13.05	8.27	13.03	(1,730)
맞벌이 가구	맞벌이	7.49	12.83	7.14	12.79	(767)
	외벌이	9.07	13.22	9.17	13.22	(963)
여부		<i>t</i>	-9.0***	-2.8**	-10.9***	-2.8**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8.72	13.50	8.81	13.34	(145)
	300~399만원 이하	9.23	13.31	9.37	13.46	(495)
	400~499만원 이하	8.31	13.01	8.11	12.88	(419)
	500~599만원 이하	7.66	13.05	7.37	12.98	(301)
	600만원 이상	7.74	12.57	7.50	12.55	(370)
	<i>F</i>	12.7***	4.6**	17.7***	4.8***	
총 자녀수	1명	9.56	13.36	9.40	13.27	(583)
	2명	7.80	12.89	7.71	12.94	(900)
	3명 이상	7.65	12.87	7.65	12.77	(247)
	<i>F</i>	47.3***	5.4**	35.7***	2.7	
지역 규모	대도시	8.40	13.24	8.20	13.24	(683)
	중소도시	8.31	12.90	8.23	12.88	(788)
	읍면지역	8.47	12.99	8.58	12.93	(259)
	<i>F</i>	0.2	2.6	0.9	2.3	

주: 평범한 지난 주를 기준으로 하며, 하루 평균임. 수면시간 제외.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 $p < .01$. *** $p < .001$.

〈부표 V-2-7〉 가구특성별 자녀 미디어 이용시간 (2022년) : 영유아 가구

단위: %, (가구)

구분		평일	주말	(수)
전체		1.34	2.00	(1,730)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38	2.10	(767)
	외벌이	1.31	1.92	(963)
	<i>t</i>	1.2	2.1*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35	2.08	(145)
	300~399만원 이하	1.32	1.93	(495)
	400~499만원 이하	1.37	2.03	(419)
	500~599만원 이하	1.30	1.97	(301)
	600만원 이상	1.37	2.05	(370)
	<i>F</i>	0.2	0.4	
총 자녀수	1명	1.24	1.66	(583)
	2명	1.34	2.05	(900)
	3명 이상	1.58	2.63	(247)
	<i>F</i>	7.6***	27.1***	
지역 규모	대도시	1.24	1.85	(683)
	중소도시	1.36	2.02	(788)
	읍면지역	1.55	2.31	(259)
	<i>F</i>	6.8**	6.2**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 $p < .05$, ** $p < .01$, *** $p < .001$.

〈부표 V-2-8〉 가구특성별 가정 내 양육 부담 이유 (2022년, 1순위)

단위: %, (가구)

구분		부담 이유							(수)
		①	②	③	④	⑤	⑥	기타	
전체		28.8	28.7	30.9	1.3	2.1	7.8	0.4	(1,314)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25.7	30.2	34.2	0.9	1.7	6.7	0.5	(579)
	외벌이	31.2	27.5	28.3	1.6	2.4	8.7	0.3	(735)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38.6	31.6	17.5	3.5	2.6	5.3	0.9	(114)
	300~399만원 이하	29.7	28.6	30.2	0.8	2.4	8.0	0.3	(374)
	400~499만원 이하	28.0	27.7	29.8	1.2	2.1	11.2	0.0	(329)
	500~599만원 이하	25.0	29.8	32.5	1.8	2.6	7.9	0.4	(228)
	600만원 이상	27.5	27.9	37.5	0.7	1.1	4.5	0.7	(269)
	<i>F</i>								
총 자녀수	1명	28.3	29.0	28.5	2.7	3.5	7.4	0.5	(403)
	2명	28.8	29.3	31.0	0.8	1.7	8.2	0.1	(706)
	3명 이상	29.8	25.9	35.1	0.0	1.0	7.3	1.0	(205)
지역 규모	대도시	26.3	29.2	35.4	0.7	1.3	6.9	0.2	(537)
	중소도시	30.2	28.4	28.8	1.4	2.8	8.1	0.3	(580)
	읍면지역	31.5	27.9	24.9	2.5	2.5	9.6	1.0	(197)

주: ① 양육 과정(아이가 울거나 때를 쓰면서 생기는 스트레스 때문, ② 육아가 체력적으로 힘이 들어서, ③ 가사와 육아를 동시에 병행하기 힘들어서, ④ 육아 고민 등을 상담할 수 있는 성인들과의 교류가 줄어들어서, ⑤ 아이와 어떻게 놀아줘야 할지를 모르겠어서, ⑥ 나만의 시간이 없어서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부표 V-2-9〉 가구특성별 장난감 대여 이용 빈도 (2022년)

단위: %, (가구)

구분		이용 횟수					계(수)	
		주 3~4회	주 1~2회	격주 1회	월 1회	분기별 1회		
전체		0.8	19.5	27.1	42.4	10.2	100.0	(118)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8	15.8	35.1	38.6	8.8	100.0	(57)
	외벌이	0.0	23.0	19.7	45.9	11.5	100.0	(61)
	χ^2	5.0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0.0	21.4	42.9	28.6	7.1	100.0	(14)
	300~399만원 이하	0.0	16.1	22.6	48.4	12.9	100.0	(31)
	400~499만원 이하	0.0	28.6	14.3	46.4	10.7	100.0	(28)
	500~599만원 이하	0.0	23.8	33.3	38.1	4.8	100.0	(21)
	600만원 이상	4.2	8.3	33.3	41.7	12.5	100.0	(24)
	χ^2	13.1						
총 자녀수	1명	0.0	15.4	32.7	42.3	9.6	100.0	(52)
	2명	1.8	23.2	23.2	41.1	10.7	100.0	(56)
	3명 이상	0.0	20.0	20.0	50.0	10.0	100.0	(10)
	χ^2	3.2						
지역 규모	대도시	2.4	19.5	22.0	46.3	9.8	100.0	(41)
	중소도시	0.0	22.4	29.3	37.9	10.3	100.0	(58)
	읍면지역	0.0	10.5	31.6	47.4	10.5	100.0	(19)
	χ^2	4.1						

주: 장난감 대여 서비스 이용자 기준.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부표 V-2-10〉 가구특성별 장난감 대여 제공기관, 이용비용 및 만족도 (2022년)

단위: %, 만원, 점, (가구)

구분		제공기관(중복응답)						이용 비용	만족도	(수)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0.8	66.9	11.0	21.2	0.8	6.8	0.5	4.2	(118)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0.0	68.4	15.8	21.1	0.0	5.3	0.4	4.1	(57)
	외벌이	1.6	65.6	6.6	21.3	1.6	8.2	0.6	4.2	(61)
	t							-1.5	-0.9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0.0	64.3	14.3	35.7	0.0	0.0	0.3	3.9	(14)
	300~399만원 이하	0.0	41.9	12.9	22.6	3.2	19.4	0.7	4.3	(31)
	400~499만원 이하	0.0	78.6	7.1	21.4	0.0	0.0	0.2	4.1	(28)
	500~599만원 이하	0.0	76.2	9.5	23.8	0.0	4.8	0.5	4.4	(21)
	600만원 이상	4.2	79.2	12.5	8.3	0.0	4.2	0.5	4.1	(24)
	F							2.0	1.0	
총 자녀수	1명	0.0	65.4	11.5	23.1	1.9	9.6	0.6	4.1	(52)
	2명	1.8	66.1	10.7	21.4	0.0	5.4	0.4	4.3	(56)
	3명 이상	0.0	80.0	10.0	10.0	0.0	0.0	0.7	4.2	(10)
	F							0.9	0.7	
지역 규모	대도시	0.0	73.2	7.3	22.0	0.0	0.0	0.4	4.2	(41)
	중소도시	1.7	63.8	13.8	20.7	1.7	8.6	0.4	4.1	(58)
	읍면지역	0.0	63.2	10.5	21.1	0.0	15.8	0.8	4.4	(19)
	F							2.1	1.3	

주: ①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② 육아종합지원센터, ③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시설, ④ 주민센터 등 지자체 및 지자체 위탁 기관, ⑤ 지역아동센터, ⑥ 민간사설업체.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부표 V-2-11〉 가구특성별 도서 대여 이용 빈도 (2022년)

단위: %, (가구)

구분		이용 횟수						계(수)
		매일	주 3~4회	주 1~2회	격주 1회	월 1회	분기별 1회	
전체		1.1	3.9	35.1	22.1	31.2	6.7	100.0 (285)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0.8	2.4	33.1	17.7	37.9	8.1	100.0 (124)
	외벌이	1.2	5.0	36.6	25.5	26.1	5.6	100.0 (161)
χ^2		7.2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0.0	4.5	31.8	18.2	31.8	13.6	100.0 (22)
	300~399만원 이하	2.6	3.8	38.5	24.4	26.9	3.8	100.0 (78)
	400~499만원 이하	0.0	7.4	35.8	13.6	35.8	7.4	100.0 (81)
	500~599만원 이하	0.0	0.0	37.5	25.0	32.5	5.0	100.0 (40)
	600만원 이상	1.6	1.6	29.7	29.7	29.7	7.8	100.0 (64)
χ^2		18.2						
총 자녀수	1명	0.0	3.2	20.6	27.0	41.3	7.9	100.0 (63)
	2명	1.8	5.3	36.5	19.4	31.8	5.3	100.0 (170)
	3명 이상	0.0	0.0	48.1	25.0	17.3	9.6	100.0 (52)
χ^2		19.4*						
지역 규모	대도시	1.8	3.5	36.3	24.8	29.2	4.4	100.0 (113)
	중소도시	0.7	3.0	34.1	20.7	33.3	8.1	100.0 (135)
	읍면지역	0.0	8.1	35.1	18.9	29.7	8.1	100.0 (37)
χ^2		5.6						

주: 도서대여 서비스 이용자 기준.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4차년도 본 연구.

* $p < .05$.

〈부표 V-2-12〉 가구특성별 도서 대여 제공기관, 이용비용 및 만족도 (2022년)

단위: %, 만원, 점, (가구)

구분		제공기관(중복응답)							이용비용	만족도	(수)
		①	②	③	④	⑤	⑥	기타			
전체		7.0	6.7	87.0	3.9	-	3.9	0.4	0.1	4.4	(285)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5.6	8.1	86.3	4.8	-	3.2	0.0	0.1	4.4	(124)
	외벌이	8.1	5.6	87.6	3.1	-	4.3	0.6	0.2	4.3	(161)
t									-1.4	0.1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8.2	13.6	72.7	0.0	-	4.5	0.0	0.2	4.3	(22)
	300~399만원 이하	6.4	2.6	92.3	2.6	-	5.1	0.0	0.2	4.4	(78)
	400~499만원 이하	4.9	3.7	86.4	6.2	-	2.5	1.2	0.1	4.4	(81)
	500~599만원 이하	12.5	7.5	90.0	10.0	-	0.0	0.0	0.0	4.2	(40)
	600만원 이상	3.1	12.5	84.4	0.0	-	6.3	0.0	0.2	4.3	(64)
F									0.5	0.9	
총 자녀수	1명	7.9	17.5	79.4	3.2	-	1.6	0.0	0.0	4.3	(63)
	2명	5.3	3.5	88.2	3.5	-	5.9	0.6	0.2	4.4	(170)
	3명 이상	11.5	3.8	92.3	5.8	-	0.0	0.0	0.0	4.2	(52)
F									2.7	2.7	
지역 규모	대도시	8.0	8.8	82.3	6.2	-	3.5	0.0	0.1	4.3	(113)
	중소도시	6.7	4.4	89.6	2.2	-	5.2	0.7	0.1	4.4	(135)
	읍면지역	5.4	8.1	91.9	2.7	-	0.0	0.0	0.1	4.4	(37)
F									0.3	1.1	

주: ①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② 육아종합지원센터, ③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시설, ④ 주민센터 등 지자체 및 지자체 위탁 기관, ⑤ 지역아동센터, ⑥ 민간시설업체.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부표 V-2-13〉 가구특성별 육아 물품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비용 및 만족도 (2022년)

단위: %, 만원, 점, (가구)

구분		제공기관(중복응답)							이용 비용	만족도	(수)
		①	②	③	④	⑤	⑥	기타			
전체		62.7	24.0	6.7	5.3	4.0	8.7	0.7	1.4	4.0	(150)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57.1	30.0	2.9	4.3	5.7	7.1	1.4	1.1	4.0	(70)
	외벌이	67.5	18.8	10.0	6.3	2.5	10.0	0.0	1.6	4.0	(80)
t									-1.2	-0.2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81.3	18.8	6.3	6.3	0.0	6.3	0.0	1.3	3.9	(16)
	300~399만원 이하	62.2	16.2	8.1	5.4	5.4	13.5	0.0	1.6	4.0	(37)
	400~499만원 이하	60.6	21.2	9.1	3.0	3.0	9.1	0.0	1.4	3.9	(33)
	500~599만원 이하	69.6	30.4	8.7	4.3	4.3	0.0	0.0	0.8	3.9	(23)
	600만원 이상	53.7	31.7	2.4	7.3	4.9	9.8	2.4	1.5	4.0	(41)
	F								0.5	0.1	
총 자녀수	1명	54.8	28.6	4.8	4.8	4.8	16.7	0.0	2.1	3.8	(42)
	2명	66.7	22.2	7.4	3.7	2.5	4.9	0.0	1.0	4.1	(81)
	3명 이상	63.0	22.2	7.4	11.1	7.4	7.4	3.7	1.3	3.9	(27)
	F								2.7	1.9	
지역규 모	대도시	60.0	30.7	4.0	2.7	8.0	2.7	1.3	0.9	4.1	(75)
	중소도시	69.6	16.1	8.9	5.4	0.0	14.3	0.0	1.9	3.9	(56)
	읍면지역	52.6	21.1	10.5	15.8	0.0	15.8	0.0	1.7	3.8	(19)
	F								3.0	1.1	

주: ①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② 육아종합지원센터, ③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시설, ④ 주민센터 등 지자체 및 지자체 위탁 기관, ⑤ 지역아동센터, ⑥ 민간사설업체.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다. 부모 지원 서비스

〈부표 V-2-14〉 가구특성별 부모교육 이용여부, 이용횟수 및 제공기관 (2022년) : 부모교육

단위: %, 회, (가구)

구분		이용률	평균 이용횟수	제공기관							(수)
				①	②	③	④	⑤	⑥	기타	
전체		10.2	1.6	72.9	16.4	2.3	4.0	1.7	0.6	2.3	(177)
맞벌이 가구	맞벌이	9.5	1.7	74.0	20.5	0.0	1.4	0.0	1.4	2.7	(73)
	외벌이	10.8	1.6	72.1	13.5	3.8	5.8	2.9	0.0	1.9	(104)
여부		χ^2/t	0.8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9.3	1.6	71.4	10.7	3.6	3.6	7.1	0.0	3.6	(28)
	300~399만원 이하	8.9	1.6	77.3	15.9	2.3	0.0	2.3	2.3	0.0	(44)
	400~499만원 이하	8.1	1.4	79.4	8.8	2.9	5.9	0.0	0.0	2.9	(34)
	500~599만원 이하	8.6	1.9	73.1	11.5	0.0	7.7	0.0	0.0	7.7	(26)
	600만원 이상	12.2	1.7	64.4	28.9	2.2	4.4	0.0	0.0	0.0	(45)
	χ^2/F		0.8								
총 자녀수	1명	7.0	1.6	61.0	24.4	0.0	4.9	2.4	2.4	4.9	(41)
	2명	12.0	1.6	74.1	15.7	3.7	3.7	1.9	0.0	0.9	(108)
	3명 이상	11.3	1.7	85.7	7.1	0.0	3.6	0.0	0.0	3.6	(28)
	χ^2/F		0.1								
지역 규모	대도시	10.1	1.6	72.5	18.8	2.9	4.3	0.0	0.0	1.4	(69)
	중소도시	9.9	1.8	71.8	14.1	2.6	5.1	2.6	1.3	2.6	(78)
	읍면지역	11.6	1.4	76.7	16.7	0.0	0.0	3.3	0.0	3.3	(30)
	χ^2/F		1.2								

주: 1) 평균 이용횟수와 제공기관은 이용하는 대상만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2) ①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② 육아종합지원센터, ③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시설, ④ 주민센터 등 지자체 및 지자체 위탁 기관, ⑤ 지역아동센터, ⑥ 민간사업체.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부표 V-2-15〉 가구특성별 부모상담 이용여부, 이용횟수 및 제공기관 (2022년) : 부모상담

단위: %, 회, (가구)

구분		이용률	평균 이용횟수	제공기관							(수)
				①	②	③	④	⑤	⑥	기타	
전체		15.0	1.4	92.3	1.9	0.8	0.8	1.2	2.3	0.8	(260)
맞벌이 가구	맞벌이	17.3	1.4	93.2	2.3	0.0	0.8	0.0	2.3	1.5	(133)
	외벌이	13.2	1.5	91.3	1.6	1.6	0.8	2.4	2.4	0.0	(127)
여부		χ^2/t	-1.0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5.9	1.4	91.3	0.0	0.0	0.0	4.3	0.0	4.3	(23)
	300~399만원 이하	14.7	1.5	89.0	2.7	1.4	1.4	1.4	4.1	0.0	(73)
	400~499만원 이하	13.8	1.4	100.0	0.0	0.0	0.0	0.0	0.0	0.0	(58)
	500~599만원 이하	16.9	1.5	90.2	2.0	0.0	2.0	2.0	2.0	2.0	(51)
	600만원 이상	14.9	1.4	90.9	3.6	1.8	0.0	0.0	3.6	0.0	(55)
	χ^2/F		0.2								
총 자녀수	1명	13.2	1.3	94.8	2.6	0.0	0.0	0.0	1.3	1.3	(77)
	2명	16.7	1.5	90.7	2.0	1.3	1.3	0.7	3.3	0.7	(150)
	3명 이상	13.4	1.5	93.9	0.0	0.0	0.0	6.1	0.0	0.0	(33)
	χ^2/F		1.8								
지역 규모	대도시	17.4	1.5	93.3	1.7	0.0	0.0	1.7	2.5	0.8	(119)
	중소도시	13.2	1.4	91.3	2.9	1.0	1.9	1.0	1.9	0.0	(104)
	읍면지역	14.3	1.2	91.9	0.0	2.7	0.0	0.0	2.7	2.7	(37)
	χ^2/F		1.2								

주: 1) 평균 이용횟수와 제공기관은 이용하는 대상만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2) ①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② 육아종합지원센터, ③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시설, ④ 주민센터 등 지자체 및 지자체 위탁 기관, ⑤ 지역아동센터, ⑥ 민간사설업체.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부표 V-2-16〉 가구특성별 육아멘토 이용여부, 이용횟수 및 제공기관 (2022년) : 육아멘토

단위: %, 회, (가구)

구분		이용률	평균 이용횟수	제공기관							(수)
				①	②	③	④	⑤	⑥	기타	
전체		1.0	2.4	50.0	16.7	5.6	-	5.6	5.6	16.7	(18)
맞벌이 가구	맞벌이	1.0	2.3	50.0	12.5	12.5	-	0.0	12.5	12.5	(8)
	외벌이	1.0	2.5	50.0	20.0	0.0	-	10.0	0.0	20.0	(10)
여부		χ^2/t	-0.2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4.8	2.4	42.9	14.3	0.0	-	14.3	0.0	28.6	(7)
	300~399만원 이하	0.4	1.0	100.0	0.0	0.0	-	0.0	0.0	0.0	(2)
	400~499만원 이하	0.7	4.7	33.3	33.3	0.0	-	0.0	33.3	0.0	(3)
	500~599만원 이하	0.3	5.0	0.0	0.0	0.0	-	0.0	0.0	100.0	(1)
	600만원 이상	1.4	1.0	60.0	20.0	20.0	-	0.0	0.0	0.0	(5)
	χ^2/F		1.8								
총 자녀수	1명	0.7	2.5	50.0	25.0	0.0	-	0.0	0.0	25.0	(4)
	2명	0.9	1.4	50.0	12.5	12.5	-	12.5	0.0	12.5	(8)
	3명 이상	2.4	3.7	50.0	16.7	0.0	-	0.0	16.7	16.7	(6)
	χ^2/F		1.6								
지역 규모	대도시	0.6	2.3	50.0	50.0	0.0	-	0.0	0.0	0.0	(4)
	중소도시	0.9	3.0	28.6	0.0	14.3	-	14.3	14.3	28.6	(7)
	읍면지역	2.7	1.9	71.4	14.3	0.0	-	0.0	0.0	14.3	(7)
	χ^2/F		0.4								

주: 1) 평균 이용횟수와 제공기관은 이용하는 대상만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2) ①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기관, ② 육아종합지원센터, ③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시설, ④ 주민 센터 등 지자체 및 지자체 위탁 기관, ⑤ 지역아동센터, ⑥ 민간시설업체.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부표 V-2-17〉 부모 지원 서비스 개선 필요사항 (2022년, 1+2순위) : 전체가구

단위: %, (가구)

구분		개선 요구											개선 필요 없음	계(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기타			
전체		29.8	10.0	31.1	24.8	10.7	21.6	25.8	29.7	11.7	0.2	1.6	(1,730)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28.9	11.0	29.5	25.3	10.4	21.6	24.0	33.0	11.2	0.3	1.7	(767)	
	외벌이	30.5	9.2	32.4	24.4	10.9	21.6	27.3	27.1	12.1	0.1	1.6	(963)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2.1	9.0	28.3	22.8	9.7	24.1	29.0	29.7	17.2	0.7	2.1	(145)	
	300~399만원 이하	31.5	9.9	30.9	24.4	11.5	19.4	24.6	29.5	12.7	0.0	1.8	(495)	
	400~499만원 이하	26.7	8.8	32.9	27.0	11.5	25.8	27.0	27.4	10.3	0.2	0.7	(419)	
	500~599만원 이하	31.2	10.0	30.6	26.6	11.3	18.3	24.9	28.6	13.6	0.0	2.0	(301)	
	600만원 이상	33.0	11.9	30.8	22.2	8.6	21.6	25.7	33.5	8.4	0.3	1.9	(370)	
총 자녀수	1명	29.3	9.4	31.7	26.2	9.8	23.8	25.6	30.9	10.1	0.2	1.0	(583)	
	2명	30.6	10.7	31.8	23.6	10.6	21.2	25.8	28.1	12.1	0.1	2.0	(900)	
	3명 이상	28.3	8.9	27.1	25.9	13.4	17.8	26.7	32.8	14.2	0.4	1.6	(247)	
지역 규모	대도시	28.4	6.7	33.4	23.6	8.1	24.9	27.5	30.0	10.4	0.0	2.8	(683)	
	중소도시	30.1	12.4	29.6	25.8	13.2	18.5	26.5	28.8	12.1	0.3	0.8	(788)	
	읍면지역	32.8	11.2	29.7	25.1	10.0	22.4	19.3	31.7	14.3	0.4	1.2	(259)	

주: ① 일대일 서비스 확대, ② 쌍방향 서비스 확대, ③ 프로그램 확대, ④ 서비스 제공 기관 접근성 개선, ⑤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지원 강화, ⑥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⑦ 서비스에 대한 홍보 강화, ⑧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시간대 확대 혹은 변경, ⑨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3. 육아서비스 지원에 대한 요구

가. 희망하는 육아서비스

〈부표 V-2-1〉 해당 자녀의 연령에서 가장 원하는 양육 형태 여부 및 희망하는 양육 형태(2022년)

단위: %, (명)

구분		원하는 양육 형태 여부		자녀 연령대별 가장 희망하는 양육 형태							
		원하 는 형태 임	(수)	유치 원 이용	어린이 집 이용	기타 반일 제 이상 기관 이용	가정 에서 부모 가 돌봄	가정 에서 부모가 돌봄+ 시간제 양육 지원 이용	가정 에서 조부모, 육아 도우미 등이 대리 돌봄	기타	계(수)
전체		94.5	(1,825)	37.4	9.1	7.5	23.4	21.8	0.9	-	100.0 (100)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93.2	(863)	31.0	4.5	9.5	30.7	22.9	1.5	-	100.0 (59)
	외벌이	95.7	(961)	46.5	15.6	4.6	13.0	20.3	0.0	-	100.0 (41)
χ^2		5.8*		9.3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95.4	(160)	64.0	0.0	0.0	24.2	11.8	0.0	-	100.0 (7)
	300~399만원 이하	94.6	(474)	42.3	12.2	4.0	18.5	23.0	0.0	-	100.0 (25)
	400~499만원 이하	96.6	(447)	13.6	15.9	13.0	23.0	34.5	0.0	-	100.0 (15)
	500~599만원 이하	93.5	(344)	36.6	4.1	7.3	35.2	13.0	3.8	-	100.0 (22)
	600만원 이상	92.6	(399)	39.3	8.9	9.7	18.6	23.5	0.0	-	100.0 (30)
χ^2		8.1		15.5							
총 자녀수	1명	92.8	(366)	20.8	7.7	10.4	44.5	16.6	0.0	-	100.0 (26)
	2명	94.7	(1,091)	41.4	10.3	6.4	17.0	23.3	1.5	-	100.0 (58)
	3명 이상	95.9	(368)	51.0	6.7	6.5	10.8	25.1	0.0	-	100.0 (15)
χ^2		3.4		12.9							
지역 규모	대도시	94.5	(696)	30.1	10.6	9.2	27.0	20.8	2.2	-	100.0 (38)
	중소도시	93.9	(828)	45.2	1.9	7.9	19.7	25.4	0.0	-	100.0 (50)
	읍면지역	96.2	(301)	27.7	35.3	0.0	27.6	9.4	0.0	-	100.0 (11)
χ^2		2.4		18.1							
아동 연령	0세(2022년생)	100.0	(3)	0.0	0.0	0.0	0.0	0.0	0.0	-	100.0 (0)
	1세(2021년생)	85.4	(76)	0.0	0.0	0.0	61.6	38.4	0.0	-	100.0 (11)
	2세(2020년생)	94.0	(237)	6.3	0.0	6.0	56.8	24.9	6.0	-	100.0 (14)
	3세(2019년생)	95.8	(320)	30.5	0.0	5.8	19.4	44.3	0.0	-	100.0 (13)
	4세(2018년생)	93.4	(353)	42.1	12.1	12.4	16.7	16.7	0.0	-	100.0 (23)
	5세(2017년생)	94.6	(408)	58.9	13.7	13.6	9.1	4.6	0.0	-	100.0 (22)
	6세(2016년생)	96.2	(428)	60.0	20.1	0.0	0.0	19.9	0.0	-	100.0 (16)
χ^2		16.7*		56.6***							
이용 기관 유형	어린이집	93.4	(1,177)	47.9	0.0	4.5	27.5	18.9	1.1	-	100.0 (78)
	유치원	96.6	(648)	0.0	41.2	18.0	8.6	32.1	0.0	-	100.0 (22)
χ^2		8.4**		49.9***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 $p < .05$, ** $p < .01$, *** $p < .001$.

〈부표 V-2-2〉 가구특성별 어린이집 이용자의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 (2022년)

단위: %, (명)

구분		유치원 이용	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봄	가정에서 부모가 주로 돌보며 시간제로 양육지원 이용	가정에서 조부모, 육아도우 미 등이 부모 대신 돌봄	기타	계(수)
전체		47.9	4.5	27.5	18.9	1.1	-	100.0 (78)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37.0	5.3	34.6	21.4	1.8	-	100.0 (49)
	외벌이	66.6	3.2	15.5	14.7	0.0	-	100.0 (29)
	χ^2	7.8						
지역 규모	대도시	38.0	8.4	31.1	19.7	2.8	-	100.0 (30)
	중소도시	54.9	2.4	21.5	21.3	0.0	-	100.0 (41)
	읍면지역	50.2	0.0	49.8	0.0	0.0	-	100.0 (6)
	χ^2	7.7						
아동 연령	0세(2022년생)	-	-	-	-	-	-	- (0)
	1세(2021년생)	0.0	0.0	61.6	38.4	0.0	-	100.0 (11)
	2세(2020년생)	6.3	6.0	56.8	24.9	6.0	-	100.0 (14)
	3세(2019년생)	32.7	6.2	20.7	40.4	0.0	-	100.0 (12)
	4세(2018년생)	62.9	12.2	19.1	5.9	0.0	-	100.0 (15)
	5세(2017년생)	86.5	0.0	6.8	6.8	0.0	-	100.0 (15)
	6세(2016년생)	100.0	0.0	0.0	0.0	0.0	-	100.0 (10)
	χ^2	54.8***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 $p < .001$.

〈부표 V-2-3〉 가구특성별 유치원 이용자의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 (2022년)

단위: %, (명)

구분		어린이집 이용	학원 등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봄	가정에서 부모가 주로 돌보며 시간제로 양육지원 이용	가정에서 조부모, 육아도우미 등이 부모 대신 돌봄	기타	계(수)
전체		41.2	18.0	8.6	32.1	-	-	100.0 (22)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27.6	31.3	10.4	30.7	-	-	100.0 (10)
	외벌이	51.6	7.9	7.3	33.2	-	-	100.0 (12)
	χ^2	2.0						
지역 규모	대도시	50.7	12.6	11.3	25.4	-	-	100.0 (8)
	중소도시	11.0	33.3	11.2	44.5	-	-	100.0 (9)
	읍면지역	79.0	0.0	0.0	21.0	-	-	100.0 (5)
	χ^2	7.5						
아동 연령	0세(2022년생)	-	-	-	-	-	-	- (0)
	1세(2021년생)	-	-	-	-	-	-	- (0)
	2세(2020년생)	-	-	-	-	-	-	- (0)
	3세(2019년생)	0.0	0.0	0.0	100.0	-	-	100.0 (1)
	4세(2018년생)	36.6	12.8	11.9	38.7	-	-	100.0 (8)
	5세(2017년생)	43.0	42.8	14.2	0.0	-	-	100.0 (7)
	6세(2016년생)	50.3	0.0	0.0	49.7	-	-	100.0 (6)
	χ^2	9.7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부표 V-2-4〉 가장 희망하는 형태의 양육을 하지 않는 이유(2022년)

단위: %, (명)

구분		비용 부담	일을 하고 있어서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집 근처에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아이를 맡길 만한 인력을 찾지 못해서	원하는 서비스 수준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이 달라서	서비스 이용 자격에 해당하지 않아서	기타	계(수)
전체		18.9	37.9	9.3	9.2	6.8	1.7	6.9	1.8	7.4	100.0 (100)
맞벌이 가구	맞벌이	12.6	62.8	8.7	9.4	0.0	0.0	3.1	0.0	3.4	100.0 (59)
	외벌이	27.8	2.4	10.2	8.9	16.6	4.2	12.3	4.5	13.1	100.0 (41)
		χ^2 47.3***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0.0	11.8	13.5	0.0	25.3	0.0	0.0	25.2	24.2	100.0 (7)
	300~399만원 이하	19.5	33.5	12.7	14.3	11.9	0.0	0.0	0.0	8.1	100.0 (25)
	400~499만원 이하	18.7	41.4	0.0	0.0	12.9	5.4	21.6	0.0	0.0	100.0 (15)
	500~599만원 이하	25.5	54.0	8.9	0.0	0.0	0.0	4.1	0.0	7.5	100.0 (22)
	600만원 이상	18.1	34.2	10.4	18.7	0.0	3.1	9.3	0.0	6.3	100.0 (30)
		χ^2 62.2**									
총 자녀수	1명	13.1	47.3	15.4	6.6	3.4	3.4	0.0	0.0	10.8	100.0 (26)
	2명	13.4	38.6	9.0	11.0	8.4	1.4	10.3	1.5	6.4	100.0 (58)
	3명 이상	49.7	18.9	0.0	6.6	7.0	0.0	6.0	6.4	5.4	100.0 (15)
		χ^2 21.8									
지역 규모	대도시	28.4	27.9	8.5	12.3	2.4	4.5	9.3	0.0	6.7	100.0 (38)
	중소도시	11.8	45.8	12.1	5.9	9.7	0.0	3.7	3.7	7.4	100.0 (50)
	읍면지역	17.8	37.0	0.0	13.2	9.4	0.0	13.2	0.0	9.4	100.0 (11)
		χ^2 17.8									
아동 연령	0세(2022년생)	-	-	-	-	-	-	-	-	-	- (0)
	1세(2021년생)	7.5	77.5	0.0	0.0	0.0	7.5	0.0	0.0	7.5	100.0 (11)
	2세(2020년생)	6.3	81.7	0.0	0.0	0.0	0.0	6.0	0.0	6.0	100.0 (14)
	3세(2019년생)	29.2	32.4	0.0	5.8	6.5	0.0	6.5	6.5	13.0	100.0 (13)
	4세(2018년생)	7.9	17.7	8.4	16.3	17.0	3.9	16.0	4.2	8.6	100.0 (23)
	5세(2017년생)	22.7	27.3	13.6	16.0	4.5	0.0	6.9	0.0	9.0	100.0 (22)
	6세(2016년생)	39.8	19.9	26.9	6.9	6.5	0.0	0.0	0.0	0.0	100.0 (16)
		χ^2 59.0*									
이용 기관 유형	어린이집	18.9	43.4	6.3	8.7	6.4	1.1	3.4	2.4	9.5	100.0 (78)
	유치원	18.8	18.3	19.8	11.0	8.6	4.1	19.4	0.0	0.0	100.0 (22)
		χ^2 14.7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 $p < .05$, ** $p < .01$, *** $p < .001$.

〈부표 V-2-5〉 가구특성별 어린이집 이용자의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로 양육하지 않는 이유 (2022년)

단위: %, (명)

구분		비용 부담 때문에	일을 하고 있어서	원하는 서비스는 대기가 길어서	집 근처에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아이를 맡길만한 인력을 찾지 못해서	원하는 서비스 수준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이 달라서	서비스 이용자가 격이 해당하지 않아서	기타	계(수)
전체		18.9	43.4	6.3	8.7	6.4	1.1	3.4	2.4	9.5	100.0 (78)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3.0	66.8	8.0	8.1	0.0	0.0	0.0	0.0	4.0	100.0 (49)
	외벌이	28.9	3.5	3.4	9.6	17.2	2.9	9.3	6.4	18.8	100.0 (29)
χ^2		42.3***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0.0	11.8	13.5	0.0	25.3	0.0	0.0	25.2	24.2	100.0 (7)
	300~399만원 이하	17.1	43.2	0.0	15.9	11.8	0.0	0.0	0.0	11.9	100.0 (17)
	400~499만원 이하	17.1	49.1	0.0	0.0	9.8	7.7	16.4	0.0	0.0	100.0 (11)
	500~599만원 이하	23.7	57.3	10.3	0.0	0.0	0.0	0.0	0.0	8.7	100.0 (19)
	600만원 이상	23.0	39.3	8.4	17.3	0.0	0.0	3.9	0.0	8.0	100.0 (23)
χ^2		56.9**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 $p < .01$. *** $p < .001$.

〈부표 V-2-6〉 가구특성별 유치원 이용자의 가장 원하는 양육형태로 양육하지 않는 이유 (2022년)

단위: %, (명)

구분		비용 부담 때문에	일을 하고 있어서	원하는 서비스는 대기가 길어서	집 근처에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아이를 맡길만한 인력을 찾지 못해서	원하는 서비스 수준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이 달라서	서비스 이용자가 격이 해당하지 않아서	기타	계(수)
전체		18.8	18.3	19.8	11.0	8.6	4.1	19.4	-	-	100.0 (22)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0.6	42.4	11.8	15.8	0.0	0.0	19.4	-	-	100.0 (10)
	외벌이	25.1	0.0	25.9	7.3	15.1	7.3	19.3	-	-	100.0 (12)
χ^2		9.2									
지역 규모	대도시	26.6	0.0	28.1	11.3	11.3	11.3	-	-	-	100.0 (8)
	중소도시	11.2	33.3	23.7	0.0	11.0	0.0	20.8	-	-	100.0 (9)
	읍면지역	19.9	21.0	0.0	29.5	0.0	0.0	29.5	-	-	100.0 (5)
χ^2		15.0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나. 자녀 양육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및 요구

〈부표 V-2-7〉 가구특성별 기관보육·교육서비스 개선 필요 부분 (2022년) : 전체 자녀

단위: %, (가구)

구분		개선이 필요한 부분										계(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16.9	51.4	8.3	3.1	3.4	7.7	7.4	0.3	1.2	0.3	100.0 (325)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6.8	48.0	9.6	2.4	4.8	8.0	8.0	0.8	1.6	0.0	100.0 (125)
	외벌이	17.0	53.5	7.5	3.5	2.5	7.5	7.0	0.0	1.0	0.5	100.0 (200)
	χ^2	5.0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0.0	47.6	19.0	4.8	0.0	9.5	14.3	0.0	4.8	0.0	100.0 (21)
	300~399만원	14.8	58.3	7.4	1.9	3.7	2.8	7.4	0.0	2.8	0.9	100.0 (108)
	400~499만원	18.1	45.8	6.9	2.8	5.6	11.1	9.7	0.0	0.0	0.0	100.0 (72)
	500~599만원	14.0	54.0	8.0	8.0	4.0	8.0	4.0	0.0	0.0	0.0	100.0 (50)
	600만원 이상	25.7	45.9	8.1	1.4	1.4	10.8	5.4	1.4	0.0	0.0	100.0 (74)
	χ^2	41.4										
총 자녀수	1명	16.7	57.9	10.3	4.8	2.4	4.0	4.0	0.0	0.0	0.0	100.0 (126)
	2명	17.9	49.4	6.2	1.2	3.7	9.9	9.3	0.6	1.2	0.6	100.0 (162)
	3명 이상	13.5	37.8	10.8	5.4	5.4	10.8	10.8	0.0	5.4	0.0	100.0 (37)
	χ^2	25.0										
지역 규모	대도시	22.1	39.0	9.1	3.9	4.5	8.4	11.7	0.0	1.3	0.0	100.0 (154)
	중소도시	12.1	62.9	8.1	1.6	2.4	7.3	4.0	0.0	0.8	0.8	100.0 (124)
	읍면지역	12.8	61.7	6.4	4.3	2.1	6.4	2.1	2.1	2.1	0.0	100.0 (47)
	χ^2	32.1*										

주: ① 유치원·어린이집 설치의 지역 간 격차 해소 ②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충; ③ 보육료·교육비 지원 안정화;
④ 시설 등 물리적 환경 개선; ⑤ 보육·교육과정(표준교육과정, 누리과정) 개선; ⑥ 인력 지원으로 교사 대 아동 비
율 감축; ⑦ 아동학대 등 근절; ⑧ 부모 참여 프로그램 확대; ⑨ 기타; ⑩ 개선할 부분 없음.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5$.

〈부표 V-2-8〉 가구특성별 개별돌봄서비스 개선 필요 부분 (2022년) : 전체 자녀

단위: %, (가구)

구분		개선이 필요한 부분								계(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전체		22.5	34.2	13.3	9.2	11.7	8.3	0.4	0.4	100.0 (240)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24.2	29.5	9.1	10.6	16.7	9.1	0.8	0.0	100.0 (132)
	외벌이	20.4	39.8	18.5	7.4	5.6	7.4	0.0	0.9	100.0 (108)
χ^2		15.4*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6.7	33.3	8.3	8.3	25.0	8.3	0.0	0.0	100.0 (12)
	300~399만원	20.0	26.7	21.7	10.0	10.0	10.0	0.0	1.7	100.0 (60)
	400~499만원	19.6	39.3	16.1	8.9	10.7	5.4	0.0	0.0	100.0 (56)
	500~599만원	25.5	36.2	6.4	6.4	12.8	10.6	2.1	0.0	100.0 (47)
	600만원 이상	26.2	35.4	9.2	10.8	10.8	7.7	0.0	0.0	100.0 (65)
	χ^2	19.8								
총 자녀수	1명	17.4	31.4	17.4	11.6	11.6	10.5	0.0	0.0	100.0 (86)
	2명	26.8	35.0	11.4	8.1	11.4	6.5	0.0	0.8	100.0 (123)
	3명 이상	19.4	38.7	9.7	6.5	12.9	9.7	3.2	0.0	100.0 (31)
	χ^2	14.0								
지역 규모	대도시	22.4	26.2	16.8	10.3	16.8	6.5	0.0	0.9	100.0 (107)
	중소도시	24.5	39.2	10.8	6.9	6.9	10.8	1.0	0.0	100.0 (102)
	읍면지역	16.1	45.2	9.7	12.9	9.7	6.5	0.0	0.0	100.0 (31)
	χ^2	16.0								

주: ① 공공 개별돌봄인력 양성 확대; ② 공공 개별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 확대; ③ 공공 개별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수준 제고; ④ 공공 개별돌봄서비스의 유형 다양화; ⑤ 공공 개별돌봄인력의 전문성 제고; ⑥ 긴급 돌봄에 대한 대응성 제고; ⑦ 기타; ⑧ 개선할 부분 없음.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5$.

〈부표 V-2-9〉 가구특성별 시간제 이용·기타 서비스 개선 필요 부분 (2022년) : 전체 자녀

단위: %, (가구)

구분		개선이 필요한 부분						계(수)
		서비스의 다양성 확대	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	서비스 수준 제고	적극적 홍보로 서비스 내용에 대한 인지도 제고	기타	개선할 부분 없음	
전체		36.7	35.9	9.4	17.2	0.8	-	100.0 (128)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39.7	38.1	11.1	11.1	0.0	-	100.0 (63)
	외벌이	33.8	33.8	7.7	23.1	1.5	-	100.0 (65)
	χ^2	4.5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35.7	42.9	7.1	14.3	0.0	-	100.0 (14)
	300~399만원	32.1	35.7	10.7	21.4	0.0	-	100.0 (28)
	400~499만원	40.6	37.5	3.1	15.6	3.1	-	100.0 (32)
	500~599만원	33.3	33.3	14.8	18.5	0.0	-	100.0 (27)
	600만원 이상	40.7	33.3	11.1	14.8	0.0	-	100.0 (27)
	χ^2	6.7						
총 자녀수	1명	39.1	39.1	8.7	10.9	2.2	-	100.0 (46)
	2명	31.7	38.1	9.5	20.6	0.0	-	100.0 (63)
	3명 이상	47.4	21.1	10.5	21.1	0.0	-	100.0 (19)
	χ^2	6.0						
지역 규모	대도시	26.4	43.4	9.4	18.9	1.9	-	100.0 (53)
	중소도시	48.2	32.1	5.4	14.3	0.0	-	100.0 (56)
	읍면지역	31.6	26.3	21.1	21.1	0.0	-	100.0 (19)
	χ^2	10.9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조사 결과임.

〈부표 V-2-10〉 부모의 돌봄 시간 지원 개선 필요 부분 (2022년) : 전체 자녀

단위: %, (가구)

구분		개선이 필요한 부분									계(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14.5	11.5	25.5	21.0	20.5	-	6.0	1.0	-	100.0 (200)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5.6	14.8	21.1	16.4	21.9	-	8.6	1.6	-	100.0 (128)
	외벌이	12.5	5.6	33.3	29.2	18.1	-	1.4	0.0	-	100.0 (72)
χ^2		15.5*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1.1	0.0	33.3	11.1	33.3	-	11.1	0.0	-	100.0 (9)
	300~399만원	17.9	12.8	23.1	30.8	12.8	-	2.6	0.0	-	100.0 (39)
	400~499만원	12.2	18.4	28.6	16.3	20.4	-	4.1	0.0	-	100.0 (49)
	500~599만원	13.6	4.5	34.1	18.2	25.0	-	2.3	2.3	-	100.0 (44)
	600만원 이상	15.3	11.9	16.9	22.0	20.3	-	11.9	1.7	-	100.0 (59)
	χ^2	22.0									
총 자녀수	1명	22.7	9.1	15.2	19.7	27.3	-	4.5	1.5	-	100.0 (66)
	2명	10.0	10.9	34.5	22.7	14.5	-	7.3	0.0	-	100.0 (110)
	3명 이상	12.5	20.8	12.5	16.7	29.2	-	4.2	4.2	-	100.0 (24)
	χ^2	23.8*									
지역 규모	대도시	14.6	18.3	22.0	18.3	19.5	-	4.9	2.4	-	100.0 (82)
	중소도시	15.2	7.6	23.9	22.8	22.8	-	7.6	0.0	-	100.0 (92)
	읍면지역	11.5	3.8	42.3	23.1	15.4	-	3.8	0.0	-	100.0 (26)
	χ^2	14.1									

주: ①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에 연동된 급여 수준 제고; ② 근로시간 단축 등에 연동된 복지(휴가 사용), 승급 등 인사관련 수준의 명확한 기준 설정; ③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홍보 강화); ④ 제도 이용의 일부 자동화·강제화; ⑤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직장 지원 강화; ⑥ 이용 대상 자녀 연령기준 상향; ⑦ 서비스 다양성 강화; ⑧ 기타; ⑨ 개선할 부분 없음.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5$

〈부표 V-2-11〉 가구특성별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 개선 필요 부분 (2022년) : 전체 자녀

단위: %, (가구)

구분		개선이 필요한 부분						계(수)
		현금 지원 수준 제고	자격 충족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지급되는 시스템	양육 비용 지원 대상 확대	자녀 연령별 양육비가 많이 소요되는 핵심 범주에 대한 집중 양육비 제공	기타	개선할 부분 없음	
전체		48.5	8.2	21.0	21.9	0.3	0.1	100.0 (734)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50.2	7.5	21.9	20.1	0.0	0.4	100.0 (279)
	외벌이	47.5	8.6	20.4	23.1	0.4	0.0	100.0 (455)
	χ^2	4.2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41.8	7.6	29.1	20.3	1.3	0.0	100.0 (79)
	300~399만원	53.2	8.3	19.3	18.8	0.5	0.0	100.0 (218)
	400~499만원	40.8	8.2	23.5	27.6	0.0	0.0	100.0 (196)
	500~599만원	48.2	6.1	21.9	23.7	0.0	0.0	100.0 (114)
	600만원 이상	56.7	10.2	14.2	18.1	0.0	0.8	100.0 (127)
	χ^2	27.4						
총 자녀수	1명	56.2	8.7	15.5	19.6	0.0	0.0	100.0 (219)
	2명	45.6	7.6	23.5	22.8	0.3	0.3	100.0 (395)
	3명 이상	44.2	9.2	22.5	23.3	0.8	0.0	100.0 (120)
	χ^2	12.3						
지역 규모	대도시	52.0	7.7	18.1	21.4	0.4	0.4	100.0 (248)
	중소도시	48.4	9.1	21.4	20.9	0.3	0.0	100.0 (364)
	읍면지역	41.8	6.6	25.4	26.2	0.0	0.0	100.0 (122)
	χ^2	8.4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조사 결과임.

〈부표 V-2-12〉 가구특성별 양육물품 지원 개선 필요 부분 (2022년) : 전체 자녀

단위: %, (가구)

구분		개선이 필요한 부분								계(수)
		물품 지원 서비스 분야 다양화	물품 지원량 실제 필요량 수준으로 제고	서비 스 홍보 강화	물품 당 지원 기간 연장	지원 자격기 준 확대	물품지원 전달체계 의 접근성 확대	기타	개선할 부분 없음	
전체		17.5	26.2	5.8	9.7	26.2	10.7	1.9	1.9	100.0 (103)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5.0	20.0	10.0	15.0	20.0	12.5	5.0	2.5	100.0 (40)
	외벌이	19.0	30.2	3.2	6.3	30.2	9.5	0.0	1.6	100.0 (63)
	χ^2	9.5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30.0	30.0	0.0	10.0	20.0	10.0	0.0	0.0	100.0 (10)
	300~399만원	21.4	33.3	7.1	4.8	21.4	9.5	0.0	2.4	100.0 (42)
	400~499만원	14.3	14.3	7.1	14.3	21.4	14.3	14.3	0.0	100.0 (14)
	500~599만원	5.3	21.1	10.5	10.5	36.8	10.5	0.0	5.3	100.0 (19)
	600만원 이상	16.7	22.2	0.0	16.7	33.3	11.1	0.0	0.0	100.0 (18)
	χ^2	26.4								
총 자녀수	1명	30.0	25.0	7.5	7.5	17.5	7.5	0.0	5.0	100.0 (40)
	2명	10.6	27.7	0.0	8.5	36.2	12.8	4.3	0.0	100.0 (47)
	3명 이상	6.3	25.0	18.8	18.8	18.8	12.5	0.0	0.0	100.0 (16)
	χ^2	24.6*								
지역 규모	대도시	10.3	30.8	7.7	10.3	28.2	12.8	0.0	0.0	100.0 (39)
	중소도시	22.0	24.0	4.0	6.0	28.0	8.0	4.0	4.0	100.0 (50)
	읍면지역	21.4	21.4	7.1	21.4	14.3	14.3	0.0	0.0	100.0 (14)
	χ^2	11.5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5$.

〈부표 V-2-13〉 가구특성별 임신·출산시기 부족한 육아지원 범주 (2022년)

단위: %, (가구)

구분		지원 부족으로 개선이 필요한 범주				
		비용지원	서비스지원	물품지원	시간지원	계(수)
전체		70.6	16.3	9.5	3.6	100.0 (221)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76.8	9.8	7.3	6.1	100.0 (82)
	외벌이	66.9	20.1	10.8	2.2	100.0 (139)
	χ^2	7.0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64.3	14.3	7.1	14.3	100.0 (14)
	300~399만원 이하	71.1	19.3	7.2	2.4	100.0 (83)
	400~499만원 이하	64.7	19.6	11.8	3.9	100.0 (51)
	500~599만원 이하	82.4	11.8	5.9	0.0	100.0 (34)
	600만원 이상	69.2	10.3	15.4	5.1	100.0 (39)
	χ^2	12.1				
총 자녀수	1명	72.7	17.2	8.1	2.0	100.0 (99)
	2명	69.6	14.7	10.8	4.9	100.0 (102)
	3명 이상	65.0	20.0	10.0	5.0	100.0 (20)
	χ^2	2.2				
지역규모	대도시	63.5	22.4	9.4	4.7	100.0 (85)
	중소도시	78.4	9.3	9.3	3.1	100.0 (97)
	읍면지역	66.7	20.5	10.3	2.6	100.0 (39)
	χ^2	7.3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부표 V-2-14〉 가구특성별 영아기 부족한 육아지원 범주 (2022년)

단위: %, (가구)

구분		지원 부족으로 개선이 필요한 범주				
		비용지원	서비스지원	물품지원	시간지원	계(수)
전체		47.7	28.7	14.1	9.5	100.0 (453)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43.2	32.6	10.0	14.2	100.0 (190)
	외벌이	51.0	25.9	17.1	6.1	100.0 (263)
	χ^2	14.8**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57.4	17.0	17.0	8.5	100.0 (47)
	300~399만원 이하	50.0	27.3	14.8	7.8	100.0 (128)
	400~499만원 이하	43.5	30.6	18.5	7.4	100.0 (108)
	500~599만원 이하	44.9	31.9	10.1	13.0	100.0 (69)
	600만원 이상	46.5	31.7	9.9	11.9	100.0 (101)
	χ^2	10.9				
총 자녀수	1명	43.5	32.8	14.0	9.7	100.0 (186)
	2명	49.3	27.3	12.9	10.5	100.0 (209)
	3명 이상	55.2	20.7	19.0	5.2	100.0 (58)
	χ^2	6.6				
지역규모	대도시	42.4	30.9	13.6	13.1	100.0 (191)
	중소도시	50.2	27.5	14.5	7.7	100.0 (207)
	읍면지역	56.4	25.5	14.5	3.6	100.0 (55)
	χ^2	8.2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 $p < .01$.

다. 돌봄공백 정책 요구

〈부표 V-2-15〉 가구특성별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상황 (2022년)(중복응답)

단위: %, (가구)

구분		돌봄공백 이유 (중복응답)					(수)
		①자녀돌 봄인력의 코로나확 진	②코로나 19이유로 기관 휴원	③자녀의 코로나 19확진	④부모의 코로나 19 확진	⑤기타	
전체		13.9	61.9	24.1	23.8	4.6	(323)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1.5	66.5	22.9	22.0	5.0	(218)
	외벌이	19.0	52.4	26.7	27.6	3.8	(105)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0.0	45.0	20.0	20.0	15.0	(20)
	300~399만원 이하	9.4	53.1	28.1	26.6	4.7	(64)
	400~499만원 이하	17.7	58.1	37.1	25.8	4.8	(62)
	500~599만원 이하	11.7	70.1	16.9	27.3	2.6	(77)
	600만원 이상	15.0	67.0	20.0	19.0	4.0	(100)
총 자녀수	1명	18.2	51.1	22.7	23.9	6.8	(88)
	2명	10.6	67.6	24.6	21.8	3.9	(179)
	3명 이상	17.9	60.7	25.0	30.4	3.6	(56)
지역규모	대도시	14.2	64.6	29.1	26.0	3.9	(127)
	중소도시	14.9	58.4	22.4	23.6	5.0	(161)
	읍면지역	8.6	68.6	14.3	17.1	5.7	(35)

주: ① 자녀를 돌봐주던 인력(육아도우미, 조부모 등)의 코로나 19 확진으로 인한 돌봄 불가 ② 자녀가 이용하는 기
관의 코로나 19로 인한 휴원으로 인한 등원 불가 ③ 자녀의 코로나 19 확진으로 휴원으로 인한 등원 불가 ④
부모의 코로나19확진 ⑤ 기타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부표 V-2-16〉 가구특성별 긴급한 돌봄공백 발생시 희망하는 자녀 돌봄 형태 (1+2순위) (2022년)

단위: %, (가구)

구분		부모직 접돌봄	조부모 등 친인척 돌봄	아이 돌보미 등 타인에 의한 개별돌봄	지역공동 체를 통한 돌봄	국가가 지정한 돌봄 기관 이용	아이들끼리 있어도 됨	기타	(수)
전체		86.5	55.3	9.2	7.4	30.6	4.2	0.1	(1,730)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81.0	58.1	10.6	7.7	30.8	4.7	0.1	(767)
	외벌이	90.9	53.1	8.1	7.2	30.5	3.7	0.1	(963)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90.3	53.1	8.3	8.3	29.7	4.1	0.0	(145)
	300~399만원	90.5	52.1	6.7	7.9	31.1	4.4	0.2	(495)
	400~499만원	84.2	53.2	10.0	8.1	34.1	3.1	0.0	(419)
	500~599만원	84.4	60.1	11.6	6.0	26.9	3.7	0.0	(301)
	600만원 이상	83.8	58.9	10.0	6.8	29.5	5.4	0.3	(370)
총 자녀수	1명	87.1	64.5	8.7	7.5	25.2	0.5	0.2	(583)
	2명	85.9	53.0	8.9	7.8	33.7	4.3	0.0	(900)
	3명 이상	87.0	42.1	11.3	5.7	32.4	12.1	0.4	(247)
지역 규모	대도시	89.3	64.6	7.8	3.8	25.5	3.4	0.1	(683)
	중소도시	83.5	50.9	10.7	9.6	32.2	5.2	0.1	(788)
	읍면지역	88.0	44.4	8.5	10.0	39.4	3.1	0.0	(259)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조사 결과임.

〈부표 V-2-17〉 긴급한 돌봄 공백 발생시 맞벌이 가구가 희망하는 부모직접돌봄 방식 (2022년)

단위: %, (가구)

구분		부모 중 누구든 연월차 휴가 사용	부모 중 누구든 가족돌봄휴 가(휴직) 사용	부모 중 누구든 육아휴직 사용	부모중 누구든 재택근무 사용	아이를 일터에 데려감	기타	계(수)
전체		34.6	34.5	11.8	14.2	4.2	0.8	100.0 (621)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2.2	33.3	38.9	5.6	0.0	0.0	100.0 (18)
	300~399만원	33.3	32.1	18.5	8.6	6.2	1.2	100.0 (81)
	400~499만원	38.2	30.9	11.0	14.7	4.4	0.7	100.0 (136)
	500~599만원	37.2	36.0	9.8	10.4	4.9	1.8	100.0 (164)
	600만원 이상	32.0	36.5	9.0	19.4	3.2	0.0	100.0 (222)
	χ^2	34.8*						
총 자녀수	1명	39.6	31.0	14.2	12.2	3.0	0.0	100.0 (197)
	2명	33.7	35.5	9.8	15.1	5.0	0.9	100.0 (338)
	3명 이상	26.7	38.4	14.0	15.1	3.5	2.3	100.0 (86)
	χ^2	12.9						
지역 규모	대도시	32.6	37.7	8.3	15.6	5.1	0.7	100.0 (276)
	중소도시	36.1	31.9	14.1	14.1	3.0	0.8	100.0 (263)
	읍면지역	36.6	31.7	15.9	9.8	4.9	1.2	100.0 (82)
	χ^2	10.4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조사 결과임.

* $p < .05$.

〈부표 V-2-18〉 가구특성별 사회적 긴급상황에서 개선이 필요한 육아지원 정책 (중복응답) (2022년)

단위: %, (가구)

구분		필요한 정책							(수)
		가족돌봄 휴가제도	육아휴직 제도	유연 근로제도	아이돌봄 지원제도	기관 돌봄	지역공동체 및 기타 아동 지원	기타	
전체		39.9	9.5	10.5	25.3	11.3	4.2	0.2	(1,730)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41.7	11.0	13.6	21.3	10.7	3.1	0.0	(767)
	외벌이	38.4	8.4	8.0	28.5	11.8	5.1	0.3	(963)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33.8	10.3	8.3	30.3	12.4	4.1	1.4	(145)
	300~399만원	41.6	9.5	8.1	24.4	12.3	4.6	0.0	(495)
	400~499만원	38.9	9.1	10.0	25.8	12.9	3.8	0.2	(419)
	500~599만원	41.5	10.3	13.6	22.9	10.0	2.7	0.0	(301)
	600만원 이상	39.7	9.2	12.4	25.7	8.9	5.4	0.0	(370)
총 자녀수	1명	39.3	13.0	11.0	21.6	11.7	3.6	0.0	(583)
	2명	40.9	8.1	10.8	25.9	10.8	4.4	0.3	(900)
	3명 이상	37.7	6.5	8.1	31.6	12.6	4.9	0.0	(247)
지역 규모	대도시	38.5	8.8	10.5	25.6	13.2	4.4	0.3	(683)
	중소도시	40.4	10.5	10.5	25.3	9.5	4.4	0.1	(788)
	읍면지역	42.1	8.5	10.0	24.3	12.0	3.1	0.0	(259)

자료: 본 연구의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조사 결과임.

〈부표 V-2-19〉 가구특성별 사회적 긴급상황 대비를 위해 필요한 육아지원 정책의
개선 방향 (2022년, 1+2순위)

단위: %, (가구)

구분		정책 개선 방향									(수)
		휴가 사용 일수의 연장	비용 지원의 확대	신청 절차의 간소화	자격해 당자의 제도사 용 의무화	어떤 제도이 든 신속 대응 체계의 마련	방역 체계를 보강하 여 기존 이용기 관이 휴원하 지 않고 운영	학습 결손 등을 방지하 기 위한 온라인 교육지 원 체계 구축	돌봄 취약 계층 아동에 대한 모니 터링 강화	기타	
전체		37.1	49.3	28.4	28.5	27.9	17.7	5.5	4.7	0.2	(1,730)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42.9	44.9	27.1	32.6	26.9	17.9	3.7	2.9	0.4	(767)
	외벌이	32.4	52.9	29.5	25.2	28.7	17.7	7.1	6.2	0.1	(963)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31.0	55.2	29.7	20.7	25.5	17.9	6.2	12.4	0.0	(145)
	300~399만원	31.1	53.3	30.3	24.8	29.3	18.8	6.7	5.3	0.2	(495)
	400~499만원	37.2	48.4	27.9	29.1	27.9	19.1	5.7	3.3	0.2	(419)
	500~599만원	42.2	49.2	26.6	29.9	26.6	16.9	4.3	3.7	0.3	(301)
	600만원 이상	43.0	42.7	27.6	34.6	27.8	15.4	4.6	3.5	0.3	(370)
총 자녀수	1명	39.8	50.6	32.4	27.4	26.9	13.7	5.0	3.3	0.3	(583)
	2명	36.3	49.1	26.2	29.4	27.9	19.1	6.0	5.2	0.1	(900)
	3명 이상	33.2	47.0	27.1	27.5	30.0	22.3	5.3	6.5	0.4	(247)
지역 규모	대도시	35.6	49.0	29.0	27.8	28.4	18.0	6.7	5.0	0.1	(683)
	중소도시	37.8	49.9	27.7	31.6	25.3	16.9	4.7	4.8	0.4	(788)
	읍면지역	38.6	48.3	29.3	20.8	34.4	19.7	5.0	3.9	0.0	(259)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 본 연구.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 부록 -